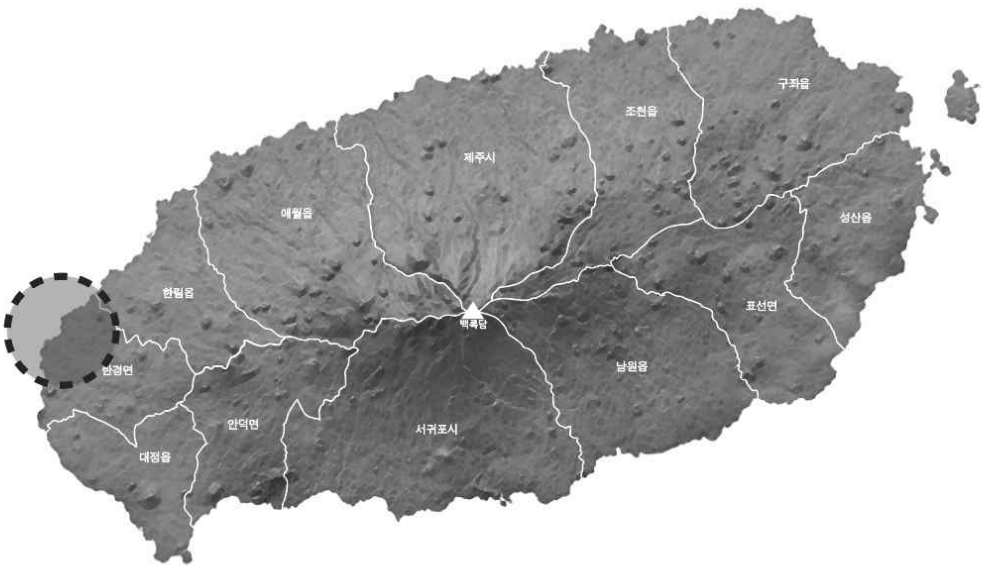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561-01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6

–한경면 신창리

구술: 진인중, 이순녀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김보향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1-28)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6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22
3. 밭일 ····· 52
4. 들일 ····· 95
5. 바다일 ····· 115
6. 의생활 ····· 146
7. 식생활 ····· 177
8. 주생활 ····· 277
9. 신앙 ····· 319
10. 세시풍속 ····· 331
11. 놀이 ····· 360
12. 통과의례 ····· 374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9년 3월 25일~2019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욱,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룡

5. 사업 추진 과정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여가 소요

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 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8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신촌리' 구술 자료가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	■								
추가 전사			■	■						
표준어 대역			■	■	■	■	■	■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	■	■	■	■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안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김보향, #1: 진인중, #2: 이순녀)

1. 조사 마을

101001 @ 삼춘 이 신창 마을을 잘 알 거 아니. 죽장 여기난예?(삼촌 이 신창 마을을 잘 알 거 아니. 줄곧 여기니까요?)

101001 #1 으.(으.)

101001 @ 이 바로 옆이서 태어난 여기로 시집온 거예?(이 바로 옆에서 태어나서 여기로 시집온 거요?)

101001 #1 으.(으.)

101001 @ 게난 이 신창 마을이 언제 생겻수과?(그러니까 이 신창 마을이 언제 생겼습니까?)

101001 #1 이디 원래 두모[1]. 두모라도, 두모서 갈랏젠 헌다.(여기 원래 두모. 두모라도, 두모에서 갈랐다고 해.)

101001 @ 게니까. 두모에서 갈른 거 신창이.(그러니까. 두모에서 가른 거 신창이.)

101001 #1 갈른 것이 우리 아바지네 시대난에. 난 말만 들엇주게.(가른 것이 우리 아버지네 시대니까. 난 말만 들었지.)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1 견디 우린 두모, 이건, 이건 골메[2]. 우리는 이디 두모 살고. 바로 이디 골메 부쪈. 이디는 또 신창. 경허연 우리 집으로 갈라낫주게.(그런데 우린 두모, 이건, 이건 '골메'. 우리는 여기 두모 살고. 바로 여기 '골메' 붙어서. 여기는 또 신창.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갈랐었지.)

101001 @ 아, 삼춘네 집으로 두모랑 신창이랑 갈련?(아, 삼촌네 집으로 두모랑 신창이랑 갈렸어?)

101001 #1 으. 경헨 갈란에 헌디 우리 아바지네 시대부터 으라 해 뒈서.(으. 그렇게 갈라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네 시대부터 여러 해 됐어.)

101001 @ 게난 영 물어보난, 두모 갔을 때 물어보난 노인훼장 말로는 혼 구십 년 뒛덴 헙디다.(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모 갔을 때 물어보니까 노인회장 말로는 한 구십 년 됐다고 합디다.)

---

1) '두모'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를 말한다.
2) '골메'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지명의 하나다.

101001 #1 구십 년 더 뒛저. 구십 년 아이, 우리가 이제 칠십, 팔십둘 아이가게.(구십 년 더 됐어. 구십 년 아니, 우리가 이제 칠십, 팔십둘 아니니.)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1 팔십둘인디 우리 아바지네 시대에 전이 갈랏젠 허는디.(팔십둘인데 우리 아버지네 시대 전에 갈랐다고 하는데.)

101001 @ 아버지 시대 전이?(아버지 시대 전에?)

101001 #1 으. 경헌디 이제 우리 아바지네가 아이구, 백 해도 더 뒛저. 백 혼 몇 십 년 뒛주.(으. 그런데 이제 우리 아바지네가 아이고, 백 해도 더 됐어. 백 한 몇 십 년 됐지.)

101001 @ 게민 원래는 두모에서 신창으로 갈린 거.(그럼 원래는 두모에서 신창으로 갈린 거.)

101001 #1 갈린 것이 혼 우리 아바지네 ᄒᆞ꼼 젊은 때 허난 이제. 우리 태어낭도 이거 팔십 두 해고 그 전이 허여도 혼 백오십 핸 넘엇저.(갈린 것이 한 우리 아버지네 조금 젊은 때 하니까 이제, 우리 태어나서도 이거 팔십 두 해이고 그 전에 해도 한 백오십 해는 넘었어.)

101001 @ 음. 이건 다른 어른안티도 한 번 더 물어보쿠다.(음. 이건 다른 어른한테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01001 #1 으, 더 물어보라.(으, 더 물어봐라.)

101002 @ 이 신창 동네에는 무슨 성씨가 많우과?(이 신창 동네에는 무슨 성씨가 많습니까?)

101002 #1 고씨가 하지 안허카?(고씨가 많지 않을까?)

101002 @ 고씨가?(고씨가?)

101002 #1 고씨.(고씨.)

101002 @ 고씨가 동네에 하예?(고씨가 동네에 많아요?)

101002 #1 으, 으. 고씨, 김씨.(으, 으. 고씨, 김씨.)

101002 @ 아, 고씨, 김씨. 여기 한 멧 가구 뒘수꽈?(아, 고씨, 김씨. 여기 한 몇 가구 됩니까?)

101002 #1 이젠 멧 가구산디 엿날은 삼백 혼 이십 가호쯤.(이젠 몇 가구인지 옛날은 삼백 한 이십 가호쯤.)

101002 @ 아, 옛날에 삼백이십 가구. 옛날이 언제쯤이라?(아, 옛날에 삼백이십 가구. 옛날이 언제쯤이야?)

101002 #1 옛날이 혼 십 년 전이꺼진 삼백 헌디 이젠 육지서덜 하간 사름이 다 와 놓난게 호수가 몰르지.(옛날 한 십 년 전까진 삼백 했는데 이젠 육지에서들 여러 사람이 다 오니까 호수가 모르지.)

101002 @ 아, 게민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구나?(아, 그럼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구나?)

101002 #1 늘어낫주게.(늘어났지.)

101002 @ 사람덜 더 많아진 거예?(사람들 더 많아진 거요?)

101002 #1 으.(으.)

101002 @ 아, 게민 여기 신창이 두모보단 크다예?(아, 그럼 여기 신창이 두모보다 크네요?)

101002 #1 널르주게게.(넓지.)

101002 @ 여기가 널러예.(여기가 넓어요.)

101002 #1 두몬 멧 호나 뒈는고 몰라.(두모는 몇 호나 되는지 몰라.)

101002 @ 한 백오십 호 정도 뭰덴 헙디다.(한 백오십 호 정도 된다고 합디다.)

101002 #1 경헌디 그디 가잣바우허고 신작로 얼마 싯고 신창이 널르주게. 이디 상동, 신흥동허고 허민 오죽 하냐게.(그런데 거기 갯가하고 신작로 얼마 있고 신창이 넓지. 여기 상동, 신흥동하고 하면 얼마나 많니.)

101002 @ 게민 신창이 여기 동이 뭐 뭐 잇수과, 상동?(그럼 신창이 여기 동이 뭐 뭐 있습니까, 상동?)

101002 #1 이봐이 신창리엔 허영이 저 신흥동, 이제 상동, 중동, 하동.(이봐 신창리라고 해서 저 신흥동, 이제 상동, 중동, 하동.)

101002 @ 중동, 하동. 허민 네 개동으로 나뉜 거?(중동, 하동. 그럼 네 개동으로 나뉜 거?)

101002 #1 응.(응.)

101002 @ 신흥동도 잇고 상동, 중동, 하동. 네 개동으로 나눈 거. 경헨 삼백이십 가구. 많은 건 고씨.(신흥동도 있고 상동, 중동, 하동. 네 개동으로 나눈 거. 그래서 삼백이십 가구. 많은 건 고씨.)

101002 #1 김씨.(김씨.)

101003 @ 김씨. 여기 신창 사름덜 주로 무슨 일헙니까?(김씨. 여기 신창 사람들 주로 무슨 일합니까?)

101003 #1 농사일게.(농사일.)

101003 @ 농사일.(농사일.)

101003 #1 다 이디 사름덜 뭣 허느니.(다 여기 사람들 뭐 하니.)

101003 @ 그니까.(그러니까.)

101003 #1 바당에 허고.(바다에 하고.)

101003 @ 바당 일 허당.(바다 일 하다가.)

101003 #1 바당에 보제기덜은 궤기 나끄레 가고. 이제 여저덜은 물질허고 농사짓고.(바다에 어부들은 고기 낚으러 가고. 이제 여자들은 물질하고 농사짓고.)

101003 @ 농사짓고. 신창엔 주로 어떤 농사덜 지엄신고예?(농사짓고. 신창엔 주로 어떤 농사들 짓고 있나요?)

101003 #1 이젠 ᄉᆞ못 콜레비로 부루코로. 나 일름도 다 몰라.(이젠 사뭇 콜라비로 브로콜리로. 나 이름도 다 몰라.)

101003 @ 몰라, 하하하.(몰라, 하하하.)

101003 #1 아이고, 돈 버는 거 보민 쪽파로 양파로. 돈이 일 년이민 일 억도 더 벌엄세게.(아이고, 돈 버는 거 보면 쪽파로 양파로. 돈이 일 년이면 일 억도 더 벌고 있어.)

101003 @ 그런 콜라비 같은 거 허는 사름덜예?(그런 콜라비 같은 거 하는 사람들요?)

101003 #1 어게. 비니루하우스 헤여 놓고 냉동기 다 짓어 놓고게.(그래. 비닐하우스 해 놓고 냉동기 다 지어 놓고.)

101003 @ 그거 젊은 사름덜 아니?(그거 젊은 사람들 아니?)

101003 #1 다 젊은 사름이주.(다 젊은 사람이지.)

101003 @ 젊은 사름덜.(젊은 사람들.)

101003 #1 젊은 사름이난이주. 농서 뭐여 우리 거튼 거 농서 다 설러벤게.(젊은 사람이니까. 농사 뭐 우리 같은 거 농사 다 그만둬버렸어.)

101003 @ 으. 경헨 벌어들이는 거라. 옛날에 이 신창에는 어떤 농서덜 지엇수과?(으. 그래서 벌어들이는 거야. 옛날에 이 신창에는 어떤 농사들 지었습니까?)

101003 #1 옛날은게 보리, 감제, 조베끼 더 헤사, 돈 나는 게. 절간감제 허고 생채 풀 땐 생채로 감저 풀고 거 뿐이랏주게.(옛날은 보리, 고구마, 조밖에 더 했니, 돈 나오는 게. 절간고구마 하고 생채로 고구마 팔고 거 뿐이었지.)

101003 @ 음. 겐디 이젠 막 콜라비도 허고 브로커리도 허고 경 헴서예?(음. 그런데 이젠 마구 콜라비도 하고 브로콜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1003 #1 보리거 튼 건 안 허고게.(보리 같은 건 안 하고.)

101003 @ 보리 거튼 건 안 허고.(보리 같은 건 안 하고.)

101003 #1 보리, 감제 거튼 거 안 허고 이젠 콜레비, 뭐 허여 나민 지장덜 갈앙 돈 벌고. 건 굴루이[3]덜.(보리, 고구마 같은 거 안 하고 이젠 콜라비, 뭐 하고 나고 기장들 갈아서 돈 벌고. 건 별도로들.)

101003 @ 지장?(기장?)

101003 #1 으.(으.)

101003 @ 굴루이가 뭐?('굴루이'가 뭐?)

101003 #1 건 이, 저 농서도 저 농서도 안 허영 놀 때에. 건 흔 너 해 허는 거난. 멧 개월 오래 안 허는 거난.(건 이, 저 농사도 저 농사도 안 하고 놀 때에. 건 한 너 해 하는 거니까. 몇 개월 오래 안 하는 거니까.)

101003 @ 으.(으.)

101003 #1 이, 삼월에 다마네기 뽑앙 허여 나민 이제 오월덜 나민 지장 장만허는 거난. 곧 헤영 건 곧 고고리 낭.(이, 삼월에 양파 뽑아서 하고 나면 이제 오월 되면 기장 장만하는 거니까. 곧 해서 건 곧 이삭 나서.)

101003 @ 거 금방 크는구나?(거 금방 크는구나?)

101003 #1 금방 컨 금방 허는 거난.(금방 커서 금방 하는 거니까.)

---

3) '굴루이'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별도로'라는 의미다.

101003 @ 으.(으.)

101003 #1 그런 거 굴루이 허곡게 오죽 헨 벌엄사게.(그런 거 별도로 하고 오죽 해서 벌고 있니.)

101004 @ 여기에 신창에 오름이 뭐 잇수과?(여기에 신창에 오름이 뭐 있습니까?)

101004 #1 이디 신창 오름이 엇어.(여기 신창 오름이 없어.)

101004 @ 엇어. 아, 아까, 아까 농사는 경허고 이디 바닷일도 허잖아예. 아까 보제기는 궤기 나끄고?(없어. 아, 아까, 아까 농사는 그렇고 여기 바닷일도 하잖아요. 아까 어부는 고기 낚고?)

101004 #1 으. 구물덜도 허곡게.(으. 그물들도 하고.)

101004 @ 뭐, 뭐 그물도 허고? 해녀덜은 강 뭐 잡읍니까?(뭐, 뭐 그물도 하고? 해녀들은 가서 뭐 잡습니까?)

101004 #1 이젠 금치주게. 오월로 시월까진 금치 기간이라이.(이젠 금어지. 오월에서 시월까지 금어 기간이야.)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1 경헌디 성게, 구제기, 줌복도 그 기간엔 못 허곡게. 이 해삼 그건 거주게.(그런데 성게, 소라, 전복도 그 기간에는 못 하고. 그 해삼 그건 거지.)

101004 @ 그런 거 헐 거예?(그런 거 할 거요?)

101004 #1 으, 천초 성기.(으, 우뭇가사리 성게.)

101004 @ 천초, 삼춘 우미엔 안 헴수다예?('천초', 삼촌 '우미'라고 안 하네요?)

101004 #1 천초. 우미엔도 허고 천초엔. 엿날 할망이 우미, 우미 헷주게. 요샌 천초.(우뭇가사리. '우미'라고도 하고 '천초'라고. 옛날 할머니가 '우미', '우미'라고 했지. 요샌 '천초'.)

101004 @ 천초렌 허고예. 그거 헷던 거고. 여기에, 신창엔 오름은 엇고.('천초'라고 하고요. 그거 했던 거고. 여기에, 신창에는 오름은 없고.)

101004 #1 오름 엇어.(오름 없어.)

101004 @ 내창은?(내는?)

101004 #1 내창도 엇어.(내도 없어.)

101004 @ 여기 큰 바위, 일름 잇는 바위덜 뭐 잇수과? 어디 지경 얘기헐 때 무슨 무슨 바위, 큰 돌?(여기 큰 바위, 이름 있는 바위들 뭐 있습니까? 어디 지경 얘기할 때 무슨 바위, 큰 돌?)

101004 #1 큰 돌은 아녀고 이디 이 마리여코지[4].(큰 돌은 아니고 여기 이 '마리여코지'.)

101004 @ 마리여코지?('마리여코지'?)

101004 #1 으.(으.)

101004 @ 거기는 뭐?(거기는 뭐?)

101004 #1 영 내앚은 디주게. 뚜로 영 내앚은 디난 마리여코지.(이렇게 내앉은 데지.

4) '마리여코지'는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지명의 하나다.

따로 이렇게 내앉은 데니까 '마리여코지'.)

101004 @ 게민 바닷가과?(그럼 바닷가입니까?)

101004 #1 으, 바닷가게.(으, 바닷가.)

101004 @ 게니까 코지난 영 돋은 딘게예.(그러니까 곶이니까 이렇게 돋은 데네요.)

101004 #1 어.(어.)

101004 @ 다시 한 번 골아 줍서.(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101004 #1 마리여코지. 이딘 옛날은 신창 상코지[5], 마리여코지 헤낫주게. 견디 상코지는 이제 축항 헤영 오꼿 헤여부난 상코진 엇어지고.('마리여코지'. 여긴 옛날은 신창 '상코지', '마리여코지' 했었지. 그런데 '상코지'는 이제 축항 해서 그만 해버리니까 '상코지'는 없어지고.)

101004 @ 게민 여기가 바로 상코지 자린게예.(그럼 여기가 바로 '상코지' 자리네요.)

101004 #1 어. 경허난에 저 시에 강 사는 이제 향우훼선 엿날 상코지엔 헌 거세기가 엇어지난 잘도 뭣 허다고 허는디.(어. 그러니까 저 시에 가서 사는 이제 향우회에선 옛날 '상코지'라고 하는 거시기가 없어지니까 아주 뭐 하다고 하는데.)

101004 @ 으.(으.)

101004 #1 이젠 마리여코지 하나. 그딘 안 허난에 이젠 그디 ᄃᆞ리, ᄃᆞ리 놩 영 건너민 그디 가지는디. 이젠 바당으로 ᄃᆞ리 놧주게. 바당 우이로 건너. 막 겨난 관광객덜 하영 와.(이젠 '마리여코지' 하나. 거긴 안 하니까 이젠 거기 다리, 다리 놔서 이렇게 건너면 거기 갈 수 있는데. 이젠 바다로 도리 놨었어. 바다 위로 건너. 아주 그러니까 관광객들 많이 와.)

101004 @ 음, 나중에 강 사진 찍으쿠다.(음, 나중에 가서 사진 찍겠습니다.)

101004 #1 으.(으.)

101004 @ 굴도 엇수과, 이 동네?(굴도 없습니까, 이 동네?)

101004 #1 이 동넨 성굴왓[6] 굴.(이 동넨 '성굴왓' 굴.)

101004 @ 성굴왓 굴.('성굴왓' 굴.)

101004 #1 신흥동 굴.(신흥동 굴.)

101004 @ 두 군데?(두 군데?)

101004 #1 하나 하나.(하나 하나.)

101004 @ 아, 성굴왓이랑 신흥동 굴이 ᄀᆞ튼 굴?(아, '성굴왓'이랑 신흥동 굴이 같은 굴?)

101004 #1 ᄀᆞ튼 ᄆᆞ을이주게. ᄀᆞ튼 부락이주게. 성굴왓이엔 허고 엿날은 성굴왓이엔 헤낫주게. 경헌디 이젠 신흥동이엔 허여.(같은 마을이지. 같은 부락이지. '성굴왓'이라고도 하고 옛날은 '성굴왓'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이젠 신흥동이라고 해.)

101004 @ 아 아, 이제 신흥동이엔 불러.(아 아, 이제 신흥동이라고 불러.)

101004 #1 으.(으.)

---

5) '상코지'는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지명의 하나다.

6) '성굴왓'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굴 이름이다.

101004 @ 여기 신창은 옛날 불러난 일름이 엇수과?(여기 신창은 옛날 불렀던 이름은 없습니까?)

101004 #1 어, 신창.(어, 신창.)

101004 @ 그냥 신창? 옛날 일름 들어난 거 엇인가?(그냥 신창? 옛날 이름 들었던 거 없나?)

101004 #1 엇언게. 이디 우인 웃가름[7]이엔 헤낫주게. 상동은. 웃가름이엔 헤난디 이젠 상동이엔 골아.(없어. 여기 위엔 '웃가름'이라고 했었지. 상동은. '웃가름'이라고 했었는데 이젠 상동이라고 말해.)

101004 @ 여기는 어느 동이과?(여기는 어느 동입니까?)

101004 #1 이건 중동.(이건 중동.)

101004 @ 중동. 옛날에는?(중동. 옛날에는?)

101004 #1 옛날엔 그자.(옛날엔 그냥.)

101004 @ 엇어난 거?(없었던 거?)

101004 #1 엇어난디 동으로 갈르난 이거 중동.(없었는데 동으로 가르니까 이거 중동.)

101005 @ 그럼 여기에 무슨 기관. 학교나 병원이나 신창에 소속뒌 거? 학교는 잇잖아예?(그럼 여기에 무슨 기관. 학교나 병원이나 신창에 소속된 거? 학교는 있잖아요?)

101005 #1 아이고. 학교는 엿날로부터 일등, 제주도엔 일등 가난 학교주게. 경치 좋고. 이디 우리 성할아버지네 마당 내놓고 우리 큰시아방이 집 짓는 터 내놓고 허여 짓으난 이제 비석도 다 세와젼 싯주게. 땅은 우리 하르방이 하영 내여논디 우리 큰시아방이 집 땅 지 내놓켄 헨 설계 허여부난 비석은 땅 족게 내놔도 일번으로 세와서.(아이고. 학교는 옛날에서부터 일등, 제주도에 일등 갔던 학교지. 경치 좋고. 여기 우리 성할아버지네 마당 내놓고 우리 큰시아버지가 집 짓는 터 내놓고 해서 지으니까 이제 비석도 다 세워져 있어. 땅은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내놓았는데 우리 큰시아버지가 집 땅 자기가 내놓겠다고 해서 설계 하니까 비석은 땅 작게 내놓아도 일번으로 세웠어.)

101005 @ 하하하.(하하하.)

101005 #1 그다음은 우리 하르방.(그다음은 우리 할아버지.)

101005 @ 게민 하르방이랑 시, 시댁에 누구, 누구?(그럼 할아버지랑 시, 시댁에 누구, 누구?)

101005 #1 큰시아방.(큰시아버지.)

101005 @ 큰시아방. 게난 두 집이서가 다, 두 집이서가 다 헤신게. 경헨 신창 중학교예?(큰시아버지. 그러니까 두 집에서가 다, 두 집에서가 다 했네요. 그래서 신창중학교요?)

101005 #1 아니, 국민혹교.(아니, 국민학교.)

101005 @ 신창국민학교.(신창국민학교.)

101005 #1 중학꾼 허단 이디 폐지뒈연. 이제 싯고게.(중학교는 하다가 여기 폐지되

7) '웃가름'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지명의 하나다.

었어. 이제 있고.)

101005 @ 이제 싯고. 으, 이제 중학교 엇수과, 있지예?(이제 있고. 으, 이제 중학교 없습니까, 있지요?)

101005 #1 이제 중흑교 셔도 학교 하나에서 다 짓언 헴세. 메왕.(이제 중학교 있어도 학교 하나에서 다 짓고 하고 있어. 메워서.)

101005 @ 예, 메왕.(예, 메워서.)

101005 #1 경허난 저건 교육청에서 산 아메도 저딘이 저 무시걸로 헌덴 허는디 몰라.(그러니까 저건 교육청에서 사서 아무래도 저긴 저 무엇으로 한다고 하는지 몰라.)

101005 @ 아.(아.)

101005 #1 저이, 것ᄀᆞ라 뭐고? 이디 왕 하간 거, 아이고, 이젠 곧젠 헤도 잊어벤.(저, 것보고 뭐지? 여기 와서 온갖 거, 아이고, 이젠 말하려고 해도 잊어버렸어.)

101005 @ 잊어불언. 튼내지걸랑 골읍서. 겨난 이디가 원래 국민학교 자리라난?(잊어버렸어. 생각나면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국민학교 자리였어?)

101005 #1 으.(으.)

101005 @ 중학교는 다른 디 잇어난?(중학교는 다른 데 있었어?)

101005 #1 우리 시집간 후제 저거 다 매립헨 짓은 집이주게.(우리 시집간 후에 저거 다 매립해서 지은 집이지.)

101005 @ 중학교 어디과?(중학교 어딥니까?)

101005 #1 ᄒᆞ꼼, ᄒᆞ꼼 더 가민 이디 셔. 일로도 가민 뒤 골목 가져. 뒷질 가져. 이 올레[8]로 가민.(조금, 조금 더 가면 여기 있어. 일로도 가면 뒤 골목 갈 수 있어. 뒷길 갈 수 있어. 이 '올레'로 가면.)

101005 @ 예, 게민 여기 중학교 잇고. 여기 국민학교 잇고 헌 거라예?(예, 그럼 여기 중학교 있고. 여기 국민학교 있고 한 거지요?)

101005 #1 으, 경헌디 이젠 메와졋주게.(으, 그런데 이젠 메워졌지.)

101005 @ 여기는 이제 뭐 허는지 모르고?(여기는 이제 뭐 하는지 모르고?)

101005 #1 어. 경헌디 그건 서울서여 어디서여 왕근에 그 무시거 허는 거엔 헤라만은 오꼿 잊어변, 나가.(어. 그런데 그건 서울에서며 어디에서며 와서 그 무엇 하는 거라고 하더라만 그만 잊어버렸어, 내가.)

101005 @ 교육허는 디 만든 거예.(교육하는 데 만든 거요.)

101005 #1 으, 경헐 거엔.(으, 그럴 거라고.)

101005 @ 헐 거엔 아직 안 허고?(할 거라고 아직 안 하고?)

101005 #1 으, 아직은 안 허고. 이제 그 무슨 교육관에서, 하여튼 무시거 헌덴 우리 족은아덜 말이 그런 거 허게 뭘 거우다 헨 골안게.(으, 아직은 안 하고. 이제 그 무슨 교육관에서, 하여튼 뭐 한다고 우리 작은아들 말이 그런 거 하게 될 거우다 해서 말하더라.)

101005 @ 게민 여기 문 닫안, 오랫동안 문 닫안 잇어난 것과?(그럼 여기 문 닫아서,

8)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오랫동안 문 닫아 있어던 겁니까?)

101005 #1 아니, 어떤 사름사 왕 살암신지 ᄒᆞ꼼 살기덜은. 사용헴서, 이제.(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사는지 조금 살기는. 사용하고 있어, 이제.)

101005 @ 으, 예. 병원은 엇수과, 신창리에?(으, 예. 병원은 없습니까, 신창리에?)

101005 #1 병원은 ᄉᆞ못 한의원이여 병원이여 이디게. 끈어져 보지 안허여, 이딘. 엿날로부터.(병원은 사뭇 한의원이며 병원이며 여기. 끊어져 보지 않았어, 여긴. 옛날에서부터.)

101005 @ 아, 옛날로부터?(아, 옛날에서부터?)

101005 #1 어.(어.)

101005 @ 무슨 병원이 잇수과, 여기?(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여기?)

101005 #1 전이 하르방덜 시대엔 홍이생, 이젠 한의원은 문약국.(전에 할아버지들 시대엔 홍이생, 이젠 한의원은 문약국.)

101005 @ 음.(음.)

101005 #1 경허고 약방도 셔난디. 약방도 두 밧디. 경헌디 이젠 글후젠 저디 고의원 저쪽에 병원 셔나고, 견디 고의원 이젠 저 보건소에도 고의원 셔나고 경헤난디 이젠 병원덜이 막 생겨. 이디 병원 허고 저디 한의원 허고 허난. 어디 가지덜 안 허여.(그리고 약방도 있었는데. 약방도 두 군데. 그런데 이젠 그 후에 저기 고의원 저쪽에 병원 있었고, 그런데 고의원 이젠 저 보건소에도 고의원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젠 병원들이 많이 생겨. 여기 병원 하고 저기 한의원 하고 하니까. 어디 가지들 않아.)

101005 @ 다 이 동네에서.(다 이 동네에서.)

101005 #1 으, 해녀덜이고 무시거고.(으, 해녀들이고 뭐고.)

101005 @ 이디 보건소도 잇수과?(여기 보건소도 있습니까?)

101005 #1 보건소 싯주게.(보건소 있지.)

101005 @ 으, 보건소도 잇고 허니까. 또 은행도 잇고?(으, 보건소도 있고 하니까. 또 은행도 있고?)

101005 #1 은행 잇고 수협 잇고.(은행 있고 수협 있고.)

101005 @ 으, 두 군데 잇고. 우체국 잇수과?(으, 두 군데 있고. 우체국 있습니까?)

101005 #1 우체국은 엿날 우리 하르방네 시대 때 고산[9] 가는 우체국 싸우멍 둘리멍 헤낫주게.(우체국은 옛날 우리 할아버지네 시대 때 고산 가는 우체국 싸우면서 매달리면서 했었지.)

101005 @ 하하하.(하하하.)

101005 #1 고산광은 막 대립헤낫저게.(고산과는 아주 대립했었어.)

101005 @ 이 신창이.(이 신창이.)

101005 #1 경헤난난 영 등 허영 그 체육관도 그디 끗어가부난 우리 데모허멍 막 헨 이젠 좋도록 허영 화해허연. 엿날론 적이랏주게.(그랬었으니까 이렇게 등 해서 그 체육관도 거기 끌어가버리니까 우리 데모하면서 아주 해서 이제 좋도록 해서 화해했어. 옛

9) '고산'은 제주시 한경면 행정 마을 중의 하나인 '고산리'를 말한다.

날엔 적이었지.)

101005 @ 게난.(그러니까.)

101005 #1 하르방덜 다 보리낭 눌 소곱에 곱앙 문 운동헤낫어.(할아버지들 다 보릿짚 가리 속에 숨어서 모두 운동했었어.)

101005 @ 게난 이 신창 마을이 한경면에서는 잘도 큰 마을이구나.(그러니까 이 신창 마을이 한경면에서는 잘도 큰 마을이구나.)

101005 #1 큰 ᄆᆞ을이주게. 한경 신창이엔 허민 ᄉᆞ못.(큰 마을이지. 한경 신창이라고 하면 사뭇.)

101005 @ 아, 기구나. 우린 한경하면은 한경면하면은 아멩헤도 고산을 먼저 뭐 허는디 신창 큰 마을인게.(아, 그렇구나. 우린 한경하면 한경면하면은 아무래도 고산을 먼저 뭐 하는데 신창 큰 마을이네.)

101005 #1 게난 우린 이제덜이나 허고 땅이 넓은 디난 허고 우리 땅이 넓지 안 허고 다 돌밧이고 허난 허주 신창이 막 유지자덜이 쎄여낫주기게.(그러니까 우린 아제들이니까 하고 땅이 넓은 데니까 하고 우리 땅이 넓지 않고 다 돌밧이고 하니까 하지 신창이 아주 유지들이 세었었어.)

101005 @ 으.(으.)

101005 #1 옛날 그 하르방덜이 다 죽어벤.(옛날 그 할아버지들이 다 죽어버렸어.)

101005 @ 기라예. 옛날에 마을에 접, 접들이 잇어낫수과?(그렇지요. 옛날에 마을에 계, 계들이 있었습니까?)

101005 #1 접들이 뭐고?('접'들이 뭐니?)

101006 @ 계, 계. 마을계. 예를 들면 뭐 바당일 허젠 허민 무슨 접 헹?(계, 계. 마을계. 예를 들면 뭐 바닷일 하려고 하면 무슨 계 해서?)

101006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1006 @ 아니면 뭐 추렴허젠 허민 무슨 접?(아니면 뭐 추렴하려고 하면 무슨 계?)

101006 #1 아니.(아니.)

101006 @ 그런 접 엇어낫수과?(그런 계 없었습니까?)

101006 #1 그런 거 엇어난.(글너 거 없었어.)

101006 @ 엇어난? 이디 신창에 어떤 풍습 같은 거 엇수과?(없었어? 여기 신창에 어떤 풍습 같은 거 없습니까?)

101006 #1 풍습은 뭐. 이딘 옛날도 할망당[10]이엔 헌 디덜 막 뎅겨난디이. 할망당도 이딘 안 헌다. 그런 마귀 그런 건 위허질 안 허여, 이딘. 이 동넨.(풍습이 뭐. 여긴 옛날도 '할망당'이라고 하는 데들 많이 다녔었는데. '할망당'도 여긴 안 해. 그런 마귀 그런 건 위하지 않아, 여긴. 이 동넨.)

101006 @ 이쪽이 아멩헤도 천.(이쪽이 아무래도 천.)

101006 #1 이 뭐 제지내거나 그런 것도 엇고.(이 뭐 제지내거나 그런 것도 없고.)

101006 @ 마을제도 엇고?(마을제도 없고?)

---

10) '할망당'은 마을을 맡아 지킨다는 여신을 모신 곳을 말한다.

101006 #1 엇고. 이 신창더레 두모러렌 다 성당만 좀 허주.(없고. 이 신창에 두모에 다 성당만 좀 하지.)

101006 @ 게난예. 여긴 천주교가 빨리 들어온 거 같애예.(그러니까요. 여긴 천주교가 빨리 들어온 거 같아요.)

101006 #1 막 깨끗허여 이딘. 심방 거튼 것도 허는 사름 엇고.(아주 깨끗해 여긴. 무당 같은 것도 하는 사람 없고.)

101006 @ 아, 그런 것도 엇고.(아, 그런 것도 없고.)

101006 #1 으, 심방 헤나민 막 웃주게.(으, 무당 하면 아주 웃지.)

101006 @ 게민 옛날부터 삼춘 당 다니고 안 헤낫수과?(그럼 옛날부터 삼촌 당 다니고 안 했었습니까?)

101006 #1 당 뭐고?(당 뭐지?)

101006 @ 당. 당, 할망당 같은 데 다녀나고 안 헤난?(당. 당, '할망당' 같은 데 다녔었어 안 했어?)

101006 #1 아, 할망당 헐 때 나 아기 키울 때 혼 멧 번 가봣주. 글후제 아이 간.(아, '할망당' 할 때 나 아기 키울 때 한 몇 번 가봤지. 그 후에 안 갔어.)

101006 @ 아. 기민 당은 잇긴 잇어낫수다예?(아. 그럼 당은 있긴 있었네요?)

101006 #1 당 셔난디 그 저 예배당 믿는 저 두모, 그디서가 다 부수와벳주.(당 있었는데 그 저 예배당 믿는 저 두모, 거기에서가 다 부숴버렸어.)

101006 @ 음.(음.)

101006 #1 다 부수와 불고 다 멜라도 심방덜이 강 앚아나긴 허영 저 거 이디 저디도. 믿곡 헌 사름은 어떵 그디 가긴 허여난 셍이라.(다 부숴 버리고 다 납작하게 했어도 무당들이 가서 앉긴 해서 저 거 여기 저기도 안 믿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 가긴 했던 모양이야.)

101006 @ 어느 쪽에 잇어난지는 알아지지예?(어느 쪽에 있었는지는 알지요?)

101006 #1 이제 이디 가민 욜로 내려가민 우체국 골목으로 영 내려가민 그디 궤기 질루는 디 셔.(이제 여기 가면 욜로 내려가면 우체국 골목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 고기 기르는 데 있어.)

101006 @ 으.(으.)

101006 #1 궤기 질루는 디 ᄒᆞ꼼 저펜이. 돌, 돌 영 다곡게. 가민 물색 험벅 찔르곡 허영 뎅이는 사름 뎅이곡 허여도.(고기 기르는 데 조금 저쪽에. 돌, 돌 이렇게 쌓고. 가면 물색 헝겊 찌르고 해서 다니는 사람 다니고 해도.)

101006 @ 아직도 자리는 있는 거구나예?(아직도 자리는 있는 거군요?)

101006 #1 자리는 잇는 거주게. 부수와베도 새로 영 허영게 셔도 아니 다녀. 경허난 엿날은 이 당이 쎄여놓난 이 두미[11] 신창 영장이나 그런 거 올르지도 안헌덴 허주게. 깨끗헤연.(자리는 있는 거지. 부숴버려도 새로 이렇게 해서 있어도 안 다녀. 그러니까 옛날은 이 당이 세니까 이 두모 신창 신체나 그런 거 오르지도 않는다고 하지. 깨끗해

11) '두미'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의 옛 이름이다.

서.)

101006 @ 음. 바다에서 누구 빠졍 뭐 헤도 올르지 안헤?(음. 바다에서 누구 빠져서 뭐 해도 오르지 않아?)

101006 #1 으, 올르지 안허영.(으, 오르지 않아.)

101006 @ 그 당 일름을 뭐렌 골아낫수과?(그 당 이름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101006 #1 할망당이엔 허주.('할망당'이라고 하지.)

101006 @ 할망당예?('할망당'요?)

101006 #1 으.(으.)

101006 @ 거기 한 곳밖에 엇수과?(거기 한 곳밖에 없습니까?)

101006 #1 한 곳베끼 엇어.(한 곳밖에 없어.)

101006 @ 게난 이 동네에서는 굿도 경 베랑 안 헤낫구나.(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굿도 그렇게 별로 안 했었구나?)

101006 #1 아이고, 굿 안허여.(아이고, 굿 안 해.)

101006 @ 안 헤나고? 그럼 성당 뎅기는 사름덜은 하과?(안 했었고? 그럼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101006 #1 거저주게.(거의지.)

101006 @ 아, 거저 다 성당 다녀?(아, 거의 다 성당 다녀?)

101006 #1 으, 여기 혼 멧 집 기자.(으, 여기 한 몇 집 거의.)

101006 @ 절간은 엇수과?(절간은 없습니까?)

101006 #1 여긴 절도 엇어. 고산은 절 셔도? 고산은 절 멧 개썩 셔.(여긴 절도 없어. 고산은 절 있어도? 고산은 절 몇 개씩 있어.)

101006 @ 기민 절간 다니는 사람도 베랑 엇다예?(그럼 절간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네요?)

101006 #1 으, 게도 혼, 혼 동네 영 도나리[12]에 혼 두 사름썩은 싯주기게.(으, 그래도 한, 한 동네 이렇게 근처에 한 두 사람씩은 있지.)

101006 @ 아, 경헤도 아멩헤도 거의 성당예?(아, 그래도 아무래도 거의 성당요?)

101006 #1 으.(으.)

101006 @ 삼춘도 성당 뎅겸수과?(삼촌도 성당 다니고 있습니까?)

101006 #1 나 성당에 전이 견진꺼지 다 받앗주기게. 경허단에 중간에 놀앙 이제도록 놀암주게. 하르방[13]은 쭉 뎅기고.(나 성당에 전에 견진까지 다 받았지. 그러다가 중간에 놀아서 이제도록 놀고 있어. 할아버지는 쭉 다니고.)

101006 @ 하하하.(하하하.)

101006 #1 하르방은 일 성당식으로 다 허고 저기 예수님도 저디 성모님도 다 허고.(할아버지는 일 성당식으로 다 하고 저기 예수님도 저기 성모님도 다 하고.)

101006 @ 예. 이신게.(예. 있네요.)

---

12) '도나리'는 일본어 'となり'로 '근처, 이웃'의 의미다

13)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자신을 남편을 가리킨다.

101006 #1 경허난에 나도 뎅기단 아니 허긴 허여도 나도게 정신은게.(그러니까 나도 다니다가 안 하긴 해도 나도 정신은.)

101006 @ 그게 근본예. 천주교가예?(그게 근본요. 천주교가요?)

101006 #1 메누리덜도 다 성당 뎅기고. 우리 족은메누리 하나 법당.(며느리들도 다 성당 다니고. 우리 작은며느리 하나 법당.)

101006 @ 아, 게민 법당 다니는 거 뭐렌은 안 곧고예, 시어머니가?(아, 그럼 법당 다니는 거 뭐라고는 안 하고요, 시어머니가?)

101006 #1 아이고, 그거 다 자기에 따랑게 가고 싶은 디 가사주.(아이고, 그거 다 자기에 따라서 가고 싶은 데 가야지.)

101006 @ 게난 남자 어른 돌아가실 때 다 성당에서 일?(그러니까 남자 어른 돌아가실 때 다 성당에서 일?)

101006 #1 우리 하르방은 병원에서 돌아, 돌아간에 시껀 완 성당에서 다 허여.(우리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데 돌아, 돌아가서 실어 와서 성당에서 다 해.)

101006 @ 아, 성당에서 다 일 치룬 거.(아, 성당에서 다 일 치른 거.)

101006 #1 으.(으.)

101008 @ 여기 신창에 특산물이 뭐 잇수과?(여기 신창에 특산물이 뭐 있습니까?)

101008 #1 뭐 특산물 무시거?(뭐 특산물 뭐?)

101008 @ 아까 뭐 여기 바다에서 나는 거 좋덴 허난 톳도?(아까 뭐 여기 바다에서 나는 거 좋다고 하니까 톳도?)

101008 #1 으, 톳 천초가 아메도 이디가 하주게.(으, 톳 우뭇가사리가 아무래도 여기가 많지.)

101008 @ 으. 바당이 좋으난 하영 나는 거예?(으. 바다가 좋으니까 많이 나는 거요?)

101008 #1 하영 나주게. 널름도 허고. 천초는 질 많이 날 거라, 이 서촌[14]에선. 동촌엔 우미가 멧 구부리[15]썩 헌덴 헤도 이 서쪽으로는, 시로 이꺼지 왕은 신창만이 우뭇가사리 하영 나는 디 엇실거라.(많이 나지. 넓기도 하고. 우뭇가사리는 제일 많이 날 거야, 이 서촌에선. 동촌엔 우미가 몇 '구부리'씩 한다고 해도 이 서쪽으로는, 시에서 이까지 와서는 신창만큼 우뭇가사리 많이 나는 데 없을 거야.)

101008 @ 게난 삼춘도 열 구부리?(그러니까 삼촌도 열 '구부리'?)

101008 #1 너미 허연.(너무 했어.)

101008 @ 너미 헤연예?(너무 했어요?)

101008 #1 으.(으.)

101008 @ 열 구부리엔 허는 게?(열 '구부리'라고 하는 게?)

101008 #1 마다리, 마다리. 마대.(마대, 마대. 마대.)

101008 @ 아, 마대?(아, 마대?)

---

14) '서촌'은 서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여기서는 한경면 지역을 가리킨다.

15) '구부리'는 마른 우뭇가사리 등의 무게를 재는 단위를 말한다.

101008 #1 으.(으.)

101008 @ 마대를 구부리엔 헌 거?(마대를 '구부리'라고 하는 거?)

101008 #1 으.(으.)

101008 @ 그럼 여기에 무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그럼 여기에 무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01008 #1 삼십 키로썩게. 전인 오십 키로썩 헤난디 무거웡 담앙 뎅기지 못헤놓난 삼십 키로로 줄연.(삼십 킬로그램씩. 전엔 오십 킬로그램씩 했었는데 무거워서 담아서 다니지 못하니까 삼십 킬로그램으로 줄였어.)

101008 @ 게민 삼십 키로 이거 열 개를 헷던 거?(그럼 삼십 킬로그램으로 이거 열 개를 했던 거?)

101008 #1 으, 우리 전인 오십 키로짜리 으덥 개도 허고 열 개도 허곡 헤낫주게.(으, 우리 전엔 오십 킬로그램짜리 여덟 대고 하고 열 개도 하고 했었지.)

101008 @ 삼십 키로짜리 열 개 헷덴 허난 삼백 키로를 헌 거라예. 몰린 거?(삼십 킬로그램짜리 열 개 했다고 하니까 삼백 킬로그램을 한 거네요. 말린 거?)

101008 #1 어, 어.(어, 어.)

101008 @ 신창 자랑거리엔 허민 뭐가 잇이컨고예?(신창 자랑거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01008 #1 뭐 자랑거리, 신창 뭐 자랑거리 헐 거 시니게.(뭐 자랑거리, 신창 뭐 자랑거리 할 거 있니?)

101009 @ 경헤도 우리 동네 신창은 자랑헐 게 잇어야주.(그래도 우리 동네 신창은 자랑할 게 있어야지.)

101009 #1 자랑헐 거 뭐 잇어?(자랑할 거 뭐 있어?)

101009 @ 자랑헐 거 뭐 엇어?(자랑할 거 뭐 없어?)

101009 #1 나 늙은 거, 뭐 자랑헐 거 시니?(나 늙은 거, 뭐 자랑할 거 있니?)

101009 @ 이 마을?(이 마을?)

101009 #1 이 마을에 농서, 놈 농서 짓는 거 나 알아지느냐?(이 마을에 농사, 다른 사람 농사짓는 거 나 알겠니?)

101009 @ 하하하. 신창 마을에 대해서 더 덧붙일 건 엇수과?(하하하. 신창 마을에 대해서 더 덧붙일 건 없습니까?)

101009 #1 엇다.(없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우선은 낳고 자란 이야기를 물어보쿠다예. 삼춘 영 커난 이야기. 어디서 낭 몇 형제 중에서 자랏수과?(우선은 낳고 자란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삼촌 이렇게 컸던 이야기. 어디에서 나서 몇 형제 주에서 자랐습니까?)

102001 #1 나?(나?)

102001 @ 예. 어디서 난?(예. 어디에서 났어?)

102001 #1 이 두모[16] 알가름[17]서.(이 두모 '알가름'에서.)

102001 @ 겐 형제는?(그리고 형제는?)

102001 #1 형젠 우리 어무니 낭 죽어 불고 낭 죽어불고 중간에 하나썩 살안. 게난 우리 형제간이 다설 살 묻이라. 오빠도 다섯 설, 언니광 두 새에. 언니광 나도 다섯 설. 이제 우리 동생광도 다섯 설.(형젠 우리 어머니 낳아서 죽어버리고 낳아서 죽어 버리고 중간에 하나씩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형제간이 다섯 살 맏이야. 오빠도 다섯 살, 언니와 두 새에. 언니와 나도 다섯 살. 이제 우리 동생과도 다섯 살.)

102001 @ 음. 삼춘이 몇 번째가 돼는 것과?(음. 삼촌이 몇 번째가 되는 겁니까?)

102001 #1 나 산 건 시 번채.(나 산 거 세 번째.)

102002 @ 시 번채. 어머니, 아버지는 원래 두모 분이시과 두 분 다?(세 번째. 어머니, 아버지는 원래 두모 분이십니까, 두 분 다?)

102003 #1 우리 어머닌 우리 어머니도 두모서 컷주만은 친정 아방네 신창 집 짓언 살아낫저게 엿날. 엿날도 좋게 집 짓어근에 저쪽에.(우리 어머닌 우리 어머니도 두모에서 컸지만 친정 아버지네 신창 집 지어서 살았었어, 옛날. 옛날도 좋게 집 지어서 저쪽에.)

102002 @ 그럼 아부지넨?(그럼 아버지넨?)

102002 #1 아부진 원래 두모서. 두모서 나고 두모서 크고.(아버진 원래 두모에서. 두모에서 나고 두모에서 크고.)

102003 @ 게민 어머니가 신창이고 아버지가 두모구나?(그럼 어머니가 신창이고 아버지가 두모구나.)

102003 #1 으. 경혜연 시집, 그디 가난 우리 어머닌 두모 살앗주.(으. 그래서 시집, 거기 가니까 우리 어머닌 두모 살았지.)

102003 @ 어쨌든 두모랑 신창이랑은 옛날에 흔 동네였던 거잖아예?(어쨌든 두모랑 신창이랑은 옛날에 한 동네였던 거잖아요?)

102003 #1 으, 흔 동네.(으, 한 동네.)

102003 @ 멀지 안헌 동네 아니?(멀지 않은 동네 아니?)

102003 #1 으, 멀지 않은 동네.(으, 멀지 않은 동네.)

102003 @ 경헨 두모서 살단 여기 신창으로 시집온 거?(그래서 두모에서 살다가 여기 신창으로 시집온 거?)

102003 #1 으,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바지신디 두모서 시집을 ᄀᆞ튼 동네에서 간 후제 우리 웨하르방네가 저디 집 짓언 간 거 닮아.(으,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에게 두모에서 시집을 같은 동네에서 간 후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기 집 지어서 간 거 같아.)

102003 @ 으, 두모서.(으, 두모에서.)

---

16) '두모'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를 말한다.

17) '알가름'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지명의 하나다.

102003 #1 으. 요디 농협 거 뒤에.(으. 요기 농협 거 뒤에.)

102002 @ 아부지, 어무닌 옛날에 무슨 농사짓어낫수과?(아버지, 어머닌 옛날에 무슨 농사지었습니까?)

102002 #1 그냥 우리 ᄆᆞ녀 ᄀᆞᆫ 듯 조, 보리게. 경 어무니네 허난 나가 잘 알암주.(그냥 우리 먼저 말하듯 조, 보리. 그렇게 어머니네 하니까 내가 잘 알지.)

102002 @ 어무니 바당일도 헤나고?(어머니 바닷일도 했었고?)

102002 #1 우리 어무니 바당에 물질도 헤나고.(우리 어머니 바다에 물질도 했었고.)

102002 @ 물질도 허고.(물지도 하고.)

102002 #1 우리 족은 어멍네도 다 그땐 물질 못허는 사름이 엇어낫저게. 물질 잘헤사 세월 나게 시집도 이 해변가에서 메누리 헤 가고 헷주게.(우리 작은 어머니네도 다 그땐 물질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 물질 잘해야 세월 나게 시집도 이 해변가에서 며느리 해 가고 했지.)

102004 @ 물질 잘헤사 하하하. 게난 어렸을 때 뭐 허멍 놀앗수과, 학교는 다니고.(물질 잘해야 하하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하면서 놀았습니까, 학교는 다니고.)

102004 #1 우리 국민ᄒᆞᆨ꾄 허곡게.(우리 국민학교는 하고.)

102004 @ 국민학꾄 졸업허고. 놀아난 건?(국민학교는 졸업하고. 놀았던 건?)

102004 #1 어렸을 때 소꿉장난게.(어렸을 때 소꿉장난.)

102004 @ 게난 벗이영 동생이영 놀아난 거 ᄀᆞᆯ아 줍서. 뭐 허멍 놀아서?(그러니까 벗이랑 동생이랑 놀았던 거 말해 주세요. 뭐 하면서 놀았어?)

102004 #1 동생덜광은 업게허엿주게. 아기 ᄃᆞᆯ앙. 흥글어 주고 업엉 뎅기곡 경허여근에 허곡 경 놀 어간이 어디 시니? ᄒᆞᆫ 일곱 설, ᄋᆞ돕 설엔 소꿉장난.(동생들과는 업저지 했지. 아기 돌보며. 흔들어 주고 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고 그렇게 놀 어간이 어디 있니? 한 일곱 살, 여덟 살엔 소꿉장난.)

102004 @ 음.(음.)

102004 #1 풀각시 허여단 낭자 체왕 그거 빗지멍 그런 거 멘들고 이제 전북껍줄, 소라껍줄 허여당 솟 앚졍 밥허는디 우리 살렴을 다 살앗주게.(풀각시 해다가 낭자 채워서 그거 빗기면서 그런 거 만들고 이제 전복껍질, 소라껍질 해다가 솥 얹혀서 밥하는데 우리 살림을 다 살았지.)

102004 @ 어렸을 때예, 벗들이영예.(어렸을 때요, 벗들과이지요.)

102004 #1 아이구, 경허단에 나 그건 거 ᄀᆞ지레 담 넘어근에 ᄀᆞ지레 간 나오단에 담ᄆᆞᆯ아젼이 나 이 풀도이 복삭 꺼껑. 더강이에 돌도 이만이헌 거 지뎌젼 더강이에 까지고 경허난에 나영 ᄒᆞᆫ디, 조케벌이라 나영 ᄒᆞᆫ 설 알이라도. 아이고, 우리 할망 강 ᄃᆞ려다 도라. 우리 어머닌 밧 저 보리 검질메레 가부난. 우리 할머니 ᄃᆞ려다 도라. ᄃᆞ려다 도라 허난에 할망은 엇고 고모 셔렌. 고몬 막 ᄆᆞ숩주게. 훈뎅이허고 허카부덴. 우리 고모ᄀᆞ란 ᄀᆞᆫ지 말렌 헤도 아이 ᄀᆞᆯ앙 젼딜 수가 엇주게. 돌 지둘라져 놓고 이 풀은 흥글락[18]. 경허난에 눈은 딱 ᄀᆞᆷ고 핀 도레기[19] 나고 돌은 앗아 불고 우이론 판찍헤도 이디가 복삭

18) '흥글락'은 나사 따위가 단단하게 조이지 않아 중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허[20]난 폴이 엇인 거라.(아이고, 그러다가 나 그건 거 가지러 담 넘어서 가지러 갔다 나오다가 담 무너져서 나 이 팔도 폭삭 꺾어서. 대가리에 돌도 이만한 거 지질러져서 대가리 깨어지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조카뻘이야 나랑 한 살 아래여도. 아이고, 우리 할머니 가서 데려다 달라. 우리 어머닌 밭 저 보리 김매러 가버리니까. 우리 할머니 데려다 달라. 데려다 달라 하니까 할머니는 없고 고모 있다고. 고모는 아주 무섭지. 훈계하고 할까 봐. 우리 고모보고 말하지 말라고 해도 안 말하고 견딜 수가 없지. 돌 지질러져 놓고 이 팔은 '흥글락'.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피는 많이 나고 돌은 가져 버리고 위로는 아무렇지 않아도 여기가 '복삭'하니까 팔이 없는 거야.)

102004 @ 음.(음.)

102004 #1 겨난 아이고, 나 폴 어디 가시니, 나 폴 춧아도라, 나 폴 춧아도라. 경헤져난 셍이라, 나가. 경허난에 동네 할망이 이디 나 폴 춧아 도렌 헌 아읜 어느 것고?(그러니까 아이고, 나 팔 어디 갔니, 나 팔 찾아줘, 나 팔 찾아 줘. 그랬던 모양이야, 내가.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가 여기 나 팔 찾아 줘 한 아인 어느 거지?)

102004 @ 경 놀리멘? 하하하.(그렇게 놀려? 하하하.)

102004 #1 경허연에 그거 그때도 이사신디 돌아당이 버드나무, 물가에 버드나무, 늘어진 버드나무 싯지 안허느냐게. 그거 끈어당 다 예껸, 예껸 이디 데며 쥔이 ᄀᆞ만이 움직이지 말앙 누렌 헨 나 혼 둘 동안 ᄀᆞ만이 눤만 살아낫저. 경허연 허난 이거 부떤. 잘 부떤.(그래서 그거 그때도 의사에게 데려다가 버드나무, 물가에 버드나무, 늘어진 버드나무 있지 않니. 그거 끊어다가 다 엮어서, 엮어서 여기 쟁여 줘서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누우라고 해서 나 한 달 동안 가만히 누워서만 살았었어. 그래서 하니까 이거 붙었어. 잘 붙었어.)

102004 @ 음.(음.)

102004 #1 경 안 허시민 뭣 허컬.(그렇게 안 했으면 뭐 할 걸.)

102004 @ 폴이 아예 빠져분 거, 뼈가 부러진 거?(팔이 아예 빠져버린 거, 뼈가 부러진 거?)

102004 #1 뻬가 부러져변게 복삭. 이디 가죽은 등의어도게.(뼈가 부러져버려서 '복삭'. 여기 가죽은 늘여도.)

102004 @ 아.(아.)

102004 #1 겨난 영 둥기난게 뭣 엇어라게. 경허난 눈 딱 ᄀᆞᆷ아둠서 나 폴 춧아 도라, 나 폴 춧아 도라.(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니까 뭐 없었어. 그러니까 눈 딱 감아두고서 나 팔 찾아 줘, 나 팔 찾아 줘.)

102004 @ 하하하. 거 멧 살 때과?(하하하. 거 몇 살 때입니까?)

102004 #1 것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내년은 들어갈 거난 올리 허여부난 나 학교 못 들어갓주게. 봄에.(것이 학교에 들어가지 전. 내년은 들어갈 거니까 올해 해버리니까 나 학교 못 들어갔지. 봄에.)

---

19) 여기서 '도레기'는 '많이'의 의미로 쓰였다.

20) '복삭허다'는 몸이 부스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노곤하다의 의미다.

102004 @ 예.(예.)

102004 #1 학교 들어가는 봄에 경헤여비난 난 흔 해 늦어졋주. 난 일본 시대에 허난 시험 봔 나가 뒛주기게.(학교 들어가는 봄에 그러니까 난 한 해 늦어졌어. 난 일본 시대에 하니까 시험 봐서 내가 됐지.)

102004 @ 그땐 시험 봣수과, 학교 들어가젠 허난?(그땐 시험 봤습니까, 학교 들어가려고 하니까?)

102004 #1 일본 글로 시험 봐사게. 이제 물으민 이름 물으민 대답허고이.(일본 글로 시험 봐야. 이제 물으면 이름 물으면 대답하고.)

102004 @ 예.(예.)

102004 #1 나이설 다 대답허고 이제 주소 이녁 주소 일본 글로 다 말헤사 합격허연. 일본 말로 이제 아부지 일름은 뭣고, 뭣고 다 듣고 경허난에, 경허난 뒈연. 뭔 디 나 이 더강이 까지고 풀 꺼꺼지난, 아고 어멍아. 입학 못 허연에 요디 내선이 족은뚤 나 대신 들어갓젠 헌다.(나잇살 다 대답하고 이제 주소 자기 주소 일본 글로 다 말해야 합격했어. 일본 말로 이제 아버지 이름은 뭐지, 뭐지 다 듣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됐어. 됐는데 나 이 대가리 깨지고 팔 꺾어지니까, 아이고 어머니. 입학 못 해서 요기 내선이 작은딸 내 대신 들어갔다고 해.)

102004 @ 아, 대신 들어간?(아, 대신 들어갔어?)

102004 #1 어.(어.)

102004 @ 학생 수.(학생 수.)

102004 #1 이 학생 수정이 멧 명 허난.(이 학생 수가 몇 명 하니까.)

102004 @ 으.(으.)

102004 #1 아메도 보결로. 다음에 뭴 아의게. 나 엇어부난 아메도 놔실 테주.(아마도 보결로. 다음에 될 아이. 나 없어버리니까 아마도 놨을 테지.)

102004 @ 아, 경헨 들어갓구나. 삼춘 경헨 그거 다 나시난 다음해에 들어간 거?(아, 그래서 들어갔구나. 삼촌 그래서 그거 다 나으니까 다음해에 들어간 거?)

102004 #1 난 뒷해에 들어갓주.(난 이듬해에 들어갔어.)

102004 @ 뒷해에 들어간예. 뒷해에 들어간 거.(이듬해에 들어갔어. 이듬해에 들어간 거.)

102004 #1 으.(으.)

102004 @ 학교 다녀난 얘기, 학교 강 뭐 공부허고 뭐 허멍 놀앗수과?(학교 다녔던 얘기, 학교 가서 뭐 공부하고 뭐 하면서 놀았습니까?)

102004 #1 일본 글게. 일본 글로 이 학년 일 학기꺼지 헷주게. 경허연에 이 학기 뒈젠 헐 때 전쟁 일어낫주게.(일본 글. 일본 글로 이 학년 일 학기까지 했지. 그래서 이 학기 되려고 할 때 전쟁 일어났어.)

102004 @ 음. 이 학기 뒈젠 헐 때?(음. 이 학기 되려고 할 때?)

102004 #1 으.(으.)

102004 @ 삼춘이 몇 년생인 것과?(삼촌이 몇 년생인 겁니까?)

102004 #1 몰라.(몰라.)

102004 @ 팔십이니까. 게난 이 학년 때 전쟁 난 거라예?(팔십이니까. 그러니까 이 학년 때 전쟁 난 거지요?)

102004 #1 으, 해방.(으, 해방.)

102004 @ 이 학년 때 해방뒌 거. 사십, 그때가 사십오 년이 뒐 거난예. 게민 학교 다니멍 이 학년 때까지는 일본 글을 배운 거?(이 학년 때 해방된 거. 사십, 그때가 사십오 년 될 거니까예. 그럼 학교 다니면서 이 학년 때까지는 일본 글을 배운 거?)

102004 #1 으.(으.)

102004 @ 글후제는?(그 이후에는?)

102004 #1 글후젠 한글게.(그 이후에는 한글.)

102004 @ 학교 다닐 때 아이덜은 멧 명이랏수과?(학교 다닐 때 아이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02004 #1 아이덜은 멧 명산디 그때 우리 학급이 삼 학급, 이 학급 헤낫저.(아이들은 몇 명인지 그때 학급이 삼 학급, 이 학급 했었어.)

102004 @ 한 학년에?(한 학년에?)

102004 #1 으.(으.)

102004 @ 아이덜 잘도 많았다예.(아이들 아주 많았네요.)

102004 #1 으. 그땐 막 학생덜도 홁고. 우리 선배덜 육 학년 난 학생덜은 막 처녀 닮아낫저.(으. 그땐 아주 학생들도 굵고. 우리 선배들 육 학년 된 학생들은 아주 처녀 닮았었어.)

102004 @ 아이고, 경 학생덜도 많고 어른덜이고 경헷던 거라?(아이고, 그렇게 학생들도 많고 어른들이고 그랬던 거야?)

102004 #1 으.(으.)

102004 @ 경헨 학교 가민 뭐 허멍 놀아서? 공부헤난 것도 기억나고? 놀아난 것도 기억나고?(그렇게 학교 가면 뭐 하면서 놀았어? 공부했던 것도 기억나고? 놀았던 것도 기억나고?)

102004 #1 공부허곡게. 놀믄 경 일허고 학교 강 왕 놀 시간 시느냐?(공부하고. 놀면 그렇게 일하고 학교 가서 와서 놀 시간 있니?)

102004 @ 으.(으.)

102004 #1 학교 강 오민 책보 놔뒁 밧디 가고 놀지 못헷주게.(학교 가서 오면 책보 놔두고 밭에 가고 놀지 못했지.)

102004 @ 학교 끝나민 밧디 간 거라?(학교 끝나면 밭에 간 거야?)

102004 #1 게게.(그래.)

102004 @ 저기 학교 갈 때 뻰또[21]는 쌍 갓수과?(저기 학교 갈 때 도시락은 싸서 갔습니까?)

102004 #1 학교 갈 때?(학교 갈때?)

---

21) '뻰또'는 일본어 'べんとう'로 도시락을 말한다.

102004 @ 으, 그때 어떵 헤신고?(으, 그때 어떻게 했는지?)

102004 #1 그때 우린 저 소풍 갈 때, 소풍 갈 때만 뻰또 쌍 가고.(그때 우린 저 소풍 갈 때, 소풍 갈 때만 도시락 싸서 가고.)

102004 @ 예.(예.)

102004 #1 운동헐 때만 뻰또덜 쌍 가고. 우린 집 ᄇᆞ디난 집이 왕 밥 먹엉 갈 때도 싯고. 게난 그땐 판포, 한원리 먼 디 아이덜 다 이디 와낫주게, 이 학교에.(운동할 때만 도시락들 싸서 가고. 우린 집 가까우니까 집에 와서 밥 먹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땐 판포, 한원리 먼 데 아이들 다 여기 왔었지, 이 학교에.)

102004 @ 예.(예.)

102004 #1 경허난 그런 아이덜은 뻰또 쌍 오고. 운동 날도 다 뻰또 쌍 이 뒷산에덜 와근에 막 하나고. 엿날이 운동회 허민 재미졋주기게.(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도시락 싸서 오고. 운동 날도 다 도시락 싸서 이 뒷산에들 와서 아주 많았고. 옛날 운동회 하면 재미있었어.)

102004 @ 운동헐 때 뭐 헷어?(운동할 때 뭐 했어?)

102004 #1 달리기 잡아뎅기는 뭐, 이제 허는 거 다 허여.(달리기 잡아당기는 뭐, 이제 하는 거 다 해.)

102004 @ 이제 허는 거 다 허여.(이제 하는 거 다 해.)

102004 #1 무용허믄 이 손에, 이젠 경 안 헤게. 종이, 창호지 닮은 종이로이 꽃 멘들앙 이 손에 끼왕 ᄉᆞ못. (무용하면 이 손에, 이젠 그렇게 안 하니. 종이, 창호지 닮은 종이로 꽃 만들어서 이 손에 끼워서 사뭇.)

102004 @ 아, 삼춘도 경 헤나고?(아, 삼촌도 그렇게 했었고?)

102004 #1 경헤낫주게. 무용반은 무용반대로 허고. 멧 학년 ᄉᆞ오륙 ᄒᆞᆨ년이민 ᄉᆞ오륙 학년 여학생 허연 ᄒᆞᆫ디 배우고. 경헷주게.(그랬었지. 무용반은 무용반대로 하고. 몇 학교 사오륙 학년이면 사오륙 학년 여학생 해서 같이 배우고. 그랬었지.)

102004 @ 경헨 학교 다니멍 기억나는 일이 엇수과? 재미져난 일?(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기억나는 일이 없습니까? 재미있던 일?)

102004 #1 이거 발 무껑 ᄃᆞᆯ을락 허고. 경허단 푸더지고. 경헤낫주. 난이 달리긴 어린 때이 이 몸도 약허고 허난이. 막 죽자 살자 ᄃᆞᆯ앗자 사 등베끼 못 허여.(이거 발 무꺼서 달리기 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랬었지. 난 달리기는 어린 때 이 몸도 약하고 하니까. 아주 죽자 살자 달려도 사 등밖에 못 했어.)

102004 @ 아고게, 일등을 못 헤낫구나게.(아고, 일등을 못 했었구나.)

102004 #1 으. 일등 못 허여. 우리 집이 큰아덜은 ᄉᆞ못 달리기 허영 선수로 나가고 잘헤도 난 원 ᄃᆞᆫ지를 못허여. 우리 셋아덜이 날 닮아 꼭 ᄉᆞ ᄒᆞᆨ년, ᄉᆞ 등만 허연 연필 ᄒᆞᆫ 자루를 안 타서라게.(으. 일등 못 했어. 우리 집에 큰아들은 사뭇 달리기 해서 선수로 나가고 잘해도 난 원 달리지 못해. 우리 둘째 아들이 날 닮아서 꼭 사 학년, 사 등만 해서 연필 한 자루를 안 받았어.)

102004 @ 게난 학교 가는 게 재미집디가, 집이서 벗들이랑 노는 게 재미집디가?(그

러니까 학교 가는 게 재미있습디까, 집에서 벗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습디까?)

102004 #1 학교 가사게 벗도 싯고 공부도 헷주게. 집이선 밧디 오라, 아기 돌라. 어이구, 옛날 학교 허민 일 못 시킨덴 학교를 졸바로 시켜사게?(학교 가야 벗도 있고 공부도 했지. 집에선 밭에 와라, 아기 돌보라. 어이구, 옛날 학교 하면 일 못 시킨다고 학교를 제대로 시켰어?)

102004 @ 음.(음.)

102004 #1 난 학교 반은 가곡 반은 ᄉᆞ못 일헤세.(난 학교 반은 가고 반은 사뭇 일했어.)

102004 @ 반은 가곡 반은 일허고.(반은 가고 반은 일하고.)

102004 #1 경허영 메칠 놀당 가민 다 베와 불고 잘 알아지느냐?(그래서 며칠 놀다가 가면 다 배워 버리고 잘 알 수 있니?)

102004 @ 으.(으.)

102004 #1 공불 꾸준히 허고 강 왕 연습도 허고 어떵 가사 헐 건디. 경헷저.(공부를 꾸준히 하고 가서 와서 연습도 하고 어떻게 가야 할 건데. 그랬어.)

102004 @ 게난 바쁠 때는 학교 가지 말렌 헷구나, 집이서.(그러니까 바쁠 때는 학교 가지 말라고 했구나, 집에서.)

102004 #1 어게.(어.)

102004 @ 어, 가지 말렌.(어, 가지 말라고.)

102004 #1 경허민 난 막 놉 빌엉 허렌 어멍신디 놉 빌엉 허지 안허영 다 학교 가근에 다 베와 불민 잘 몰르지 안헙니겐 허멍 막 헤낫주게.(그러면 난 마구 놉 빌려서 하라고 어머니에게 놉 빌려서 하지 않고 다 학교 가서 다 배워 버리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구 했었어.)

102004 @ 으.(으.)

102004 #1 ᄀᆞᆺ새 우리 언니도 학교 공부허켄 허난 저 큰뚤이고 허난 가 불민게, 아기도 봐살 거 일도 못 허연게. 날 학교 디물리난 우리 언니 베설이 바락 허난 보시, 반찬 그릇 와싹 마당더레 데껸 벌러낫젠.(아까 우리 언니도 학교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저 큰 딸이고 하니까 가 버리면, 아기도 봐야 할 거 일도 못 했어. 나를 학교 들여놓으니까 우리 언니 배설이 바락 하니까 보시기, 반찬 그릇 와싹 마당에 던져서 깼었다고.)

102004 @ 하하하. 학교 가지 말앙 밧디 걸렌 허난.(하하하. 학교 가지 말고 밭에 가라고 하니까.)

102004 #1 학교 허지 말렌. 진 학교 들어, 입학허연 허켄 허난 학교 허지 말렌 헤부난.(학교 하지 말라고. 자긴 학교 들어, 입학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버리니까.)

102004 @ 경헨 학교는 헷수과?(그러니까 학교는 했습니까?)

102004 #1 안 헷주게. 밤 야간만 허연.(안 했지. 밤 야간만 했어.)

102004 @ 야간 헨.(야간 했어.)

102004 #1 경헤도 한글은 잘 알아.(그래도 한글은 잘 알아.)

102004 @ 으. 기민 삼춘이 이 학년 때 해방이 뒌 거난 그 전까지는 일본.(으. 그럼 삼촌이 이 학년 때 해방이 된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일본.)

102004 #1 일본 글 헷주.(일본 글 했지.)

102005 @ 글 헷잖아예. 그때 일본 군인 들어왕 이실 때 막 공출허고 헤난 거 기억 잇수과?(글 했잖아요. 그때 일본 군인 들어와서 있을 때 많이 공출하고 했던 거 기억 있습니까?)

102005 #1 일본 군인덜이 군밤을, 어린 때 알아져. 군밤을 타근에 일본 군인덜. 일로 시작허민 저 한원리[22] 새에 영 가멍 막 보민 우리 아주망이 저 한원리 어른이난 그 우리 오빠 일본 시대에 군인 가젠 허난 가민 죽으카부덴만 헷주게. 그땐 센바리[23] 범헤치 허영 멩지 허영 저 실 모작지우는 거 멧 번썩 헤렌 헨 그거 허레 뎅기곡 우리 어멍 헌디, 우리 어머니도 저 아덜 가민 죽으카부덴 ᄉᆞ못 탁 낙심헷주게. 견디 우리 고모부도 가난 우리 고모님이영 흔디 그 센넨바리[24]엔 헌 거 멩지로 모작지우는 거 범띠 춧앙 강 모작지워 도렌 허고 막 헷주게. 경허연 헌디 우리 고모분 ᄆᆞ녀 간 오꼿 죽어 불고게.(일본 군인들이 군밤을, 어린 때 알아. 군밤을 타서 일본 군인들. 일로 시작하면 저 한원리 사이에 이렇게 가면서 막 보면 우리 아주머니가 저 한원리 어른이니까 그 우리 오빠 일본 시대에 군인 가려고 하니까 가면 죽을까 봐 했지. 그땐 '센바리' 범띠 해서 명주 해서 저 실 매듭짓는 거 몇 번씩 하라고 해서 그거 하러 다니고 우리 어머니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저 아들 가면 죽을까 봐 사뭇 탁 낙심했지. 그런데 우리 고모부도 가니까 우리 고모님이랑 같이 그 '센넨바리'라고 하는 거 명주로 매듭짓는 거 범띠 찾아서 가서 매듭지어 달라고 하고 마구 했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고모부는 먼저 가서 그만 죽어 버리고.)

102005 @ 해방뒈기 전에?(해방되기 전에?)

102005 #1 으, 해방뒈기 전이 전쟁허멍게 그 나가멍 새에 배에서 죽엇젠 헌디. 우리 오빤 ᄒᆞ꼼 말쩨라.(으, 해방되기 전에 전쟁하면서 그 나가면서 사이에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오빤 조금 말째야.)

102005 @ 으.(으.)

102005 #1 보름 만이 살안 완게. 헤방뒈연. 경허난 나 밤이 뉜 자단 보난 마당에서 ᄉᆞ못 장구덜 두들멍 막 놀안. 이거 무사 영 헴신고 허연 보난 우리 오빠 헤방뒈난 시에 완 푸난 그땐 차도 베랑 엇고.(보름 만에 살아서 왔어. 해방돼서. 그러니까 나 밤에 누워서 자다가 보니까 마당에서 사뭇 장구들 두드리면서 마구 놀아. 이거 왜 이렇게 하나 해서 보니까 우리 오빠 해방되니까 시에 와서 푸니까 그땐 차도 별로 없고.)

102005 @ 예.(예.)

---

22) '한원리'는 제주시 한경면 한원리를 말한다.

23) '센바리'는 일본어의 '센닝바리(せんにんばり)'를 말한 것으로, 'せんにんばり(千人針)'는 한 조각의 천에 천 명의 여성이 붉은 실로 한 땀씩 박아 천 개의 매듭을 만들어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주며 무사함을 빌었던 것을 말한다.

24) '센넨바리'는 일본어의 '센닝바리(せんにんばり)'를 말한 것으로, 'せんにんばり(千人針)'는 한 조각의 천에 천 명의 여성이 붉은 실로 한 땀씩 박아 천 개의 매듭을 만들어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주며 무사함을 빌었던 것을 말한다.

102005 #1 이 동무럽 터진 스못 그 군인, 일본 군인 이디 영 뱔아진 거 입는 거 입곡 헨 걸언 와서라게.(이 무릎 터진 사뭇 그 군인, 일본 군인 여기 이렇게 빨아진 거 입는 거 입고 해서 걸어서 왔더라.)

102005 @ 아. 제주시서.(아. 제주시에서.)

102005 #1 걸언 오난에 그때 동네 사름덜 스못 지꺼정 헤방됏젠 잔치허멍 북 두드리멍 놀아난 거 알아진다. 우리 오라방 죽으카 부덴 헤시네게. 그땐 일본 군인덜 팡팡 헐 때 가난 산 사름이 베랑 엇엇주게.(걸어서 오니까 그때 동네 사람들 사뭇 기뻐서 해방되었다고 잔치하면서 북 두드리면서 놀았던 거 알아. 우리 오라버니 죽을까 봐 했었어. 그땐 일본 군인들 팡팡 할 때 가니까 산 사람이 별로 없었지.)

102005 @ 으.(으.)

102005 #1 일본 군인.(일본 군인.)

102005 @ 경헨 그 시절에 막 공출헤난 것덜 알아지쿠과?(그래서 그 시절에 마구 공출했던 것들 알겠습니까?)

102005 #1 공출 오랑 허민 그때 어린 때난게 가메니로 헤영덜 내여 노멍덜 헷주게. 반으로 헤영.(공출 와서 하면 그때 어린 때니까 가마니로 해서들 내어 놓으면서들 했지. 반으로 해서.)

102005 @ 뭘 내놔나서?(뭘 내놨었어?)

102005 #1 보리 거튼 거게. 벌민 얼메게. 이제 얼메 벌민 얼메 허랑 허듯이게. 경헤연 내놔낫주.(보리 같은 거. 벌면 얼마. 이제 얼마 벌면 얼마 해라 하듯이. 그렇게 내놨었지.)

102005 @ 게난 공출헤 가 부난 막 어려워나고 헤낫구나.(그러니까 공출해 가 버리니까 아주 어려웠었고 했었구나.)

102005 #1 게게. 경허난 공출 좋게 허젠게 밧 에젱인 다 허민 펭수 널렁 공출 하영 바치렌 허카 부덴 밧 돌르멍 실 경지만 올려낫주게.(그래. 그러니까 공출 좋게 하려고 밭 옆엔 다 하면 평수 넓어서 공출 많이 바치라고 할까 봐서 밭 도리면서 실 경지만 올렸었지.)

102005 @ 그 올릴 때덜은 돌아다니멍 조사허는 사름덜이 볼 거 아니라?(그 올리 때들은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102005 #1 어떵사 헤신지 보게 안 허영 다 돌르멍 다 서류상으로 허여부난 이제 임얀 임야대로 뒈고 갈아먹는 건 갈아먹는 것대로 뒈고 헷주.(어떻게야 했는지 보게 안 하고 다 도리면서 다 서류상으로 하니까 이제 임야는 임야대로 되고 갈아먹는 건 갈아먹는 것대로 되고 했지.)

102005 @ 게난 삼춘은 학교 다니멍 경 공출헐 때 저기 학교에서 뭐 받아 오라, 뭐 가져 오라 그런 건 엇어낫수과?(그러니까 삼촌은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공출할 때 저기 학교에서 뭐 받아 와라, 뭐 가져 와라 그런 건 없었습니까?)

102005 #1 그런 건 엇고 그 일본 시대에 그 가반 거튼 거이 그런 건 제비 뽑앙 나와라. 나오민 제비 뽑앙 나도 그 군인덜 지는 거 닮은 거게. 친거리[25] 주랑주랑 가반.

가반 나완에 나도 타낫저.(그런 건 없고 그 일본 시대에 그 가방 같은 거 그런 건 제비 뽑아서 나오더라. 나오면 제비 뽑아서 나도 그 군인들 지는 거 같은 거. 끈 주렁주렁 가방. 가방 나와서 나도 탔었어.)

102005 @ 아, 그거 나눠 줘난.(아, 그거 나눠 줬었어.)

102005 #1 으, 그런 것도 나와라. 우리 학교 뎅길 때.(으, 그런 것도 나오더라. 우리 학교 다닐 때.)

102005 @ 학교 뎅길 때 나눠 준 거구나.(학교 다닐 때 나눠 준 거구나.)

102005 #1 으.(으.)

102006 @ 게난 사십오 년도에 국민학교 때 경헨 헤방퉨 거라예. 경헨 그 이후에 몇 년 지낭 제주도에 또 전쟁 잇어낫잖아예? 사삼사건.(그러니까 사십오 년도에 국민학교 때 그래서 해방된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서 제주도에 또 전쟁 있었잖아요? 사삼사건.)

102006 102006 #1 건 ᄉᆞ삼사건. 그때엔 우리 처녀 퉨 때주게.(건 사삼사건. 그때엔 우리 처녀 된 때지.)

102006 @ 게난 어떵헤난 것과, 영 기억나는 거 잇이민 ᄀᆞᆯ아 줍서. 그때에.(그러니까 어떠했던 겁니까, 이렇게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 주세요. 그때에.)

102006 #1 처녀 뒈난이 그때이 시집간 사름은 지커지 안허고 시집 안 간 처녀덜 지커렌 헤 가난 막 시집 장게가 불젠도 헤나세. 우리보단 우잇 사름덜.(처녀 되니까 그때 시집간 사람은 지키지 않고 시집 안 간 처녀들 지키라고 해 가니까 마구 시집 장가가 버리려고도 했었어. 우리보단 위에 사람들.)

102006 @ 예.(예.)

102006 #1 경헌디 한원리꺼지 막 폭도덜 완게 저 지커는 거 죽장으로 찔러부난 막 죽으멍 헤세. 견디 이 신창은 안 들어와봇주기게. 경헌디 우린, 난 친정이 이디 성도 쌓나세. 쭉허게, 들어오지 못허게.(그런데 한원리까지 마구 폭도들 와서 저 지키는 거 죽창으로 찔러버리니까 마구 죽으면서 했어. 그런데 이 신창은 안 들어왔었어. 그런데 우린, 난 친정이 여기 성도 쌓았었어. 쭉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102006 @ 예.(예.)

102006 #1 경헌디 귀역이 두모[26]라부난 귀역이 두모라부난 밤이 ᄌᆞ냑 먹으민 담요덜 들고 이 지커레 가, 우리도. 죽창덜 다 그디 세왕 그거 들르고.(그런데 구역이 두모니까 구역이 두모니까 밤에 저녁 먹으면 담요들 들고 지키러 가, 우리도. 죽창들 다 거기 세워서 그거 들고.)

102006 @ 음.(음.)

102006 #1 경허영 허민 그디 가민 얼지 안허느냐? 겨울 때 경허민 낭 ᄀᆞ정강 그디 강 케왕 잉경 헹덜 허고 지커여. 경허영 오줌 누레 영 가민 순찰도 오고게. 지서에서 순찰도 뎅긴다. 지컴사 아이 지컴사.(그렇게 하면 거기 가면 춥지 않니? 겨울 때 그러면

25) '친거리'는 끈을 만드는 재료의 뜻이나 여기서는 '끈'을 말한다.
26) '두모'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를 말한다.

나무 가져가서 거기 가서 태워서 잉걸 해서들 하고 지켜. 그래서 오줌 누러 이렇게 가면 순찰도 오고. 지서에서 순찰도 다녀.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느냐.)

102006 @ 음.(음.)

102006 #1 경허멍 돌곡 허영 우리 메칠에 흔 번썩 경 지켜낫저. 뭣동산[27].(그러면서 돌고 해서 우리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 지켰었어. '뭣동산'.)

102006 @ 뭣동산에 가가지고.('뭣동산'에 가서.)

102006 #1 으, 지서 앞이 뭣동산이렌 싯주게.(으, 지서 앞에 '뭣동산'이라고 있어.)

102006 @ 예, 지금 어느 지경이 뒐 것과?(예, 지금 어느 지경이 될 겁니까?)

102006 #1 두모.(두모.)

102006 @ 두모 지경에 뭣동산이 잇어?(두모 지경에 '뭣동산'이 있어?)

102006 #1 으. 우훼도로 영 헌 디.(으. 우회도로 이렇게 한 데.)

102006 @ 그 거기에 성 쌓은 거, 뭣동산에?(그 거기에 성 쌓은 거, '뭣동산'에?)

102006 #1 그디 성 쌓은디 이제.(거기 성 쌓았는데 이제.)

102006 @ 엇어젼?(없어졌어?)

102006 #1 엇어진 거 닮아.(없어진 거 같아.)

102006 @ 예. 성 쌓으레도 삼춘 다니고 헷수과?(예. 성 쌓으러 삼촌 다니고 했습니까?)

102006 #1 성 쌓으레 남저덜 뎅겻주게. 우리 여저사 가지느냐, 월령[28]으로. 우리 어리고 허난.(성 쌓으러 남자들 다녔지. 우리 여자야 갈 수 있니, 월령으로. 우리 어리고 하니까.)

102006 @ 어리난 직허레만 다닌 거?(어리니까 지키러만 다닌 거?)

102006 #1 으, 우린 직허레만 뎅겨.(으, 우린 지키러만 다녀.)

102006 @ 이 신창 동네 그때 막 사름덜 죽고 허는 피해가 하영 잇엇구나?(이 신창 동네 그때 많이 사람들 죽고 하는 피해가 많이 있었구나?)

102006 #1 엇어낫주기게. 제일 이디가 깨끗허덴 헤낫주기게. 두모, 신창.(없었지. 제일 여기가 깨끗하다고 했었지. 두모, 신창.)

102006 @ 아, 두모, 신창이. 사름덜 별로 안 죽엇구나.(아, 두모, 신창이 사람들 별로 안 죽었구나.)

102006 #1 경헌디 줴 엇인 사름덜 멧 사름 죽엇젠 헌다.(그런데 죄 없는 사람들 몇 사람 죽었다고 해.)

102006 @ 어디 강 죽은 거라?(어디 가서 죽은 거야?)

102006 #1 지서에서 그 불런 오렌 허난에 저 성굴왓 우리 궨당도게 궤기 바당에 간 완에 궤기국 끌련 그 궤기국을 먹엉 가시민 죽질 안헐 건디 강 왕 먹켄 허멍 자게 지서에서 불르난 자게 오난 시에서 그 차가, 지서에 올레에 곧 가난 차가 완 대난 올르렌 헨 모실포 굴에 담아 놘 죽여벤. 원 메깔엇이게.(지서에서 그 불러서 오라고 하니까 저

27) '뭣동산'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의 지명이다.
28) '월령'은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를 말한다.

‘성굴왓’ 우리 권당도 고기 바다에 갔다 와서 고깃국 끓여서 그 고깃국을 먹고 갔으면 죽질 않을 건데 가서 와서 먹겠다고 하면서 재게 지서에서 부르니까 재게 오니까 시에서 그 차가, 지서에 ‘올레’에 곧 가니까 차가 와서 대니까 오르라고 해서 모슬포 굴에 담아 놔서 죽여버렸어. 원 맥없이.)

102006 @ 그민 그 삼춘만 돌아가신 것과, 이 동네에서?(그럼 그 삼촌만 돌아가신 것과, 이 동네에서?)

102006 #1 그 경허고 이제 저 전이 일본서 오난에 **밧디 둘아당 죽이젠 허난 그 사름이 난 일본서 완 살앗주기게. 경허난 난 아무 줴도 엇고 허난 날 ᄒᆞ꼼만 죽이지 말렌 허난에 죽이지 안허영 ᄒᆞ꼼 시난 그땐 대한독립만세, 만세 시 번 불런 죽이렌 허난 그때 죽이지 안헷젠 허여.(그 그리고 이제 저 전에 일본에서 오니까 **밭에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난 일본에서 와서 살았지. 그러니까 난 아무 죄도 없고 하니까 날 조금만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죽이지 않고 조금 있으니까 그땐 대한독립만세, 만세 세 번 부르고 죽이라고 하니까 그때 죽이지 않았다고 해.)

102006 @ 아.(아.)

102006 #1 멀쩡한 사름덜 줴 엇이 죽은 사름덜이 셔.(멀쩡한 사람들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

102006 @ 예, 예. 그 그렇게 죽은 사름덜이 신창은 많은 거 같진 안허우다예. 두모랑 신창은예.(예, 예. 그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신창은 많은 거 같진 않네요. 두모랑 신창은요.)

102006 #1 으, 한원리도 멧 사름.(으, 한원리도 몇 사람.)

102006 @ 한원리도 멧 사름.(한원리도 몇 사람.)

102006 #1 조수[29]레 저 수릉이[30] 우리 권당덜도 다 ᄋᆞ러 사름 죽엇저.(조수로 저 수릉이 우리 권당들도 다 여러 사람 죽었어.)

102006 @ 아. 견디 여기 먹을 거는 왕 아져 가 불고는 안 헨?(아. 그런데 여기 먹을 거는 와서 가져 가 버리고는 안 했어?)

102006 #1 한원리꺼진 정 헷주기게.(한원리까지는 저렇게 했지.)

102006 @ 한원리꺼지는 산에서 온 사름덜이.(한원리까지는 산에서 온 사람들이.)

102006 #1 응. 이딘 내려오지 못허난.(응. 여긴 내려오지 못하니까.)

102007 @ 게난 결혼은 중매과 연애과?(그러니까 결혼은 중매입니까, 연애입니까?)

102007 #1 우리 중매허연게.(우리 중매했어.)

102007 @ 예. 누게가 중매를 헌 거라?(예. 누가 중매를 한 거야?)

102007 #1 중맨게 나 어제 안 ᄀᆞᆯ아냐게.(중매는 나 어제 안 말했니.)

102007 @ 예.(예.)

102007 #1 우리 시아방이 시아방 친구 하르방신디 우리 친정아바지신디 말 허난게 대답헤연.(우리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친구 할아버지에게 우리 친정아버지에게 말 하니까

29) ‘조수’는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를 말한다.
30) ‘수릉이’는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의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대답했어.)

102007 @ 게난 그 전에 삼춘은 남저 어른 몰라난 거지예?(그러니까 그 전에 삼촌은 남자 어른 몰랐던 거지요?)

102007 #1 뭣을 몰라?(뭣을 몰라?)

102007 @ 게니까 같은 동네여도.(그러니까 같은 동네여도.)

102007 #1 사름도게 이발허게 요디 이발서 시난 이발허게 완 보고 허난 우리 하르방도 대답헷주게.(사람도 이발하게 요기 이발소 있으니까 이발하게 와서 보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대답했지.)

102007 @ 아. 얼굴은 알아나고.(아. 얼굴은 알았었고.)

102007 #1 알안게. 우리 집이 아방이 저 친정아방이 이발허레 왕 보고게 선생 뎅겸젠 허고 다 알앙 우리 친정아방은 대답헷주게.(알았어. 우리 집에 아버지가 저 친정아버지가 이발하러 와서 보고 선생 다닌다고 하고 다 알아서 우리 친정아버지는 대답했지.)

102007 @ 근디 삼춘은 무사 막 마음에 안 들엉 시집 안 가켄 헷수과?(그런데 삼촌은 왜 아주 마음에 안 들어서 시집 안 가겠다고 했습니까?)

102007 #1 아이고 그땐 원 뭐 사는 거 어떵헌 것도 분시 몰르고게.(아이고, 그땐 원 뭐 사는 거 어떠한 것도 분수 모르겠고.)

102007 @ 으.(으.)

102007 #1 열아홉에 허고 허난.(열아홉에 하고 하니까.)

102007 @ 열아홉에 시집가난. 하하.(열아홉에 시집가니까. 하하.)

102007 #1 이제 처녀들은 막 읔아근에 부끄럽지도 안허고 헤도 막 부끄러와근에 무사 시집갈 말 골암신고 헤져라.(이제 처녀들은 아주 자라서 부끄럽지도 않고 해도 아주 부끄러워서 왜 시집갈 말 했는가 했어.)

102008 @ 아. 부끄러왕. 겐 사주는 다 본 것과?(아. 부끄러워서. 그래서 사주는 다 본 겁니까?)

102008 #1 어게. 겨난 좋다 허연에게 막펜지[31]꺼지 오난게.(으. 그러니까 좋다 해서 '막편지'까지 오니까.)

102009 @ 으. 게난 혼수 헷던 거 삼춘 골앗수다만은 혼수품 뭐 뭐 헤낫수과? 다시 한 번 골아 줍서. 혼수, 시집올 때.(으. 그러니까 혼수 했던 거 삼촌 말했습니다만 혼수품 뭐 뭐 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혼수, 시집올 때.)

102009 #1 시집올 때게 이불 다섯허고게 궤허고 화로허고 이불상허곡게.(시집올 때 이불 다섯하고 궤하고 화로하고 이불상하고.)

102009 @ 으.(으.)

102009 #1 솟도 아레미솟 그땐 저 선물로 시집갈 때 다 허여 주는 사름 시난 그런 거영.(솥도 '아레미솟' 그땐 저 선물로 시집갈 때 다 해 주는 사람 있으니까 그런 거랑.)

102009 @ 아고게. 게난 솟도 헹 오고.(아고. 그러니까 솥도 해서 오고.)

---

31)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 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를 말한다.

102009 #1 솟도 요만이헌 거 두 개산디 선물 들어온 거 그냥 왓주게.(솥도 요만한 거 두 개인지 선물 들어온 거 그냥 왔지.)

102009 @ 게난 게난.(그러니까 그러니까.)

102009 #1 찬장 새끼 하나허고.(찬장 새끼 하나하고.)

102009 @ 잘 출련 와신게.(잘 차려서 왔네.)

102009 #1 잘 출련 왓주게.(잘 차려서 왔어.)

102009 @ 경 그때 헐 때 결혼반지나 결혼 예물은 헤졋수과?(그렇게 그때 할 때 결혼반지나 결혼 예물은 했습니까?)

102009 #1 어. 금반지.(어. 금반지.)

102009 @ 그 시대에 금반지 헷어?(그 시대에 금반지 했어?)

102009 #1 으, 우리 집이 아방이 허여 줜.(으, 우리 집에 아버지가 해 줬어.)

102009 @ 아. 잘혜신게. 잘사는 집이라신게.(아. 잘했네. 잘사는 집이었네요.)

102009 #1 우린 시계 헤 주고.(우린 시계 해 주고.)

102009 @ 시계 헤 주고.(시계 해 주고.)

102009 #1 으.(으.)

102009 @ 아고, 다른 어른덜신디 물어보민 그때 그런 거 잇어난 집이 엇수다게.(아고, 다른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그런 거 있었던 집이 없습니다.)

102009 #1 으, 우리 금반지 받아난.(으, 우리 금반지 받았었어.)

102010 @ 아이고, 결혼반지로 금반지 받아난. 시계 헤 주고. 게민 결혼헐 때 사진은 칙엇수과?(아이고, 결혼반지로 금반지 받았었어. 시계 해 주고. 그럼 결혼할 때 사진은 찍었습니까?)

102010 #1 사진 찍언.(사진 찍었어.)

102010 @ 그 사진 잇수과?(그 사진 있습니까?)

102010 #1 몰라신디 엇인디.(몰랐는지 없는지.)

102010 @ 오늘 밤이랑 춪아봅서예.(오늘 밤에는 찾아보세요.)

102010 #1 몰라 어디사 들어신디.(몰라 어디에 들었는지.)

102010 @ 몇 년 뒛수과, 그 사진 열아홉 살 때민. 그런 사진 엇수다게.(몇 년 됐습니까, 그 사진 열아홉 살 때면. 그런 사진 없습니다.)

102010 #1 열아홉 설에 약혼허연.(열아홉 살에 약혼해서.)

102010 @ 음.(음.)

102010 #1 스물에, 스물하나에 결혼허연.(스물에, 스물하나에 결혼했어.)

102010 @ 아, 약혼 먼저 헌 거?(아, 약혼 먼저 한 거?)

102010 #1 으, 약혼허연. 혼 일 년 뒈연게. 경허연 시집간.(으, 약혼했어. 한 일 년 되었어. 그래서 시집갔어.)

102010 @ 예.(예.)

102010 #1 경허연 스물하나에 아기 배연.(그래서 스물하나에 아기 배었어.)

102010 @ 예.(예.)

102012 #1 경허연 스물둘에 낳고 닛에 낳고 ᄋᆞ덥에 낳고, ᄋᆞ섯에 낳고 ᄋᆞ덥에 낳고 헤연 니 개 낳주. 나 우리 족은아덜 스물ᄋᆞ덥에 난 아덜.(그래서 스물둘에 낳고 넷에 낳고 여덟에 낳고, 여섯에 낳고 여덟에 낳고 해서 네 개 낳았지. 나 우리 작은아들 스물여덟에 낳았어, 아들.)

102012 @ 스물ᄋᆞ덥에 난, 아덜.(스물여덟에 낳았어, 아들.)

102012 #1 이제 놈은 시집도 안 간 낫설 아이가.(이제 다른 사람은 시집도 안 간 나이 아니니.)

102012 @ 하하하.(하하하.)

102012 #1 겨난 보라 오죽 어련 믄 알아지커가. 이젯 아이덜로 허민.(그러니까 봐 오죽 어려서 모두 알 수 있을까. 이제 아이들로 하면.)

102012 @ 아. 게난 스물ᄋᆞ덥이 맨 마지막인 거라?(아. 그러니까 스물여덟이 맨 마지막인 거야?)

102012 #1 으. 막둥이 ᄋᆞ덥에 저 낳주기게.(으. 막내 여덟에 저 낳았지.)

102013 @ 예, 예. 거민 시집강 살아난 얘기를 쭉 ᄀᆞᆯ아 봅서. 게난 시집가난.(예, 예. 그럼 시집사서 살았던 얘기를 쭉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집가니까.)

102013 #1 시집간 산 거 ᄀᆞᆯ음은 무시거게. 살렴 살앗주게.(시집가서 산 거 말하기는 뭐. 살림 살았지.)

102013 @ 하하. 경 결혼헹 신랑 보난 신랑은 마음에 듭디과?(하하. 그렇게 결혼해서 신랑 보니까 신랑은 마음에 듭디까?)

102013 #1 엿날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부모덜 살렌 허민 살앗주게. 무신 경 ᄆᆞ음에 딱 맞앙 허는 디가 어디 시니.(옛날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부모들 살라고 하면 살았지. 무슨 그렇게 마음에 딱 맞아서 하는 데가 어디 있니.)

102013 @ 게도게 안 가켄 허단 시집가신디 어떵.(그래도 안 가겠다고 하다가 시집갔는데 어떻게.)

102013 #1 어떵사 헨 살아져신디.(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102013 @ 기억나는 일 엇수과?(기억나는 일 없습니까?)

102013 #1 무신 기억을 나게. ᄀᆞ치 살멍게 이제도록 살아와주게.(무슨 기억이 나. 같이 살면서 이제도록 살아왔지.)

102013 @ 사이는 좋앗수과?(사이는 좋았습니까?)

102013 #1 사이는 궂은 펜은 아니주게. 보통게.(사이는 궂은 편은 아니지. 보통.)

102010 @ 결혼식은 집이서 헌 거잖아예?(결혼식은 집에서 한 거잖아요?)

102010 #1 요디 요디 창고 닮은 디서 헨.(여기 여기 창고 같은 데에서 했어.)

102010 @ 어디 창고 닮은 디서?(어디 창고 같은 데에서.)

102010 #1 요디 거세기 노인훼관 짓지 안 헤시냐?(여기 거시기 노인회관 짓지 않았니?)

102010 @ 예, 예.(예, 예.)

102010 #1 그 자리에 농협 집 창고가 큰 집 셔낫주게.(그 자리에 농협 집 창고가 큰

집 있었지.)

102010 @ 아, 게민 그디가 결혼식 허는 장소랏수과?(아, 그럼 거기가 결혼식 하는 장소였습니까?)

102010 #1 아니, 우리가 빌언 헤연 우리 시아방네가.(아니, 우리가 빌려서 해서 우리 시아버지네가.)

102010 @ 빌언 헤연.(빌려서 했어.)

102010 #1 으. 학교 허젠 허난 학교도 아니 뒈고 허난 이디서 빌언.(으. 학교 하려고 하니까 학교도 안 되고 하니까 여기서 빌렸어.)

102010 @ 게난 동네서 잘사는 사람이랏수과, 시아방네도?(그러니까 동네에서 잘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시아버지네도?)

102010 #1 어. 못살진 안헷주게. 보통.(어. 못살진 않았지. 보통.)

102010 @ 게난 삼춘네도 잘사는 집이였고.(그러니까 삼촌네도 잘사는 집이었고.)

102010 #1 으. 우리 소문 낭 이제라도 그 부제 할망네 손지엔 허멍은에. 우리 성하르방 나 아이 골암사. 엿날 한림면은 일등으로 살앗젠. 이제 손지덜은 잘 아이 뒈도.(으. 우리 소문 나서 이제라도 그 부자 할머니네 손주라고 하면은. 우리 성할아버지 나 안 말했니. 옛날 한림면 일등으로 살았다고. 이젠 손주들은 잘 안 되도.)

102010 @ 아. 게난 집이서도 안 헹 결혼헐 때 빌렁. 그 시대에게.(아. 그러니까 집에서도 안 하고 결혼할 때 빌려서. 그 시대에.)

102010 #1 으. 놈은 다 집이서 허영 마당에서 다 사진 칙고 헤나세.(으. 남은 다 집에서 해서 마당에서 다 사진 찍고 했었어.)

102010 @ 예, 예.(예, 예.)

102010 #1 견디 경 안 허영 요디 강. 한림 그 멘장은 우리 시아방 스춘 누이 남펜이난 그 어른 주례 사고.(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가서. 한림 그 면장은 우리 시아주버니 사촌 누이 남편이니까 그 어른 주례 서고.)

102010 @ 예, 예.(예, 예.)

102010 #1 멘장 헤여난 사름. 그때 멘장이랏주게. 한림 멘장. 그 어른 주례헤연에.(면장 했던 사람. 그때 면장이었지. 한림 면장. 그 어른 주례해서.)

102010 @ 그럼 한복 입엉 헷수과, 드레스 입엉 헷수과?(그럼 한복 입고 했습니까, 드레스 입고 했습니까?)

102010 #1 한복게 그땐 드레스가 엇엇주게.(한복 그땐 드레스가 없었지.)

102010 @ 엇엉. 한복 입엉 우에는?(없어서. 한복 입고 위에는?)

102010 #1 멘사포.(면사포.)

102010 @ 면사포.(면사포.)

102010 #1 족두리 씨는 사름도 셧주만은 우린 면사포 씨연.(족두리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린 면사포 썼어.)

102010 @ 면사포 쓰는 사름도 싯고예.(면사포 쓰는 사람도 있고요.)

102010 #1 으, 우인 흰 양단에 아랜 흰 유동 치메.(으, 위엔 흰 양단에 아래는 흰 뉴

똥 치마.)

102010 @ 그거는 누게가 헤 준 거라?(그거는 누가 해 준 거야?)

102010 #1 건 우리 시집가젠 허민 허여사주.(건 우리 시집가려고 하면 해야지.)

102010 @ 음. 거 입어가지고.(음. 거 입어가지고.)

102010 #1 거 허영 벗어 불민 이젠 시집이 거 입엉 가민 밥상 받아 나민 이제 시집이서 비로도 치메나 아무 거나 주민 그거 입는 거주게.(거 해서 벗어버리면 이젠 시집에 거 입고 가면 밥상 받고 나면 이제 시집에서 '비로도' 치마나 아무 거나 주면 그거 입는 거지.)

102010 @ 아, 밥상 받아 나민 시집이서 준 거로 갈아입는 거?(아, 밥상 받고 나면 시집에서 준 거로 갈아입는 거?)

102010 #1 으.(으.)

102010 @ 그거는 시어머니가.(그거는 시어머니가.)

102010 #1 시어멍네.(시어머니네.)

102010 @ 헤 주는 거예?(해 주는 거요?)

102010 #1 으.(으.)

102011 @ 신혼살림은 어디서 차린 것과? 신혼살림.(신혼살림은 어디서 차린 겁니까? 신혼살림.)

102011 #1 우리 이디서 시집가고 장게간에 저 중학교 앞이. 스못 히여뜩헌[32] 집이 헌 거 우리 짓다시피 돌 다완 쓰레트 더껑 집 멘들앙 살앗저. 우리대로 벌엉.(우리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저 중학교 앞에. 사뭇 '히여뜩한' 집에 한 거 우리 짓다시피 돌 쌓아서 슬레이트 덮어서 집 만들어서 살았어. 우리대로 벌어서.)

102011 @ 이디 살단.(여기 살다가.)

102011 #1 이디 시어멍네영 오고 가고 허여 살단 시아방네 그디 살림 살리난.(여기 시어머니네랑 오고 가고 해서 살다가 시아버지네 거기 살림 살게 하니까.)

102011 @ 예.(예.)

102011 #1 기자 곧 짓이만 헹 조그만헌 거 허여 주난 우리 벌멍 쓰레트 다 올리고 바우에 다 담 돌로 다 다고 밧거리 집 잇고 허연 우리 살단 우리 시어멍 죽어 불고 이제 우리 시아방 죽어 비난 이 집은 믄 헐고 그딘 원 펜안을 안 허연게. 우리가.(그저 곧 짓기만 해서 조그마한 거 해 주니까 우리 벌면서 슬레이트 다 올리고 근처에 다 담 돌로 다 쌓고 바깥채 집 있고 해서 우리 살다가 우리 시어머니 죽어 버리고 이제 우리 시아버지 죽어 버리니까 이 집은 다 헐고 거긴 원 편안하지 않아. 우리가.)

102011 @ 으.(으.)

102011 #1 늙도록 그 집이 살 수도 엇고. 경혜연 이거 짓엉 왓주게. 이것도 곧 짓을 땐 최고로 좋게 짓엇저만은 이젠 묵은 집 뒈연.(늙도록 그 집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지어서 왔지. 이것도 곧 지을 땐 최고로 좋게 지었지만 이젠 묵은 집 되었어.)

102011 @ 멧 년 뒌 집이과?(몇 년 된 집입니까?)

32) '히여뜩허다'는 어지러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2011 #1 이거 멧 십 년 퉷주.(이거 몇 십 년 됐지.)

102011 @ 멧 십 년 뒈연. 아이 몇 살 때 온 거라?(몇 십 년 됐어. 아이 몇 살 때 온 거야?)

102011 #1 이것이 흔 ᄉᆞ십 년도 더 뒌 거 닮다.(이것이 한 사십 년도 더 된 거 같아.)

102011 @ 아, 사십 년도 더 뒌 거예. 큰아덜이 지금 멧 살이과?(아, 사십 년도 더 된 거요. 큰아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102011 #1 이제 쉰아홉.(이제 쉰아홉.)

102011 @ 쉰아홉. 그럼 그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쉰아홉. 그럼 그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102011 #1 고등학교 뎅길 때 짓언.(고등학교 다닐 때 지었어.)

102011 @ 고등학교 뎅길 때 짓언. 그럼 한 사십 년.(고등학교 다닐 때 지었어. 그럼 한 사십 년.)

102011 #1 중학교 삼 학년 때 짓어져신가?(중학교 삼 학년 때 지었나?)

102011 @ 예, 그럼 사십오 년 오십 년 가까이 뒈는 거라예.(예, 그럼 사십오 년 오십 년 가까이 되는 거지요.)

102011 #1 으.(으.)

102011 @ 그 집이, 중학교 옆이 집이서도 한 이십 년은 산 건게예?(그 집, 중학교 옆에 집에서도 한 이십 년은 산 거네요?)

102011 #1 응게.(으.)

102011 @ 결혼헹 그디 강 산 거난.(결혼해서 거기 가서 산 거니까.)

102011 #1 응.(응.)

102011 @ 그럼 시어멍이랑 ᄀᆞ치 옆이 산 거는 얼마 안 뒈는 거구나?(그럼 시어머니랑 같이 산 거는 얼마 안 되는 거구나?)

102011 #1 시어멍도 제기 돌아가 불고. 우리 고산도 강 글후젠 살고.(시어머니도 재게 돌아가 버리고. 우리 고산[33]도 가서 그 후에 살고.)

102011 @ 고산은 얼마나 살앗수과?(고산은 얼마나 살았습니까?)

102011 #1 고산도 한 오 년은 살아져실 거라.(고산도 한 오 년은 살았을 거야.)

102011 @ 게난 고산 간 거는 학교 거기로.(그러니까 고산 간 거는 학교 거기로.)

102011 #1 학교로 가난.(학교로 가니까.)

102011 @ 가난.(가니까.)

102011 #1 집 빌언 나, 우리 큰아덜 나고 셋아덜도 그디서 나고 허연 나왓주게.(집 빌려서 나, 우리 큰아들 낳고 둘째 아들도 거기서 낳고 해서 나왔지.)

102011 @ 큰아덜도 그디서 나고?(큰아들도 거기서 낳고?)

102011 #1 아니, 큰아덜은 이디서 난. 셋아덜은 그디서 난 허연 왓주기게.(아니, 큰아들은 여기서 낳어. 둘째 아들은 거기서 낳아서 해서 왔지.)

33) '고산'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를 말한다.

102011 @ 게민 삼춘 어디 어디 강 살아난 거라? 고산도 가고.(그럼 삼촌 어디 어디 가서 살았던 거야? 고산도 가고.)

102011 #1 저청[34]도 가고.(저청도 가고.)

102011 @ 저청도 오래 살안마씨?(저청도 오래 살았어요?)

102011 #1 아니, 저청은 흔 일 년. 가멍 오멍 차도 엇고게. 나 우리 셋아덜 배고 큰아덜 걸루고 허멍 뎅겻저.(아니, 저청은 한 일 년. 가면서 오면서 차도 없고. 나 우리 둘째 아들 배고 큰아들 걷게 하고 하면서 다녔어.)

102011 @ 하하하. 그럼 저청 먼저 간 고산?(하하하. 그럼 저청 먼저 간 고산?)

102011 #1 아니 고산이 ᄆᆞ녀 간.(아니, 고산이 먼저 갔어.)

102011 @ 예. 고산이 ᄆᆞ녀 간? 고산 간 셋아덜 난 건디?(예. 고산이 먼저 갔어? 고산 가서 둘째 아들 낳은 건데?)

102011 #1 으, 셋아덜 나도 저 글후제도 배연, 배연 그디 갓주게. 배연 난 저청도 흔 번 간 왕 고산은 두 번 가 왓주게, 두 번.(으, 둘째 아들 낳고 저 그 후에도 뱄어, 배서 거기 갔지. 배서 난 저청도 한 번 갔다 와서 고산은 두 번 가 왔지, 두 번.)

102011 @ 아, 경헨 다 헹 오 년 뒈는 거라?(아, 그래서 다 해서 오 년 되는 거야?)

102011 #1 으.(으.)

102014 @ 경헨 거기 강도 살아나고. 게난 자식덜은 지금 다덜 결혼시켯고예? 셋아덜이 나중에 돌아가신 것과? 돌아가시고. 어제 영 여기 왓다 갓다 하는 분은 작은아덜인 거?(그래서 거기 가서도 살았었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지금 다들 결혼시켰고요?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아가신 겁니까? 돌아가시고. 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작은아들인 거?)

102014 #1 작은아덜.(작은아들.)

102014 @ 시에서 살멍.(시에서 살면서.)

102014 #1 시엔 각시 살고게. 각시영 아덜이영 살고. 뚤 성젠 서울 강 살고.(시엔 각시 살고. 각시랑 아들이랑 살고. 딸 형젠 서울 가서 살고.)

102013 @ 게난 삼춘 시집살이는 안 헤신게.(그러니까 삼촌 시집살이는 안 했네요.)

102013 #1 나 시어멍이영 흔 일 년쯤 살아져신가?(나 시어머니랑 한 일 년쯤 살았나?)

102013 @ 게난.(그러니까.)

102013 #1 가멍 오멍.(가면서 오면서.)

102013 @ 가멍 오멍.(가면서 오면서.)

102013 #1 으.(으.)

102013 @ 시집살이 전혀 안 헷수다예. 복이랏수다.(시집살이 전혀 안 했네요. 복이었네요.)

102013 #1 아방[35] 밥헤 주젠 허난 ᄐᆞ로 갓주게. 우리 시어멍이 우리 집이 아방 막

34) '저청'은 제주시 한경면 저청리를 말한다.

35) '아방'은 표준어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둥이주게. 게난 이른일곱에 돌아간. 견디 암 걸련 돌아간게. 급성.(아버지 밥해 주려고 하니까 따로 갔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집의 아버지가 막내야. 그러니까 일흔일곱에 돌아갔어. 그런데 암 걸려서 돌아갔어. 급성.)

102013 @ 게난 결혼헤 가지고 막 오래 잇당 아니고 얼마 엇인 후제?(그러니까 결혼해 가지고 아주 오래 있다가 아니고 얼마 없는 후에?)

102013 #1 우리 족은아덜꺼지 난 때.(우리 작은아들까지 낳은 때.)

102013 @ 족은아덜꺼지 난 때.(작은아들까지 낳은 때.)

102013 #1 으, 우리 족은아덜 흔 네 설쯤에.(으, 우리 작은아들 한 네 살쯤에.)

102013 @ 삼춘이 스물여덜에 족은아덜 나시난 한 서른두 살쯤 돌아가져신게. 돌아가신지 한 오십 년이 뒈신게예?(삼촌이 스물여덟에 작은아들 낳았으니까 한 서른두 살쯤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신지 한 오십 년 되었네요?)

102013 #1 으, 경 뒛주.(으, 그렇게 됐지.)

102013 @ 게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난 시어머니.(그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시어머니.)

102013 #1 시어멍이 모녀 돌아간.(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갔어.)

102013 @ 게난 시아버지는 한 몇 년?(그러니까 시아버지는 한 몇 년?)

102013 #1 글후제 흔 오 년 나영 살앙 돌아갓주게.(그 후에 한 오 년 나랑 살고 돌아갔지.)

102013 @ 그럼 삼춘이 들어왕 시아버지를 모신 거라?(그럼 삼촌이 들어와서 시아버지를 모신 거야?)

102013 #1 으, 저 우리 사는 디, 이 집 빌려뒌 나가 모션 살앗주기게.(으, 저 우리 사는 데, 이 집 빌려두고 내가 모시고 살았지.)

102013 @ 저디서? 그럼 이 집은 놈 빌려 줘 불고?(저디서? 그럼 이 집은 남 빌려 줘 버리고?)

102013 #1 으. 경허연에 이제 하르방도 돌아가고 허난 이거 이젠 튿엉 짓엉 들어완.(으.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돌아가고 하니까 이거 이젠 뜯어서 지어서 들어왔어.)

102013 @ 으.(으.)

102013 #1 우리가 그때에이 저 앞더레랑 가지 말고 이 동더레만 오렌 헌디 저 앞이레 간게. 우리 하르방 그런 생각도 그런 거 아이 봔. 그디 가난이 잘도 아판게.(우리가 그때에 저 앞으로는 가지 말고 이 동으로만 오라고 했는데 저 앞으로 갔어. 우리 할아버지 그런 생각도 그런 거 안 봤어. 거기 가니까 잘도 아파서.)

102013 @ 누게가?(누가?)

102013 #1 식구가 다 펜안허지 못허연.(식구가 다 편안하지 못했어.)

102013 @ 아, 거기서?(아, 거기서?)

102013 #1 경허연에 이 집 짓엉 이디 온 후젠 막 잘도 펜안히 살암주.(그래서 이 집 짓고 여기 온 후에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지.)

102013 @ 여기 와가지고.(여기 와가지고.)

102013 #1 그땐 그디 집터도 좋지 안허고 그레 가민 막은이에 막은 디 가지 말렌 허는디 하르방 그레 보내난 헷주.(그땐 거기 집터도 좋지 않고 그리 가면 막은, 막은 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그리 보내니까 했지.)

102013 @ 경헨 이디 오난 펜안헷수과?(그래서 여기 오니까 편안했습니까?)

102013 #1 으.(으.)

102013 @ 결혼헹 살멍 막 힘들어난 일도 이실 거 아니?(결혼해서 살면서 아주 힘들었던 일도 있을 거 아니?)

102013 #1 결혼허연 힘들엉 어떵 허진 안허고.(결혼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진 않고.)

102013 @ 힘들진 안허고.(힘들진 않고.)

102013 #1 으, 농서영 하간 거 짓곡게 허젠 허난 그만이 고생 안 허영 살아지느냐?(으, 농사해서 온갖 거 짓고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니?)

102013 @ 게난 농서는 저, 남저 어른 학교 가 불민.(그러니까 농사는 저, 남자 어른 학교 가 버리면.)

102013 #1 가 불어도 이젠 나가 지엇주기게. 우리 시아방네 쉐 질루민 그 쉐 주민 그 사름이 다 밧 갈아주는 사름 장남 시난 밧도 하나 주고. 경허민 우리 밧 갈켜 허민 어게라 지네 거 아니라도 갈아주고. 경허난 헷주게.(가 버려도 이젠 내가 지었지.)

102013 @ 으, 거기서가 갈아 주고.(으, 거기서가 갈아 주고.)

102013 #1 으.(으.)

102013 @ 갈아 주고. 들일 때는?(갈아 주고. 들일 때는?)

102013 #1 들일 때는 우리가 놉 빌엉이라도. 거두와 들이고.(들일 때는 우리가 놉 빌려서라도. 거두워 들이고.)

102013 @ 남저 어른도 학교 안 가는 날은 ᄀᆞ치?(남자 어른도 학교 안 가는 날은 같이?)

102013 #1 ᄀᆞ치 헤사주게. 공일날은 아칙 일칙 일어난 강 보리도 무끄곡게. ᄀᆞ치 헤사주, ᄀᆞ치 안 헤영 어떵.(같이 해야지. 공일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보리도 묶으고. 같이 해야지, 같이 안 해서 어떻게.)

102013 @ 하하. 아이덜도 막 일시켯수과, 밧디 갈 때 데령?(하하. 아이들도 많이 일시켰습니까, 밭에 갈 때 데려서?)

102013 #1 밧디 ᄃᆞ랑, 어느제랑 공일 돌아오코 헤연 공일 돌아오민 비오고. 우리집이 큰아덜은 담 우이만 앚젠 허고.(밭에 데리고, 언제면 공일 돌아올까 해서 공일 돌아오면 비오고. 우리 집의 큰아들은 담 위에만 앉으려고 하고.)

102013 @ 어디 우이만?(어디 위에만?)

102013 #1 담 우이.(담 위에.)

102013 @ 무사?(왜?)

102013 #1 밧 담 우이게. 건덥고 쉬영 허켄게.(밭 담 위에. 시원하고 쉬고 하겠다고.)

102013 @ 아, 하하.(아, 하하.)

102013 #1 경허고 저 우리 셋아덜은 제기 헤덩 집이 가젠 안 허영 쉬젠만 헴젠 성신디 드러 야단허고 족은 건 아예 안 허젠만 허고.(그래서 저 우리 둘째아들은 재게 해두고 집에 가려고 안 하고 쉬려고만 한다고 형에게 매우 야단하고 작은아들은 아예 안 하려고 하고.)

102013 @ 아예 안 허젠만 허고.(아예 안 하려고 하고.)

102013 #1 경헨게 원 농서짓는 건 안 허젠 허여 우리 집은. 원 밧디 가젠 안 헌다게. 어떵허연 나 작년꺼진 고치영 ᄒᆞ끔썩 허난에 허여 도렌 허민 강 허여 주는디 원 허젠 안 허여.(그래서 원 농사짓는 건 안 하려고 해, 우리 집은. 원 밭에 가려고 안 해. 어떻게 나 작년까지 고추랑 조금씩 하니까 해 달라고 하면 가서 해 주는데 원 하려고 안 해.)

102013 @ 그때부터 경 헤신게. 그때부터.(그때부터 그렇게 했네. 그때부터.)

102013 #1 겨난 이 어린 때 크는 거 보민 알아져 이 아기덜은.(그러니까 이 어린 때 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이 아기들은.)

102012 @ 으, 뚤은 엇구나 삼춘예?(으, 딸은 없구나, 삼촌?)

102012 #1 나 보지도 안 헨게.(낳아 보지도 않았어.)

102012 @ 섭섭허다.(섭섭하다.)

102012 #1 경허난게 뚤덜 낭 헌 사름덜은 펜안히 살고 아덜 난 사름덜은게. 엿날은 아덜 낳젠 허민 잘 낳젠 헤라만은 이젠 뚤덜이 펜안허고, 뚤 난 사름이 펜안허고 아덜 난 사름은 뭐. 게난 키와본 사름덜 말이 뚤이 뚤이우덴. 다 어멍신디 속 말 허곡게.(그러니까 딸들 낳아서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아들 낳은 사람들은. 옛날은 아들 낳았다고 하면 잘 낳았다고 하더라만 이젠 딸들이 편안하고, 딸 낳은 사람이 편안하고 아들 낳은 사람은 뭐. 그러니까 키워본 사람들 말이 딸이 딸이라고. 다 어머니에게 속말하고.)

102012 @ 하하.(하하.)

102012 #1 어멍도 뚤신디 경허고. 뚤도 어멍신디 허고. 매날 전화 오는 것도 틀린덴. 우린 경 전화 오나 안 오나 이녁만 펜안허영 이녁만 속 안 쎅영 살민 말주 무신.(어머니도 딸에게 그렇게. 딸도 어머니에게 하고. 매날 전화 오는 것도 틀리다고. 우린 그렇게 전화 오거나 안 오거나 자기만 편안해서 자기만 속 안 썩어서 살면 말지 무슨.)

102012 @ 음, 게도 멧 번이라도 뚤이 더 올 거 아니? 먹을 거라도 사 들렁게.(음, 그래도 몇 번이라도 딸이 더 올 거 아니? 먹을 거라도 사 들고.)

102015 #1 우리 메누리덜 막 바빵게.(우리 며느리들 아주 바빠서.)

102015 @ 일헙니까?(일합니까?)

102015 #1 다 일 뎅겸주게. 셋메누린 남편 경 허여도 어린이집에 뎅기난.(다 일 다니고 있지. 둘째 며느리는 남편 그렇게 해도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102015 @ 아, 선생님이구나.(아, 선생님이구나.)

102015 #1 으, 그거 그디 허영 허여 불고. 족은메누린 또 족은메누리대로 일 뎅겨사 살주 일 아이 뎅경 살아져게. 게고 큰메누린 식당 허고.(으, 그거 거기 해서 해 버리고.

작은며느리는 또 작은며느리대로 일 다녀야 살지, 일 안 다녀서 살 수 있어. 그리고 큰며느리는 식당 하고.)

102015 @ 아, 식당 운영허고?(아, 식당 운영하고?)

102015 #1 으. 운영허고.(으. 운영하고.)

102015 @ 바쁜큰게게.(바쁘겠네요.)

102015 #1 게 바빠비난 이디 옴이영 제서 때덜은 시 동세가 어 내멍덜 시간 나는 양 허곡 헌다.(그래 바빠서 여기 오는거랑 제사 때들은 세 동서가 어 내면서들 시간 내는 양 하고 한다.)

102015 @ 게민 서로덜 다 연락허멍 지내는 거?(그럼 서로들 다 연락하면서 지내는 거?)

102015 #1 다 연락허주게, 연락 안 헹 지내느냐? 메덜에 다 돈덜 모당 헐 거 허고. 경허는 거 닮아.(다 연락하지, 연락 안 하고 지내니? 매달에 다 돈들 모아서 할 거 하고. 그러는 거 같아.)

102015 @ 예, 경허는 거 닮아예.(예, 그러는 거 같아요.)

102015 #1 으.(으.)

102015 @ 그럼 다 시에 사는 것과?(그럼 다 시에 사는 겁니까?)

102015 #1 다 시에.(다 시에.)

102015 @ 예, 예. 식게 때도 삼춘이 걱정 안 헹 큰메느리가 동서덜 연락허멍 허는 거라?(예, 예. 제사 때도 삼촌이 걱정 안 하고 큰며느리가 동서들 연락하면서 하는 거야?)

102015 #1 다 큰메누리영 다 갈랑 메끼난게.(다 큰며느리랑 다 나눠서 맡기니까.)

102015 @ 아, 뭐는 어디?(아, 뭐는 어디?)

102015 #1 으, 갈라 메끼난 다 이녁, 다 연락덜 허멍 다 헌다. 정월멩질은 큰메누리. 팔월은 셋메누리 경허고 제서도게 다 갈라 마트멍.(으, 갈라서 맡기니까 다 자기, 다 연락들 하면서 다 한다. 정월명질은 큰며느리. 팔월은 둘째 며느리 그리고 제사도 다 갈라서 맡으면서.)

102015 @ 갈랑 마트멍. 삼춘도 가지예. 그때는예?(갈라서 맡으면서. 삼촌도 가지요, 그때는요?)

102015 #1 난 다 허여 놩 ᄌᆞ냑이 저 아덜 혼디 강. 그디 강 쇼파에 눵 허당 출려 주민 먹엉 와벰주.(난 다 해 놔서 저녁에 저 아들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쇼파에 눠서 하다가 차려 주면 먹고 와버리지.)

102015 @ 하하.(하하.)

102015 #1 뭐 ᄋᆞ든둘 난 사름이. 나 젊을 땐 다 ᄀᆞ르쳐 줫저게. 난 적갈도 허민 막 예쁘게 콤콤허게 허는 따문. 나 흔 해 일분 가낫주게. 겨난 우리 집이 아방이 메누리덜신디 시어멍만이 적갈 곱게 허지 안헴젠 헤렌.(뭐 여든둘 난 사람이. 나 젊을 땐 다 가르쳐 줬지. 난 적도 하면 아주 예쁘게 꼼꼼하게 하는 때문. 나 한 해 일본 갔었지. 그러니까 우리 집의 아버지가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만큼 적 곱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래.)

102016 @ 언제 일본 갓수과?(언제 일본 갔습니까?)

102016 #1 아이고, 일분 거 멧에사 가져신지. 저 족은아덜 곧 풀아뒁.(아이고, 일본 거 몇에 갔는지. 저 작은아들 곧 팔아두고.)

102016 @ 아, 다 나이 먹엉?(아, 다 나이 먹고서?)

102016 #1 응게. 풀아뒨에 ᄉᆞ춘, 우리 고모 아덜이 누님 일본 흔 번 구경 옵서. 저 구경 헐 만헙니다, 일본. 저 어떵허연 사는 것도. 이디선 하도 일본, 일본 허민이 일본은 강 돈 당그네로 긁는 거만이 안 허느냐. 전기 제품이영. 경허난 우리 ᄉᆞ춘 오래비가 누님 흔 번 왕, 나 불러주크메 구경 흔 번 헙서 허난 난 족은아덜 풀아뒨 간 구경헷주게.(응. 팔아두고 사촌, 우리 고모 아들이 누님 일본 한 번 구경 오세요. 저 구경 할 만합니다, 일본. 저 어떻게 사는 것도. 여기선 아주 일본, 일본 하면 일본은 가서 돈 고무래로 긁는 거만큼 안 하니. 전기 제품이랑. 그러니까 우리 사촌 오라비가 누님 한 번 와서, 내가 부를 테니 구경 한 번 하세요 하니까 난 작은아들 팔아두고 가서 구경했어.)

102016 @ 겐 일년이나 잇엇던 거?(그래서 일 년이나 있었던 거?)

102016 #1 아니게, 그땐 두 덜 반썩 저 증명헤 줄 때난.(아니, 그땐 두 달 반씩 저 증명해 줄 때니가.)

102016 @ 예.(예.)

102016 #1 두 덜 반 뒈난 또 연기허젠 허난 우리 하르방이 ᄂᆞ시 못허게 헨. 연기허여 놩 와베세.(두 달 반 되니까 또 연기하려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도저히 못하게 했어. 연기해 놓고 와 버렸어.)

102016 @ 기민 두 달 반.(그럼 두 달 반.)

102016 #1 으, 살안 와 벳주.(으, 살고 와 버렸지.)

102016 @ 하하하. 더 잇고 싶어신디?(하하하. 더 있고 싶었는데?)

102016 #1 어. 간 짐에게 ᄒᆞ꼼 범도 허고이. 경허난 그땐이 이디 전기제품 엇인 때난 난 전기제품 욕심헹 갓주게. 경허난 사진기도 아덜, 메누리덜 거 시 개 사고. (어. 간 김에 조금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땐 여기 전기제품 없을 때니까 난 전기제품 욕심해서 갔지. 그러니까 사진기도 아들, 며느리들 거 세 개 사고.)

102016 @ 아이고.(아이고.)

102016 #1 전기 밥솟덜 후라이팬덜 다 헹 오난 그때 저디 봉옥이 아주방이 세관장신디 말허난 처음엔 막 클런에 처음 가방에 건 막 조사헹 간게 그 사름이 완 뭣이엔 ᄀᆞᆯ으난 내벼뒨 학 제기 가졍갑서 헨 왓주.(전기밥솥들 프라이팬들 다해서 오니까 그때 저기 봉옥이 아주버니가 세관장에게 말하니까 처음엔 마구 풀어서 처음 가방에 거는 마구 조사해서 가더니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버려두고 확 재게 가져가라고 해서 왔지.)

102016 @ 하하. 막 바리바리 상 왓수과, 게난 경 하영?(하하. 아주 바리바리 사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102016 #1 경허난 나 밥통 하난 내베 던 왓주게. ᄉᆞ춘ᄀᆞ라 올 때랑 거져다 도렌 헹. 경허난 전기후라이판, 카메라도 세 개, 밥솟게, 후라이판 헹 가졍 와 가난게. 전기아이론

허는 건 다 가져 왓주게.(그러니까 나 밥통 하나는 내버려 두고 왔지. 사촌보고 올 때 가져다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기 프라이팬, 카메라도 세 개, 밥솥, 프라이팬 해서 가지고 와 가니까. 전기다리미 하는 건 다 가져 왔지.)

102016 @ 으.(으.)

102016 #1 일본 가가지고 사촌 오래비 집이서 일도 허고?(일본 가서 사촌 오라비 집에서 일도 하고?)

102016 @ 일 허엿주게.(일 했지.)

102016 #1 ᄉᆞ춘 오래비네 집인 가는 날 ᄒᆞ루만 살안.(사촌 오라비네 집에는 가는 날 하루만 살았어.)

102016 @ 음.(음).

102016 #1 집 빌언에. 그디 아라카와귀약소[36] 이디 멘사무소 닮아 디라라게.(집 빌려서. 거기 아라카와구청 여기 면사무소 같은 데였어.)

102016 @ 예.(예.)

102016 #1 겨난 그디 그 공공 근로자로 아칙이 다 풀 뽑고. 멧이(그러니까 거기 그 공공근로자로 아침에 다 풀 뽑고. 몇이.)

102016 @ 예.(예.)

102016 #1 경허고 낮이 뻰또[37] 쌍 강 밥 먹고 밥 먹으민 또 오래 쉬여. 경헨 마또메 헐 거 가졍 강 앚아근에 밥 먹는 식탁 우이서덜 ᄒᆞ꼼 허단. 경허단 또시 풀 강 ᄒᆞ꼼 잡아 뎅기단 일이 일 아니랏주게.(그리고 낮에 도시락 싸서 가서 밥 먹고 밥 먹으면 또 오래 쉬어. 그래서 '마또메' 할 거 가지고 가서 앉아서 밥 먹는 식탁 위에서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또 풀 가서 조금 잡아 다니다가 일이 일 아니었지.)

102016 @ 하하. 게난 이디서 허는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하하.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

102016 #1 아무 것도 아니주게. 경허연에 허단 완. (아무 것도 아니지. 그렇게 하다가 왔어.)

102016 @ 게난 강 일헌 거는 어디 공장 강 일헌 게 아니고 그런 디 강 일헌 거?(그러니까 가서 일한 거는 어디 공장 가서 일한 게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일한 거?)

102016 #1 으. 난 그디 강 그 일 허단 와벳져게. 집인 오민 마도메 허고 밤이 줌자기 전이.(으. 난 거기 가서 그 일 하다가 왔어. 집에 오면 '마도메' 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102016 @ 마도메 허고?('마도메' 하고?)

102016 #1 어. 그 식당에 가근에이 허젠 헷자 나 못 허크라라. 설거지 허고 요리헹 내놓고 그디 스나쿠엔 헌 디 가민 안주도 확 자게 허고 누르미 지졍 내놓고 나 경 못 허여. 돈 월급 하영 주는 딘 그런 디 강 허민 월급 하크라라게. (어. 그 식당에 가서 하려고 해도 나 못 하겠더라. 설거지 하고 요리해서 내놓고 거기 '스나쿠'라고 하는 데 가

36) '아라카와귀약소'는 일본 도쿄의 행정 구역인 '아라카와구(あらかわく(荒川区))'의 '구청'을 말한다.
37) '뻰또'는 일본어 'べんとう'로 도시락을 말한다.

면 안주도 확 재게 하고 부침 지져서 내놓고 나 그렇게 못 해. 돈 월급 많이 주는 덴 그런 데 가서 하면 월급 많겠던데.)

102016 @ 근데 그, 그 거기 아라카와구약소 그디 아무안테나 일본 국적 엇어도 시켜 줍디가?(근데 그, 그 거기 아라카와구청 거기 아무에게나 일본 국적 없어도 시켜 줍디까?)

102016 #1 저 이디서 거트민이 이디 반장 허영 일허레 뎅기지 안 허느냐게?(저 여기서 같으면 여기 반장 해서 일하러 다니지 않니?)

102016 @ 예.(예.)

102016 #1 겨난 일본이 경 헴서라게.(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

102016 @ 응.(응.)

102016 #1 이디 한국에서도 프는 거 상점에 강 흐꼼 허엿주. 그때 강 보난 일본도 이처록 마트가 셔라게. 경허민 메역, 뒌장 마트출록 빈죽 놓민 이녁 살 거 ᄀᆞ정 왕 훼계 허영 나오곡 경허영. 이디가 다 일본식이라.(여기 한국에서도 파는 거 상점에 가서 조금 했지. 그때 가서 보니까 일본도 이처럼 마트가 있었어. 그러면 미역, 된장 마트처럼 가지런히 놓으면 자기 살 거 가지고 와서 회계해서 나오고 그래. 여기가 다 일본식이야.)

102016 @ 지금 허는 거예?(지금 하는 거요?)

102016 #1 으, 살아온 것이.(으, 살아온 것이.)

102016 @ 맞수다, 맞수다.(맞습니까, 맞습니다.)

102016 #1 그땐 일본이나베끼 경. 일본 가난 나도 그런 거 봣주기게. 경허민 일본 것사 우리 다 일본 글로 해석허고 거 허영 ᄀᆞ정 나왕 허젠 허난.(그땐 일본에나밖에 그렇게. 일본 가니까 나도 그런 거 봤지. 그러면 일본 거야 우리 다 일본글로 해석하고 거 해서 가지고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102016 @ 으.(으.)

102016 #1 그 먹는 것도 잘 몰르주게. 경헤영 이디 멧 헤 뒈여가난 이디도 마트도 생기고 헤여 가난 아 이거 일본이나 이디나 똑ᄀᆞ트구나.(그 먹는 것도 잘 모르지. 그래서 여기 몇 해 되어가니까 여기도 마트도 생기고 해 가니까 아 이거 일본이나 여기나 똑같구나.)

102016 @ 게난 일본 간 거는?(그러니까 일본 간 거는?)

102016 #1 구경허게 가 완게. 아라카와귀약소엔 헌 디 그 염에 우리 사촌 오래비네가 집 시난. 경 허난에 그디 소지[38]허는 거 사장. 그 사름신디 말허민 그 사름이 멧 멧 태왕 모집허영 어디 청소허는 디 보내고.(구경하러 갔다 왔어. 아라카와 구청이라고 하는 데 그 옆에 우리 사촌 오라비네 집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거기 청소하는 거 사장. 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몇 몇 태워서 모집해서 어디 청소하는 데 보내고.)

102016 @ 으.(으.)

102016 #1 새집 짓엉 아파트 허는 디 이제 지방 홈에 구둠덜이여 뭣이여, 다 짓어 논 디 이사 가젠 허민 소지 안 허느냐? 경허민 그런 거 허여 도렌 허민 그거 반 저 사

38) '소지'는 일본어 'そづじ(掃除)'로 청소의 의미다.

장이 다 어디 멧 명 어디 멧 명 헤라. 경허난 우리도 경헌 디도 뎅기고.(새집 지어서 아파트 하는 데 이제 문지방 틈에 먼지들이며 뭐며, 다 지어 놓은 데 이사 가려고 하면 청소 하지 않니? 그러면 그런 거 해 달라고 하면 그거 반 저 사장이 다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데도 다니고.)

102016 @ 으. 게난 용역 일을 헌 건게예. 그런 디 일당 받앙 강.(으. 그러니까 용역 일은 한 거네요. 그런 데 일당 받고 가서.)

102016 #1 일당 받앙. 일본은 다 경 험주게, 일덜. 그때도 중국 사름덜도 하영 가서라. 중국 아이덜도.(일당 받고. 일본은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일들. 그때도 중국 사람들도 많이 갔더라. 중국 아이들도.)

102016 @ 일허레?(일하러?)

102016 #1 으, 일허레.(으, 일하러.)

102016 @ 게난 삼춘 일본 말 몰라도 강 지내는 데 불편헌 거 엇고?(그러니까 삼촌 일본 말 몰라도 가서 지내는 데 불편한 거 없고?)

102016 #1 다게 한국 사름덜이고 아라카와구약소에 강 청소허는 것도 이녁 헐 것만 허민게. 대강 곧는 건 알아먹어져도 곧진 못허고.(다 한국 사람들이고 아라카와구청에 가서 청소하는 것도 자기 할 것만 하면. 대강 말하는 건 알 수 있어도 말하진 못하고.)

102016 @ 곧진 못허고.(말하진 못하고.)

102016 #1 경헌디게 저 일본 시대에게 일 학년 헨 이 학년 곧 올라가난 허난 헌디 혼 번은 그 일 허는 딜 이젠 가게 뒈서. 가난이 확 탄 게 꺼꿀로 가는 그 전철을 나가 타젼게. 아라카와구약소엔 헌 디 올 만은 허다만은. 일 강 오단.(그런데 저 일본 시대에 일 학년 해서 이 학년 곧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한 번은 그 일 하는 데를 이젠 가게 되었어. 가니까 확 탄 것이 거꾸로 가는 그 전철을 내가 탔어. 아라카와구청라고 하는 데 올 만하다만. 일 가서 오다가.)

102016 @ 으.(으.)

102016 #1 것도 이상허다, 무사 아라카와구약소를 아이 불럼신고 경허단 이젠 아라카와구약소 이제 어디 가느닌 청허난 그 일본 사름이 날ᄀᆞ라 아이고 오바상[39] 한따이노데스요[40].(것도 이상하다, 왜 아라카와구청을 안 부르나 그러다가 이젠 아라카와구청 이제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그 일본 사람이 나보고 아이고 아주버니 반대예요.)

102016 @ 아이고, 삼춘 일본말 잘 헴수다.(아이고, 삼촌 일본 말 잘 하네요.)

102016 #1 게난 ᄒᆞ꼼 알아먹긴 허주게. 한따이노데스요 허난에 아이고 이젠 어떵 이 찰 세와 도렌 나가 바들랑바들랑헤져.(그러니까 조금 알아먹긴 하지. 반대예요 하니까 아이고 이젠 어떻게 이 차를 세워 달라고 내가 바동바동했어.)

102016 @ 하하하.(하하하.)

102016 #1 경허난 이제 다음 정거장에 강 내령 한따이노[41] 강 아라카와구약소[42]마

39) '오바상'은 일본어 'おばさん'으로 '아주머니'의 의미다.
40) '한따이데스요'는 일본어 '反対ですよ'로 '반대예요'의 의미다.
41) '한따이노'는 일본어 '反対の'로 '반대의'의 의미다.
42) '아라카와구약소'는 일본 도쿄의 행정 구역인 '아라카와구(あらかわく(荒川区))'의 '구청'을 말한다.

데[43] 멧 정거장 가건 내리렌. 겨난 이제 활딱 내렷어. 게난 막 으라 정거장 가져서라게. 겨난 이젠.(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거장에 가서 내려서 반대로 가서 아라카와구청까지 몇 정거장 가면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얼른 내렸어. 그러니까 아주 여러 정거장 갔더라. 그러니까 이젠.)

102016 @ 경헨 아라카와구약소에 가젼?(그래서 아라카와구청에 갈 수 있었어?)

102016 #1 경허난 이젠 혼동안 방송 안 헨. 아라카와구약소마데 얼마 남아시니 허난 이제 두 정거장만 돌아가민 기엔.(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방송 안 했어. 아라카와구청까지 얼마 남았을까 하니가 이제 두 정거장만 돌아가면 그렇다고.)

102016 @ 으.(으.)

102016 #1 경허연 이제 그디 오난 이제 아라카와구약소 거느리난 이제 내련. 헌 디 캄캄허연이 낮이는 헌디 밤이라비난 불도 하나 엇고 정거장에 내련. 겐 제우제우 촛안.(그래서 이제 거기 오니까 이제 아라카와구청 말하니까 이제 내렸어. 그런데 깜깜해서 낮엔 그런데 밤이어서 불도 하나 없고 정거장에 내렸어. 그래서 겨우겨우 찾았어.)

102016 @ 음.(음.)

102016 #1 집이선 경 어둑도록 안 와가난게 질 여베시카 부덴 오죽 허느냐게. 경헨 집이 촛안 가시난 아이고 누이ᄀᆞ라 날ᄀᆞ라 잘 촛앗젠. 우리 고모도 그디서 질 일후완 ᄉᆞ못.(집에선 그렇게 어둡도록 안 오니까 길 잃어버렸을까 봐 오죽 하니. 그래서 집에 찾아 가니까 아이고, 누이보고 날보고 잘 찾았다고. 우리 고모도 거기서 길 잃어버려서 사뭇.)

102016 @ 음.(음.)

102016 #1 허여나고렌 ᄉᆞ못 ᄀᆞᆯ아라게. 게 일본 말 ᄒᆞ꼼 엄불리[44]난게 촛아왓주게.(했었다고 사뭇 말하더라. 그래 일본 말 조금 '엄불리니까' 찾아왔지.)

102016 @ 게난 게난 그거 국민학교 때 배운 거 알안 가난 써 먹고.(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국민학교 때 배운 거 알고 가서 써 먹고.)

102016 #1 일본 말게 듣곡게 허난 무신 말은 어떵헌 거 알아먹엇주게. 경허난게 아라카와구약소마데 도꼬니.(일본 말 듣고 하니까 무슨 말은 어떠한 거 알아먹지. 그러니까 아라카와구청까지 어디에.)

102016 @ 지금도 기억헴수다예?(지금도 기억하고 있네요?)

102016 #1 으, 경허난에 한따이노데스요 허난 이제 거꾸로 와졋구나 헨 ᄉᆞ못 부랴부랴 헤연 가낫주게.(으, 그러니까 반대예요 하니까 이제 거꾸로 왔구나 해서 사뭇 부랴부랴 해서 갔었지.)

102016 @ 게난 어린 때 배웟던 말도 다 기억하고게.(그러니까 어린 때 배웠던 말도 다 기억하고.)

102016 #1 어린 때, 거 어린 때 거 배운 글이난 기억헴주이.(어린 때, 거 어린 때 배운 글이니까 기억하고 있지.)

---

43) '마데'는 일본어 'まで'로 '까지'의 의미다.

44) '엄불리다'는 말을 분간하여 똑똑히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02015 @ 게난. 기억허고 잇어. 메누리덜은 영 살갑게 굽니까, 삼춘안티?(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 며느리들은 이렇게 살갑게 굽니까, 삼촌에게?)

102015 #1 오게. 난 메누리신디 욕도 한 번 안 혜 보고 무사 경험딘도 한 번 안 혜 봣저. 놈의 아기 돌아다 놩. 돌아오민 기자 이녁 가족인가 아긴가 허여 헤사주이. 경허고 흔디 경 살아 보지도 안허고게. 나가 허멍 다 보내주고 다 허염주게.(그래. 난 며느리에게 욕도 한 번 안 해 보고 왜 그러니도 한 번 안 해 봤어. 남의 아기 데려다 놓고. 데려오면 그저 자기 가족인가 아긴가 해서 해야지. 그리고 같이 그렇게 살아 보지도 않고. 내가 하면서 다 보내주고 다 하고 있지.)

102015 @ 게난 김치도 다 헹 보내주고.(그러니까 김치도 다 해서 보내주고.)

102015 #1 김치도 허영 보내 주고 나가. 지름도 빵 뒈나마나 먹을 거 흔 뒈썩이라도 다 주곡. 고칫ᄀᆞ룬 고칫ᄀᆞ루 다. 부모덜은 아기신더레 베풀젠 허주만은 아기덜은 어멍 생각 헴시민 효도 아이 뒐 아이가 엇일 거여.(김치도 해서 보내 주고 내가. 기름도 빼서 되나마나 먹을 거 한 되씩이라도 다 주고. 고춧가룬 고춧가루 다. 부모들은 아기에게 베풀려고 하지만 아기들은 어머니 생각하고 있으면 효도 안 될 아이가 없을 거야.)

102015 @ 게난예. 예, 맞수다.(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102015 #1 어멍덜은게 시어멍이고 아무 거고 이제 막. 시어멍덜 어떤 사름덜은 ᄀᆞᆫ는 거 보민 싸웟젠덜 옛날은 헤도 우린. 나도 우리 시어멍광 ᄃᆞ타 보지 안허고. 나 우리 시어멍 나신더레 욕헤난 건 나 이제도 딱 기억헤진다게. 우리 집이 큰아덜이 난이 도글도글 걸을 때라.(어머니들은 시어머니고 아무 거고 이제 아주. 시어머니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면 싸웠다고 옛날은 해도 우린. 나도 우리 시어머니와 다퉈 보지 않고. 나 우리 시어머니 나에게 욕했던 건 나 이제도 딱 기억할 수 있어. 우리 집의 큰아들이 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야.)

102015 @ 으.(으.)

102015 #1 그땐 오일장 막 살 때주게. 경허난 졸 비레 가젠 허난이 조크루[45]에 발 잘 찔루주게.(그땐 오일장 아주 설 때지. 그러니까 조를 베러 가려고 하니까 '조크루'에 발 잘 찔리지.)

102015 @ 예.(예.)

102015 #1 비영 영 허민 코젱이추룩 헤영 겨난 아긴 돌아 가사 헐 거고. 겨난 장이 경 제기 사느냐게. 장 산에 그 신 신경게 오토바도 엇고 차도 엇엉 걸언 가가난 거자 낮 때 뒝 간 거 아니. 경헨 가신디 게난 우리 시어멍이 막 나신디 욕허곡이.(베어서 이렇게 하면 꼬챙이처럼 해서 그러니까 아긴 데리고 가야 할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재게 서니. 시장 서서 그 신 신기고 오토바이도 없고 차도 없어서 걸어서 가니까 거의 낮 때 돼서 간 거 아니. 그렇게 갔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나에게 욕하고.

102015 @ 이제사 왓덴?(이제야 왔다고?)

102015 #1 으, 늦언 왓덴 막. 경허연난 거 하난 딱 기억이 나.(으, 늦게 왔다고 아주. 그랬던 거 하난 딱 기억이 나.)

45) '조크루'는 조를 심어 기르고 거둔 자리를 말한다.

102015 @ 예.(예.)

102015 #1 경허난 나도 경 골안게. 저 아기 조쿠루에 발 찔루카 부덴 나 신 상 신경 오젠 허난에 경 늦입디겐게. 나 경헹 골아낫주게.(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말했어. 저 아기 '조크루'에 발 찔릴까 봐 나 신 사서 신기고 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늦었다고. 나 그렇게 말했었어.)

102015 @ 예.(예.)

102015 #1 경베낀 나 안 헤 봣저. 우리 시어멍도 경허고. 기고제고. 경허난 선허게 알아져.(그렇게밖에 나 안 해 봤어.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그러고저러고. 그러니까 선하게 알아.)

102015 @ 예.(예.)

3. 밭일

103001 @ 여기 신창에서는 밧일 옛날에 어떤 일들을 헤낫수과?(여기 신창에서는 밭일 옛날에 어떤 일들을 했었습니까?)

103001 #1 밧일게 フ새 곧듯이.(밭일 아까 말하듯이.)

103001 @ 그니까 보리농사도 허고 또?(그러니까 보리농사도 하고 또?)

103001 #1 조.(조.)

103001 @ 조 또?(조 또?)

103001 #1 콩.(콩.)

103001 @ 콩. 그런 농서덜 지어난예?(콩. 그런 농사들 지었어요?)

103001 #1 으, 감제 허고.(으, 고구마 하고.)

103001 @ 감제 허고예.(고구마 하고요.)

103001 #1 옛날은 그거베끼 안 헷주게.(옛날은 그거밖에 안 했지.)

103001 @ 기민.(그럼.)

103001 #1 꿰 허고.(깨 하고.)

103001 @ 으, 꿰 허고 기민 저기 보리, 보리농사. 농사렌 헷수과 용시렌 헷수과?(으, 깨 하고 그럼 저기 보리, 보리농사. 농사라고 했습니까 '용시'라고 했습니까?)

103001 #1 농사, 농사.(농사, 농사.)

103001 @ 용시렌 안 곧고?('용시'라고 안 하고?)

103001 #1 아, 용시엔도 허곡게.(아, '용시'라고도 하고.)

보리농사

103002 @ 기민 보리용시 짓어난 거 골아 줍서.(그럼 보리농사 지었던 거 말해 주세요.)

103002 #1 게난 보리용시 헐 때 곳새추록.(그러니까 보리농사 할 때 아까처럼.)

103002 @ 으.(으.)

103002 #1 걸름 내영 통세 도새기 질뢍.(거름 내서 돼지우리 돼지 길러서.)

103002 @ 아, 게민 준비를 허는 거라예.(아, 그럼 준비를 하는 거지요.)

103003 #1 으, 그 걸름을 이제 내영 이제 씨 뿌렁 그 보리씰 그 걸름더레. 그 밧디 헐 만이.(으, 그 거름을 이제 내서 이제 씨 뿌려서 그 보리씨를 그 거름으로. 그 밭에 할 만큼.)

103003 @ 예.(예.)

103003 #1 경헨 뿌려근에 이젠 쉐로 막 불려. 경헤영 혼쪽에 데명 놔뒷단 둣냇날은 멩텡이 요만썩헌 멩텡이에 담으멍 쉐에영 물에영 시꺼. 우리도 지곡 허멍 밧디 가민 이레 방 벌여가지고 나눠.(그래서 뿌려서 이젠 소로 마구 밟아. 그래서 한쪽에 쌓아서 놔뒀다가 뒷날은 망태기 요만한 망태기에 담으면서 소랑 말이랑 실어서. 우리도 지고 하면서 밭에 가면 이리 간격 벌려가지고 나눠.)

103003 @ 나눠.(나눠.)

103003 #1 경허영 해원 시꺼다 놩 둣냇날은 여저덜은 그 보리 사이만썩.(그래서 종일 실어다 놓고 뒷날은 여자들은 그 보리 사이만큼씩.)

103003 @ 예.(예.)

103002 #1 어느 정도민 보리가 드물지도 않고 줏지도 안헐 거다 영 착착 걸름을 다 뿌려. 경 다 뿌리민 남저 어른은 쉐 허영 잠대 허영 그 걸름을 묻어지게 밧을 갈아.(어느 정도면 보리가 드물지도 않고 빽빽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착착 거름을 다 뿌려. 그렇게 다 뿌리면 남자 어른은 소 해서 쟁기 해서 그 거름을 묻히게 밭을 갈아.)

103002 @ 음.(음.)

103002 #1 경허민 내중에 그걸 씨 낭 오줌도 져당 더끄고. 몸도 허여 오는 사름은 몸도 헤당 더끄고 헤여근에 보릴 비영 장만헷주기게.(그러면 나중에 그걸 씨 나서 오줌도 져다가 덮고. 모자반도 해 오는 사람은 모자반도 해다가 덮고 해서 보리를 베다가 장만했지.)

103002 @ 음.(음.)

103002 #1 보리 비영, 비영 이젠.(보리 베어서, 베어서 이젠.)

103002 @ 보리 비는 건 이땅 물어보고예, 아까 걸름 내는 거는 보리 갈젠 허믄 며칠 전이나 경 걸름을 냅니까, 돗걸름을?(보리 베는 건 이따가 물어보고요, 아까 거름 내는 거는 보리 갈려고 하면 며칠 전에나 그렇게 거름을 냅니까, 돼지거름을?)

103002 #1 돗걸름은 혼 열흘 안에게.(돼지거름은 한 열흘 안에.)

103002 @ 아, 열흘 안에.(아, 열흘 안에.)

103002 #1 건 출려지민 밧디 강 놩 허는 거난.(건 차려지면 밭에 가서 놔서 하는 거니까.)

103002 @ 그럼 걸름 내난 다음, 다음날 영 씨 뿌리는 거라, 거기 걸름에?(그럼 거름 내고 난 다음, 다음날 이렇게 씨 뿌리는 거야, 거기 거름에?)

103002 #1 걸름에 아니. 내는 날.(거름에 아니. 내는 날.)

103002 @ 내는 날.(내는 날.)

103002 #1 내는 날 다 내여 놩, 놉 빌엉 다 내여 놩 보리씰 그 밧디 헐 만이 그 걸름더레 다 삐영. 이젠 쉐로 불려. 경헤영 이젠 데며근에 시껑 그 밧디 그 걸름을 놩 헤낫주게.(내는 날 다 내어 놓고, 놉 빌려서 다 내어 놔서 보리씨를 그 밭에 할 만큼 그 거름에 다 뿌려. 이젠 소로 밟아. 그래서 이젠 쌓아다가 실어서 그 밭에 그 거름 놔서 했었지.)

103002 @ 음.(음.)

103002 #1 이걸로 놓민 어느 밧 어느 밧까지 갈 거다. 씨를 너미 하, 이제 걸름이 족으민 씰 많이 놓고 걸름이 항 씰 요 밧디 헐 거다 허민 씨를 ᄒᆞ꼼 족게 놓곡 허영 다 마련허영 농사지어.(이걸로 놓으면 어느 밭 어느 밭까지 갈 거다. 씨를 너무 많이, 이제 거름이 적으면 씨를 많이 놓고 거름이 많아서 씨를 요 밭에 할 거다 하면 씨를 조금 적게 놓고 해서 다 마련해서 농사지어.)

103002 @ 아, 그건 다 예상허연 이 걸름 정도면 어느 밧디 허겠다.(아, 그건 다 예상해서 이 거름 정도면 어느 밭에 하겠다.)

103002 #1 으.(으.)

103002 @ 게민 돗걸름은 일 년에 멧 번이나 냅니까?(그럼 돼지거름은 일 년에 몇 번이나 냅니까?)

103002 #1 ᄒᆞᆫ 번 내여. 음력 시월에.(한 번 내. 음력 시월에.)

103002 @ 음력 시월에. 게민 항상 돗걸름은 그 보리농사 짓기 전이 내는 거라?(음력 시월에. 그럼 항상 돼지거름은 그 보리농사 짓기 전에 내는 거야.)

103004 #1 으, 내여 놩 보리씨 서껑 보리 시월덜에 갈주게.(으, 내어 놓고 보리씨 섞어서 보리 시월에 갈지.)

103004 @ 보리 시월덜에 가는 거예?(보리 시월에 가는 거요?)

103004 #1 으. 경허민 여저덜은 그 걸름 부수 데기멍 착착 놓젠 허민 허리도 아프곡 게 손에도 경헤영 어디 물이 셔게. 테역더레 손 영 영 헤 뒁 자리젓에 밥덜도 먹고.(으. 그러면 여자들은 그 거름 잘 으깨면서 착착 놓으려고 하면 허리도 아프고 손에도 그래서 어디 물이 있어. 띠밭에 손 이렇게 이렇게 해 두고 자리젓에 밥들도 먹고.)

103004 @ 먹고. 하하. 게민 여저덜은.(먹고. 하하. 그럼 여자들은.)

103004 #1 경허여도 식중독도 안 걸려.(그래도 식중독도 안 걸려.)

103004 @ 안 걸렷잖아예. 여저덜은 경허영 걸름을 좁아 논 거라예. 게민 남저덜은 뭐 허고?(안 걸렸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거름을 집어 놓은 거지요. 그럼 남자들은 뭐 하고?)

103004 #1 남잔 밧 갈고게게. 경허영 벙뎅이이 이만이 나민 우린 곰베 허영 그걸. 곰베엔 헌 건 낭토막 헤영 그디 영 그 벙뎅일 풀어야 그것이 나게 뒈난 우린 벙뎅일 다 갈아가민. 그거 다 놔뒁 밧 갈아 가민 벙뎅이 풀고.(남잔 밭 갈고. 그래서 덩어리 이만큼 나면 우린 곰방메 해서 그걸. 곰방메라고 하는 건 나무토막 해서거기 이렇게 덩어리

를 풀어야 그것이 나게 되니까 우린 덩어리를 다 갈아가면. 그거 다 놔두고 밭 갈아 가면 덩어리 풀고.)

103004 @ 으. 그럼 보리 걸름 영 영 젭아 놓는 게 먼저다예?(으. 그럼 보리 거름 이렇게 이렇게 집어 놓는 게 먼저네요?)

103004 #1 으.(으.)

103004 @ 밧디 다 졍 다니멍 젭아 놩.(밭에 다 지고 다니면서 집어 놔서.)

103004 #1 으게.(으.)

103004 @ 그다음 남자가, 장남이엔 곱니까?(그다음 남자가, '장남'이라고 말합니까?)

103004 #1 어게. 아방, 아방도 허곡게.(그래. 아버지도, 아버지도 하고.)

103004 @ 아방이?(아버지가?)

103004 #1 놉 빌엉 허는 사름은 장남 빌엉도 허고.(놉 빌려서 하는 사람은 일꾼 빌려서도 하고.)

103004 @ 장남 빌엉 허고.(일꾼 빌려서 하고.)

103004 #1 장남이 밧을 갈민 여저덜은 곰베 허영 톡톡 그걸 그 걸름 난 것도 영 묻어주곡.(일꾼이 밭을 갈면 여자들은 곰방메 해서 톡톡 그걸 그 거름 나온 것도 이렇게 묻어주고.)

103004 @으.(으.)

103004 #1 팡팡 벙뎅이 이만썩 헌 것 튀여나민 패영 그 흑을 부숴와사 그 종자가 잘 사주게.(팡팡 덩어리 이만큼씩 한 것 튀어나면 패서 그 흙을 부셔서 그 종자가 잘 사지.)

103004 @ 경헨 영 밧 간 다음에 섬비질을 따로 안 허여?(그래서 이렇게 밭 간 다음에 끙게질을 따로 안 해?)

103004 #1 섬비질은 조 불릴 때.(끙게질은 조 밟을 때.)

103004 @ 아, 보리헐 때는 안 허여?(아, 보리 할 때는 안 해?)

103004 #1 보리 헐 땐 엇어.(보리 할 땐 없어.)

103004 @ 보리 헐 때는 곰베질만 허민 뒈는 거?(보리 할 때는 곰방메질만 하면 되는 거?)

103004 #1 어. 꿰 갈 때에 이제 조 헐 때에 섬비질 허영 불리고 꿴 섬비질만 헤영 내불고.(어. 깨 갈 때에 이제 조 할 때에 끙게질 해서 밟고 깨는 끙게질만 해서 내버리고.)

103005 @ 음. 보리씨는 밧디 강 뿌리는 건 아니다예. 거름에 영 뿌리는 거다예.(음. 보리씨는 밭에 가서 뿌리는 건 아니네요. 거름에 이렇게 뿌리는 거네요.)

103005 #1 엿날엔 경 헷주게.(옛날엔 그렇게 했지.)

103005 @ 보리씨 거름에 뿌릴 때 어떵 뿌립니까?(보리씨 거름에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1 어떵 뿌려, 그냥 촥촥.(어떻게 뿌려, 그냥 쫙쫙.)

103005 @ 경헌 다음.(그런 다음.)

103007 #1 쉐로 불려.(소로 밟아.)

103006 @ 예, 예. 보리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예, 예. 보리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06 #1 술오리.(쌀보리.)

103006 @ 술오리.(쌀보리.)

103006 #1 어. 맥주보리.(어. 맥주보리.)

103006 @ 맥주보리.(맥주보리.)

103006 #1 어.(어.)

103006 @ 술보리렌 안 헨 술오리렌 헤?('술보리'라고 안 하고 '술오리'라고 해?)

103006 #1 어. 술오리.(어. '술오리'.)

103007 @ 아. 보리밧 갈아놩 보리밧 불르지 안허여?(아. 보리밭 갈아 놓고 보리밭 밟지 않아?)

103007 #1 보리 갈아 놩 혼 정월쯤 나 가민 허는 밧덜은 싯고.(보리 갈아 놔서 한 정월쯤 되어 가면 하는 밭들은 있고.)

103007 @ 으.(으.)

103007 #1 굼벵이 신 밧덜은 헤도 경 안 헌다.(굼벵이 있는 밭들은 해도 그렇게 안 해.)

103007 @ 거기 불르는 밧덜은 무사 불르는 거라?(거기 밟는 밭들은 왜 밟는 거야?)

103007 #1 이디 굼벵이나 신가, 그 보리가 어떵 뭣 헤 가민 불라줘.(여기 굼벵이나 있는가, 그 보리가 어떻게 뭐 해 가면 밟아 줘.)

103007 @ 보리 영 붋는 건 보리가 영 난.(보리 이렇게 밟는 건 보리가 이렇게 났어.)

103007 #1 옴게.(여물게.)

103007 @ 후제?(후에?)

103007 #1 옴게. 그거 영 들러젼 잘 허난 그걸 제깍허게[46] 정월 나민 불라 줘. 경허민 그것이 거령[47] 좋나 거.(여물게. 그거 이렇게 들려서 잘 하니까 그걸 '제깍하게' 정월 되면 밟아 줘. 그러면 그것이 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서 좋아 거.)

103007 @ 아. 기민 정월 나민 보리가 이만이 나실 거 아니?(아. 그럼 정월 되면 보리가 이만큼 났을 거 아니?)

103007 #1 으, 약간 약간 난다게. 시월에 갈민 뭐 푸기 안 앚앙.(으, 약간 약간 나. 시월에 갈면 뭐 포기 안 앉아서.)

103007 @ 아. 기민 그걸 사람이 밟는 거?(아. 그럼 그걸 사람이 밟는 거?)

103007 #1 으, 경허민 그걸 이월 나 가민 푸기 앚앙.(으, 그러면 그걸 이월 되어 가면 포기 앉아서.)

103007 @ 푸기 앚앙이 무신 말?(포기 앉아서 무슨 말?)

---

46) '제깍허다'는 빈틈없는 꽉 찬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여기서 '제깍허게'는 '빈틈없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47) '거리다'는 나뭇가지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가다는 의미다.

103007 #1 보리가 영 게느다랗던 것이 폭폭 멧 개로 거려. 푸기 앚나 헌 것이.(보리가 이렇게 가느다랗던 것이 폭폭 몇 개로 줄기가 갈라져. 포기 앉아 하는 것이.)

103007 @ 아, 그걸 푸기 앚는덴 헙니까?(아, 그걸 포기 앉는다고 합니꺼?)

103007 #1 으.(으.)

103007 @ 그럼 보리를 밟아 주는 거, 그 옆을 밟아 주는 거?(그럼 보리를 밟아 주는 거, 그 옆을 밟아 주는 거?)

103007 #1 보리 우이라고 불른다.(보리 위라고 밟는다.)

103007 @ 그럼 그 보리 우이를 불른 때.(그럼 그 보리 위를 밟을 때.)

103007 #1 어떵 안허여.(어떻지 않아.)

103007 @ 사람만 불르는 거라예?(사람만 밟는 거지요?)

103007 #1 아니게. 사름으로 어떵 듬성듬성 저 물로도 불려 낫저만은. 엿날은 경 불리당 안 불려서.(아니. 사람으로 어떻게 듬성듬성 저 말로도 밟았었지만. 옛날은 그렇게 밟다가 안 밟았어.)

103008 @ 예. 보리밧디 검질메지예?(예. 보리밭에 김매지요?)

103008 #1 검질메주게.(김매지.)

103008 @ 예.(예.)

103008 #1 무신 약 혼 번 셔사게?(무슨 약 한 번 있었어?)

103008 @ 예. 보리밧디 검질 멧 번이나 멥니까?(예. 보리밭에 김 몇 번 맵니까?)

103008 #1 보리밧딘 혼불베끼 못 메여. 농사 하영 짓고 손으로 언제랑 그 밧 메고 저 밧 메고 허여. 허단 보민 두불 메져? 보린 커 불고.(보리밭엔 초불밖에 못 매. 농사 많이 짓고 손으로 언제면 그 밭 매고 저 밭 배고 해. 하다가 보면 두벌 맬 수 있어? 보린 커 버리고.)

103008 @ 어. 게민.(어. 그럼.)

103008 #1 경허민 보리밧디 누게네 밧디 아이고, 검질이 ᄉᆞ못 보리 우이 올라서라. 대우리가 올라서라 허멍 소문덜 나고.(그러면 보리밭에 누구네 밭에 아이고, 김 사뭇 보리 위에 올랐더라. 귀리가 올랐더라 하면서 소문들 나고.)

103008 @ 게민 보리는 아까 시월에 갈앗잖아예. 그리고 나서 정월 뒈민 붋앗잖아예?(그럼 보리는 아까 시월에 갈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월 되면 밟아잖아요?)

103008 #1 어.(어.)

103008 @ 검질은 언제 멥니까?(김은 언제 맵니까?)

103008 #1 이월에.(이월에.)

103008 @ 이월에, 음력 이월에?(이월에, 음력 이월에?)

103008 #1 으, 이월 말일꺼지 삼월 말일꺼지 검질메여.(으, 이월 말일까지 삼월 말일까지 김매.)

103009 @ 봄 나민 검질메염구나예. 게민 보리밧디 어떤 검질덜이 납니까?(봄 되면 김맸군요. 그럼 보리밭에 어떤 김들이 납니까?)

103009 #1 진풀도 나고 고시락풀도 나곡게. 그 밧에 따랑게. 경허민 굴겡이로게. 겨

민 옛날 할망덜은 ᄉᆞ못 건 것만 메라 허주게.(박조가리나물 나고 '고시락풀'도 나고. 그 밭에 따라서. 그러면 호미로.)

103009 @ 으.(으.)

103009 #1 그거 다 일일이 줌진 거 메젠 허민 이 작산[48] 밧 어떵허연 메느니 헹 우리 할망네도 야, 건거[49] 메영 가달만 넴기라, 가달만 넴기라 허여낫주게.(그거 다 일일이 잔 거 매려고 하면 이 넓은 밭 어떻게 매니 해서 우리 할머니네도 야, 큰 거만 매고 다리 넘겨라, 다리만 넘겨라 했었어.)

103009 @ 무사 가달만 넘기라? 무슨 말?(왜 다리만 넘겨라? 무슨 말?)

103009 #1 빨리, 빨리 멩 제기 나오렌. 허고 조도, 조도 ᄋᆞ름에 헹 불리민 조도 ᄉᆞ꽈 줘사 홁어. 경허난에 빨리 빨리 다른 것도 다 허여 줘살 거난 대강대강 허연 제기 나오라.(빨리, 빨리 매서 재게 나오라고. 그리고 조도, 조도 여름에 해서 밟으면 조도 솎아야 굵어. 그러니까 빨리 빨리 다른 것도 다 해 줘야 할 거니까 대강대강 해서 재게 나와라.)

103009 @ 하하. 대강대강 허연.(하하. 대강대강 해서.)

103009 #1 조팟, 조팟은 검질 세 번썩 메어.(조밭, 조밭은 김 세 번씩 매.)

103009 @ 조팟은 이땅 물어보쿠다예. 아까 보리밧에 나는 풀이?(조밭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리밭에 나는 풀이?)

103009 #1 진풀.(박조가리나물.)

103009 @ 진풀.(박조가리나물.)

103009 #1 고시락풀.('고시락풀'.)

103009 @ 고시락풀. 아까 대우, 대우리?('고시락풀'. 아까 귀, 귀리?)

103009 #1 대우리.(귀리.)

103009 @ 대우리. 그 정도 낫엇던 거?(귀리. 그정 났었던 거?)

103009 #1 으.(으.)

103009 @ 헤 봐야 한 번 정도예?(해 봐야 한 번 정도요?)

103009 #1 으.(으.)

103009 @ 삼월 뒈영 보리 검질도 다 멧수과? 이젠, 이젠 보리가 익어서예. 언제면은?(삼월 돼서 보리 김도 다 맸습니까? 이젠, 이젠 보리가 익었어요. 언제면?)

103009 #1 오월덜에.(오월에.)

103009 @ 오월덜에. 음력 오월이과?(오월에. 음력 오월입니까?)

103009 #1 으.(으.)

103009 @ 음력 오월이민 우리 지금 유월덜이다예. 음력 오월에 보리를?(음력 오월이면 우리 지금 유월입니다. 음력 오월이면 보리를?)

103010 #1 저 보리헐 때는이 이제 저 현충일 날이 망중이라. 아무 제도 그건. 그걸 여산헤영 그때에 한창 비우고 무끄고 장만헐 때.(저 보리할 때는 이제 저 현충일 날이

48) '작산'은 '많은'의 의미다.

49) '건거'는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는 것에서 자잘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망종이야. 아무 때도 그건. 그걸 생각해서 그때에 한창 베고 묶고 장만할 때.)

103010 @ 아, 보리 장만헐 때. 예, 보리 다 익엇수다. 보리 비영 장만허는 거 골아 줍서.(아, 보리 장만할 때. 예, 보리 다 익었습니다. 보리 베서 장만하는 거 말해 주세요.)

103010 #1 보리 비영.(보리 베고.)

103010 @ 뭐로 비여?(뭐로 베?)

103010 #1 호미 허영게 호미 골멍, 신돌에 골멍. 놉 빌엉 그거 비영 이제 다 무꺼.(낫 해서 낫 갈면서, 숫돌에 갈면서. 놉 빌려서 그거 베서 이제 다 묶어.)

103010 @ 그냥 비는 족족 묶는 거 아니잖아예?(그냥 베는 족족 묶는 거 아니잖아요?)

103010 #1 다 비어 놩.(다 베어 놔서.)

103010 @ 영 널어놓는 거예?(이렇게 널어놓는 거요?)

103010 #1 으, 경허민.(으, 그러면.)

103010 @ 비멍 뒤에 ᄎᄎᄎᄎ.(베면서 뒤에 차차차차.)

103010 #1 초근초근 놓민 이젠 그것 다 비민 걸 무꺼 혼 뭇썩.(차근차근 놓으면 이젠 그것 다 베면 묶어 한 뭇씩.)

103010 @ 메칠이나 경 비어 놩 ᄆᆞᆯ립니까?(며칠이나 그렇게 베어 놔서 말립니까?)

103010 #1 그 밧디 다 비어지민 일 출리젠 허민 제게 무끄고.(그 밭에 다 베어지면 일 차리려고 하면 재게 묶고.)

103010 @ 게민 전날 빈 것도 그 다음날 무꺼져?(그럼 전날 벤 것도 그 다음날 묶을 수 있어?)

103010 #1 무꺼지주기게. 복삭 익엉 ᄉᆞ못 ** 돋은 디가 한다. 씨려졍. 경허민 무껑 비 왐직허민 눌 눌고 데미고. 경헨 ᄂᆞ람쥐 허당 더끄곡. 경허연 이제 시꺼당 홀타.(묶을 수 있지. 폭삭 익어서 사뭇 ** 돋은 데가 많아. 쓰러져서. 그러면 묶어서 비 올 거 같으면 가리 가리고 쌓고. 그렇게 이엉 하다가 덮고. 그래서 이제 실어다가 홅어.)

103011 @ 뭐로. 뭐로 홀타?(뭐로. 뭐로 홅어?)

103011 #1 나룩클 허는 쒜 영 영 헤진 거 시민 그걸 이레 허영.(그네 하는 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걸 이리 해서.)

103011 @ 그걸 뭐렌 허여?(그걸 뭐라고 해?)

103011 #1 보리클[50]게.('보리클'.)

103011 @ 보리클.('보리클'.)

103011 #1 경허영 박박. 혼 사람 영 줴여 주민 영 심엉 잡아뎅기고 잡아뎅기고 허영 그거 다 홀트민 이젠 엿날은 ᄆᆞ쉬로도 붋아낫저. 몰로나 쉐로나 그거 불랑 그 ᄀᆞ시락 다 삭아지고 허도록 허영 그거 불리고 산태[51]로 들러 가멍. 경허여난디 이제 글후젠 메타기[52] 나난 메타기로 홀타만 놓민 장만헷주게. (그렇게 박박. 한 사람 이렇게 쥐어 주

50) '보리클'은 보리를 홅는 데 쓰던 농기구를 말한다. 벼를 홅는 데 사용하는 '그네'와 같이 생겼다.
51) '산태'는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다.
52) '메타기'는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둘 때 사용하는 모터가 달린 기계를 말한다.

면 이렇게 잡고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해서 그거 다 홅으면 이젠 옛날은 마소로도 밟았었어. 말로나 소로나 그걸 밟아서 그 까끄라기 다 삭아지고 하도록 해서 그거 불리고 '산태'로 들고 가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 후에 '메타기' 나니까 '메타기'로 홅어 놓으면 장만했지.)

103011 @ 음. 메타기 나기 전에.(음. '메타기' 나기 전에.)

103011 #1 나기 전인게 우리 쉐로 불리곡게 도께로도 두드리고게.(나기 전엔 우리 소로 밟고 도리깨로도 두드리고.)

103011 @ 기지예, 도께로도 두드리고?(그렇죠, 도리깨로도 두드리고?)

103011 #1 어, 허여근에 저 불리당 물똥이나 쉐똥 싸민 그거 스못 치우고.(어, 해서 저 밟다가 말똥이나 소똥 싸면 그거 사뭇 치우고.)

103011 @ 하하하.(하하하.)

103011 #1 다 허영 그거 멩텡이에 담아 가멍 이 집 안이선 못 불리민 질레에 강 불리멍 헤서 ᄇᆞ름 맞춰.(다 해 그거 망태기에 담아 가면서 이 집 안에선 못 불리면 길에 가서 불리면서 해서 바람 맞춰서.)

103011 @ 그민 보리 그거 비여 논 거 묶은 거 밧디서 타작 안 허고 집이 다 시꺼 오는 것과?(그럼 보리 그거 베어 놓은 거 묶은 거 밭에서 타작 안 하고 집에 다 실어 오는 겁니까?)

103011 #1 다 시꺼오주기게. 시꺼당 집이서 홀탓주게. 돌러레도 엿날은 그 보리클 안 난 땐 돌러레 두드렷젠 헌다, 테작.(다 실어오지. 실어다가 집에서 홅았지. 돌에도 옛날은 그 '보리클' 안 났을 땐 돌에 두드렸다고 해, 타작.))

103011 @ 아. 도께질 안 혜영.(아. 도리깨질 안 하고.)

103011 #1 돌러레 와작착 와작착 엿날은 헤난디 글후제 할망덜 우리 어린 때엔 그 보리클 놩 보리 줘여내 가민 무사 경 조랍느니게.(돌에 와작착 와작착 옛날은 했었는데 그 후에 할머니들 우리 어린 때에는 그 '보리클' 놔서 보리 쥐어 가면 왜 그렇게 졸리니.)

103011 @ 하하하. 삼춘도 어린 때 경허멍 졸아낫수과?(하하하. 삼촌도 이린 때 그러면서 졸았습니까?)

103011 #1 에구 겨민 보리찝으로 우터레 느 어디 잠시 허멍 탁허게 두드리고. 영 헹 훌트민 그 보리찝을 이젠 올리고.(에구 그럼 보릿짚으로 위로 너 어디 자니 하면서 탁하게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홅으면 그 보릿짚을 이젠 올리고.)

103011 @ 무껑, 무껑 올리는 거?(묶어서, 묶어서 올리는 거?)

103011 #1 아니, 그냥 베 영 혜영 두 개 헹 베 놓고 일론 웨로 놩 보리 이레 앗아 놓민 이층꺼지 눌 우터레 훅 데끼민 이제 이걸 잡아뎅기민 눌 우이 올라가. 경허민 그 우이선 영 영 영 영 차곡 차곡 차곡 허영 보리낭 눌을 다 출리민 아이고 저 집인 보릿낭 눌 다 출리고 일 다 허엿저. 영 허주기게.(아니, 그냥 바 이렇게 해서 두 개 해서 바 놓고 이리로는 외로 놔서 보리 이리 가져 놓으면 이층까지 가리 위로 훅 던지면 이제 이걸 잡아당기면 가리 위에 올라가. 그러면 그 위에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차

곡 차곡 차곡 해서 보릿짚 가리를 다 차리면 아이고 저 집은 보릿짚 가리 다 차리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지.)

103011 @ 아니 보리 영 홀타 난 다음에.(아니 보리 이렇게 홅고 난 다음에.)

103014 #1 보리찝을. 걸로 불 솜고게.(보릿짚을. 걸로 불 때고.)

103014 @ 보리찝 묶지 않고?(보릿짚 묶지 않고?)

103014 #1 오, 그냥 그냥.(오, 그냥 그냥.)

103014 @ 눌어져?(가릴 수 있어?)

103014 #1 경허민 밥 허젠 허민 그 보리낭을 빠당 우리 밥 허여낫저게.(그러면 밥 하려고 하면 그 보릿짚을 빼다가 우리 밥 했었어.)

103014 @ 아. 보리낭 빠당 그걸로 불 솜아.(아. 보릿짚 빼다가 그걸로 불 때.)

103014 #1 이제 우리 아덜이 곧나 큰아덜이.(이제 우리 아들이 말해 큰아들이.)

103014 @ 음.(음.)

103014 #1 아이고 어무니 나도 엿날 나서양. 보리낭 빤에 저 밥 허멍 보리쏠 갈아온 즈베기 허영 스못 불 드물리저 즈베기 끈엉 놓저 야갠 막 메옹 고넹이 뒈고 헤여나서양, 허멍 옛말 곧나, 옛날.(아이고, 어머니 나도 옛날 났어요. 보릿짚 빼서 저 밥 하면서 보리쌀 갈아온 수제비 해서 사뭇 불 들이밀랴 수제비 끊어서 넣으랴 목은 아주 아옹 고양이 되고 했었어요, 하면서 옛말 해, 옛날.)

103014 @ 그 큰 아이가 지금 멧 설이과?(그 큰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103014 #1 이제 오십아홉게, 육십.(이제 오십아홉, 육십.)

103014 @ 아이고 경 골을 만허우다.(아이고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103014 #1 견디 어린 때부터 가이 밥을 잘헤라게. 밧디 가 불민.(그런데 어린 때부터 그 아이 밥을 잘하더라. 밭에 가 버리면.)

103014 @ 뚤이과, 아덜이과?(딸입니까, 아들입니까?)

103014 #1 아덜이라도.(아들이라도.)

103014 @ 하하하.(하하하.)

103014 #1 가이 으섯 설에부터 밥을 헤라게.(그 아이 여섯 살부터 밥을 했어.)

103014 @ 아고게.(아고.)

103014 #1 착허여.(착해.)

103014 @ 게민 이제 그렇게 훌텃수다예, 타작은 다 헷수다예. 보리찍은 눌 다 눌엉 장만허고.(그럼 이제 그렇게 홅었습니다, 타작은 다 했습니다. 보릿짚은 가리 다 가려서 장만하고.)

103014 #1 으.(으.)

103012 @ 이제 보리, 보리썰 장만헤야 할 거 아니 보리썰?(이제 보리, 보리쌀 장만해야 할 거 아니 보리쌀?)

103012 #1 으, 보리썰은 장만허젠 허민이 방엣돌 신 디 강 쉐 동줄이나 당그네나 이젠 ᄎᆞ레로 다 놩 와. 경헨 놩 ᄆᆞ녀 방에 참여헤지민 이젠 보리 놓고 물 ᄒᆞ꼼 놩 거 북닥 벳겨지게. 경허영 물 놓멍 자꾸 쉐로 멧 시간 헤 가민 초불, 이젠 ᄆᆞᆯ류민 그거 이제

또시 허영 ᄆᆞᆯ류왕 불려. 또 두불 따끄주기게.(으, 보리쌀은 장만하려고 하면 연자매 있는 데 가서 소 동줄이나 고무래나 이젠 차례로 다 놔서 와. 그래서 놔서 먼저 연자매 참여할 수 있으면 이젠 보리 놓고 물 조금 놔서 거 북데기 벗겨지게. 그래서 물 놓으면서 자꾸 소로 몇 시간 해 가면 초벌, 이젠 말리면 그거 이제 또 해서 말려서 불려. 또 두벌 닦지.)

103012 @ 음.(음.)

103012 #1 두불도 경헤영 다깡허민 엿날 ᄀᆞ레에 ᄀᆞᆯ아. 달달 하영 들이치민 그거 반, 반 조가기썩 벌러지민 밥허영 먹엇주게.(두벌도 그래서 닦으면 옛날 맷돌에 갈아. 달달 많이 집어넣으면 그거 반, 반 조각씩 쪼개지면 밥해서 먹었지.)

103012 @ 음, ᄀᆞ레에 ᄀᆞᆯ앙 반 조각나민.(음, 맷돌에 갈아서 반 조각나면.)

103012 #1 으. 이젠 통보리 헹 기계에 다끄난 헤도 그땐게 보리 경 다까시냐. 방엣 돌로 쉐 ᄆᆞᆯ앙 헤 보라 얼마나 다까지느니. 경허민 ᄀᆞ레에 ᄀᆞᆯ민게 그 체도 털어지고게 것도 벌러지민게 이젠 밥허영.(으. 이젠 통보리 해서 기계에 깎으니까 해도 그땐 보리 그렇게 깎았니. 연자매로 소 몰아서 해 봐라 얼마나 깎을 수 있겠니. 그러면 맷돌에 갈면 그 체도 떨어지고 것도 깨지고 이젠 밥해서.)

103012 @ 게민 삼춘네 한 번 강 방에에 강 ᄀᆞ레돌에 강 장만허젠 허민 멧 말이나 강 ᄒᆞᆫ 번에 장만헤낫수과?(그럼 삼촌네 한 번 가서 연자매에 가서 맷돌에 가서 장만하려고 하면 몇 말이나 가서 한 번에 장만했었습니까?)

103012 #1 ᄒᆞᆫ 섬이나 놔사주게. 열댓 말.(한 섬이나 놔야지. 열댓 말.)

103012 @ ᄒᆞᆫ 섬.(한 섬.)

103012 #1 우리 살림 산 후젠 기계로 다끄난 헌디 우리 어린 때에 허여난 거주게.(우리 살림 산 후에 기계로 깎으니까 하는데 우리 어린 때에 했던 거지.)

103012 @ 예, 어린 때 그거 묻는 거마씨. 경허민 방에는 동네 사름덜이 다 ᄒᆞᆫ디 쓰는 거 아니?(예, 어린 때 그거 묻는 거요. 그러면 방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거 아니?)

103012 #1 아니, ᄯᅳ로ᄯᅳ로 그 쉐에 이런 디 띠 둘렁 방에 짓는 그런 동줄 거튼 거 당그네 갓다 놓는 사름. 경허영 ᄎᆞ례베기 헹 이녁만썩.(아니, 따로따로 그 소에 이런 데 띠 둘러서 방아 찧는 그런 동줄 같은 고무래 갖다 놓는 사람. 그래서 차례 해서 자기만이.)

103012 @ 게니까 내 거 이거 갓다 놩 ᄎᆞ례 허는 거예?(그러니까 내 거 이거 갖다 놔서 차례 하는 거요?)

103012 #1 으.(으.)

103012 @ 게민 나는 이 사람 끝나민 나 ᄎᆞ례가 뒈는 거라예.(그럼 나는 이 사람 끝나면 내 차례가 되는 거지요.)

103012 #1 으, ᄎᆞ례로.(으, 차례로.)

103012 @ 게민 쉐로 영 돌렷수과 사람으로 영 돌렷수과?(그럼 소로 이렇게 돌렸습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돌렸습니까?)

103012 #1 사름으론 못 돌리주게.(사람으론 못 돌리지.)

103012 @ 못 돌려.(못 돌려.)

103012 #1 쉐로 돌령 조름에 막뎅이 헹 쉐 몰고 앞인 그 방엣돌에 그 방에 짜진 낭에 돌아메영 빙빙 그디 돌앗주게. 사람이 못 허여.(소로 돌려서 꽁무니에 막대기 해서 소 몰고 앞엔 그 연자매에 그 방아 짜인 나무에 달아매서 빙빙 거기 돌았지. 사람이 못 해.)

103012 @ 으.(으.)

103012 #1 엿날은 좁썰 헤영 커근에 대소상 허젠 허민 그 좁썰도 컷당 그것에 골앙 치멍 떡 허연 문 놔세게.(옛날은 좁쌀 해서 담가서 대소상 하려고 하면 그 좁쌀도 담갔다가 그것에 갈아서 치면서 떡 해서 모두 놨어.)

103012 @ 보리썰 경 허영 쉐로 갈앙 와수다예. 갈 때는 보리에 물 무치멍.(보리쌀 그렇게 해서 소로 갈아서 왔습니다. 갈 때는 보리에 물 묻히면서.)

103012 #1 으, 물 무쳐져사.(으, 물 묻혀야.)

103012 @ 무사 물 무치는 것과?(왜 물 묻히는 겁니까?)

103012 #1 거 보리 껍데기 물 눌엉 벳겨지렌.(거 보리 껍데기 물 눌어서 벗겨지라고.)

103012 @ 아, 벳겨지렌. 게민 거 다 담앙 올 거 아니?(아, 벗겨지라고. 그럼 거 다 담아서 올 거 아니?)

103012 #1 으.(으.)

103012 @ 올리멍 거 쓸어 올리멍 몇 번 헌 다음에.(올리면서 거 쓸어 올리면서 몇 번 해서 다음에.)

103012 #1 멧 번이 아니주기게.(몇 번이 아니지.)

103012 @ 몇 번이 아니라 얼마나?(몇 번이 아니라 얼마나?)

103012 #1 막 오래주게. 혼 두어 시간게. 경헤사 거 벗어지주, 거 멧 번 헤영 거 벗어지느냐?(아주 오래지. 한 두어 시간. 그래야 거 벗겨지지, 거 몇 번 해서 거 벗겨지니?)

103012 @ 혼 섬을 혼꺼번에 담읍니까?(한 섬을 한꺼번에 담습니까?)

103012 #1 으, 혼 번에 놩.(으, 한 번에 놔서.)

103012 @ 한 번에 싹 비워 놩.(한 번에 싹 비워 놔서?)

103012 #1 으, 경허영 안내 거 이레 내치고 이디 거 올리곡 허멍 멧 번을 돌아.(으, 그래서 안에 거 이리 내어놓고 여기 거 올리고 하면서 몇 번을 돌아.)

103012 @ 그럼 그거 허젠 허민 집이서 갈 때 뭐 뭐 가졍 갑니까?(그럼 그거 하려고 하면 집에서 갈 때 뭐 뭐 가져서 갑니까?)

103012 #1 뭣게, 당그네 이녁 당그네 허곡게.(뭐, 고무래 자기 고무래 하고.)

103012 @ 당그네.(고무래.)

103012 #1 물게, 헐 만이.(물, 할 만큼.)

103012 @ 물 헐 만이 가졍 가고.(물 할 만큼 가져 가고.)

103012 #1 경헷주게.(그랬지.)

103012 @ 당그네만? 솔박 같은 거?(고무래만? '솔박' 같은 거?)

103012 #1 건 담젠 허민 솔박은 들어도 담아 옴 안 허민 솔박 들지 안허주.(건 담으려고 하면 '솔박'은 들어도 담아 오기 안 하면 '솔박' 들지 않지.)

103012 @ 어, 어. 담젠 허민이고, 예. 경헨 거기서 갈앙 왕 집이 왕 물려살 거 아니?(어, 어. 담으려고 하면이고, 예. 그래서 거기서 갈아서 와서 집에 와서 말려야 할 거 아니?)

103012 #1 또시 어. 경헤영 불령 물령 경헤영 또시 두불 강 다까당.(또 어. 그래서 불려서 말려서 그래서 또 두벌 가서 깎아다가.)

103012 @ 또 가?(또 가?)

103012 #1 어, 또 그거 물류왕 또 두불 다깡 이젠 두불 다까사 고와. 경헤연 이젠 방엣돌에 골앙.(어, 또 그거 말려와서 또 두벌 깎아서 이젠 두벌 깎아야 고와. 그래서 이젠 맷돌에 갈아.)

103012 @ 물방에에 강 두불을 골앙 왕 또 집이서 방엣돌에 골아?(연자매에 가서 두벌을 갈아서 와서 또 집에서 맷돌에 갈아?)

103012 #1 으. 물류 왕. 경허민 반썩 쪼개지멍 바르르 허민 이젠 체로 치멍 허영 밥헤영 먹주.(으. 말려 와서. 그러면 반씩 쪼개지면서 바르르 하면 이젠 체로 치면서 해서 밥해서 먹지.)

103012 @ 으, 경헤영 밥헤영 먹을 거예. 게민 보리썰 경헨 장만헷수다예.(으, 그래서 밥해서 먹을 거요. 그럼 보리쌀 그래서 장만했어요.)

103012 #1 으.(으.)

103013 @ 보리쏠로는 뭐 헹 먹읍니까?(보리쌀로는 뭐 해서 먹습니까?)

103013 #1 보리쏠 골앙 옛날은 ᄌᆞ베기도 허영 먹고 쒜기떡도 허영 먹곡게.(보리쌀 갈아서 옛날은 수제비도 해서 먹고 '쒜기떡'도 해서 먹고.)

103013 @ 쒜기떡.('쒜기떡'.)

103013 #1 쉰다리 헤여 놩 그것에 찌영게 ᄀᆞ룰 골아당, 보리쏠 골아당 경도 헹 먹고.('쉰다리' 해 놔서 그것에 쪄서 가루 갈았다가, 보리쌀 갈아다가 그렇게도 해서 먹고.)

103013 @ 경도 헹 먹고.(그렇게도 해서 먹고.)

103013 #1 밥도 헹 먹고게.(밥도 해서 먹고.)

103013 @ 밥도 헤 먹고. 쉰다리 헤 먹고 ᄀᆞ레 골아당.(밥도 해 먹고. '쉰다리' 해 먹고 가루 갈아다가.)

103013 #1 ᄌᆞ베기도 헤 먹고.(수제비도 해 먹고.)

103013 @ ᄌᆞ베기 헤 먹고.(수제비 해 먹고.)

103013 #1 그 ᄌᆞ베기 잘 헹 먹어서게? 아이고. 그때는 ᄉᆞ못 조체도 다 보깡 범벅 헤영 먹엄저 소문 나낫저.(그 수제비 잘 해서 먹었어? 아이고, 그때는 사뭇 조체도 다 볶아서 범벅해서 먹어 소문 났었어.)

103013 @ 먹을 거 엇이난.(먹을 거 없으니까.)

103013 #1 먹을 거 엇어놓난. 우린 아버지네 잘사난에 친구네 집 강 보민 좁썰에이 감저뻿떼기 막 부수운 거 그거 놓민 아이고 밥헌 거 저거나 흔 번 먹어봐시민 맛좋걸.(먹을 거 없으니까. 우린 아버지네 잘사니까 친구네 집 가서 보면 좁쌀에 절간고구마 마구 부순 거 그거 넣으면 아이고, 밥한 거 저거나 한 번 먹어봤으면 맛있을걸.)

103013 @ 보리썰에 감저뻿떼기 놩 헌 거?(보리쌀에 절간고구마 넣어서 한 거?)

103013 #1 어.(어.)

103013 @ 그거 먹어시민 좋을 건디?(그거 먹었으면 좋을 건데?)

103013 #1 경허멍 허여낫저만은 이젠 첨.(그러면서 했었지만 이젠 참.)

103013 @ 그런 것도 안 먹고예.(그런 것도 안 먹고요.)

103013 #1 우린 그런 거 저런 거 안 먹어봣주게. 우리 할아버지가 엿날에 한림면, 이디 한경면 엇인 때 한림면에서 일등 부제라낫주게.(우린 그런 거 저런 거 안 먹어봤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림면, 여기 한경면 없을 때 한림면에서 일등 부자였어.)

103013 @ 아.(아.)

103013 #1 옛날에 우리 말젯아버지네 셋아버지네 그때 시절에 저 인천 공장 짓언 그 가방 멘드는 공장 허연 망허연 다 헤나고. 경허연 우린 논도 막 하낫고 허난.(옛날에 우리 셋째아버지네 둘째아버지네 그때 시절에 저 인천 공장 지어서 그 가방 만드는 공장 해서 망해서 다 했었고. 그래서 우린 논도 아주 많았고 하니까.)

103013 @ 음.(음.)

103013 #1 글후제 손지덜 대에 나 가난 엇어졋주. 고모덜이고 우리 아버지네 흔 대여섯 오누이라도 뚤 아덜 엇이 재산을 다 ᄀᆞ치 물려줘낫주기게.(그 후에 손주들 대에 돼 가니까 없어졌지. 고모들이고 우리 아버지네 한 대여섯 오누이라도 딸 아들 없이 재산을 다 같이 물려줬었어.)

103013 @ 그 시절에?(그 시절에?)

103013 #1 그 시절에. 뚤덜도 밧덜도 다 물리고. 그릇알라 다, 꼿 기려진 그릇 사단 다 물려준 거 나도 알아져.(그 시절에. 딸들도 밭들도 다 물려주고. 그릇마저 다, 꽃 그려진 그릇 사다가 다 물려준 거 나도 알아.)

103013 @ 그 보리쏠말고 보리로도 뭐 헤 먹잖아예, 보깡?(그 보리쌀말고 보리도도 뭐 해 먹잖아요, 볶아서?)

103013 #1 게역게.(미숫가루.)

103013 @ 게역 만드는 거.(미숫가루 만드는 거.)

103013 #1 비 와 가민 이 게역부터 ᄆᆞ녀 허느네. 보리낭 불에라도 보깡. 지들케, 옛날엔 비 오민 지들케 ᄆᆞᆯ리지덜 못 허난 게역 허젠 허민 지들케 잘 ᄆᆞᆯ령 놔뒷당.(비 와 가면 이 미숫가루부터 먼저 해. 보릿짚 불에라도 볶아서. 땔감, 옛날엔 비 오면 땔감 말리지들 못 하니까 미숫가루 하려고 하면 땔감 잘 말려서 놔뒀다가.)

103013 @ 지들케렌 헐 거?('지들케'라고 할 거?)

103013 #1 어. 지들케.(어. '지들케'.)

103013 @ 지들케 어떤 거 잘 ᄆᆞᆯ령 놔뒷당?(땔감 어떤 거 잘 말려서 놔뒀다가?)

103013 #1 보리낭이고, 낭은 졸바로 셔사게. 경허고 집 틀어난 줄께[53] 거튼 것도 다 ᄉᆞ못. 이 집 일어 나민 줄께 이 초집덜이라부난.(보릿짚이고, 나무는 제대로 있어야. 그리고 집 뜯었던 '줄께' 같은 것도 다 사뭇. 이 집 이고 나면 '줄께' 이 초가집들이니까.)

103013 @ 음.(음.)

103013 #1 그런 것도 잘 헤당 놧당 허고 헤나세.(그런 것도 잘 해다 놨다가 하고 했었어.)

103013 @ 경 지들케 ᄆᆞ려 가지고 그거?(그렇게 땔감 말려 가지고 그거?)

103013 #1 보깡. 보깡 ᄀᆞ레에 ᄀᆞᆯ아세게. 그것에 ᄀᆞᆯ앙 이젠 체로 쳐. 게역 칸 먹어낫저.(볶아서. 볶아서 맷돌에 갈았어. 그것에 갈아서 이젠 체로 쳐. 미숫가루 타서 먹었었어.)

103013 @ 게역 칸 먹어.(미숫가루 타서 먹어.)

103013 #1 무신 사탕이 셔샤. 이젠 설탕 ᄀᆞ루덜 놔근에 다 헴주만은 그땐 소금 놩 게역 허여도 어디 십디가 헤서.(무슨 설탕이 있었니. 이젠 설탕 가루들 넣어서 다 하지만 그땐 소금 넣어서 미숫가루 해도 어디 있습디까 해서.)

103013 @ 하하. 소금 놩 게역 헤연?(하하. 소금 넣어서 미숫가루 했어?)

103013 #1 소금게 ᄀᆞᆫ은 맞아야 먹을 거 아니. 물은 카도.(소금 간은 맞아야 먹을 거 아니. 물은 타도.)

103013 @ 예, 예. 게난 소금 놩 게역 헷던 거예. 게민 보리 보까지민 ᄀᆞᆯ민 게역이 뒈는 거라예?(예, 예. 그러니까 소금 넣어서 미숫가루 했던 거요. 그럼 보리 볶아지면 갈면 미숫가루가 되는 거지요?)

103013 #1 으, 으. 보리밥에 대강 옛날은 마농지 허고 자리젓이 반찬이랏주. 자리, 자리 사레 이디 오민이, ᄉᆞ못 사둔 아니민 자리 못 상 젓 못헌덴 헤나세.(으, 으. 보리밥에 대강 옛날은 마늘장아찌 하고 자리젓이 반찬이었지. 자리돔, 자리돔 사러 여기 오면, 사뭇 사돈 아니면 자리돔 못 사서 젓 못한다고 했었어.)

103013 @ 음.(음.)

103013 #1 막 줄 짓엉 사민 그걸로만 반찬. 이젠 시장도 가고 어디 가도 허엿주만은 산간 사름이고 다 자리 사레 오민.(마구 줄 지어서 사면 그걸로만 반찬. 이젠 시장도 가고 어디 가도 했지만 산간 사람이고 다 자리돔 사러 오면.)

103013 @ 그 이제 우리.(그 이제 우리.)

103013 #1 권리 엇이민 자리도 못 사.(권리 없으면 자리돔도 못 사.)

103014 @ 못 사. 저기 보리 장만헤 나민 보리 껍질 이실 거 아니, 보리 껍질. 보리 껍데기. 보리 ᄀᆞᆯ아 나민 그걸 뭐렌 ᄀᆞᆯ읍니까?(못 사. 저기 보리 장만하고 나면 보리 껍질 있을 거 아니, 보리 껍질. 보리 껍데기. 보리 갈고 나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103014 #1 보리썰 그건 껍데긴 하지 안 헌다.(보리쌀 그건 껍데긴 하지 않아.)

103014 @ 아, 하지 안허여. 그거.(아, 하지 않아. 그거.)

103014 #1 도새기 주주게. 도새기 양석.(돼지 주지. 돼지 양식.)

---

53) '줄께'는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103014 @ 보리 골아난 그 껍질을 뭐렌 골읍니까? 그냥 보리 껍데기?(보리 갈았던 그 껍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보리 껍데기?)

103014 #1 으게, 보리, 보리체게.(으, 보리, 보릿겨.)

103014 @ 예, 보리체. 건 도새기 주는 거.(예, 보릿겨. 건 돼지 주는 거.)

103014 #1 으, 도새기.(으, 돼지.)

103014 @ 게민 보리찍은?(그럼 보릿짚은?)

103014 #1 보리찝은 보리낭 헨 불 솜고.(보릿짚은 보릿짚 해서 불 때고.)

103014 @ 그거 보리낭.(그거 보릿짚.)

103014 #1 보릿대, 보릿대엔 이젠 헴주, 보리찝. 보리찝으로 보리낭이엔 허주게. 보리낭으로 밥허고. 건 집이 큰 불 깜이주게.(보릿대, 보릿대라고 이젠 하지, 보릿짚. 보릿짚으로 보릿대라고 하지. 보릿대로 밥하고. 건 집의 큰 불 감이지.)

103014 @ 예, 불 깜 뒈는 거예. 예, 예.(예, 불 감 되는 거요. 예, 예.)

103014 #1 조 헤난 건 이제 소 멕이고. 조대. 감저 헤난 거 소 멕이고. 새끌. 테 닮은 거 팔월 나민 막 앚앙 테역 깎아. 경허영 물류왕 눌엉 놧당 그건 새끌이엔 허영 쉐주곡.(조 했던 건 이제 소 먹이고. 조대. 고구마 했던 거 소 먹이고. 쇠꼴. 떼 닮은 거 팔월 되면 아주 앉아서 떼 깎아. 그래서 말려서 가려 놨다가 그건 쇠꼴이라고 해서 소 주고.)

103015 @ 쉐 주고예. 보리농사 지으멍 삼춘 영 기억나는 거 잇수과? 보리농사 지으멍 잊어불지 못헐 일? 그런 건 엇고. 예, 예. 이제는 조농사 물어보쿠다, 조예. 조농사 짓젠 허민 뭐 준비헤야 뭘 것과? 아까 보리농사 헐 때는 걸름 준비헷잖아예?(소 주고요. 보리농사 지으면서 삼촌 이렇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보리농사 지으면서 잊어버리지 못할 일? 그런 건 없고. 예, 예. 이제는 조농사 물어보겠어요, 조요. 조농사 지으려고 하면 뭐 준비해야 될 겁니까? 아까 보리농사 할 때는 거름 준비했잖아요?)

조농사

103016 #1 으. 조 헐 때엔 그냥 좁씨만.(으. 조 할 때엔 그냥 좁씨만.)

103016 @ 아, 좁씨만. 좁씨는 장만허영 놔두는 거?(아, 좁씨만. 좁씨는 장만해서 놔두는 거?)

103016 #1 으, 잘리에 헹 장만허영 놔뒀당.(으, 자루에 해서 장만해서 놔뒀다가.)

103016 @ 예, 어디 보관헹 놔둡니까?(예, 어디 보관해서 놔둡니까?)

103016 #1 그건 항에 놔뒀든게, 옛날에사 항에 주로 헷주게.(그건 항에 놔뒀든가, 옛날에야 항아리에 주로 했지.)

103017 @ 주로예. 게민 조, 조 갈젠 허민 걸름은 따로?(주로요. 그럼 조, 조 갈려고 하면 거름은 따로?)

103017 #1 걸름 따로 안 헌다 이디. 보리허영 허영 놔뒀단 이 마 넘으민 이 비 왕은 안 뒈주기게. 마 넘어 절로 작데기 구름 흘령 이제 마갇이[54] 허젠 허민 이제 조 볼

려[55]. 조 갈앙 좁씨 삐영 물로 이젠 허멍 어려하랑[56] 허멍 막 불리주기게. 사람덜마다 다. 경혜영 불령 이제 조가 요만썩 허민 줏은 딘 앚앙 벙뎅이 풀고 허영 커 가는 냥 시불을 검질을 메여.(거름 따로 안 해 여기. 보리해서 해서 놔뒀다가 이 장마 넘어서 저리로 작대기 구름 흘러서 이제 '마갇이' 하려고 하면 이제 조 밟아. 조 갈아서 좁씨 뿌려서 말로 이젠 하면서 '어려하랑' 하면서 마구 밟지.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밟아서 이제 조가 이만큼씩 하면 빽빽한 덴 앉아서 덩어리 풀고 해서 커 가는 대로 세벌을 김을 매.)

103021 @ 아이고, 보리는 혼불밖에 안 메신디.(아이고, 보리는 초벌밖에 안 맸는데.)

103021 #1 경혜영 시불을 메사 혹꼼 드물듯 헤사 것이 올라강 고고리가 지랑지랑 홁주기게.(그렇게 세벌을 매야 조금 드물듯 해야 것이 올라가서 이삭이 주렁주렁 굵지.)

103021 @ 그니까.(그러니까.)

103021 #1 두루 뽑앙 내불민 벨롱벨롱벨롱[57] 헤영 고고리가 이추룩 헤부난 홁게.(두루 뽑아서 내버리면 '벨롱벨롱벨롱' 해서 이삭이 이처럼 해버리니까 굵게.)

103021 @ 시불 메는 거는 방 벌리젠 허는 거구나.(세벌 매는 거는 간격 벌리려고 하는 거구나.)

103021 #1 으, 방 벌령게. 나룩거치 다 방 벌령 메영 이제 구월 나민 구시월 나민 거 비여. 경혜영 호미로 다 고고리 튿아 오고.(으, 간격 벌려서. 벼같이 다 간격 벌려서 매서 이제 구월 되면 구시월 되면 거 베어. 그래서 낫으로 다 이삭 뜯어 오고.)

103018 @ 아까 가는 건 언제렌 골앗수과? 조 가는 거?(아까 가는 건 언제라고 했습니까? 조 가는 거?)

103018 #1 마 넘엉 유월에.(장마 넘어서 유월에.)

103018 @ 유월.(유월.)

103018 #1 오월 그뭄이 마, 장마 넘어가민. 비 왕은 아이뒈고 장마 끝낭 마갇이 헤저.(오월 그믐 장마, 장마 넘어가면. 비 와서는 안 되고 장마 끝나서 '마갇이' 할 수 있어.)

103018 @ 으, 음.(으, 음.)

103018 #1 구룸이 양쪽으로 헹 작데기 구름 흘리고 이젠 마 끝난 셍이여 허민 이제 조덜 강 불리주게.(구름이 양쪽으로 해서 작대기 구름 흘리고 이젠 장마 끝난 모양이야 하면 이제 조들 가서 밟지.)

103018 @ 게민 조 갈 때.(그럼 조 갈 때.)

103018 #1 마엔 고구만 싱그고.(장마엔 고구마는 심고.)

103019 @ 아, 마엔 고구마 싱그고. 조 갈 때 좁씨를 어떵 뿌립니까?(아, 장마엔 고구마 심고. 조 갈 때 좁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103019 #1 좁씨 이추룩 헤영게. 차락차락.(좁씨 이처럼 해서. 차락차락.)

103019 @ 뭐에 담앙?(뭐에 담아서?)

---

54) '마갇이'는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농사를 말한다.
55) '불리다'는 조를 파종한 밭을 밟는 것으로, '조를 파종하다', '조를 갈다'의 의미로 쓰였다.
56) '어려하랑'은 말을 부리며 내는 소리를 말한다.
57) '벨롱벨롱벨롱'은 초목 따위의 크기가 크게 자라지 않고 작은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19 #1 자루에 이디, 자루에 영 헤영 망텡이.(자루에 여기, 자루에 이렇게 해서 망태기.)

103019 @ 망텡이.(망태기.)

103019 #1 망텡이 친 돌앙.(망태기 끈 달아서.)

103019 @ 그거 씨망텡이엔 골읍니까?(그거 씨망태라고 합니까?)

103019 #1 씨망텡이 좀질이 짜진 거.(씨망태 잘게 짜인 거.)

103019 @ 어.(어.)

103019 #1 경 안허민 광목 잘리에 미녕 잘리에나 영 줘영 뿌리고.(그렇지 않으면 광목 자루에 미녕 자루에나 이렇게 쥐어서 뿌리고.)

103019 @ 으, 뿌리고. 씨 뿌려 놩 밧을 가는 것과?(으, 뿌리고. 씨 뿌려 놔서 밭을 가는 겁니까?)

103019 #1 아니, 갈아 놩 뿌령 이젠 쉐나 물 볼려사. 갈아 놩, 갈아 놩 뿌려사.(아니, 갈아 놔서 뿌려서 이젠 소나 말 밟아야. 갈아 놔서 갈아 놔서, 갈아 놔서 뿌려야.)

103020 @ 조팟 볼릴 때 쉐나 말 허는 디 그거 말앙 쉐 뒤에 낭 같은 거 끗는 거 안 헙니까?(조밭 밟을 때 소나 말 하는 데 그거 말고 소 뒤에 나무 같은 거 끄는 거 안 합니까?)

103020 #1 아니, 그건 안 허여.(아니, 그런 안 해.)

103020 @ 그건 안 허여. 그냥 발로만 영 볼르는 거라예?(그건 안 해. 그냥 발로만 이렇게 밟는 거지요?)

103020 #1 으, 으. 꿰 갈 때만 섬비질 허주게. 볼리지 안허는 거난.(으, 으. 깨 갈 때만 끙게질 하지. 밟지 않는 거니까.)

103020 @ 으. 섬비질 허고.(으. 끙게질 하고.)

103020 #1 산디 같은 거.(밭벼 같은 거.)

103020 @ 산디 같은 거. 그 섬비 말고 조밧 볼릴 때 요런 거. 이건 돌로 만든 거우다만은.(밭벼 같은 거. 그 끙게 말고 조밭 밟을 때 요런 거. 이건 돌로 만든 겁니다만.)

103020 #1 이건 낭으로 헌 거 이런 것도 셔낫주만은 이런 거 허는 사름이 엇어, 이딘 쉐, 쉐로 물로 듬상듬상.(이건 나무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어, 여긴 소, 소로 말로 듬성듬성.)

103020 @ 아, 이거 잇긴 잇어낫구나.(아, 이거 있기 있었구나.)

103020 #1 어.(어.)

103020 @ 이거 뭐렌 골아난지 알아지쿠과? 남테렌 골아난? 낭테, 낭테?(이거 뭐라고 했었는지 알겠습니까? '남테'라고 말했었어? '낭테', '낭테'?)

103020 #1 으, 낭테[58].(으, '낭테'.)

103020 @ 낭테 잇어나신디 쓰지는 안헌 거?('낭테' 있었는데 쓰지는 않은 거?)

103020 #1 쓰지 안허여.(쓰지 않아.)

58) '낭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면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를 말한다.

103022 @ 예, 예. 그다음 그 조팟이는 무신 풀이 납니까?(예, 예. 그다음 그 조밭에는 무슨 풀이 납니까?)

103022 #1 제완지.(바랭이.)

103022 @ 제완지. 그거 주로?(바랭이. 그거 주로?)

103022 #1 으.(으.)

103022 @ 제완지말고는?(바랭이말고는?)

103022 #1 제완지말고는 뭐 으름 풀게. 보쿨 거튼 거.(바랭이말고는 뭐 여름 풀. '보쿨' 같은 거.)

103022 @ 보쿨 같은 것덜 나는 거예.('보쿨' 같은 것들 나는 거요.)

103022 #1 금각체.('금각체'.)

103022 @ 금각체?('금각체'?)

103022 #1 으, 금각체엔 헌 풀 나주게.(으, '금각체'라고 하는 풀 나지.)

103023 @ 예, 예. 거난 이제 검질 방수 벌영 한 세불 멧수다예. 검질을 세벌 메난, 아까 조 수확허는 건 구월 뒈사.(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 간격 벌려서 한 세벌 맸어요. 김을 세벌 매니까, 아까 조 수확하는 건 구월 되어야.)

103023 #1 조 비는 거 구, 시월에. 추울 때.(조 베는 거 구, 시월에.)

103023 @ 추울 때.(추울 때.)

103023 #1 으, 드세ᄇᆞ름 터졍 막 추울 때.(으, '드세바람' 터져서 아주 추울 때.)

103023 @ 이제 조 비는 거 골아 줍서.(이제 조 베는 거 말해 주세요.)

103023 #1 게메 조 빌 때.(글쎄 조 벨 때.)

103023 @ 조 빌 때 그때에 호미로 강.(조 벨 때 그때에 낫으로 가서.)

103023 #1 호미로 비영게 쭉 허게 이처록 놔 강 이제 다 비민 조코고리덜 호미로 튿아.(낫으로 베어서 쭉 하게 이처럼 놓아 가며 이제 다 베면 조이삭들 낫으로 뜯어.)

103023 @ 밧디서 그냥?(밭에서 그냥?)

103023 #1 밧디서.(밭에서.)

103023 @ 조 빈 거 묶지 안헹 그 자리에서.(조 벤 거 묶지 않고 그 자리에서.)

103023 #1 아니 무껑 집이 왕 허는 사름은 집이 왕 튿고 밧디서 튿는 사름은 밧디서 튿앙 조찍 ᄐᆞ로 고고리 ᄐᆞ로 시꺼오주게. 집이서 허는 사름은 집이서 시꺼당 허고.(안 묶고 집에 와서 하는 사람은 집에 와서 뜯고 밭에서 뜯는 사람은 밭에서 뜯어서 조짚 따로 이삭 따로 실어오지. 집에서 하는 사람은 집에서 실어다가 하고.)

103023 @ 예.(예.)

103023 #1 집이서 거정 와근에 시꺼당 눌어 둠서 허는 사름 싯고. 경 안허민 밧디서 튿앙 밧디서 조찍 ᄐᆞ로 그거 ᄐᆞ로 헹 시꺼오는 사름 싯고.(집에서 거의 와서 실어다가 가려 두면서 하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밭에서 뜯어서 밭에서 조짚 따로 그거 따로 해서 실어오는 사람 있고.)

103023 @ 그럼 어쨌든 조칙이든 그냥 조든 영 무꺼야잖아. 집이서 허젠 허민?(그럼 어쨌든 조짚이든 그냥 조든 이렇게 묶어야잖아. 집에서 하려고 하면?)

103023 #1 다 묵껑. 이추룩 무껑 눌민 빠멍 이젠 옛날 쉐.(다 묶어서. 이처럼 묶어서 가리면 빼면서 이젠 옛날 소.)

103023 @ 집이서 허는 사름 이만큼 헹 무껑예?(집에서 하는 사람 이만큼 해서 묶어요?)

103023 #1 으.(으.)

103023 @ 이거 묶젠 허민 께는 어떵 헙니까?(이거 묶으려고 하면 매끼는 어떻게 합니까?)

103023 #1 띠?(띠?)

103023 @ 예, 띠.(예, 띠.)

103023 #1 조찍으로.(조짚으로.)

103023 @ 조찍으로 그냥 허는 거.(조짚으로 그냥 하는 거.)

103023 #1 으, 조칙 ᄒᆞ꼼 멧 꼴 심엉 걸로 영 영.(으, 조짚 조금 몇 가닥 잡고 걸로 이렇게 이렇게.)

103023 @ 무끄는 거. 게민 께 장만 따로 안 헤영 그걸로, 지께로 허는 거다예.(묶는 거. 그럼 매끼 장만 따로 안 하고 그걸로, 매끼로 하는 거네요.)

103023 #1 으, 으.(으, 으.)

103023 @ 경 무껑 집이 왕 튿아 두민 조칙은 그냥 눌엉 놔두는 거?(그렇게 묶어서 집에 와서 뜯어 두면 조짚은 그냥 가려서 놔두는 거?)

103027 #1 어. 눌엉 쉐 양식. 소 양식.(어. 가려서 소 양식. 소 양식.)

103024 @ 어. 쉐 멕이는 거예. 조 튿앗수다, 그럼.(어. 소 먹이는 거요. 조 뜯었습니다, 그럼.)

103024 #1 거 ᄆᆞᆯ방에에 강 둥글여. 둥글영 까지민, 까지민 거 체로 다 쳥, 불령 경허연 이젠 지여당 놓주.(거 연자매에 가서 둥글려. 둥글려서 까지면, 까지면 거 체로 다 쳐서, 불려서 그래서 이젠 지어다 놓지.)

103024 @ 그럼 조도 뒁굴일 때 물 영 줘?(그럼 조도 둥글릴 때 물 이렇게 줘?)

103024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24 @ 그건 물 안 줘 가지고.(그건 물 안 주 가지고.)

103024 #1 으, 으.(으, 으.)

103024 @ ᄆᆞᆯ방에에 강 두드리기도 허고 집이서 거 두드리기도 헙니까?(연자맹세 가서 두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거 두드리기도 합니까?)

103024 #1 어게. 도께로도 두드리고.(어. 도리깨로도 두드리고.)

103024 @ 도께로도 두드리고 영 마께?(도리깨로도 두드리고 이렇게 방망이?)

103024 #1 어. 마께로도.(어. 방망이로도.)

103024 @ 거 무슨 마께렌 헙니까?(거 무슨 방망이라고 합니까?)

103024 #1 덩드렁마께[59].('덩드렁마께'.)

---

59)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들기는 방망이다. '덩드렁'이라는 돌 위에 짚 따위를 놓고 두드리거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다.

103024 @ 덩드렁마께로도 두드리고.(‘덩드렁마께’로도 두드리고.)

103024 #1 으, 얼멩이로 치고.(으, 어레미로 치고.)

103024 @ 다 두드령 좁썰 뒈수다. 이제 좁썰도 장만헤야 뒐 거 아니?(다 두드려서 좁쌀 됐습니다. 이제 좁쌀도 장만해야 될 거 아니?)

103024 #1 조, 조가 뒈민 이젠 조도 방에에 강 짓는 사름 싯곡게. 것도 두불, 초불 다 지고 글후제 클방에[60] 나난에 헷주만은 엿날은 물방에서 지엇주기게.(조, 조가 되면 이젠 조도 방아에 가서 찧는 사람 있고. 것도 두벌, 초벌 다 찧고 그 후에 ‘클방에’ 나니까 했지만 옛날은 연자매에서 찧었지.)

103024 @ 으.(으.)

103024 #1 경허민 니 엇이, 거 조 하나썩 골앙 니 영 허주게. 경허난 니 엇이 잘 지어졌저. 경, 경허주. 조도 모인좁썰 싯고 흐린좁썰 싯고.(그러면 이 없이, 거 조 하나씩 갈아서 이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 없이 잘 찧어졌어. 그렇게, 그러지. 조도 메조 있고 차조 있고.)

103024 @ 아, 좁썰 종류예.(아, 좁쌀 종류요.)

103026 #1 모인좁썰은 죽만 쒕 먹는 거고 히린건 밥에 놩 먹는 거고.(메조는 죽만 쒀서 먹는 거고 차조는 밥에 놔서 먹는 거고.)

103025 @ 그민 아까 조코고리 튿은 것도 물방에에 강 장만허고.(그럼 아까 조이삭 뜯는 것도 연자매에 가서 장만하고.)

103025 #1 어, 장만허여 두불 쳥. 두불 쳥.(어, 장만해서 두벌 쳐서. 두벌 쳐서.)

103025 @ 이제 조가 뒈난, 조가 뒈난 조도.(이제 조가 되니까, 조가 되니까 조도.)

103025 #1 조도 물방에에 엿날은 지엉 경헤영 두불썩 헤영 니 엇이 헷주게. 멧 번씩.(조도 연자매에 옛날은 찧어서 그래서 두벌씩 해서 이 없이 했지. 몇 번씩.)

103026 @ 좁썰 뒈민 그거 가졍 헤 먹는 건 뭐 뭐 헤 먹엇어?(좁쌀 되면 그거 가져서 해 먹는 건 뭐 뭐 해 먹었어?)

103026 #1 밥, 밥에 놩 먹고게. 모인좁썰은 죽 쒕 먹곡게.(밥, 밥에 놔서 먹고. 메조는 죽 쒀서 먹고.)

103026 @ 죽 쑤는 건 모인좁썰만 헙니까?(죽 쑤는 건 메조만 합니까?)

103026 #1 으, 모인좁썰. 히린좁썰로 죽 못 쑨다.(으, 메조. 차조로 죽 못 쑨다.)

103026 @ 무사 히린좁썰은?(왜 차조는?)

103026 #1 누게 아느냐게.(누가 아니.)

103026 @ 하하하.(하하하.)

103026 #1 옛날 콩죽에도 모인좁썰 놔사 맛있고.(옛날 콩죽에도 메조 놔야 맛있고.)

103026 @ 아, 콩죽에는 모인좁썰.(아, 콩죽에는 메조.)

103026 #1 모인좁썰이 노랑허고. 이제 히린건 검엉허고 허난게.(메조가 노랗고. 이제 차조는 거멓고 하니까.)

103026 @ 예. 밥에 놩 먹고 죽 쒕 먹고 또 뭐 헤?(예. 밥에 놔서 먹고 죽 쒀서 먹고

60) ‘클방에’는 정미기, 제분기 따위를 말한다.

또 뭐 해?)

103026 #1 뭐 떡 헤연 먹고 히린좁썰은.(뭐 떡 해서 먹고 차조는.)

103026 @ 떡, 떡 헤영 먹고. 무슨 떡?(떡, 떡 해서 먹고. 무슨 떡?)

103026 #1 경허고 그걸로 오메기 허영이 술 내왓주, 그걸로. 청주 앚지고.(그리고 그걸로 '오메기' 해서 술 냈어, 그걸로. 청주 앉히고.)

103026 @ 청주 앚지고. 청주 앚지는 거랑 오메기술 허는 거랑 방법이 뜨납니까?(청주 앉히고. 청주 앉히는 거랑 '오메기술' 하는 거랑 방법이 다릅니까?)

103026 #1 다 ᄀᆞ뜬다. ᄀᆞ따근에 술이 오래 헤영 놩 놔두민 청주가 뒈주게. 두불, 술도 두불 헤 놔사 허여. 초불 담아. 헤영 왈탕왈탕 허민 또, 또 담앙. 허여 놓민 오래 시민 그것이 짐 눌엉 청주 앚고 그냥 술도 잘 익어사 맛좋아.(다 같아. 같아서 술이 오래 해서 놓아 놔두면 청주가 되지. 두벌, 술도 두벌 해 놔야 해. 초벌 담아. 해서 '왈탕왈탕' 하면 또, 또 담아. 해 놓으면 오래 있으면 그것이 김 눌어서 청주 앉고 그냥 술도 작 익어야 맛좋아.)

103026 @ 게난, 조, 좁썰.(그러니까, 조, 좁쌀.)

103026 #1 보리썰 헤여근에 ᄀᆞᆯ앙 누룩허영 놔뒷당.(보리쌀 해서 갈아서 누룩해서 놔뒀다가.)

103026 @ 그거 ᄎᆞᄎᆞ ᄀᆞᆯ아 줍서. 우선은 좁썰 가졍 어떵 뭘 먼저 헤?(그거 차차 말해 주세요. 우선은 좁쌀 가져서 어떻게 뭘 먼저 해?)

103026 #1 좁썰 허영게 이젠.(좁쌀 해서 이젠.)

103026 @ ᄀᆞ루 ᄀᆞᆯ아?(가루 갈아?)

103026 #1 ᄀᆞ루 헤영 오메기떡 허영게.(가루 해서 '오메기떡' 해서.)

103026 @ 으, 으.(으, 으.)

103026 #1 떡 허영 이젠 찌여. 그 누룩 놓고 허영 찌영 술 헤여 놓주게. 항아리에.(떡 해서 이젠 쪄. 그 누룩 넣고 해서 쪄서 술 해서 놓지. 항아리에.)

103026 @ 항아리에.(항아리에.)

103026 #1 히린좁썰이라사 것도. 모인좁썰은 안 뒈.(차조라야 것도. 메조는 안 돼.)

103027 @ 아. 히린좁썰로예. 조칩은 어떵헹.(아. 차조로요. 조짚은 어떻게.)

103027 #1 에?(에?)

103027 @ 조찝.(조짚.)

103027 #1 조찝은 쉐, 쉐, 소 양석. 감저줄이영. 산디찝도 다 소. 보리낭만 불 솜주.(조짚은 소, 소, 소 양식. 고구마 줄이랑. 밭볏짚도 다 소. 보릿짚만 불 때지.)

103027 @ 다 소 멕이는 거예. 조농사 지으멍 기억나는 거? 엇고예. 이제는 콩도 짓어 봣수과, 콩 농사도.(다 소 먹이는 거요. 조농사 지으면서 기억나는 거? 없고요. 이제는 콩도 지어 봤습니까, 콩 농사도.)

콩농사

103029 #1 콩 옛날덜은 콩 갈앙 비여.(콩 옛날들은 콩 갈아서 베어.)
103029 @ 음. 기민 준비허는 것부터 물어보쿠다예. 콩 농사허젠 허민.(음. 그럼 준비하는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콩 농사하려고 하면.)
103029 #1 거 그냥.(거 그냥.)
103029 @ 그냥? 준비허는 거 엇어?(그냥? 준비하는 거 없어?)
103032 #1 으. 콩씨 그냥 삐여.(으. 콩씨 그냥 뿌려.)
103032 @ 밧 갈아 놩 삐는 것과?(밭 갈아 놔서 뿌리는 겁니까?)
103032 #1 갈기 전이 삐영 가는 거.(갈기 전에 뿌려서 가는 거.)
103032 @ 콩씨를 그냥 삐여 놩.(콩씨를 그냥 뿌려 놔서.)
103032 #1 으, 삐여 놩 가는 거.(으, 뿌려 놔서 가는 거.)
103030 @ 콩 가는 거는 언제과?(콩 가는 거는 언제입니까?)
103030 #1 조 헐 때보담 ᄒᆞ꼼 ᄆᆞ녀.(조 할 때보다 조금 먼저.)
103030 @ 조가 아까?(조가 아까?)
103030 #1 보리 곧 비영 얼메 엇이민 보릿그루[61]에 콩 가는 거.(보리 곧 베서 얼마 없으면 '보릿그루'에 콩 가는 거.)
103030 @ 아, 보릿그루에 콩 가는 것과?(아, '보릿그루'에 콩 가는 겁니까?)
103030 #1 으.(으.)
103030 @ 보리 아까 유월에 장만헹예?(보리 아까 유월에 장만해서요?)
103030 #1 으, 양력 유월에게.(으, 양력 유월에.)
103030 @ 게민 그거 장만.(그럼 그거 장만.)
103030 #1 장만헤 뒁 콩 갈아.(장만해 두고 콩 갈아.)
103030 @ 콩 가는 건 아까 씨를 먼저 뿌렷수다예?(콩 가는 건 아까 씨를 먼저 뿌렸네요?)
103030 #1 으.(으.)
103030 @ 경헨 장남 빌엉.(그래서 일꾼 빌려서.)
103030 #1 갈아.(갈아.)
103030 @ 갈아.(갈아.)
103030 #1 감만 허민 뭴 거 그거. 검질이나 메고.(갈기만 하면 될 거 그거. 김이나 매고.)
103030 @ 이건 불르는 것도 엇고?(이건 밟는 것도 없고?)
103030 #1 으.(으.)
103030 @ 끗어 주는 것도.(끌어 주는 것도.)
103030 #1 엇고.(없고.)
103030 @ 아고, 편한 게.(아고, 편한 게.)
103030 #1 으게.(으.)
103031 @ 걸름도 안 허는 거고예.(거름도 안 하는 거고요.)

61) '보릿그루'는 '보리를 베고 남은 밑동 또는 그 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쓰였다.

103031 #1 으, 안 허는 거고. 건 걸름을 경. 밧이 콩 갈아 나민 ᄒᆞ꼼 존넨 허주게. 겨민 콩 비영 콩깍지 고랑더레 ᄀᆞᆯ앙 밧 갈앙 놔두민 존넨 헹 경허는 사름도 싯고.(으, 안 하는 거고. 건 거름을 그렇게. 밭이 콩 갈고 나면 조금 좋다고 하지. 그러면 콩 베어서 콩깍지 고랑에 깔아서 밭 갈아서 놔두면 좋다고 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103031 @ 으.(으.)

103036 #1 허여 먹젠을 허민 그냥 비영 장만을 허민 콩 두부도 허영 먹곡게. 콩죽도 쒕 먹고 ᄀᆞᆯ앙 국도 끌령 먹고게.(해 먹으려고 하면 그냥 베서 장만을 하면 콩 두부도 해서 먹고. 콩죽도 쒀서 먹고 갈아서 국도 끓여서 먹고.)

103032 @ 콩씨는 어떵 뿌립니까?(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32 #1 콩씨는 ᄒᆞ꼼 두물게게. 줓게 말앙 방 벌영. 삐는 사름이 이처록 다 알앙 삐여.(콩씨는 조금 드물게. 빽빽하게 말고 간격 벌려서. 뿌리는 사람이 이처럼 다 달아서 뿌려.)

103032 @ 예, 알앗수다. 좁씨 뿌릴 때나.(예, 알겠습니다. 좁씨 뿌릴 때나.)

103032 #1 좁씬 ᄒᆞ꼼 줌진 씨니까 이레 나 가도 줓게 나 가지. 젠젠헌 거난. 콩씨는 이렇게 뿌려도 홁은 거니까 잘 나가지 안허니까 오무랑허게[62] 삐고. 다 삐기 마련이라. 이렇게.(좁씬 조금 잔 씨니까 이리 나가도 빽빽하게 나가지. 자잘한 거니까. 콩씨는 이렇게 뿌려도 굵은 거니까 잘 나가지 않으니까 '오무랑하게' 뿌리고. 다 뿌리기 마련이야. 이렇게.)

103033 @ 음. 경헌 거. 이제 저기 콩밧도 검질은 메살 거 아니?(음. 그런 거. 이제 저기 콩밭도 김은 매얄 거 아니?)

103033 #1 검질메사주게.(김매야지.)

103033 @ 검질 멧 번이나 멥니까?(김 몇 번이나 맵니까?)

103033 #1 콩밧은 혼 벌 메민.(콩밭은 한 벌 매면.)

103033 @ 아, 혼벌 메민 끗.(아, 초벌 매면 끝.)

103033 #1 으. 막 그것이 퍼졍 그늘지민 검질이 잘 안 나주게.(으. 아주 그것이 퍼져서 그늘지면 김이 잘 안 나지.)

103033 @ 아, 콩입이 영.(아, 콩잎이 이렇게.)

103033 #1 으, 다 더꺼져 불언. 조컴질[63] 닮진 안허주게.(으, 다 덮여 버려. 조 김 같진 않지.)

103034 @ 콩밧디는 어떤 검질덜 나는 거라?(콩밭에는 어떤 김이 나는 거야?)

103034 #1 제완지허곡게 ᄀᆞᆺ새나 다름엇주게. ᄋᆞ름 검질은.(바랭이하고 아까나 다름없지. 여름 김은.)

103034 @ 게난 ᄋᆞ름 검질 이름 생각나는 거 다 ᄀᆞᆯ아 봅서.(그러니까 여름 김 이름 생각나는 거 다 말해 보세요.)

103034 #1 제완지, 보콜, 금각체게.(바랭이, '보콜', '금각체'.)

---

62) '오무랑허다'는 자잘한 것이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63) '조컴질'은 조밭에 나는 김을 말한다.

103034 @ 그거 세 개뿐. 다른 검질은?(그거 세 개뿐. 다른 김은?)

103034 #1 다른 검질은 벨로 엇어.(다른 김은 별로 없어.)

103035 @ 벨로 엇어예. 이제 익으민 콩도 비여살 거 아니예? 콩 비는 거 골아 줍서.(별로 없어요. 이제 익으면 콩도 베여야 할 거 아니에요? 콩 베는 거 말해 주세요.)

103035 #1 호미로게 것도 비여.(낫으로 것도 베어.)

103035 @ 비여. 콩 빈덴 헙니까, 콩 꺼끈덴 헙니까?(베어. 콩 벤다고 합니까, 콩 꺾는다고 합니까?)

103035 #1 꺼끈덴도 허곡 빈덴도 허곡 허주, 호미난. 경헤영 이제 모당 모당 놓민 안아당 무꺼. 무껑 시꺼당 마당에서 두드리주게. 도께로.(꺾는다고도 하고 벤다고도 하고 하지, 낫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아서 모아서 놓으면 안아다가 묶어. 묶어서 실어다가 마당에서 두드리지. 도리깨로.)

103035 @ 음, 도께로 두드리는 거?(음, 도리깨로 두드리는 거?)

103035 #1 두드렁 장만허영 이젠 물류왕 골아당. 경 안허민 ᄀᆞ레에 골앙 콩국도 끌렁 먹고.(두드려서 장만해서 이젠 말려서 갈아다가. 그렇지 않으면 맷돌에 갈아서 콩국도 끓여서 먹고.)

103035 @ 이거는 물방에 안 가는 거?(이거는 연자매 안 가는 거?)

103035 #1 아이 가는 거.(안 가는 거.)

103035 @ 그냥 두드리민 콩 나오는 거난?(그냥 두드리면 콩 나오는 거니까?)

103035 #1 으, 다 물렁.(으, 다 말려서.)

103035 @ 예. 도께 안 두드렁 요것도 쉐나 물 불르렌 안 헙니까?(예. 도리깨 안 두드려서 요것도 소나 말 밟으라고 안 합니까?)

103035 #1 안 헌다. 도께로 두드리나 마께로 두드리나 두드려사만 헤.(안 한다. 도리깨로 두드리거나 마께로 두드리거나 두드려야만 해.)

103036 @ 기구나. 콩으로 헐 수 있는 거 아까 뭐 헤 먹엇더라?(그렇구나. 콩으로 할 수 있는 거 아까 뭐 해 먹었지요?)

103036 #1 두부도 헹 먹고.(두부도 해서 먹고.)

103036 @ 두부렌 헷수과, 둠비렌 헷수과?(두부라고 했습니까, '둠비'라고 했습니까?)

103036 #1 둠비.('둠비'.)

103036 @ 둠비 헹 먹고.(두부 해서 먹고.)

103036 #1 죽도 쒕 먹고.(죽도 쒀서 먹고.)

103036 @ 죽도 쒀 먹고.(죽도 쒀서 먹고.)

103036 #1 장콩도 허고.(장콩도 하고.)

103036 @ 장콩 헷지예, 장콩 메주 만드는 장콩 허고.(장콩 했지요, 장콩 메주 만드는 장콩 하고.)

103036 #1 으.(으.)

103037 @ 아까 콩찝은 쉐 멕이고?(아까 콩짚은 소 먹이고?)

103037 #1 것도 쉐 멕이고. 콩깍지게, 콩깍지엔 헌다 옛날. 콩깍지 안아당 쉐 주라.

(것도 소 먹이고. 콩깍지, 콩깍지라고 한다, 옛날. 콩깍지 안아다가 소 줘라.)

103037 @ 아. 콩찝이엔 안 헹.(아, '콩찝'이라고 안 하고.)

103037 #1 콩깍지엔 헌다.(콩깍지라고 한다.)

103037 @ 아까 보리는 보리낭?(아까 보리는 보릿짚?)

103037 #1 으.(으.)

103037 @ 조는?(조는?)

103037 #1 조낭, 조찍('조낭', 조짚.)

103037 @ 콩은 콩깍지?(콩은 콩깍지?)

103037 #1 으, 콩깍지.(으, 콩깍지.)

103037 @ 아이고, 불르는 일름이 다 다르우다예. 보리낭, 조찍, 콩깍지. 아, 경 ᄐᆞ나게 불럿구나.(아이고,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네요. 보릿짚, 조짚, 콩깍지. 아, 그렇게 다르게 불렀구나.)

밭벼농사

103039 @ 산디 농사 물어보쿠다 산디. 산디 농사도 헤낫수과?(밭벼 농사 물어보겠습니다, 밭벼. 밭벼 농사도 했었습니까?)

103039 #1 아니, 허진 안헤도 허는 건 봐낫주.(아니, 하진 않아도 하는 거 봤었지.)

103039 @ 예. 산디 농사짓젠 허민 뭐 준비헤야 뒐 거?(예. 밭벼 농사지으려고 하면 뭐 준비해야 될 거?)

103039 #1 산디 농서도 씨만. 엿날은 비료 엇고 허난 씨만 삐여근에 갈아. 갈아근에 이젠 ᄀᆞ시락 신 거 아니가게?(밭벼 농사도 씨만. 옛날은 비료 없고 하니까 씨만 뿌려서 갈아. 갈아서 이젠 까끄라기 있는 거 아니니?)

103040 @ 우선은 언제 갑니까?(우선은 언제 갑니까?)

103040 #1 읏름에 거 ᄒᆞ꼼 이르게.(여름에 거 조금 이르게.)

103040 @ 이르게. 그럼 아까 콩 갈 때?(이르게. 그럼 아까 콩 갈 때?)

103040 #1 콩 갈 때 전이 봄 산디도 허고. 봄 산디 봄에 허고. 훤 이, 삼월에 ᄉᆞ, 오월러레, 삼월 그뭄에.(콩 갈 때 전에 봄 밭벼도 하고. 봄 밭벼 봄에 하고. 한 이, 삼월에 사, 오월에, 삼월 그믐에.)

103040 @ 음. 게민 봄 산디도 잇고 ᄀᆞ슬 산디도 잇고?(음. 그럼 봄 밭벼도 있고 가을 밭벼도 있고?)

103040 #1 건 늦은 산딘 보릿그루에 헌 것ᄀᆞ란 늦은 산디.(건 늦은 밭벼는 '보릿그루' 한 것보고 늦은 밭벼.)

103040 @ 아, 그것도 잇고?(아, 그것도 있고?)

103040 #1 보리 곧 비여 뒁 헌 것도 싯고 겨난 봄 산딘 허젠 허주기게. 이 나룩은 이르게 허영 허젠 허민.(보리 곧 베어 두고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봄 밭변 하려고 하지. 이 벼는 이르게 해서 하려고 하면.)

103040 @ 게민 산디 갈 때는?(그럼 밭벼 갈 때는?)

103040 #1 그냥 씨만 삐영.(그냥 씨만 뿌려서.)

103040 @ 씨 밧 갈기 전이?(씨 밭 갈기 전에?)

103040 #1 으, 갈기 전이 삐영 갈앙 이 나룩 허듯이 경헤영 낭. 이젠 물 줘도 물 아이 줭, 물이 엇어 불민 비 좃은 해엔 제대로 잘헤영 좋고 이건 시절에 메주기게. 이제 ᄀᆞ무는 헤엔 고고리 올라오지도 못헤영 피지도 못허여.(으, 갈기 전에 뿌려서 갈아 이벼 하듯이 그래서 나서. 이젠 물 줘도 물 안 줘서, 물이 없어 버리면 비 잦은 해엔 제대로 잘해서 좋고 이건 시절에 매지. 이제 가문 해엔 이삭 올라오지도 못해서 패지도 못해.)

103040 @ 아, 고고리 올라오지도 못허영.(아, 이삭 올라오지도 못해.)

103040 #1 산디는 비가 많이 온 해라사 좋주게.(밭며는 비가 많이 온 해여야 좋지.)

103040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3040 #1 어. 나룩이나 마찬가지.(어, 벼나 마찬가지.)

103040 @ 산디는 어쨌든 나룩이랑 달랑 물 엇인 디 사는 거잖아예?(밭벼는 어쨌든 벼랑 달라서 물 없는 데 사는 거잖아요?)

103040 #1 어, 어.(어, 어.)

103040 @ 경헌디도 비 많이?(그런데도 비 많이?)

103040 #1 어, 비 많이 와사 좋아.(어, 비 많이 와야 좋아.)

103041 @ 으, 음. 산디씨 뿌리는 건 똑같고예?(음, 음. 밭벼씨 뿌리는 건 똑같고요?)

103041 #1 으, 으.(으, 으.)

103042 @ 산디밧에는 검질?(밭벼밭에는 김?)

103042 #1 검질 다 마찬가지게. ᄋᆞ름 검질은 다 ᄀᆞ타.(김 다 마찬가지. 여름 김은 다 같아.)

103042 @ 멧 번이나 멜 거? 산디밧은?(몇 번이나 맬 거? 밭벼밭은?)

103043 #1 산디밧딘 서너 번 메사주게.(밭벼밭은 서너 번 매야지.)

103043 @ 이건 서너 번 멜 거?(이거 서너 번 맬 거?)

103043 #1 으. 이파리가 콩 닮지 안허영 이파리가 없는 거 영 올르는 거는 햇빛 받고 허민 검질이 ᄌᆞ주 나주게.(으. 이파리가 콩 같지 않아서 이파리가 없는 거 이렇게 오르는 거는 햇빛 받고 하면 김이 자주 나지.)

103043 @ 으.(으.)

103043 #1 이제 콩은 낭[64]으로 딱 그늘쳐 불민 검질이 잘 안 나고. 감제 검질도 흔불만 메민 다 엉글어졍 허민 벨로 감제 검질도 벨로 짓지 안허는디 조컴질이 ᄋᆞ라 번 메주게. 산디 검질이영.(이제 콩은 줄기로 딱 그늘져 버리면 김이 잘 안 나고. 고구마 김도 초벌만 매면 다 엉클어져서 하면 별로 고구마 김도 별로 깃지 않는데 '조컴질'이 여러 번 매지. 밭벼 김이랑.)

103043 @ 콩은 잎으로 영 더꺼지난.(콩은 잎으로 이렇게 덮이니까.)

64) '낭'은 '나무'의 뜻이나 여기서의 '콩의 줄기'라는 의미로 쓰였다.

103043 #1 으, 흔 번만 메도 뒈는디.(으, 한 번만 매도 되는데.)

103045 @ 이제 검질도 다 메수다예. 산디도 비어사 걸 아니?(이제 김도 다 맸습니다. 밭벼도 베어야 할 거 아니?)

103045 #1 으, 호미로 비영 것도 나룩 홀트듯 홀타.(으, 낫으로 베어서 것도 벼 홅듯 홅아.)

103045 @ 어쨌든 보리처럼 비영 영 널어 논 다음에.(어쨌든 보리처럼 베어서 이렇게 널어 놓은 다음에.)

103045 #1 어.(어.)

103045 @ 묶을 거?(묶을 거?)

103045 #1 어, 무꺼당 놩 홀타.(어, 묶어다가 놔서 홅아.)

103045 @ 묶을 때는 이거 께는 어떵 헙니까?(묶을 때는 이거 매끼는 어떻게 합니까?)

103045 #1 께?(매끼?)

103045 @ 으, 무끄는 건?(으, 묶는 건?)

103045 #1 무끄는 건 산디로도 무끌 수 싯주만은 이건 찍, 찍 놔뒷다근에, 샐 비여 오난 엿날은 놀새이. 경허당 무세미 멘들앙 톡톡 헤영 온디. 클, 쒜 클 이추룩 세와진 클, 옛날 발 돋앙 영허민 보리 두드리듯 그레 또 홀타. 경헤영 홀탕 그것도 두드리나 이제 허여사 나룩이 뒈여근에 방에에 지나 허는 거주게.(묶는 건 밭벼로도 묶을 수 있지만 이건 짚, 짚 놔뒀다가, 띠를 베어 오니까 옛날은 날띠. 그러다가 매끼 만들어서 톡톡 해서 왔는데. 틀, 쇠 틀 이처럼 세워진 틀, 옛날 발 돋아서 이러면 보리 두드리듯 그리 또 홅아. 그렇게 홅아서 그것도 두드리거나 이제 해야 벼가 돼서 방아에 찧거나 하는 거지.)

103045 @ 게난 어쨌든 산디는 비기 전에 새를 비어 오든 짚을.(그러니까 어쨌든 밭벼는 베기 전에 띠를 베어 오든 칡을.)

103045 #1 으, 찍을 비어 오든 그건 무꺼사.(으, 짚을 베어 오든 그건 묶어야.)

103045 @ 미릇 준비는 헤야 뒐 거다예.(미리 준비는 해야 될 거네요.)

103045 #1 으, 준비허느네.(으, 준비한단다.)

103045 @ 밧디서 클 허는 거?(밭에서 틀 하는 거?)

103045 #1 아니 집이 가져 온다, 대강. 산딘 뭐 하지 안허고 허난 쉐로 시꺼당.(아니 집에 가져 온다, 대강. 밭벼 뭐 많지 않고 하니까 소로 실어다가.)

103045 @ 쉐로 시꺼당 집이서.(소로 실어다가 집에서.)

103045 #1 으. 밧딘 허젠 허민 이제 거트민 가빠가 싯주만은 엿날은 멍석베끼 엇어세게. 그 멍석베끼 엇어 비난 그 멍석을 밧디 시껑 가지도 못허고 헤부난, 마당도 흑 마당이주게게. 경허난 이 흑 마당도 잘 달루민 뭐 끌지 안헹이라도 홀타 논다만은 멍석 끌앙 다 훌투주게.(으. 밭에는 하려고 하면 이제 같으면 가빠가 있지만 옛날은 멍석밖에 없었어. 그 멍석밖에 없어 버리니까 그 멍석을 밭에 실어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마당도 흙 마당이지. 그러니까 이 흙 마당도 달 다루면 뭐 깔지 않아서도 홅어 놓지만 멍석 깔

아서 다 홅지.)

103045 @ 멍석 마당에 다 끌앙?(멍석 마당에 다 깔아서?)

103045 #1 으. 거 나룩 거튼 거 조 거튼 거.(으. 거 벼 같은 거 조 같은 거.)

103045 @ 혹시 그거 타작헐 때 도께 허면 막 튀잖아예?(혹시 그거 타작할 때 도리깨 하면 마구 튀잖아요?)

103045 #1 으.(으.)

103045 @ 거 튀지 말렌 옆에 뭐 치는 것도 잇수과?(거 튀지 말라고 옆에 뭐 치는 것도 있습니까?)

103045 #1 아니, 치는 거 엇어. 그런 거 씰엉 둑 줘세게. 둑 질루난 겨난 둑 질뤄세게. 엿날은 허주데경 둑 질루민 ᄉᆞ못 강 왕 보민게 둑똥덜이영게 우리 읔은 때도 막 싸 놓고 허민 우린 둑 질루지 맙센 헨 둑 아이 질루고.(아니, 치는 것 없어. 그런 거 쓸어서 닭 줬어. 닭 기르니까 그러니까 닭 길렀어. 옛날은 흩뜨려서 닭 기르면 사뭇 가서 와서 보면 닭똥들이랑 우리 컸을 때도 마구 싸 놓고 하면 우린 닭 기르지 마시라고 해서 닭 안 기르고.)

103045 @ 음. 무사 둑 질루민 계란도 먹곡 헐 건디.(음. 왜 닭 기르면 계란도 먹고 할 건데.)

103045 #1 계란도 먹고 허여도게. 보리낭도 박박 긁으멍 허고 경허여낫저게. (계란도 먹고 해도. 보릿짚도 박박 긁으면서 하고 그랬었어.)

103045 @ 으.(으.)

103045 #1 둑덜이 막 허주데기민 막 보리낭덜 줏어 먹젠 박박 허고 둑 아이 질루는 사름이 엇주기게. 마당에 그거 장만헤 나민 그것덜이영 다 씰엉 둑덜도 주고. 말차라라도 계란 헤영 반찬도 헤영 먹곡 허젠. 솖앙도 먹고. 경헷주게.(닭들이 아주 흩뜨리면 마구 보릿짚들 주워 먹으려고 박박 하고 닭 안 기르는 사람이 없지. 마당에 그거 장만하고 나면 그것들이랑 다 쓸어서 닭들도 주고. 말째라도 계란 해서 반찬도 해서 먹고 하려고. 삶아서도 먹고. 그랬지.)

103045 @ 게난 이제 산디 비여 가지고 도께질 다 헹 산디 장만헷수다예.(그러니까 이제 밭벼 베어 가지고 도리깨질 다 해서 밭벼 장만했습니다.)

103045 #1 으.(으.)

103045 @ 이것도 갈앙 쏠 만들젠 허민.(이것도 갈아서 쌀 만들려고 하면.)

103045 #1 쏠 만들젠 허민게 나룩, 방에에 ᄆᆞᆯ방에에 짓던가. 저 이 기계 엇인 땐 ᄆᆞᆯ방에에 다 지엇주기게.(쌀 만들려고 하면 벼, 방아에 연자매에 찧던가. 저 이 기계 없을 땐 연자매에 다 찧었지.)

103045 @ 음. 기민 아까 보리 ᄆᆞᆯ방에에 질 때는 물 뿌리멍 헷잖아예?(음. 그럼 아까 보리 연자매에 찧을 때는 물 뿌리면서 했잖아요?)

103045 #1 으, 이건 산딘 물 안 뿌려.(으, 이건 밭벼 물 안 뿌려.)

103045 @ 아, 보리만이구나.(아, 보리만이구나.)

103045 #1 보리만.(보리만.)

103045 @ 보리만예. 경 물방에에만 강 졍 오민 이제 먹어지는 거?(보리만요. 그렇게 연자매에만 가서 찧어 오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103045 #1 어게. 니만 엇이민게. 옛날은게.(어. 뉘만 없으면. 옛날은.)

103045 @ 그 물방에 강 질 때 뭐가 젤 오래 걸립니까?(그 연자매 가서 찧을 때 뭐가 젤 오래 걸립니까?)

103045 #1 보리가 젤 오래 걸리주게. 조도 오래 걸리고. 조도 니 하나 엇이 지젠 허민게.(보리가 젤 오래 걸리지. 조도 오래 걸리고. 조도 뉘 하나 없이 찧으려고 하면.)

103045 @ 게민 지영 왕 불령 조는 또 지레 가고?(그럼 찧고 와서 불려서 조는 또 찧으러 가고?)

103045 #1 또.(또.)

103045 @ 두불 진덴 헤시난에. 니 엇이 허젠.(두벌 찧는다고 했으니까. 뉘 없이 하려고.)

103045 #1 니 허민 물방에 초불 헹 왕 방에에 남방에에서도 지엉 먹고 경헤세.(뉘 하면 연자매에 초벌 해서 와서 방아에 '남방에'에서도 찧어서 먹고 그랬어.)

103045 @ 막 한 거 아니민예?(아주 많은 거 아니면요?)

103045 #1 으, ᄒᆞ꼼썩이라도 보리도 경허고.(으, 조금씩이라도 보리도 그렇고.)

103046 @ 산디쏠로는 이제 뭐 헹 먹을 것과?(밭벼쌀로는 이제 뭐 해서 먹을 겁니까?)

103046 #1 산디쏠은게 나룩 뒈게게 논 엇인 사름덜게 죽도 쒕 먹고게 밥도 헹 먹곡게. 건 일체.(밭벼쌀은 벼 되게 논 없는 사람들 죽도 쒀서 먹고 밥도 해서 먹고. 건 일체.)

103046 @ 게난 산디 농사 식게헤 먹젠 허민 ᄒᆞ꼼썩은 다 헤살 거 아니?(그러니까 밭벼 농사 제사해 먹으려 하면 조금씩은 다 해야 할 거 아니?)

103046 #1 허여사주게.(해야지.)

103046 @ 밥, 곤밥 허젠 허민예?(밥, 흰밥 하려고 하면요?)

103046 #1 사당도 허고.(사다가도 하고.)

103046 @ 아, 그때도 옛날에도 경.(아, 그때도 옛날에도 그렇게.)

103046 #1 게 어디 강 사나 어떵 헤사주게. 아무 걸 허나 나룩 안 허민 일도 허여주민 주곡게. 품으로도 주고.(그래 어디 가서 사거나 어떻게 해야지. 아무 걸 하거나 벼 안 하면 일도 해 주면 주고. 삯으로도 주고.)

103047 @ 산디 홀타 나민 그건 산디찍?(밭벼 홅고 나면 그건 밭볏짚?)

103047 #1 으, 찍은 쉐 준다. 쉐.(으, 짚은 소 준다. 소.)

103047 @ 산디찍도 쉐 줍니까?(밭볏짚도 소 줍니까?)

103047 #1 아이고, 쉐 잘 먹나. 산디찍이 더 고시롱허덴 더 먹어.(아이고, 소 잘 먹어. 밭볏짚이 더 고소하다고 더 먹어.)

103047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3047 #1 어. 경허민 다 서껑 누느네. 눌 때에. 가을에 다 가을 농사 헤당 다 허여

올 거 아니가게. 거 조도 장만허고 산디도 장만허고 다 장만허민 찍은, 논에 찍은 망텡이도 줏고 멍석도 줏고 신도 삼앙 신고. 경헌디 감제 줄, 조찍, 산디찍, 새꼴은 눌에 눌어 둠서 쉐 멕엿주게. 쉐영 물이영.(어. 그러면 다 섞어서 가려. 가릴 때에. 가을에 다 가을 농사 해다가 다 해 올 거 아니니. 거 조도 장만하고 밭벼도 장만하고 다 장만하면 짚은, 논의 짚은 망태기 겯고 멍석도 겯고 신도 삼아서 신고. 그런데 고구마 줄, 조짚, 밭볏짚, 쇠꼴은 가리에 가려 두면서 소 먹였지. 소랑 말이랑.)

103047 @ 음, 눌어 둠서. 기민 산디찍도 영 줏는 거 안 뭽니까? 나룩찍이랑 틋나?(음, 가려 두면서. 그럼 밭볏짚도 이렇게 겯는 거 안 됩니까? 볏짚이랑 달라?)

103047 #1 틋나주게. 터럭도 돋고 ᄀᆞ시락도 돋고 경허난 망텡이 거튼 거 못 줄주게.(다르지. 털도 돋고 까끄라기도 돋고 그러니까 망태기 같은 거 못 겯지.)

103047 @ 아, 요걸로는 망텡이 못 줄아?(아, 요걸로는 망태기 못 결어?)

103047 #1 으, 못 줄아. 논에 나룩찍으로사 망텡이 줄고 신 삼고.(으, 못 결어. 논에 볏짚으로여야 망태기 겯고 신 삼고.)

103047 @ 경 산디 농사지으멍 뭐 별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엇고?(그렇게 밭벼 농사지으면서 뭐 별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없고?)

103047 #1 으게. 다 그거난. 옛날에 다 그거난.(으. 다 그거니까. 옛날에 다 그거니까.)

고구마 농사

103049 @ 예. 이제는예 감저 농사지으쿠다, 감저 농사. 감저 농사짓젠 허민 뭐 준비헤살 것과?(예. 이제는요 고구마 농사짓겠습니다, 고구마 농사. 고구마 농사지으려고 하면 뭐 준비해야 할 겁니까?)

103049 #1 감제 농사짓젠 허민이 이월 초열흘 고비에 감제 눌에 눌엇당, 눌은 시월에 허여당이 음력 시월에라민 상강 넘기 전이 이제 감젤 허여당 다 구뎅이 팡 눌어. 경헤여근에 겨울에 청도 먹고 씨도 허는디 이월 나민 이제 감저 멜 놔. 이제 방 벌영 감저 다 묻을 거 아니?(고구나 농사지으려고 하면 이월 초열흘 무렵에 고구마 가리에 가렸다가, 가리는 시월에 했다가 음력 시월에라면 상강 넘기 전에 이제 고구마를 해다가 다 구덩이 파서 가려. 그래서 겨울에 쪄서도 먹고 씨도 하는데 이월 되면 이제 고구마 모종을 놔. 이제 간격 벌려서 다 묻을 거 아니?)

103049 @ 음.(음.)

103050 #1 경헤영 묻엉 이젠 나민 거 굿[65] 올리고 허엿당 이제 보리 비여 나민 마와 가민 이젠 그걸 요만썩 끈으멍 다 심어. 경헤영 심엉 이제 검질 나가민 마 끝나 가민 고랑으로 쟁기허영 그 검질 난 디 아이 메덩 다 갈아. 고랑, 매 고랑에 경허영 검질 메여근에 허영.(그래서 묻어서 이젠 나면 거 '굿' 올리고 했다가 이제 보리 베고 나면 장마 와 가면 이젠 그걸 요만큼씩 끊으면서 다 심어. 그래서 심어서 이제 김 나면 장마

65) '굿'은 호박이나 오이 씨 따위를 묻고 그 주위 흙을 두두룩하게 모아 올린 것을 말한다.

끝나 가면 고랑으로 쟁기해서 그 김 난 데 안 매고 다 갈아. 고랑, 매 고랑에 그렇게 김 매고 해서.)

103052 @ 간다는 게 거기 밧을 갈아 부는 거?(간다는 게 거기 밭을 갈아 버리는 거?)

103052 #1 어. 심어 논 고량을 이제 쉐로 갈아. 검질, 고량으로 벳 찔렁. 이거 영 이렁에 심으민 요 새에 검질 난 디 갈앙 이레 허민 흑 올라가고 검질 허민 지둘라진 건 영 허멍도 잡아뎅겨 주곡 허영 헌디 시월 나민 그걸 이제 갈아. 갈앙 이제 저 감제 줄 비영 물류왕 걸 이제 소 양식으로 가곡. 감제로 이젠 빼다귀도 멘들고.(어. 심어 놓은 고랑을 이제 소로 갈아. 김, 고랑으로 볏 찔러서. 이거 이렇게 이랑에 심으면 요 새에 김 난 데 갈아서 이리 하면 흙 올라가고 김 하면 지질러진 건 이렇게 하면서도 잡아당겨 주고 해서 했는데 시월 되면 그걸 이제 갈아. 갈아서 이제 저 고구마 줄 베어서 말려서 걸 이제 소 양식으로 가고. 고구마로 이젠 절간고구마도 만들고.)

103052 @ 으.(으.)

103052 #1 치영도 먹곡게 묻고 경헷주. 내중엔 놀채 받으레 완에 전분 공장 헐 땐 풀앗주만은 엿날은 것도 받아 가지고 헤세게. 경헤영 빼다귀 헹 물류왕 그거 부수왕 밥에 서껑도 먹곡. ᄌᆞ베기 허영, ᄀᆞ루허영 감제 ᄌᆞ베기 허고 감제 떡도 허영 먹고.(쪄서도 먹고 묻고 그랬지. 나중에 날로 받으러 와서 전분 공장 할 땐 팔았지만 옛날은 것도 받아 가지고 했어. 그래서 절간고구마 해서 말려서 그거 부숴서 밥에 섞어서도 먹고. 수제비 해서, 가루해서 고구마 수제비 하고 고구마 떡도 해서 먹고.)

103052 @ 음. 아까 고구마는 메 놓는 걸 이월? 메종이렌 헷수과, 메렌 헷수과?(음. 아까 고구마는 모종 놓는 걸 이월? '메종'이라고 했습니까, '메'라고 했습니까?)

103052 #1 메종, 메종 놀 때.('메종', 모종 놓을 때.)

103052 @ 그건 이월예?(그건 이월요?)

103052 #1 이월에.(이월에.)

103052 @ 밧 갈앙?(밭 갈아서?)

103052 #1 갈앙 헐 때는 혼 유월.(갈아서 할 때는 한 유월.)

103052 @ 메종 놀 때는 밧 안 갑니까? 밧 갈아사 헐 거 아니?(모종 놓을 때는 밭 안 갑니까? 밭 갈아야 할 거 아니?)

103052 #1 메종 놀 때는 경 아니 헤도. 가는 사름 갈아도 광이질 헹 일렁이라도 놓주기게.(모종 놓을 때는 그렇게 안 해도. 가는 사람 갈아도 괭이질 해서 일궈서라도 놓지.)

103052 @ 아, 메종 놀 때는 밧 하영 허는 거 아니난?(아, 모종 놓을 때는 밭 많이 하는 거 아니니까?)

103052 #1 하영 안 허는 따문에 광이로라도 줏앙. 밧 이 쉐 장남 신 사름덜은 지네냥으로 혼 고지라도 갈주만은. 쉐 장남 엇인 사름덜은 쉐시랑으로, 광이로 다 일렁.(많이 안 하는 때문에 괭이로여도 쪼아서. 밭 이 소 일꾼 있는 사람들은 자기대로 한 이랑이라도 갈지만. 소 일꾼 없는 사람들은 쇠스랑으로, 괭이로 다 일궈서.)

103052 @ 이걸 광이렌 헐 거 궹이렌 헐 거?(이걸 '광이'라고 할 거 '궹이'라고 할 거?)

103052 #1 어, 광이도 허고 쉐시랑으로도 일러지고. 게난 쉐시랑으로 일르든 광이로 일르든 광이엔 헌다게.(어, 괭이도 하고 쇠스랑으로도 일굴 수 있고. 그러니까 쇠스랑으로도 일구든 괭이로 일구든 '광이'라고 한다.)

103052 @ 광이렌 헐 거예?('광이'라고 할 거요?)

103052 #1 으, 경허영 일러근에 감젯메 놧당 음력 이제 보리 다 허여 놩 오월 마 정ᄒᆞ꼼 날 좋고. 마 질 때도 날 좋고 안 허느냐게.(으, 그래서 일궈서 고구마 모종 놨다가 음력 이제 보리 다 해서 놔서 오월 장마 져서 조금 날 좋고. 장마 질 때도 날 좋고 안 하니.)

103052 @ 예, 예.(예, 예.)

103052 #1 경허영 헐 때엔 이제 거 심어.(그렇게 할 때엔 이제 거 심어.)

103052 @ 게난 심젠 허민 밧을 갈아살 거 아니?(그러니까 심으려고 하면 밭을 갈아야 할 거 아니?)

103052 #1 갈아. 갈앙 심어사주게.(갈아. 갈아서 심어야지.)

103052 @ 게민 밧 ᄒᆞᆫ벌만 갈민 뒐 거?(그럼 밭 초벌만 갈면 될 거?)

103052 #1 어, ᄒᆞᆫ번만 갈민.(어, 한번만 갈면.)

103052 @ 갈앙 여기 영 높은 거는 아까 이렁?(갈아서 여기 이렇게 높은 거는 아까 이랑?)

103052 #1 으, 이렁에 감제 싱그민 이제 고량에 검질을 나민 새로 갈아.(으, 이랑에 고구마 심으면 이제 고랑에 김 나면 새로 갈아.)

103052 @ 여기를 갈아 부는 거?(여기를 갈아 버리는 거?)

103052 #1 경혜영 갈민 검질 ᄒᆞᆫ불을 멧자 대강 홀홀 줏이민 감저 어울어지민 언매 감저 검질이 안 허고 골 아이 갈앙은 막 오래주게.(그렇게 갈면 김 초벌을 매어도 대강 홀홀 주우면 고구만 어울어지면 얼마 고구마 김이 안 하고 골 안 갈아서는 아주 오래지.)

103052 @ 게민 골 갈아 주는 건 검질.(그럼 골 갈아 주는 건 김.)

103052 #1 검질 엇게.(김 없게.)

103052 @ 메 주는 거고. 아까 메종 놀 때는 이거 올리는 걸 뭐 올린덴 헷수과?(매 주는 거고. 아까 모종 놓을 때는 이거 올리는 걸 뭐 올린다고 했습니까?)

103052 #1 올리질 안허고 광이로 혜영 펜펜허게 허영 고지 넙게 허영 방 벌영 감절 묻음만 허민.(올리지 않고 괭이로 해서 평평하게 해서 이랑 넓게 해서 간격 벌려서 고구마 묻기만 하면.)

103052 @ 굿 올린다는 건?('굿' 올린다는 건?)

103052 #1 거 굿[66] 올리젠 허민 낭, 메종이 낭 이제 그것더레 검질, 감젓메 검질메 영 영 올려줘.(거 '굿' 올리려고 하면 나서, 모종이 나서 이제 그것으로 김, 고구마 모종

66) '굿'은 호박이나 오이 씨 따위를 묻고 그 주위 흙을 두두룩하게 모아 올린 것을 말한다.

김매서 이렇게 올려줘.)

103052 @ 흑을 영 올리는 거?(흙을 이렇게 올리는 거?)

103052 #1 어, 올려 줘.(어, 올려 줘.)

103052 @ 굿 올린덴 허는 거?('굿' 올린다고 하는 거?)

103052 #1 어, 굿 올리는 거.(어, '굿' 올리는 거.)

103052 @ 아, 굿 올리는 건 그거라예.(아, '굿' 올리는 건 그거지요.)

103052 #1 으.(으.)

103052 @ 경헨 검질은 밧 가는 걸로 메는 거고.(그래서 김은 밭 가는 걸로 매는 거고.)

103052 #1 경 허고 손으로도 메사주게, 크민. 하나썩 헌 거 줏어사주게.(그렇게 하고 손으로도 매야지, 크면. 하나씩 한 거 주워야지.)

103052 @ 게민 감자 놓젠 허민 메중 키운 줄을 끈엉 오는 거 아니?(그럼 고구마 놓으려고 하면 모종 키운 줄을 끊어서 오는 거 아니?)

103052 #1 으, 그걸 이젠 굿 올령 허민 줄 막 어울려졍 파지민 이젠 이걸 포기 허영 호미로 비여. 경허영 진 건 이파리 서너너 개썩 허영 졸르고 쫄른 건 그냥 심고. 경허여근에 심는 거.(으, 그걸 이제 '굿' 올려서 하면 줄 마구 어울려져서 파면 이젠 이걸 포기로 해서 낫으로 베어. 그래서 긴 건 잎 서너 개씩 해서 자르고 짧은 건 그냥 심고. 그래서 심는 거.)

103052 @ 심을 때민 밧 갈아 나민 여기 손으로.(심을 때면 밭 갈고 나면 여기 손으로.)

103052 #1 영 팡 감제 줄 이레 놩 이레 흑 더껑.(이렇게 파서 고구마 줄 이리 놔서 이리 흙 덮어서.)

103052 @ 흑 더껑.(흙 덮어서.)

103052 #1 영 허주기게. 거 갈아 놓민 그 이렁을 영 허여사 감제 줄을, 감제 줄 영헤 가믄 감제 줄이 판나는 따문.(이렇게 하지. 거 갈아 놓으면 그 이랑을 이렇게 해야 고구마 줄을, 고구마 줄 이렇게 해 가면 고구마 줄이 해어지는 때문.)

103052 @ 예.(예.)

103052 #1 영 파 놩 감제 줄 이레 놩 흑을 이레 놩 더꺼 줘.(이렇게 파 놔서 고구마 줄 이리 놔서 흙을 이리 놔서 덮어 줘.)

103052 @ 손으로 그건?(손으로 그건?)

103052 #1 손으로.(손으로.)

103052 @ 아, 톡톡 찔르기만 허는 거 아니?(아, 톡톡 찌르기만 하는 거 아니?)

103052 #1 아니고 이거 감제 줄이민이 이건 이렁이민 영 흑 헤영 감저 줄 이레 영 놩 흑 더꺼. 꼭 꼭 누르뜨멍.(아니고 이거 고구마 줄이면 이건 이랑이면 이렇게 흙 해서 고구마 줄 이리 이렇게 놔서 흙 덮어. 꼭 꼭 누르면서.)

103052 @ 아, 감저 줄을 아예 흑에 묻어 부는 거?(아, 고구마 줄을 아예 흙에 묻어 버리는 거?)

103052 #1 어게.(어.)

103052 @ 아, 전 경 생각헷수다. 감저 줄 잇이민 한 부분만 욜로 찔르는 거.(아,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구마 줄 있으면 한 부분만 욜로 찌르는 거.)

103052 #1 아니 아니. 경허민 그 감제 줄 ᄆᆞ디 ᄆᆞ디가 허영 감저 드는 거주게.(아니 아니. 그러면 그 고구마 줄 마디 마디가 해서 고구마 드는 거지.)

103052 @ 아, 이디 아예 놩 이걸 묻어 부는 거?(아, 여기 아예 놔서 이걸 묻어 버리는 거?)

103052 #1 어게. 경허난 영허영 놩 이 흑을 이레 영 더껑 꽉 누르떠사 감저가 살주. 경 안 허민 골아 벼.(어. 그러니까 이렇게 놔서 이 흙을 이리 이렇게 덮어서 꽉 눌러야 고구마가 살지. 그렇게 않으면 곯아 버려.)

103052 @ 아, 골아 부는 거구나.(아, 곯아 버리는 거구나.)

103052 #1 으게. 경허영 그 뭔 이 끈 더켕이랑 잘 묻고 순 나는 건 냉겨근에 허민 일로 순 낭.(으. 그래서 그 뭔 이 끈 머리는 잘 묻고 순 나는 건 남겨서 하면 일로 순 나서.)

103052 @ 순 나는 거 냉기기도 허는구나예. 게난 고랑에 상 이랑에 감저 줄을 놓는 거라예?(순 나는 거 남기기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고랑에 서서 이랑에 고구마 줄을 놓는 거지요?)

103052 #1 어게.(어.)

103053 @ 예, 예. 알아지쿠다, 이제. 감저 밧디 검질은 몇 번이나 멥니까?(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고구마 밭에 김은 몇 번이나 맵니까?)

103053 #1 감저 밧디 검질은게 그 중정헌 다음에 하나썩 떨어진 거 시민 줍는 것은 줏어도 흔벌만 메도 뒈주게.(고구마 밭에 김은 그 중경한 다음에 하나씩 떨어진 거 있으면 줍는 것은 주워도 초벌만 매도 되지.)

103053 @ 아까 중정헌다는 게 무슨 말?(아까 중경한다는 게 무슨 말?)

103053 #1 이 고량 간다는 거주게.(이 고랑 간다는 거지.)

103053 @ 아. 하하하. 고량 가는 걸 중정한다고 헤?(아. 하하하. 고랑 가는 걸 중경한다고 해?)

103053 #1 으.(으.)

103055 @ 게민 감저 파는 거는 언제?(그럼 고구마 파는 거는 언제?)

103055 #1 시월덜.(시월.)

103055 @ 이제 감저 수확허젠 허민 뭐부터 헙니까?(이제 고구마 수확하려고 하면 뭐부터 합니까?)

103055 #1 줄 비어 놔사게.(줄 베어 놔야.)

103055 @ 줄, 호미로?(줄, 낫으로?)

103055 #1 호미로 다 동글락동글락허게 밧 비여 놩. 이젠 갈멍 간 더레 그 줄을 너나 어떵 헤쓰나 허민 물류왕 건 쉐 거져다 멕이곡.(낫으로 다 동글동글하게 밭 베어 놔서. 이젠 갈면서 간 데로 그 줄을 널거나 어떻게 헤치면서 하면 말려서 건 소 가져다

먹이고.)

103055 @ 아니, 줄 비여 낭 갈아 불어?(아니, 줄 베고 나서 갈아 버려?)

103055 #1 감절 갈주게 쉐로게.(고구마를 갈지, 소로.)

103055 @ 막 상처 나지 안헙니까?(마구 상처 나지 않습니까?)

103055 #1 아니. 쟁기로 갈민 지프게 갈앙 다 헤싸지민 줏음만 헌다. 줏으멍 이레 데끼곡 저레 데끼곡.(아니. 쟁기로 갈면 깊게 갈아서 다 흐트러지면 줍기만 해. 주우면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103055 @ 아, 골겡이로 안 허고?(아, 호미로 안 하고?)

103055 #1 안 헌다. 골겡이로 어떵 허영 그 작산 거 골겡이로.(안 한다. 호미로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거 호미로.)

103055 @ 아, 게민 쟁기로 갈아 부는 거?(아, 그럼 쟁기로 갈아 버리는 거?)

103055 #1 으.(으.)

103055 @ 경 줏엇수다. 감저 줄은 몰리고.(그렇게 주웠습니다. 고구마 줄은 말리고.)

103055 #1 감전 이제 씨 헐 건 헤당 묻고 이제 겨울에 쳥 먹을 것도 허당 놓고.(고구마는 이제 씨 할 건 해다가 묻고 이제 겨울에 쪄서 먹을 것도 해다가 놓고.)

103056 @ 예, 묻젠 허민 이제 뭘 만들아야 헐 거?(예, 묻으려고 하면 이제 뭘 만들어야 할 거?)

103056 #1 흑구뎅이 막 파. 조찝도 영 세웁고 헤영 감제 비와 놓멍 흑 그레 더프멍 허영 손 들어가게 고망 내왕 ᄂᆞ람쥐 더끄고 주젱이 더꺼라, 엿날은. 경허영 허고 이제 남은 건 빼따기 허영 골아당 이제 뻣앙 떡도 헹 먹고 ᄌᆞ베기도 헹 먹고. 골아 낭 무걱지 싯지 안허냐게. 골아 나민게 다 안 부숴진 거.(흙구덩이 마구 파. 조짚도 이렇게 세우고 해서 고구마 비워 놓으면서 흙 그리 덮으면서 해서 손 들어가게 구멍 내서 이엉 덮고 주저리 덮더라, 옛날은. 그래서 하고 이제 남은 건 절간고구마 해서 갈아다가 이제 빻아서 떡도 해서 먹고 수제비도 해서 먹고. 갈고 나서 무거리 있지 않니. 갈고 나면 다 안 부숴진 거.)

103057 @ 음.(음.)

103057 #1 그건 밥에도 놩 먹고 경헤라게.(그런 밥에도 넣어서 먹고 그러더라.)

103057 @ 여기 뺏데기렌 안 헹 빼따기렌 헤난?(여기 '뺏데기'라고 안 하고 '빼따기'라고 했었어?)

103057 #1 빼따기, 빼따기.('빼따기', 절간고구마.)

103057 @ 빼따기. 빼따기 만들 때는 영 칼로 썰어?(절간고구마. 절간고구마 만들 때는 이렇게 칼로 썰어?)

103057 #1 어게. 엿날은 칼로 썰엇주기게. 저 중간엔 기계 낭 기계로 허영 절간감저도 허고 헷주.(어. 옛날은 칼로 썰었지. 저 중간에 기계 나서 기계로 해서 절간고구마도 하고 했지.)

103057 @ 절간감저렌도 부를 거예?('절간감저'라고도 부를 거요?)

103057 #1 으.(으.)

103057 @ 기계는 어떤 기계과, 영 돌리민 뒈?(기계는 어떤 기계입니까, 이렇게 돌리면 돼?)

103057 #1 으, 돌리멍 허는 거. 영 앞이 영 눌 시 개 허고 영 둘루민 욜로 감저 들이치민 알로 착착착착 나왕 물류고 헷주만은 엿날은 경헌 것이 엇어난. 엿날 하르방덜은.(으, 돌리면서 하는 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날 세 개 하고 이렇게 두르면 욜로 고구마 들어뜨리면 아래로 착착착착 나와서 말리고 했지만 옛날은 그런 것이 없었어. 옛날 할아버지들은.)

103057 @ 기민 엇일 때는?(그럼 없을 때는?)

103057 #1 칼로 썰엇주게.(칼로 썰었지.)

103057 @ 칼로 썬 거예. 예, 예. 경헨 뺏데기.(칼로 썬 거요. 예, 예. 그래서 절간고구마.)

103057 #1 경허고 하영 싱그지도 안헷주기게. 그걸 빼따기 허곡 하영 헤도 썰도 못허고 헐 거난. 조, 보리 이제 그런 것만 헷주기게.(그리고 많이 심지도 않았어. 그걸 절간고구마 하고 많이 해도 썰지도 못하고 할 거니까. 조, 보리 이제 그런 것만 했지.)

103057 @ 여기 뭐 감저 헤 가지고 감저 공장에 풀고 그런 건 안 헤낫수과?(여기 뭐 고구마 해 가지고 고구마 공장에 팔고 그런 건 안 했었습니까?)

103057 #1 감제 공장에 풀곡 허는디 이건 오래질 안헷주기게. 막 옛날 하르방덜은 경허고 중간엔 놀감저 허영 중간 감저로도 허고 놀채로 헤영 저 판포[67] 공장에도 강 풀고 그 슝년에 그 감저 똥을 다 사당 먹어서.(고구마 공장에 팔고 하는데 이건 오래질 않았지. 아주 옛날 할아버지들은 그렇고 중간엔 날고구마 해서 중간 고구마로도 하고 날로 해서 저 판포 공장에도 가서 팔고 그 흉년에 그 고구마 똥을 다 사다 먹었어.)

103057 @ 감저 똥이 뭐과?(고구마 똥이 뭡니까?)

103057 #1 감저 저 생채 풀민 전분 ᄀᆞ루 나가멍 밋밋[68] 나왕 통에 받앙 도새기 사당 멕이곡 헤낫주게. 그런 거 다 사당, 저 봉가당 먹는 사름은 먹어낫저.(고구마 저 생채 팔면 전분 가루 나가면서 '밋밋' 나와서 통에 받아다가 돼지 사다가 먹이고 했었지. 그런 거 다 사다가, 저 주워다 먹는 사람은 먹었었어.)

103057 @ 아, 전분 가루 헤가지고 찌꺼기. 게민 공장에 강 픈 건 얼만 안 뒌 거구나.(아, 전분 가루 해가지고 찌꺼기. 그럼 공장에 가서 판 건 얼마 안 된 거구나.)

103057 #1 공장에 강 풀민게.(공장에 가서 팔면.)

103057 @ 게니까 게니까 막 옛날에 삼춘 몇 살 때쯤 그런 감저 공장이?(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삼촌 몇 살 때쯤 그런 고구마 공장이?)

103057 #1 우리 감저 공장은게 시집간 후제 생겻주게.(우리 고구마 공장은 시집간 후에 생겼지.)

103057 @ 시집간 후제. 기지예?(시집간 후에. 그렇지요?)

103057 #1 그 전인.(그 전엔.)

---

67) '판포'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를 말한다.

68) '밋밋'은 거침없이 줄곧 나오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58 @ 감저 줄은 아까.(고구마 줄은 아까.)

103058 #1 쉐.(소.)

103058 @ 쉐 멕이는데 몰령?(소 먹이는데 말려서?)

103058 #1 몰령, 흔 뭇썩 흔 뭇썩 무껑 다 눌엉 놔뒀당. 비 맞추지 말앙 다 ᄂᆞ람쥐 허영 눌엉 놧당 빠멍 멕인다.(말려서, 한 뭇씩 한 뭇씩 묶어서 다 가려 놔뒀다가. 비 맞게 하지 말고 다 이엉 해서 가려서 놨다가 빼면서 먹인다.)

103058 @ 게민 집이 눌이 참 여러 개?(그럼 집에 가리가 참 여러 개?)

103058 #1 ᄋᆞ라 개 허주기게. 조칩 눌, 새꼴 눌, 이제 감제 줄 눌, 보리낭 눌 ᄉᆞ못 이제 거트민 이 집이 못 살주게. 이 눌 허젠 허민.(여러 개 하지. 조짚 가리, 쇠꼴 가리, 이제 고구마 줄 가리, 보릿짚 가리 사뭇 이제 같으면 이 집에 못 살지. 이 가리 하려고 하면.)

103058 @ 게난 촐 눌도 또 헤야 헐 거 아니?(그러니까 꼴 가리도 또 해야 할 거 아니?)

103058 #1 어?(어?)

103058 @ 촐 눌도 또 따로 만들아야 헐 거 아니?(꼴 가리도 또 따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

103058 #1 촐 눌게 다 따로따로덜게. 조작조작허게.(꼴 눌 다 따로따로들. 우뚝우뚝하게.)

103058 @ 하하하.(하하하.)

103058 #1 지들케도 불 솜을 거 헤당 데미곡게.(땔감도 불 땔 거 해다가 쌓고.)

103058 @ 어. 지들케도 데미고. 집 널찍허게 눌 눌 자리덜이예.(어. 땔감도 쌓고. 집 널찍하게 가리 가리 자리들이요.)

기타 농사

103060 @ 이제 다른 농사덜, 혹시 수박도 갈아낫수과?(이제 다른 농사들, 혹시 수박도 갈았었습니까?)

103060 #1 수박덜은 안 헷저, 엿날. 이제난 수박, 춤웨 놩 먹엄주 춤웨. 수박 어느절에.(수박들은 안 했어, 옛날. 이제니까 수박, 참외 놔서 먹고 있지, 참외. 수박 어느 겨를에.)

103060 @ 먹을 거는 게도 심엉?(먹을 거는 그래도 심어서?)

103060 #1 아니 헷저, 엿날은. 호박 그자. 국 끌령 먹는 거 호박 주로 놧주이. 수박, 이거 수박, 웨 놓건 디가 이거 십 년 안내주게.(안 했어, 옛날은. 호박 그저. 국 끓여서 먹는 거 호박 주로 놨지. 수박, 이거 수박, 참외 놓은 지가 이거 십 년 안이지.)

103060 @ 아, 그거밖에 안 뭰?(아, 그거밖에 안 됐어?)

103060 #1 이거 우리 세계에. 다 사멍 먹고 그자 헷주. 집이서 농사 그 전인 안 헷저.(이거 우리 세계에. 다 사면서 먹고 그저 했지. 집에서 농사 그 전엔 안 했어.)

103060 @ 게니까 먹을 것만게?(그러니까 먹을 것만?)

103060 #1 먹을 것만도 훤 십 년쯤 뒛저. 젊은 사름덜 헤영 메종 나난 헷주. 아니 헤 봣저 이디.(먹을 것만도 한 십 년쯤 됐어. 젊은 사람들 해서 모종 나니까 했지. 안 해 봤어 여기.)

103060 @ 아, 안 헤 봐서.(아, 안 해 봤어.)

103061 #1 물웨나 허고 옛날은 물웨 허고 호박이나베끼. 대축부렝이 거튼 거.(물외나 하고 옛날은 물외 하고 호박이나밖에. 옥수수 같은 거.)

103061 @ 물웨는 어떵 헤낫수과?(물외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61 #1 물웨는 싱그게 뒈민 씨 헹 놔뒷단게 씨로 싱경근에 으름에 냉국덜 헹 먹고. 뒌장에 밧디 가졍강 적젼도 먹곡. 경허영 물웨 주로 헷주게.(물외는 심게 되면 씨 해서 놔뒀다가 씨로 심어서 여름에 냉국들 해서 먹고. 된장에 밭에 가져가서 적셔서도 먹고. 그렇게 물외 주로 했지.)

103061 @ 씨로 싱그는 거라예?(씨로 심는 거지요?)

103061 #1 으, 씨로 싱그는 거.(으, 씨로 심는 거.)

103061 @ 씨는 그냥 먹던 거 받아 놧당?(씨는 그냥 먹던 거 받아 놨다가?)

103061 #1 아니 익은 거 허영 받앙 놧당 물령 논다.(아니 익은 거 해서 받아 놨다가 말려서 놓는다.)

103062 @ 물렷당예. 고치는 어떵 헷수과?(말렸다가요. 고추는 어떻게 했습니까?)

103062 #1 고치도 기자 장독 안에이 먹을 만이 자리 훼나 먹을 땐 먹고게. 멧 낭썩 심엉 헷주. 경 주로 안 헷저. 이거 고치 심건 디도 멧 년 안 뒛저, 이거. 젊은 사름덜 심게 뒈난 막. 나도 작년꺼지 심엉 이제 아이 심엄저. 이젠 늙어 변 허지 못혜영.(고추도 그저 장독 안에 먹을 만큼 자리돔 회나 먹을 땐 먹고. 몇 나무씩 심어서 했지. 그렇게 주로 안 했어. 이거 고추 심은 지도 몇 년 안 됐어, 이거. 젊은 사람들 심게 되니까 마구. 나도 작년까지 심고 이제 안 심고 있어. 이젠 늙어 버려서 하지 못 해.)

103062 @ 옛날에 김치 헤 먹젠 허민 고치 집이서 싱거나지 안허연, 호꼼은?(옛날은 김치 해서 먹으려고 하면 고추 집에서 심지 않았어, 조금은?)

103062 #1 호꼼은 싱거낫주. 경 호꼼 허난 경 벌경게 놔사게?(조금은 심었었지. 그렇게 조금 하니까 그렇게 벌겋게 놨니?)

103062 @ 아니지예.(아니지요.)

103062 #1 아니주. 사당도 놓곡게. 우리도 엿날 저 시[69]에 강 사단 먹엇저게. 저 제주시에 저, 저 그 집이 고치 좋넨 허여근에 그 서문통[70] 시장 안에 강 우린 사단 먹엇주만은.(아니지. 사다가도 놓고. 우리도 옛날 저 시내에 가서 사다가 먹었지. 저 제주시에 저, 저 그 집에 고추 좋다고 해서 그 서문통 시장 안에 가서 우린 사다가 먹었지만.)

103062 @ 음.(음.)

103062 #1 할망덜이사 고치 벨로 고치 놩 먹어사게. 젊은 사람덜이사.(할머니들이야

69) 여기서 '시'는 '제주시'를 가리킨다.

70) '서문통'은 현재 제주서문시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명으로, 옛 제주읍성의 서문(西門)이 있었던 거리를 가리킨다.

고추 별로 고추 놔서 먹었니. 젊은 사람들이야.)

103062 @ 집이서 헐 때는 씨 뿌린 거, 메종 논 거?(집에서 할 때는 씨 뿌린 거, 모종 놓은 거?)

103062 #1 고치 메종 놧당 싱그주기게.(고추 모종 놨다가 심지.)

103062 @ 지금은 경허지만 옛날에 먹을 때?(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먹을 때?)

103062 #1 아니 이젠 메종 논 거 사당 싱검주만은 엿날은 고치씨 허영 메 놩 싱것저게.(아니 이젠 모종 놓은 거 사다가 심지만 옛날은 고추씨 해서 모종 놔서 심었어.)

103062 @ 이제는 메종을 아예 사당 허는 거고?(이제는 모종을 아예 사다가 하는 거고?)

103062 #1 으, 사당 허는 거고. 이제사 춤웨고 수박이고 다 메종으로 헴세. 오이고 무시거고. 나도 오이여, 수박이여, 가지여 다 메종으로 사당 서너 개썩이라도.(으, 사다가 하는 거고. 이제야 참외고 수박이고 다 모종으로 하고 있어. 오이고 뭐고. 나도 오이며, 수박이며, 가지며 다 모종으로 사다가 서너 개씩이라도.)

103062 @ 장에 강예?(장에 가서요?)

103062 #1 으.(으.)

103063 @ 배치 ᄂᆞ물은 어떵 헤나신고예?(배추 나물은 어떻게 했었나요?)

103063 #1 배추 ᄂᆞ물 아이고, 얘야 엿날 배추 우린 배추라도 속 앚은 배추 허영 갈앙 김치 허영 우린 벌겅케 허고 맛좋게 허민 우리 집이 아덜덜 친구덜은, 난 아방[71]도 학교 다니고 허난게.(배추 나물 아이고, 얘야 옛날 배추 우린 배추라도 속 앉는 배추 해서 갈아서 김치 해서 우린 벌겋게 하고 맛있게 하면 우리 집의 아들들 친구들은, 난 아버지도 학교 다니고 하니까.)

103063 @ 아, 공무원이랏수과?(아, 공무원이었습니까?)

103063 #1 어. 경허민 김치 맛좋게 헴젠 우리 집이 아덜덜 친구덜은 막 왕 나 엇인 때덜은 밥 왕 먹어난 아으덜은 김치 맛좋게 허영 그디 가민 궤기가 시나 어시나 짐치에 밥 먹어져라 헤도 다른 디사 경 허여져사게.(어. 그러면 김치 맛있게 한다고 우리 집의 아들들 친구들은 많이 와서 나 없는 때들은 밥 와서 먹으니까 아이들은 김치 맛있게 해서 거기 가면 고기가 있으나 없으나 김치에 밥 먹었어 해도 다른 데야 그렇게 할 수 있었니.)

103063 @ 음.(음.)

103063 #1 경허여근에 ᄎᆞ마귀[72]나 영 고치도 아니 놓곡게 약간 버물렁 허곡. 첨 먹을 때거리덜토 이제난 허주 우리 아기덜 클 때사 흔엇이 헤사? 경허난 우린 그때도 배추 갈아근에 우리 아, 친정아방이 막 입매 줄르는 따문.(그래서 'ᄎᆞ마귀'나 이렇게 고추도 안 넣고 약간 버무려서 하고. 참 먹을 땟거리들도 이제니까 하지 우리 아기들 클 때야 한없이 했니? 그러니까 우린 그때 배추 갈아서 우리 아, 친정아버지가 아주 입매 짧기 때문.)

---

71)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 '아방'은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72) 'ᄎᆞ마귀'는 뿌리가 들기 전의 무를 말한다.

103063 @ 음.(음.)

103063 #1 날 빌어당 김치도 담으렌 허고.(날 빌려다가 김치도 담그라고 하고.)

103063 @ 삼춘이 요리를 잘헷구나?(삼촌이 요리를 잘했구나?)

103063 #1 에, 에. 생성 다져근에 우리 친정아방은 그런 거 놩 짐치나베끼 안 먹어낫주게. 경허영 우리 아버지가 원체 입매 줄른 따문 우리 어머니도 삼시 우리 아바지 더운 밥허고 헤나서.(에, 에. 생선 다져서 우리 친정아버지는 그런 거 놔서 김치나밖에 안 먹었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원체 입매 짧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삼시 우리 아버지 더운 밥하고 했었어.)

103063 @ 배추 농사지을 때 옛날에 씨 뿌령 헌 거?(배추 농사지을 때 옛날에 씨 뿌려서 한 거?)

103063 #1 아니. 으, 씨 뿌령. 경허영 웨로, 웨로 세왕. 경헤근에.(아니. 으, 씨 뿌려서. 그래서 외로, 외로 세워서. 그래서.)

103063 @ 영 속 앚읍니까?(이렇게 속 앉습니까?)

103063 #1 막 속 앚아낫주기게.(잘 속 앉았었지.)

103063 @ 무꺼주지 안헤도?(묶어주지 않아도?)

103063 #1 무꺼주지 안헤도 속 앚아낫주게. 반 속.(묶어주지 않아도 속 앉았었지. 반 속.)

103063 @ 속 앚아난예.(속 앉았었어요.)

103063 #1 우리 이제도 메종 놩주민 ᄂᆞ물은 이녁대로 허영 먹어.(우리 이제도 모종 놔주면 나물은 자기대로 해서 먹어.)

103063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3063 #1 헴주게, 매해. ᄂᆞ물 아이 사 봔.(하고 있지, 매해. 나물 안 사 봤어.)

103063 @ 안 사 봔, 예. 그 무수는?(안 사 봤어, 예. 그 무는?)

103064 #1 무수도 갈아.(무도 갈아.)

103064 @ 씨로?(씨로?)

103064 #1 씨로. 줍아 놩.(씨로. 집어 놔서.)

103064 @ 씨로 줍아 놩.(씨로 집어 놔서.)

103064 #1 딱 영 허민 무수 사이, 사이. 헐 만썩 줍아 놩.(딱 이렇게 하면 무 사이, 사이. 할 만큼씩 집어 놔서.)

103064 @ 게민 우영밧디 무수랑 고치랑 ᄀᆞ치 다 심어난 거 아니? 게민 배추랑 무수 싱글 때가 시기가 ᄀᆞ트과?(그럼 터앝에 무랑 고추랑 같이 다 심었던 거 아니? 그럼 배추랑 무 심을 시기가 같습니까?)

103064 #1 아니주기게. 이 고춘 음력으로 이월 초열흘 고비에 메종 놀 고리레 헹 싱그고. 경헌디 이제 배추는 일후제 싱글 거주.(아니지. 이 고추는 음력으로 이월 초열흘 무렵에 모종 놓을 경에 해서 심고. 그런데 이제 배추는 그 이후에 심을 거지.)

103064 @ 일후제 싱글 거.(그 이후에 심을 거.)

103064 #1 어. 무수도.(어. 무도.)

103064 @ 일후제가 언제라?(그 이후가 언제?)
103064 #1 구월, 구월 흔 십날 안에 심을 거라.(구월, 구월 한 십일 안에 심을 거야.)
103064 @ 무수도 그때예? 지슬도 싱경 먹어낫수과?(무도 그때요? 감자도 심어서 먹었었습니까?)
103065 #1 지슬도 싱거낫주기게.(감자도 심었었지.)
103065 @ 그것도 먹을 것만? 어떵 싱거?(그것도 먹을 것만? 어떻게 심어?)
103065 #1 그것도 걸름허영 갈아 놩 영 허여 놩 그것도 이철록 허영게.(그것도 거름해서 갈아 놔서 이렇게 해 놔서 그것도 이처럼 해서.)
103065 @ 그 뭐를 놓는 거? 씨를?(그 뭐를 놓는 거? 씨를?)
103065 #1 씨.(씨.)
103065 @ 감저를, 아니 지슬을?(고구마를, 아니 감자를?)
103065 #1 지실을. 여름 지실은 온채 놓고 겨울 지실은 눈만 돌랑 놔도 뒈여.(감자를. 여름 감자는 통째 놓고 겨울 감자는 눈만 도려서 놔도 돼.)
103065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3065 #1 으. 으름에 비 하영 온 때 으름 지실은 벌르지 아니허고. 썩어 빈다. 겨울에는 그 눈만 돌랑 비 엇는 때난 놔도 지실 들고 경 허는 거.(으. 여름에 비 많이 온 때 여름 감자는 쪼개지 않고. 썩어 버린다. 겨울에는 그 눈만 도려서 비 없는 때니까 놔도 감자 들고 그렇게 하는 거.)
103065 @ 썩어 불카 부덴 온채 놓는 거?(썩어 버릴까 봐 통째 놓는 거?)
103065 #1 썩어 벼.(썩어 버려.)
103066 @ 예, 예. 피 농사지어 봔, 피?(예, 예. 피 농사지어 봤어, 피?)
103066 #1 아니, 안 헷저.(아니, 안 했어.)
103066 @ 안 헤난예. 피밥도 안 먹어 보고?(안 했어요. 피밥도 안 먹어 보고?)
103066 #1 안 먹어 봔.(안 먹어 봤어.)
103067 @ ᄆᆞ물 농사 어떵허과?(메밀 농사 어떻습니까?)
103067 #1 ᄆᆞ물도 이디레 안 허여.(메밀도 여기 안 해.)
103067 @ 여기는 ᄆᆞ물도 안 허여?(여기는 메밀도 안 해?)
103067 #1 으, ᄆᆞ물 잘 안 허여.(으, 메밀 잘 안 해.)
103067 @ 게민 ᄆᆞ물쏠 어떵헹 구헹 와?(그럼 메밀쌀 어떻게 구해 와?)
103067 #1 ᄆᆞ물쏠은 상훼에 강, 어디 웃드를[73] 강, 이젠 상훼 시난 상훼 헤도 웃드르 ᄆᆞ물 신 디 강.(메밀쌀은 상회에 가서, 어디 '웃드르'를 가서, 이젠 상회 있으니까 상회 해도 '웃드르' 메밀 있는 데 가서.)
103067 @ 바꿩 오는 거?(바꿔서 오는 거?)
103067 #1 저 사오주기게.(저 사오지.)
103067 @ 사 오는 거예.(사 오는 거요.)
103067 #1 ᄆᆞ물 체도 시집가젠 허민 그 건펴난 디 강 ᄆᆞ물 체 사곡. ᄆᆞ물쏠도 사곡.

73)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메밀 겨도 시집가려고 하면 그 거피했던 데 가서 메밀 겨 사고. 메밀쌀도 사고.)

103067 @ ᄆᆞ물 체는 무사 사는 것과?(메밀 겨는 왜 사는 겁니까?)

103067 #1 베개 시집갈 때 허젠 허민게 강 막 사 오주.(베개 시집갈 때 하려고 하면 가서 많이 사 오지.)

103067 @ 예. ᄆᆞ물쏠은 아멩헤도 떡 허젠 허난예?(예. 메밀쌀은 아무래도 떡 하려고 하니까요?)

103067 #1 떡도 허곡 먹곡 허젠 허민.(떡도 하고 먹고 하려고 하면.)

103068 @ 혹시 이 동네 담배 갈아낫수과?(혹시 이 동네 담배 갈았었습니까?)

103068 #1 담배 엿날 우리 아버지네도 갈안.(담배 옛날 우리 아버지네도 갈았어.)

103068 @ 아이구, 담배 갈아난?(아이고, 담배 갈았었어?)

103068 #1 담배 갈앙 거 튿앙 다 예졍 물올라사. 경헤영 그늘에서 ᄆᆞᆯ왕 다 거 접 짓엉 풀고 헨게, 그때.(담배 갈아서 거 뜯어서 다 엮어서 물올라야. 그래서 그늘에서 말려서 다 거 접 지어서 팔고 했어, 그때.)

103068 @ 게민 삼춘 막 어렸을 땐게예?(그럼 삼촌 아주 어렸을 때네요?)

103068 #1 으, 나 막 어린 때. 허는 거 봄만 헷주게. 경허민 그거 담배입 튿아당 물올르민 그거 다 예졍 ᄂᆞ람쥐 예끼듯 예졍 벳 안나는 디 이제 주랑주랑 걸엉. 경허영 ᄆᆞᆯ류와근에.(으, 나 아주 어렸을 때. 하는 거 보기만 했지. 그러면 그거 담뱃잎 뜯어다가 물오르면 그다 다 엮어서 이엉 엮듯 엮어서 볕 안 나는 데 이제 주렁주렁 걸어서. 그래서 말려서.)

103068 @ 물올른다는 게 무슨 말?(물오른다는 게 무슨 말?)

103068 #1 담배가 그 힘이 차야.(담배가 그 힘이 차야.)

103068 @ 아. 여리여리 안 헹.(아. 여리여리 안 해서.)

103068 #1 으, 어리지 안헹 그 힘이 차사 그 이파리 봉. 그거 보민 넙적넙적허난.(으, 어리지 않아서 그 힘이 차야 그 잎 봐서. 그거 보면 넙적넙적하니까.)

103068 @ 기민 보민 지금 물올라져신지 아닌지 알아질 거라예?(그럼 보면 지금 물올랐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지요?)

103068 #1 게, 알주기게. 것이 이만이 담배 높으민 밑으로 튿앙 물올른 건 튿앙 예낀다, 찍으로.(그래, 알지. 것이 이만큼 담배 높으면 밑으로 뜯어서 물오른 건 뜯어서 엮는다, 짚으로.)

103068 @ 예, 예.(예, 예.)

103068 #1 경 예졍 영 허영 다 엿날은 허여근에 풀아라.(그렇게 엮어서 이렇게 해서 다 옛날은 해서 팔더라.)

103068 @ 아, 기구나 기구나.(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103068 #1 경허민 칼로 그거 썰어근에 담배 피우는 하르방도 싯곡게.(그러면 칼로 그거 썰어서 담배 피우는 할아버지도 있고.)

103068 @ ᄆᆞᆯ린 거를?(말린 거를?)

103068 #1 ᄆᆞᆯ린 거게.(말린 거.)

103068 @ 믈린 거. 예.(말린 거. 예.)

103068 #1 경혜영 통대에덜 거 놩 피우는 하르방은 피우고 이제 믈앙 먹는 사름은 믈앙덜도 먹고. 폼도 허곡게. 그때는 담배 풀렌 헹 담배 받아 감도 헹게.(그래서 설대에 거 넣어서 피우는 할아버지는 피우고 이제 말아서 먹는 사람들은 말아서도 먹고. 팔기도 하고. 그때는 담배 팔라고 해서 담배 받아가기도 했어.)

103068 @ 저기 다른 디서 왕 담배 받아 가는 거?(저기 다른 데서 와서 담배 받아 가는 거?)

103068 #1 으, 응.(으, 응.)

103068 @ 알앗수다.(알았습니다.)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쉐 질르고 믈 질러난 얘기를 물어보쿠다. 쉐 질루젠 허민 어떵 헙니까?(소 기르고 말 길렀던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소 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4001 #1 쉐 질루젠 허민 쉐촐 시간에, 시간에 두 시간에 혼 번도 주곡. 물 멕이레 가고 물통에 엿날은. 수돗물 엇인 때난 물 질어당 먹곡 저 허드렛물 허는 디 강 물 멕영 오고. 이제 쉐 허영 육지레 수출헐 거로 부렝이덜, 숫쉔 허민 촐 썰어 멕이곡 엿날도. 막 술지게 신경 썽 허민 술 막 부트민 술 값으로 헹 풀고 경헤낫주게. 암쉔 이딘 암쉐 질루는 사름이 멧 엇어, 이딘.(소 기르려고 하면 쇠꼴 시간에, 시간에 두 시간에 한 번도 주고. 물 먹이러 가고 물통에 옛날은. 수돗물 없을 때니까 물 길어다가 먹고 저 허드렛물 하는 데 가서 물 먹여서 오고. 이제 소 해서 육지로 수출할 거로 부룩소들, 수소 하면 꼴 썰어서 먹이고 옛날도. 아주 살찌게 신경 써서 하면 살 아주 붙으면 살 값으로 해서 팔고 그랬었지. 암소 여긴 암소 기르는 사람이 몇 없어, 여긴.)

104001 @ 암쉔 알아주지 안허여?(암손 알아주지 않아?)

104001 #1 목장도 엇고 허난 새끼 내우민게 어떵허당이나 암쉐 허주 다 숫쉐덜만 헤여, 여긴.(목장도 없고 하니까 새끼 낳게 하면 어쩌다가 암소 하지 다 수소들만 해, 여긴.)

104001 @ 아. 영 푸는 것도.(아. 이렇게 파는 것도.)

104001 #1 웃드리렌 암쉐 질롸도 해변가렌 숫쉐가 많아.('웃드리'로는 암소 길러도 해변가로는 수소가 많아.)

104001 @ 그러니까 푸는 것도 숫쉐 질룬 거라예?(그러니까 파는 것도 수소 기른 거지요?)

104001 #1 으.(으.)

104001 @ 밧 가는 것도 부렝이 질뤄난 거 아니?(밭 가는 것도 부룩소 길렀던 거 아

니?)

104001 #1 으, 부렝이 허고 암쉐도 밧 간다게.(으, 부룩소 하고 암소도 밭 갈아.)

104001 @ 암쉐도 밧 갈아마씨?(암소도 밭 갈아요?)

104001 #1 으, 암쉐도 허는디 거 송애기 허영 돈이사 벌주만은 경헌 사름덜은 ᄒᆞ꼼 뭣 헌 사름이고 그자 농사나 짓고 쉐 빌레나 안 갈 사름은 부렝이.(으, 암소도 하는데 거 송아지 해서 돈이야 벌지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뭐 한 사람이고 그저 농사나 짓고 소 빌리러나 안 갈 사람은 부룩소.)

104001 @ 으.(으.)

104001 #1 경허난 엿날 우리도 쉐 시난 쉐 엇인 장남 허영 우린 밧 갈아 도렌 헷주기게. 밧 갈 사름이 엇이난.(그러니까 옛날 우리도 소 있으니까 소 없는 일꾼 해서 우린 밭 갈아 달라고 했지. 밭 갈 사람이 없으니까.)

104001 @ 남자 삼춘은?(남자 삼촌은?)

104001 #1 교직에 뎅겨 부난.(교직에 다녀 버리니까.)

104001 @ 아, 직장 뎅겨 부난.(아, 직장 다녀 버리니까.)

104001 #1 으. 우리 친정아바지도 이녁냥으로 밧 갈고 늙어도. 경헤낫주.(으. 우리 친정아버지도 자기대로 밭 갈고 늙어도. 그랬었지.)

104001 @ 경헨 쉐 멧 마리나 질뤄낫수과? 하영 질룰 때는?(그래서 소 몇 마리나 길렀었습니까? 많이 기를 때는?)

104001 #1 부렝이 하나썩베끼 안 질룬다. 암쉐 허는 사름은 여러 개 허고. 새끼 내왕, 초랑초랑 올리 나고 내년 나고 허민 ᄋᆞ라 개이고.(부룩소 하나씩밖에 안 기른다. 암소 하는 사람은 여러 개 하고. 새끼 낳게 해서, '초랑초랑' 올해 낳고 내년 낳고 하면 여러 개이고.)

104001 @ 아, 부렝이 ᄒᆞ나씩?(아, 부룩소 하나씩?)

104001 #1 으.(으.)

104001 @ 아멩헤도 그 부렝인 밧갈쉐로 질룬 건게?(아무래도 그 부룩소는 '밧갈쉐'로 기른 거네?)

104001 #1 으, 밧갈쉐[74]로게.(으, '밧갈쉐'로.)

104002 @ 그럼 이 쉐 질룰 때 이 털 색깔에 따라 영 종류가 잇잖아예?(그럼 이 소 기를 때 이 털 색깔에 따라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104002 #1 으.(으.)

104002 @ 예를 들면 노랑색?(예를 들면 노란색?)

104002 #1 노린 쉐도 질루는 사름 싯고 검은 쉐도 질루는 사람도 싯고. 또 검은색에 흰 털, 흰 점 박아진 쉐도 싯고 헤낫주.(노란 소도 기르는 사람 있고 검은 소도 기르는 사람도 있고. 또 검은 색에 흰 털, 흰 점 박힌 소도 있고 했었지.)

104002 @ 게민 그거 검은색에 흰 점 박이진 쉐 불르는 일름을 알아지쿠과?(그럼 그거 검은색에 흰 점 박힌 소 부르는 이름을 알겠습니까?)

---

74) '밧갈쉐'는 밭을 가는 데 부리는 소를 말한다.

104002 #1 슥쉐[75]이 그츠록 으라 가지 색 헤진 건.(‘슥쉐’ 그처럼 여러 가지 색 한 건.)

104002 @ 아, 아. 게민 노랑 쉐는?(아, 아. 그럼 노란 소는?)

104002 #1 황 부렝이.(황 부룩소.)

104002 @ 황 부렝이. 검은 쉐는?(황 부룩소. 검은 소는?)

104002 #1 검은 쉔 그냥 검은 쉐 그냥 허고. 노린 건, 벌겅헌 건 황 부렝이. 이제 그 얼룩달룩헌 건 슥쉐.(검은 소는 그냥 검은 소 그냥 하고. 노란 건, 벌건 건 황 부룩소. 이제 그 얼룩덜룩한 건 칡소.)

104002 @ 뿔 모양에 따라도 이름덜이 이신가예?(뿔 모양에 따라서도 이름들이 있나요?)

104002 #1 아니. 그런 건 이름이 엇어.(아니. 그런 건 이름이 없어.)

104002 @ 뿔 모양 어떤 것덜이 잇어낫수과?(뿔 모양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4002 #1 영허영 오고라진 것도 싯고 굳장 영 세와진 것도 싯고 멧 가지가. ᄒᆞ꼼 쫄른 것도 싯고. 질엉 ᄉᆞ못 헌 것도 싯고 으라 가지주.(이렇게 오그라진 것도 있고 곧게 이렇게 세워진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조금 짧은 것도 있고. 길어서 사뭇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지.)

104002 @ 그럼 그런 거에 따랑 이름은?(그럼 그런 거에 따라서 이름은?)

104002 #1 그런 건 엇고게.(그런 건 없고.)

104002 @ 아, 엇고예. 거의 다 털 색깔로 헌 거다예?(아, 없고요. 거의 다 털 색깔로 한 거네요?)

104002 #1 으.(으.)

104003 @ 게민 쉐 영 질루민 집이서 그 쉐 뭐 헐 때 씁니까?(그럼 소 이렇게 기르면 집에서 그 소 뭐 할 때 씁니까?)

104003 #1 밧 갈 때 짐 시꺼올 때 경 허주게.(밭 갈 때 짐 실어올 때 그렇게 하지.)

104003 @ 밧 갈 때 짐 시꺼올 때. 또 쉐 쓰는 일이 신가?(밭 갈 때 짐 실어올 때. 또 소 쓰는 일이 있나요?)

104003 #1 어?(어?)

104003 @ 몰방에 강도 쉐 씁니까?(연자매 가서도 소 씁니까?)

104003 #1 어게, 몰방에도 엿날은 몰방에 지멍도 허곡게. 경 엇인 사름은 쉐 빌엉 헤영 일도 헤 주고 경헌다.(그래, 연자매도 옛날은 연자매 찧으면서도 하고. 그렇게 없는 사람은 소 빌려서 해서 일도 해 주고 그런다.)

104003 @ 놈의 쉐 빌령 헹, 수눌엉 일 허는구나. 또 밧 ᄇᆞᆯ릴 때도 씁니까?(남의 소 빌려서 해서, 품앗이해서 일 하는구나. 또 밭 밟을 때도 씁니까?)

104003 #1 엿날은이 이녁대로 농서 못 짓고 허난 밧 가는 장남 빌민 홀어멍덜은 이건 우리 여저끼리난 ᄀᆞᆯ암주만은 홀어멍신디 허영 다 아기도 낳고 똘도 봉그고 아덜도 봉가. 농서 ᄒᆞᆫ디 지멍은 뭐 홀어멍은 대개 경헤서, 옛날.(옛날은 자기대로 농사 못 짓고

75) ‘슥쉐’는 턱 색이 흑색과 회색인 섞인 칡소를 말한다. ‘슥쉐’, ‘식쉐’라고도 한다.

하니까 밭 가는 일꾼 빌리면 홀어머니들은 이건 여자끼리니까 말하지만 홀어머니에게 해서 다 아기도 낳고 딸도 줍고 아들도 주워. 농사 같이 지으면서 뭐 홀어머니는 대개 그랬어, 옛날.)

104003 @ 아, 장남 와 가지고 일헤 주고.(아, 일꾼 와 가지고 일해 주고.)

104003 #1 일헤 주당 보민게.(일해 주다가 보면.)

104003 @ 하하하. 일헤 주멍 애기도 봉갓구나.(하하라. 일해 주면서 아기도 주웠구나.)

104003 #1 애기게. 뚤도 봉그는 디 싯고 아덜도 봉그는 디 싯고.(아기. 딸도 줍는 데 있고 아들도 줍는 데 있고.)

104004 @ 하하하. 그 부렝이는 밧 갈젠 질들여야 헐 거 아니?(하하하. 그 부룩소는 밭 갈려고 길들여야 할 거 아니?)

104004 #1 어게. 쉐 ᄀᆞ르친다. 담 허여근에 고냥 똘랑 그디 노 ᄃᆞᆯ아메고 허영 이디 멍에 씌왕 쉘 ᄀᆞ르쳐사 밧 갈곡 허주기게.(어. 소 가르친다. 담 해서 구멍 뚫어서 거기 노 달아매고 해서 여기 멍에 씌워서 소를 가르쳐야 밭 갈고 하지.)

104004 @ 게난 삼춘네는 부렝이를 밧 가는 부렝이를 상 왕 질룬 것과, 아니면 새끼 내운 거를 질룬 것과?(그러니까 삼촌네는 부룩소를 밭 가는 부룩소를 사서 와서 기른 겁니까, 아니면 새끼 낳은 거를 기른 겁니까?)

104004 #1 아니, 우리 부렝이 다 밧이영 ᄀᆞ르쳐진 거 사당 우린 허주게.(아니, 우리 부룩소 다 밭이랑 가르쳐진 거 사다가 우린 하지.)

104004 @ 아, ᄀᆞ르쳐진 거.(아, 가르쳐진 거.)

104004 #1 어게, 우리 하르방도 시아방도 늙어 빌고 어떵허여. ᄀᆞ르치젠 허민 힘들어. 새 송애기 ᄀᆞ르치젠 허민.(어, 우리 할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늙어 버리고 어떡해. 가르치려고 하면 힘들어. 새 송아지 가르치려고 하면.)

104004 @ 게난 새 송애기 ᄀᆞ르칠 때 놈 허는 건 본 거 아니예, ᄀᆞ르치는 거예?(그러니까 새 송아지 가르칠 때 남 하는 건 본 거 아니요, 가르치는 거요?)

104004 #1 어게. 담 끗엉 경 허곡게 담 조롬에 이 먹돌[76]이라도 고냥 똘라진 거 꿰영 밧 갈듯이 탁 노 허영 허곡 황황 허멍 지렁지렁 막 끗엉 뎅기곡 허주.(어. 담 끌어서 그렇게 하고 담 꽁무니에 이 '먹돌'이라도 구멍 뚫린 거 끼워서 밭 갈듯이 탁 노 해서 하고 '황황' 하면서 줄줄 마구 끌어서 다니고 하지.)

104004 @ 게난 멧 설 뒈민 쉐를 질 들이기 시작헙니까?(그러니까 몇 살 되면 소를 길들이기 시작합니까?)

104004 #1 멧 살산디게 밧 갈 만이 허민게.(몇 살인지 밭 갈 만큼 하면.)

104004 @ 밧 갈 만이 허민.(밭 갈 만큼 하면.)

104004 #1 으, 크민게. 경허민 ᄀᆞ르쳥.(으, 크면. 그러면 가르쳐서.)

104004 @ 그게 쉐 멧 설인지는 모르고?(그게 소 몇 살인지 모르고?)

104004 #1 ᄒᆞᆫ 두 설, 세 살에 ᄀᆞ리치는 거여.(한 두 살, 세 살에 가르치는 거야.)

76) '먹돌'은 아주 딴딴하고 미끄러운 돌을 말한다.

104004 @ 두 설, 세 설 때?(두 살, 세 살 때?)

104004 #1 으.(으.)

104004 @ ᄀᆞ리치젠 허민 뭐부터 허여?(가르치려고 하면 뭐부터 해?)

104004 #1 뭐 밧 가는 거게. 멍에 허영.(뭐 밭 가는 거. 멍에 해서.)

104004 @ 멍에 허영. 바로 밧디 가가지고 ᄀᆞ리칩니까?(멍에 해서. 바로 밭에 가가지고 가르칩니까?)

104004 #1 아니게. 이 돌 끗엉 뎅기멍 ᄀᆞ리쳐 놔사 허는 거주게. 주로 멍에 씌우고 돌 끗엉 지렁지렁 굳장헌 신작로로 뎅기멍 ᄀᆞ르쳐. 경허영 놩 이제 밧디 강 장기 메왕 ᄒᆞ꼼썩 ᄒᆞ꼼썩 베왕 허는 거주게.(아니. 이 돌 끌고 다니면서 가르쳐 놔야 하는 거지. 주로 멍에 씌우고 돌 끌어서 질질 곧은 신작로로 다니면서 가르쳐. 그래서 놔서 이제 밭에 가서 쟁기 메워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서 하는 거지.)

104004 @ 처음에는 이 동네에서 가르쳣구나.(처음에는 이 동네에서 가르쳤구나.)

104004 #1 으, 질레서.(으, 길에서.)

104004 @ 질레서 돌 우이.(길에서 돌 위에.)

104004 #1 으, 돌 ᄃᆞᆯ아메영. 이만이헌 돌 허영 그 끗는 돌덜이 싯주기게. 멘들앙 새 송애기 ᄀᆞ르치젠 허민 엿날 새 송애기 ᄀᆞ르치젠 허민 멍에 씌우고 그거에 저 끗엉 뎅겨 나사 구루마도 메와지고, 아이고. ᄆᆞᆯ도 엿날은 ᄆᆞᆯ도이 꿰 한 ᄆᆞᆯ은 오드락오드락 들러퀴멍 질메도 안 지젠 헤낫저.(으, 돌 달아매서. 이만한 돌 해서 그 끄는 돌들이 있지. 만들어서 새 송아지 가르치려고 하면 옛날 새 송아지 가르치려고 하면 멍에 씌우고 그거에 저 끌고 다녀야 수레도 메워지고, 아이고. 말도 옛날은 말도 깨 한 말은 팔딱팔딱 날뛰면서 길마도 안 지려고 했었어.)

104004 @ 하하하.(하하하.)

104004 #1 엿날은이 차가 드물게 드물게 영 길 넓히지 안헌 때에 허민이 우리 걸름 시껑 가나 졸 시껑 오젠 허민이 ᄆᆞᆯ은이 쉐보다 ᄆᆞᆯ은, 쉔 경 안 허는디 ᄆᆞᆯ은 오들랑오들랑 들라퀴젠 헤, 뒷발허민 겁나.(옛날은 차가 드물게 드물게 이렇게 길 넓히지 않을 때에 하면 우리 거름 실어 가거나 조를 실어 오려고 하면 말은 소보다 말은, 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말은 ‘오들랑오들랑’ 날뛰려고 해, 뒤발하면 겁나.)

104004 @ 음.(음.)

104004 #1 경허민 난 ᄆᆞᆯ 안 허영 쉐 헤영 가젠 쉐 헤영 가젠.(그러면 난 말 안 하고 소 해서 가려고 소 해서 가려고.)

104004 @ 음, 들라퀴카 부덴. 하하하.(음, 날뛸까 봐. 하하하.)

104004 #1 차 와 가민 어디 골목더레 확 이껑 강 세왓당 허곡. 이젠 차 하부난 경 허젠 헤도 못 허주.(차 와 가면 어디 골목으로 확 끌고 가서 세웠다가 하고. 이젠 차 많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 하지.)

104004 @ 게난 ᄆᆞᆯ이 차 보멍 놀랜 건게게.(그러니까 말이 차 보면서 놀란 거네.)

104004 #1 놀랜 거. 겁낭. 뒷발 오들랑오들랑.(놀란 거. 겁나서. 뒷발 ‘오들랑오들랑’.)

104004 @ 하하.(하하.)

104004 #1 경 헤낫저.(그렇게 했었어.)

104005 @ 예, 짐 시껑 가젠 허민. 쉐 질룰 때 쉐도 나이가 잇잖아예?(예, 짐 싣고 가려고 하면. 소 기를 때 소도 나이가 있잖아요?)

104005 #1 으.(으.)

104005 @ 혼 설, 두 설 헐 때 그 나이 불러난 일름을 알아지쿠과? 혼 설 때 뭐렌 불르고?(한 살, 두 살 할 때 그 나이 불렀던 이름을 알겠습니까? 한 살 때 뭐라고 부르고?)

104005 #1 아니, 경 안 허여.(아니, 그렇게 안 해.)

104005 @ 나릅, 사릅 허는 말 안 들어봣수과?(나릅, 사릅 하는 말 안 들어봤습니까?)

104005 #1 건 어린 때 이건 멧 년 뒌 거 허영 그출룩 듣주 그냥 멧 설이여, 풀젠 허민 이건 혼 열두 설 쯤 난 거 같다 허고. 이 송애기 어린 때가 사릅이여 무시거여 허는 거주.(건 어린 때 이건 몇 년 된 거 해서 그처럼 듣지 그냥 몇 살이야, 팔려고 하면 이건 한 열두 살 쯤 난 거 같다 하고. 이 송아지 어린 때가 사릅이야 뭐야 하는 거지.)

104005 @ 게난 게난 두 설을 다간이엔 불르고?(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살을 두습이라고 부르고?)

104005 #1 난 몰르켜.(난 모르겠어.)

104007 @ 아, 하. 그건 모르고예, 나이는예. 그 쉐에 짐 시끄젠 허민 우이 질메를 헐 거라예. 질메를 허면은 거기에 이름들은 알아지쿠과? 질메에 이 부분은 뭐렌 불르고 허는 이름들?(아, 하. 그건 모르고요, 나이는요. 그 소에 짐 실으려고 하면 위에 길마를 할 거지요. 길마를 하면 거기에 이름들은 알겠습니까? 길마에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르고 하는 이름들?)

104007 #1 그냥 우린 질메엔만 헤낫저, 이딘.(그냥 우린 '질메'라고만 했었어, 여긴.)

104007 @ 질메엔만예.('질메'라고만요.)

104007 #1 짐 시껑 허민 질메. 이제 영 두꺼운 거 허영 질메 소곱에 탁 더끄는 거, 더끄는 건 질메 등 지게.(짐 싣고 하면 길마. 이제 이렇게 두꺼운 거 해서 길마 속에 탁 덮는 거, 덮는 건 길마 등 지게.)

104007 @ 아, 질메 등 지게.(아, 길마 등 지게.)

104007 #1 경허영 그레 질메 지웡 저 짐 시끄고 허주게. 등 벗겨지카 부덴 험벅 두꺼운 거 영 허영 엿날은.(그래서 그리 길마 지워서 저 짐 싣고 하지. 등 벗겨질까 봐 헝겊 두꺼운 거 이렇게 해서 옛날은.)

104007 @ 예, 예.(예, 예.)

104007 #1 경허영 등뗑이레 것부터 ᄆᆞ녀 놔 놩 질메 우터레 씌와. 등 벗어지카 부덴.(그래서 등에 것부터 먼저 놔 놓고 길마 위로 씌워. 등 벗어질까 봐.)

104007 @ 등 벗어지카 부덴. 경헹 질메에 앞에 부분을 뭐엔 불르고 뒤엣 부분은 뭐엔 불르고 그거는 일름이?(등 벗어질까 봐. 그래서 길마에 앞의 부분을 뭐라고 부르고

뒤의 부분을 뭐라고 부르고 그거는 이름이?)

104007 #1 엇언.(없어.)

104007 @ 엇언예.(없어요.)

104007 #1 질메 앞인 ᄒᆞ꼼 높으고 질메 뒤에 거는 ᄒᆞ꼼 ᄂᆞ차와.(길마 앞엔 조금 높고 길마 뒤에 거는 조금 낮아.)

104007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4007 #1 어, 경헌디 질메에 아멩이나 지왕은 짐 못 시끄주게. 엿날 우리 지들커 허레 간 디 우리 ᄉᆞ춘 오라방이 질메, 그때 학교 허단 방학 허난.(어, 그런데 길마에 아무렇게나 지워서는 짐 못 싣지. 옛날 우리 땔감 하러 갔는데 우리 사촌 오라버니가 길마, 그때 학교 하다가 방학 하니까.)

104007 @ 일허레 왓구나.(일하러 왔구나.)

104007 #1 지들케 허레 갓주게. 저 막 우이 산간에. 경허영 이젠 시껀 오젠 허난 쉐가 못 젼디고 걷지도 안허고 헨 봐레 보난 아, 거꾸로 질메 지완게. 게난 짐이 앞이 높아사 들러질 건디 뒨 허고 앞더레 박아지난 쉐도 오죽 못 젼뎌사게.(땔감 하러 갔지. 저 아주 위에 산간에. 그래서 이젠 실어서 오려고 하니까 소가 못 견디고 걷지도 않고 해서 봐 보니까 아, 거꾸로 길마 지웠어. 그러니까 짐이 앞이 높아야 들을 수 있을 건데 뒤는 하고 앞으로 넘어지니까 소도 오죽 못 견뎠니.)

104007 @ 뒤를 못 들런, 무거원에?(뒤를 못 들었어, 무거워서?)

104007 #1 경허영 오단 짐 클런 질메 새로 헤영 와낫저. 헐 충 모른 사름은 몰랑 경허영.(그래서 오다가 짐 풀어서 길마 새로 해서 왔었어. 할 줄 모른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104007 @ 어느 게 앞이고 뒨지?(어느 게 앞이고 뒨지?)

104007 #1 으, 몰르주게.(으, 모르지.)

104007 @ 게난 앞에가 좀 높구나?(그러니까 앞이 좀 높구나?)

104007 #1 으. 영 앞쪽에 노프게 허고 질메에 낭으로 다 공젱이가 잇어. 쉣베[77] 영 허영 그 공젱이레 짐 시껑 싹 훌텅 또 시껑 또 이디 꿰고 경허여낫저.(으. 이렇게 앞쪽에 높게 하고 길마에 나무로 다 갈고리가 있어. '쉣베'랑 해서 그 갈고리에 짐 실어서 싹 홅고 또 실어서 또 여기 끼우고 그랬었어.)

104007 @ 음. 앞에 배 쪽으로 헹 영 무끄는 거.(음. 앞의 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묶는 거.)

104007 #1 질메, 질메에 다 준등이 무끄주게. 배로 영 허고 꼴렝이로 영 헌디 허영 저 허는디 짐 시끌 때에, 시끌 때에 이처록 헌 디 공젱이가 잇어. 그 질메에. 경허민 이디 두어 못 놩 그걸 확 뎅경 시껑 또 헤 뒁 또 이짝 시끄고 이짝 시끄곡 허멍 짐을 시끄주게.(길마, 길마에 다 등 묶지. 배로 이렇게 하고 꼬리로 이렇게 하는데 해서 저 하는데 짐 실을 때에, 실을 때에 이처럼 한 데 갈고리가 있어. 그 길마에. 그럼 여기 두어 뭇 놔서 그걸 확 당겨서 실어서 또 해 두고 또 이쪽 싣고 이쪽 싣고 하면서 짐을 싣지.)

77) '쉣베'는 마소의 짐을 실을 때 동여매는 굵직하고 기다란 참바를 말한다.

104007 @ 짐을 시끄는 거라예, 예. 그 밧 갈젠 허민 밧 갈젠 허민 써난 거, 뭐 씁니까?(짐을 싣는 거지요, 예. 그 밭 갈려고 하면 썼던 거, 뭐 씁니까?)

104006 #1 쟁기.(쟁기.)

104006 @ 쟁기. 쟁기헐 때 쉐는 여기 뭐 먹지 말렌 씌우잖아예.(쟁기. 쟁기할 때 소는 여기 뭐 먹지 말라고 씌우잖아요.)

104006 #1 어, 망울.(어, 부리망.)

104009 @ 망울도 씌우고예. 여기서 밧 갈 때는 여름에는 여기 데려왕 질룹니까? 아니면 저 목장에도 보내낫수과?(부리망도 씌우고요. 여기서 밭 갈 때는 여름에는 여기 데려와서 기릅니까? 아니면 저 목장에도 보냈었습니까?)

104009 #1 저 목장에 이딘 목장에 흔엇이 보내는 사름이 엇엇주기게.(저 목장에 여긴 목장에 한없이 보내는 사람이 없었지.)

104009 @ 여름에?(여름에?)

104009 #1 여름에도 이디선 질루왕 이디. 물 거튼 거 다 우터레 우리 하르방넨 엿날 부제, 허난 우터레 쿰 줭, 삯 줭. 경허영 목장에 허엿당.(여름에도 여기선 길러서 여기. 말 같은 거 다 위로 우리 할아버지네는 옛날 부자, 그러니까 위로 품 줘서, 삯 줘서. 그래서 목장에 했다가.)

104009 @ 삯은 누구안테 주는 거라?(삯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104009 #1 허여 주는, 봐 주는 사름.(해 주는, 봐 주는 사람.)

104009 @ 아, 그냥 돌봐 주는 사람?(아, 그냥 돌봐 주는 사람?)

104009 #1 으, 돌봐 주는 사름.(으, 돌봐 주는 사람.)

104009 @ 거기에 삯을 주는 거?(거기에 삯을 주는 거?)

104009 #1 삯 줫단에 쓰게 뒈민 와난디. 쉐 하나썩 헌 사름덜은 그냥 집이서 으름에 낮전이 어디 강. 전이 거트민 이제 쉐 먹영 들어올 거여, 흔 열 시 뒈 가민. 아칙이 일찍 강. 경허여근에 저 어디 우린 바닷가 펜에 사난 바닷가 에염에도 강 메고 베꼇디 쉐 막엔 으름에 더웡 못 메주게. 영헌 더레도 베꼇디.(삯 줬다가 쓰게 되면 왔었는데. 소 하나씩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여름에 낮전에 어디 가서. 전에 같으면 이제 소 먹여서 들어올 거야, 한 열 시 돼 가면. 아침에 일찍 가서. 그래서 저 어디 우린 바닷가 편에 사니까 바닷가 옆에도 가서 매고 밖에 외양간엔 여름에 더워서 못 매지. 이런 데에도 밖에.)

104009 @ 그럼 신창은 목장이 엇어낫수과, 동네 목장이?(그럼 신창은 목장이 없었습니까, 동네 목장이?)

104009 #1 목장이 어디 시니? 담 동글랑동글락헌 밧덜 벌어 먹을 거베낀 엇인디. 저 당물[78]러레 강 올린다. 그렌 곶자왈러레.(목장이 어디 있니? 담 동글동글한 밭들 먹을 거밖에 없는데. 저 '당물'로 가서 올린다. 그런 곶자왈로.)

104009 @ 아, 곶자왈러레.(아, 곶자왈로.)

104009 #1 어, 저 김녕[79]더레 목장에 올리듯이. 저 당물 저지레나베끼 경 널른 디

78) '당물'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의 지명이다.

엇주게.(어, 저 김녕으로 목장에 올리듯이. 저 '당물' 저지로나밖에 그렇게 넓은 데 없지.)

104009 @ 경 밧갈쉐 올릴 디 엇엉 여름에도 여기?(그렇게 '밧갈쉐' 올릴 데 없어서 여름에도 여기?)

104009 #1 으, 여기 헌다게.(으, 여기 한다.)

104009 @ 게난 삼춘도 쉐 질르멍 영 물 멕이레도 가고 쉐 멕이레도 가고 헷수과?(그러니까 삼촌도 소 기르면서 이렇게 물 먹이러도 가고 소 먹이러도 가고 했습니까?)

104009 #1 아이고, 물 멕이레 어린 때부터 쉐 멕영 오고 방학허민 아이고. 방에 져나민 강 내물아 뒁 오고. 이 ᄆᆞ을 베껏더레 내물아덩 오민 어드레 쉐 그땐 담덜 다고 허난. 경헤 감시민 ᄌᆞ물아 가민 또 춪으레 가고.(아이고, 물 먹이러 어린 때부터 소 먹여서 오고 방학하면 아이고. 방아 찧고 나면 가서 내몰아 두고 오고. 이 마을 바깥으로 내몰아두고 오면 어디 소 그땐 담들 쌓고 하니까. 그래 가면 저물어 가면 또 찾으러 가고.)

104009 @ 으. 게민 어디 강 밧디 강 담앙 놔두는 거 쉐를?(으. 그럼 어디 가서 밭에 가서 담아서 놔두는 거 소를?)

104009 #1 저 궤염질[80]러레 놔두민 질레에 것도 튿어 먹고 경허당.(저 '궤염질'로 놔두면 길에 것도 뜯어 먹고 그러다가.)

104009 @ 도망가 불지 안헙니까?(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104009 #1 경 멀리 도망은 아이 가.(그렇게 멀리 도망은 안 가.)

104009 @ 안 가? 무꺼 두지 안헤도?(안 가? 묶어 두지 않아도?)

104009 #1 응. 경허영 어디 강 춪아오주기게. 쉐덜끼리 허난게. 내물앙 내불민 ᄋᆞ름엔 쉐들끼리 선선헌 디도 강 사곡게. 쉐도 더운난 어디 둘아나느냐. 이디서 헤나난 어디 웨방더레 이디서 낭 이디서 헌 쉔 어디레 가지 안허여, 엿날.(응. 그래서 어디 가서 찾아오지. 소들끼리 하니까. 내몰아서 내버리면 여름엔 소들끼리 선선한 데도 가서 서고. 소도 더우니까 어디 달아나니. 여기서 했었으니까 어디 외방으로 여기서 나서 여기서 한 소는 어디로 가지 않아, 옛날.)

104009 @ 게난 쉐도 집을 알아 가지고 그 근처만 잇어낫구나. 게난 삼춘도 학교 다녀낫수과?(그러니까 소도 집을 알아 가지고 그 근처만 있었구나. 그러니까 삼촌도 학교 다녔습니까?)

104009 #1 우리 국민학교 뎅겻주게.(우리 국민학교 다녔지.)

104009 @ 방학헐 때 쉐 멕이레 다니고?(방학할 때 소 먹이러 다니고?)

104009 #1 일헐 때 ᄉᆞ못 결석허연, 우리 어멍네 부제난 결석허연 허민 난 ᄉᆞ못 놉 빌엉 제기 안 허영 날 빌엉 헴젠 허멍 막 앙작헤낫주게.(일할 때 사뭇 결석했어. 우리 어머니네 부자니까 결석해서 하면 난 사뭇 놉 빌려서 재게 안 하고 날 빌려서 한다고 하면서 마구 앙탈했었지.)

---

79) '김녕'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를 말한다.

80) '궤염질'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의 지명이다.

말 기르기

104011 @ 하하. 물은 어떵 질뤄낫수과, 물은?(하하. 말은 어떻게 길렀었습니까, 말은?)

104011 #1 물은 웃드리[81] 우리 하르방네. 물은 이디서 못 질룬다. 대개 물 신 사름덜은 목장더레 올리주.(말은 '웃드리' 우리 할아버니제. 말은 여기서 못 기른다. 대개 말 있는 사람들은 목장으로 올리지.)

104011 @ 목장더레 올렷던 거.(목장으로 올렸던 거.)

104011 #1 으름 내낭 조 불려 나민 뭣 헐 것이 엇주게 이디. 짐 시껑 ᄀᆞ슬 들민 또 걸름이나 시끄젠 허민 허주. 경허난 목장에 올려.(여름 내내 조 밟고 나면 뭐 할 것이 없지, 여기. 짐 실어서 가을 들면 또 거름이나 실으려고 하면 하지. 그러니까 목장에 올려.)

104011 @ 목장에 올려, 예. 쉐는 혼 몇 살까지 키웁니까, 쉐는?(목장에 올려, 예. 소는 한 몇 살까지 키웁니까, 소는?)

104011 #1 쉐는 늙어가민게 바꽝 돈 더 줭 넴겨 줘근에 바꽝 질루곡게.(소는 늙어가면 바꿔서 돈 더 줘서 넘겨 줘서 바꿔서 기르고.)

104011 @ 바꽝 길루고.(바꿔서 기르고.)

104011 #1 행실 나빠도 경허고.(행실 나빠도 그러하고.)

104011 @ 밧갈쉐로 하는 거니까 말 안 들어 가민 다른 쉐랑 바꽈 부는 거라?('밧갈쉐'로 하는 거니까 말 안 들어 가면 다른 소랑 바꿔 버리는 거야?)

104011 #1 으, 풀아 뒁 다른 쉐로 사고.(으, 팔아 두고 다른 소로 사고.)

104011 @ 게민 물은 어떵헙니까, 물은? 물도 막 오래 길뤄?(그럼 말은 어떠합니까, 말은? 말도 아주 오래 길러?)

104011 #1 우리 하르부지는 오래 질뤄라, 물은. 웃드리 올렷단게 건 벨로게 좋지 안 허여근에, 좋으나 궂이나 구별 안 허영 허는 거난. 밧 불리 때 허고 짐 시꺼 올 때만 허는 거난. 게난 목장에 올렷당 이녁 쓰게 뒈민 강 내리와당.(우리 할아버지는 오래 기르더라, 말은. '웃드리' 올렸다가 건 별로 좋지 안 해서, 좋으나 궂으나 구별 안 해서 하는 거니까. 밭 밟을 때 하고 짐 실어 올 때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장에 올렸다가 자기 쓰게 되면 가서 내려다가.)

104012 @ 내려당 허는 거. 물 종류에도 아까 쉐 종류처럼 털 색깔에 따라?(내려다가 하는 거. 말 종류에도 아까 소 종류처럼 털 색깔에 따라?)

104012 #1 벡물, 흰 건 벡물이엔 허고 우리 하르방넨 벡물 ᄒᆞ나 질루고. 등떼이 오그라진 것이 셔서 저 무신 거 모냥으로. 엿날 기탄가 무신 거추룩. 경허난 그건 곱새물[82]이렌 허고.(백마, 흰 건 백마라고 하고 우리 할아버지넨 백마 하나 기르고. 등 오그

81)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웃드르'라고도 한다.
82) '곱새물'은 등이 굽은 말을 말한다.

라진 것이 있어서 저 무슨 거 모양으로. 옛날 기타인가 무슨 거처럼. 그러니까 그런 '곱새ᄆᆞᆯ'이라고 하고.)

104012 @ 곱새ᄆᆞᆯ예, 예. 등 휘여진 거.('곱새ᄆᆞᆯ'요, 예. 등 휘어진 거.)

104012 #1 으, 곱새ᄆᆞᆯ이엔 허고 경허멍 질루난 몰르켜.(으, '곱새ᄆᆞᆯ'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기르니까 모르겠어.)

104012 @ 벡ᄆᆞᆯ, 곱새ᄆᆞᆯ.(백마, '곱새ᄆᆞᆯ'.)

104012 #1 으.(으.)

104012 @ 청총마 그런 말 들어봣수과?(청총마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104012 #1 그런 말 난 못 들어보고.(그런 말 난 못 들어보고.)

104013 @ 못 들어보고예. ᄆᆞᆯ은 뭐 헐 때 써신고예?(못 들어보고요. 말은 뭐 할 때 썼나요?)

104013 #1 조 허젠 허민 밧 ᄇᆞᆯ리젠 허민 몰아오곡게. 겨울, 저 시월 낭 걸름 시끄젠 허민 몰아오고 경허주. 보리 이제 봄이 보리 비영 보리 시꺼 오젠 헤도 보리 시껏당 홀탕 ᄇᆞᆯ리젠 헤도 강 몰아오고.(조 하려고 하면 밭 밟으려고 하면 몰아오지. 겨울 저 시월 돼서 거름 실으려고 하면 몰아오고 그러지. 보리 이제 봄에 보리 베어서 보리 실어 오려고 해도 보리 실어다가 홅아서 밟으려고 해도 가서 몰아오고.)

104013 @ ᄇᆞᆯ릴 때도 ᄆᆞᆯ 헙니까?(밟을 때도 말 합니까?)

104013 #1 아고, 고고리 엿날 도께 테작 버치난 발로 ᄇᆞᆯ로와나서, ᄆᆞᆯ로. 나도 경헤난 거 알아져. ᄆᆞᆯ똥 쉐똥 싸민 줏으렌 허곡 고고리레 싸민.(아고, 이삭 옛날 도리깨 타작 힘에 부치니까 발로 밟았었어, 말로. 나도 그랬던 거 알 수 있어. 말똥 소똥 싸면 주우라고 하고 이삭에 싸면.)

104013 @ 아. 게난 홀타난 다음에 ᄇᆞᆯ리는 거 보리를. 그때도 ᄆᆞᆯ로 ᄇᆞᆯ랏구나.(아. 그러니까 홅아난 다음에 밟는 거 보리를. 그때도 말로 밟았구나.)

104013 #1 음. 그 작산 걸 어떵 도께 타작을 허느니. 우리 하르방네 하난산디 경헤라. 경허영 엿날 할망덜은 보리 홀트멍 홀텅 데껴 불민 보릿낭에 고고리 싯지 안허느냐게.(음. 그 많은 걸 어떻게 도리깨 타작을 하니. 우리 할아버지네 많아서인지 그러더라.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보리 홅으면서 홅아서 던져 버리면 보릿짚에 이삭 있지 않니.)

104013 @ 으.(으.)

104013 #1 경허민 할망덜은 그거게 놉 하나 빌엉 그디 줏읍센 허민 우리 하르방은 ᄉᆞ못 그거 일당 아니 난다 허멍 확 안아 눌더레 들이쳐 불고. 경헤난 거 알아진다.(그러면 할머니들을 그거 놉 하나 빌려서 거기 주우라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사뭇 그거 일당 안 나온다 하면서 확 안아서 가리로 들어뜨려 버리고. 그랬던 거 알아.)

104013 @ 다 안 털어지난 그거 톧는다고.(다 안 털어지니까 그거 뜯는다고.)

104013 #1 그거 톧앗자 일쿰베끼 아이 나온덴. 일쿰 허느니 확 제쳥 데껴 불주.(그거 뜯어도 품삯밖에 안 나온다고. 품삯 하느니 확 젖혀서 던져 버리지.)

104014 @ 하하하. 그럼 말도 나이가 이실 건디.(하하하. 그럼 말도 나이가 있을 건데.)

104014 #1 말도 나이가 싯젠 허여.(말도 나이가 있다고 해.)
104014 @ 그럼 그거 불러난 이름 알아지쿠과?(그럼 그거 불렀던 이름 알겠습니까?)
104014 #1 몰라, 몰라.(몰라, 몰라.)

먹이

104016 @ 몰라예. 기민 쉐 질루고 물 질루젠 허민 먹이를 헤살 거 아니?(몰라요. 그럼 소 기르고 말 기르려고 하면 먹이를 해야 할 거 아니?)
104016 #1 먹인게 나 ᄆᆞ녀 안 골아냐. 새꼴.(먹이는 내가 먼저 안 말했니. 쇠꼴)
104016 @ 새꼴.(쇠꼴.)
104016 #1 조찝.(조짚.)
104016 @ 조찝.(조짚.)
104016 #1 저 감제 줄, 산디찍. 그건 주로게 쉐 멕이주게.(저 고구마 줄, 밭볏짚. 그건 주로 소 먹이지.)
104016 @ 게난 새꼴 여기 새꼴 뭐렌 부릅니까? 촐이렌 부를 거 아니?(그러니까 쇠꼴 여기 쇠꼴 뭐라고 부릅니까? 꼴이라고 부를 거 아니?)
104016 #1 새꼴이엔 헌다게.(쇠꼴이라고 해.)
104016 @ 여기 그냥 새꼴이렌 헤?(여기 그냥 쇠꼴이라고 해?)
104016 #1 으.(으.)
104016 @ 촐이엔 안 불러?(꼴이라고 안 불러?)
104017 #1 촐이민 다 촐이난게. 게민 새꼴 비레 감젠 허고. 이때 뒈민 새꼴덜 다 비느네.(꼴이면 다 꼴이니까. 그럼 쇠꼴 베러 간다고 하고. 이때 되면 쇠꼴들 다 베어.)
104017 @ 아, 이제 새꼴 빌 때예.(아, 이제 쇠꼴 벨 때요.)
104017 #1 성허게덜 물류왕 ᄉᆞ못 제기 비엉 마 아이 친 때 허젠.(성하게들 말려서 사뭇 재게 베어서 장마 안 칠 때 하려고.)
104017 @ 예. 장만허는 거 골아 줍서. 새꼴. 지금 비어 가지고?(에. 장만하는 거 말해 주세요. 쇠꼴. 지금 베어 가지고?)
104017 #1 지금 비영 메칠만 허민 다 무꺼당 눌주기게.(지금 베어서 며칠만 하면 다 묶어다가 가리지.)
104017 @ 밧디 눌어?(밭에 가려?)
104017 #1 집이 허여당게. 쉐 질루젠 허민 매 시간에 ᄒᆞ루에 멧 번 빠당 줘살 거 아니가? 어내멍 새꼴 줘 나민 조칩 주고 조칩 줘 나민.(집에 해다가. 소 기르려고 하면 매 시간에 하루에 몇 번 빼다가 줘야 할 거 아니니? '어내면서' 쇠꼴 주고 나면 조짚 주고 조짚 주고 나면.)
104016 @ 막 번갈아 가멍 주는구나.(마구 번갈아 가면서 주는구나.)
104016 #1 으.(으.)
104016 @ 조칩 줘 나민 콩찝 주고?(조짚 주고 나면 콩짚 주고?)

104016 #1 어. 경헌디 우리 말쩨엔 따시 그 통, 쉐 술지왕 술 통으로 풀젠은 허민 그 다 작두로 촐 썰어, 보리 골아난 등게 ᄀᆞ루 허끄멍 경혜영 멕이고 경허여낫주.(어. 그런데 우리 말째에는 다시 그 통, 소 살찌워서 살 통으로 팔려고 하면 그 다 작도로 꼴 썰어, 보리 갈았던 등겨 가루 섞으면서 그래서 먹이고 그랬었어.)

104018 @ 촐 비젠 허민 어떵 놉을 빌엉 갈 것과, 집이 사름덜만 헐 것과?(꼴 베려고 하면 어떻게 놉을 빌려서 갈 겁니까, 집의 사람들만 할 겁니까?)

104018 #1 놉도 빌엉 가는 사름 싯고 집잇 사름만도.(놉도 빌려서 가는 사람 있고 집의 사람만도.)

104018 @ 게민 촐은 뭐로 비여?(그럼 꼴은 뭐로 베어?)

104018 #1 호미게.(낫.)

104018 @ 다 일일이 영 손으로 잡앙?(다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104018 #1 으, 손 잡앙 이걸, 새꼴은 영도 아니 잡앙 이걸 땅 부쳥 가끄젠 허민 잘 익숙지 않은 사름은 못 허여. 이 헤밀헤밀헌 것사 얼마나 허느니. 게난 낫 허영 땅 부치멍 비영.(으, 손 잡아서 이걸, 쇠꼴은 이렇게도 안 잡아서 이걸 땅 붙여서 깎으려고 하면 잘 익숙지 않은 사람은 못 해. 이 '헤밀헤밀한' 거야 얼마나 하니. 그러니까 낫 해서 땅 붙이면 베어서.)

104018 @ 긁어내듯이.(긁어내듯이.)

104018 #1 ᄆᆞᆯ류와.(말려서.)

104018 @ ᄆᆞᆯ류와. 게민 영 손으로 비영 뒤에 ᄎᆞᄎᆞᄎᆞᄎᆞ 놓민 뒈는 거라?(말려서. 그럼 이렇게 손으로 베어서 뒤에 차차차차 놓으면 되는 거야?)

104018 #1 으. 크찡허게.(으. 가지런하게.)

104018 @ 게민 무끄야 뒐 거잖아예?(그럼 묶어야 될 거잖아요?)

104018 #1 으, 무끄주게.(으, 묶지.)

104018 @ 메칠이나 영 ᄆᆞᆯ렷당 무끕니까?(며칠이나 이렇게 말렸다가 묶습니까?)

104018 #1 혼 사나나흘게. 사나나흘이민 이때에 막 ᄆᆞᆯ르주기게.(한 사나흘. 사나흘이면 이때에 잘 마르지.)

104018 @ 아. 게민 무끄젠 허민 께를 미리 준비헙니까?(아. 그럼 묶으려고 하면 매끼를 미리 준비합니까?)

104018 #1 어게. 미릇 다 준비허여.(어. 미리 다 준비해.)

104018 @ 뭐로?(뭐로?)

104018 #1 그 연헌 새도 비여당 허고 이제 저 찍도 허여당 허여.(그 연한 띠도 베어다가 하고 이제 저 짚도 해다가 해.)

104018 @ 찍도 비여당.(짚도 베어다가.)

104018 #1 경헌디 새, 새꼴은 새 연헌 거 비여당.(그런데 띠, 쇠꼴은 띠 연한 거 베어다가.)

104018 @ 미릇, 미릇.(미리, 미리.)

104018 #1 미릇 다 영 허여근에.(미리 다 이렇게 해서.)

104018 @ 놔두는구나.(놔두는구나.)

104018 #1 놔두진 안헤도 그때 그때게. 즈물앙 강 낮후제 무끄젠 허민 낮전만 데와도게 하영 데우주게.(놔두진 않아도 그때 그때. 저물어 가서 낮후에 묶으려고 하면 낮전만 틀어도 많이 틀지.)

104018 @ 그럼 여기서는 촐 영 헌 건 지께[83]로는 안 무끕니까? 그 촐 가졍 영 영 영 만들엉?(그럼 여기서는 꼴 이렇게 한 건 '지께'로는 안 묶습니까? 그 꼴 가져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104018 #1 촐이 경 질어게? 새꼴은 다글다글 허주게.(꼴이 그렇게 길어? 쇠꼴은 '다글다글' 하지.)

104018 @ 아. 촐 짧아부난 게난 새 비여당.(아. 꼴 짧아서 그러니까 띠 베어다가.)

104018 #1 으, 연헌 새.(으, 연한 띠.)

104018 @ 미릇 만들엉예?(미리 만들어서요?)

104018 #1 으.(으.)

104018 @ 촐 혼 단이, 혼 묶음이 어느 정도 헙니까?(꼴 한 단이, 한 묶음이 어느 정도 합니까?)

104018 #1 요만이.(요만큼.)

104018 @ 그럼 혼 바리민 촐은 몇 묶음 정도 헙니까?(그럼 한 바리면 꼴은 몇 묶음 정도 합니까?)

104018 #1 시끄젠 허민 하영 시끄질 못허여. 몽탕몽탕허연.(실으려고 하면 많이 싣지 못해. 몽탕몽탕해서.)

104018 @ 몇 뭇이나 시꺼졈신고예?(몇 뭇이나 실을 수 있나요?)

104018 #1 혼 설남은[84] 뭇 시꺼졈신가?(한 '설남은' 뭇 실을 수 있나?)

104018 @ 설남은 뭇?('설남은' 뭇?)

104018 #1 혼짝에 혼 열댓 개썩.(한쪽에 한 열댓 개씩.)

104018 @ 열댓 개씩 양펜이?(열댓 개씩 양편에?)

104018 #1 으.(으.)

104018 @ 거기서 비영 무껑 영 모다 놧당.(거기서 베어서 묶어서 이렇게 모아 놨다가.)

104018 #1 으, 다 혼 바리, 혼 바리 다 안아 놓느네.(으, 다 한 바리, 한 바리 다 안아 놓아.)

104018 @ 아, 혼 바리씩.(아, 한 바리씩.)

104018 #1 이짝 시끌 걸 이짝더레 저짝 시끌 건 저짝더레 허영 이 가운더레 쉐나 물이나 놩 이젠 이디서 쉐 심으렌 헨 이디서 둘이 싯주기게.(이쪽 실을 걸 이쪽으로 저쪽 실을 건 저쪽으로 해서 이 가운데로 소나 말이나 놔서 이젠 여기서 소 잡으라고 해서 여기서 둘이 있지.)

---

83) '지께'는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그 곡식의 줄기를 꼬아 묶는 매끼를 말한다.

84) '설남은'은 서른이 조금 넘는 수를 말한다.

104018 @ 아, 가운데 놩?(아, 가운데 놔서?)

104018 #1 어, 이디 사름은 이디 거 시끄고 그디 사름은 그디 거 허고 경허주.(어, 여기 사람은 여기 거 싣고 거기 사람은 거기 거 하고 그러지.)

104018 @ 아. 시끌 만씩 딱 딱 모드락 모드락헹 놔뒁당?(아. 실을 만큼씩 딱 딱 모도록 모도록해서 놔뒀다가?)

104018 #1 으, 다 바리 벌이느네.(으, 다 바리 벌여.)

104018 @ 바리 벌여예?(바리 벌여요?)

104018 #1 으.(으.)

104018 @ 아, 그걸 바리 벌인덴 헙니까?(아, 그걸 바리 벌인다고 합니까?)

104018 #1 으, 바리 벌이라 헌다.(으, 바리 벌이라고 한다.)

104018 @ 어쨌든 이쪽에 열다섯 뭇 정도 허큰게.(어쨌든 이쪽에 열다섯 뭇 정도 하겠네.)

104018 #1 게난 양쪽을 골롸사 짐도 시끄민 ᄐᆞ라지지 안허난 딱 ᄒᆞᆫ쪽에 멧 뭇 허영 딱 바리 벌영.(그러니까 양쪽을 골라야 짐도 실으면 삐뚤어지지 않으니까 딱 한쪽에 몇 뭇 해서 딱 바리 벌여서.)

104019 @ 게민 이젠 영 쉐 헹 집이 시꺼왓수다. 집이 시꺼 왕 어떵 헐 거?(그럼 이젠 이렇게 소 해서 집에 실어왔습니다. 집에 실어 와서 어떻게 할 거?)

104019 #1 그거 풀엉 이젠 놔 낭 거 다 시꺼오민 눌 눌주기게.(그거 풀어서 이제 놔 놓고 거 다 실어오면 가리 가리지.)

104019 @ 음.(음.)

104019 #1 벵허게 조근조근 가운더레도 노멍게 멜싸지지 안허게 헤영 ᄂᆞ람쥐 더껑 주젱이 씌웡.(뱅하게 차곡차곡 가운데로도 놓으면서 찌그러지지 않게 해서 이엉 덮어서 주저리 씌워서.)

104019 @ 게민 ᄂᆞ람쥐도 미리 다 만들앙 놔두는 거?(그럼 이엉도 미리 다 만들어서 놔두는 거?)

104019 #1 게게. 줄 다 영 허영 지둘르는 줄 허여 놩 그 줄 허영 촐러레 낭께기 영 허영 줄.(그래. 줄 다 이렇게 해서 지지르는 줄 해서 놔서 그 줄 해서 꼴에 나뭇가지 이렇게 해서 줄.)

104019 @ 그럼 이디는 촐 눌을 동글랑허게 만듭니까?(그럼 여기는 꼴 가리를 동그랗게 만듭니까?)

104019 #1 으, 동글랑허게덜 멘들아. 곱게덜 헌다.(으, 동그랗게 만들어. 곱게들 한다.)

104019 @ 아. 경헨 쭉 ᄂᆞ람쥐 허는 거라?(아. 그래서 쭉 이엉 하는 거야?)

104019 #1 으, 경헨 주젱이 더펑 이젠, 거 집도 일지 안허느냐?(으, 그래서 주저리 덮어서 이젠, 거 집도 이지 않니?)

104019 @ 예.(예.)

104019 #1 그 줄로 ᄒᆞᆫ ᄋᆞ섯 밧디민 ᄋᆞ섯 밧디 그걸로 벌경 그 영 동글락 헌디 영

오민 그레 낭가질 놓난 뭐 지둘라사주게. 돌멩이 털어지고.(그 줄로 한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 그걸로 벌여서 그 이렇게 동그란 데 이렇게 오면 그리 나뭇가지 놓거나 뭐 지질러야지. 돌멩이 떨어지고.)

104019 @ 경헨 놔두는 거. 경헨 눌 눌엉 놔두고 새꼴을.(그래서 놔두는 거. 그래서 가리 가려서 놔두고 쇠꼴을.)

104019 #1 새꼴이고 조칙이고 다 경헌다.(쇠꼴이고 조짚이고 다 그런다.)

104019 @ 다 동글랑허게.(다 동그랗게.)

104019 #1 어, 서껑 놓는 사름 싯고 이제 질로지썩 놓는 사름 싯고.(어, 섞어 놓는 사람 있고 이제 제각각 놓는 사람 있고.)

104019 @ 아, 그것도 서껑 누는 사름이 잇어?(아, 그것도 섞어서 가리는 사람이 있어?)

104019 #1 서껑 눈다게.(섞어서 가려.)

104018 @ 게민 꼴 베젠 허민 으라 날 빕니까?(그럼 꼴 베려고 하면 여러 날 벱니까?)

104018 #1 촐 한 사람은 으라 날 비고게, 밧 조그마한 사람은 이녁 것만썩 비민 얼마 안 허고.(꼴 많은 사람은 여러 날 베고, 밭 자그마한 사람은 자기 것만큼씩 베면 얼만 안 하고.)

104018 @ 삼춘네는 쉐를 혼 마리 길른 거잖아예?(삼촌네는 소를 한 마리 기른 거잖아요?)

104018 #1 으, 우린 딱 혼 마리 질루고 우리 아바지넨 물 질룅 우터레 올려. 올려불민.(으, 우린 딱 한 마리 기르고 우리 아버지넨 말 길러서 위로 올려. 올려 버리면.)

104018 @ 예, 그 쉐 혼 마리 질룰 때 그 촐은 한 몇 바리 정도 멕여집데가. 그 겨울 나젠 허민?(예, 그 소 한 마리 기를 때 그 꼴은 한 몇 바리 정도 먹입니까? 그 겨울 나려고 하면?)

104018 #1 겨울 나젠 허민 우리 아바지넨 막 촐을 하영 헤단 놓주게. 멧 바리가 아니고.(겨울 나려고 하면 우리 아버니넨 아주 꼴을 많이 해다가 놓지. 몇 바리가 아니고.)

104018 @ 삼춘네는, 혼 마리 질룰 때는?(삼촌네는, 한 마리 기를 때는?)

104018 #1 혼 마리 질룰 때라도 촐은 넉넉히 하영 허여. 마꺼지 먹여 이 새 꼴 나도록.(한 마리 기를 때라도 꼴은 넉넉히 많이 해. 장마까지 먹여, 이 새 꼴 나도록.)

104018 @ 아, 겨울에 멕일 것만 허는 게 아니고 봄에도?(아, 겨울에 먹일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봄에도?)

104018 #1 어게 봄 나도록게 멕여사주게. 아무 거라도.(그래 봄 나도록 먹여야지. 아무 거라도.)

땔감

104022 @ 정확히 멧 바리 뒈는지는 잘 모르고. 이제는, 이제는 지들커 허는 거 물어

보쿠다. 지들커 허는 거.(정확히 몇 바리 되는지는 잘 모르고. 이제는, 이제는 땔감 하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땔감 하는 거.)

104022 #1 어, 지들커.(어, 땔감.)

104022 @ 지들커 헤난 거 종류 뭐 뭐 잇수과?(땔감 했던 거 종류 뭐 뭐 있습니까?)

104022 #1 지들커 헤난 건 ᄀᆞ실 기자 하늬ᄇᆞ름만 탁 털어졍 허민 솔썹 그느레. 걸멩이 들고 노 들렁 강 긁엉 막 멧 밧디 거 ᄉᆞ못 메우멍 헹 무꺼. 무꺼근에 졍 시꺼오고. 이제 이녁 소낭 밧 신 사름은 알거시려. 이 퍼렁헌 소낭 밑으로.(땔감 했던 건 가을 그저 하늬바람만 딱 떨어져서 하면 솔가리 그러모으러. 어레미 들고 노 들고 가서 긁어서 아주 몇 밭에 거 사뭇 메우면서 해서 묶어. 묶어서 져서 실어오고. 이제 자기 소나무 밭 있는 사람은 가지치기 해. 이 파란 소나무 밑으로.)

104022 @ 아, 소낭 가지를 영 자르는구나.(아,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자르는구나.)

104022 #1 으, 경허영 시꺼다근에 데며 뒷당 불 솜고.(으, 그렇게 실어다가 쌓아 뒀다가 불 때고.)

104022 @ 아.(아.)

104022 #1 거 엿날이사 이처록 쓰레토 무시거 헤사게. 다 초가집이엿주. 경허민 그 집 일어 낭 줄께[85], 줄께도 불 솜고 또 새가 너미 하영, 으라 해 헤영 집이 오래, 집은 이만이 지붕이 그신새[86]가 두껍주기게. 경허민 그거 더러 걷어.(거 옛날에야 이처럼 슬레이트 뭐 했니. 다 초가집이었지. 그러면 그 집 이고 나서 '줄께', '줄께'도 불 때고 또 띠가 너무 많이, 여러 해 해서 집이 오래, 집은 이만큼 지붕이 '그신새'가 '그신새'가 두껍지. 그러면 그거 더러 걷어.)

104022 @ 아래 거를?(아래 거를?)

104022 #1 아니 우이, 베꼇디로 조근조근. 경헨 골로와근에 새로 일어 경허영 그런 것도 지들케 허고.(아니 위, 밖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고르게 해서 새로 이어 그래서 그런 것도 땔감 하고.)

104022 @ 지들케 허고.(땔감 하고.)

104022 #1 집 튿어 부는 디 강 기신새 강 도왕 무꺼 오고. 경허난 집 튿을 땐 이녁만썩 강 무꺼오주게. 이녁 헐 거 이녁만썩.(집 뜯어 버리는 데 가서 '기신새' 가서 도와서 묶어 오고. 그러니까 집 뜯을 땐 자기만큼씩 가서 묶어와. 자기 할 거 자기만큼씩.)

104022 @ 게난 집 튿는 디 강 도와주멍 그걸 얻어 오는 거구나.(그러니까 집 뜯는 데 가서 도와주면서 그걸 얻어 오는 거구나.)

104022 #1 얻어 오는 거주.(얻어 오는 거지.)

104023 @ 기민 그거 말고, 기신새 말고, 솔입 말고 쉐똥 ᄆᆞᆯ똥도?(그럼 그거 말고, '기신새' 말고, 솔가리 말고 소똥 말똥도?)

104023 #1 쉐똥도 줏어당게 굴묵[87]도 짇고 불도 솜고 헷주기게.(소똥도 주워다가 '굴묵'도 때고 불도 때고 했지.)

---

85) '줄께'는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86) '그신새'는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87)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4023 @ 이 동네에서는 쉐똥 줏으레 어디 가낫수과?(이 동네에서는 소똥 주우러 어디 갔었습니까?)

104023 #1 요 저 거세기 마트 싯주게, 농협마트.(요 저 거시기 마트 있지, 농협마트.)

104023 @ 예.(예.)

104023 #1 그 우터레. 쉐 잘 뎅기는 더레. 그런 디 가근에 물른 걸로 허고 젖은 건 골겡이로 톡톡 데쌍 놔뒷다근에 줏어 오고.(그 위로. 소 잘 다니는 데에. 그런 데 가서 마른 걸로 하고 젖은 건 호미로 톡톡 뒤집어서 놔뒀다가 주워 오고.)

104023 @ 거기 뒈쌍 놔뒷당?(거기 뒤집어서 놔뒀다가?)

104023 #1 어.(어.)

104023 @ 누게 줏어 가 불지 안헙니까?(누가 주어 가 버리지 않습니까?)

104023 #1 아니, 젖은 때는 누게 가져가지 안허주게. 물를 만헤 가민 확 제기 강 허영.(아니. 젖은 때는 누가 가져가지 않지. 마를 만해 가면 확 재게 가서 해.)

104023 @ 쉐똥 물똥 줏은 거는 거의 굴묵 짇을 때 쓰는 거?(소똥 말똥 주운 거는 거의 '굴묵' 땔 때 쓰는 거?)

104023 #1 저 낭불[88]에 서껑 불로도 허고, 저 우린 똥 줏으렌 아이 뎅겨 봔. 견디 저 우린 ᄀᆞ시락 담아 놔뒷당게. 보리 허여난 ᄀᆞ시락 담앙 놔뒷당 그 ᄀᆞ시락으로 굴묵 짇엇주게.(저 '낭불'에 섞어서 불로도 하고, 저 우린 똥 주우러 안 다녀 봤어. 그런데 저 우린 까끄라기 담아 놔뒀다가. 보리 했던 까끄라기 담아서 놔뒀다가 그 까끄라기로 '굴묵' 땠지.)

104023 @ 아, ᄀᆞ시락으로. 겨난 쉐똥 말똥 줏으렌 많이 안 다녀낫구나?(아, 까끄라기로. 그러니까 소똥 말똥 주우러 많이 안 다녔었구나?)

104023 #1 으.(으.)

104023 @ 그 걸름허젠도 쉐똥 줏으레 간덴 헙디다만은?(그 거름하려고 소똥 주우러 간다고 합디다만?)

104023 #1 우린 쉐 질루고 허난.(우린 소 기르고 하니까.)

104023 @ 그런 건 안 허고.(그런 건 안 하고.)

104023 #1 쉐 질루민게 그 쉐 걸름도게 ᄉᆞ못. 통시레 담아 놩도 허느네 걸름을. 쉐 걸름 내영 데명 놔뒷당 밧디도 시껑 가고.(소 기르면 그 소 거름도 사뭇. 돼지우리에 담아 놔서도 해, 거름을. 소 거름 내서 쌓아 놔뒀다가 밭에도 실어 가고.)

104024 @ 아까 솔입 걷으레 가낫덴 헷잖아예?(아까 솔가리 그러모으러 갔었다고 했잖아요?)

104024 #1 으.(으.)

104024 @ 솔입 걷으레 갈 때 뭐 가졍 가낫수과?(솔가리 그러모으러 갈 때 뭐 가져서 갔었습니까?)

104024 #1 거 망아리[89], 찍으로 얽어진 큰 망아리에 노덜 가졍강, 글켕이 갖고 경헤

88) '낭불'은 나무로 때는 불을 말한다.

89) '망아리'는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아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을 말한다.

영 강 긁엉 노로 무껑 시꺼왓주게.(거 '망아리', 짚으로 얽은 큰 '망아리'에 노들 가져가서, 갈퀴 갖고 그렇게 가서 그러모아 노로 묶어서 실어왔지.)

104024 @ 음, 망아리 가지고 그 위이?(음. '망아리' 가지고 그 위에?)

104024 #1 아니, 망아린 강 언주아당 혼 밧더레 메웁는 거고. 집이 시꺼오는 거는 노 영 석 줄 영 영 석 줄 놓주게.(아니, '망아리'는 가서 그러모으다가 한 밭에 모으는 거고. 집에 실어오는 거는 노 이렇게 석 줄 이렇게 이렇게 석 줄 놓지.)

104024 @ 노?(노?)

104024 #1 으.(으.)

104024 @ 노는 영 줄 꼰 거 말허는 거?(노는 이렇게 줄 꼰 거 말하는 거?)

104024 #1 어. 경허영 이 솔썹을 크찡허게 영 질게 놔. 경허영 가운디 것부떠 무끄멍 양 바우 거 무끄멍 허영 글켕이로 막 잘 치멍 딱 허영 그걸 뭇으로 무꺼오주게. 혼 짐 헐 내기.(어. 그래서 이 솔가리를 가지런하게 이렇게 길게 놔. 그래서 가운데 것부터 묶으면서 양 끝에 거 묶으면서 해서 갈퀴로 마구 잘 치면서 딱 해서 그걸 뭇으로 묶어 오지. 한 짐 할 만큼.)

104024 @ 그럼 그렇게 묶은 거 여러 개 헹 혼 짐을 만드는 거라?(그럼 그렇게 묶은 거 여러 개 해서 한 짐을 만드는 거야?)

104024 #1 아니, 아니. 혼 짐 하나 허게 무꺼.(아니, 아니. 한 짐 하나 하게 묶어.)

104024 @ 그럼 크게.(그럼 크게.)

104024 #1 크게.(크게.)

104024 @ 예, 예. 그거 베로 졍 옵니까?(예, 예. 그거 바로 져서 옵니까?)

104024 #1 베로게.(바로.)

104024 @ 지겐 안 헤 보고?(지게는 안 해 보고?)

104024 #1 우린 이디 서촌[90]은 지게 안 헌다.(우린 여기 서촌은 지게 안 한다.)

104024 @ 지게 안 허영 베로 졍 오는 거. 그 솔입은 걷으레 가나신디 낭, 낭?(지게 안 하고 바로 져서 오는 거. 그 솔가리는 그러모으러 갔었는데 나무, 나무?)

104025 #1 고립낭[91]도 헤당 솜고 가시낭 거튼 거 비여. 호미, 나데[92]로 다 후령. 그런 거 허영 크게 두 뭇썩도 헹 져 와.('고립낭'도 해다가 때고 가시나무 같은 거 베. 낫, '나데'로 다 후려서. 그런 거 해서 크게 두 뭇씩 해서 져 와.)

104025 @ 음. 고립낭이렌 헷수과?(음. '고립낭'이라고 했습니까?)

104025 #1 고립낭.('고립낭'.)

104025 @ 그게 뭐과?(그게 뭡니까?)

104025 #1 그게 가시낭 거튼 거 헌 것ᄀᆞ라 '고립낭'이엔. 고리어근에 허여오난 '고립낭'이렌 헤라, 그때.(그게 가시나무 같은 거 헌 것보고 '고립낭'이라고. 고려서 해오니까 '고립낭'이라고 하더라, 그때.)

104025 @ 고리어 가지고 헤 오난.(고려 가지고 해 오니까.)

---

90) '서촌'은 서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여기서는 한경면 지역을 가리킨다.
91) '고립낭'은 죽어서 고린 나무를 가리킨다.
92) '나데'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연장을 말한다.

104025 #1 으, 가시낭덜.(으, 가시나무들.)

104025 @ 죽은 거 헤 온다는 말?(죽은 거 해 온다는 말?)

104025 #1 아니 아니. 산 거라도 끈엉 가시 헤영 크찡 크찡 것도 재영. 경허영 두어 뭇 헤영 져 오는 것ᄀᆞ라 고립낭이렌 헤라, 그때.(아니 아니. 산 거라도 끊어서 가시 해서 가지런히 가지런히 것도 재어서. 그래서 두어 뭇 해서 져 오는 것보고 '고립낭'이라고 하더라, 그때.)

104025 @ 고립낭. 아, 그런 걸 경 불러낫수과?('고립낭'. 아, 그런 걸 그렇게 불렀었습니까?)

104025 #1 으.(으.)

104025 @ 겨난 가장 많이 헷엇던 거 솔입 걷어와난 거우다. 그거랑 ᄀᆞ시락이랑 굴묵.(그러니까 가장 많이 했었던 거 솔가리 걷어왔던 겁니다. 그거랑 까끄라기랑 '굴묵'.)

104025 #1 굴묵 짇고.('굴묵' 때고.)

104025 @ 불 솜고 헷던 거예?(불 때고 했던 거요?)

104025 #1 으.(으.)

104026 @ 혹시 집이서 숫도 구워나고 헤신가?(혹시 집에서 숯도 구웠었고 했나요?)

104026 #1 아이고, 우린 숫 안 구워.(아이고, 우린 숯 안 구워.)

104026 @ 숫 안 구워 봔?(숯 안 구워 봤어?)

104026 #1 숫 사당 때긴 헤난.(숯 사다가 때긴 했었어.)

104026 @ 숫 굽는 거 보긴 헤낫수과?(숯 굽는 거 보긴 했었습니까?)

104026 #1 안 봐 봔.(안 봐 봤어.)

104026 @ 화로 불 피울 때는 사단 써난 거구나.(화로 불 피울 때는 사다가 썼던 거구나.)

104026 #1 어.(어.)

사냥

104028 @ 예, 예. 이 동네 사농 다니는 사름도 잇서나신가?(예, 예. 이 동네 사냥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104028 #1 어?(어?)

104029 @ 사농, 사농. 사냥. 꿩 잡으레.(사냥, 사냥. 꿩 잡으러.)

104029 #1 꿩 잡으레 엿날이사게 무신 꿩 잡으레 뎅기느니?(꿩 잡으러 옛날이야 무슨 꿩 잡으러 다니느니?)

104029 @ 먹을 거.(먹을 거.)

104029 #1 꿩 잡으레사게 중간에덜사 이제사게 허가 맡앙덜게 사냥 뎅기는 건 봣주게.(꿩 잡으러야 중간에야 이제야 허가 맡아서 사냥 다니는 건 봤지.)

104029 @ 어. 옛날에는 그런 거 엇언?(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

104029 #1 옛날에 그런 총 어떵 시니?(옛날에 그런 총 어떻게 있니?)

104029 @ 아니, 총 말고도 꿩코 놩 허고게.(아니, 총 말고도 '꿩코' 놔서 하고.)

104020 #1 꿩코[93] 놩, 꿩코 놩 허는 것도 난 못 보고. 우리 촐 그 옥궤기[94] 갈앙 쉐 멕이젠 옥궤기 갈민 꿩독새기 나고 허민 그 독새기 아까원에 심어난 건 알아져.(꿩코 놔서, 꿩코 놔서 하는 것도 난 못 보고. 우리 꼴 그 '옥궤기' 갈아서 소 먹이려고 '옥궤기' 갈면 꿩알 나고 하면 그 알 아까워서 잡았던 건 알아.)

104020 @ 하하하. 심어난 거. 근데 옥궤기가 뭐과?(하하하. 잡았던 거. 그런데 '옥궤기'가 뭡니까?)

104020 #1 어?(어?)

104020 @ 옥궤기?('옥궤기'?)

104020 #1 옥궤기.('옥궤기'.)

104020 @ 으, 아까 옥궤기 갈아낫덴 허멍.(으, 아까 '옥궤기' 갈았었다고 하면서.)

104020 #1 옥궤기렌 헌 풀이 싯주게.('옥궤기'라고 하는 풀이 있지.)

104020 @ 아, 풀?(아, 풀?)

104020 #1 으, 갈아 건 가는 거.(으, 갈아 건 가는 거.)

104020 @ 가는 거, 쉐 먹이젠?(가는 거, 소 먹이려고?)

104020 #1 쉐 멕이젠.(소 먹이려고.)

104020 @ 아, 쉐 멕이젠 풀 가는 거? 옥궤기?(아, 소 먹이려고 풀 가는 거? '옥궤기'?)

104020 #1 옥궤귀. 으름은 똑 콩 모냥으로 생기고 줄 막 벋으멍.('옥궤귀'. 열매는 꼭 콩 모양으로 생기고 줄 마구 벋으면서.)

104020 @ 아, 꿰처럼 길게 자라는 거?(아, 깨처럼 길게 자라는 거?)

104020 #1 아니, 영 줄 벋어.(아니, 이렇게 줄 벋어서.)

104020 @ 줄 벋엉.(줄 벋어서.)

104020 #1 이쁘게 저 보라색 꼿도 피고. 경허민 그 옥궤기 갈앗당 어디 촐 허레 못 가민 우리 아바지넨 그 옥궤기 갈앗단 그것 강 비어 오라 헹 쉐 멕이고.(이쁘게 저 보라색 꽃도 피고. 그러면 그 '옥궤기' 갈았다가 어디 꼴 하러 못 가면 우리 아버지네는 그 '옥궤기' 갈았다가 그것 가서 베어 와라 해서 소 먹이고.)

104020 @ 쉐 멕영 키웟던 거구나. 그럼 칙처럼 벋아 나가는 거?(소 먹어서 키웠던 거구나. 그럼 칡처럼 벋어 나가는 거?)

104020 #1 으. 칙철록은 경 벋지 안헤도 이디가 이만썩은 벋어.(으. 칡처럼은 경 벋지 않아도 여기가 이만큼씩은 벋어.)

104020 @ 아. 예, 예.(아. 예, 예.)

5. 바다일

93) '꿩코'는 '꿩코'는 꿩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말한다.

94) '옥궤기'는 쇠꼴의 한 종류다.

105001 @ 물질헤낫지예?(물질했었지요?)

105001 #1 으.(으.)

105001 @ 물질 막 하영 헤낫수과?(물질 아주 많이 했었습니까?)

105001 #1 무신게 흔 열 멧 설에부떠 배왓주게. 난 막 어린 때도 몸이 약허난 난 어머니ᄀᆞ라 난 물 실려우난. 그땐 고무옷도 엇인 때고게.(무슨 한 열 몇 살에부터 배웠지. 난 아주 어린 때도 몸이 약하니까 어머니보고 난 물 시리니까. 그땐 고무옷도 없는 때고.)

105001 @ 엇인 때고.(없는 때고.)

105001 #1 경허난 휨 베우라 헹 가민 속곳[95] 입곡 얼엉 영 영 영 영 테왁 들렁 사민 우리 어무니 물러레 자락 허게 밀어 비연.(그러니까 헤엄 배우라고 해서 가면 '속곳' 입고 추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테왁' 들고 서면 우리 어머니 물로 와락 하게 밀어 버렸어.)

105001 @ 아, 하하. 밀어 불언.(아, 하하. 밀어 버렸어.)

105001 #1 경허연 물질허영 허민 얼언 난 숨도 안 들고 휘민 누게 흔 숨 헤주민 나곡 헤여난디.(그렇게 물질해서 하면 추워서 난 숨도 안 들고 헤엄치면 누가 한 숨 해주면 나오고 했었는데.)

105001 @ 게난 어무니가 물질 갈 때 ᄀᆞ치 데령 간 거구나?(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질 갈 때 같이 데리고 간 거구나?)

105001 #1 아니 아니. 가멍 가멍 ᄃᆞᆯ앙 가민 출령 빠져 가민 우리 ᄀᆞ이 상 아이 빠지젠 헤 가민게 임제도 빠지멍 자락 휨 베우렌 허여낫주기게. 우리 어무닌 막 잘 헹 앞바당 물질헤낫주기게.(아니 아니. 가면서 가면서 데리고 가면 차려서 빠져 가면 우리 가에서서 안 빠지려고 해 가면 임자도 빠지면서 와락 헤염 배우라고 했었지. 우리 어머닌 아주 잘해서 앞바다 물질했었어.)

105001 @ 아. 상군이라신게.(아. '상군'이었네요.)

105001 #1 경헤난디 임제만이 물질헐 ᄯᆞᆯ 하나토 읏덴 허주게. 경헌디 저 거세기 물질을 허젠 허민 우리 어머니네 배 타, 배 탕 앞바당에 가근에 메역 ᄌᆞ물앙 오고, 지픈디 강.(그랬었는데 임자만큼 물질할 딸 하나도 없다고 하지. 그런데 저 거시기 물질을 하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네 배 타, 배 타서 앞바다에 가서 미역 캐서 오고, 깊은 데 가서.)

105001 @ 아.(아.)

105001 #1 견디 우린 ᄀᆞ이서만 헌디 난 막 어난 우이, 웃밧디[96]서 질 못 젼딘 일이라도, 뭔 일이라도 웃밧디서 일허주 난 물에 강 물질 안 허켄 헤낫주기게. 경허난디 다이딘 이젠 흔 열으덥 설만 나 가민 다 육지덜 가는 거라. 겨난 이젠 우리 어머니도 족은어머니네 물질 가가난 보내여라게. 경허난 나 첫 해에 저 구녕포[97]여 황개[98]여 간디

95)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광목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물소중이', '소중이', '소중기'라고도 한다.

96) '웃밧디'는 바다에 대립되는 들을 가리킨다. 바다가 아닌 들에서 하는 일을 말할 때 '웃밧디 일'이라고 한다.

오고팡 드러 울엇주게. 나 울멍.(그런데 우린 가에서만 하는데 난 아주 추우니까 위에, '웃밧디'에서 제일 못 견디는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웃밧디'에서 일하지 난 물에 가서 물질 안 하겠다고 했었지. 그랬었는데 다 여긴 이젠 한 열여덟 살만 되어 가면 다 육지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젠 우리 어머니도 작은어머니네 물질 가가니까 보내더라. 그러니까 나 첫 해에 저 구녕포며 황개며 갔는데 오고 싶어서 많이 울었지. 나 울면서.)

105001 @ 집이 오고팡. 한 번 물질 가민 거기 강 며칠이나 살아낫수과?(집에 오고 싶어서. 한 번 물질 가면 거기 가서 며칠이나 살았었습니까?)

105001 #1 메칠이 아니라 멧 덜 살 거주게.(며칠이 아니라 몇 달 살 거지.)

105001 @ 멧 덜 살 거?(몇 달 살 거?)

105001 #1 이월 덜에 가민게 혼 구월러레 음력 구월러레, 팔월러레 뒈도록 헤 왓주게.(이월 달에 가면 한 구월에 음력 구월에, 팔월에 되도록 해 왔지.)

105001 @ 게난 음력 이월에 강 음력 구월까지 거기서 살멍 물질을 헷던 거마씨?(그럼 음력 이월에 가서 음력 구월까지 거기서 살면서 물질을 했던 거요?)

105001 #1 제기 오는 사름은 팔월 멩질 ᄀᆞ리에 오고. 경허영 물질허연 나 혼 삼년가 왓주게.(재게 오는 사람은 팔월 명질 경에 오고. 그래서 물질해서 나 한 삼 년 갔다 왔지.)

105001 @ 아, 기구나. 그민 그때 ᄀᆞ치 갈 때.(아, 그렇구나. 그럼 그때 같이 갈 때.)

105001 #1 바닷배로 가. 이디 앞바당에 저 배 허영 그것에 쏠 시꺼 주난 그 쏠 갖고 헹 가낫주게.(바닷배로 가. 여기 앞바다에 저 배 해서 그것에 쌀 실어 주니까 그 쌀 갖고 해서 갔었지.)

105001 @ 그럼 물질 갈 때에 영 모집허는 사름이 있잖아예?(그럼 물질 갈 때 이렇게 모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05001 #1 어, 잇어.(어, 있어.)

105001 @ 배 주인이 모집허는 것과? 누게가 모집허는 것과?(배 주인이 모집하는 겁니까? 누가 모집하는 겁니까?)

105001 #1 아니 배 주인은 배를 빌어오고 이제 그 거세기 인솔자가 잇주게. 인솔자가 다 모집허영 그 사름이 배 빌고 허영 우리 시꺼가주게.(아니 배 주인은 배를 빌려오고 이제 그 거시기 인솔자가 있지. 인솔자가 다 모집해서 그 사람이 배 빌리고 해서 우리 실어가지.)

105001 @ 몇 사름이나 ᄀᆞ치 가낫수과, 거기 가게 뒈민?(몇 사람이나 같이 갔었습니까, 거기 가게 되면?)

105001 #1 가게 뒈민 인솔잔 하영 허민 더 거 구전 먹고 더 좋주게. 경허여도 혼 십 멧 명썩덜게.(가게 되면 인솔자는 많이 하면 더 거 구전 먹고 더 좋지. 그래도 한 십 몇 명씩들.)

105001 @ 십 멧 명썩?(십 몇 명씩?)

---

97) '구녕포'는 경상북도 포항시의 구룡포를 말한다.
98) '황개'는 지명이다.

105001 #1 어.(어.)

105001 @ ᄀᆞ치 강 쏠덜 다 졍 가시큰게?(같이 가서 쌀들 다 져서 갔었겠네?)

105001 #1 다. 다 흔 포대썩 먹을 것덜.(다. 다 한 포대씩 먹을 것들.)

105001 @ 먹을 것덜예. 그디 강 ᄀᆞ치.(먹을 것들요. 거기 가서 같이.)

105001 #1 그디 강 ᄀᆞ치 다 쏠 뒈영 내영놔. 경 먹어 둥.(거기 가서 같이 다 쌀 돼서 내놓아. 그렇게 먹어 두고.)

105001 @ 뒈영 똑같이 내는 거?(돼서 똑같이 내는 거?)

105001 #1 어. 똑ᄀᆞ치 내놔사주.(어. 똑같이 내놔야지.)

105001 @ 겐 뭐 뭐 잡아낫수과?(그래서 뭐 뭐 잡았었습니까?)

105001 #1 도박[99] 같은 거.('도박' 같은 거.)

105001 @ 도박이 뭐라.('도박'이 뭐야.)

105001 #1 도박게. 우밋가사리보단 훠썰 넙직넙직허영. 그 도박에 우미가사리 허고 전복 허고 미역 허고 경헷주게.('도박'. 우뭇가사리보다 훨씬 넓적넓적해서. 그 '도박'에 우뭇가사리 하고 전복 하고 미역 하고 그랬었지.)

105001 @ 거기 강 살 때 튼내 보민, 아침인 몇 시쯤에 일어낭?(거기 가서 살 때 생각해 보면, 아침에는 몇 시쯤에 일어나서?)

105001 #1 아칙이 이디서철록 일어낭 물 질어 오는 사름, 조반허는 사름 허영.(아침에 여기서처럼 일어나서 물 길어 오는 사람, 조반하는 사람 해서.)

105001 @ 당번 정헹 헷구나.(당번 정해서 했구나.)

105001 #1 아이, 젊은 사름덜 대개 헤주기게. 나이 든 사름 경 헤지느냐. 경헹 먹어정 물에질 가는 거주.(아니, 젊은 사람들 대개 하지. 나이 든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래서 먹고 물질 가는 거지.)

105001 @ 물질 몇 시부터 가는 거라, 게민?(물질 몇 시부터 가는 거야, 그럼?)

105001 #1 물질은 저 싸곡 들곡 일정 흔엇이 안 허난 경 인칙도 안 허고게. 바다가 우린 업 삼앙 가는 거난 경헨 출령 가근에.(물질은 저 써고 밀고 일정 한없이 안 하니까 그렇게 일찍도 안 하고. 바다가 우린 업 삼아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차려서 가서.)

105001 @ 경헨 하루에 몇 시간 일허고 헤난 거는 알아지쿠과?(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했던 거는 알겠습니까?)

105001 #1 그때는 고무옷 안 입어 비난 두어 시간베끼 못 살아. 이제는 네 시간썩 살아도 엿날은 두어 시간.(그때는 고무옷 안 입어 버리니까 두어 시간밖에 못 살아. 이제는 네 시간씩 살아도 옛날은 두어 시간.)

105001 @ 여기서는 물질 가젠 허민 출구덕에 불 숨을 것도 가졍 가고.(여기서는 물질 가려고 하면 '출구덕'에 불 땔 것도 가져서 가고.)

105001 #1 어게, 지들케 가졍 가주게.(그래, 땔감 가지고 가지.)

105001 @ 지들케 가졍 가고 헤낫잖아예. 그디서도 마찬가지?(땔감 가지고 가고 했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

99) '도박'은 해조류의 한 종류다.

105001 #1 그디서도게 그디 낭 거튼 거 배에서도 불 초고. 배에서도 불 초아.(거기서도 거기 나무 같은 거 배에서도 불 쬐고. 배에서도 불 쬐.)

105001 @ 배에서도?(배에서도?)

105001 #1 어.(어.)

105001 @ 그디서도 지들커 가졍 가신게예?(거기서도 '땔감' 가지고 갔네요?)

105001 #1 육지사 수못 지들커 하주게.(육지야 사뭇 땔감 많지.)

105001 @ 아, 기과? 게민 강 봉가지는 거 봉강 허고?(아, 그렇습니까? 그럼 가서 주워지는 거 주워서 하고?)

105001 #1 으. ᄀᆞ에 내령도게 불 추고 메역 허민 퍼덩 ᄀᆞ에 왕 허고.(으. 가에 내려서도 불 쬐고 미역 하면 퍼두고 가에 와서 하고.)

105001 @ 메역을 영 헹 왓잖아예. 게민 그걸 거기서 ᄆᆞᆯ립니까?(미역을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럼 그걸 거기서 말립니까?)

105001 #1 다 ᄆᆞᆯ리주기게. 오리 짓엉 질게.(다 말리지. 오리 지어서 길게.)

105001 @ 오리 짓엉 질게.(오리 지어서 길게.)

105001 #1 으, 으. 이딘 웨낭썹[100] 헤도 그딘 이 이 책 너베기만썩 두껍게 그레 부쩍 부쩍 허멍.(으, 으. 여긴 '웨낭썹' 해도 거긴 이 이 책 너비만큼씩 두껍게 그리 붙이고 붙이고 하면서.)

105001 @ 아, 그거 ᄆᆞᆯ류왕 그거 풀젠 허민?(아, 그거 말려서 그거 팔려고 하면?)

105001 #1 풀젠 허민 멧 도레기에 ᄒᆞᆫ 단. 열 도레기민 ᄒᆞᆫ 단. ᄒᆞᆫ 단에 얼메 헤영 다사 가주게.(팔려고 하면 몇 '도레기'에 한 단. 열 '도레기'민 한 단. 한 단에 얼마 해서 다 사 가지.)

105001 @ 그럼 ᄒᆞᆫ 열 사람이 ᄀᆞ치 갓잖아예?(그럼 한 열 사람이 같이 갔잖아요?)

105001 #1 ᄀᆞ치 가민 어울엉 허는 사름 싯고 질로지썩 허는 사름 싯고.(같이 가면 어울려서 하는 사람 있고 제각각 하는 사람 있고.)

105001 @ 질로지썩 허는 건, 자기만썩?(제각각 하는 건, 자기만씩?)

105001 #1 어.(어.)

105001 @ 아, 자기만 허는 디도 있고 ᄀᆞ치 어울어졍 허는 디도 있고.(아, 자기만 하는 데도 있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데도 있고.)

105001 #1 으.(으.)

105001 @ 삼춘은 어떵 헤낫수과?(삼촌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105001 #1 난 우리 언니영 ᄒᆞᆫ디 어울영 헷주.(난 우리 언니랑 같이 어울려서 했지.)

105001 @ 언니랑 ᄒᆞᆫ디 가난?(언니랑 같이 갔었어?)

105001 #1 으.(으.)

105001 @ 그럼 둘이 어울령 헌 거?(그럼 둘이 어울려서 한 거?)

105001 #1 어. 또시 저 곤포[101] 가는 해엔 ᄒᆞᆫ디 간 사름덜 멧이허고.(어. 또 저 곤

100) '웨낭썹'은 미역을 포개지 않고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101) '고포'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고포 지역을 말한다.

포 가는 해엔 같이 가서 사람들 몇하고.)

105001 @ 겐 어디 어디 가낫수과? 아까 구녕포 가나고?(그래서 어디 어디 갔었습니까? 아까 구녕포 갔었고?)

105001 #1 구녕폰 이모 사난에 구녕포도 간 저 대나리[102]엔 헌 디 강 메역허고. 우리 족은어무니영 갈 때 저 황개.(구녕포는 이모 사니까 구녕포도 가서 저 대나리라고 하는 데 가서 미역하고. 우리 작은어머니랑 갈 때 저 황개.)

105001 @ 황개?(황개?)

105001 #1 어.(어.)

105001 @ 황개가 어디 신고?(황개가 어디 있지?)

105001 #1 양포[103] 엠에.(양포 옆에.)

105001 @ 양포 엠에 황개.(양포 옆에 황개.)

105001 #1 그디도 가 오고 저 거세기 고포도 가 오고. 강원도 고포엔 헌 디.(거기도 갔다 오고 저 거시기 고포도 갔다 오고. 강원도 고포라고 하는 데.)

105001 @ 아, 강원도에.(아, 강원도에.)

105001 #1 으, 경헨 흔 삼년 얼럿주기게.(으, 그래서 한 삼년 돌아다녔지.)

105001 @ 게민 여기 강 흔 해, 여기 강 흔 해 경 갔었던 거라?(그럼 여기 가서 한 해, 여기 가서 한 해 그렇게 갔었던 거야?)

105001 #1 으.(으.)

105001 @ 게민 메역을 헹 물리면 이거 내가 풉니까, 아니면 사람 모아준 그 사람 뭐엔 헐 거?(그럼 미역을 해서 말리면 이거 내가 팝니까, 아니면 사람 모아준 그 사람 뭐라고 할 거?)

105001 #1 인솔자. 아니 우리대로 풀아.(인솔자. 아니 우리대로 팔아.)

105001 @ 제주도 돌아왕 픈는 거?(제주도 돌아와서 파는 거?)

105001 #1 아니, 그디서.(아니, 거기서.)

105001 @ 그디서 픈는 거?(거기서 파는 거?)

105001 #1 경헌디 그 메역에 구전은 안 먹어.(그런데 그 미역에 구전은 안 먹어.)

105001 @ 그럼 뭐에 구전을 먹어?(그럼 뭐에 구전을 먹어?)

105001 #1 생복허고 천초, 도박.(생복하고 우뭇가사리, '도박'.)

105001 @ 천초, 도박. 천초가 우미 아니예?(우뭇가사리, 도박. '천초'가 우뭇가사리 아닌가요?)

105001 #1 으.(으.)

105001 @ 우미에 도박에.(우뭇가사리에 '도박'에.)

105001 #1 도박은 그 문드렁허고 넙질넙질헌 거.('도박'은 그 매끄럽고 넓적넓적한 거.)

105001 @ 그것도 먹는 것과?(그것도 먹는 겁니까?)

---

102) '대나리'는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앞바다를 말한다.

103) '양포'는 경상북도 포항시 양포 지역을 말한다.

105001 #1 건 우뭇가사리처럼 풀에 들어가는 거라.(건 우뭇가사리처럼 풀에 들어가는 거야.)

105001 @ 기과? 전복, 우미, 도박 그건 구전 먹는 거. 그 사람이 대신 팔아주는 건게, 구전 먹젠 허민?(그렇습니까? 전복, 우뭇가사리, '도박' 그건 구전 먹는 거. 그 사람이 대신 팔아주는 거네, 구전 먹으려고 하면?)

105001 #1 건 딱 어협에서 받으민 딱 문서대로 헹 구전 먹는 거주게. 풀지 안 허영.(건 딱 어협에서 받으면 딱 문서대로 해서 구전 먹는 거지. 팔지 않고.)

105001 @ 메역은 다 개인이 풀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다 지금 같으면 수협 같은데, 어협에서가 사들이는 거구나?(미역은 다 개인이 팔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다 지금 같으면 수협 같은 데, 어협에서가 사들이는 거구나?)

105001 #1 으.(으.)

105001 @ 경허멍 구전을 먹었던 거구나예. 생복이랑 천초랑 아까 도박?(그러면서 구전을 먹었던 거군요. 생복이랑 우뭇가사리랑 아까 '도박'?)

105001 #1 이제도 이디도 경허여. 수협에서 우리 천초 허민 멧 구부리[104] 딱 허민 그것에서 수수료 다 내주게. 수협더레.(이제도 여기도 그래. 수협에서 우리 우뭇가사리 하면 몇 '구부리' 딱 하면 그것에서 수수료 다 내지. 수협에.)

105001 @ 수협더레 내는 거라? 게민 개인이 헐 수 있는 건 아까 메역허고 메역허고 또 뭐 잇수과?(수협에 내는 거야?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미역하고 미역하고 또 뭐 있습니까?)

105001 #1 메역이나베끼 더 셔게.(미역이나밖에 더 있어.)

105001 @ 그것만?(그것만?)

105001 #1 생복 거튼 것도 딱 텅 풀민 약간 약간 헌 거 개인으로 영 뎅기멍 인솔자 아이 간 때는 허여도 인솔자 이실 때는 못 허주게.(생복 같은 것도 딱 따서 팔면 약간 한 거 개인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인솔자 안 간 때는 해도 인솔자 있을 때는 못 하지.)

105001 @ 게민 배삯 내는 거는 인솔자가 다 알앙 내는 거라?(그럼 배삯 내는 거는 인솔자가 다 알아서 내는 거야?)

105001 #1 어게.(어.)

105001 @ 경 한 번 가민 돈 벌이가 뒛수과?(그렇게 한 번 가면 돈 벌이가 됐습니까?)

105001 #1 아이고, 난 초행 간에 ᄒᆞ꼼만 벌엉 왓저게. 물질도 안 허고 드러 울멍게 ᄉᆞ못 나 제주 ᄃᆞ려다 줍서 허멍 드러 허여놓난게.(아이고, 난 초행 가서 조금만 벌어서 왔어. 물질도 안 하고 계속 울면서 사뭇 나 제주 데려다 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니까.)

105001 @ 하하하.(하하하.)

105001 #1 게난 그때 나 돈 ᄒᆞ꼼 허고 그땐 시집가젠 허민 지쳇광목[105], 광목 흔 통 상 와져실 거라.(그러니까 그때 나 돈 조금 하고 그땐 시집가려고 하면 '지쳇광목',

104) '구부리'는 마른 우뭇가사리 한 마대를 세는 단위이다. 제보자의 설명에 의하면, 30킬로그램 한 마대를 한 구부리라고 한다.

105) '지쳇광목'은 짠 뒤에 한 번도 빨지 않은 광목을 말한다.

광목 한 통 사서 왔을 거야.)

105001 @ 거난 물질 간 건 시집가기 전인 거라?(그러니까 물질 간 건 시집가기 전인 거야?)

105001 #1 시집간 후제 혼 번 가 오고. 시집도 가던 해에 아기 안 뱃저 헨 가단 보난 그 배로 가멍 막 토허멍 나가 막 허난 수질헴시카 부덴 나가 허단 보난 아기 선게.(시집간 후에 한 번 갔다 오고. 시집도 가던 해에 아기 안 뱄어 해서 가다가 보니까 그 배로 가면서 마구 토하면서 내가 마구 하니까 수질하고 있을까 봐 내가 하다가 보니까 아기 섰어.)

105001 @ 아이고.(아이고.)

105001 #1 경허연 막 토허멍 허연노난 그디 강 헤도 놈은 물질헤도 난 물질 메칠 못 허연게. 막 훼 거튼 것만 기립고이. 국도 안 허민 밥도 못 ᄂᆞ려완게. 게난 뒌장 엇어노난 우리 조케, 육촌 오라방 뚤은 뒌장 강 뭐 반찬ᄀᆞ슴에 강 바꽈 오민 삼춘 국 먹지 말아 나 따시 뒌장 아이 강 바꽈 오크라.(그래서 마구 토하면서 하니까 거기 가서 해도 남은 물질해도 난 물질 며칠 못 했어. 아주 회 같은 것만 먹고 싶고. 국도 안 하면 밥도 못 내렸어. 그러니까 된장 없으니까 우리 조카 육촌 오라버니 딸은 된장 가서 뭐 반찬 감에 가서 바꿔 오면 삼촌 국 먹지 말아 나 다시 된장 안 가서 바꿔 오겠어.)

105001 @ 하하하.(하하하.)

105001 #1 허여난 거 이제 잊어불지 안헌다게.(했던 거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

105001 @ 경 애 가져신디 마쳥 왓수과?(그렇게 애 가졌는데 마쳐서 왔구나?)

105001 #1 경 허영 멩질 ᄀᆞ로에 왕게.(그렇게 해서 명질 경에 왔어.)

105001 @ 아고게. 그때도 돈은 좀 버슬어지고?(아이고. 그때도 돈은 좀 벌었습니까?)

105001 #1 그때도 좀게. 이디서 나 아기 설엄젠 허난 이디서 우리 집이 아방 돈 보내언. 저 용돈 씨연 들어오렌 경헤도 나가 아이 들어왓주게. 아이 들어오난 그 돈들 다 갈랑 용돈 써서 뭐 풀앙 수입 엇인 때난 경허연에 씨엿단덜 다 날 주멍 헷주.(그때도 좀. 여기서 내가 아기 선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 집의 아버지가 돈 보냈어. 저 용돈 써서 들어오라고 그래도 내가 안 들어왔지. 안 들어오니까 그 돈들 다 갈라서 용돈 써서 뭐 팔아서 수입 없을 때니까 그래서 썼다가들 다 나에게 주면서 했지.)

105001 @ 음, 맞아. 돈 안 가졍 가고 풀기 전이난.(음, 맞아. 돈 안 가지고 가고 팔기 전이니까.)

105001 #1 풀기 전이난게 난 가멍싸라 아기 설어 불고. 경허민 주인 할망은 놀메역 뿔고 기 솖앙 것에 무쳐근에 아이야 이거 먹어라 아기야 이거 먹어야 물질헌다 허멍 줜 먹어난 거 잊어불지 안헤져.(팔기 전이니까 난 가면서 아기 설어 버리고. 그러면 주인 할머니는 날미역 빨고 게 삶아서 것에 무쳐서 아이야 이거 먹어라 아기야 이거 먹어야 물질한다 하면서 줘서 먹었던 거 잊어버리지 않아.)

105001 @ 아. 기가 뭐과?(아. '기'가 뭡니까?)

105001 #1 기, 기. 겡이 겡이.(게, 게. 게 게.)

105001 @ 아, 겡이.(아, 게.)

105001 #1 으. 경헤난 거 이제 잊어불지 안허여.(으. 그러니까 거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

105001 @ 경헹 그 애기 건강허게 낳수과?(그래서 그 아기 건강하게 낳았습니꽈?)

105001 #1 건강허게 난 막 잘 크단에 돌 뒈난 오꼿 가 벤게.(건강하게 낳아서 아주 잘 크다가 돌 되니까 그만 가 버렸어.)

105001 @ 아고.(아고.)

105001 #1 저 김녕 우리 집이 아방이 요 용수 학교 다니단 그 용수 학교 숙직 날 라디오 잃어먹어서. 그 엿날은 라디올 누게 들러 가 벤게.(저 김녕 우리 집의 아버지가 요 용수 학교 다니다가 그 용수 학교 숙직 날 라디오 잃어먹어서. 그 옛날은 라디오를 누가 들고 가 버렸어.)

105001 @ 음.(음.)

105001 #1 경허난 오꼿 좌천당허연 저 김녕을 보내 베서게. 겨난게 김녕 가난 아방 간덴 아기 둘앙 가난이 그땐 애월 우체국장도 그디 간 아덜 하나 잃엇고렌 경허난 우리 가시난 서촌[106]에서 가시난 아이고, 이딘 도새기 잡앙, 돗 잡앙 온채 올령 제를 지내사 허는디 저 아기 못 질룬덴 허연에 우리 도새기 허연에 경 제지내영 아기 나멍 컷젠. 경허멍 우리ᄀᆞ라 경허렌 허난 나 아니 헤 본 거 경 헤지느냐게. 경허영 그때 애가 막 곱닥허게 난 눈이영 쌍꺼플 허고 첨 차에 둘앙 가가민 어느 사람 아이 안아 보는 사름 엇어라게. 경허연게 가 변게. 이 뇌막염더레 돌앙.(그러니까 그만 좌천당해서 저 김녕을 보내 버렸어. 그러니까 김녕 가니까 아버지가 간다고 아기 데리고 가니까 그땐 애월 우체국장도 거기 간 아들 하나 잃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갔으니까 서촌에서 갔으니까 아이고, 여긴 돼지 잡아서, 돼지 잡아서 통째 올려서 제를 지내야 하는데 저 아기 못 기른다고 해서 우리 돼지 해서 그렇게 제지내서 아기 낳으면서 컸다고. 그러면서 우리보고 그렇게 하니까 나 안 해 본 거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래서 그때 애가 아주 곱게 낳아서 눈이랑 쌍꺼풀 하고 참 차에 데리고 가면 어느 사람 안 안아 보는 사람 없었어. 그랬는데 가 버렸어. 이 뇌막염으로 돌아서.)

105001 @ 아이고.(아이고.)

105001 #1 아이고, 나 그 생각허민.(아이고, 나 그 생각하면.)

105001 @ 예, 예. 그 바닷일 바당에 간 허는 일들은, 아까 ᄀᆞᆯ앗주만은 다시 혼 번 ᄀᆞᆯ아줍서. 강 물질헤가지고 잡는 거? 물질헤영 잡는 거 메역도 잡고.(예, 예. 그 바닷일 바당에 가서 하는 일들은, 아까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가서 물질해서 잡는 거? 물질해서 잡는 거 미역도 잡고.)

105001 #1 어게.(어.)

105001 @ 메역도 건져오고.(미역도 건져오고.)

105001 #1 어디? 이제?(어디? 이제?)

105001 @ 이제.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일헐 때.(이제.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일할 때.)

106) '서촌'은 서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여기서는 한경면 지역을 가리킨다.

105001 #1 메역, 소라.(미역, 소라.)

105001 @ 소라.(소라.)

105001 #1 전복.(전복.)

105001 @ 전복. 전복이렌 헷수과, 생복이렌 헷수과?(전복. 전복이라고 했습니까, 생복이라고 했습니까?)

105001 #1 전복이엔 허주게.(전복이라고 하지.)

105001 @ 전복이렌 허연. 으, 전복 잡고.(전복이라고 했어. 으, 전복 잡고.)

105001 #1 그거주게.(그거지.)

105001 @ 여기서 뭐 남저 어른.(여기서 뭐 남자 어른.)

105001 #1 성기.(성게.)

105001 @ 성기도 허고예. 남자 어른들 강 바닷궤기 안 나까 옵니까?(성게도 하고요. 남자 어른들 가서 바닷고기 안 낚아서 옵니까?)

105001 #1 나까오주게.(낚아오지.)

105001 @ 어떤 것덜 나까와나신고?(어떤 것들 낚아왔나요?)

105001 #1 생성도 나까오고 우럭도 나끄고 이제 거 감은돔 그런 거.(옥돔도 낚아오고 우럭도 낚고 이제 거 감성돔 그런 거.)

105001 @ 그런 것도 나까오고예. 또 강 보말도 잡앙 올 거 아니?(그런 것도 낚아오고요. 또 가서 고둥도 잡아서 올 거 아니?)

105001 #1 보말도 잡주게.(고둥도 잡지.)

105001 @ 보말도 잡고.(고둥도 잡고.)

105001 #1 보말은 해녀덜 아이 잡나게.(고둥은 해녀들 안 잡아.)

105001 @ 누게가 잡아와?(누가 잡아와?)

105001 #1 그냥 강 잡는디 우리도 저 보말 어떵허당 ᄒᆞ루쯤 강 ᄌᆞ문다게.(그냥 가서 잡는데 우리도 저 고둥 어떡하다가 하루쯤 가서 캐.)

105001 @ 게난 보말 잡을 시간이 없는 거잖아예. 다른 거 잡젠 허난?(그러니까 고둥 잡을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 잡으려고 하니까?)

105001 #1 게난 막 웨방 사름덜 우리 양식허는 디 왕 막 허민 우리 바당 지커염세게.(그러니까 마구 외방 사람들 우리 양식하는 데 와서 마구 하면 우리 바다 지키고 있어.)

105001 @ 지켬서.(지키고 있어.)

105001 #1 소라 거튼 거 막 헤여 가곡게 양식장에 성기 ᄌᆞ물아 놩 막 허여 가곡 헤라게. 게난 올리부턴 성기도 아이 ᄌᆞ물아. 막 도둑 맞안게.(소가 같은 거 마구 해 가고 양식장에 성게 캐 놔서 마구 해 가고 하더라.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성게도 안 캤어. 마구 도둑 맞았어.)

105001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5001 #1 나도 질로지만썩 헤당 놓는디 올린 간 허젠 헹 보난 ᄆᆞᆫ짝 헤 가변.(나도 제각각 해다가 놓는데 올해는 가서 하려고 해서 보니까 모두 해 가버렸어.)

105001 @ 게난 아직도 바다 일을 헴수과?(그러니까 아직도 바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05001 #1 나 바다 일 헴주게.(나 바다 일 하고 있지.)

105001 @ 물질도 허고?(물질도 하고?)

105001 #1 게, 물질헴주게.(그래, 물질하고 있지.)

105001 @ 아이고.(아이고.)

105001 #1 몰란? 나 천초 올리도 열 구부리 너미 헷저.(몰랐어? 나 우뭇가사리 올해도 열 '구부리' 너머 했어.)

105001 @ 열 구부리?(열 '구부리'?)

105001 #1 으.(으.)

105001 @ 열 구부리가 몇 키로나 뒈는 것과?(열 '구부리'가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 겁니까?)

105001 #1 저 삼십 키로짜리 열 개. 열 개허고 십팔 키로.(저 삼십 킬로그램짜리 열 개. 열 개하고 십팔 킬로그램.)

105001 @ 믈린 거.(말린 거.)

105001 #1 나도 젊은 사름보단 잘헤서.(나도 젊은 사람보단 잘했어.)

105001 @ 게난 게난 어린 때는 바다 일 못헷덴 허는 디 완전 상군인게.(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 때는 바다 일 못했다고 하는 데 완전 '상군'이네요.)

105001 #1 거는 고무옷[107] 엇인 때난 얼언 못헷주게. 고무옷 엇인 때 속곳[108] 바람이난. 웃둑지 오그라져 물에 들고장 안헤라게.(거는 고무옷 없을 때니까 추워서 못했지. 고무옷 없을 때 '속곳' 바람이니까. 어깻죽지 오그라져서 물에 들고 싶지 않았어.)

105001 @ 추웡.(추워서.)

105001 #1 고무옷 난 후제 후제사 이디선 허연게.(고무옷 난 후에 후에야 여기선 했어.)

105001 @ 아, 게민 그때 어릴 때 그.(아, 그럼 그때 어릴 때 그.)

105001 #1 물질 안 허단에 아방[109] 퉤직허여 갈 때사 나 물질허연.(물질 안 하다가 아버지 퇴직해 갈 때야 나 물질했어.)

105001 @ 나중에사.(나중에야.)

105001 #1 으.(으.)

105001 @ 그때 헤가지고는 막 상군 뒌 거?(그때 해가지고는 바로 '상군' 된 거?)

105001 #1 아니 상군[110]은, 이제도 상군은 아니주만은 우미 허는 딘 떨어지지 안허영 중간 가주게. 이제도. 경헌디 이 구젱기 거튼 거 소라 거튼 거 난 야픈 디만 허난 잘 못헌다게. 경허고 돈 벌 땐 안 헤젼게. 막 그때덜은 돈 벌어나서라.(아니 '상군'은, 이

107) '고무옷'은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해산물 등을 캘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잠수복을 말한다.

108)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광목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물소중이', '소중이', '소중기'라고도 한다.

109) '아방'은 표준어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10) '상군'은 물질할 때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말한다. '큰줌녜', '상줌녜'라고도 한다.

제도 '상군'은 아니지만 우뭇가사리 하는 데는 떨어지지 않아서 중간 가지. 이제도. 그런데 그 소라 같은 거 소라 같은 거 난 얕은 데만 하니까 잘 못한다. 그리고 돈 벌 땐 안 했어. 마구 그때들은 돈 벌었었어.)

105001 @ 돈 벌엇지예?(돈 벌었지요?)

105001 #1 막 스못 구젱이덜토 하고 전복 헐 땐 우리 안 헷주기게. 아기 키우멍 농사도 짓고게. 아방 뒷바라지 허고 경헤지느냐? 경 안 허단 아방 퉤직허여 가사 험 시작허연.(마구 사뭇 소라들도 많고 전복 할 땐 우리 안 했지. 아기 키우면서 농사도 짓고. 아버지 뒷바라지 하고 그럴 수 있니? 그렇게 안 하다가 아버지 퇴직해 가야 하기 시작했어.)

105001 @ 음, 경헨 이제 우미를 막 헴구나, 지금도.(음, 그래서 이제 우뭇가사리를 마구 하는구나, 지금도.)

105001 #1 올리 헤엿주게.(올해 했지.)

105002 @ 예전에 듬북이나 감태 걸름허젠 막 헤낫잖아예?(예전에 듬북이나 감태 거름하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105002 #1 엿날 경헷주.(옛날 그랬지.)

105002 @ 엿날에예.(옛날에요.)

105002 #1 우리도 감태 헤단 나도 흔 밧 너머 거 더꺼낫저.(우리도 감태 해다가 나도 한 밭 너머 거 덮어었어.)

105002 @ 무슨 밧디.(무슨 밭에.)

105002 #1 보리밧디.(보리밭에.)

105002 @ 게난 듬북이나 감태 작업을 헐 때 개인으로 헙니까, 공동으로 헙니까?(그리니까 듬북이나 감태 작업을 할 때 개인으로 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105002 #1 개인이.(개인이.)

105002 @ 여기 개인이 헙니까?(여기 개인이 합니까?)

105002 #1 으. 질로지만썩 부지런헌 사름은 허곡 경 안헌 사름은 안 허곡. 막 박허게 악허게 허는 사름덜은 물에 들엉 뭄 고주기[111]덜 비영 다 통지에 시꺼다 놓고. 걸름허젠.(으. 제각각 부지런한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고. 아주 박하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물에 들어서 모자반 '고주기'들 베어서 다 돼지우리에 실어다 놓고. 거름하려고.)

105002 @ 그거를 통쉐에 담아 놔?(그거를 돼지우리에 담아 놔?)

105002 #1 으, 담아 놩 걸름도 허고.(으, 담아 놔서 거름도 하고.)

105002 @ 걸름 허고.(거름 하고.)

105002 #1 경허여낫주. 칠월덜 나민. 음력 칠월덜 나민 고주기 즈물아당 통지에 막 놓고 허여낫주.(그랬었지. 칠월 되면. 음력 칠월 되면 '고주기' 캐다가 돼지우리에 마구 놓고 했었어.)

105002 @ 고주기는 뭐라?('고주기'는 뭐야?)

111) '고주기'는 해조류의 한 종류다.

105002 #1 몸이 고주기엔 헌 몸이 셔낫주.(모자반이 '고주기'라고 하는 모자반이 있었지)

105002 @ 아, 몸 종류 중에?(아, 모자반 종류 중에?)

105002 #1 으.(으.)

105002 @ 건 먹지는 못허고 그냥?(건 먹지는 못하고 그냥?)

105002 #1 건 먹진 못허고 걸름으론 최고, 고주기.(건 먹진 못하고 거름으론 최고, '고주기'.)

105002 @ 고주기. 삼춘도 그거 고주기도 헤나고 감태도 헤나고.('고주기'. 삼촌도 그거 '고주기'도 했었고 감태도 했었고.)

105002 #1 난 그런 건 안 헨게.(난 그런 건 안 했어.)

105002 @ 뭐만 헤나서, 감태만?(뭐만 했었어, 감태만?)

105002 #1 감태 올른 거 줏엉 밧디 놔낫주게.(감태 오른 거 주워서 밭에 놨었지.)

105002 @ 물에 들엉은 안 허고?(물에 들어서는 안 하고?)

105002 #1 안 허고게 우이 올른 것만. 바당 쎄 나민 강 줏엉 올렁 헤낫주.(안 하고 위에 오른 것만. 바다 세고 나면 가서 주워서 올려서 했었지.)

105002 @ 게난 걸름 헐 것도 다 지만씩 지만씩.(그러니까 거름 할 것도 다 자기만큼씩 자기만큼씩.)

105002 #1 어게. 부지런헌 사름은 강 허고 실픈 사름은 안 허고.(그래. 부지런한 사람은 가서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고.)

105002 @ 삼춘은 헐 때 누게 남자 어른이랑 ᄀᆞ치 갓수과?(삼촌은 할 때 누구 남자 어른이랑 같이 갔습니까?)

105002 #1 아이고, 난 나만 허주기게 누게?(아니고, 난 나만 하지 누구?)

105002 @ 아, 혼자만. 거 시꺼오젠 허민 다 졍 온 거라?(아, 혼자만. 거 실어오려고 하면 다 져서 온 거야?)

105002 #1 아니. 다 그레 우터레 올렁 ᄆᆞᆯ류왓당 그레 데멋당 ᄒᆞ루 구루마로라도 시꺼 가.(아니. 다 그리 위에 올려서 말렸다가 그리 쌓았다가 하루 수레로라도 실어 가.)

105002 @ 음. 게난 바닷가 그 근처에서 다 ᄆᆞᆯ렷구나.(음. 그러니까 바닷가 그 근처에서 다 말렸구나.)

105002 #1 으.(으.)

105003 @ 몰렁 시껑 간 거예. 보말은 보말 잡을 때 어떵 잡아낫수과? 지금도 보말 먹을 거 ᄒᆞ꼼씩 잡지예? 보말 잡젠 허민 어떵 잡읍니까?(말려서 실어서 간 거요. 고둥은 고둥 잡을 때 어떻게 잡았었습니까? 지금도 고둥 먹을 거 조금씩 잡지요? 고둥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잡습니까?)

105003 #1 어떵 잡아게. 물에 들엉 손으로 줏어당 테왁[112]더레 놓주게.(어떻게 잡아. 물에 들어서 손으로 주워다가 '테왁'에 넣지.)

112) '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최근에는 스티로폼을 둥글게 만든 것을 사용한다.

105003 @ 막 돌 일르멍 헤?(마구 돌 일으키면서 해?)

105003 #1 아니, 다 보멀은 물 들어가민 나느네.(아니, 다 고둥은 물 들어가면 나와.)

105003 @ 보말 잡을 때도 물에 들엉 잡는 거?(고둥 잡을 때도 물에 들어서 잡는 거?)

105003 #1 어, 어 들어강.(어, 어 들어가서.)

105003 @ 물가에서는 안 헤 보고?(물가에서는 안 해 보고?)

105003 #1 물가에서? 물싸민?(물가에서? 물써면?)

105003 @ 예.(예.)

105003 #1 물싸민 우리 해녀는 잡지 못허게 허주게, ᄆᆞ음대로 바당에. 우리가 다 금지허고 다 돌레 뎅기곡 허는디 허여지느냐? 못 헌다.(물써면 우리 해녀는 잡지 못하게 하지, 마음대로 바다에. 우리가 다 금지하고 다 돌러 다니고 하는데 할 수 있겠니? 못 한다.)

105003 @ 게민 물에 들엉?(그럼 물에 들어서?)

105003 #1 물에 들엉 공동에서 허는 건 헤도.(물에 들어서 공동에서 하는 건 해도.)

105003 @ 예.(예.)

105003 #1 웃밧딜[113]로 이녁만 강 잡지 못허여.('웃밧디'로 자기만 가서 잡지 못해.)

105003 @ 아, 기과? 물에 들엉 영 영 감시민 보여 보말이?(아, 그렇습니까? 물에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으면 보여 고둥이?)

105003 #1 물 막 들민 보멀이 나주게. 싸민 물이, 싸는 물엔 안 나고 물이 들어올 때엔 그것이 나오주게.(물 바로 들면 고둥이 나지. 써면 물이, 써는 물엔 안 나고 물이 들어올 때엔 그것이 나오지.)

105004 @ 보멀 종류에도 영 일름이 있을 거 아니예?(고둥 종류에도 이렇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요?)

105004 #1 어.(어.)

105004 @ 어떤 보말이 잇수과?(어떤 고둥이 있습니까?)

105004 #1 먹보말.(먹보말이.)

105004 @ 먹보말.(먹보말이.)

105004 #1 수두리보말.(두드럭고둥.)

105004 @ 수두리.(두드럭고둥.)

105004 #1 이제 곰셍이[114].(이제 '곰셍이'.)

105004 @ 곰셍이.('곰셍이'.)

105004 #1 으, 신데기[115], 경.(으, '신데기' 그렇게.)

105004 @ 네 개 정도. 먹보말, 수두리보멀, 곰셍이, 신데기. 또 생각나는 거 잇수과? 엇어?(네 개 정도. 먹보말이, 두드럭고둥, '곰셍이', '신데기'. 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없어?)

---

113) '웃밧딜'은 '웃밧디+을'의 구성으로 '웃밧디'는 해안에서 위쪽을 가리키는 말로, 해안가를 말한다.
114) '곰셍이'는 고둥 종류의 하나다.
115) '신데기'는 고둥 종류의 하나다.

105004 #1 메옹이[116].(‘메옹이’.)

105003 @ 메옹이. 하하하. 맞수다, 맞수다. 깅이는 어떵 잡읍니까?(‘메옹이’. 하하하. 맞습니다, 맞습니다. 게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3 #1 깅이도 우리도 못 내려가 깅이, 해녀덜은. 그 웃밧디 흔 두물 날 흔물 날 러렌 거 바다에 물에질 안 허는 사름덜 강 잡아오주게. 물 안 싼 때난.(게도 우리도 못 내려가 게, 해녀들은. 그 ‘웃밧디’ 한 두물 날 한물 날엔 거 바다에 물질 안 하는 사람들 가서 잡아오지. 물 안 썬 때니까.)

105003 @ 음.(음.)

105003 #1 경허영 잡아당 젓도 헹 먹고. 삐정 죽도 썽 먹고.(그렇게 잡아다가 젓도 해서 먹고. 빻아서 죽도 쒀서 먹고.)

105003 @ 삼춘은 깅이 경 안 잡아낫구나.(삼촌은 게 그렇게 안 잡았었구나.)

105003 #1 긍이 잡아 와도 난 긍이죽 거튼 거 냄새 낭 난 못 먹겠더라.(게 잡아 와도 난 게죽 같은 거 냄새 나서 난 못 먹겠더라.)

105003 @ 그 맛있는 거.(그 맛있는 거.)

105003 #1 아이고.(아이고.)

105003 @ 뼈에도 좋덴 허고게.(뼈에도 좋다고 하고.)

105003 #1 으, 경헤도 안 먹어봔. 긍이 헤당 덴뿌라[117] 튀김 헌 건 먹어져라.(으, 그래도 안 먹어봤어. 게 해다가 튀김 튀김 한 건 먹었어.)

105005 @ 음. 긍이렌 헙니까 삼춘 긍이?(음. ‘긍이’라고 합니까, 삼촌 ‘긍이’?)

105005 #1 긍이.(‘긍이’.)

105005 @ 긍이 경 헹 먹고. 긍이에도 영 종류가 잇수과?(게 그렇게 해서 먹고. 게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까?)

105005 #1 춤긍이.(참게.)

105005 @ 춤겡이.(참게.)

105005 #1 지름킁이[118], 또 똥긍이[119].(‘지름킁이’, 또 ‘똥긍이’.)

105005 @ 똥긍이, 하하.(‘똥긍이’, 하하.)

105005 #1 돌팟긍이[120].(‘돌팟긍이’.)

105005 @ 돌팟?(‘돌팟’?)

105005 #1 돌팟긍이. 막 겁죽 두더와근에 무클락헌[121] 거.(‘돌팟긍이’. 아주 껍질 두꺼워서 ‘무클락한’ 거.)

105006 @ 무클락헌 거, 예. 그 그 옛날에 바당에 강 뭐 잡을 때 불 피왕 잡아난 거?(‘무클락한’ 거, 예. 그 그 옛날에 바다에 가서 뭐 잡을 때 불 피워서 잡았던 거?)

105006 #1 메록[122].(‘메록’.)

---

116) ‘메옹이’는 고둥 종류의 하나다.
117) ‘덴뿌라’는 일본어 ‘テンプラ’로 ‘튀김’을 말한다.
118) ‘지름킁이’는 게 종류의 하나다.
119) ‘똥긍이’는 게 종류의 하나다.
120) ‘돌팟긍이’는 게 종류의 하나다.
121) ‘무클락허다’는 손끝에 물건이 닿았을 때 조금 물렁한 느낌이 들면서도 듬직하다는 의미다.

105006 @ 메록?(‘메록’?)

105006 #1 으, 낙지, 낙지 심으레.(으, 낙지, 낙지 잡으러.)

105006 @ 낙지를 메록이렌 골아?(낙지를 ‘메록’이라고 말해?)

105006 #1 으.(으.)

105006 @ 아, 낙지 심는 거?(아, 낙지 잡는 거?)

105006 #1 으, 낙지 심는 거 메록 심으레 간덴 허주.(으, 낙지 잡는 거 ‘메록’ 잡으러 간다고 하지.)

105006 @ 아, 하하.(아, 하하.)

105006 #1 이디선 메록이엔 헤난. 엿날 할망덜 곧는 거 들음만 헤도. 낙지엔 이제사 표준어로 낙지엔 헷주, 옛날은 메꾸럭[123]. 메꾸럭 심으레 갓저.(여기선 ‘메록’이라고 했었어. 옛날 할머니들 말하는 거 듣기만 해도. 낙지라고 이제야 표준어로 낙지라고 했지, 옛날은 ‘메꾸럭’. 낙지 잡으러 갔어.)

105006 @ 메꾸럭, 아까 메록. 메록이엔도 허고 메꾸럭이엔도 허고?(‘메꾸럭’, 아까 ‘메록’. ‘메록’이라고도 하고 ‘메꾸럭’이라고도 하고?)

105006 #1 으.(으.)

105006 @ 오, 메꾸럭 심으레 갓저 허는 거예. 게민 그거 말고 여기는 멜 들 때 담 같은 거?(오, 낙지 잡으러 갔어 하는 거요. 그럼 그거 말고 여기는 멸치 들 때 담 같은 거?)

105007 #1 원담[124].(‘원담’.)

105007 @ 원담. 신창도 원담 잇엇수과?(‘원담’. 신창도 ‘원담’ 있었습니까?)

105007 #1 어게, 알가름[125]. 이제도 요디 혼 밧딘 셔.(그래, ‘알가름’. 이제도 요기 한 군데 있어.)

105007 @ 혼 밧딘 이서?(한 군데 있어?)

105007 #1 으. 알가름은 다 헤쌍 데껴 불고. 눵 자당 보민이 멜 들엇저 헹 강 보민 사둘덜 이만썩헌 거. 이 말 허젠 허난 나 언치냑 사둘 다 ᄉᆞ못 멜 거리젠 허난 사둘 ᄀᆞ지레 왕 허난 사둘 엇엉 헤져라.(으. ‘알가름’은 다 흐트러져서 없애 버리고. 누워서 자다가 보면 멸치 들었어 해서 가서 보면 사둘들 이만한 거. 이 말 하려고 하니까 나 어젯저녁 사둘 다 사뭇 멸치 뜨려고 하니까 사둘 가지러 와서 하니까 사둘 없어서 했었어.)

105007 @ 언제, 언제?(언제, 언제?)

105007 #1 언치냑 꿈에.(어젯저녁 꿈에.)

105007 @ 언치냑 꿈에, 하하하.(어젯저녁 꿈에, 하하하.)

105007 #1 이 말 거느리젠 허난.(이 말 들먹이려고 하니까.)

---

122) ‘메록’은 표준어 ‘낙지’에 대응하는 말이다.

123) ‘메꾸럭’은 표준어 ‘낙지’에 대응하는 말이다.

124) ‘원담’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이다. ‘갯담’, ‘원’이라고도 한다.

125) ‘알가름’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지명이다.

105007 @ 게난 이 말 거느리젠 헌 거 맞수다게. 하하하.(그러니까 이 말 들먹이려고 한 거 맞습니다. 하하하.)

105007 #1 경헌디이, 어엄[126] 큰 거 허영 이처록 허영 이문간이나 어디나 영 돌아메 뒷당 멜 들엇저 허민 ᄉᆞ못 다덜 강 좀팍으로 거리곡이 허영 멜 빌레도 가고 엿날. 이젠 빌레 아이 가느네게.(그런데, '어엄' 큰 거 해서 이처럼 해서 이문간이나 어디나 이렇게 달아매 뒀다가 멸치 들었어 하면 사뭇 다들 가서 '좀팍'으로 뜨고 해서 멸치 빌리러도 가고 옛날. 이젠 빌리러 안 가지.)

105007 @ 예.(예.)

105007 #1 주젠도 안 허곡게.(주려고도 안 하고.)

105007 @ 무사 멜 빌레 가서. 잡으레 가민 뒐 거 아니?(왜 멸치 빌리러 갔어. 잡으러 가면 될 거 아니?)

105007 #1 잡질 못허주게. 와작착 와작착 헌 디 거리민 어디 멜 하나썩 저디 강 웃밧디 간 거 하나썩 줍는 거나베끼. 아이고, 멜도 밋밋[127] 멧 짐썩 져 올리멍 헤라.(잡질 못하지. 와작착 와작착 한 데 뜨면 어디 멸치 하나씩 저기 가서 '웃밧디' 간 거 하나씩 줍는 거나밖에. 아이고, 멸치도 '밋밋' 몇 짐씩 져 올리면서 하더라.)

105007 @ 아. 게난 여기 신창에 원담은 멧 개나 잇어나신고예?(아. 그러니까 여기 신창에 '원담'은 몇 개나 있었습니까?)

105007 #1 저 둔말원[128], 새원[129], 이제 멍게원[130], 진원[131] 경 셔낫주.(저 '둔말원', '새원', 이제 '멍게원', '진원' 그렇게 있었지.)

105007 @ 네 개.(네 개.)

105007 #1 으.(으.)

105007 @ 이제 남아 있는 건?(이제 남아 있는 건?)

105007 #1 남아 있는 건 요디도 다 뭣 헤 부난 이제 멍게원 허고 저디 ᄃᆞ리 아래 진원베낀 엇어 이젠.(남아 있는 건 요기도 다 뭣 해 버리니까 이제 '멍게원' 하고 저기 다리 아래 '진원'밖에 없어 이젠.)

105007 @ 아, 두 개는 이신게예.(아, 두 개는 있네요.)

105007 #1 으.(으.)

105009 @ 그럼 그거 ᄒᆞᆫ 번 ᄀᆞᆯ아줍서게. 멜 영 드는 게 언제쯤 멜이 듭니까?(그럼 그거 한 번 말해주세요. 멸치 이렇게 드는 게 언제쯤 멸치가 듭니까?)

105009 #1 봄 때에.(봄 때에.)

105009 @ 봄 때에. 음력 멧 월이라?(봄 때에. 음력 몇 월이야?)

105009 #1 ᄒᆞᆫ 정월러게 ᄀᆞ실엔 멜 잘 안 들어.(한 정월에 가을엔 멸치 잘 안 들어.)

---

126) '어엄'은 망사리에 그물을 끼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나 대로 만든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어음'이라고도 한다.

127) '밋밋'은 거침없이 줄곧 나오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28) '둔말원'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의 '원담' 이름이다.

129) '새원'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의 '원담' 이름이다.

130) '멍게원'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의 '원담' 이름이다.

131) '진원'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의 '원담' 이름이다.

105009 @ ᄀᆞ실엔 잘 들고 봄에 허면 정월? 정월?(가을엔 잘 들고 봄에 하면 정월? 정월?)

105009 #1 정월, 정월엔 너미 얼고. 흔 이삼월러레.(정월, 정월에는 너무 춥고. 한 이삼월에.)

105009 @ 이삼월러레예. 게민 멜 들민 밤이 멜 들엇수다, 헙니까?(이삼월에요. 그럼 멸치 들면 밤에 멸치 들었습니다, 합니까?)

105009 #1 어게. 멜이여, 멜이여 헤낫주.(그래. 멸치야, 멸치야 했었지.)

105009 @ 뭐 들렁, 삼춘은 뭐 들렁 가?(뭐 들고, 삼촌은 뭐 들고 가?)

105009 #1 구덕더레게 ᄉᆞ못 좀팍 다, 이 채. 채도 가졍강 거리져.('구덕'에 사뭇 '좀팍' 다, 이 채. 채도 가져가서 떠.)

105009 @ 으, 거려.(으, 떠.)

105009 #1 거 다 가졍덜 듣곡 헷주게.(거 다 가져서들 달리고 했지.)

105009 @ 아. 게민 남저덜은 큰 걸로 허영. 큰 사둘.(아. 그럼 남자들은 큰 걸로 해서. 큰 사둘.)

105009 #1 어, 그 사름 조롬에 흔 사름이 좀팍 갖곡 옛날은 가멩이도 가졍 가더라게.(어, 그 사람 꽁무니에 한 사람에 '좀팍' 가지고 옛날은 가마니도 가져서 가더라.)

105009 @ 으.(으.)

105009 #1 경허영 강 멧 가멩이 져 올렷저 허고. 이제 경 안 헌 사름은 질구덕[132] 에덜 졍 오고. 파닥파닥 시퍼렁헌 거. 이제 그런 멜덜 안 나.(그래서 가서 몇 가마니 져 올렸어 하고. 이제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질구덕'에들 져서 오고. 파닥파닥 시퍼런 거. 이제 그런 멸치들 안 나.)

105009 @ 막 맛졸 거 닮은디.(아주 맛있을 거 같은데.)

107020 #1 으, ᄂᆞ물 놩 끌리민 오죽. 엿날은이 복젱이, 복어 복어가 이디 무사 경 하영 나까오느니. 겐 지영 풀레 다니는 할망덜이 게꿈이 부각부각 나게 질구덕에 져.(으, 나물 놔서 끓이면 오죽. 옛날은 복어, 복어 복어가 여기 왜 그렇게 많이 낚아오니. 그래서 져서 팔러 다니는 할머니들이 거품이 부글부글 나게 '질구덕'에 져.)

107020 @ 아.(아.)

107020 #1 경허민이 경허민 그 복젱이가이 보끄민 잘도 맛좋아, 김치에. 경허고 끌려도 맛좋아. 양에 허여 놩이 끌려도 맛좋고 헌 거. 이젠 엇어게 그것이. 막 복젱이가 잘도 하영 나낫저, 이디. 경헌디 그 복젱이가 실피 못 먹어 봥 헷주게. 막 복젱이가 이만썩.(그럼 그럼 그 복어가 볶으면 잘도 맛있어, 김치에. 그리고 끓여도 맛있어. 양하 해 놔서 끓여도 맛있고 한 거. 이젠 없어 그것이. 아주 복어가 아주 많이 났었어, 여기. 그런데 그 복어가 실컷 못 먹어 봐서 했지. 마구 복어가 이만큼씩.)

107020 @ 그 복젱이에 독 엇어 독?(그 복어에 독 없어 독?)

107020 #1 독 엇다. 막 두드리고 피 콜콜허게 허는디 무신 독.(독 없다. 마구 두드리고 피 깨끗하게 하는데 무슨 독.)

---

132) '질구덕'은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큰 바구니를 말한다.

107020 @ 안에 거 깨끗허게.(안에 거 깨끗하게.)

107020 #1 어게 경허민. 아이고 맛좋메 미나리 헤다 놓고 양에 ᄒᆞ꼼 헤여 놓고 헹국 끌리민.(그래 그러면. 아이고, 맛좋아 미나리 해다 넣고 양하 조금 해 넣고 해서 국 끓이면.)

107020 @ 국 끌리민.(국 끓이면.)

107020 #1 보까도 맛좋고. 난 복젱이만이 맛존 궤기가 엇음직허여. 가죽도 맛좋고.(볶아도 맛있고. 난 복어만큼 맛있는 고기가 없음직해. 가죽도 맛있고.)

107020 @ 가죽도 맛좋고.(가죽도 맛있고.)

107020 #1 견디 이젠 원 그런 거 하나 먹어 보젠 헤도 엇어. 강원돈 하영 그 테레비에 보난 강원돈 하영 나는 디라라. 게난 저 복젱이 먹으레 강원도 가시민 좋겐 난 헤낫주게.(그런데 이젠 원 그런 거 하나 먹어 보려고 해도 없어. 강원도는 많이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강원도는 많이 나는 데더라. 그러니까 저 복어 먹으러 강원도 갔으면 좋겠다고 난 했었지.)

107020 @ 아이고, 그 복젱이 다 어디 가 불어신고게?(아이고, 그 복어 다 어디 가 버렸는지?)

105010 #1 어디사 가신디 아. 복젱이 어디 들어왓젠 허민이 요거 어디 판포[133] 알가도 나끄더라덜. 엿날.(어디에야 갔는지 아. 복어 어디 들어왔다고 하면 요거 어디 판포 아래 가도 낚더라. 옛날.)

105010 @ 옛날에.(옛날에.)

105010 #1 엿날은 우리 아바지도 보제기 헐 때에 반찬 허켜 놈의 배에 ᄒᆞᆫ 번 붙엉 갈칠 나끔이 갈치가 이만썩 넙은 거, 이 지레기썩 헌 거 ᄉᆞ못 ᄒᆞᆫ 질구덕썩 나까 오더라. 그런 갈치가 맛좋아. 그땐 냉동도 엇곡이 풀레 와도 시 개 홁은 거 시 개 얼메썩 허영 허민 상 지둥 공장에 걸엇다근에.(옛날은 우리 아버지도 어부 할 때에 반찬 하겠다고 남의 배에 한 번 붙어서 갈치를 낚음이 갈치가 이만큼씩 넓은 거, 이 길이씩 한 거 사뭇 한 '질구덕'씩 낚아 오더라. 그런 갈치가 맛있어. 그땐 냉동도 없고 팔러 와도 세 개 굵은 거 세 개 얼마씩 해서 하면 사서 기둥 갈고리에 걸었다가.)

105010 @ 하하하.(하하하.)

105010 #1 하하. 걸엇다근에 저 끌렁덜 먹고 헤세. 경헤도 경 누리지도 안허고 헤라, 그땐. 이 아칙이 풀레 오민게 그거 허영 낮에 끌리는 건게 냉장고 엇어도 허고. 남은 건 소금 허엿다근에 허곡.(하하. 걸었다가 저 끓여서들 먹고 했어. 그래도 그렇게 누리지도 않고 하더라, 그땐. 이 아침에 팔러 오면 그거 해서 낮에 끓이는 건 냉장고 없어도 하고. 남은 건 소금 했다가 하고.)

105009 @ 예. 경 멜 들엇을 때 잡으레 간 사름덜은 잡앙 와지고 잡으레 못 간 사름덜은.(예. 그렇게 멸치 들었을 때 잡으러 간 사람들은 잡고 올 수 있고 잡으러 못 간 사람들은.)

105009 #1 ᄒᆞ꼼썩 국거리나 빌어 오고. ᄒᆞ꼼썩 심어 오주게, 줏엉.(조금씩 국거리나

133) '판포'는 제주시 한경면 행정 마을 중 하나인 '판포리'를 말한다.

빌려 오고. 조금씩 잡아 오지, 주워서.)

105009 @ 막 하영 잡아온 사름덜은 질구덕에영 뭐에영.(아주 많이 잡아온 사람들은 '질구덕'에랑 뭐에랑.)

105009 #1 어.(어.)

105009 @ 하영 잡아 왓잖아.(많이 잡아 왔잖아.)

105009 #1 하영 헹 폼도 허곡게. 집이 왕 줌도 허고 경 헤낫저.(많이 해서 팔기도 하고. 집에 와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

105009 @ 어쨌든 그거 다 먹엇던 거라예.(어쨌든 그거 다 먹었던 거지요.)

105009 #1 다 먹엇주기게. 젓덜 허멍이여.(다 먹었지. 젓갈들 하면서.)

105009 @ 젓덜 허멍.(젓갈들 하면서.)

105009 #1 물룹도 허고. 원 궤기 반찬 엇곡 헌 때난 다 거 반찬으로덜게 멜 들엇저 허민게. 물류왕 갯가시덜 강 널고. 깨껏헤영 제기 물른 디덜.(말리기도 하고. 원 고기 반찬 없고 한 때니까 다 거 반찬으로들. 멸치 들었어 하면. 말려서 갯가들 가서 널고. 깨끗해서 재게 마른 데들.)

105008 @ 게민 멜 잡젠 허난 원담은 잘 만들어졍 잇어야 헐 거 아니과? 그거 무너졍 허민 그거 고치레도 가고, 동네 사름덜 ᄀᆞ치 가고 헙니까?(그럼 멸치 잡으려고 하니까 '원담'은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무너져서 하면 그거 고치러도 가고, 동네 사람들 같이 가고 합니까?)

105008 #1 아니, 고치지 안허여. 요번이도 막 따치 들언덜 심엇젠 헤라.(아니, 고치지 않아. 요번에도 마구 독가시치 들어서들 잡았다고 하더라.)

105008 @ 거기 원담에? 거 고치지 안허영 그냥 내불어? 태풍 와 나민.(거기 '원담'에? 거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태풍 오고 나면.)

105008 #1 아니, 태풍 와 나도 거 아이 헌다.(아니, 태풍 오고 나도 거 안 해.)

105008 @ 어떵 안허여?(어떻지 않아?)

105008 #1 어, 막 담으로 이만인 넙게 허영.(어, 마구 담으로 이만큼 넓게 해서.)

105008 @ 거기 원담에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가져?(거기 '원담'에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어?)

105008 #1 어게.(그래.)

105008 @ 경 하영 사름덜이 들어가집니까?(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5008 #1 어게, 궤기 심으레 안에 널르주게, 이 마당만이.(그래, 고기 잡으러 안에 넓지, 이 마당만큼.)

105008 @ 게민 누구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잇는 건 아니고?(그럼 누구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있는 건 아니고?)

105008 #1 경허진 안허여. 큰 사둘 가진 사름덜 ᄉᆞ못 가운더레 사곡게. 못 헤영 체로 거릴 사름은 저 빌레[134]레 가곡.(그렇진 않아. 큰 사둘 가진 사람들 사뭇 가운데로

134) '빌레'는 돌무더기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을 말한다.

서고. 못 해서 체로 뜰 사람은 저 '빌레'로 가고.)

105010 @ 궤기 나끌 때는 뭐 뭐 들렁 가나신고예, 남자 어른덜. 낚시로 헹 나끄젠 허민?(고기 낚을 때는 뭐 뭐 들고 갔었나요, 남자 어른들. 낚시로 해서 낚으려고 하면?)

105010 #1 질구덕 새끼 친 돌앙.('질구덕' 새끼 끈 달아서.)

105010 @ 친 돌앙.(끈 달아서.)

105010 #1 밀쿠덕[135].('밀쿠덕'.)

105010 @ 밀쿠덕이엔도 골아난?('밀쿠덕'이라고도 말했어?)

105010 #1 으.(으.)

105010 @ 질구덕. 거기에 낚시대 놓고?('질구덕'. 거기에 낚시대 놓고?)

105010 #1 낚시대 놓곡덜 그 갈치 나끄는 줄이영 헹장이영 놩. 엿날은 그 돌렝이[136]베끼 더 셔사게. 그 질구덕 새끼 친 돌앙 보제기 메영 뎅기고.(낚시대 놓고들 그 갈치 낚는 줄이랑 행장이랑 놓고. 옛날은 그 '돌렝이'밖에 더 있어. 그 '질구덕' 새끼 끈 달아서 어부 메서 다니고.)

105011 @ 거민 거기에 낚싯줄 허고 낚싯대 허젠 허민, 낚싯대야 대나물 끈엉 갓주만은.(그럼 거기에 낚싯줄 하고 낚싯대 하려고 하면, 낚싯대야 대나무를 끊어서 갔지만.)

105011 #1 대나무 끈엉 걸로 안 뒌다.(대나무 끊어서 걸로 안 된다.)

105011 @ 그럼?(그럼?)

105011 #1 춤대, 춤대허고 갈치 거튼 건 그냥 줄, 줄 잡앙 험세게.(참대, 참대하고 갈치 같은 건 그냥 줄, 줄 잡아서 하고 있어.)

105011 @ 그 줄은 어떵 구헹 헴신고? 사당?(그 줄은 어떻게 구해서 하지? 사다가?)

105011 #1 줄은 삼사 헴신지 거멍허더라 거멍. 거멍허영 ᄒᆞ꼼 술져라[137]. 갈치 나끄는 건.(줄은 사서 하는지 거멓더라, 거멓고. 거메서 조금 굵어. 갈치 낚는 건.)

105012 @ 거민 물에 들 때 해녀들도 물고기 잡아나지 안헨?(그럼 물에 들 때 해녀들도 물고기 잡았었지 않아?)

105012 #1 어.(어.)

105012 @ 뭐 들렁 가?(뭐 들고 가?)

105012 #1 엿날은 총 소살. 소살 멘들앙이 고무줄 헤영 짝 늘뢍 영 헤영 착. 경헤영 쏘아.(옛날은 총 작살. 작살 만들어서 고무줄 해서 쫙 늘려서 이렇게 해서 착. 그래서 쏘아.)

105012 @ 소살로? 삼춘도 경헨 뭔가 잡아낫수과?(작살로? 삼촌도 그래서 뭔가 잡았었습니까?)

105012 #1 아니. 이제도 소살 가졍 드는 사름은 든다. 광어. 그거 싯당 하나썩 봐지는 따문. (아니. 이제도 작살 가져서 드는 사람은 든다. 광어. 그거 있다가 하나씩 보이는 때문.)

105012 @ 아이고, 맛좋켜.(아이고, 맛있겠다.)

---

135) '밀쿠덕'은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자그마한 바구니를 말한다.

136) '돌렝이'는 자그마한 바구니를 말한다.

137) '술지다'는 표준어의 '살지다'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105010 #1 으, 골겡이로도 찔러 ᄉᆞ못 멧 키로짜리 올리는 사름도 싯나.(으, 호미로도 찔러서 사뭇 몇 킬로그램짜리 올리는 사람도 있어.)

105010 @ 골겡이로 그거 찔렁?(호미로 그거 찔러서?)

105010 #1 탁 찔렁 ᄉᆞ못 안아.(탁 찔러서 사뭇 안아.)

105010 @ 복젱이는 뭐로 잡아낫수과, 아까 막 복젱이 하낫덴 헤신디?(복어는 뭐로 잡았었습니까, 아까 마구 복어 많았다고 했는데?)

105010 #1 복젱이 거 갈치 나끄듯이게 그 줄로게.(복어 거 갈치 낚듯이 그 줄로.)

105010 @ 아, 줄 내령 잡는 것과, 복젱이?(아, 줄 내려서 잡는 겁니까, 복어?)

105010 #1 으게.(으.)

105013 @ 거리는 게 아니엿구나. 고깃배덜 나가낫지예. 남자어른덜?(뜨는 게 아니었구나. 고깃배들 나갔었지요. 남자어른들?)

105013 #1 막 보자기덜 하낫저.(마구 어부들 많았어.)

105013 @ 보자기덜예?(어부들?)

105013 #1 으.(으.)

105013 @ 그 고깃배를 불르는 일름이 잇어나신가? 모르고예. 게민 해녀들 물질 가면은 아까 잡앗던 것덜은 골앗고 뭐 뭐 가져 갑니까, 물질 갈 때 여기서?(그 고깃배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모르고요. 그럼 해녀들 물질 가면 아까 잡았던 것들은 말했고 뭐 뭐 가져갑니까, 물질 갈 때 여기서?)

105015 #1 비창[138].(‘비창’.)

105015 @ 비창.(‘비창’.)

105015 #1 상군덜은 가정가도 우린 골겡이베끼 아이 가져가.(‘상군’들은 가져가도 우린 호미밖에 안 가져사.)

105015 @ 골겡이만 가져가? 비창 엇이? (호미만 가져가? ‘비창’ 없이?)

105015 #1 으.(으.)

105015 @ 구덕에 뭐 담앙 갈 것과? 영 질구덕에?(‘구덕’에 뭐 담아서 갈 겁니까? 이렇게 ‘질구덕’에?)

105015 #1 우린 비니루에. 이젠 질구덕 엇어부난.(우린 비닐에. 이젠 ‘질구덕’ 없으니까.)

105015 @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물질헐 때.(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물질할 때.)

105015 #1 옛날에 질구덕에 골겡이 놓고 속곳[139], 눈이영 헹장 놩 가주게. 경헌디 뽕돌은 고무옷 엇인 때난 뽕똘은 엇어. 속곳 그냥 허고 허민 얼엇주게. 물적삼[140] 입곡게. 광목 수건 쓰곡게.(옛날에 ‘질구덕’에 호미 넣고 ‘속곳’, 물안경이랑 행장 놔서 가지. 그런데 봉돌은 고무옷 없을 때니까 봉돌은 없어. ‘속곳’ 그냥 하고 하면 추웠지. ‘물적

138) ‘비창’은 주로 전복을 따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한다. 길이는 약 30센티미터 정도로, 자루의 끝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말총으로 만든 끈을 달아 놓는다.

139)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광목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물소중이’, ‘소중이’, ‘소중기’라고도 한다.

140) ‘물적삼’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을 말하다.

삼’ 입고. 광목 수건 쓰고.)

105015 @ 게난 광목 수건 쓰고 물적삼 입곡?(그러니까 광목 수건 쓰고 ‘물적삼’ 입고?)

105015 #1 으, 경허난 오죽 얼것가게.(으, 그러니까 오죽 추웠니.)

105015 @ 게민 영 물에 들엇당 나오면은 갈아입을 것도 가져가고?(그럼 이렇게 물에 들었다가 나오면 갈아입을 것도 가져가고?)

105015 #1 으게. 입엉 간 거 벗어 덩 그 물옷 입으민 거 입을 거주게. 게난 이제철록 뭐 목욕탕에서 헤와시냐. 그냥 입엉 닥닥 털멍 불 초와낫주게.(으. 입고 간 거 벗어 두고 그 물옷 입으면 거 입을 거지. 그러니까 이제처럼 뭐 목욕탕에서 헹궜니. 그냥 입고 닥닥 떨면서 불 쬐었었지.)

105015 @ 게니까 오래 잇지 못허고 두 시간 헹 불 초왕 또 들고?(그러니까 오래 있지 못하고 두 시간 해서 불 쬐서 또 들고?)

105015 #1 으.(으.)

105015 @ 불 초왕 또 들고?(불 쬐고 또 들고?)

105015 #1 아니.(아니.)

105015 @ 멧 번?(몇 번?)

105015 #1 두 번.(두 번.)

105015 @ 딱 두 번?(딱 두 번?)

105015 #1 으.(으.)

105015 @ 한 번 들엉 불 초앙 다시 한 번 들엉?(한 번 들어서 불 쬐서 다시 한 번 들어서?)

105015 #1 으.(으.)

105015 @ 그걸로 끝?(그걸로 끝?)

105015 #1 으.(으.)

105015 @ 물질 가젠 허민 질구덕에 속곳 놓고 골겡이 놓고 헹 가는 거예.(물질 가려고 하면 ‘질구덕’에 ‘속곳’ 넣고 호미 넣고 해서 가는 거요.)

105015 #1 으, 눈도 이제 하꼬[141] 눈 하꼬에 눈 담고.(으, 물안경도 이제 상자 물안경 상자에 물안경 담고.)

105015 @ 삼춘은 소살은 따로 안 챙겨신게예?(삼촌은 작살은 따로 안 챙겼네요?)

105015 #1 난 소살은 안 허연.(난 작살은 안 해.)

105015 @ 지들커도 그디에 담앙 갈 거 아니?(땔감도 거기에 담아서 갈 거 아니?)

105015 #1 어게. 줄께[142]나 경 안허민 뭇으로 무껑 가졍가나. 불 초아사주게. 경 안허민 두 번 들 때엔 처음 헐 때 막 초아 불민 두 번 들 땐 막 지들커 족으카 부덴 따시왕 헐 거 놔두라, 놔두라 헤낫주. 겨고 두 번 들젠 허민이 그 입엉 젖은 속곳 입젠 허민 또 추웡 뱃데기 실렵고.(그래. ‘줄께’나 그렇지 않으면 뭇으로 묶어서 가져가거나. 불 쪼

141) ‘하꼬’는 일본어 ‘はこ’로 ‘상자’라는 의미다.

142) ‘줄께’는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들 때엔 처음 할 때 마구 쪼아 버리면 두 번 들 땐 아주 땔감 적을까 봐 다시 와서 할 거 놔두라, 놔두라 했었어. 그리고 두 번 들려고 하면 그 입어서 젖은 '속곳' 입으려고 하면 또 추워서 배 시리고.)

105016 @ 기민 옛날에 물질허는 거랑 지금 물질허는 거랑 ᄐᆞ난 게 뭐가 잇수과? 우선은 고무옷 입는 거 잇고.(그럼 옛날에 물질하는 거랑 지금 물질하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고무옷 입는 거 있고.)

105016 #1 이제에 물질은 얼질 안허난게. 오리발 신으민게 빨리 휘여도 지곡게.(이제 물질은 춥지 않으니까. 오리발 신으면 빨리 헤엄칠 수도 있고.)

105016 @ 빨리 휘여도 지곡. 옛날에는 두 시간 두 시간 허영 거의 네 시간 정도 일을 헷었던 거잖아예? 지금은 한 번 물에 들민 얼마나?(빨리 헤엄칠 수 있고. 옛날에는 두 시간 두 시간 해서 거의 네 시간 정도 일을 했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한 번 물에 들면 얼마나?)

105016 #1 네 시간.(네 시간.)

105016 @ 한 번 물에 들엉 네 시간?(한 번 물에 들어서 네 시간?)

105016 #1 으.(으.)

105016 @ 경도 살아져?(그렇게도 살 수 있어?)

105016 #1 으. 경헨 남세. 네 시간 더 살진 안허고 네 시간 안트로 날 때 싯고.(으. 그렇게 나오고 있어. 네 시간 더 살진 않고 네 시간 안으로 날 때 있고.)

105016 @ 나왓당 또 들어가지 않지예?(나왔다가 또 들어가지 않지요?)

105016 #1 아니.(아니.)

105016 @ 그냥 네 시간 살앙.(그냥 네 시간 살아서.)

105016 #1 경허민 목욕탕에 왕 목욕허민 뜻뜻허게게 물 데왕 놔두민 그것덜 허영 ᄉᆞ못 샴푸로 머리덜 ᄀᆞᆷ곡 이제사 호강이주기게.(그럼 목욕탕에 와서 목욕하면 따뜻하게 물 데워서 놔두면 그것들 해서 사뭇 샴푸로 머리들 감고 이제야 호강이지.)

105017 @ 그 속곳 같은 거는 다 이녁냥으로 멘들앗수과?(그 '속곳' 같은 거는 다 자기대로 만들었습니까?)

105017 #1 엿날 다 멘들안. 손으로 멘드는 사람, 미싱[143] 헹 멘드는 사름. 나 이제도 속곳을 ᄆᆞᆯ랑 멘들충 알아지켜.(옛날 다 만들었어. 손으로 만드는 사람, 재봉틀 해서 만드는 사람. 나 이제도 속곳을 말라서 만들 줄 알아.)

105017 @ 옛날 입어난 속곳은 엇고?(옛날 입었던 '속곳'은 없고?)

105017 #1 엇어. 거 이제.(없어. 거 이제.)

105017 @ 아이고게, 하하하. 그거 잇이민 박물관 갈 건디.(아이고, 하하하. 그거 있으면 박물관 갈 건데.)

105017 #1 우이 물적삼[144] 다 ᄃᆞᆯ메기[145] ᄃᆞᆯ멍.(위에 '물적삼' 다 'ᄃᆞᆯ메기' 달면서.)

105017 @ ᄃᆞᆯ메기 ᄃᆞᆯ멍 경 멘들아난 거.('ᄃᆞᆯ메기' 달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

---

143) '미싱'은 일본어 'ミシン'으로 '재봉틀'이라는 의미다.
144) '물적삼'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을 말하다.
145) 'ᄃᆞᆯ메기'는 매듭단추를 말한다. 'ᄃᆞᆯ마기', '벌ᄆᆞ작'이라고도 한다.

105017 #1 게메 그거 이제 시민. 거 우리 어머니네 젱기 거튼 거 도고리 거튼 거이 우리 오빠네 서울 사난 창고에 놩 놔둔 거 우리 말젯어멍 밧거리에 사난 우리 말젯어멍 다 풀아먹어 베서라. 항아리덜이고. 거 경 헐 것가. 동세 시아주방 아덜. 아이고, 나 늘ᄀᆞ라만 ᄀᆞᆯ암저.(글쎄 그거 이제 있으면. 거 우리 어머니네 쟁기 같은 거 '도고리' 같은 거 우리 오빠네 서울 사니까 창고에 놓아 놔둔 거 우리 셋째 어머니 바깥채 사니까 우리 셋째 어머니가 다 팔아먹어 버렸더라. 항아리들이고. 거 그렇게 할 거니. 동서 시아주버니 아들. 아이고, 나 너에게만 말해.)

105017 @ 아, 어떵해.(아, 어떡해.)

105017 #1 다 풀아 벤. 우리 어머니넨이 친정에서도 부제고게 아덜 엇고 허난 물려도 우리 성할망도게 큰아덜이고 허난에야 오빠네 물려주난 저 시에 허단 저 서울 세무서로 글로 발령 난 가멍 ᄆᆞᆫ짝 이디 거 다 시꺼왓주기게. 경헨 큰 창고로 하나 허연 놔두난 ᄆᆞᆫ짝.(다 팔아 버렸어. 우리 어머니네는 친정에서도 부자고 아들 없고 하니까 물려받아도 우리 친할머니도 큰아들이고 하니까 오빠네 물려주니까 저 시에 하다가 저 서울 세무서로 거기로 발령 나서 가면서 모두 여기 거 다 실어왔지. 그래서 큰 창고로 하나 해서 놔두니까 모두.)

105017 @ 엇어?(없어?)

105017 #1 ᄒᆞᆫ 번은 간 보난 아무것도 엇어게. 양, 이디 항덜 다 어디 갓수과, 허난 저 거세기 개영덕[146]더레 강 다 데껴 벳저. 아, 무사 개영덕더레 강 데낍니까? 경허난에 몰르켜게. 허멍.(한 번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 여기 항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저 거시기 '개영덕'으로 가서 다 던져 버렸어. 아, 왜 '개영덕'으로 가서 던집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하면서.)

105017 @ 하하하.(하하하.)

105017 #1 야 데끼민 벌러진 항아리 굽이라도 실 거 아니가?(야 던지면 깨진 항아리 굽이라도 있을 거 아니니?)

105017 @ 잇주마씨, 잇주마씨.(있지요, 있지요.)

105017 #1 경헌디이 생거짓말을 허고이. 아이고, 말도 말라. 경헷자 나 ᄃᆞ퉈 보지도 안허고이 ᄃᆞ퉈 봣저 뭐 나오지도 안헐 거고 창피스러운 일 아니가, 그거?(그런데 생거짓말을 하고. 아이고, 말도 말라. 그래도 나 다퉈 보지도 않고 다퉈 보아도 뭐 나오지도 않을 거고 창피스러운 일 아니니, 그거?)

105017 @ 맞수다, 맞수다. 그럼 옛날에 속곳 입당 영 고무옷 나온 게 삼춘 멧 살 때쯤인 거 같으과?(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옛날에 '속곳' 입다가 이렇게 고무옷 나온 게 삼촌 몇 살 때쯤인 거 같습니까?)

105017 #1 속곳 입당, ᄒᆞᆫ 서른댓에 고무옷이 나와실 거라.('속곳' 입다가, 한 서른댓에 고무옷이 나왔을 거야.)

105017 @ 서른댓에예. 게난 확실히 고무옷 입으난 물에 오래 살아진 거라예?(서른댓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고무옷 입으니까 물에 오래 살 수 있는 거지요?)

---

146) '개영덕'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지명이다.

105017 #1 난 처음에 고무옷, 놈덜 고무옷 입엉 막 돈 벌엄젠 헤도 안 허당 아방 퉤직허여 가난에 요디 최승희 각시가 언니 나영 벗허여, 벗허여 허영 이젠 흔디 천출 헌 디이 옷을 맞추와네 이제 처음으로 입으난 경 여린 거 츠례도 몰란게. 영허영 입엉이영 허영 내리왕 베려 보난 뭐 쥐여젼 이거 뭣이엔, 야 이거 뭣고 헨 보난 옷 ᄇᆞ령 쥐여젼게.(난 처음에 고무옷, 남들 고무옷 입고 마구 돈 번다고 해도 안 하다가 아버지 퇴직해 가니까 요기 최승희 각시가 언니 나랑 벗해, 벗해 해서 이젠 같이 우뭇가사리를 했는데 옷을 맞춰서 이제 처음으로 입으니까 그렇게 여린 거 차례도 몰랐어. 이렇게 입어서 이렇게 해서 내려서 봐 보니까 뭐 쥐어져서 이거 뭐이냐고, 야 이거 뭐지 해서 보니까 옷 찢어서 쥐어졌어.)

105017 @ ᄇᆞ려 불언? 아이고.(찢어 버렸어? 아이고.)

105017 #1 게난 부찌민 뒈는 거라도 아이고, 경허영 이젠 베설 가죽 다. 허난 이젠 그 옷 입엉이 뽕똘을 차난 뽕똘을 그걸 딱 맞추와사 헐 거 아니가. 족게 저 작게 가졍 가노난이 둥둥 트멍 내려가지 못허연게.(그러니까 붙이면 되는 거라도 아이고, 그래서 이젠 배설 가죽 다. 그러니까 이젠 그 옷 입고 봉돌을 차니까 봉돌을 그걸 딱 맞춰야 할 거 아니니. 작게 저 작게 가져서 가니까 둥둥 뜨면서 내려가지 못했어.)

105017 @ 하하하.(하하하.)

105017 #1 경허연 흔착으로는 몸 심고 흔착으로만 천초 튿으난 얼멜 허느니? 경허난 어른덜은 그것도 모르고 지픈 디 이레 오라, 이레 오라 허난에.(그래서 한쪽으로는 몸 잡고 한쪽으로만 우뭇가사리 뜯으니까 얼마나 하겠니?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고 깊은 데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니까.)

105017 @ 가져게?(갈 수 있어?)

105017 #1 가져게. 경허난이 올렝이 진 올렝이 이레 제기 오라 오라 헤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오리, 긴 오리 이리 재게 와라, 와라 해도.)

105017 @ 하하하.(하하하.)

105017 #1 겐 못 간 헤난디 그 뒷해부떤 우리 타지 안허쿠덴. 조케영 우리만 허주. 할망덜 잘헴저, 못헴저 허고. 안 허쿠덴 허연 우리 질로지썩 허연 그해부떤 질로지썩 허연 헌 거 이제 거저 질로지썩 헷주게.(그래서 못 가서 했었는데 그 이듬해부터는 우리 타지 않겠다고. 조카랑 우리만 하지. 할머니들 잘한다, 못한다 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 제각각 해서 그해부터는 제각각 해서 한 거 이제 거의 제각각 했지.)

105017 @ 아. ᄀᆞ치 안 헹.(아. 같이 안 해서.)

105017 #1 으, 질로지썩 허난 나도 천초 떨어지지 안허영 헤낫주게. 열 구부리[147] 안터레 헤 보진 안허연.(으. 제각각 하니까 나도 우뭇가사리 떨어지지 않고 했었지. 열 '구부리' 안으로 해 보진 않았어.)

105017 @ 어, 게난 하영 허는 거 아니 그거는?(어,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니 그거는?)

147) '구부리'는 마른 우뭇가사리 한 마대를 세는 단위이다. 제보자의 설명에 의하면, 30킬로그램 한 마대를 한 구부리라고 한다

105017 #1 으. 보통.(으. 보통.)

105018 @ 톳은 여기 톳도 작업헙니까?(톳은 여기 톳도 작업합니까?)

105018 #1 어게. 톳은 전인 몰류와.(그래. 톳은 전에는 말려서.)

105018 @ 이거 톳은 공동으로 허는 거 개인으로 허는 거?(이거 톳은 공동으로 하는 거 개인으로 하는 거?)

105018 #1 공동으로.(공동으로.)

105018 @ 공동으로. 작업허젠 허민 어떵헤?(공동으로. 작업하려고 하면 어떡해?)

105018 #1 톳 허여근에 전인 공동으로 허영 몰령 창고에 데명 다 그걸 담으멍 풀아 주기게. 경헌디 이젠 우리 신창은 물톳[148]으로.(톳 해서 전에는 공동으로 해서 말려서 창고에 쌓아서 다 그걸 담으면서 팔았지. 그런데 이젠 우리 신창은 '물톳'으로.)

105018 @ 아, 안 몰령?(아, 안 말려서?)

105018 #1 안 몰령. 저 공장에서가 왕. 이 신창 톳은 좋는 따문.(안 말려서. 저 공장에서가 와서. 이 신창 톳은 좋기 때문에.)

105018 @ 아, 기과? 그럼 생으로?(아, 그렇습니까? 그럼 생으로?)

105018 #1 생으로 허연 신창 건 받아 가. 경허민 올린 막 물 조류 나빠부난 톳 다 벗어지멍 다. 경허영 헤도 흔 이틀 허난 다 허연게. 좋아난 톳이 경 파도 쎄고 경허난. 흐루 헌 것이 게도 흔 삼만 오천 원썩 이틀 허영 칠만 원. 전이 멧 십만 원썩 갈라.(생으로 해서 신창 건 받아 가. 그러면 올해는 아주 물 조류 나빠서 톳 다 벗어지면서 다. 그래서 해도 한 이틀 하니까 다 했어. 좋았던 톳이 그렇게 파도 세고 그러니까. 하루 한 것이 그래도 한 삼만 오천 원씩 이틀 해서 칠만 원. 전에 몇 십만 원씩 갈라.)

105018 @ 아.(아.)

105018 #1 톳이 좋아. 바당이 널르고 허난.(톳이 좋아. 바다가 넓고 하니까.)

105018 @ 아, 아. 게민 그거 수협에서 풀앙 개인으로 나눠구나.(아, 아. 그럼 그거 수협에서 팔아서 개인으로 나누는구나.)

105018 #1 으.(으.)

105018 @ 몰리지 안헹. 게민 몰리는 일은 안 헤도 뒈큰게.(말리지 않고. 그럼 말리는 일은 안 해도 되겠네요.)

105018 #1 간단허난 이것이 좋아. 다마네기 허단 멧 시간 강, 서너 시간 강 헹 허민. 이젠 어촌계에서 그 땅을 매립헛주게. 긋새 그 우리 아덜이 어촌 계장을 흔 십 년 헴서. 일 잘헤부난 막. 올리도 선거허난 서른네 표만 못 먹엉 다 몰표 헷주게.(간단하니까 그것이 좋아. 양파 하다가 몇 시간 가서, 서너 시간 가서 해서 하면. 이젠 어촌계에서 그 땅을 매립했지. 아까 그 우리 아들이 어촌 계장을 한 십 년 하고 있어. 일 잘하니까 아주. 올해도 선거하니까 서른네 표만 못 먹고 다 몰표 했지.)

105018 @ 대개 젊어 보이던데 아드님이.(아주 젊어 보이던데 아드님이.)

105018 #1 이제 쉰으섯인가, 멧인가 몰르켜.(이제 쉰여섯인가, 몇인가 모르겠어.)

105018 @ 아, 어촌계 일헴구나.(아, 어촌계 일하는구나.)

148) '물톳'은 말리지 않은 톳을 말한다.

105018 #1 경허영 헌디 발이 널르고 뭐 사업 따오는 것도 잘 따와.(그래서 했는데 발이 넓고 뭐 사업 따오는 것도 잘 따와.)

105019 @ 아, 경헴구나. 게민 우미는 개인이 허는 것과, 공동으로 허는 것과?(아, 그러는구나. 그럼 우뭇가사리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105019 #1 다 일 지구 이 지구 삼 지구 경헨 나누주게. 경허민 일 구역 이 구역 삼 구역 ᄉᆞ 구역 허영 나누는디 이젠 일 구역 드는 사름, 이 구역 드는 사름 허영 그 안에서 다 이젠 질로지썩.(다 일 지구 이 지구 삼 지구 그렇게 나누지. 그러면 일 구역 이 구역 삼 구역 사 구엿 해서 나누는데 이젠 일 구역 드는 사람, 이 구역 드는 사람 해서 그 안에서 다 이젠 제각각.)

105019 @ 아, 일 구역, 이 구역 나누는 거는 저 뭐?(아, 일 구역, 이 구역 나누는 거는 저 뭐?)

105019 #1 돈 오천 원썩 내영 일 지구역 들 사름은 일 지구역 들고, 이 지구역 들 사름은 이 지구역 들고 경허영 이제 해경 헐 때는 다 천촌 지만썩.(돈 오천 원씩 내서 일 지구역 들 사람은 일 지구역 들고, 이 지구역 들 사람은 이 지구역 들고 그래서 이제 해경 할 때는 다 우뭇가사리는 자기만큼씩.)

105019 @ 게민 일 구역, 이 구역은 바다를 영 나누는 거?(그럼 일 구역, 이 구역은 바다를 이렇게 나누는 거?)

105019 #1 어.(어.)

105019 @ 게민 우미도 좋은 구역이 잇고 안 좋은 구역이 잇지 안허여. 다 ᄀᆞ타?(그럼 우뭇가사리도 좋은 구역이 있고 안 좋은 구역이 있지 않아. 다 같아?)

105019 #1 다 우민 좋아, 이디.(다 우뭇가사린 좋아, 여기.)

105019 @ 아, 신창이 막 바다가 좋구나.(아, 신창이 아주 바다가 좋구나.)

105019 #1 아이고, 천초 바당은 한림 수협에서 일등일 거여. 천초 육지 사람도 신창 천촌 좋덴 허영 우리 거 시엣 꿈으로 다 주느네. 이 낙찰 안 헹이라도 시에 우미 최고 천초 값 나민 신창 건 최고로.(아이고, 우뭇가사리 바다는 한림 수협에서 일등일 거야. 우뭇가사리 육지 사람도 신창 우뭇가사리 좋다고 해서 우리 거 시의 값으로 다 줘. 이 낙찰 안 해서라도 시에 우뭇가사리 최고 우뭇가사리 값 나면 신창 건 최고로.)

105019 @ 아, 기구나, 기구나.(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105019 #1 으.(으.)

105019 @ 구역만 나눠 다 개인이 허는 거예?(구역만 나눠서 다 개인이 하는 거요?)

105019 #1 으. 나가 ᄌᆞ물민 풍중[149]은 다 하나썩 잇어야 뒈여. 풍중 엇이는 못 허여. 나 늙어노난 뜯어내는 건 잘헤도 지여 내치지 못허주.(으. 내가 캐면 '풍중'은 다 하나씩 있어야 돼. '풍중' 없이는 못해. 나 늙으니까 뜯어내는 건 잘해도 지어 내치지 못하지.)

105019 @ 풍중이 뭐과?('풍중'이 뭡니까?)

149) '풍중'은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들어 주기 위해, 해녀가 바다에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 나가서 마중하는 이를 말한다.

105019 #1 이 천초 뜯으민 지여 뎅기고 시꺼오고 허는 것이 풍중이주.(이 우뭇가사리 뜯으면 지어 다니고 실어오고 하는 것이 '풍중'이지.)

105019 @ 게민 그거 누게가 헴서. 아덜이?(그럼 그거 누가 해. 아들이?)

105019 #1 아덜도 허곡 놉 빌엉도 허고. 난 저 아덜 시난 헴주 아덜 엇이민 못허여.(아들도 하고 놉 빌려서도 하고. 난 저 아들 있으니까 하지 아들 없으면 못 해.)

105019 @ 기지예. 그거 풍종이렌 허여, 그거 날라주는 사람?(그렇죠. 그거 '풍종'이라고 해, 그거 날라주는 사람?)

105019 #1 으.(으.)

105019 @ 풍종?('풍종'?)

105019 #1 풍중. 풍중 허레 갓저. 우미 풍중 가세.('풍중'. '풍중' 하러 갔어. 우뭇가사리 '풍중' 갔어.)

105020 @ 예. 게민 전복이랑 구젱기는 그거는 개인으로 잡는 거?(예. 그럼 전복이랑 소라는 그거는 개인으로 잡는 거?)

105020 #1 개인으로 다 잡주게. 개인으로 잡앙 이제 조락[150]에, 전복은 큰 거 치수허여. 금지기엔 전복 못 허주게. 경허영 그 치수 크민 이젠 금지기에 벗어낭 산란기에 벗어난 땐 어촌계로 왕 풀고 이제 구젱기도 매날 받아가지 안허영 조락에 놩 다 커 이녁만썩.(개인으로 다 잡지. 개인으로 잡아서 이제 '조락'에, 전복은 큰 거 치수해. 금지기에는 전복 못 하지. 그래서 그 치숫 크면 이젠 금지기에 벗어나서 산란기에 벗어난 땐 어촌계로 와서 팔고 이제 소라도 매날 받아가지 않아서 '조락'에 놔서 다 커 자기만큼씩.)

105020 @ 으.(으.)

105020 #1 경허민 한림 수협에서 뜨레 오민 그땐 다 줄기 심엉 이녁 헌 거만썩 다 멧 키로 멧 키로 다 재영 다 풀아.(그러면 한림 수협에서 뜨러 오면 그땐 다 줄기 잡아서 자기가 한 거만큼씩 다 몇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다 재서 다 팔아.)

105020 @ 그거 잡아 왕 먹기도 허고 허지예?(그거 잡아 와서 먹기도 하고 하지요?)

105020 #1 게게. 먹으민 풀지 안허고. 이녁 헌 거난.(그래. 먹으면 팔지 않고. 자기 한 거니까.)

105021 @ 전복에도 영 종류가 잇수과?(전복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까?)

105021 #1 수천복, 암천복.(수전복, 암전복.)

105021 @ 수천복이랑 암천복 어떻게 ᄐᆞ납니까?(수전복이랑 암전복 어떻게 다릅니까?)

105021 #1 수천복은 수룽허고[151] 솔이 두텁주게. 이 통이 지프고 이제 암천복은 넵작허여 빼짝[152]. 우리추룩 ᄆᆞᆯ른 사름 모냥으로.(수전복은 '수룽하고' 살이 두껍지. 이 통이 깊고 이제 암전복은 넙작해서 '빼짝'. 우리처럼 마른 사람 모양으로.)

---

150) '조락'은 그물 따위로 잘게 엮어 만든 작은 주머니를 말한다. 주로 해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에 매달아 소라나 전복 등을 넣는다.

151) '수룽허다'는 두툼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52) '빼짝'은 살이 없이 마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05021 @ 빼짝허고.(‘빼짝하고’.)

105021 #1 수천복은 술진 사람 모냥으로. 이 겁넝 이디도 움팡허영.(수전복은 살찐 사람 모양으로. 이 전복껍데기 여기도 움푹해서.)

105021 @ 게민 뭐가 맛좋아?(그럼 뭐가 맛있어?)

105021 #1 수천복이 아멩헤도 술 하고 맛좋주.(수전복이 아무래도 살 하고 맛있지.)

105021 @ 소라도 소라도?(소라도 소라도?)

105021 #1 소란.(소라는.)

105021 @ 구젱기, 구젱기?(소라, 소라?)

105021 #1 구젱긴 다 일체고. ᄀᆞ에 어떵 허당이. 먼 바당에 살 한 거보다 ᄀᆞ에서라도 ᄋᆞ물 한 거 어디 그런 것이 싯나게. 그디 건 ᄋᆞ물 하고 그런 것이 맛좋주게. 껍데기 얄팡허여도 ᄋᆞ물도 하고 뭉클뭉클헌 거. 먼 바당에 건 겁넝만 닥살만 크고 두꺼웁고 구제기 질겨, 질겨.(소라는 다 일체이고. 가에 어떻게 하다가. 먼 바다에서 살 많은 것보다 가에서라도 여물 많은 거 어디 그런 것이 있어. 거긴 건 여물 많고 그런 것이 맛있지. 껍데기 얄팍해도 여물도 많고 뭉클뭉클한 거. 먼 바다에서 건 전복껍데기만 껍데기만 크고 두껍고 소라 질겨, 질겨.)

105021 @ 구제기 질겨?(소라 질겨?)

105021 #1 ᄀᆞ의 거 홁은 것이 ᄋᆞ물도 하곡게 부드럽주게 부드러워.(가의 거 굵은 것이 여물도 많고 부드럽지, 부드러워.)

105021 @ ᄀᆞ에 경 홁은 것이 이십니까게? 다 잡아부난.(가에 그렇게 굵은 것이 있습니까? 다 잡아버리니까.)

105021 #1 다 잡아도 어떵 어떵 잇나.(다 잡아도 어떻게 어떻게 있어.)

105021 @ 게민 요즘 바당에 씨 뿌립니까?(그럼 요즘 바다에서 씨 뿌립니까?)

105021 #1 아니.(아니.)

105021 @ 다 자연산이라?(다 자연산이야?)

105021 #1 다 자연산이주게.(다 자연산이지.)

107023 @ 옛날에 여기도 자리도 거리고 헤나신가?(옛날에 여기도 자리돔도 뜨고 했었나요?)

107023 #1 아이고, 자리 거렁이 젓 담을 때 엿날에, 엿날 할망덜 자리 거리면 주로 자리젓 반찬베끼 더 이샤게. 뒌장허고 자리젓, 마농지베끼 안 헷주게.(아이고, 자리돔 떠서 젓 담글 때 옛날에, 옛날 할머니들 자리돔 뜨면 주로 자리젓 반찬밖에 더 있어. 된장하고 자리젓, 마늘장아찌밖에 안 했지.)

107023 @ 예.(예.)

107023 #1 멜 들민 멜첫 허고. 것이 기본이라난디 이젠 저 자리 거렁 들어왕 자릿배 들어왕, 두 시쯤에 자릿배 들어온다 허민 자꾸 밸 들어오는 거 아이 들어오는 거 보주게. 경허영 들어와 가민 구덕덜 배러레 데끼멍 줄사.(멸치 들면 멸치젓 하고.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젠 저 자리돔 떠서 들어와서 자릿배 들어와서, 두 시쯤에 자릿배 들어온다 하면 자꾸 배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 보지. 그래서 들어와 가면 바구니들 배에 던

지면서 줄서.)

107023 @ 사젠?(사려고?)

107023 #1 사젠. 헷단에 이제 차로 픗난에. 나도 줍서 나도 줍서. 훼 헹 먹젠덜. 다른 궤기도 엇곡 허민게. 경혜영 가민 사둔님이엔 허영 사둔신딘 풀아주고 저쪽 사름은 사지도 못 허여. 경 좀체로 못 사나서.(사려고. 했다가 이제 차로 파니까.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회 해서 먹으려고들. 다른 고기도 없고 하면. 그래서 가면 사돈님이라고 해서 사돈에게 팔아주고 저쪽 사람은 사지도 못 해. 그렇게 좀체로 못 샀었어.)

107023 @ 어려운 거랏구나.(어려운 거였구나.)

107023 #1 이젠 막 허영 사도. 자리젓도 두 말썩 몇 말썩 헤나세.(이젠 많이 해서 사도. 자리젓도 두 말씩 몇 말씩 했었어.)

107023 @ 삼춘네는 얼마나 담앗수과?(삼촌네는 얼마나 담갔습니까?)

107023 #1 우린 아부지네 두어 말꺼진 헤낫주.(우린 아버지네 두어 말까지 했었지.)

107023 @ 두어 말예. 자리젓을 영 담아 봅서. 자리젓 담젠 허민 어떵 헙니까?(두어 말요. 자리젓을 이렇게 담가 보세요. 자리젓 담그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7023 #1 엿날은 자리젓이 그냥 영 짐작허영 버물려도 두껑도 아이 더끄곡게 산도록헌 그늘진 초가집 막살이 헛간에 삼수세 바작바작 붙엉 픗리 뎅기지 못허는 거 허영 우이 더껑 허난산디 국물이 밋밋[153] 넘고 허여도 자리젓이 경 맛좋안게 이젠 자리젓이 맛이 엇어.(옛날은 자리젓이 그냥 이렇게 짐작해서 버무려도 뚜껑도 안 덮고 시원한 그늘진 초가집 오막살이 헛간에 환삼덩굴 바작바작 붙어서 파리 다니지 못하는 거 해서 위에 덮고 했었는데 국물이 '밋밋' 넘고 해도 자리젓이 그렇게 맛좋았는데 이제는 자리젓이 맛이 없어.)

107023 @ 무산고?(왜지?)

107023 #1 무사 경혜신고? 엿날은 다른 반찬 엇이난 경 맛셔신가. 구숭헌 거 경 짜지도 안허고 벌겋게 맛좋는디 이젠 경 맛이 엇어.(왜 그랬지? 옛날은 다른 반찬 없으니까 그렇게 맛있었나. 구수한 거 그렇게 짜지도 않고 벌겋게 맛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맛이 없어.)

107023 @ 그 자리젓 헐 때 자리젓 담그젠 허민 자리 안 씻어? 씻지 안허여?(그 자리젓 할 때 자리젓 담그려고 하면 자리돔 안 씻어? 씻지 않아?)

107023 #1 사 온 거이 든물에 씻엉은 맛엇나.(사 온 거 단물에 씻어서는 맛없어.)

107023 @ 그냥 그대로?(그냥 그대로?)

107023 #1 그냥.(그냥.)

107023 @ 그대로? 머리 두드리지도 안허고?(그대로? 머리 두드리지도 않고?)

107023 #1 머린 병으로 폭폭 두드리주게.(머린 병으로 폭폭 두드리지.)

107023 @ 자리 만약 혼 말 담는덴 허민 소금은 얼마나?(자리 만약 한 말 담근다고 하면 소금은 얼마나?)

107023 #1 혼 말 담는디 옛날 할망덜은 뒈싱[154] 혼 뒈 놓는덴 헤서.(한 말 담그는데

153) '밋밋'은 거침없이 줄곧 넘어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옛날 할머니들은 큰되 한 되 넣는다고 했어.)

107023 @ 뒈싱 혼 뒈.(큰되 한 되.)

107023 #1 자리 넉 뒈민 소금도 뒈싱 혼 뒈.(자리 넉 되면 소금도 큰되 한 되.)

105023 @ 게민 사 대 일 비율로예. 게민 자리 거리레 가젠 허민 배가 잇잖아예.(그럼 사 대 일 비율로요. 그럼 자리돔 뜨러 가려고 가면 배가 있잖아요.)

105023 #1 풍선게. 사둘로 이만헌 거 허영 사둘질 허는 것도 다 봉 자리 사레 가주게. 둥글랑헌 어음[155] 허영 거려 놓고 허는 거 이 ᄀᆞ에서도 엿날 봐지고 헤낫주게. 이 앞바당에. 게민 오널 사둘질 잘 허영 자리 사짐직허다 허고.(풍선. 사둘로 이만한 거 해서 사둘질 하는 것도 다 봐서 자리돔 사러 가지. 둥그런 '어음' 해서 떠서 놓고 하는 거 이 가에서도 옛날 볼 수 있고 했었지. 이 앞바다에. 그럼 오늘 사둘질 잘 해서 자리돔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105023 @ 하하하. 그런 배들이 하영 잇어낫수과?(하하하. 그런 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105023 #1 혼 댓 척 셔낫주게. 그 하르방덜 다 죽엇주게.(한 댓 척 있었지. 그 할아버지들 다 죽었지.)

105024 @ 아이고, 아이고. 게민 거기에 그 배에 일름이나 아까에 풍선 ᄀᆞ튼 배 말고 거기에 앞에 이름 뒤에 이름 그런 거 알아집니까?(아이고, 아이고. 그럼 거기에 그 배에 이름이나 아까 풍선 같은 배 말고 거기에 앞에 이름 뒤에 이름 그런 거 알 수 있습니까?)

105024 #1 그런 거 엿날 알아지느냐게. 몰라.(그런 거 옛날 알 수 있니. 몰라.)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오늘은 옷 만들앙 입어난 것덜 물어보쿠다. 옷ᄀᆞ슴, 옷ᄀᆞ슴에는 어떤 것덜이 잇어낫수과, 옛날에?(오늘은 옷 만들어서 입었던 것들 물어보겠습니다. 옷감, 옷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106001 #1 엿날은게 물옷도 잠녀질허는 것도 광목, 미녕.(옛날은 물옷도 물질하는 것도 광목, 무명.)

106001 @ 광목, 미녕. 게민 옷ᄀᆞ슴에 미녕도 잇고 또?(광목, 무명. 그럼 옷감에 무명도 있고 또?)

106001 #1 베, 삼, 모시.(베, 삼, 모시.)

106001 @ 또?(또?)

154) '뒈싱'은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인 '되'를 말한다.
155) '어음'은 나무 등을 휘어서 둥그렇게 만들어 그물을 끼워 고정시키는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106001 #1 거 웨에 뭐.(거 외에 뭐.)

106001 @ 시집갈 때 입어난 옷은?(시집갈 때 입었던 옷은?)

106001 #1 시집갈 땐 우리 유동 그땐. 유동 치마. 시집 예식헐 때 희양헌 유동치마에 희양헌 양단 저고리.(시집갈 땐 우리 뉴똥 그땐. 뉴똥 치마. 시집 예식할 때 하얀 뉴똥 치마에 하얀 양단 저고리.)

106001 @ 으, 게민 멩지옷은 못 입어 봣수과?(으, 그럼 명주옷은 못 입어 봤습니까?)

106001 #1 우리 멩지옷은 못 입어 봣저. 엿날 할망덜이 멩지옷 헤영 시집갈 때 영 헷주. 우린 그 시대 벗어나난 유동, 양단, 비로도 치마. 물려주는 거.(우리 명주옷은 못 입어 봤어. 옛날 할머니들이 명주옷 해서 시집갈 때 이렇게 했지. 우린 그 시대 벗어나니까 뉴똥, 양단, 벨벳 치마. 물려주는 거.)

106001 @ 그걸로 헹 입어난예?(그걸로 해서 입었었어요?)

106001 #1 으.(으.)

명주

106002 @ 우선은 멩지, 멩지부터 물어보쿠다. 멩지실 만들젠 허민 어떵 만들아마씨?(우선은 명주, 명주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명주실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요?)

106002 #1 멩지실은 우리 이디 아이 멘들아도 저 육지서 멩질 헤영 그 뽕입에 그 뽕 버렝이 그거 멕영, 그 테레비에 나오는 거추룩 경헤여근에 멩지 허영 빵 풀레 오주게. 강원도 멩지.(명주실은 우리 여기 안 만들어도 저 육지에서 명주 해서 그 뽕잎에 그 뽕 벌레 그거 먹여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처럼 그래서 명주 해서 빼서 팔러 오지. 강원도 명주.)

106002 @ 게민 이쪽 동넨?(그럼 이쪽 동네는?)

106002 #1 이디선 안 헷주기게.(여기선 안 했지.)

106002 @ 안 헨?(안 했어?)

106002 #1 강원도 멩지가 질 알아주주게.(강원도 명주가 제일 알아주지.)

106002 @ 저 남원이나 다른 딘 멩지 헤난 디 이십디다.(저 남원이나 다른 덴 명주 했던 데 있습디다.)

106002 #1 겐디 이딘 멩진 안 헤 봣주게.(그런데 여긴 명주는 안 해 봤지.)

106002 @ 멩지 안 헤 봔예? 게민 누에치고 영 허는 거 잘 모르쿠다예?(명주 안 해 봤어요? 그럼 누에치고 이렇게 하는 거 잘 모르겠네요?)

106002 #1 몰라, 몰라.(몰라, 몰라.)

106002 @ 신창은 멩지 헤난 사람은?(신창은 명주 했던 사람은?)

106002 #1 엇어.(없어.)

106002 @ 어신 거예. 한경면 안에 조수나 그런 디도?(없는 거요. 한경면 안에 조수나 그런 데도?)

106002 #1 그런 디도 엇어.(그런 데도 없어.)

무명

106007 @ 게민 미녕은 알아지지예?(그럼 무명은 알 수 있지요?)

106007 #1 으, 미녕. 멘네 갈앙.(으, 무명. 면화 갈아서.)

106007 @ 멘네 갈앙.(면화 갈아서.)

106007 #1 멘네 갈앙 이제 불라. 무르에에 씨 털어지는 거 잘 괄롸. 이추룩 허영 불롸. 저 불라. 이젠 태우는 디 강 경허영 태왕 저 대로 소게 영 헤영 놩 약간 약간 우리 떡, 떡국 빠는 것출룩 그만썩 허여. 경허영 다 놩 왕 이제 무르에에 이젠 이디 거세기 진 쉐허고 무르에 돌리멍 그걸 빵 영 허영 영 허곡 허영 그걸 멘들아. 실을 뽑아.(면화 갈아서 이제 발라. 물레에 씨 떨어지는 거 잘 말려서. 이처럼 해서 발라. 저 발라. 이젠 태우는 데 가서 그래서 태워서 저 대로 솜 이렇게 해서 놔서 약간 약간 우리 떡, 떡국 뽑는 것처럼 그만큼씩 해. 그래서 다 놓고 와서 이제 물레에 이젠 여기 거시기 긴 쇠하고 물레 돌리면서 그걸 뽑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그걸 만들어. 실을 뽑아.)

106007 @ 으.(으.)

106007 #1 경허영 이젠 그걸 다 웨로 뽑아 논 거 다 감아. 경허영 감앙 올 멧 개 허영 이젠 미녕 메여 다. 그 웨로 웨로 이제 그 우리 얼레기 머리추룩 고냥 모냥 그 실 뽑은 거 다 꿰여. 경허영 이젠 가시리나 구두리[156]로 풀 쒀. 풀 쒕 솔로 멕이멍 이 밑엔 ᄀᆞ시락 불 솔앙 이젠 걸 빗지멍 이철록 감으멍 허젠 허민 해원 바쁘주게 그날은. 경허연 이젠 미녕을 차 그다음에.(그래서 이젠 그걸 다 외로 뽑아 놓은 거 다 감아. 그래서 감아서 올 몇 개 해서 이젠 무명 매어 다. 그 외로 외로 이제 그 우리 얼레빗 머리처럼 구멍 모양 그 실 뽑은 거 다 꿰어. 그래서 이젠 풀가사리나 '구두리'로 풀을 쒀. 풀 쒀서 솔로 먹이면서 이 밑에는 까끄라기 불 때서 이젠 걸 빗기면서 이처럼 감으면서 하려고 하면 해껏 바쁘지 그날은. 그래서 이젠 무명을 짜 그다음에.)

106007 @ 그럼.(그럼.)

106007 #1 이 다리 이철록 허영 영 디물리고 놀 이레 허곡 허멍게. 영 허영 영 디물랑 또 영 허영 영 디물랑. 경허여근에 그거 경허민 그디서가 이 아래 거 우터레 강 또 영 딜이치민 영 허멍 그걸 짜지주기게. 경허영 미녕 짱 ᄒᆞ루 스무장 찻저. ᄒᆞᆫ 빌은 못 차고.(이 다리 이처럼 해서 이렇게 들이밀고 날 이리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이밀어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이밀어서. 그래서 그거 그러면 거기서가 이 아래 거 위로 가서 또 이렇게 들어뜨리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짜지지. 그렇게 무명 짜서 하루 스무 장 짰어. 한 필은 못 짜고.)

106007 @ 삼춘도 경 허영.(삼춘도 그렇게 해서.)

106007 #1 난 ᄒᆞ꼼 배웁단 말안.(난 조금 배우다가 말았어.)

106007 @ 누게안티 배와서?(누구에게 배웠어?)

156) '구두리'는 풀의 재료로 쓰이는 바닷풀의 종류를 말한다.

106007 #1 어무니신디.(어머니에게.)

106007 @ 친정어무니?(친정어머니?)

106007 #1 어무니넨 다 차주게. 집집마다 미녕. 경허고 엿날 물들여. 하도 이젠 그 희양헌 것만 허난 영 허젠 허민 버뭄 타고 허난에이 붉은 물들이고 노랑 물들이고.(어머니넨 다 짜지. 집집마다 무명. 그리고 옛날 물들여. 하도 이젠 그 하얀 것만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더러움 타고 하니까 붉은 물들이고 노란 물들이고.)

106031 @ 으.(으.)

106031 #1 쥐색 들이고 허영이 그거 실 멧 번썩. 요만썩 넙게 짜고 또 다른 색깔도 그만썩 짜곡 헹 색동 이불 모냥으로 경 허영 짱 그걸로 요 겁죽도 허곡.(쥐색 들이고 해서 그거 실 몇 번씩. 요만큼씩 넓게 짜고 또 다른 색깔도 그만큼씩 짜고 해서 색동 이불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요 거죽도 하고.)

106031 @ 그럼 물들일 때는 노란색, 파란색 그거 뭘로 물들입니까?(그럼 물들일 때는 노란색, 파란색 그거 뭐로 물들입니까?)

106031 #1 물레가 풀아. 엿날 물레 장시 와.(물감이 팔아. 옛날 물감 장수 와.)

106031 @ 아, 그 물들이는 걸 물레렌 헐 거?(아, 그 물들이는 걸 '물레'라고 할 거?)

106031 #1 어.(어.)

106031 @ 아, 물레 장시 와.(아, 물감 장수 와.)

106031 #1 으, 장에 강 사단 물레 장시.(으, 장에 가서 사다가 물감 장수.)

106031 @ 예, 예.(예, 예.)

106031 #1 경허영 이디도 신창도 물레 장시 살아낫저.(그래서 여기도 신창도 물감 장수 살았었어.)

106031 @ 어, 장에 풀레 다니는구나.(어, 장에 팔러 다니는구나.)

106031 #1 으, 경허민 거 사단 들여근에 요 거튼 거 그런 거 허고. 또 쥐색이민 쥐색만 허영 놀은 그냥 흰 거라도 꼬리는 거 허민 것도 고와.(그, 그러면 거 사다가 들여서 요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또 쥐색이면 쥐색만 해서 날은 그냥 흰 거라도 꼬리는 거 하면 것도 고와.)

106031 @ 염색헐 때, 그냥 물들일 때예 어떵 물들여나서?(염색할 때, 그냥 물들일 때요, 어떻게 물들였었어?)

106031 #1 물을 영 카. 카근에 소금 ᄒᆞ꼼 놓고.(물을 이렇게 타, 타서 소금 조금 넣고.)

106031 @ 다라이에 물 카는 거?(다라이에 물 타는 거?)

106031 #1 아니 솟에.(아니 솥에.)

106031 @ 솟에.(솥에.)

106031 #1 경허여근에 거 물들이는 솟덜게 경허민 그거 이제 골로로 골로로 적져. 경허영 숢아.(그래서 거 물들이는 솥들 그러면 그거 이제 골고루 골고루 적셔. 그래서 삶아.)

106031 @ 아, 골로로 골로로 적져 가멍.(아, 골고루 골고루 적셔 가면서.)

106031 #1 어, 뒈싸다 어펏다 허멍 골로로 가게 허젠 허믄 솖으멍게 허영.(어, 뒤집었다 엎었다가 하면서 골고루 가게 하려면 하면 삶으면서 해서.)

106031 @ 게난 물들일 때 솟에 놩 솖으는 거구나.(그러니까 물들일 때 솥에 놔서 삶는 거구나.)

106031 #1 어, 솖아. 이제도 솖아.(어, 삶아. 이제도 삶아.)

106031 @ 아니, 우리 감물 들일 때 경 안 허지 안헙니까?(아니, 우리 감물 들일 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106031 #1 건, 감물은.(건, 감물은.)

106031 @ 다른 거?(다른 거?)

106031 #1 감물은 그냥 허여근에 저 허민 자꾸 물만 적젼 너는 거고. 이건 솖아사게. 이제 이 몸뻬에 감물 색깔 이디 완구점에 강 사단 들이는 것도 솖아사.(감물은 그냥 해서 저 하면 자꾸 물만 적셔서 너는 거고. 이건 삶아야. 이제 이 몸뻬에 감물 색깔 여기 완구점에 가서 사다가 들이는 것도 삶아야.)

106031 @ 아, 물 사단 들이는 거는 다 솟에 놩 솖는 거구나?(아, 물 사다가 들이는 거는 다 솥에 놔서 삶는 거구나?)

106031 #1 으, 다 솖는 거주.(으, 다 삶는 거지.)

106031 @ 감물 얘기 나오난예 감물 들여난 것도 골아 줍서.(감물 얘기 나오니까 감물 들였던 것도 말해 주세요.)

106031 #1 감물은 감 ᄒᆞ꼼 컹 물 올라가민 타당. 타당 이제, 이제저제 헤실 거라 으름에. 경허민 그거 방에툭에 다 뼛아. 뼛앙 이젠 감 들일 것더레 막 놀리멍 허여근에 물 적정 ᄒᆞᆫ번은 이짝으로 널고 ᄒᆞᆫ번은 이짝으로 골로로 널곡 허멍. 걸 벌겅케 골로로 가게 허영.(감물은 감 조금 커서 물 올라가면 따다가. 따다가 이제저제 했을 거야 여름에. 그러면 그거 방아확에 다 빻아. 빻아서 이젠 감 들일 것에 마구 놀리면서 해서 물 적셔서 한번은 이쪽으로 널고 한번은 이쪽으로 골고루 널고 하면서. 걸 벌겋게 골고루 가게 해서.)

106031 @ 그 감.(그 감.)

106031 #1 감 들인 옷은 뺄아 가민 검엉허주게. 엿날 할망덜은 뺄지 안헹 입어세게. 엿날 이 일허곡 허난 버무는 처레 몰르고 똠 아이 부뜨게 허젠 그 감 들영. 경 으름에 매날 뺄아지느냐게?(감 들인 옷은 빨아 가면 검었지. 옛날 할머니들은 빨지 않고 입었어. 옛날 이 일하고 하니까 더러워지는 줄 모르고 땀 안 붙게 하려고 그 감 들여서. 그렇게 여름에 맨날 빨 수 있니?)

106031 @ 음.(음.)

106031 #1 물도, 수둣물도 엇곡 어디 쉐 멕이는 물에나 새물[157]에나 가사. 이 신창은 물은 좋아낫저, 맛도 좋곡. 경허민 큰새물[158], 족은새물[159]. 큰새물은 먹는 물, 족은새물은 빨래허는 물.(물도, 수돗물도 없고 어디 소 먹이는 물에나 '새물'에나 가야. 이

157) '새물'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지경에 있는 물 이름이다.
158) '큰새물'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지경에 있는 물 이름이다.
159) '족은새물'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지경에 있는 물 이름이다.

신창은 물은 좋았었어, 맛도 좋고. 그러면 '큰새물', '족은새물'. '큰새물'은 먹는 물, '족은새물'은 빨래하는 물.)

106031 @ 음. 게난 그것도 다 구분헹 잇어낫구나.(음. 그러니까 그것도 다 구분해서 있었구나.)

106031 #1 으, 이제도 구분헹 셔.(으, 이제도 구분해서 있어.)

106031 @ 그 물 나오는 디가 잇수과, 아직도?(그 물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도?)

106031 #1 으.(으.)

106031 @ 물 나와?(물 나와?)

106031 #1 으, 이제도 콸콸 나왐주.(으, 이제도 콸콸 나오고 있어.)

106012 @ 아, 나 사진 찍엉 가쿠다. 아까 멘네 하는 일을 물어봐신디 멘네실 빠젠 허민 농사를 짓어살 거 아니?(아, 나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아까 면화 하는 일을 물어봤는데 무명실 뽑으려고 하면 농사를 지어야 할 거 아니?)

106012 #1 농사졍게. 농사졍 멘네 갈앙.(농사져서 농사져서 면화 갈아서.)

106012 @ 멘네 농사 가는 거 골아 줍서.(면화 농사 가는 거 말해 주세요.)

106012 #1 멘네 갈앙.(면화 갈아서.)

106012 @ 언제 가는 거라?(언제 가는 거야?)

106012 #1 봄에게.(봄에.)

106012 @ 몇 월에?(몇 월에?)

106012 #1 보릿그루[160]에 가는 건 이제 보리 허여 낭 가는 건 ᄒᆞ꼼 늦덴 허고 이르게 가는 건 ᄒᆞᆫ ᄉᆞ월 초파일 ᄀᆞ리에 가는 거.('보릿그루'에 가는 건 이제 보리 하고 나서 가는 건 조금 늦다고 하고 이르게 가는 건 한 사월 초파일 무렵에 가는 거.)

106012 @ 예, 갈앙.(예, 갈아서.)

106012 #1 갈앙 이젠 그거 우막고.(갈아서 이젠 그거 순지르고.)

106012 @ 우막는 게 뭐과?(순지르는 게 뭡니까?)

106012 #1 너미 낭 나 가민 우이로 톡 톧아.(너무 나무 나 가면 위로 톡 뜯어.)

106012 @ 아, 위로 막 크지 말렌 우막고.(아, 위로 마구 크지 말라고 순지르고.)

106012 #1 으, 영 가제기 벌령 멘네 피게. 그처록 허영 이젠 멘네 피민 타당 그거 다 각지 다듬앙.(으, 이렇게 가지 벌려서 면화 피게. 그처럼 해서 이젠 면화 피면 따다가 그거 다 깍지 다듬어서.)

106012 @ 기민.(그럼.)

106012 #1 ᄆᆞᆯ류와.(말려.)

106012 @ 사월 초파일날 멘네 갈앗잖아예?(사월 초파일에 면화 갈았잖아요?)

106012 #1 어.(어.)

106012 @ 게민 멘네는 소까주거나 검질메거나 안 허여?(그럼 면화는 솎아주거나 김매거나 안 해?)

160) '보릿그루'는 '보리를 베고 남은 밑동 또는 그 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쓰였다.

106012 #1 검질메레 가민게 낭 부뜬 것덜 ᄉᆞ꽈 주기도 허주게. 경허영 ᄋᆞ름에 검질 메여 놩 칠팔월 나 가민 타. 팔월, 구월, 시월러레.(김매러 가면 나무 붙은 것들 솎아 주기도 하지. 그래서 여름에 김매 놓고 칠팔월 되어 가면 따. 팔월, 구월, 시월에.)

106012 @ 막 오래 키우는 건 아니다예. 금방인게.(아주 오래 키우는 건 아니네요. 금방이네요.)

106012 #1 으, ᄃᆞ레기 이만썩 허민 물락물락헐 때 그 ᄃᆞ레기도 먹어져. 경허영 이제 그거 피민, 헤양케 피민 멘네 이젠 각지 다 다듬으멍 허여당 바싹 ᄆᆞᆯ류와. 멘네.(으, 다래 이만큼씩 하면 물렁물렁할 때 그 다래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그거 피면, 하얗게 피면 면화 이젠 깍지 다 다듬으면서 해다가 바싹 말려. 면화.)

106012 @ 그 멘네 탄 거를. ᄃᆞ레기차 탑니까, 아니면?(그 면화 딴 거를 다래째 땁니까, 아니면?)

106012 #1 ᄃᆞ레기체 타당 밤이 다듬젠 허민 ᄃᆞ레기로 타당 집이서 다듬고. 또 밧디서 홈치 다듬으멍 타는 사름도 싯고. 경허여근에 이젠 다 ᄆᆞᆯ류왕 경허영 무르에 ᄇᆞᆯ라.(다래째 따다가 밤에 다듬으려고 하면 다래로 따다가 집에서 다듬고. 또 밭에서 한꺼번에 다듬으면서 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젠 다 말려서 그래서 물레에 발라.)

106012 @ 그 솜을 타가지고 그걸 다 ᄆᆞᆯ리는 거?(그 솜을 따가지고 그걸 다 말리는 거?)

106012 #1 다. 잘 ᄆᆞᆯ려사주게. 무르에에 ᄇᆞᆯ리젠 헤도.(다. 잘 말려야지. 물레에 바르려고 해도.)

106012 @ 무르에에 ᄇᆞᆯ리젠 헤도. ᄃᆞ레기는 크기가 얼만큼씩 헤?(물레에 바르려고 해도. 다래는 크기가 얼만큼씩 해?)

106012 #1 요만썩 헌다.(요만큼씩 한다.)

106012 @ 이거에 솜이 막 바삭허게 열려?(이거에 솜이 아주 바삭하게 열려?)

106012 #1 으, 거 피민게.(으, 거 피면.)

106012 @ 피민.(피면.)

106012 #1 피민 것이 나왕 솜이 거랑거랑[161]. ᄇᆞ름이나 불민 그랑그랑 베꼇디도 허고, 나오고. 이것이 갑[162]이 대여섯 갑이 벌리민게. 영 헷단 것이 영허영 벌렁. 게민 이 새에 다 멘네.(피면 것이 나와서 솜이 '거랑거랑'. 바람이나 불면 '그랑그랑' 밖에도 하고, 나오고. 이것이 '갑'이 대여섯 '갑'이 벌어지면. 이렇게 했다가 것이 이렇게 벌어져. 그럼 이 사이에 다 면화.)

106012 @ 아. 멘네, 톡 허게 거둬내는 거라?(아. 면화, 톡 하게 거둬내는 거야?)

106012 #1 어, 어.(어, 어.)

106012 @ 기민 멘네 농사는 얼마 정도 짓어낫수과?(그럼 면화 농사는 얼마 정도 지었었습니까?)

106012 #1 경 하영 안 허주게. 뚤덜 시집보내젠 허민 이불 허여 주저 경허여근에 두

161) '거랑거랑'은 목화 열매 껍질 밖으로 솜이 많이 나온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그랑그랑'이라고도 한다.
162) '갑'은 귤 따위의 껍질을 벗긴 열매가 속껍질로 따로따로 싸인 낱개를 말한다.

어 말지기, 서너 말지기 기자. 흔 말지기 경허여. 하영 허민 손이 하영 가는 거라부난. (그렇게 많이 안 하지. 딸들 시집보내려고 하면 이불 해 주랴 그래서 두어 말지기, 서너 말기지 그저. 한 말지기 그래. 많이 하면 손이 많이 가는 거니까.)

106012 @ 그거 타젠 허민예?(그거 따려고 하면요?)

106012 #1 으.(으.)

106012 @ 게민 멘네로는 무슨 옷을 만들엉 입엇수과?(그럼 면화로는 무슨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까?)

106012 #1 미녕게. 미녕허영게 미녕 적삼, 굴중의 그런 거 허영 감 들영 일헐 때 입는 거주게.(무명. 무명해서 무명 적삼, 홑바지 그런 거 해서 감 들여서 일할 때 입는 거지.)

106012 @ 일헐 때 입는 거예?(일할 때 입는 거요?)

106012 #1 어, 이불안도 헌다. 다 미녕으로 엿날 할망덜은. 우리 시대엔 광목으로 헷주만은 엿날 할망덜은 다 미녕으로 이불안도 허고.(어, 이불안도 한다. 다 무명으로 옛날 할머니들은. 우리 시대엔 광목으로 했지만 옛날 할머니들은 다 무명으로 이불안도 하고.)

106007 @ 미녕에도 영 종류가 이실 거 아니?(무명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을 거 아니?)

106007 #1 미녕에 거 ᄀᆞᆺ새추룩 물들영이나 안 허민 종륜 엇어.(무명에 거 아까처럼 물들여서나 안 하면 종류는 없어.)

106007 @ 혹시 닷새미녕[163] 웃새미녕[164] 허는 거 들어봣수과?(혹시 '닷새미녕' '웃새미녕'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106007 #1 어.(어.)

106007 @ 그건 뭐라?(그건 뭐야?)

106007 #1 그건 ᄒᆞ꼼 좀질게 허는 것ᄀᆞ란게 멧 새 미녕이렌 허고. 홁게 허는 건 이젠 마찬가지. 올이 더 하영 들주게. 겨민 거 차는 놀도 수정이 더 하주게. ᄀᆞ늘게 허젠 허민.(그건 조금 잘게 하는 것보고 몇 새 무명이라고 하고. 굵게 하는 건 이젠 마찬가지. 올이 더 많이 들지. 그럼 거 짜는 날도 수가 더 많지. 가늘게 하려고 하면.)

106007 @ 그런 거에 따라 닷새미녕, 웃새미녕.(그런 거에 따라 '닷새미녕', '웃새미녕'.)

106007 #1 으, 으.(으, 으.)

106007 @ 어느 게, ᄀᆞ는 게 닷새미녕이과, 홁은 게 닷새미녕이과?(어느 게, 가는 게 '닷새미녕'입니까, 굵은 게 '닷새미녕'입니까?)

106007 #1 저 ᄀᆞ는 것이 그 ᄋᆞ라 개 드는 것이 웃새미녕이주기게.(저 가는 것이 그 여러 개 드는 것이 '웃새미녕'이지.)

106007 @ 여러 개 드는 게. 토목, 토멩지 그런 건 안 들어보고?(여러 개 드는 게.

163) '닷새미녕'에서 새는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닷새미녕'은 올이 가장 굵은 무명을 말한다.

164) '웃새미녕'은 '엿새무명'을 말한다. 백스무 올의 날실로 짠 무명으로 거칠고 품질이 좋지 못하다. '닷새미녕'은 품질이 더 좋지 않고, '일곱새미녕'은 아주 올이 고운 무명이다.

토목, '토멩지' 그런 건 안 들어보고?)

106007 #1 그런 멩지 거튼 건 강원도에서만. 우리도 시집 저 상 안네고 허여낫저.(그런 무명 같은 건 강원도에서만. 우리도 시집 저 사서 드리고 했었어.)

106007 @ 으. 그 광목은?(으. 그 광목은?)

106007 #1 광목은 부산서 짜난. 방직에서 짜난 나왕 풀민 허엿주. 여기서 짜도 안허여.(광목은 부산에서 짰었어. 방직에서 짜니까 나와서 팔면 했지. 여기서 짜지도 않아.)

106011 @ 홍세미녕이엔 헌 거 들어봣수과?('홍세미녕'이라고 한 거 들어봤습니까?)

106011 #1 홍세미녕[165]은 아니.('홍세미녕'은 아니.)

106011 @ 그거 시집가젠 허민 홍세함?(그거 시집가려고 하면 '홍세함'?)

106011 #1 아이고, 함에 놓는 거주기게. 그땐 미녕이나 베나 경허여근에 놩 거져가는 거. 예장에 놩.(아이고, 함에 넣는 거지. 그땐 무명이나 베나 그렇게 놔서 가져가는 거. 예장에 넣고.)

106011 @ 예장에 놩예?(예장에 넣고요?)

106011 #1 으.(으.)

106011 @ 삼춘넨 뭐 놩 갓수과?(삼촌네는 뭐 넣고 갔습니까?)

106011 #1 우린 그런 거 안 허고 그냥 예장허영 하꼬[166]에 담앙.(우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예장해서 상자에 담아서.)

106011 @ 아, 예장만 헤가지고?(아, 예장만 해가지고?)

106011 #1 으.(으.)

106012 @ 아까 멘네 짜는 거 한 번 더 골아 줍서. 솜 타민 이제 솜 탕 거기서부터 작업허는 거.(아까 면화 짜는 거 한 번 더 말해 주세요. 솜 따면 이제 솜 따서 거기서부터 작업하는 거.)

106012 #1 작업허는 거, 탕 멘네 무르에에게.(작업하는 거, 따서 면화 물레에.)

106012 @ 그 솜을 바로 멘네 무르에에.(그 솜을 바로 면화 물레에.)

106012 #1 그, 그 으. 멘네 허영 그 영 영 헤 가민 씬 털어지멍 그거 나가주게. 경허영 그걸 와싹 잘 몰려. 경허영 태우는 디 강 태와. 경허영 떡국 빠듯이 빠.(그, 그 으. 면화 해서 그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 씨는 떨어지면서 그거 나가지. 그래서 그걸 바싹 잘 말려. 그래서 태우는 데 가서 태워. 그래서 떡국 뽑듯이 뽑아.)

106012 @ 뭐를 떡국 빠듯이 빠수과?(뭐를 떡국 뽑듯이 뽑았습니까?)

106012 #1 그 실 빠젠 허민 요만헌 대막뎅이에 그걸 놩 대록대록 영 영 헤가민 딱 그만썩 헤 가민 이제 그거 놩 무르레에서 실 빠. 경허영 미녕 허는 거주게. 경허영 미녕 허는 거.(그 실 뽑으려고 하면 요만한 대막대기에 그걸 놔서 대굴대굴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 딱 그만큼씩 해 가면 이제 그거 놔서 물레에서 실 뽑아. 그렇게 무명 하는 거지.)

106012 @ 예. 실 빵 거 가졍 아까 또 무르에에?(예. 실 뽑아서 거 가져서 아까 또 물레에?)

---

165) '홍세미녕'은 '홍세함'에 넣는 무명을 가리킨다. '홍세함'이란 혼례를 치룰 때 신랑집에서 마련한 예장 등을 넣고 신부집에 가는 예물 함을 말한다.

166) '하꼬'는 일본어 'はこ'로 '상자'라는 의미다.

106012 #1 어. 실게 무르에에 영 또 그 바농대 닮은 거 허영 영 허영 영 놓고 허는 것이 싯주게. 거 쒜 끗뎅이로 졸졸 졸졸 데와 가민 영 영 영 영 허영 나오민 막 허민 이철록 허멍 그레 감아 놩 다 이젠 다듬으멍 잇이멍 끈어지민 잇이멍 허영 미녕 멜 때 다 꿰영 도로기 멧 개 헤영 풀 불르멍 미녕 메영 짜는 거.(어. 실 물레에 이렇게 또 그 바늘대 같은 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하는 것이 있지. 거 쇠 끄트머리로 졸졸 졸졸 틀어 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면 마구 하면 이처럼 해서 그리 감아 놔서 다 이젠 다듬으면서 이으면서 끊기면 이으면서 해서 무명 맬 때 다 꿰어서 자새 몇 개 해서 풀 바르면서 무명 매서 짜는 거.)

106012 @ 아, 도로기 멧 개 영 감앙 놧당.(아, 자새 몇 개 이렇게 감아서 놨다가.)

106012 #1 으, 다 감아야 허여.(으, 다 감아야 해.)

106012 @ 게민 그것도 물레, 무르레엔 헙니까? 거기 놩 실 짜는 거?(그럼 그것도 물레, 물레라고 합니까? 거기 놔서 실 짜는 거?)

106012 #1 으, 아니. 저 미녕 틀.(으, 아니. 저 무명 틀.)

106012 @ 미녕 틀 예, 예.(무명 틀 예, 예.)

106012 #1 예, 예. 영허민 이디 찍신 헤영 저디 허민 찰칵 허민 탁 허고 영 허민 찰각 허고 허멍 그걸 짜는 거라.(예, 예. 이러면 여기 짚신 해서 저기 하면 찰칵 하면 탁 하고 이렇게 하면 찰칵 하고 하면서 그걸 짜는 거야.)

106012 @ 예, 예. 나 여기 사진 잇수다.(예, 예. 나 여기 사진 있습니다.)

106012 #1 그디 다 싯구나.(거기 다 있구나.)

106012 @ 이건 뭐 헐 때 쓰는 거라?(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야?)

106012 #1 그건 멘네 불르는 거.(그건 면화 바르는 거.)

106012 @ 이거 멘네 불르는 거.(이거 면화 바르는 거.)

106012 #1 어. 멘네 허영이 이거 영 허영 이거 들러 가민 요 고냥으로 멘네 허민 뒤론 멘네 나오고 앞으론 씨 이레 나오는 거.(어. 면화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들러 가면 요 구멍으로 면화 하면 뒤로는 면화 나오고 앞으로는 씨 이리 나오는 거.)

106012 @ 기민 여기에 발 불랑 아니면?(그럼 여기에 발 밟아서 아니면?)

106012 #1 이거 끌앙 앚아사게.(이거 깔아 앉아야.)

106012 @ 끌앙 앚아사, 엉덩이로?(깔아 앉아야, 엉덩이로?)

106012 #1 어.(어.)

106012 @ 여기 끌앙 앚앙 여기에 놩 이건 영 영 돌리는 거라예?(여기 깔아 앉아서 여기에 놔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지요?)

106012 #1 어. 이거 이만이 허민 뒤터레 밀리멍 불라 놩 그거 담고 이 씨도 지름 빰도 허고 엿날.(어. 이거 이만큼 하면 뒤로 밀리면서 발라 놔서 그거 담고 이 씨도 기름 뽑기도 하고 옛날.)

106012 @ 아, 멘네씨로?(아, 면화씨로?)

106012 #1 멘네씨 지름도 빠레 가고 쉐도 멕이고 뭣에 서껑. 경허주.(면화씨 기름도 뽑으러 가고 소도 먹이고 뭐에 섞어서. 그렇지.)

106012 @ 게민 이걸로는 뭐 헤?(그럼 이걸로는 뭐 해?)

106012 #1 이건 싸는 거 무르레. 이거 뵈레 보라.(이건 짜는 거 물레. 이거 봐 봐.)

106012 @ 이거 뵈레 보라. 하하하.(이거 봐 봐. 하하하.)

106012 #1 이거 영헌 쒜 시네게, 이거. 영허민이 이거 영 영 헤여 가민 일로 영 잡아 뎅겨 이레 영 허곡 허민 이철록 실 감아졍 영 허고. 허민 이걸 하민 떼영 이젠 또 잇이멍 다 감앙 메는 날은 그걸 다 풀 멕이멍 허는 거. (이거 이런 쇠 있지, 이거. 이러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 이리로 이렇게 잡아 당겨 이리 이렇게 하고 하면 이처럼 실 감겨서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걸 하면 떼어서 이젠 또 이으면서 다 감아서 매는 날은 그걸 다 풀 먹이면서 하는 거.)

106012 @ 게난 이 이거 영 돌리멍?(그러니까 이 이거 이렇게 돌리면서?)

106012 #1 이거 돌리멍 일로 실을 떡국 닮은 거 떡국칠록 빵 영 왕 곳새 볼라 놩 물류왕 태와 왕 이것에서 허는 거.(이거 돌리면서 이리로 실을 떡국 같은 거 떡국처럼 빼서 이렇게 와서 아까 발라 놔서 말려서 태워 와서 이것에서 하는 거.)

106012 @ 게민 이거 먼저?(그럼 이거 먼저?)

106012 #1 어. 물류왕 테와당 이거.(어. 말려서 태워다가 이거.)

106012 @ 아, 태와당 이거.(아, 태워다가 이거.)

106012 #1 어. 태와 와사.(어. 태워 와야.)

106012 @ 태우는 건 어디 강?(태우는 건 어디 가서?)

106012 #1 솜털 태우는 디 강.(솜털 태우는 데 가서.)

106012 @ 거기가 따로 잇어. 집이서 못 허는 거?(거기가 따로 있어. 집에서 못 하는 거?)

106012 #1 못 허는 거.(못 하는 거.)

106012 @ 아, 경헹 여기 헹 이제 실이 뒈수다예?(아, 그래서 여기 해서 이제 실이 됐네요?)

106012 #1 어. 경허민 그걸 다 떡국칠록 다 허영 와사게 이디서 건 실 빠는 거.(어. 그러면 그걸 다 떡국처럼 다 해서 와야 여기서 건 실 뽑는 거.)

106012 @ 음. 아이고, 차는 건 없다. 이 다음에 다시 이거 가졍 차는 거라예. 아, 이건 아니구나.(음. 아이고, 짜는 건 없다. 이 다음에 다시 이거 가져서 짜는 거지요. 아, 이건 아니구나.)

106012 #1 이거 허민 이제 다음은 마당에 ᄀᆞ시락 불살랑 풀 멕영 이젠 그 차는 그 거시기 다 올리 이렇게 허민 이디서 풀 멕이멍 그 고냥 고냥 우리 얼레기 닮은 것에 꿰멍 그 살살 살살 허멍 이젠 물류왕 감아.(이거 하면 이제 다음은 마당에 까끄라기 불살라서 풀 먹여서 이젠 그 짜는 그 거시기 다 올해 이렇게 하면 여기서 풀 먹이면서 그 구멍 구멍 우리 얼레빗 같은 것에 꿰면서 그 살살 살살 하면서 이젠 말려서 감아.)

106012 @ 예.(예.)

106012 #1 경허영 이젠 새에 빼따지[167] 요만썩 헌 거 다 놓멍 부뜨지 못허게. 놓멍

167) '빼따지'는 마른 나뭇가지 따위를 말한다.

이철록 감앙 이젠 짤 땐 짜는 거주게.(그래서 이젠 새에 '빼따지' 요만큼씩 한 거 다 놓으면서 붙지 못하게. 놓으면서 이처럼 감아서 이젠 짤 땐 짜는 거지.)

106012 @ 짤 땐 짜는 거. 이제 이거 다 헤 놓민 그거 착착 허는 거?(짤 땐 짜는 거. 이제 이거 다 해 놓으면 그거 착착 하는 거?)

106012 #1 으. 착착 허는 거주게. 이거 실 다 헌 다음엔 이젠 마당에 불, ᄀᆞ시락 불 살르고 풀 쒕, 솔도 셔. 그, 그런 솔이 이젠 엇어. 그걸로 적지멍 삭삭 삭삭 허여가민 그것이 ᄆᆞᆯ라 가민 이제 저 조롬에선 그거 납작허고 거 감는 것이 셔 이디. 영 이딘 넙고 요딘 낭께기 헹 이디도 놓민 그거 맞게 감아.(으. 착착 하는 거지. 이거 실 다 한 다음엔 이젠 마당에 불, 까끄라기 불사르고 풀 쒀서, 솔도 있어. 그, 그런 솔이 이젠 없어. 그걸로 적시면서 삭삭 삭삭 해 가면 그것이 말라 가면 이제 저 꽁무니에선 그거 납작하고 거 감는 것이 있어 여기. 이렇게 여긴 넓고 여긴 나뭇가지 해서 여기도 놓으면 그거 맞게 감아.)

106012 @ 영 영 돌리멍.(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106012 #1 으. 돌리멍 새에 대 요만썩 헌 거 놓멍 허영 짤 때는 그디 놔근에 이제.(으. 돌리면서 새에 대 요만큼씩 한 거 놓으면서 해서 짤 때는 거기 놔서 이제.)

106012 @ 아. 이제 짜는 거. 게난 완전 날력 부려사[168] 허큰게, 이거 허는 날은예?(아. 이제 짜는 거. 그러니까 완전 하루를 허비해야 하겠네, 이거 하는 날은요?)

106012 #1 아이고, 이거 이거 메는 날이 질 날력 부려. 실 감는 건 시간 나는 양 원 건 허는디 ᄇᆞᆯ름도 밤이도 허고 좀 아니 자는 땐 허는디 메는 날은 해원. 멧이, 혼 두 사름만도 아이 뒈여.(아이고, 이거 이거 매는 날이 제일 하루를 허비해. 실 감는 건 시간 나는 대로 원 건 하는데 바르기도 밤에도 하고 잠 안 잘 땐 하는데 매는 날은 종일. 몇이, 한 두 사람만도 안 돼.)

106012 @ 메는 게 뭐 허는 거 메는 거렌 헙니까? 이거 허는 거?(매는 게 뭐 하는 거 매는 거라고 합니까? 이거 하는 거?)

106012 #1 아니게. 불, ᄀᆞ시락 불살랑 그 저 미녕 메는 거.(아니. 불, 까끄라기 불살라서 그 저 무명 매는 거.)

106012 @ 미녕 메는 거. 이거 헌 다음에예?(무명 매는 거. 이거 한 다음에요?)

106012 #1 으.(으.)

106012 @ 혹시 이거 일름덜은 알아지쿠과?(혹시 이거 이름들은 알겠습니까?)

106012 #1 이거 ᄇᆞᆯ르는 무르에게.(이거 바르는 물레.)

106012 @ 이건 ᄇᆞᆯ르는 무르에.(이건 바르는 물레.)

106012 #1 어.(어.)

106012 @ 이거는?(이거는?)

106012 #1 이거는 싸는 무르에.(이거는 짜는 물레.)

106012 @ 싸는 무르에.(짜는 물레.)

106012 #1 싸는 거, 싸는 거엔 헌다. 엿날 짜는 것이 아니고 싸는 거.(짜는 거, 짜는

168) '날력 부리다'는 하루를 허비하다의 의미다.

거라고 한다. 옛날 짜는 것이 아니고 '싸는' 거.)

106012 @ 싸는 무르에.(짜는 물레.)

106012 #1 어.(어.)

106012 @ 게민 볼르는 무르에, 요것도 이름이 이실 거 아니?(그럼 바르는 물레, 이것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

106012 #1 아니, 아니. 이건 그냥 끌앙 앚는 거.(아니, 아니. 이건 그냥 깔아서 앉는 거.)

106012 @ 이건 끌앙 앚는 거. 이거는?(이건 깔아서 앉는 거. 이거는?)

106012 #1 건 ᄌᆞ룩, 손 영 영 둘르고. 요건 니 맞추멍 나가사 이딜로 멘네씨 허영 이레 나가.(건 자루, 손 이렇게 이렇게 두르고. 이건 이 맞추면서 나가야 여기로 면화씨 해서 이리 나가.)

106012 @ 톱니처럼 영영 맞추면서예?(톱니처럼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서요?)

106012 #1 으. 이건 저 무시거칠록 맞촤사주게. 맞아사주, 이것도 넘어가민.(으. 이건 저 무엇처럼 맞춰야지. 맞아야지, 이것도 넘어가면.)

106012 @ 으, 나사처럼예?(으, 나사처럼요?)

106012 #1 으. 경허영 아니 넘어가민 그 에염더레 돗지름 줄른 것도 ᄒᆞ꼼 볼르고 헷주게.(으. 그래서 안 넘어가면 그 옆으로 돼지기름 자른 것도 조금 바르고 했지.)

106012 @ 아, 여기에.(아, 여기에.)

106012 #1 어.(어.)

106012 @ 게난 술술 술술.(그러니까 술술 술술.)

106012 #1 어, 넘어가게.(어, 넘어가게.)

106012 @ 아, 여기에 돗지름을 볼랏수과?(아, 여기에 돼지기름을 발랐습니까?)

106012 #1 으, 돗지름. 그때 엿날 미싱[169] 지름 무시거 셔셔게?(으, 돼지기름. 그때 옛날 재봉틀 기름 뭐 있어?)

106012 @ 맞수다, 맞수다. 아, 돗지름으로 헹 지름 헤난?(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돼지기름으로 해서 기름 했었어?)

106012 #1 어.(어.)

106012 @ 게민 이것도 이것도 이거 싸는 무르렌데 이거는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럼 이것도 이것도 이거 짜는 물레인데 이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12 #1 이건 그때 거 오꼿 잊어벤. 가래기, 가래기.(이건 그때 거 그만 잊어버렸어. 가락, 가락.)

106012 @ 예, 가래기. 게민 이 부분은?(예, 가락. 그럼 이 부분은?)

106012 #1 건 싸는 무르에게.(건 짜는 물레에.)

106012 @ 이거 전체 싸는 무르에. 이건 그냥 손젭이렌 헌 거고?(이거 전체 짜는 물레. 이건 그냥 손잡이라고 한 거고?)

106012 #1 으, 손젭이고 이건 가래기.(으, 손잡이고 이건 가락.)

169) '미싱'은 일본어 'ミシン'으로 '재봉틀'을 말한다.

모시

106013 @ 물레는 영 헷고 무르레는. 게민 모시는 어떵 헤신고, 모시는?(물레는 이렇게 했고 물레는. 그럼 모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시는?)

106013 #1 모시는 이디서 아이 짜 봇주게.(모시는 여기서 안 짜 봤지.)

106013 @ 아, 이디서 안 짜 봐서?(아, 여기서 안 짜 봤어?)

106013 #1 으, 베영 저 강원도서 허고 이딘 안 헤 봔.(으, 베랑 저 강원도에서 하고 여긴 안 해 봤어.)

106013 @ 베도 안 헤 본 거예?(베도 안 해 본 거요?)

106013 #1 으. 삼벤 허젠 허민 그 삼수세 갈앙 잇이멍 거 누게가 허느니, 이디. 안 뒌다. 게민 강원도 베가 젤 좋앙 강원도 베덜 사젠 헌다게.(으. 삼베는 하려고 하면 그 환삼덩굴 갈아서 이으면서 거 누가 하니, 여기. 안 된다. 그럼 강원도 베가 제일 좋아서 강원도 베들 사려고 한다.)

106013 @ 게민 그 베 장시덜은 영 가끔 들어와낫수과?(그럼 그 베 장수들은 이렇게 가끔 들어왔었습니까?)

106013 #1 으. 베 삽센도 헹 들어오곡게. 허연.(으. 베 사시라고도 해서 들어오고. 했어.)

106014 @ 으. 베로는 어떤 옷 만들앙 입어신고예?(으. 베로는 어떤 옷 만들어서 입었나요?)

106014 #1 사당 옛날은 양복 헤세게. 하르방덜 살마다[170]도 안 헤영 그냥 훤히 봐진다.(사다가 옛날은 양복 했어. 할아버지들 속옷도 안 해서 그냥 훤히 보여.)

106014 @ 하하.(하하.)

106014 #1 베 중의 적삼.(베 중의 적삼.)

106014 @ 베 중의 적삼. 여름에?(베 중의 적삼. 여름에?)

106014 #1 으. 그걸 주로 헷주게.(으. 그걸 주로 했지.)

106014 @ 주로. 모시도?(주로. 모시도?)

106014 #1 모시도 그 중의 적삼. 남자덜.(모시도 그 중의 적삼. 남자들.)

106014 @ 남자들?(남자들?)

106014 #1 으. 여저덜은 또시 저 모시 치메허고 적삼. 거 잘 살아사 경허주.(으. 여자들은 또 저 모시 치마하고 적삼. 거 잘 살아야 그렇지.)

106014 @ 아무나 못 해.(아무나 못 해.)

106014 #1 아무나 거 하지 못헌다게. 먹기도 허영 숭녕에 먹기도게 못허여근에 ᄉᆞ못. 조채 다 보깡 ᄉᆞ못 감저 썰어 놩 범벅 헴저 소문나난디 공출게 드러 허영 받지라 허곡 허는 따문. 엿날은 밧 어젱이[171] 돌빌레[172]도 다, 흔 밧이라도 다 돌르멍. 이제 그것도 이전 못 헤서.(아무나 거 하지 못해. 먹기도 해서 숭늉에 먹기도 못해서 사뭇.

170) '살마다'는 일본어 'さるまた'에서 온 말로,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덮는 속옷을 말한다.
171) '어젱이'는 밭 등의 가장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에젱이'라고도 한다.
172) '돌빌레'는 돌무더기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을 말한다.

조째 다 볶아서 사뭇 고구마 썰어 넣어서 범벅 한다고 소문났었는데 공출 마구 해서 바쳐라 하고 하는 때문. 옛날은 밭 가장자리 '돌빌레'도 다, 한 밭이라도 다 도르면서. 이제 그것도 이전 못 했어.)

106014 @ 무슨?(무슨?)

106014 #1 에젱이 돌른 거. 흔 밧이라도 놈의 일름에 션게.(가장자리 도른 거. 한 밭이지만 남의 이름에 있어.)

106014 @ 무사?(왜?)

102005 #1 건 공출헐 때난게 돌랑 건 갈아먹는 거 아니로 헹 내벼난.(건 공출할 때니까 돌라서 건 갈아먹는 거 아니로 해서 내버리니까.)

102005 @ 아. 기민 그거 자리 일름으로 잇이민 그 부분도 공출 받아가부난?(아. 그럼 그거 자기 이름으로 있으면 그 부분도 공출 받아가니까?)

102005 #1 으. 경헤부난 다 돌르멍. 경허영 이녁 실경지만 올려근에 공출헤세.(으. 그거니까 다 도르면서. 그래서 자기 실경지만 올려서 공출했어.)

102005 @ 그 공출을 언제 헤난 것과?(그 공출은 언제 했던 겁니까?)

102005 #1 엿날게.(옛날.)

102005 @ 그 엿날 언제?(그 옛날 언제?)

102005 #1 우리도, 흔 우리 으남은 설꺼지.(우리도, 한 우리 여남은 살까지.)

102005 @ 으남은 설꺼지.(여남은 살까지.)

102005 #1 열 설꺼진 헤서.(열 살까진 했어.)

102005 @ 게난 그거 일본 사름덜 들어왕 이실 때라예?(그러니까 그거 일본 사람들 들어와서 있을 때지요?)

102005 #1 으, 으.(으, 으.)

102005 @ 게민 땅 요만큼 가지고 잇이민 여기서 난 거 얼마 내라 헷던 거예?(그럼 땅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난 거 얼마 내라 했던 거요?)

102005 #1 으. 경허난 에젱이덜은 다 빼덩 실경지만 올령 헤나 비난 이제 풀고 살 때도 경허여 비난 오꼿 이제 우리도 돌라젼 이젠 하르방[173] 일름에 셔.(으. 그러니까 '에젱이'들은 다 빼두고 실경지만 올려서 했어 버리니까 이제 팔고 살 때도 그래 버리니까 그만 이제 우리도 돌라져서 이젠 할아버지 이름에 있어.)

102005 @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쿠다예.(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02005 #1 으.(으.)

바느질

106022 @ 이제는 바농질허는 거 물어보쿠다. 바농질허젠 허민 뭐 뭐 잇어야 뒐 거?(이제는 바느질하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바느질하려고 하면 뭐 뭐 있어야 될 거?)

173) '하르방'은 표준어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키고 있다.

106022 #1 실허고 바농게. ᄀᆞ세허고.(실하고 바늘. 가위하고.)

106022 @ 실, 바농, ᄀᆞ세.(실, 바늘, 가위.)

106022 #1 바농상지 허영.(반짇고리 해서.)

106022 @ 바농상지 헤영.(반짇고리 해서.)

106022 #1 영 허영 바구니 새끼나 아무 거라도 허영 들이쳐 둠서게. 그냥 미녕실.(이렇게 해서 바구니 새끼나 아무 거라도 해서 들어뜨려 두면서. 그냥 무명실.)

106022 @ 으, 미녕실.(으, 무명실.)

106022 #1 엿날 그 미녕실로 허영. 무신 웨 실도 셔샤?(옛날 그 무명실로 해서. 무슨 왜 실도 있어야?)

106022 @ 그 바농상지 새끼 바구니 헤난 거 그디 풀 볼랑 쓰지 안허고?(그 반짇고리 새끼 바구니 했던 거 거기 풀 발라서 쓰지 않고?)

106022 #1 풀 볼르는 사름은 풀 볼르고 우린 그냥도 허고 헷주게.(풀 바르는 사람은 풀 바르고 우린 그냥도 하고 했지.)

106022 @ 아, 그냥도 허고. 바농상지 안에 뭐 뭐 잇어난지 흔 번 ᄀᆞᆯ아 봅서. 바농잇고?(아, 그냥도 하고. 반짇고리 안에 뭐 뭐 있었는지 한 번 말해 보세요. 바늘 있고?)

106022 #1 ᄀᆞ세.(가위.)

106022 @ ᄀᆞ세.(가위.)

106022 #1 실패.(실패)

106022 @ 거뿐?(거뿐?)

106022 #1 게 거주게 뭣허여?(그래 거지 뭣해?)

106022 @ 옷 영 멘들앙 입젠 허민 자도 이서야 뒐 거 아니?(옷 이렇게 만들어서 입으려고 하면 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

106022 #1 으, 자.(으, 자.)

106022 @ 또 뭐 이신고? 바농 막 무껸예?(또 뭐 있는지? 바늘 아주 무뎠어요?)

106022 #1 속돌[174]. 속돌로 ᄀᆞᆯ아낫저게.('속돌'. '속돌'로 갈았었어.)

106022 @ 그건 속돌로. ᄀᆞᆯ아난예. 게민 바농은 어디 찔렁 놔둡니까?(그건 '속돌로'. 갈았어요. 그럼 바늘은 어디에 찔러서 놔둡니까?)

106022 #1 실패에.(실패에.)

106022 @ 실패에? 바농쫄레는 뚜로 안 만들아낫수과?(실패에? 바늘겨레는 따로 안 만들었었습니까?)

106022 #1 쫄레도게 멘드는 사름은 멘들아도 그거 멘들 저르가 셔게? 바농 실패에 잘 찔르주게. 쫄레덜토 멘들아.(바늘겨레도 만드는 사람은 만들어도 그거 만들 겨를이 있어? 바늘 실패에 잘 찌르지. 바늘겨레들도 만들어.)

106022 @ 아, 줄레도 멘들어예.(아, 바늘겨레도 만들어요?)

106022 #1 으. 머리털 소곱에 담앙.(으. 머리털 속에 담아서.)

106022 @ 하하.(하하.)

174) '속돌'은 딴딴하지 않고 구멍이 송송하게 난 돌로, 바늘 등을 갈 때 사용한다.

106022 #1 곱게 허영.(곱게 해서.)

106022 @ 바농에 머릿지름이 좋은 모양이라?(바늘에 머릿기름이 좋은 모양이야?)

106022 #1 머리가게 바농질헐 때도 영, 영 허민게 속속 잘 들어가주게. 경헌디 우리 어무니네도 멘들아.(머리가 바느질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쏙쏙 잘 들어가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네도 만들어.)

106022 @ 으.(으.)

106022 #1 그거 허영 곱게. 이 색 저 색 놩 이만허게 허영 그디 머리털 제깍 담아. 경허여근에 바농상지 바우에 돌아메주게.(그거 해서 곱게. 이 색 저 색 놔서 이만하게 해서 거기 머리털 가득 담아. 그래서 반짇고리 가장자리에 달아매지.)

106022 @ 음, 음.(음, 음.)

106022 #1 돌아메영 찔렁.(달아매서 찔러서.)

106023 @ 찔렁. 바농 찔렁 거기에예. 바농질허젠 허민 바농질 방법도 여러 개 이실 거 아니? 듬성듬성허는 것도 잇고.(찔러서. 바늘 찔러서 거기에요. 바느질하려고 하면 바느질 방법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 듬성듬성하는 것도 있고.)

106023 #1 호는 거, 감치는 거, 뎅침허는 거 다 싯주게.(호는 거, 감치는 거, 박음질하는 거 다 있지.)

106023 @ 호는 게 어떤 것과?(호는 게 어떤 겁니까?)

106023 #1 호는 건 영 영 허는 거고. 뎅침이엔 헌 거 뒷바농질 허영 또 뒷바농질 허곡 허영 미싱[175] 헌 거철록 틈 엇이 헤 가는 거 뎅침.(호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박음질이라고 하는 거 뒷바느질해서 또 뒷바느질하고 해서 재봉틀 한 거처럼 틈 없이 해 가는 거 박음질.)

106023 @ 으, 뎅침허는 거.(으, 박음질하는 거.)

106023 #1 감치는 건 영, 영 감치는 거.(감치는 건 이렇게, 이렇게 감치는 거.)

106023 @ 그거 말고 또?(그거 말고 또?)

106023 #1 단추 고냥게.(단추 구멍.)

106023 @ 단추 고냥 헐 때?(단추 구멍 할 때?)

106023 #1 단추 고냥 헐 때 영 허영 단추 고냥 허는 건 또 틀리게 허주게.(단추 구멍 할 때 이렇게 해서 단추 구멍 하는 건 또 틀리게 하지.)

106023 @ 아, 단추 고냥 헐 때는 또 틀리게.(아, 단추 구멍 할 때는 또 틀리게.)

106023 #1 으.(으.)

106023 @ 거난 집이서 어떤 옷을 이녁냥으로 만들앙 입어낫수과?(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옷을 자기대로 만들어서 입었었습니까?)

106023 #1 할망덜 굴중의게. 중의 적삼 다 손으로 멘들주 무신. 미녕으로 헌 거. 경허영 감덜 들이곡 허주게. 그때 어디 미싱 셔시냐?(할머니들 홑바지. 중의 적삼 다 손으로 만들지 무슨. 무명으로 한 거. 그렇게 해서 감들 들이고 하지. 그때 어디 재봉틀 있었니?)

175) '미싱'은 일본어 'ミシン'으로 '재봉틀'을 말한다.

106023 @ 삼춘도 경헤영 만들고?(삼촌도 그렇게 만들고?)

106023 #1 난 엿날 속곳[176]이나베끼 아니 멘들앗저. 우리 시대엔게. 글후제 미싱 션헤나난.(난 옛날 '속곳'이나밖에 안 만들었어. 우리 시대에는. 그 후에 재봉틀 있어서 했었으니까.)

106023 @ 게난 속곳을 손으로 다 만드는 거?(그러니까 '속곳'을 손으로 다 만드는 거?)

106023 #1 손으로 다 뎅침허멍 곱게 멘들주.(손으로 다 박음질하면서 곱게 만들지.)

106023 @ 속곳 멘들 때 여기에 영.('속곳' 만들 때 여기에 이렇게.)

106023 #1 돌메기.[177]('돌메기'.)

106023 @ 돌메기.('돌메기'.)

106023 #1 돌메기도 다 짱. 물적삼[178]도 다 멘들아근에 손으로 멘들앙. 다 돌메기 허영 돌앙 입주게.('돌메기'도 다 짜서. '물적삼'도 다 만들어서 손으로 만들어서. 다 '돌메기' 해서 달아서 입지.)

옷 종류

106024 @ 돌메기 허영 돌앙 입는 거예. 맞수다, 맞수다예. 남자덜 입어난 옷 종류에는 뭐 잇수과? 남자 어른덜 입어난 옷에는?('돌메기' 해서 달아서 입는 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남자들 입었던 옷 종류에는 뭐 있습니까? 남자 어른들 입었던 옷에는?)

106024 #1 엿날이사게 중의 적삼게.(옛날에야 중의 적삼.)

106024 @ 중의 적삼.(중의 적삼.)

106024 #1 두루막.(두루마기.)

106024 @ 두루막. 또 어신가?(두루마기. 또 없는가?)

106024 #1 엿날은 대개 그추룩.(옛날은 대개 그처럼.)

106024 @ 여자덜?(여자들?)

106024 #1 빤스덜토 멘들앙 입는 하르방이 싯주. 빤스 안 입엉 다니는 하르방도 셔.(팬티들도 만들어서 입는 할아버지 있지. 팬티 안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도 있어.)

106024 @ 하하하.(하하하.)

106024 #1 나 아이 굴아냐. 먼 디서 보민 흥갈흥갈 봐지는 거 닮아.(나 안 말했니. 먼 데서 보면 흔들흔들 보이는 거 같아.)

106024 @ 하하하.(하하하.)

106024 #1 미녕은 몰라도 베는.(무명은 몰라도 베는.)

106024 @ 아, 베는. 훤히 비치난.(아, 베는. 훤히 비치니까.)

106024 #1 비치난에.(비치니까.)

---

176)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광목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물소중이', '소중이', '소중기'라고도 한다.

177) '돌메기'는 매듭단추를 말한다. '돌마기', '벌ᄆᆞ작'이라고도 한다.

178) '물적삼'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을 말하다.

106025 @ 여저 옷덜은 뭐가 이신고?(여자 옷들은 뭐가 있지?)

106025 #1 여저, 여저 옷도 마찬가지. 그때에.(여자, 여자 옷도 마찬가지. 그때에.)

106025 @ 치마, 저고리.(치마, 저고리.)

106025 #1 치마, 저고리도 그 중간에사 스못 나이론 곰보 옷덜이영 뭣이여 할망덜 우리 시어멍네도 입엇주이 우리 허여단 안네난.(치마, 저고리도 그 중간에야 사뭇 나일론 곰보 옷들이랑 뭐며 할머니들 우리 시어머니네도 입었지, 우리 해다가 드리니까.)

106025 @ 으.(으.)

106025 #1 안 입어 봣저.(안 입어 봤어.)

106025 @ 게난 치마 저고리 입고.(그러니까 치마 저고리 입고.)

106025 #1 엿날은 양털로 게실.(옛날은 양털로 털실.)

106025 @ 게실?(털실?)

106025 #1 양털게 저 목장에 강 거 비영 양털 쌍 것도 허는 셍이라. 게민 그런 양털이나 그 게실 사당 쉐타나 짱 입져낫주게 무신. 할망덜게. 여자, 할망덜은 그 세타 짱 입져낫저.(양털 저 목장에 가서 거 베어서 양털 짜서 것도 하는 모양이야. 그럼 그런 양털이나 그 털실 사다가 스웨터나 짜서 입혔었지 무슨. 할머니들. 여자, 할머니들은 그 스웨터 짜서 입혔었어.)

106025 @ 그 세타 짱 입은 건.(그 스웨터 짜서 입는 건.)

106025 #1 미녕실로도 미녕실 올 빵도 세타 짜고.(무명실로도 무명실 올 뽑아서도 스웨터 짜고.)

106025 @ 거 겨울에 입을 거?(거 겨울에 입을 거?)

106025 #1 겨울게게. 미녕실로도 우리 세타 짱 입어낫저. 물 들영.(겨울. 무명실로도 우리 스웨터 짜서 입었었어. 물 들여서.)

106025 @ 언제? 삼춘 시집간 후제지예?(언제? 삼촌 시집간 후이지요?)

106025 #1 우리 어릴 때.(우리 어릴 때.)

106025 @ 어릴 때?(어릴 때?)

106025 #1 우리 시집간 후젠 미녕실로 짜진 안허고 시집가기 전이 장갑도 짜고 양말도 짜고.(우리 시집간 후에는 무명실로 짜진 않고 시집가기 전에 장갑도 짜고 양말도 짜고.)

106025 @ 영 코 헹 짜는 거?(이렇게 코 해서 짜는 거?)

106025 #1 코 헹 이제 우리 세타 짜듯이. 막 무늬 놩 물멍도 짜고 경헤낫저, 미녕실로.(코 해서 이제 우리 스웨터 짜듯이. 아주 무늬 놔서 말면서도 짜고 그랬었어, 무명실로.)

106025 @ 미녕실로예?(무명실로요?)

106025 #1 세타도 짜고.(스웨터도 짜고.)

106025 @ 아, 경도 헹 입어낫구나.(아, 그렇게도 해서 입었었구나.)

106025 #1 어게. 경 무르에에 짠 거 멧 둘썩만 허민게. 감앙 걸로 짜민 뒈주.(그래. 그렇게 물레에 짠 거 몇 달씩만 하면. 감아서 걸로 짜면 되지.)

106025 @ 여자 옷에는 게난 치메 잇고 저고리 잇고.(여자 옷에도 그러니까 치마 있고 저고리 있고.)

106025 #1 속곳 잇고 엿날.('속곳' 있고 옛날.)

106025 @ 속곳 잇고.('속곳' 있고.)

106025 #1 살마단[179] 입을 충 몰라낫주게, 옛날 할망덜. 속곳이 주로 입어낫주.('살마다'는 입을 줄 몰랐었지, 옛날 할머니들. '속곳'이 주로 입었었지.)

106025 @ 또 여저덜도 중의 적삼 입어난 거 아니?(또 여자들도 중의 적삼 입었던 거 아니?)

106025 #1 중의 적삼 굴중의.(중의 적삼 홑바지.)

106025 @ 굴중의.(홑바지.)

106025 #1 이제 우리 핫바지 한쓰붕[180]추룩 넓게 헤영 굴중의 입어낫저.(이제 우리 핫바지 반바지처럼 넓게 해서 홑바지 입었었지.)

106026 @ 아이덜 옷은 뭐가 잇어낫수과?(아이들 옷은 뭐가 있었습니까?)

106026 #1 아이덜 옷은게 하하하. 일본 학생출룩 학교 뎅길 때게 그 에리[181]영 싯고 학교에 갈 때 그런 거 입고 우리도 아래 검엉허게 물들영이 치메 ᄒᆞ꼼 주름 사게 허고 우인 적삼이나 입어낫주기게.(아이들 옷은 하하하. 일본 학생처럼 학교 다닐 때 그 '에리'랑 있고 학교에 갈 때 그런 거 입고 우리도 아래 검게 물들여서 치마 조금 주름 서게 하고 위엔 적삼이나 입었었지.)

106026 @ 아. 애기덜 웨 오줌 못 가릴 때?(아, 아기들 왜 오줌 못 가릴 때?)

106026 #1 어게 아래 멘들앙 입저. 또꼬냥 영 틔우고. 똥 부뜨지 못허게 엿날은 무신 기저기 셔사?(그래 아래 만들어서 입혀. 똥구멍 이렇게 틔우고. 똥 붙지 못하게 옛날은 무슨 기저귀 있어?)

106026 @ 그럼?(그럼?)

106026 #1 헌 옷으로 그 애기구덕[182] 눅질 때도 거. 나도 우리 집이 큰아덜 헐 때 꺼진 할망네 거 니비옷덜 그런 거 다 ᄀᆞᆺ안에 저 지성기 헹 키와낫저.(헌 옷으로 그 '애기구덕' 눕힐 때도 거. 나도 우리 집의 큰아들 할 때까진 할머니네 거 누비옷들 그런 거 다 잘라서 저 기저귀 해서 키웠었어.)

106026 @ 아.(아.)

106026 #1 글후제사 미녕 ᄀᆞᆺ아근에이 헤양케 바랫단 나도 아기 기저귀 허엿주. 이젠 또시 저 거세기로 옷 소게 싸는 무시걸로 다 이젠 허단 그다음엔 다 종이 거 나오난게 무신 기저귀 뿔암사게.(그 후에야 무명 잘라서 하얗게 바랬다가 나도 아기 기저귀 했지. 이젠 또 저 거시기로 옷 솜 싸는 무엇으로 다 이젠 하다가 그다음엔 다 종이 거 나오니까 무슨 기저귀 빨고 있니.)

106026 @ 이젠 안 뿔암주.(이젠 안 빨고 있지.)

---

179) '살마다'는 '팬츠, 잠방이'라는 의미의 일본어 'さるまた'에서 온 말로, '팬티, 속옷'을 말한다.
180) '한쓰붕'은 일본어 '半ズボン'에서 온 말로 '반바지'를 말한다.
181) '에리'는 일본어 'えり'로 양복이나 와이셔츠 따위의 목둘레에 길게 덧붙여진 부분인 '칼라'를 말한다.
182) '애기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106026 #1 우린 솖으멍 다 헷저, 애기덜 키울 때.(우린 삶으면서 다 했어, 아기들 키울 때.)

106026 @ 기지예, 기저귀덜.(그렇죠, 기저귀들.)

106026 #1 나 큰아덜 키울 때만 그런 거 헹 글후젠 다 미녕허연 솖으멍 허고 가젯베 허영 글후제 허고 허난 글후젠 손지덜 클 때 가젯베 허연게 이젠 종이덜 다 허영 무신. 돈만 ᄀᆞ지민 펜안헷주게.(내가 큰아들 키울 때만 그런 거 해서 그 후에 다 무명해서 삶으면서 하고 가제 해서 그 후에는 하고 하니까 그 후에는 손주들 클 때 가제 하더니 이젠 종이들 다 해서 무슨. 돈만 가지면 편안했지.)

106026 @ 돈만 가지민.(돈만 가지면.)

106026 #1 우리 오죽 못 젼디게 살아사.(우리 오죽 못 견디게 살았어.)

106027 @ 맞수다. 옷 만들젠 허민, 만들앙 입젠 허민 굴중의라도 영 잘랑.(맞습니다. 옷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서 입으려고 하면 홑바지라도 이렇게 잘라서.)

106027 #1 어게 다. 거 잘 멘드는 사름신디 ᄆᆞᆯ라 줍서 헹도 허곡 허느네. 경 아무나 이녁냥으로 ᄆᆞᆯ르지 못허여.(어 다. 거 잘 만드는 사람에게 말라 주세요 해서도 하고 한단다. 그렇게 아무나 자기대로 마르지 못해.)

106027 @ 그럼 바느질은 내가 하더라도?(그럼 바느질은 내가 하더라도?)

106027 #1 으.(으.)

106027 @ 자르는 건 잘허는 사름신디 ᄆᆞᆯ라 줍서 허는 거?(자르는 건 잘하는 사람에게 말라 주세요 하는 거?)

106027 #1 어. 굴중의나 이 남저 바지도 아무나 못 허주게. 영 놩 혼 번 눈치 신 사름은 허여도 경 안 헌 사름은 다 ᄆᆞᆯ라 줍서 허영 ᄆᆞᆯ라당.(어. 홑바지나 이 남자 바지도 아무나 못 하지. 이렇게 놔서 한 번 눈치 있는 사람은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말라 주세요 해서 말라다가.)

106027 @ 겐 동네에 그런 사름덜이 잇어?(그래서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106027 #1 셔, 셔. 다 솜씨 신 사름덜이 싯주게.(있어, 있어. 다 솜씨 있는 사람들이 있지.)

106027 @ 게난 그디 강? 게난 본이 잇수과, 그런 굴중의 만드는?(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본이 있습니까, 그런 홑바지 만드는?)

106027 #1 아니. 본이 엇어.(아니. 본이 없어.)

106027 @ 본이 엇어.(본이 없어.)

106027 #1 으. 엇어도게 키 큰 사름은 어느만이 허고 다 자로 짐작허영.(으. 없어도 키 큰 사람은 어느만큼 하고 다 자로 짐작해서.)

106027 @ 경허영 ᄆᆞᆯ라 주는 거?(그렇게 말라 주는 거?)

106027 #1 어.(어.)

106028 @ 우리 보선 영 신으민예 보선에 앞에 부분을 뭐렌 부릅니까?(우리 버선 이렇게 신으면요 버선에 앞에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106028 #1 보선코.(버선코.)

106028 @ 코. 여기는?(코. 여기는?)
106028 #1 목게. 보선목.(목. 버선목.)
106028 @ 보선목. 여기는?(버선목. 여기는?)
106028 #1 뒤치기.(뒤축.)
106028 @ 뒤치기. 여기는?(뒤축. 여기는?)
106028 #1 건 몰르켜.(건 모르겠어.)
106028 @ 남자덜 바지 입으면 명칭덜이 여기는?(남자들 바지 입으면 명칭들이 여기는?)
106028 #1 거기 엉치, 여기 허리.(거기 엉덩이, 여기 허리.)
106028 @ 허리. 여기는?(허리. 여기는?)
106028 #1 다릿목[183].('다릿목'.)
106028 @ 목?(목?)
106028 #1 으, 다릿목.(으, '다릿목'.)
106028 @ 한복 입엇을 때 다릿목 뭐로 메지예?(한복 입었을 때 '다릿목' 뭐로 매지요?)
106028 #1 으.(으.)
106028 @ 그걸 뭐렌 헙니까?(그걸 뭐라고 합니까?)
106028 #1 이디 다릿목게 뎅기로.(여기 '다릿목' 대님으로.)
106028 @ 뎅기로?(대님으로?)
106028 #1 어.(어.)
106028 @ 저고리는 여저덜 치마 저고리는?(저고리는 여자들 치마 저고리는?)
106028 #1 치마 저고린 뭐?(치마 저고리는 뭐?)
106028 @ 치마 여기?(치마 여기?)
106028 #1 허리.(허리.)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1 여기는 가심둘레 아이가? 품 허영 저고리 헐 때가 가심둘레 혜영 품 허주. 치마 헐 땐 이 허리.(여기는 가슴둘레 아니니? 품 해서 저고리 할 때가 가슴둘레 해서 품 하지. 치마 할 땐 이 허리.)
106028 @ 허리.(허리.)
106028 #1 허리가 잘 맞게 허젠 허민 허릴.(허리가 잘 맞게 하려고 하면 허리를.)
106028 @ 이젠 치마 저고리에.(이젠 치마 저고리에.)
106028 #1 엿날은 치메도이 쫄르게 혜영 주름 앚정이 이 허릴 딱 맞아사 이디 허리로만 영 무껑 옷 입는 따문. 저고리도 영 질게 할망덜 허고.(옛날은 치마도 짧게 해서 주름 잡아서 이 허리를 딱 맞아야 여기 허리로만 이렇게 묶어서 옷 입는 때문. 저고리도 이렇게 길게 할머니들 하고.)
106028 @ 아, 엿날에는 여기로 맞췄구나. 요즘 한복은 요기로?(아, 옛날에는 여기로

183) '다릿목'은 다리와 발이 잇닿은 부분인 발목을 말한다.

맞췄구나. 요즘 한복은 요기로?)

106028 #1 아니, 아니. 엿날 할망덜은 한복도 다 준등이 허영 이 저고릴 질게 입어 낫주기게.(아니, 아니. 옛날 할머니들은 한복도 다 잔등이 해서 이 저고리를 길게 입었었지.)

106028 @ 으. 게민 허리를 맞추는 거?(으. 그럼 허리를 맞추는 거?)

106028 #1 어, 엿날은 이 우리 시대에 나사 이 저고리가 줄르게 입엇주, 할망덜 막 질게 입엇저.(어, 옛날은 이 우리 시대에 나야 이 저고리가 짧게 입었지, 할머니들 아주 길게 입었어.)

106028 @ 아. 머리 맞추고. 여기는 치마폭이 뭴 거고?(아. 머리 맞추고. 여기는 치마폭이 될 거고?)

106028 #1 으, 치메폭.(으, 치마폭.)

106028 @ 맨 밑에는 밑단?(맨 밑에는 밑단?)

106028 #1 밑단, 어게. 이까지 이거 질지도 안허게 ᄒᆞ꼼 영. 영 질게 안 헌다.(밑단, 그래. 이까지 이거 길지도 않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길게 안 한다.)

106028 @ 질게 안 헤영. 약간 무릅 밑으로 헤가지고.(길게 안 해서. 약간 무릎 밑으로 해가지고.)

106028 #1 어.(어.)

106028 @ 일허젠 허난.(일하려고 하니까.)

106028 #1 일허젠 허는 거 안 헤영 어디 가는 것도 경 질게 안 허더라.(일하려고 하는 거 안 하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게 길게 안 하더라.)

106028 @ 저고리에는 명칭이 이실 거 아니? 이 부분은?(저고리에는 명칭이 있을 거 아니? 이 부분은?)

106028 #1 그 부분은 짓.(그 부분은 깃.)

106028 @ 짓.(깃.)

106028 #1 동전.(동정.)

106028 @ 동전. 짓에 동전 달 거예?(동정. 깃에 동정 달 거요?)

106028 #1 어.(어.)

106028 @ 여기는 질게 뭐가 잇는 거?(여기는 길게 뭐가 있는 거?)

106028 #1 고롬.(고름.)

106028 @ 고롬이 잇는 거예? 영 고롬도 메젠 허민 앞에 가는 게 잇고 뒤에 가는 게 잇어예.(고름이 있는 거요? 이렇게 고름도 매려고 하면 앞에 가는 게 있고 뒤에 가는 게 있어요.)

106028 #1 어.(어.)

106028 @ 앞에 가는 건?(앞에 가는 건?)

106028 #1 앞섭게.(앞섶.)

106028 @ 요거 뒤로 가는 건?(요거 뒤로 가는 건?)

106028 #1 게난게, 건 앞섭이엔만 헤라게. 뒷섭 안 허고.(그러니까, 건 앞섶이라고만

하더라. ‘뒷섭’ 안 하고.)

106028 @ 여기 앞섭이렌만 허는 거?(여기 앞섶이라고만 하는 거?)

106028 #1 어.(어.)

106028 @ 여기 뒤에 이거 말고 영.(여기 뒤에 이걸 말고 이렇게.)

106028 #1 건 등 실밥이엔 헌다게. 등 실밥 크찡허게 허영 글로 중심 잡앙 벵 허게 줏겡이렌 ᄒᆞ꼼 올라가듯 허곡 이딘 나오게 허연 도련 꺾엉 멘드는 거주게.(건 등 실밥이라고 해. 등 실밥 곧게 해서 그리로 중심 잡아서 뱅 하게 겨드랑이라고 조금 올라가듯 하고 여기 나오게 해서 도려서 꺾어서 만드는 거지.)

106028 @ 도련 꺾엉 멘드는 거?(도려서 꺾어서 만드는 거?)

106028 #1 어.(어.)

106029 @ 단추에도 영 종류가 잇수과?(단추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었습니까?)

106029 #1 단추도 멧 가지 종류 싯주만은 거 알아져게.(단추도 몇 가지 종류 있지만 거 알 수 있어.)

106029 @ 옛날에는 이런 단추가 엇어나지 안헨?(옛날에는 이런 단추가 없었지 않아?)

106029 #1 아니, 헤영 헌 걸로 구젱기딱살로 멘들앙.(아니, 해서 한 걸로 소라딱지로 만들어서.)

106029 @ 아, 구젱기딱살로 멘들앙.(아, 소라딱지로 만들어서.)

106029 #1 경허영게 막 ᄃᆞᆯ아난 거 막 데며져낫주게. 거 멘드는 디. 구젱기딱살, 전복딱살로 단추 멘들아낫주게. 와이사쓰 단추도 다.(그래서 마구 달았던 거 마구 쌓였었어. 거 만드는 데. 소라딱지, 전복갑으로 단추 만들었었지. 와이셔츠 단추도 다.)

106029 @ 와이사쓰 단추도 다 그걸로 만들아난 거.(와이셔츠 단추도 다 그걸로 만들었던 거.)

106029 #1 으, 고냥 두 개 허영.(으, 구멍 두 개 해서.)

106029 @ 아, 그런 것도 만드는 디가 잇어낫수과?(아, 그런 것도 만드는 데가 있었습니까?)

106029 #1 어, 셔난.(어, 있었어.)

106029 @ 그믄 그것도 잇고 또? 우리 속곳에는 뭐?(그럼 그것도 있고 또? 우리 ‘속곳’에는 뭐?)

106029 #1 ᄃᆞᆯ메기[184]게.(‘ᄃᆞᆯ메기’.)

106029 @ ᄃᆞᆯ메기.(‘ᄃᆞᆯ메기’.)

106029 #1 ᄃᆞᆯ메기 헤사주. ᄃᆞᆯ메기 안 허믄 거 자꾸 끈어지고 저 벌러도 지곡 아이 뒌다.(‘ᄃᆞᆯ메기’ 해야지. ‘ᄃᆞᆯ메기’ 안 하면 거 자꾸 끊어지고 저 깨지기도 하고 안 된다.)

106029 @ 벌러도 지고.(깨지기도 하고.)

106029 #1 ᄃᆞᆯ메기 건. 물적삼이고 무시거도 우리 바당에 드는 건 다 ᄃᆞᆯ메기.(‘ᄃᆞᆯ메기’ 건. ‘물적삼’이고 뭐도 우리 바다에 드는 건 다 ‘ᄃᆞᆯ메기’.)

184) ‘ᄃᆞᆯ메기’는 매듭단추를 말한다. ‘ᄃᆞᆯ마기’, ‘벌ᄆᆞ작’이라고도 한다.

재단과 염색

106030 @ 음, 돌메기. 옷 만들 때 보면 물들이는 것도 잇지만 바농질허젠 허민 다리미질을 헤야 헐 거 아니예?(음, '돌메기'. 옷 만들 때 보면 물들이는 것도 있지만 바느질하려고 하면 다리미질을 해야 할 거 아니요?)

106030 #1 그땐이 ᄌᆞ룩 돋은 다리미에 숫 허여 잉경 담앙 어떵허당, 우리 할망 하르방이 일헐 땐 허여도 잘 나뎅기주게. 경허민 그거 허영 다령 헤낫주. 아이롱[185]이 어디시니.(그땐 자루 돋은 다리미에 숯 해서 잉걸 담아서 어떡하다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할 땐 해도 잘 나다니지. 그러면 그거 해서 다려서 했었지. '아이롱'가 어디 있니.)

106030 @ 아이롱?('아이롱'?)

106030 #1 아이롱은 중간에 우리 헐 때사 아이롱이 나낫주게. 숫불 살롸 ᄌᆞ룩 심엉 쒜. 경허영 헷주.('아이롱'은 중간에 우리 할 때야 '아이롱'이 났었지. 숯불 살라서 자루 심어서 쇠. 그래서 했지.)

106030 @ 거난 그 ᄌᆞ룩 심엉 헤난 그거를 뭐렌 골아낫수과?(그러니까 그 자루 잡고 했던 그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106030 #1 다리미게.(다리미.)

106030 @ 다리미렌 헷수과, 다리웨렌 헷수과?(다리미라고 했습니까, '다리웨'라고 했습니까?)

106030 #1 아니, 다리미.(아니, 다리미.)

106030 @ 다리미렌 헷수과?(다리미라고 했습니까?)

106030 #1 이제 다시 윤디이 바농질허여 놩 이거 실밥을 곱게 헤영 펜안허게 허젠 허민 화리에 불살롸. 그 윤디 구워 둠서 꽉 누르떵 오고리고 헷주게. 경허민 바농 호와난 거난 뭣이라도 페와졍 곱주기게.(이제 다시 인두 바느질해서 놔서 이거 실밥을 곱게 해서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화로에 불살라서. 그 인두 구워 두면서 꽉 눌러서 접고 했지. 그러면 바늘 호고 난 거니까 뭣이라도 펴져서 곱지.)

106030 @ 음.(음.)

106030 #1 이제 짓 돌리젠 허여도 풀 허영 그레 멕영 그 윤디로 꼭 허게 누르뜨고.(이제 깃 달려고 해도 풀 해서 그리 먹여서 그 인두로 꼭 하게 누르고.)

106030 @ 윤디 누르뜨젠 허민 윤디도 잇어야 허지만 그 밑에는?(인두 누르려고 하면 인두도 있어야 하지만 그 밑에는?)

106030 #1 윤디판이 셧주게. 널짝판 요만헌 거 허영 솜 다 싸. 경허영 기지[186] 허영. 경허여근에 허엿주.(인두판이 있지. 널빤지 요만한 거 해서 솜 다 싸. 그래서 천 해서. 그래서 했지.)

106030 @ 지금 다리미판 나오는 거추룩예?(지금 다리미판 나오는 거처럼요?)

---

185) '아이롱'은 일본어 'アイロン'으로 '다리미'를 말한다.
186) '기지'는 일본어 'きじ(生地)'로 '옷감, 천'이라는 의미다.

106030 #1 으. 요 지레기보단 큰다. 이만헤영 소롬허게 허영 영.(으. 요 길이보다는 커. 이만해서 갸름하게 해서 이렇게.)

106030 @ 음.(음.)

106030 #1 경허영 멘들앙 톡 공장[187]에 걸엇당 바농질 헐 때는 내려놩 윤디 허고.(그래서 만들어서 톡 '공장'에 걸었다가 바느질할 때 내려놔서 인두하고.)

106030 @ 윤디허고.(인두하고.)

106030 #1 윤디허고 그건 셔사 바농질을 허주기게. 멩질에 하르방덜 입지젠 헤도 그 윤디판허고 윤디가 셔야.(인두하고 그건 있어야 바느질을 하지. 명질에 할아버지들 입히려고 해도 그 인두판하고 인두가 있어야.)

106030 @ 게민 불은?(그럼 불은?)

106030 #1 화로에. 낭 잉경 허영. 그땐 숫도 풀아라. 엿날 숫 구웡. 게민 그 숫 ᄒᆞ꼼 놓곡 허민 해원이라도 가. 바농질헐 때.(화로에. 나무 잉걸 해서. 그땐 숯도 팔더라. 옛날 숯 구워서. 그럼 그 숯 조금 넣고 하면 종일이라도 가. 바느질할 때.)

106030 @ 해원이라도 가? 그거 무슨 말이라?(종일이라도 가? 그거 무슨 말이야?)

106030 #1 ᄒᆞ루 해원.(하루 종일.)

106030 @ 아, 하하. 숫이 오래가는 거, 그 말. 게난 화리에 숫 놩 불 피워 놩 거기에 허멍 다림질허는 거라예?(아, 하하. 숯이 오래가는 거, 그 말. 그러니까 화로에 숯 놔서 불 피워 놔서 거기에 하면서 다림질하는 거지요?)

106030 #1 어게.(그래.)

106030 @ 숫은 안 구워낫수과?(숯은 안 구웠었습니까?)

106030 #1 숫 우린 안 구워도 산간에서 구민 가멩이에 ᄒᆞᆫ 가멩이 언메 허영 사더라, 우리 아버지네. 경허민 그걸로 겨울게 불살롱 언 날은 방에 앚앙 피우멍 담배도 피우고.(숯 우린 안 구워도 산간에서 구우면 가마니에 한 가마니 얼마 해서 사더라, 우리 아버지네. 그러면 그걸로 겨울 불살라서 추운 날은 방에 앉아서 피우면서 담배도 피우고.)

신발

106032 @ 화리. 이젠 신 물어보쿠다, 신. 신발 종류에는 옛날에 어떤 신발이 잇어낫수과?(화로. 이젠 신 물어보겠습니다, 신. 신발 종류에는 옛날에 어떤 신발이 있었습니까?)

106032 #1 검은 고무신게.(검은 고무신.)

106032 @ 더 옛날에는?(더 옛날에는?)

106032 #1 나무로 판 남신도 싯고게. 찍세기 경헷주게.(나무로 판 나막신도 있고. 짚그랬지.)

106032 @ 찍세기로 만든 신도 신고예.(짚으로 만든 신도 신고요.)

106032 #1 어. 찍세기도 곱게 줄은 거 싯고. 이녁만썩 다 줄앙 신을 때난. 하르방덜

187) '공장'은 옷 등을 걸어두게 박아 놓는 못 따위를 말한다.

다 솜씨마다 다 틀리주게.(어. 짚으로도 곱게 결은 거 있고. 자기만큼씩 다 결어서 신을 때니까. 할아버지들 다 솜씨마다 다 다르지.)

106032 @ 아, 잘허는 사람은.(아, 잘하는 사람은.)

106032 #1 콤콤헌 사름은 곱게 허곡. 난 찍세기 삼앙 신으렌 허난 뒤치기 아판 난 찍세기 안 신어 봔.(꼼꼼한 사람은 곱게 하고. 난 짚 삼아서 신으라고 하니까 뒤축 아파서 짚 안 신어 봤어.)

106032 @ 그럼 바로 고무신 신어서?(그럼 바로 고무신 신었어?)

106032 #1 우린 고무신도 신고 그때 어떵허영 운동화도.(우린 고무신도 신고 그때 어떡해서 운동화도.)

106032 @ 애기 때, 어렸을 때?(아기 때, 어렸을 때?)

106032 #1 아니, 옥앙게.(아니, 커서.)

106032 @ 어렸을 때는?(어렸을 때는?)

106032 #1 어렸을 땐 맨발에덜 뎅겻주게 무신.(어렸을 때 맨발에들 다녔었지 무슨.)

106032 @ 하하하.(하하하.)

106032 #1 혼 서너 살꺼진 맨발에게.(한 서너 살까진 맨발에.)

106032 @ 으. 경허단 이제 신발 신을 때 뒈 가난.(으. 그러니까 이제 신발 신을 때 돼 가니까.)

106032 #1 츠츠츠츠 신도 나와 가고게.(차차차차 신도 나와 가고.)

106032 @ 게도 고무신 경 그때 신어시난 잘살아신게.(그래도 고무신 그렇게 그때 신었으니까 잘살았네.)

106032 #1 에구, 우리 어머니넨 소문난 부제난게. 우리도 슝년에 놈은 영 헤도 그런 밥, 보리밥은 먹어도 다른 밥은 안 먹어 봔. 피밥도 안 먹어 보고.(에구, 우리 어머니네는 소문난 부자니까. 우리도 흉년에 남은 이렇게 해도 그런 밥, 보리밥은 먹어도 다른 밥은 안 먹어 봤어. 피밥도 안 먹어 보고.)

106033 @ 가죽신은 안 신어나신가, 옛날에?(가죽신은 안 신어났나요, 옛날에?)

106033 #1 몰라게 가죽신. 가죽신 시집갈 때에이 가죽신덜 그 새각시 신이 셔나서.(몰라 가죽신. 가죽신 시집갈 때 가죽신들 그 새색시 신이 있었어.)

106033 @ 으, 시집갈 때.(으, 시집갈 때.)

106033 #1 까망헌 거, 가죽으로 멘든 거.(까만 거, 가죽으로 만든 거.)

106033 @ 으, 가죽으로 멘든 거.(으, 가죽으로 만든 거.)

106033 #1 거 엿날 보민 테레비에 보멍 왕덜 신는 신 모냥으로 가죽으로라도 이디 영 물색 허고 바우 둘렁 새각시 신어낫저. 경허난 그건 물림 물림 허멍 오래 허엿저게.(거 옛날 보면 텔레비전에 보면서 왕들 신는 신 모양으로 가죽으로라도 여기 이렇게 물색 하고 가장자리 둘러서 새색시 신었었어. 그러니까 그건 물리기 물리기 하면서 오래 했어.)

106033 @ 게난 그거 말고는 그 이전에는 엇어난 거라예?(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그 이전에는 없엇던 거지요?)

106033 #1 엿날 하르방덜 우리 동네 에염에 아랫 하르방 소가죽으로 허영 모제도 멘들앙 씨연 뎅기더라.(옛날 할아버지들 우리 동네 옆에 아래 할아버지 소가죽으로 해서 모자도 만들어서 쓰고 다니더라.)

106033 @ 아이고, 소가죽으로?(아이고, 소가죽으로?)

106033 #1 으.(으.)

106033 @ 잘사는 사람이라신게.(잘사는 사람이었네.)

106033 #1 잘도 살앗주게.(잘 살았지.)

106034 @ 저기 나막신 만드는 거 영 봐낫수과?(저기 나막신 만드는 거 이렇게 봤었습니까?)

106034 #1 아니.(아니.)

106035 @ 찍신은?(짚신은?)

106035 #1 찍신 만드는 건 봐낫주게.(짚신 만드는 건 봤었지.)

106035 @ 집이서덜 만드는 거?(집에서들 만드는 거?)

106035 #1 집이서덜. 노덜 꼬는 거영.(집에서들. 노들 꼬는 거랑.)

106035 @ 어떵 만듭디과?(어떻게 만듭니까?)

106035 #1 찍신 노 ᄀᆞ는 거 허영 이거 흔 니 가달인가 영 벌경, 니 가달인가 멧 가달에 벌경 이젠 망텡이 줏듯 그 창을 본 허여근에 이젠 줄아. 경허영 이젠 삭 ᄃᆞᆼ기멍 허영 두치기 펜더레 또시 ᄀᆞ늘게 또 짜. 경헤영 이디 코 꿰영 이레 허곡 이레 허곡.(짚신 노 가는 거 해서 이거 한 네 가닥인가 이렇게 벌려서, 네 가닥인가 몇 가닥에 벌려서 이젠 망태기 겯듯 그 창을 본 해서 이젠 결어. 그래서 이젠 삭 당기면서 해서 뒤축 편으로 또 가늘게 또 짜. 그래서 여기 코 꿰어서 이리 하고 이리 하고.)

106035 @ 아, 아. 경헤영 뒤에 코, 코를 어디 끼워? 이 옆에?(아, 아. 그래서 뒤에 코, 코를 어디 끼워? 이 옆에?)

106035 #1 이, 이 앞으로부떠 시작은 허여이.(이, 이 앞으로부터 시작을 해.)

106035 @ 예, 예.(예, 예.)

106035 #1 영허민 이레 이젠 영 놀 서너네 개 영 창 멘들 걸 흘려.(이러면 이리 이젠 이렇게 노를 서너 개 이렇게 창 만들 걸 흘려.)

106035 @ 으, 으.(으, 으.)

106035 #1 경허민 이제 찍으로 데우멍 이젠 이레 가멩이 짜듯이 짜. 경허영 짱 요꺼지 코걸일 이만이 내우멍 이디도 다. 경허민 그 코걸이러레 다 노 허영 이레 영 허고.(그러면 이젠 짚으로 꼬면서 이젠 이리 가마니 짜듯이 짜. 그래서 짜서 요까지 코걸이를 이만큼 내면서 여기도 다. 그러면 그 코걸이에 다 노 해서 이리 이렇게 하고.)

106035 @ 으.(으.)

106035 #1 이제 요딘 가민 이 창만 허영 일로 영허영 요 뒤치기엔 가민 영 거 뒤치기 두 가달에 넴경 요디 코 꿴 것더레 졸라메영 신, 신 뒈라게.(이제 요긴 가면 이 창만 해서 일로 이렇게 요 뒤축엔 가면 이렇게 거 뒤축 두 가닥에 넘겨서 요기 코 꿴 것에 졸라매서 신, 신 되더라.)

106035 @ 삼춘 멘들아지쿠다게. 설명허는 거 보난.(삼촌 만들어지겠네요. 설명하는 거 보니까.)

106035 #1 아이 멘들기사게, 눈치 신 사름이사게. 못 헐 건 뭐 시니.(아 만들기 야, 눈치 있는 사람이야. 못 할 건 뭐 있니.)

106035 @ 게난 멘들아지크라. 경허민.(그러니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106035 #1 찍신 ᄌᆞ는 건 우리가 봣주게.(짚신 겯는 건 우리가 봤지.)

106035 @ 어렸을 때.(어렸을 때.)

106035 #1 어린 때라도게. 날 우쳐[188] 가민 하르방덜 찍신덜 삼젠게.(어린 때라도. 나 날씨가 나빠 가면 할아버지들 짚신들 삼으려고.)

106035 @ 아, 날 우쳐 가민?(아, 날씨 나빠 가면?)

106035 #1 으. 예펜 할망도 홀어멍덜은게 이녁 신을 거 곱진 안헤도 다 짜라게.(으. 여편네 할머니도 홀어머니들은 자기 신을 거 곱지는 않아도 다 짜더라.)

106035 @ 그냥 신을 것들은?(그냥 신을 것들은?)

106035 #1 으.(으.)

106036 @ 짚신에도 영 종류가 이신가?(짚신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나?)

106036 #1 곱게 험벅 서껑 거 깍 멘드는 것도 싯곡게. 영헌 바우에 험벅 막 곱게 오렁 거 영 영 허멍 요레 서껑 비비멍, 비비멍 코 멘들앙.(곱게 헝겊 섞어서 거 신총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런 가장자리 헝겊 아주 곱게 오려거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리 섞어서 비비면서, 비비면서 코 만들어서.)

106036 @ 험벅은 짚신이랑 ᄀᆞ치 헹 영 노 꼬는 거 아니면 험벅만 헹?(헝겊은 짚신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노 꼬는 거 아니면 헝겊만 해서?)

106036 #1 아니. 찍, 찍에 서껑.(아니. 짚, 짚에 섞어서.)

106036 @ 서껑?(섞어서?)

106036 #1 어.(어.)

106036 @ 모냥 낸 건게.(모양 낸 거네.)

106036 #1 모냥 낸 거. 곱게.(모양 낸 거. 곱게.)

모자 등

106037 @ 모냥 낸 거예. 이제는 모자 물어보쿠다예. 모자에도 어떤 모자덜이 잇어낫수과?(모냥 낸 거요. 이제는 모자 물어보겠습니다. 모자에도 어떤 모자들이 있었습니까?)

106037 #1 모잔 어떵헌 모자가 션디?(모잔 어떠한 모자가 있었니?)

106037 @ 밧디 강 일허젠 허민 페렝이도 잇고?(밭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패랭이도 있고?)

106037 #1 페렝이 허곡게. 페렝이나베끼 무시거 모자 시니? 페렝이도이 보릿낭 끄트

188) '날 우치다'는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좋지 않다는 말이다.

머리에 거 헹 우리 다 줄앙 씌엇저.(패랭이 하고. 패랭이나밖에 뭐 모자 있니? 패랭이도 보릿짚 끄트머리에 거 해서 우리 다 결어서 썼어.)

106037 @ 보릿낭으로?(보릿짚으로.)

106037 #1 보릿낭 꼭대기에 거 고고리 피엉 꼭대기 진 거 톡톡 허영 곱게 다듬엉 그걸로 이젠 줄아. 경허여근에 이젠 실로 주멍 페렝이 멘들아세.(보릿짚 꼭대기에 거 이삭 피어서 꼭대기 긴 거 톡톡 해서 곱게 다듬어서 그걸로 이젠 결어. 그래서 이젠 실로 기우면서 패랭이 만들었어.)

106037 @ 그걸 실로 주멍?(그걸 실로 기우면서?)

106037 #1 어.(어.)

106037 @ 그거 페렝이도 잇어나고 왜 비 올 때 써난 것도 이서나지 안헤? 비 올 때 페렝이 써신가?(그거 패랭이도 있었고 왜 비 올 때 썼던 것이 있었지 않아? 비 올 때 패랭이 썼나?)

106037 #1 비 올 땐이 새로 헤영 촉, 촉 무시거엔 허느니. 거 일름이 뭣이여만은? 츠겡이[189]엔 헤냐?(비 올 땐 띠로 해서 촉, 촉 뭐라고 하니. 거 이름이 뭐지만? '츠겡이'라고 하니?)

106037 @ 여기 쓰는 거?(여기 쓰는 거?)

106037 #1 어. 츠겡이 쓰언덜 밧디 이제 우리 가빠 입듯이 영 쓰는 게 비 맞아도 알러레 다 내려가게 새로.(어. 도롱이 쓰고 밭에 이제 가빠 입듯이 이렇게 쓰는 게 비 맞아도 아래도 다 내려가게 띠로.)

106037 @ 새로 멘든 거라예?(띠로 만든 거지요?)

106037 #1 으.(으.)

106037 @ 그걸 뭐렌 골아?(그걸 뭐라고 말해?)

106037 #1 츠궹이.('츠궹이'.)

106037 @ 츠겡이. 그럼 우에는 페렝이 쓴 거라, 갓 쓴 거라?(도롱이. 그럼 위에는 패랭이 쓴 거야, 갓 쓴 거야?)

106037 #1 갓은 비 올 때 써지느냐? 갓은 엿날이 정동으로 짜.(갓은 비 올 때 쓸 수 있니? 갓은 옛날 댕댕이덩굴로 짜.)

106037 @ 정동.(댕댕이덩굴.)

106037 #1 정동으로 짜근에 곱게 허영 웃드르[190] 사름덜 자리 사레 왕 흔 핸 저 돗궹이주제에 대풍 불어 부난 다 불련덜 허멍 헤낫저.(댕댕이덩굴로 짜서 곱게 해서 '웃드르' 사람들 자리돔 사러 와서 한 해 회오리바람에, 대풍 불어 버리니까 다 불려서들 하면서 했었어.)

106037 @ 하하하.(하하하.)

106037 #1 섹유 깡통에 자리 사레 왓당 돗궹이주제에 대풍 불어 비난 다 불련 일러 먹엉 가는 사름도 셔라.(석유 깡통에 자리돔 사러 왔다가 회오리바람에 대풍 불어 버리

189) '츠겡이'는 띠를 엮어 이엉처럼 만들어 비 올 때 쓰는 도롱이를 말한다. '츠궹이'라고도 한다.
190)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니까 다 불려서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

106037 @ 갓 썽 왓당?(갓 써서 왔다가?)

106037 #1 어.(어.)

106037 @ 돗궹이주제는 바람 막 휙 부는 걸 돗궹이주제엔 허는 거고?(회오리바람은 바람 마구 휙 부는 걸 '돗궹이주제'라고 하는 거고?)

106037 #1 어.(어.)

106037 @ 그거에 날라갓구나게.(그거에 날아갔구나.)

106037 #1 으.(으.)

106040 @ 여기 갓 짜는 거 헤낫수과?(여기 갓 짜는 거 했었습니까?)

106040 #1 어?(어?)

106040 @ 양태 짜는 건 안 헤난?(양태 짜는 건 안 했어?)

106040 #1 아니. 하르방덜 거멍헌 것도 쓰영 뎅겨낫주게. 거멍헌 거 무신 이제 그 테레비에 보민 엿날게 요디 쫄랑허고 영헌 모제. 경헌 갓덜은 원 멘듬사 헤신디 어떵사 헌디 씌언은 뎅겨라.(아니. 할아버지들 거먼 것도 써서 다녔었지. 거먼 거 무슨 이제 그 텔레비전에 보면 옛날에 요기 짧고 이런 모자. 그런 갓들은 원 만들기야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쓰고 다니더라.)

106040 @ 음.(음.)

106040 #1 어드레 가젠 허민. 아멩이나 쓰질 안허고. 일헐 때 아니고 어드레 가젠이나 어떵 허민 그런 모제 씨고. 우리 아바지네 어드레 가젠 허민 그 나까오리[191]산디 그거 씨영 가고.(어디 가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쓰지 않고. 일할 때 아니고 어디 가려고나 어떻게 하면 그런 모자 쓰고. 우리 아버지네 어디 가려고 하면 그 중절모자인지 그거 쓰고 가고.)

106039 @ 그 여름에는 페렝이 썻주만은 겨울에 추우카 부덴 써난 모자덜은 엇수과?(그 여름에는 패랭이 썼지만 겨울에 추울까 봐 썼던 모자들은 없습니까?)

106039 #1 겨난 그 나까오리가게, 허고 옛날은 그 저 구슈[192]허연 복기쯔기.(그러니까 중절모자가, 하고 옛날은 그 저 공습해서 '복기쯔기'.)

106039 @ 구슈.(공습.)

106039 #1 복기쯔끼 허연 언날은 거 밧디 갈 땐, 트멍에 무시거 허레 갈 땐 그런 것도 씨는 사름도 셔나서.('복기즈끼' 해서 추운날은 거 밭에 갈 땐, 틈에 뭐 하러 갈 땐 그런 것도 쓰는 사람도 있었어.)

106039 @ 그거 만들엉 집이서?(그거 만들어서 집에서?)

106039 #1 어, 만들엉 쓰는 거주게.(어, 만들어서 쓰는 거지.)

106039 @ 솜 놩 만든 거.(솜 넣어서 만든 거.)

106039 #1 어.(어.)

106039 @ 구슈헐 때 써난 거?(공습할 때 썼던 거?)

---

191) '나까오리'는 일본어 'なかおれぼうし(中折帽子)'의 준말로, '중절모자'를 말한다.

192) '구슈'는 일본어 'くうしゅう(空襲)'로 '공습'의 의미다.

106039 #1 어.(어.)
106039 @ 구슈가 무슨 말이과?('구슈'가 무슨 말이과?)
106039 #1 전쟁 일어날 때 구슈.(전쟁 일어날 때 공습.)
106039 @ 공습허게 뒈면?(공습하게 되면?)
106039 #1 으, 공습헐 때.(으, 공습할 때.)
106042 @ 게난 그런 것도 헤나고. 총 모자, 탕건 같은 거, 망건 같은 건 이 동네?(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었고. 총 모자, 탕건 같은 거, 망건 같은 건 이 동네?)
106042 #1 이 동넨 안 허영 어디 저 성산 어디 저쪽더레 탕건 같은 건 멘들주.(이 동네 안 하고 어디 저 성산 어디 저쪽에 탕건 같은 건 만들지.)
106042 @ 음.(음.)
106042 #1 저 어디 표선 옆이나.(저 어디 표선 옆이나.)
106042 @ 예, 예.(예, 예.)
106042 #1 이런 디선 그런 거.(이런 데선 그런 거.)
106044 @ 예, 예. 아까 비 올 때 영 쓰는 거?(예, 예. 아까 비 올 때 이렇게 쓰는 거?)
106044 #1 ᄎᆞ겡이.(도롱이.)
106044 @ ᄎᆞ겡이?(도롱이?)
106044 #1 으.(으.)
106044 @ 도롱이엔 안 허고?(도롱이라고 안 하고?)
106044 #1 아니, ᄎᆞ겡이엔 헷주.(아니, 'ᄎᆞ겡이'라고 했지.)
106044 @ ᄎᆞ겡이렌 헤나서 이디는예?('ᄎᆞ겡이'라고 했었어 여기서는요?)
106044 #1 으.(으.)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옛날에 밥 헤 먹어난 거 국 헤 먹어난 거 물어볼 건데 생각나는 거 얘기헤 주시민 뭴 거마씨.(옛날에 밥 해 먹었던 거 국 해 먹었던 거 물어볼 건데 생각나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될 거요.)
107001 #2 게 옛날이사 보리밥베끼 더 헹 먹어서.(그래 옛날에야 보리밥밖에 더 해서 먹었어.)
107001 @, #2 하하하.(하하하.)
107001 #2 보리밥 그냥.(보리밥 그냥.)
107001 @ 밥의 종류가 옛날에, 보리밥?(밥의 종류가 옛날에, 보리밥?)
107001 #2 보리밥 감제 쏠밥 감제. 저, 뻿데기 고구마 ᄲᅳᆺ앙 쏠 엇인 사름 그거 밥.

또 막 엇인 사름은 저 뭐고, 등게 ᄀᆞ루, 등게 ᄀᆞ루엔 헌 거 그것도 막 먹엇주게.(보리밥 고구마 쌀밥 고구마. 저, 절간고구마 고구마 빻아서 쌀 없는 사람 그거 밥. 또 아주 없는 사람은 저 뭐지, 등겨 가루, 등겨 가루라고 한 거 그것도 많이 먹었지.)

107001 @ 등게 ᄀᆞ루가 뭐과?(등겨 가루가 뭡니까?)

107001 #2 보리에 속 껍데기.(보리에 속 껍데기.)

107001 @ 아.(아.)

107001 #2 그거 허영 떡도 헹 먹고 밥도 헤 먹어서. 엿날 막 못사는 사름덜은. 우린 식구 엇이난 경 별로 안 헤 먹고 엇인 사름덜은 그게 등게 밥 막 헹 먹고. 그거 어디 웨국서 와실 거라. 그거 가멩이로 상 막 그 밥헹 먹어. 보리밥은 이제 거트민 완전 고급.(그거 해서 떡도 해서 먹고 밥도 해 먹었어. 옛날 아주 못사는 사람들은. 우린 식구 없으니까 그렇게 별로 안 해 먹고 없는 사람들은 그게 등겨 밥 많이 해서 먹고. 그거 어디 외국에서 왔을 거야. 그거 가마니로 사서 많이 그 밥해서 먹어. 보리밥은 이제 같으면 완전 고급.)

107001 @ 고급. 또 뭐 조팝도 헤 먹고?(고급. 또 뭐 조밥도 해 먹고?)

107001 #2 조팝도, 게메 조팝, 보리밥은 고급. 엇인 때 슝년에 그 등게 밥 감저, 고구마 뻿데기 그 감저 허영 뻿데기, 고구마 썰엉 ᄆᆞᆯ류와 이제 그거 ᄲᅳᆺ은 거 그거 밥도 하영 헤 먹엇주. 톳밥 다 헤 먹곡게.(조밥도, 글쎄 조밥, 보리밥은 고급. 없을 때 흉년에 그 등겨 밥 고구마, 고구마 절간고구마 그 고구마 해서 절간고구마, 고구만 썰어서 말려서 이제 그거 빻은 거 그거 밥도 많이 해 먹었지. 톳밥 다 해 먹고.)

107001 @ 으.(으.)

107001 #2 톳은 바다에 톳. 그거 등게 ᄀᆞ루에 허영 엇인 사름은 벨 밥 다 헤 먹엇주, 이제 첨.(톳은 바다에 톳. 그거 등겨 가루에 해서 없는 사람은 별 밥 다 해 먹었지, 이제 참.)

107008 @ 삼춘네 피밥도 헤 먹어낫수과?(삼촌네 피밥도 해 먹었었습니까?)

107008 #2 핀 안 헹 먹언.(피는 안 해서 먹었어.)

107008 @ 아, 핀 안 헹 먹언.(아, 피는 안 해서 먹었어.)

107011 #2 우린 벨로 등게밥 무신 밥 안 헹 먹어나서. 막 그 뭣고 일본 사름덜 헹 공출 받져 불 땐 쏠 막 그 엇이믄 그 톳밥 허영 조사 오민 그거 뵈우고. 톳밥 허영 등게 ᄀᆞ루에 허영 그거 뵈우고 보리밥은 헹 먹으민 곱져 불고 막 헷주게. 보리밥은 고급이난.(우린 별로 등겨 밥 무슨 밥 안 해서 먹었었어. 아주 그 뭐지 일본 사람들 해서 공출 바쳐 버릴 때는 쌀 아주 그 없으면 그 톳밥 해서 조사 오면 그거 보이고. 톳밥 해서 등겨 가루에 해서 그거 보이고 보리밥은 해서 먹으면 숨겨 버리고 아주 했지. 보리밥은 고급이니까.)

107011 @ 고급이난예. 그럼 쏠 종류에는 무슨 쏠, 무슨 쏠이 잇어낫수과?(고급이니까요. 그럼 쌀 종류에는 무슨 쌀, 무슨 쌀이 있었습니까?)

107001 #2 그땐 좁썰, 보리썰베낀 더 엇주게.(그땐 좁쌀, 보리쌀밖에 더 없지.)

107001 @ 뭐 ᄆᆞ물썰 엇어, ᄆᆞ물썰?(뭐 메밀쌀 없어, 메밀쌀?)

107001 #2 ᄆᆞ물썰 잇주게. ᄆᆞ물썰은 워낙 귀허여 그때.(메밀쌀 있지. 메밀쌀은 워낙 귀해, 그때.)

107001 @ 게난 이쪽에 ᄆᆞ물은 농사를 잘 안 지엇구나.(그러니까 이쪽에 메밀은 농사를 잘 안 지었구나.)

107001 #2 아니, 헤난.(아니, 했었어.)

107001 @ 헤난.(했었어.)

107001 #2 이제가 안 허주, 그땐 하영 허연.(이제가 안 하지, 그땐 많이 했어.)

107001 @ 아, 그땐 하영 허연.(아, 그땐 많이 했어.)

107001 #2 그땐 하영 허연.(그땐 많이 했어.)

107001 @ 근데 무사 ᄆᆞ물쏠이 귀헤서?(그런데 왜 메밀쌀이 귀했어?)

107001 #2 그건 제사 때베낀 안 쓰주게. 제사 때만 떡허영 ᄆᆞ물떡도 제사에 허고 이신 집이만 헤서. ᄆᆞ물떡은 맛잇주게. 게난 ᄒᆞ꼼 이신 집이만 건 제사 때 허여. 경 안 헹은 보리떡.(그런 제사 때밖에 안 쓰지. 제사 때만 떡해서 메밀떡도 제사에 하고 있는 집에서만 했어. 메밀떡은 맛있지. 그러니까 조금 있는 집만 건 제사 때 해. 그렇게 안 해서는 보리떡.)

107001 @ 음.(음.)

107001 #2 엇인 집인 보리떡. ᄆᆞ멀떡은 거 ᄒᆞ꼼 이신 집이 곤떡이엔 허영 세미떡[193] 허고 인절미 허고. 건 ᄒᆞ꼼 고급스럽게 것도. 곤떡이엔 헨 것도 ᄒᆞ꼼 고급 ᄉᆞ못 어려왕 그때사. 이제야 쏠이 흔헷주. 얼마나 쏠이 귀헤서게 그때는.(없는 집은 보리떡. 메밀떡은 거 조금 있는 집은 흰떡이라고 해서 '세미떡' 하고 인절미 하고. 건 조금 고급스럽게 것도. 흰떡이라고 해서 것도 조금 고급 사뭇 어려워서 그때야. 이제야 쌀이 흔했지. 얼마나 쌀이 귀했어, 그때는.)

107003 @ 게민 보리밥 지어난 거 보리밥 지어난 거 ᄀᆞᆯ아 줍서. 보리밥 허젠 허민 어떵헙니까?(그럼 보리밥 지었던 거 보리밥 지었던 거 말해 주세요. 보리밥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107003 #2 방에에 지어, ᄆᆞᆯ방에에 지주게.(방아에 찧어, 연자매에 찧지.)

107003 @ 뭐를? 보리 가경강?(뭐를? 보리 가져가서?)

107003 #2 보리, ᄆᆞᆯ방에에 쉐 메왕게 차경, 차경으로 헤영 쉐 이레 영 메우민게 ᄒᆞᆫ 사람은 당그네로 올리고 ᄒᆞᆫ 사람은 비차락으로 씰고.(보리, 연자매에 소 매워서 채, 채로 해서 소 이리 이렇게 매우면 한 사람은 고무래로 올리고 한 사람은 빗자루로 쓸고.)

107003 @ 으.(으.)

107003 #1 경허영 이제 그거 지엉, 두불 지엉, 어떤 땐 그냥 다끔도 허고 이 두 번도 다끄고. 그땐 이 방엣간이 엇이난. 경헨 물, 물에 버무려 거 지어, 저 방엣간. 이제 거트민 뭇고 ᄆᆞᆯ방에.(그래서 이제 그거 찧어서, 두벌 찧어서, 어떤 땐 그냥 닦음도 하고 이 두 번 닦고. 그땐 이 방앗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 물에 버무려서 거 찧어, 저 방앗

193) '세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만들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간. 이제 같으면 뭐지 연자매.)

107003 @ 물방에.(연자매.)

107003 #2 물방에에 거 지어당 널엉 물류와근에 또 ᄀᆞ레에 골앙, ᄀᆞ레에 골민 ᄒᆞ꼼 헤뜨룩허여 경허민 이젠 좀쏠[194]은 좀쏠대로 헹 좀쏠 죽도 쒕 먹고 보리밥도 헹 먹고 헷주. 게난 보리밥은 ᄒᆞ꼼 고급. 보리밥에 좁썰 ᄒᆞ꼼 서끈 건 ᄒᆞ꼼 고급.(연자매에 거 찧어다가 널어서 말려서 또 맷돌에 갈아서, 맷돌에 갈면 조금 해읍스름해 그러면 이젠 '좀쏠'은 '좀쏠'대로 해서 '좀쏠' 죽도 쒀서 먹고 보리밥도 해서 먹고 했지. 그러니까 보리밥은 조금 고급. 보리밥에 좁쌀 조금 섞은 건 조금 고급.)

107003 @ 예.(예.)

107003 #2 막 어실 때 그거.(아주 없을 때 그거.)

107003 @ 게민 보리밥 지을 때 어떵 지어?(그럼 보리밥 지을 때 어떻게 지어?)

107003 #2 장만허영. 게난 흔 번 씻으는 체 마는 체. 엿날은 물 엇고 헤노난. 이제니까 허주. 경허영 밥 불 솜앙 허주게.(장만해서. 그러니까 한 번 씻는 채 마는 채. 옛날은 물 없고 하니까. 이제니까 하지. 그래서 밥 불 때서 하지.)

107003 @ 불 솜앙?(불 때서?)

107003 #2 불 솜앙 허영, 허여 가민 또 영 좁썰 ᄒᆞ꼼 놓곡게. 좁썰 놩 이젠 틈 재 왓당 이제 그거 헹 먹곡. 자리도 이제는 저 무시것덜 잇이난 허주 조겡이[195], 옛날은 전복겁죽.(불 때서 해서, 해 가면 또 이렇게 좁쌀 조금 넣고. 좁쌀 놔서 이젠 뜸 들였다가 이제 그거 해서 먹고. 자리돔도 이제는 저 무시것들 있으니까 하지 '조겡이', 옛날은 전복껍데기.)

107003 @ 예.(예.)

107003 #2 그것에 전복겁죽에. 그거 이제 거트민 남비라. 전복겁죽에 자리 허영 그것에 이 솟강알에. 낭불[196]에 영헨 거 구웡 그거 완전 고급.(그것에 전복껍데기에. 그거 이제 같으면 냄비야. 전복껍데기에 자리 해서 그것에 이 아궁이에. 나무 불에 이런 거 구워서 그거 완전 고급.)

107003 @ 아, 그럼 그 전복겁데기를 뭐렌 불러난 일름이 잇수과?(아, 그럼 그 전복껍데기를 뭐라고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까?)

107003 #2 전복겁데기 그거 거펑, 거펑 허지 안허여?(전복껍데기 그거 '거펑', '거펑' 하지 않아?)

107003 @ 거펑, 거펑예.(전복껍데기, '거펑'요.)

107003 #2 게난 그디 자리 놩 저 솟강알에 놔두민 자리 보글보글 경허영 그거 완전 고급.(그러니까 거기 자리돔 놔서 저 아궁이에 놔두면 자리돔 보글보글 그래서 그거 완전 고급.)

107003 @ 고급인 거라.(고급인 거야.)

107003 #2 고급이라. 아, 게난 우린 하르부지네가 자리 거려나서. 경허민 우리 그거

194) '좀쏠'은 잘게 간 보리쌀 등을 말한다.
195) '조겡이'는 전복이나 떡조개의 껍데기를 말한다.
196) '낭불'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여 피운 불을 말한다.

고급으로 자리 먹주. 자리도 이제난 허주 아무나 먹어서게? 자리도 완전 어려와.(고급이야. 아, 그러니까 우린 할아버지네가 자리돔 떴었어. 그러면 우리 그거 고급으로 자리돔 먹지. 자리돔도 이제니까 하지 아무나 먹었어? 자리돔도 완전 어려워.)

107003 @ 으.(으.)

107003 #2 겨난 자리 거리레 가민 사돈 춪아낫주게. 자리 풀아 주지 안허영. 하도 자리만 사젠 허민게 어려우난게. 경혜영 우리 계속 그거 쭉 솟강알 아래 놔두민 바글바글.(그러니까 자리돔 뜨러 가면 사돈 찾았었지. 자리돔 팔아주지 않아. 하도 자리만 사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그거 쭉 아궁이 아래 놔두면 바글바글.)

107004 @ 보리밥 말씀해 주셨고예, 반지기밥[197]은 어떤 것과?(보리밥 말씀해 주셨고요, '반지기밥'은 어떤 겁니까?)

107004 #2 반지기게 곤썰 ᄒᆞ꼼 논 거 반지기주게.('반지기' 흰쌀 조금 넣은 거 '반지기'지.)

107004 @ 게민 반지기밥을 만들어 봅서. 어떵 만들어?(그럼 '반지기밥'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

107004 #2 게난 보리밥 궤민. 바르르 궬 때 쏠 ᄒᆞ꼼 씻엉 놓민 반지기밥이주게.(그러니까 보리밥 끓으면. 바르르 끓을 때 쌀 조금 씻어서 넣으면 '반지기밥'이지.)

107004 @ 아, 보리쏠에 곤썰 들어간 게 반지기밥?(아, 보리쌀에 흰쌀 들어간 게 '반지기밥'?)

107004 #2 반지기밥.('반지기밥'.)

107004 @ 보리쏠에 좁쏠 들어가면?(보리쌀에 좁쌀 들어가면?)

107004 #2 그건 반지기 아니고 곤썰 들어간 거. 게난 반지기밥이 잔치 때 그 반지기밥 헷주게.(그건 '반지기' 아니고 흰쌀 들어간 거. 그러니까 '반지기밥'이 잔치 때 그 '반지기밥' 했지.)

107004 @ 잔치 때 반지기밥?(잔치 때 '반지기밥'?)

107004 #2 잔치 때. 게난 처음 아침밥은 반지기밥 주고 또 그냥 정식으로 주는 건 그냥 막. 옛날은 밥사발 이만큼 헌 것에 수북허게 거려. 경혜도 다 먹어. 하하. 이제 ᄒᆞᆫ 세 그릇 허여야 ᄒᆞᆫ 그릇 헐 거라. 게난 아침인 그 반지기밥 허영 풋 놓고 허여.(잔치 때. 그러니까 처음 아침밥은 '반지기밥' 주고 또 그냥 정식으로 주는 건 그냥 아주. 옛날은 밥사발 이만큼 한 것에 수북하게 떠. 그래도 다 먹어. 하하. 이제 한 세 그릇 해야 한 그릇 할 거야. 그러니까 아침엔 그 '반지기밥' 해서 팥 넣고 해.)

107004 @ 음. 풋도 놓고?(음. 팥도 넣고?)

107004 #2 풋 놩. 풋 놔근에. 다 옛날은 잔치 때 저 풋 놘 밥헤서. 이제난 안 허주.(팥 놔서. 팥 놔서. 다 옛날은 잔치 때 저 팥 넣어서 밥했어. 이제니까 안 하지.)

107005 @ 곤밥은 어떵?(흰밥은 어떻게?)

107005 #2 곤밥은 이제 쌀밥이 곤밥.(흰밥은 이제 쌀밥이 흰밥.)

---

197)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으로, 보통 다른 두 종류의 쌀을 섞어 지은 밥을 말한다. '반지기'라고도 한다.

107005 @ 어떤 때 먹어져서, 곤밥은?(어떤 때 먹을 수 있어, 흰밥은?)

107005 #2 제서 때베낀 안 멋엇주. 제서 때, 멩질 때베낀.(제사 때밖에 안 먹었지. 제사 때, 명질 때밖에는.)

107005 @ 아.(아.)

107005 #2 게도 그때 ᄒᆞ꼼씩 줜. ᄒᆞᆫ 숟가락씩 하하하. ᄒᆞᆫ 숟가락씩 주주게. 이제거치 사발 ᄀᆞ득 주카부덴? 영 쪼끔, 이제 거트민 영 ᄒᆞᆫ 움큼 허여근에. 게난 멧밥, 멧밥이렌 허엿주게.(그래도 그때 조금씩 줬어. 한 숟가락씩. 하하하. 한 숟가락씩 주지. 이제 같이 사발 가득 줄까 봐? 이렇게 조금, 이제 같으면 이렇게 한 움큼 해서. 그러니까 메, 메라고 했지.)

107005 @ 멧밥?(메?)

107005 #2 멧밥.(메.)

107005 @ 게난.(그러니까.)

107005 #2 옛날은 잔치 때 새각시 밥 이제 영 헤영 가짓겡이 큰 거 허영 주믄 이제 아이덜은 창 무뚱이 빈주룽허게[198] 앚으민 그 밥 ᄒᆞᆫ 숟가락씩 더 줘. 손 영 내밀민 ᄒᆞᆫ 숟가락씩.(옛날은 잔치 때 새색시 밥 이제 이렇게 해서 밥뚜껑 큰 거 해서 주면 이제 아이들은 창 문밖에 '빈주룽하게' 앉으면 그 밥 한 숟가락씩 더 줘. 손 이렇게 내밀면 한 숟가락씩.)

107005 @ 누가? 새각시가 주는 거라?(누가? 새색시가 주는 거야?)

107005 #2 아니. 그 들러리 온 사람이. 그 곤밥이 얼마나 귀헤사, 그 쏠밥이 얼마나 귀헤사 거 경 줘게. 게난 창 무뚱에 밥 얻어먹젠 막 모여 앚앙.(아니. 그 들러리 온 사람이. 그 흰밥이 얼마나 귀해야, 그 쌀밥이 얼마나 귀해야 거 그렇게 줘. 그러니까 창 문밖에 밥 얻어먹으려고 많이 모여 앉아서.)

107005 @ 아.(아.)

107005 #2 게민 이제 새각신 미안허난 ᄒᆞᆫ 숫구락 두 숫구락, ᄒᆞᆫ 서너 숫구락만 ᄒᆞ꼼 떠먹주게. 겐 그 밥 손덜 다 내밀멍. 곤밥 얻어먹젠게.(그럼 이제 새색시 미안하니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한 서너 숟가락만 조금 떠먹지. 그래서 그 밥 손들 다 내밀면서. 흰밥 얻어먹으려고.)

107005 @ 곤밥 얻어먹젠.(흰밥 얻어먹으려고.)

107005 #2 곤밥 ᄒᆞ쏠 얻어먹젠.(흰밥 조금 얻어먹으려고.)

107005 @ 게민 이디 곤밥 지어 먹젠 산디 농사헷다예?(그럼 여기 흰밥 지어 먹으려고 밭벼 농사했네요?)

107005 #2 아니, 우린 산디가 아니고 나룩 허연 용당[199]이난.(아니, 우린 밭벼가 아니고 벼 했어. 용당이니까.)

107005 @ 아. 용당 바로 이디 옆 아니?(아. 용당 바로 여기 옆 아니?)

107005 #2 으. 그 고산 사이에 거의 다 논이라. 이제 농사 안 짓으난 헤도. 다 논.

198) '빈주룽허다'는 여기저기 흔하게 널어져 있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99) '용당'은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를 말한다.

게난 우리도 이디서 강 나룩 갈아난.(으. 그 고산 사이에 거의 다 논이야. 이제 농사 안 지으니까 해도. 다 논.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가서 벼 갈았었어.)

107005 @ 나룩 갈아난예?(벼 갈았었어요?)

107005 #2 나룩 갈아난디 이젠 다 풀밧 뒈연. 게난 우린 산디 안 허영 나룩 헤 먹언. 처음엔 그냥 덤벙덤벙 싱그단 이제 멘에서 줄로 싱그렌 허난 줄로 싱건. 게난 줄로 싱그민 막 좋는디 그때 옛날은 몰랑 아무 디나 뚝닥뚝닥. 겐 멘에서 줄 짝 쳔 줄로 딱딱 꼿은 디만 싱그민 풀 메기 좋고 뭐. 경헨 검질 약 주고 헤 가난 오꼿 설러 불언.(벼 갈았었는데 이젠 다 풀밭 되었어. 그러니까 우린 밭벼 안 하고 벼 해 먹었어. 처음엔 그냥 덤벙덤벙 심다가 이제 면에서 줄로 심으라고 하니까 줄로 심었어. 그러니까 줄로 심으니까 아주 좋은데 그때 옛날은 몰라서 아무 데나 뚝닥뚝닥. 그래서 면에서 줄 짝 쳐서 줄로 딱딱 꼿은 데만 심으면 풀 매기 좋고 뭐. 그래서 김 약 주고 해 가니까 후딱 그만둬 버렸어.)

107005 @ 음.(음.)

107005 #1 옛날은 막 손으로 메엿주기게. 나룩, 나룩 갈믄 손으로 막 멘디 그 무시거 마세토[200] 나오단 무신 한데렌[201] 헌 거 나오난 검질 엇어 가난 나룩 설러 불언.(옛날은 아주 손으로 맸지. 벼, 벼 갈면 손으로 마구 맸는데 그 무엇 '마세토' 나오다가 무슨 '한데렌' 하는 거 나오니까 김 없어 가니까 벼 그만둬 버렸어.)

107005 @ 그거 약 이름?(그거 약 이름?)

107005 #2 으.(으.)

107005 @ 그거 나와 가난 나룩 설러 불언. 게민 나룩 농서지엇시민 곤밥 하영 먹어신게.(그거 나와 가니까 벼 그만둬 버렸어. 그럼 벼 농사지었으면 흰밥 많이 먹었네요.)

107005 #2 경헤도 그거 풀앙 그걸로 돈 허주게 하영 먹을 거 어디 셔게. 그자 운동회 때 멩질 때베낀 안 허주게. 쏠 먹지 안허여. 말쩨라 가사 쏠 먹엇주. (그래도 그거 팔아서 그걸로 돈 하지 많이 먹을 거 어디 있어. 그저 운동회 때 명질 때밖에 안 하지. 쌀 먹지 않아. 나중에 가야 쌀 먹었지.)

107005 @ 말쩨라 가사 쏠 먹엇주?(나중에 가야 쌀 먹었지?)

107005 #2 으, ᄒᆞ쏠 이 쏠들이 흔헤 가사 먹엇주, 안 먹어. 거 다 풀앙 걸로 그거 큰 돈이라. 거 풀고 거 바쪄. 그때 시절에도 흔 가멩이 오륙만 원이고게. 이제가 막 헐런 셈이라. 그때 훤 십 멧년, 십오 년 이십 년 전이도 오륙만 원 헤서 쏠. 나룩 정부에 바찌믄. 게난 그걸 풀주 먹어게.(으. 조금 이 쌀들이 흔해 가야 먹었지, 안 먹어. 거 다 팔아서 걸로 그거 큰돈이야. 거 팔고 거 바쳐. 그때 시절에도 한 가마니 오륙만 원이고. 이제가 아주 싼 셈이야. 그때 한 십 몇 년, 이십 년 전에도 오륙만 원 해서 쌀. 벼 정부에 바치면. 그러니까 그걸 팔지 먹어.)

107006 @ 예. 조팝에 대해 ᄀᆞᆯ아 줍서, 조팝.(예. 조밥에 대해 말해 주세요, 조밥.)

107006 #2 조팝은 그냥 좁썰만 놩 그냥 씻어 놩 허주게, 보글보글.(조밥은 그냥 좁

200) '마세토'는 벼농사 지을 때 사용했던 농약 이름이다.
201) '한데렌'은 벼농사 지을 때 사용했던 농약 이름이다.

쌀만 놔서 그냥 씻어 놔서 하지, 보글보글.)

107006 @ 보글보글.(보글보글.)

107006 #2 으. 불 솜앙게.(으. 불 때서.)

107006 @ 보글보글 허민 익는 거?(보글보글 하면 익는 거?)

107006 #2 으. 조팝이 막 빨라. 보리밥은 궤여 놩 한참 싯당 그 좁썰 놩 또 허고 허는디 조팝은 금방 뒈여. 쉬와, 쉬와.(으. 조밥이 아주 빨라. 보리밥은 끓어 놔서 한참 있다가 그 좁쌀 놔서 또 하고 하는데 조밥은 금방 돼. 쉬워, 쉬워.)

107007 @ 픗밥은? 픗밥은 어떵 만듭니까?(팥밥은? 팥밥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07 #2 픗밥은 픗만은 안 허주게.(팥밥은 팥만은 안 하지.)

107007 @ 픗만은 안 헤. 어떵헤?(팥만은 안 해.)

107007 #2 픗 솖앙 보리밥에 허민 그거 완전 고급 것도.(팥 삶아서 보리밥에 하면 그거 완전 고급 것도.)

107007 @ 고급. 게난 아까 잔치 때 픗밥 헷엇던 거 아니?(고급. 그러니까 아까 잔치 때 팥밥 했었던 거 아니?)

107007 #2 픗 솖아 놩 보리썰에 허껑 픗밥 허주게.(팥 삶아 놔서 보리쌀에 섞어서 팥밥 하지.)

107007 @ 주로 잔치 때 헙니까?(주로 잔치 때 합니까?)

107007 #2 잔치 때. 잔치 때 안 허영 픗밥 안 헤. 겨난 잔치허젠 허민 픗 혼 말씩. 잔치헐 때 엿날은 쏠도 혼 석 섬썩 두 섬썩. 큰 멕에 허영 이젠 밥 멕에 퍼낫주게. 멩텡이. 멕 알아?(잔치 때. 잔치 때 안 해서 팥밥 안 해. 그러니까 잔치하려고 하면 팥 한 말씩. 잔치할 때 옛날은 쌀도 한 석 섬씩 두 섬씩. 큰 멱에 해서 이젠 밥 멱에 폈었지. 망태기. 멱 알아?)

107007 @ 예. 멕 알아집니다. 산디찍으로 영.(예. 멱 압니다. 밭볏짚으로 이렇게.)

107007 #2 어, 것에 퍼 놔. 막 밥에 그 찍 다 부떠. 경헤도 거 막 먹어. 경헤영 질구덕[202]에도 푸고 질구덕만 다 아이 뒈난. 쏠은 질구덕에 씻어 놓고.(어, 것이 떠 놔. 마구 밥에 다 짚 다 붙어. 그래도 거 마구 먹어. 그래서 '질구덕'에도 뜨고 '질구덕'만 다 안 되니까. 쌀은 '질구덕'에 씻어 놓고.)

107007 @ 겨난 쏠.(그러니까 쌀.)

107007 #2 쏠 석 섬, 두 섬 먹어.(쌀 석 섬, 두 섬 먹어.)

107007 @ 손님이 많아 부난 아니?(손님이 많아 버리니까 아니?)

107007 #2 아니, 밥을 하영 먹엉 받아 가고. 아기덜 둘아왕 받아 가고 먹고.(아니, 밥을 많이 먹고 받아 가고. 아기들 데려와서 받아 가고 먹고.)

107007 @ 으.(으.)

107007 #2 이제 반도 안 헷주 손님이. 이제가 손님, 저 친목이니 뭐니 웨방서니 뭐 오주. 옛날에사 동네 사름허고 친촉베끼 안 와. 경헤도 하영 먹어. 밥사발이 이제 시 곱, 니 곱 먹으난게.(이제 반도 안 했지 손님이. 이제가 손님, 저 친목이니 뭐니 외방에서

202) '질구덕'은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큰 바구니를 말한다.

뭐 오지. 옛날에야 동네 사람하고 친척밖에 안 와. 그래도 많이 먹어. 밥사발이 이제 세 곱, 네 곱 먹으니까.)

107008 @ 피밥은, 피밥?(피밥은, 피밥?)

107008 #2 핀 잘 안 허여. 뭐고, 저 대죽밥은 허여도 피밥은 안 헤 봣주.(피는 잘 안 해. 뭐지, 저 수수밥은 해도 피밥은 안 해 봤지.)

107001 @ 아, 대죽밥이 잇어낫수과?(아, 수수밥이 있었습니까?)

107001 #2 대죽쏠 대죽. 이거 대죽 닮아, 이거 나 이거 줜게. 이거 대죽 아닌가?(수수쌀 수수. 이거 수수 닮아, 이거 나 이거 주던데. 이거 수수 아닌가?)

107001 @ 수수, 수수.(수수, 수수.)

107001 #2 으, 게난 대죽 닮안게.(으, 그러니까 대죽 같았어.)

107001 @ 요즘은 건강식으로 이거 막.(요즘은 건강식으로 이거 많이.)

107001 #2 게난 우리 마농 헴시난 농촌지도소서 왓ᄀᆞ렌 허멍 이거 네 개 저, 좁썰 하나. 지장쏠 하나 이거 두 개 담아진 거 가방 하나 줜게. 마농 이녁냥으로 쫄랑 그거 재어 봉. 멧 키로 나느니 그거 재여 봉.(그러니까 우리 마늘 하고 있으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거 네 개 저, 좁쌀 하나. 기장쌀 하나 이거 두 개 담긴 거 가방 하나 줬어. 마늘 자기대로 잘라서 그거 재어 보고. 몇 킬로그램 나는지 그거 재어 봐서.)

107001 @ 아. 평당에 얼마나 남신가?(아. 평당에 얼마나 나는지?)

107001 #2 으. 그거 재레. 여자 서이 와신가? 경헨 이거, 이거 대죽쏠 닮아.(으. 그거 재러. 여자 셋이 왔나? 그래서 이거, 이거 수수쌀 같아.)

107001 @ 대죽밥은 헹 먹어난 거 아니 삼춘?(수수밥은 해서 먹었던 거 아니 삼촌?)

107001 #2 옛날 대죽밥 헹 먹주게.(옛날 수수밥 해서 먹지.)

107001 @ 대죽밥은 어떵 만들앗수과, 그럼?(수수밥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107001 #2 대죽밥도 그냥 조팝 허듯 허민 뒈여.(수수밥도 그냥 조밥 하듯 하면 돼.)

107001 @ 조팝 허듯. 그럼 대죽쏠도 금방 익어?(조밥 하듯. 그럼 수수쌀도 금방 익어?)

107001 #2 금방 익어.(금방 익어.)

107001 @ 대죽쏠 장만은 어떵 헙니까?(수수쌀 장만은 어떻게 합니까?)

107001 #2 옛날은 다 남방에게. 남방에 뿟고. 대죽쏠은 ᄆᆞᆯ방에 갈 거 엇고 남방에.(옛날은 다 나무절구. 나무절구 빻고. 수수쌀은 연자매 갈 거 없고 나무절구.)

107001 @ 많지 안허난예?(많지 않으니까요?)

107001 #2 으. 남방에. 남방에 우리도 셔나서. 남방에 돌방에 신 집도 싯고 남방에 신 집도 싯고. 게민 그거.(으. 나무절구. 나무절구 우리도 있었어. 나무절구 돌방아 있는 집도 있고 나무절구 있는 집도 있고. 그럼 그거.)

107001 @ 그거 다 일일이.(그거 다 일일이.)

107001 #2 으게. 너이도 짓고 서이도, 시콜방에[203]. 시콜방에, 네콜방엔[204] 잘 짓는

203) '시콜방에'에서 '콜방에'는 방아를 찧는 사람의 수에 따라 붙는 말로 '시콜방에'는 세 사람이 찧는 방아를 말

사람. 시콜방엔 기자 보통. 저디가 흔 번 허민 나 흔 번 다 맞촤.(으. 넷도 찧고 셋도, '시콜방에', '네콜방에'는 잘 짓는 사람. '시콜방에'는 그저 보통. 저기가 한 번 하면 나 한 번 다 맞춰서.)

107001 @ 예, 맞춰사 허난예.(예, 맞춰야 하니까요.)

107001 #2 이어사 이어사[205] 허멍 그 소리에 맞추멍게. 소리에 맞촹. 제기 허젠 허민 둘이가 마주쳥 안 뒐 거난게. 요만헌 구멍이난게 딱 구멍만 찍어야 뒐 거난.('이어사 이어사' 하면서 그 소리에 맞추면서. 소리에 맞춰서. 재게 하려고 하면 둘이 마주쳐서 안 될 거니까. 요만한 구멍이니까 딱 구멍만 찍어야 될 거니까.)

107001 @ 그럼 그 대죽 남방에 지민 이런 쏠이 나옵니까?(그럼 그 수수 나무절구에 찧으면 이런 쌀이 나옵니까?)

107001 #2 나와, 나와. 영 저 뭐고, 이런 디 ᄀᆞ렛방석 허연 아까 ᄀᆞᆯ은 저 전복 겁죽으로 훌터.(나와, 나와. 이렇게 저 뭐고, 이런 데 맷방석 해서 아까 말한 저 전복껍데기로 홅어.)

107001 @ 전복겁데기로 훌터?(전복껍데기로 홅어?)

107001 #2 으.(으.)

107001 @ 대죽쏠.(수수쌀.)

107001 #2 그런 것도 훌트고 쳇망으로도 훌트고.(그런 것도 홅고 쳇바퀴로 홅고.)

107001 @ 쳇망으로도 훌트고. 아, 클로 안 헙니까?(쳇바퀼도 홅고. 아, 틀로 안 합니까?)

107001 #2 클로 안 헤. 저 나룩은 클로 허여도. 대죽쏠은 클로 못 허여. 묵싹헤[206] 부난.(틀로 안 해. 저 벼는 틀로 해도. 수수쌀은 틀로 못 해. '묵싹해' 버리니까.)

107001 @ 아, 기.(아, 그래.)

107001 #2 게난 쳇망, 쳇망에 영 자락자락 훌터져. 거 뭣고 콩밧에 놧당, 콩밧데 놧당 그거 끈어 왓주게.(그러니까 쳇바퀴, 쳇바퀴에 이렇게 자락자락 홅을 수 있어. 거 뭐지 콩밭에 놨다가, 콩밭에 놨다가 그거 끊어 왔지.)

107001 @ 으.(으.)

107001 #2 게난 그거 무슨 대죽이엔 허멍 먹는 대죽이엔 허멍 허고. 비자락 멘드는 대죽은 비대죽[207]. 그건 이제 이제 쏠대죽[208] 헷주게. 쏠대죽은 허영 조겡이[209]로도 영 긁으고 주로 저 뭣고 쳇망. 쳇망으로 자락자락 헐 거주.(그러니까 그거 무슨 수수라고 하면서 먹는 수수라고 하면서 하고. 빗자루 만드는 수수는 '비대죽'. 그건 이제 이제 '쏠대죽' 했지. '쏠대죽'은 해서 '조겡이'로도 이렇게 긁고 주로 저 뭐지 쳇바퀴. 쳇바퀴로 자락자락 할 거지.)

한다.

204) '네콜방에'는 네 사람이 찧는 방아를 말한다.

205) '이어사 이어사'는 방아를 찧으면서 내는 소리를 말한다.

206) '묵싹허다'는 잘게 부서진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207) '비대죽'는 빗자루를 만들 때 쓰는 수수를 말한다.

208) '쏠대죽'은 수수쌀을 얻을 수 있는 수수를 말한다.

209) '조겡이'는 전복이나 떡조개의 껍데기를 말한다.

107001 @ 으. 조겡이는 뭐라?(으. '조겡이'는 뭐야?)

107001 #2 아까 전복겁죽, 조겡이.(아까 전복껍데기, '조겡이'.)

107001 @ 그 전복껍질을 거펑이렌도 허고?(그 전복껍데기를 '거평'이라고도 하고?)

107001 #2 으, 조겡이엔도 허고.(으, '조겡이'라고도 하고.)

107001 @ 조겡이엔도 허고. 어떤 때 거펑이엔 허고 어떤 때 조겡이엔 헤?('조겡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 '거평'이라고 하고 어떤 때 '조겡이'라고 해?

107001 #2 거펑은, 할망덜은 거펑이엔 잘헤.('거평'은, 할머니들은 '거평'이라고 잘해.)

107001 @ 예.(예.)

107001 #2 으, 조겡이, 조겡인 ᄒᆞ꼼 그냥 사름덜이 조겡이엔 잘 곧고.(으, '조겡이', '조겡이'는 조금 그냥 사람들이 '조겡이'라고 잘 말하고.)

107001 @ 아, 조겡이.(아, '조겡이'.)

107001 #2 조겡이 ᄒᆞ꼼 족은 거, 거펑은 큰 거. 큰 건 거펑. 옛날은 조겡이 막 컷주게. 게난 그디 자리 보깡 먹엇주. 게난 그 고망 잇지 안허냐, 전복 고망에 영 뭣으로 막앙.('조겡이' 조금 작은 거, '거평'은 큰 거. 큰 건 '거평'. 옛날은 '조겡이' 아주 컸지. 그러니까 거기 자리 볶아서 먹었지. 그러니까 그 고망 있지 않니, 전복 구멍에 이렇게 뭐로 막아서.)

107001 @ 뭘로 막앗수과?(뭐로 막았습니까?)

107001 #2 험벅으로 막아.(헝겊으로 막아.)

107001 @ 국물 세지 말게?(국물 세지 말게?)

107001 #2 어. 겐 거 보까 먹어서. 바글바글 헨 보까 먹언. 막 거펑에 거 맛잇덴 허멍 헤낫주.(어. 그래서 거 볶아 먹었어. 바글바글 해서 볶아 먹었어. 아주 전복껍데기에 거 맛있다고 하면서 했었지.)

107001 @ 음.(음.)

107001 #2 반찬이, 큰 반찬 그거. 옛날에 마농지도 고급 반찬. 뭐 반찬이 일절 이제 거치 이거니 저거니 반찬이 이서게. 마농지허고 ᄆᆞᆷ치. ᄆᆞᆷ치허고 마농지.(반찬이, 큰 반찬 그거. 옛날에 마늘장아찌도 고급 반찬. 뭐 반찬이 일절 이제 같이 이거니 저거니 반찬이 있어. 마늘장아찌하고 모자반장아찌. 모자반장아찌하고 마늘장아찌.)

107001 @ 반찬은 이땅 물어보쿠다예. 이 대죽밥은 맛 좋앗수과?(반찬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수밥은 맛 좋았습니까?)

107001 #2 맛 좋주게, 맛셔. 떡도 맛셔.(맛 좋지, 맛있어. 떡도 맛있어.)

107001 @ 떡도 맛셔?(떡도 맛있어?)

107001 #2 으.(으.)

107009 @ 감저밥도 헤낫수과?(고구마밥도 했었습니까?)

107009 #2 게난 그거 아까 감저 쏠, 감저 쏠.(그러니까 그거 아까 고구마 쌀, 고구마 쌀.)

107009 @ 감저 쏠?(고구마 쌀?)

107009 #2 고구마, 뻿데기 물류왕. 뿟앙 요만썩 허게 헌 것이 감저 쏠. 게난 그거 보리쏠에 막 하영 놔. 감저밥.(고구마, 절간고구마 말려서. 빻아서 요만큼씩 하게 한 것이 고구마 쌀. 그러니까 그거 보리쌀에 아주 많이 넣어서. 고구마밥.)

107009 @ 아, 뻿데기 가루 내당.(아, 절간고구마 가루 내다가.)

107009 #2 가루는 수제비 헹 먹고 수제비 빠당 홁은 거는 거 이제 밥에 놩 먹어.(가루는 수제비 해서 먹고 수제비 뽑다가 굵은 거는 거 이제 밥에 넣어서 먹어.)

107009 @ 아, 밥에 놩 먹어?(아, 밥에 넣어서 먹어?)

107009 #2 으. 그 ᄀᆞ루는 수제비 헹 먹고. 감저 수제빈 주로 하영 헹 먹고 게난 요만씩 헌 건 쏠에 놩 밥허민 검엉헤도 맛셔.(으. 그 가루는 수제비 해서 먹고. 고구마 수제비는 주로 많이 해서 먹고 그러니까 요만큼씩 한 건 쌀에 넣어서 밥하면 검어도 해도 맛있어.)

107009 @ 그런 거 말고 감저를 잘랑 찌당 거기에 밥 좁썰 놓든.(그런 거 말고 고구마를 잘라서 찌다가 거기에 밥 좁쌀 넣든.)

107009 #2 건 이제사 경 먹엇주. 옛날에 경 안 허여. 이제가 이제 우리 육지 간 때 경헌게. 육지서 경 허영 먹언게. 아니, 거 막 맛셔. 뻿데기 감저뻿데기 헤영 강넹이 ᄀᆞ루 놩 먹고 육지서도 허고 이디서 경 허영 숢아 먹은디. 옛날엔 감저밥, 우리 이몬 쏠 문딱 허연 신랑 저 일본 보내는 차비 허난 매날매날 감저밥만 헹 먹어서. 감저쏠밥만.(건 이제야 그렇게 먹었지. 옛날에 그렇게 안 해. 이제가 이제 우리 육지 갔을 때 그러더라. 육지에서 그렇게 해서 먹었어. 아니, 거 아주 맛있어. 절간고구마 절간고구마 해서 옥수수 가루 넣어서 먹고 육지에서도 하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삶아서 먹었는데. 옛날은 고구마밥, 우리 이모는 쌀 모두 해서 신랑 저 일본 보내는 차비 하니까 매날매날 고구마밥만 해서 먹었어. 고구마쌀밥만.)

107009 @ 으.(으.)

107009 #2 난 ᄉᆞ못 영양실조 걸렴덴 허멍. 그 감저뻿데기 아메도 보리밥만 못 허주게.(난 사뭇 영양실조 걸린다고 하면서. 그 절간고구마 아무래도 보리밥만 못하지.)

107009 @ 뻿데긴 옛날서부터 만들엇다예?(절간고구마는 옛날부터 만들었네요?)

107009 #2 으. 옛날에 뻿데기 하영 만들엇주.(으. 옛날에 절간고구마 많이 만들었지.)

107009 @ 옛날에 기계 나기 전에는 거 칼로 다 썰엇수과?(옛날에 기계 나기 전에는 거 칼로 다 썰었습니까?)

107009 #2 아니, 영 손으로 돌리는 기계.(아니,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기계.)

107009 @ 손으로 돌리는 기계. 납작납작허게 썰어지는 거예?(손으로 돌리는 기계. 납작납작하게 썰어지는 거요?)

107009 #2 그 좔좔허게 경허단 그다음에 그 막 크게 허연 뭣고 이 정운기에 메왕 달달달. 그거 허민 흔 시간 얼마썩 그거 썰어 줜. 막 그거 썰기 쉬와게.(그 좔좔하게 그러다가 그다음에 그 아주 크게 해서 뭐지 그 경운기에 매워서 달달달. 그거 하면 한 시간 얼마씩 그거 썰어 줘서. 아주 그거 썰기 쉬워.)

107009 @ 손으로 돌리는 게 삼춘 어린 때도 잇어낫수과?(손으로 돌리는 게 삼촌 어

린 때도 있었습니까?)

107009 #2 잇어난.(있었어.)

107009 @ 아, 손으로 돌리는 거 잇어난.(아, 손으로 돌리는 거 있었어.)

107009 #2 으, 거 정부에서 줘서게. 우리 집이 아덜이 이제 오십여섯인가, 큰아덜이. 겨난 벌벌 기여. 강 그거 영 허어부난 가죽 마땅 벗겨져 변.(으, 거 정부에서 줬어. 우리 집의 아들이 이제 오십여섯인가, 큰아들이. 그러니까 벌벌 기어. 가서 그거 이렇게 해 버리니까 가죽 모두 벗겨져 버렸어.)

107009 @ 누가?(누가?)

107009 #2 우리 집 아덜이. 이제 오십여섯인디 두 설 때쯤 뒈여실 거라. 겨난 우리 썰단 놔뒁 영 허느네. 허난 감저 담는디 기여강 그 눌에 강 딱 헤여 부난 이디 문딱 벳겨젼게. 지냥으로 허연. 그 눌신디 강 헤 부난, 지냥으로 돌린 거라. 우린 감저덜 줏어 놓단 보난.(우리 집 아들이. 이제 오십여섯인데 두 살 때쯤 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썰다가 놔두고 이렇게 하지. 하니까 고구마 담는데 기어가서 그 날에 가서 딱 해 버리니까 여기 모두 벗겨졌어. 자기대로 해서. 그 날에 가서 해 버리니까, 자기대로 돌린 거야. 우린 고구마 주워 놓다가 보니까.)

107009 @ 음.(음.)

107009 #2 오십여섯 오십여섯 맞아, 우리 큰아덜. 경헨 겁죽 마땅 벗어져서. 게난 그 전이도 잇어나서.(오십여섯 오십여섯 맞아, 우리 큰아들. 그래서 거죽 모두 벗겨졌어.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어.)

107009 @ 으. 게난 그 전이도 잇어낫구나.(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구나.)

107009 #2 으. 잇어난.(으. 있었어.)

107009 @ 그 기계 잇기 전에 칼로 썰어 본 기억도 잇수과?(그 기계 있기 전에 칼로 썰어 본 기억도 있습니까?)

107009 #2 칼론 안 썰언 주로. 아니, 저 밤이 거튼 때 저 칼로 썰주게. 밤이 거튼 때 칼로 썰어. 칼로 썰엉 잘 아니 믈라.(칼로는 안 썰고 주로. 아니, 저 밤에 같은 때 저 칼로 썰지. 밤에 같은 때 칼로 썰어. 칼로 썰어서 잘 안 말라.)

107009 @ 으, 두꺼웡?(으, 두꺼워서?)

107009 #2 두터와 부난. 기계로 썰어낫주. 그 기계 엇인 사람은 빌어단도 허고. 이 저 면에서 얼마썩 헨 거 줘서, 우리 생각에.(두꺼워 버리니까. 기계로 썰었었지. 그 기계 없는 사람은 빌려다가도 하고. 이 저 면에서 얼마씩 해서 거 줬어, 우리 생각에.)

107009 @ 그 기계를 나눠 줜.(그 기계를 나눠 줬어.)

107009 #2 엇인 사람은 엇어. 겐 빌어단도 허고. 경 허단 이제 우리 결혼허영 ᄒᆞ꼼 뒌 때 그 모다 메왕 경운기, 경운기에 영 헹 그거로 거 두 개, 그런 기계가 두 개 메왕 막 썰언.(없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빌려다가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결혼해서 조금 된 때 그 모터 매워서 경운기, 경운기에 이렇게 해서 그거로 거 두개, 그런 기계가 두 개 매워서 마구 썰었어.)

107009 @ 으.(으.)

107009 #2 게난 사람 힘으로 안 들엉 막 쉬왓주게. 게난 흔 시간에 그때 얼마씩 허영. 막 영업허는 사람이 셔.(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안 들고 아주 쉬웠지. 그러니까 한 시간에 그때 얼마씩 해서. 마구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

107009 @ 경헨 밧디서 그냥 ᄆᆞᆯ렷수과, 그걸?(그래서 밭에서 그냥 말렸습니까, 그걸?)

107009 #2 아이, 처음엔 밧디 ᄆᆞᆯ리우질 안 허고 지어당 촐왓디 강 널엉 ᄆᆞᆯ령 불리젠 허난 막 힘들어낫저. 말쩬 다 밧디 그자 땅에 썰어놘.(아이, 처음엔 밭에 말리지 않고 지어다가 꼴밭 가서 널어서 말려서 불리려고 하니까 아주 힘들었었지. 나중에 다 밭에 그저 땅에 썰어놔서.)

107009 @ 하하하.(하하하.)

107009 #2 게난 머리가 ᄎᆞᄎᆞᄎᆞᄎᆞ. 그땐 멍청허고.(그러니까 머리가 차차차차. 그땐 멍청하고.)

107009 @ 으. 게도 촐밧디 넌 게 곱지 안허여?(으. 그래도 꼴밭에 넌 게 곱지 않아?)

107009 #2 고와도 그 촐 불리젠 허민 상당히 힘들어.(고와도 그 꼴 불리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

107009 @ 묻은 거?(묻은 거?)

107009 #2 촐게, 촐. 그거 이제 글겡이로 긁을 거 아니?(꼴, 꼴. 그거 이제 갈퀴로 긁을 거 아니?)

107009 @ 예.(예.)

107009 #2 게민 거 불려야지. 밧디 넌 건 그냥 줏이민 뒈여. 밧디 넌 건 그냥. 비 온덴 허민 밤이 줏고. 아이고, 옛날 삶이야 이제 삶으로 생각허믄 완전.(그럼 거 불려야지. 밭에 넌 건 그냥 주우면 돼. 밭에 넌 건 그냥. 비 온다고 하면 밤에 줍고. 아이고, 옛날 삶이야 이제 삶으로 생각하면 완전.)

107009 @ 예. 게민 그 감저뻿데기도 ᄀᆞᆯ젠 허민 뭐에 ᄀᆞᆯ앗수과?(예. 그럼 그 절간고구마도 갈려고 하면 뭐에 갈았습니까?)

107009 #2 그, 그거. 아, ᄀᆞ는 건 ᄆᆞᆯ방에게.(그, 그거. 아, 가는 건 연자매에.)

107009 @ ᄆᆞᆯ방에?(연자매?)

107009 #2 으, ᄆᆞᆯ방에.(으, 연자매.)

107009 @ 뻿데기를 ᄆᆞᆯ방에에 강 ᄀᆞᆯ아?(절간고구마를 연자매에 가서 갈아?)

107009 #2 으, ᄆᆞᆯ방에 강 ᄲᆞᆺ아.(으, 연자매에 가서 빻아.)

107009 @ 게민 그거 ᄀᆞ루 뒈여?(그럼 그거 가루 돼?)

107009 #2 어게. 또 허여 놩 치곡게.(그래. 또 허여 놔서 치고.)

107009 @ 으. 쳥 ᄀᆞ루는 ᄌᆞ베기 헹 먹고?(으. 쳐서 가루는 수제비 해서 먹고?)

107009 #2 으, 겨난 저, 거름체[210]로, 거름체, 대거름체[211], 대체 체도 ᄋᆞ라 가지주.

---

210) '거름체'는 체의 한 종류다. 체의 종류에는 크기에 따라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ᄀᆞ는체' 등이 있다.
211) '대거름체'는 체의 한 종류다.

게난 대거름체로 치영 ᄌᆞ베기 허영 먹주.(으, 그러니까 저, '거름체'로, '거름체', '대거름체', 대체 체도 여러 가지지. 그러니까 '대거름체'로 쳐서 수제비 해서 먹고?)

107010 @ 으, 음. 무밥도 헤 먹어낫수과?(으, 음. 무밥도 해 먹었었습니까?)

107010 #2 무밥 허주. 무밥도 허고 우리 무 허연 저 밀카루에 그거 막, 그거 제서 때도 그거 큰 뭐 허여서.(무밥 하지. 무밥도 하고 우리 무 해서 저 밀가루에 그거 마구, 그거 제사 때도 그거 큰 뭐 했어.)

107010 @ 그거 어떵 헤?(그거 어떻게 해?)

107010 #2 무 썰엉 밀가루 약간만 무쳥 찌믄 막 맛셔. 떡. 거 친떡으로 우이 시루추룩 허영. 겐 제사집이 그것도 허영 놔낫주게. 이제난 허지 옛날에 다 제서허민 줘서.(무 썰어서 밀가구 약간만 무쳐서 찌면 아주 맛있어. 떡. 거 시루떡으로 위에 시루처럼 해서. 그래서 제삿집에 그것도 해서 놨었지. 이제니까 하지 옛날에 다 제사하면 줬어.)

107010 @ 친떡 안 헤 가지고.(시루떡 안 해 가지고.)

107010 #2 게메 그 친떡이 무, 무 허영 침떡. 좁썰 침떡은 어렵고 그 놈삐 막 하영 썰어 놩 밀가루 ᄒᆞ꼼만 부쪙 허민 거 막 맛셔. 경허민 그거 삼메떡[212] 줘도 막 맛잇젠 허여. 거 무떡.(글쎄 그 시루떡이 무, 무 해서 시루떡. 좁쌀 시루떡은 어렵고 그 무 아주 많이 썰어 넣어서 밀가루 조금만 붙여서 하면 거 아주 맛있어. 그러면 그거 상화떡 줘도 아주 맛있게 해. 거 무떡.)

107010 @ 무떡. 밥은, 밥은. 밥은 어떵 헤? 무 놩 밥은?(무떡. 밥은, 밥은. 밥은 어떻게 해? 무 넣어서 밥은?)

107010 #2 무 놩 밥은 그추룩 허영 어떤 사람이나 헤 먹주, 무 놩 밥은 잘, 잘 안 헤 먹어.(무 넣어서 밥은 그처럼 해서 어떤 사람이나 해 먹지, 무 넣어서 밥은 잘, 잘 안 해 먹어.)

107010 @ 잘 안 헤 먹고?(잘 안 해 먹고?)

107010 #2 으.(으.)

107010 @ 옛날에 무 말고 옛날에 밧디 강 캐는 거, 뭇?(옛날에 무 말고 옛날에 밭에 가서 캐는 거, 무릇?)

107010 #2 드릇ᄂᆞ물.(들나물.)

107010 @ 드릇ᄂᆞ물 말고 뿌리 캐는 뭇도 잇어나지 안헷수과?(들나물 말고 뿌리 캐는 무릇도 있지 않습니까?)

107010 #2 엇어난.(없었어.)

107010 @ 엇어난?(없었어?)

107010 #2 엇어나서. 드릇ᄂᆞ물은 캐레 뎅겨난. 드릇ᄂᆞ물 꿩마농. 견디 이젠 드릇ᄂᆞ물 종류가 잘 엇어. ᄂᆞ물 엇이난 거 헤당 먹주게. 보리왓디 강 막 캐곡.(없었어. 들나물은 캐러 다녔었어. 들나물 달래. 그런데 이젠 들나물 종류가 잘 없어. 나물 없으니까 거 해다가 먹지. 보리밭 가서 마구 캐고.)

212) '삼메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막걸리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한 다음에 만두 모양으로 빚어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으로 '상화떡'을 말한다.

107011 @ 톳, 톳밥은 어떵 헷수과, 톨밥?(톳, 톳밥은 어떻게 했습니까, 톳밥?

107011 #2 톳밥은게 거 바당에.(톳밥은 거 바당에.)

107011 @ 톳밥이엔 헤숫과, 톨밥이엔 헷수과?(톳밥이라고 했습니까, '톨밥'이라고 했습니까?)

107011 #2 톳밥, 톳밥.(톳밥, 톳밥.)

107011 @ 바당에 강.(바다에 가서.)

107011 #2 바당에 헤당 솖앙 그거 물 컷당 그거 좀질 좀질 밥에 썰어 놓민 밥이 하주게. 게난 늘와 먹젠. 게난 우리도 제국시대엔 그 보리밥 헤 먹젠 허믄, 공출 바찌렌 헌다 허믄 곱지곡 그 톳밥 허영 ᄀᆞ루 허껑 그거 허영 영 헹 먹엄ᄀᆞ렌 헷주.(바다에 해다가 삶아서 그거 물 담갔다가 그거 잘게 잘게 밥에 썰어 넣으면 밥이 많지. 그러니까 늘려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제국시대에는 그 보리밥 해 먹으려고 하면, 공출 바치라고 한다고 하면 숨기고 그 톳밥 해서 가루 섞어서 그거 해서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했지.)

107011 @ 아.(아.)

107011 #2 공출 막 바쪄. 만일 쏠, 보리 열 가마니 헤도 열 가마니 바쪄 불민 엇지 안허여. 겨난 이제 막 잣담[213] 팡도 묻고 어디 강 땅 팡도 묻어서, 그 쏠.(공출 마구 바쳐. 만일 쌀, 보리 열 가마니 해도 열 가마니 바쳐 버리면 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마구 '잣담' 파서도 묻고 어디 가서 땅 파서도 묻었어, 그 쌀.)

107011 @ 보리쏠을?(보리쌀을?)

107011 #2 보리 곱져 불어. 겐 엇덴 허연게 겨 가믄 그 톳밥허영 뵈왓주. 우리 영헹 먹엄ᄀᆞ렌, 쏠 엇엉 영 헹 먹엄ᄀᆞ렌. 그 등게 ᄀᆞ루에 톳 허영 놩. 아니 경허영 먹는 사름이 하서. 옛날에.(보리 숨겨 버려. 그래서 없다고 해서 그래 가면 그 톳밥해서 보였지. 우리 이렇게 해서 먹고 있다고, 쌀 없어서 이렇게 해서 먹고 있다고. 그 등겨 가루에 톳 해서 넣어서. 아니 그래서 먹는 사람이 많아. 옛날에.)

107011 @ 으, 으.(으, 으.)

107011 #2 게 우리도 그거 톳밥 역불로, 조사 왐저 허민 하영 헷저.(그래 우리도 그거 톳밥 일부러, 조사 온다고 하면 많이 했어.)

107011 @ 톳밥은 톳 솖아 난 다음에 물 컹 놔뒀당.(톳밥은 톳 삶고 난 다음에 물 담가 놔뒀다가.)

107011 #2 물 컹 놔뒀당 썰엉.(물 담가서 놔뒀다가 썰어서.)

107011 @ 썰엉 밥은 쏠이랑 ᄀᆞ치 놓는 거 아니면 밥 다 뒈 가민 놓는 거?(썰어서 밥은 쌀이랑 같이 넣는 거 아니면 밥 다 돼 가면 넣는 거?)

107011 #2 ᄀᆞ치 놩 허여. 거의 등게 ᄀᆞ루에 헤서.(같이 넣어서 해. 거의 등겨 가루에 해서.)

107011 @ 보리썰 가루 안 허고?(보리쌀 가루 안 하고?)

107011 #2 보리썰 겁데기 벗어진 게 등게 ᄀᆞ루.(보리쌀 껍데기 벗겨진 게 등겨 가

213) '잣담'은 성벽과 같이 쌓은 담을 말한다.

루.)

107011 @ 등게 ᄀᆞ루.(등겨 가루.)

107011 #2 그 등게 ᄀᆞ루가 어디 웨국사산디 막 가멩이로 와.(그 등겨 가루가 어디 외국인지 마구 가마니로 와.)

107011 @ 으. 가멩이로 들어온 거는 한참 후제 아니?(으. 가마니로 들어온 거는 한참 후에 아니?)

107011 #2 장서허레 막 들어와게. 우리 ᄒᆞᆫ 열 멧 설쯤 뒌 땐가 그때가 막 들어왕 허연 그걸로 등게 ᄀᆞ루 밥허연 먹은 사람 막 하.(장사하러 마구 들어와. 우리 한 열 몇 살쯤 된 땐가, 그때가 마구 들어와서 해서 그걸로 등겨 가루 밥해서 먹은 사람 아주 많아.)

107011 #2 막 그땐 쏠이 어려완. 비료가 엇어부난게.(아주 그땐 쌀이 어려웠어. 비료가 없으니까.)

107011 @ 예.(예.)

107011 #2 비료가이 다 할당으로 줜. 비료 엇어주게. 비료 엇이난 땅에 강 촌물 질어당 이제 오줌. 오줌이 막 고급 걸름이라. 오줌 항에 그 촌물을 놩 쎅여 거 밧디 가져가서.(비료가 다 할당으로 줬어. 비료 없었지. 비료 없으니까 땅에 가서 짠물 길어다가 이제 오줌. 오줌이 아주 고급 거름이야. 오줌 항아리에 그 짠물을 놔서 썩혀서 거 밭에 가져가서.)

107011 @ 아니 오줌 항에 촌물 넣는다고 헤도 그거 썩읍니까?(아니 오줌 항아리에 짠물 넣는다고 해도 그거 썩습니까?)

107011 #2 경허민 걸어. 그게 걸어.(그러면 걸어. 그게 걸어.)

107011 @ 그게 걸어마씨?(그게 걸어요?)

107011 #2 바닷물 질어당 촌물 오줌 항에 놔. 오줌도 ᄒᆞ꼼 놩. 그거 이젠 밧디 질어당 보리왓디 줘. 경허민 그게. 비료가 엇어부난.(바닷물 길어다가 짠물 오줌 항아리에 놔. 오줌도 조금 넣어서. 그거 이젠 밭에 길어다가 보리밭에 줘. 그러면 그게. 비료가 없으니까.)

107011 @ 오줌 늘리젠.(오줌 늘리려고.)

107011 #2 오줌 눌루젠. 몸 헤당 더끄고. 게난 몸 헤당 더끈딘 ᄒᆞ꼼 보리가 나고 그건 헌디. 경 안 허민 보리가 비어 먹지 못허게 쫄르고. 경헤사 ᄒᆞ꼼 쏠이. 경허난 쏠이 어려와.(오줌 늘리려고. 모자반 해다가 덮고. 그러니까 모자반 해다가 덮었는데 조금 보리가 나고 그런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보리가 베어 먹지 못하게 짧고. 그래야 조금 쌀이. 그러니까 쌀이 어려워.)

107012 @ 페밥도 헤 먹어 봣수과?(패밥도 해 먹어 봤습니까?)

107012 #2 페밥 헤 먹언.(패밥 해 먹었어.)

107012 @ 페밥은 어떵 헙니까?(패밥은 어떻게 합니까?)

107012 #2 페밥 페 헤당 물릇.(패밥 패 해다가 무릇.)

107012 @ 으, 물릇.(으, 무릇.)

107012 #2 물릇 막 솖앙게. 엇인 사름덜은 경허영.(무릇 마구 삶아서.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107012 @ 페는 바당에서 헤 오는 거 아니?(패는 바다에서 해 오는 거 아니?)

107012 #2 으.(으.)

107012 @ 물릇은?(무릇은?)

107012 #2 물릇은 밧디. 이제 엇어.(무릇은 밭. 이제 없어.)

107012 @ 그지예. 그 물릇이 밧디 뿌리 캐는 거예?(그렇죠. 그 무릇이 밭에 뿌리 캐는 거요?)

107012 #2 으. 엇어 이젠 물릇.(으. 없어 이젠 무릇.)

107012 @ 물릇이랑 페랑 ᄀᆞ치 놩 허는 거 밥을?(무릇이랑 패랑 같이 넣어서 하는 거 밥을?)

107012 #2 으. 아, 경허영 저 항아리에 막 솖아.(으. 아, 그래서 저 항아리에 마구 삶아.)

107012 @ 뭘?(뭘?)

107012 #2 그 물릇을. 막 ᄃᆞᆯ아 경허믄. 거 엇인 사름덜이 그거 물릇 솖앙 먹주게. 게난 경허난 그거 이제 잇는 집이 강 물릇 ᄒᆞᆫ 양철[214] 가졍가민 ᄊᆞᆯ 양철 가져가고. 게난 우리도 저 오생이네 누구네 물릇 그거 막 솖앙 ᄋᆞ져왕 우리 사당 막 할망ᄀᆞ라 사도렌 헹 먹어나서게. ᄃᆞᆯ아 막 ᄃᆞᆯ코롬헌게.(그 무릇을. 아주 달아 그러면. 거 없는 사람들은 그거 무릇 삶아서 먹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있는 집에 가서 무릇 한 양철 가져가면 쌀 양철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 오생이네 누구네 무릇 그거 마구 삶아서 가져와서 우리 사다가 마구 할머니에게 사달라고 해서 먹었었어. 달아 아주 달콤해.)

107012 @ 아.(아.)

107012 #1 겐디 막 하영 먹으민 목 아파. 목 아파. 게난 거 페 놔사 사락사락 허연 물릇 우려진 물에, ᄃᆞᆯ주게.(그런데 아주 많이 먹으면 목 아파. 목 아파. 그러니까 거 패 넣어야 사락사락 해서 무릇 우린 물에, 달지.)

107012 @ 그럼 이 페밥은 페만 놩 허는 게 아니고 물릇이랑.(그럼 이 패밥은 패만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무릇이랑?)

107012 #2 물릇에 페. 그거.(무릇에 패. 그거.)

107012 @ ᄊᆞᆯ은 무슨 ᄊᆞᆯ?(쌀은 무슨 쌀?)

107012 #2 ᄊᆞᆯ 아이 놔 그 물릇에 페에 놩 솖앙 그거. 경헨 막 저, 그 물릇만 못 먹으난 ᄒᆞ곰 ᄊᆞᆯ 신 집이 물릇덜 솖아 ᄋᆞ져가. 겐 ᄊᆞᆯ ᄒᆞᆫ 사발 빌어와. 바꽈. 우리도 용당[215] 살 때 오생이네가 죽장 물릇 솖앙 ᄋᆞ져와. 경, 경 ᄊᆞᆯ 바꾸레. 겐 바꽌 먹어나서게. 우리냥으로 솖진 안허고.(쌀 안 넣고 그 무릇에 패에 넣어서 삶아 그거. 그래서 아주 저, 그 무릇만 못 먹으니까 조금 쌀 있는 집에 무릇들 삶아 가져가. 그래서 쌀 한 사발 빌려와. 바꿔. 우리도 용당 살 때 오생이네가 죽 무릇 삶아서 가져와. 그렇게, 그렇게

214) 여기서 '양철'은 '양철 양동이'의 의미로 쓰였다.
215) '용당'은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를 말한다.

쌀 바꾸러. 그래서 바꿔서 먹었었어. 우리대로 삶진 않고.)

107012 @ 음.(음.)

107012 #2 게난 엇인 사름 물릇 숢앙 먹엇주게. 게난 그거 신 집이 강 쏠도 바꽈당 먹고. 펜, 막 이제도 하 펜. 겐디 물릇은 엇어. 물릇은 옛날에 밧디 막 하난 요만썩 헌 거. 숢으민 막 들크름헌 게 엿추룩 돌아.(그러니까 없는 사람 무릇 삶아서 먹었지. 그러니까 그거 있는 집에 가서 쌀도 바꿔다가 먹고. 패, 아주 이제도 많아 팬. 그런데 무릇은 없어. 무릇은 옛날에 밭에 아주 많으니까 요만큼씩 한 거. 삶으면 아주 달콤한 게 엿처럼 달아.)

107012 @ 으. 게난 그거 오래 숢아야 헌덴 헙디다.(으. 그러니까 그거 오래 삶아야 한다고 합디다.)

107012 #2 그거 오래 숢아.(그거 오래 삶아.)

107012 @ 예.(예.)

107012 #2 게난 항아리에 담앙 막 씻엉 항아리에 막 담앙 흑으로 막 데견에 숢앙 먹어. 솟디 안 숢앙. 숢으는 사름덜이.(그러니까 항아리에 담아서 마구 씻어서 항아리에 마구 담아서 흙으로 마구 문대서 삶아서 먹어. 솥에 안 삶아서. 삶는 사람들이.)

107012 @ 무사 독 빠지렌 허는 거?(왜 독 빠지라고 하는 거?)

107012 #2 몰라. 어떵사 헤신디. 우리 어린 때. 우리 흔 열댓 살 때 물릇 주로 숢앙 먹엇주게. 게난 우리 용당서도 서너 집이만 물릇 숢안게.(몰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어린 때. 우리 한 열댓 살 때 무릇 주로 삶아서 먹었지. 그러니까 우리 용당에서도 서너 집에만 무릇 삶아.)

107012 @ 으.(으.)

107012 #2 우리 안 숢아 보고 겐 숢으는 디 간 보믄 그 항아리에 페 놓고 물릇 놓고 허영 흑 막 데겨근에 이 알로 불 떼여. 숢앙 ᄒᆞ루, 흔 이틀 숢으는 거 닮아.(우리 안 삶아 보고 그래서 삶는 데 가서 보면 그 항아리에 패 넣고 무릇 넣고 해서 흙 마구 문대서 이 아래로 불 때. 삶아서 하루, 한 이틀 삶는 거 같아.)

107012 @ 으.(으.)

107012 #2 경허영 이제 식으민 이제 그거 들크름헌 게 이제 거트민 배추 달린 거 거치 벌겅허고 맛셔. 맛은 셔. 게난 이제 우리 막 할망ᄀᆞ라 쏠 주민 물릇 바꽈당 먹켄 허멍이. 헤나서.(그래서 이제 식으면 이제 그거 달콤한 게 이제 같으면 배추 달인 거 같이 벌겋고 맛있어. 맛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주 할머니보고 쌀 주면 무릇 바꿔다가 먹겠다고 하면서. 했었어.)

107013 @ 예. 밥 헤시난 이제 국 물어보쿠다. 국. 국 종류에는 뭐 잇수과?(예. 밥 했으니까 이제 국 물어보겠습니다. 국. 국 종류에는 뭐 있습니까?)

107013 #2 국이사 옛날에사 호박국베끼 더 잇어샤?(국이야 옛날에야 호박국밖에 더 있었어?)

107013 @ 호박국.(호박국.)

107013 #2 호박입국.(호박잎국.)

107013 @ 호박입국. ᄂᆞ물쿡? ᄉᆞᆼ키국?(호박잎국. 나물국? 푸성귀국?)

107013 #2 저 ᄂᆞᆷ삐도 잘 엇어 옛날에. ᄂᆞᆷ삐 이넉만썩 갈지 안허영 조수[216] 가사 건 사와. ᄂᆞᆷ삐 갈 충 몰라.(저 무도 잘 없어 옛날에. 무 자기만큼씩 갈지 않고 조수 가야 건 사와. 무 갈 줄 몰라.)

107013 @ 몰라.(몰라.)

107013 #2 갈 충 몰라. 우리 조수 강 ᄂᆞᆷ삐 사레 강 그 입사구리도 막 줏고 어떵허당 요만헌 거 하나 봉그고. 쉐로 시껑도 오곡 경허영 이제 묻어 놔둠서 먹언. ᄂᆞᆷ삐 갈 충 몰란게. 배춘 헤도.(갈 줄 몰라. 우리 조수 가서 무 사러 가서 그 잎사귀도 많이 줍고 어떻게 하다가 요만한 거 하나 줍고. 소로 실어도 오고 그래서 이제 묻어 놔두면서 먹었어. 무 갈 줄 몰랐어. 배춘 해도.)

107013 @ 아. 배추 ᄂᆞ물은 헤도.(아. 배추 나물은 해도.)

107013 #2 배추 속 배추도 아니고 그냥 퍼데기[217] 배추.(배추 속 배추도 아니고 그냥 '퍼데기' 배추.)

107013 @ 퍼데기 배추.('퍼데기' 배추.)

107013 #2 퍼데기 배추 허영.('퍼데기' 배추 해서.)

107013 @ 게민 국 종류는 아까 호박입국.(그럼 국 종류는 아까 호박잎국.)

107013 #2 메역국.(미역국.)

107013 @ 메역국. 그거뿐?(미역국. 그거뿐?)

107013 #2 으.(으.)

107014 @ 그럼 하나씩 물어보쿠다. ᄂᆞ물쿡은 어떵 끌렷수과?(그럼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나물국은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14 #2 그거 배추국게.(그거 배추국.)

107014 @ 배추국이 ᄂᆞ물쿡이라?(배추국이 나물국이야?)

107014 #2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107014 @ 국 끌려 봅서. 어떵 끌립니까? 지금 말고 옛날에 어떵 끌렷수과?(국 끓여 보세요. 어떻게 끓입니까? 지금 말고 옛날에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14 #2 그냥 이제나 마찬가지로 그자 불 솜앙게 끌리당 뒌장 일어 놩.(그냥 이제나 마찬가지로 그저 불 때고 끓이다가 된장 일어 넣어서.)

107014 @ 물 끓어 가면은 뒌장 놓는 거?(물 끓어 가면 된장 넣는 거?)

107014 #2 으, 게민 ᄂᆞ물 놩 뒌장 놔. 이제 거치 뭐 메르치 놓고 다시다 놓고 헤게, 옛날에사. 경헤도 맛셔.(으, 그럼 나물 넣어서 된장 넣어. 이제 같이 뭐 멸치 넣고 다시다 넣고 해, 옛날에야. 그래도 맛있어.)

107014 @ 맛셔?(맛있어?)

107014 #2 담은 장이난 맛셔. 담은 장이난 맛셔. 게난 그저 ᄂᆞ물쿡, ᄂᆞ물 퍼데기. 드릇ᄂᆞ물 그거 케당 허곡. ᄂᆞ물 가는 걸 몰른 거라. 이젠 속 앚는 ᄂᆞ물 잘 뒈는디 옛날은,

---

216) '조수'는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를 말한다.

217) '퍼데기'는 배추 따위가 속이 앉지 않은 것을 말한다.

놈삐도 문달문달 잘 뒈도 옛날 ᄂᆞ물 가는 걸 몰란.(담근 장이니까 맛있어. 담근 장이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그저 나물국, 나물 '퍼데기'. 들나물 그거 캐다가 하고. 나물 가는 걸 모른 거야. 이젠 속 앉는 나물 잘 되는데 옛날은, 무도 는적는적 잘 돼도 옛날 나물 가는 걸 몰랐어.)

107014 @ 음.(음.)

107014 #2 조수 아이 가민 놈삐라는 건, 이 가인으로 안 갈아서, 이 해변은. 가는 걸 몰라 부난. 경헨 우리 어린 때 죽장 조수 강만 사당 먹언. 놈삐는 경헨 영 구뎅이 팡 찍 놩 이제 놈삐 묻엉.(조수 안 가면 무라는 건, 이 개인으로 안 갈았어, 이 해변은. 가는 걸 몰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때 늘 조수 가서만 사다가 먹었어. 무는 그래서 이렇게 구덩이 파서 짚 놔서 이제 무 묻어.)

107014 @ 게민 그런 감저 묻는 거랑.(그럼 그런 고구마 묻는 거랑.)

107014 #2 으.(으.)

107014 @ 마찬가지다예.(마찬가지요.)

107014 #2 경 꺼꿀로 놩 놔둠서 하나썩 빠당 먹언. 끌령 먹엇주게.(그렇게 거꾸로 놓아 놔두면서 하나씩 빼다가 먹었어. 끓여서 먹었지.)

107014 @ 아. 감저 묻는 거랑 마찬가지로 헹.(아, 고구마 묻는 거랑 마찬가지로 해서.)

107014 #2 영 구뎅이 파민 바우로 찍 놩 이레 놈삐 놩, 놈삐 꺼꿀로 다 세왕 순 나지 못허게.(이렇게 구덩이 파면 가장자리로 짚 놔서 이리 무 넣어, 무 거꾸로 다 세워서 순 나지 못하게.)

107014 @ 아, 거꿀로 세왕.(아, 거꾸로 세워서.)

107014 #2 으. 경헹 헹 먹언. 메역은 우리 다 풀젠. 메역은 다 풀아. 옛날은 메역 경 ᄆᆞ음대로 먹지 안허여. 돈 받젠. 이젠 메역이 썩어 빠진디, 안 먹는디 그때 돈 받젠 메역도 다, 첨 메역 경 막 뿔안 먹어시카부덴?(으. 그래서 해서 먹었어. 미역은 우리 다 팔려고. 미역은 다 팔아. 옛날은 미역 그렇게 마음대로 먹지 않아. 돈 받으려고. 이제 미역이 썩어 빠졌는데, 안 먹는데 그때 돈 받으려고 미역도 다, 참 미역 그렇게 마구 빨아서 먹었을까 봐?)

107015 @ 음, 저기 콩ᄂᆞ물은 안, 안 질롓수과?(음, 저기 콩나물은 안, 안 길렀습니까?)

107015 #2 콩ᄂᆞ물은 제사허젠 허민게.(콩나물은 제사하려고 함녀.)

107015 @ 그럼 콩ᄂᆞ물쿡은 안 끌려 먹언?(그럼 콩나물국은 안 끓여 먹었어?)

107015 #2 안 끌려 먹언. 콩ᄂᆞ물은 제서헐 때만 먹주 안 먹어.(안 끓여 먹었어. 콩나물은 제사할 때만 먹지 안 먹어.)

107015 @ 콩ᄂᆞ물국 따로 안 먹엇구나.(콩나물국 따로 안 먹었구나.)

107015 #2 으, 제서 때만. 제서 때만 그자 흔 사발 물 웃젼[218]. 엿날은 콩ᄂᆞ물 상 먹지 안허영 다 이녁냥으로 제서허젠 허민 놩 먹어서. 아니 건 막 쉬와. 영 아래 저 찍

218) '물 웃지다'는 콩나물 등에 '물을 위에 끼얹다'의 의미로 쓰였다.

술앙. 찍 술앙 험벅 끌앙 그 찍 손 거 놩 콩 물 웃져당 그레 놩 물 주민 막 빨리 커게.(으, 제사 때만. 제사 때만 그저 한 사발 물 위에 줘서. 옛날은 콩나물 사서 먹지 않고 다 자기대로 제사하려고 하면 놔서 먹었어. 아니 건 아주 쉬워. 이렇게 아래 저 짚 살라서. 짚 살라서 헝겊 깔아서 그 짚 사른 거 놔서 콩 물 위에 끼얹고 그리 놔서 물 주면 아주 빨리 커.)

107015 @ 찍 술아 가지고?(짚 살라 가지고?)

107015 #2 으.(으.)

107015 @ 거 무사 찍 ᄉᆞ는 거?(거 왜 짚 사르는 거?)

107015 #2 찍 술앙 그 험벅에 놩 그 찍 손 불치에 놩 허민 콩ᄂᆞ물 막 빨리 커.(짚 살라서 그 헝겊에 놔서 그 짚 사른 재에 놔서 하면 콩나물이 아주 빨리 커.)

107015 @ 거기도 거름 주는 것과? 하하하.(거기도 거름 주는 겁니까? 하하하.)

107015 #2 몰라, 경헨 키와난, 우리 어릴 땐.(몰라, 그렇게 키웠었어, 우리 어릴 때는.)

107015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15 #2 어린 때 아니 ᄋᆞᆨ은 때 요 멧 년 전이꺼장 경헨 키완.(어린 때 아니 컸을 때 요 몇 년 전에까지 그렇게 키웠어.)

107015 @ 아, 찍 술앙.(아, 짚 살라서.)

107015 #2 빨리 커.(빨리 커.)

107016 @ 콩나물. 무국, 무국은?(콩나물. 뭇국, 뭇국은?)

107016 #2 무국은 ᄂᆞᆷ삐국이주게.(뭇국은 'ᄂᆞᆷ삐국'이지.)

107016 @ 예, 예. ᄂᆞᆷ삐국은 어떵 끌렴수과?(예, 예. 뭇국은 어떻게 끓입니까?)

107016 #2 ᄂᆞᆷ삐국도 기자 뒌장. 주로 ᄂᆞᆷ삐국은 장물.(뭇국도 그저 된장. 주로 뭇국은 간장.)

107016 @ 장물?(간장?)

107016 #2 장물. 장물 놩 끌려 ᄂᆞᆷ삐국은. 이젠 간장 안 헌디 옛날엔 다 간장 담으난게. 맛셔, 맛셔. 메역국도 거의 간장 놩 끌리고.(간장. 간장 넣어서 끓여 뭇국은.은. 이젠 간장 안 하는데 옛날은 다 간장 담그니까. 맛있어, 맛있어. 미역국도 거의 간장 넣어서 끓이고.)

107016 @ 예.(예.)

107016 #2 ᄂᆞ물쿡만 뒌장 놩 끌리주.(나물국만 된장 넣어서 끓이지.)

107016 @ 오, 오. 간장 놩.(오, 오. 간장 넣어서.)

107016 #2 간장 놩 끌려.(간장 넣어서 끓여.)

107017 @ 콩국 끌려 보십서.(콩국 끓여 보세요.)

107017 #2 콩국은 기자 콩ᄀᆞ루 카. 물 끌영 궤 가믄 비왓당 소금 ᄒᆞ꼼 집어넣고. 엿날은 소금 안 집어놘. 것도 간장 놘.(콩국은 그저 콩가루 타. 물 끓여서 끓어 가면 비웠다가 소금 조금 집어넣고. 옛날은 소금 안 집어넣고. 것도 간장 넣어서.)

107017 @ 음.(음.)

107017 #2 경헨 끌려. 이제난 계란 놩, 콩국 끌릴 때 계란 카 놈주. 옛날에사 경 계란 카 놔서게? 다 ᄀᆞ레에 곤 콩 허영 그냥 콩국. 콩국도 완전 고급, 콩죽도 고급 옛날엔. 이제, 이제로 생각허믄.(그래서 끓여. 이제니까 계란 넣어서, 콩국 끓일 때 계란 풀어 넣지. 옛날에야 그렇게 계란 풀어 넣었어? 다 가루에 간 콩 해서 그냥 콩국. 콩국도 완전 고급, 콩죽도 고급 옛날엔. 이제, 이제로 생각하면.)

107017 @ 아, 콩국 끌릴 땐 소금으로 간 헷구나?(아, 콩국 끓일 땐 소금으로 간 했구나?)

107017 #2 아니. 간장으로, 옛날은 간장으로. 이젠, 이젠 소금으로 간 허는디 옛날은 간장으로 간 허여.(아니. 간장으로, 옛날은 간장으로. 이젠, 이젠 소금으로 간 하는데 옛날은 간장으로 간 해.)

107018 @ 아까 호박입국 하영 끌렁 먹엇덴 헤신디 호박입국은 어떵?(아까 호박잎국 많이 끓여서 먹었다고 했는데 호박잎국은 어떻게?)

107018 #2 호박입국은 옛날은 보리쏠 ᄀᆞ루게. 이젠 밀가룬디. 옛날은 보리쏠 ᄀᆞ레에 달달 골앙게. 게 맛셔.(호박잎국은 옛날은 보리쌀 가루. 이젠 밀가루인데. 옛날은 보리쌀 맷돌에 달달 갈아서. 그래서 맛있어.)

107018 @ 물 끌으민 뭐부터 놔?(물 끓으면 뭐부터 넣어?)

107018 #2 물 끌으민 호박입 놩 그다음 ᄀᆞ루, ᄀᆞ루 칸 거 놔.(물 끓으면 호박잎 넣어서 그다음 가루, 가루 탄 거 넣어서.)

107018 @ 뒌장이나 소금은 안 놓고?(된장이나 소금은 안 넣고?)

107018 #2 아, 옛날엔 간장.(아, 옛날에는 간장.)

107018 @ 간장?(간장?)

107018 #2 이제난 소금 놓주 옛날은 죽장 간장, 뒌장 국 끌릴 때 놓주.(이제니까 소금 넣지 옛날은 늘 간장, 된장 국 끓일 때 넣지.)

107018 @ 국 끌일 때 뒌장 놓는 건 아까 ᄂᆞ물쿡밖에 없잖아?(국 끓일 때 된장 넣는 건 아까 나물국밖에 없잖아?)

107018 #2 ᄂᆞ물쿡만 놔. 이 무국, 메역국은 다 간장 놩 끌려 옛날은.(나물국만 넣어. 이 뭇국, 미역국은 다 간장 넣어서 끓여 옛날은.)

107018 @ 간장이엔 골아수과, 삼춘 장물이렌?(간장이라고 말했습니까, 삼촌 '장물'이라고?)

107018 #2 장물게. 옛날은 장물. 이제가 간장이엔 허주.('장물'. 옛날은 '장물'. 이제가 간장이라고 하지.)

107018 @ 기지예.(그렇죠.)

107018 #2 이제가 간장이주, 옛날은 장물이주게. 장물 게난 큰 항으로 콩 닷 말씩 솖앗주게 우리도. 닷 말 솖앙 허영 큰 항으로 하나 간장 빼여 노멍. 게난 이제난 하간 거 이거 장물 사당 먹엄주. 옛날은 사단 먹어서게? 다 간장으로 먹곡. 그 간장이 고기반찬이라.(이제가 간장이지, 옛날은 간장이지. 간장 그러니까 큰 항으로 콩 닷 말씩 삶았지 우리도. 닷 말 삶아서 해서 큰 항으로 하나 간장 빼 놓으면서. 그러니까 이제니까 온

갖 거 이거 간장 사다가 먹지. 옛날은 사다가 먹었어? 다 간장으로 먹고. 그 간장이 고기반찬이야.)

107018 @ 간장이 고기반찬이라.(간장이 고기반찬이야.)

107018 #2 으, 으. 밧디 갈 때도 뒌장 흔 통 아졍 강 뒌장쿡만. 뒌장에 새우리 썰어 논 거 거 큰. 그자 거베낀 안 아졍 가주, 반찬 아졍 가.(으, 으. 밭에 갈 때도 된장 한 통 가지고 가서 된장국만. 된장에 부추 썰어 넣은 거 거 큰. 그저 거밖에 안 가지고 가지, 반찬 가지고 가.)

107018 @ 맞수다.(맞습니다.)

107018 #2 마농지. 잘 아졍 가사 마농지에 ᄆᆞᆷ치.(마늘장아찌. 잘 가지고 가야 마늘장아찌에 모자반장아찌.)

107018 @ ᄆᆞᆷ치.(모자반장아찌.)

107018 #2 ᄆᆞᆷ치.(모자반장아찌.)

107019 @ ᄆᆞᆷ치 이땅 물어보쿠다예. ᄆᆞᆷ쿡은 어떵 끌립니까, ᄆᆞᆷ쿡.(모자반장아찌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ᄆᆞᆷ쿡’은 어떻게 끓입니까, ‘ᄆᆞᆷ쿡’.)

107019 #2 ᄆᆞᆷ쿡[219]은 그냥 ᄆᆞᆷ 뱔앙.(‘ᄆᆞᆷ쿡’은 그냥 모자반 빨아서.)

107019 @ 예.(예.)

107019 #2 그 뒈지고기 거튼 거 빼 끌여 놩 거 헴주게. 이제 ᄆᆞ물ᄏᆞ루니 뭣이니 담아도게 옛날에사 경 ᄆᆞ물ᄏᆞ루 셔서게? 이젠 ᄆᆞ물ᄏᆞ루 주로 놔. 견디 옛날은 기자 그거 놩 보리ᄀᆞ루 놓고, 놓고 그자 닥치는 냥 놔. 밀카루도 놓곡 헷주. 이젠 주로 ᄆᆞ물ᄏᆞ루 놔. 잔치집이.(그 돼지고기 같은 거 뼈 끓여 놔서 거 하지. 이제 메밀가루며 뭐며 담아도 옛날에야 그렇게 메밀가루가 있어? 이젠 메밀가루 주로 넣어. 그런데 옛날은 그저 그거 넣어서 보릿가루 넣고, 넣고 그저 닥치는 대로 넣어서. 밀가루도 넣고 했지. 이젠 주로 메밀가루 넣어. 잔칫집에.)

107019 @ 으. 그 ᄆᆞᆷ국도 옛날에 집이서 보통 끌려 먹고 헤낫수과?(으. 그 ‘ᄆᆞᆷ국’도 옛날에 집에서 보통 끓여 먹고 했었습니까?)

107019 #2 아이, 잔치 때만게. 잔치 전날.(아니, 잔치 때만. 잔치 전날.)

107019 @ 전날?(전날?)

107019 #2 으, 그 ᄆᆞᆷ국 흔 사발씩 먹어. 그거 잔치 전날 헷주게. 집이서사 어떵 경 끌려 먹어게. 옛날이사 얼마나 못 살아시카부덴.(으, 그 ‘ᄆᆞᆷ국’ 한 사발씩 먹어. 그거 잔치 전날 했지. 집에서야 어떻게 그렇게 끓여 먹어. 옛날에야 얼마나 못 살았을까 봐.)

107019 @ 음. 잔치 때 고기 삶아난 물 잇이난?(음. 잔치 때 고기 삶았던 물 있으니까?)

107019 #2 그거, 그거주. 이제 다 비와 불어도 그거로 끌렷주게.(그거, 그거지. 이제 다 비워 버려도 그거로 끓였지.)

107019 @ 그거에예?(그거에요?)

---

219) ‘ᄆᆞᆷ쿡’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ᄆᆞᆷ국’, ‘ᄆᆞᆯ망국’, ‘ᄆᆞᆯ망쿡’이라고도 한다.

107019 #2 으, 그거 물이 수돗물이 엇이난 물허벅으로 지어 오믄 그 물 지어 온 사람도 그거 고기 솖아난 물에 몸국 끓영 흔 사발씩 줘. 물 져 온 사람만 그거 몸국 허영 보리밥 헹 줘. 전날은 보리밥 허여, 풋 놩.(으, 그거 물이 수돗물이 없으니까 물동이로 지어 오면 그 물 지어 온 사람도 그거 고기 삶았던 물에 '몸국' 끓여서 한 사발씩 줬어. 물 져 온 사람만 그거 '몸국' 해서 보리밥 해서 줬어. 전날은 보리밥 해, 팥 넣어서.)

107019 @ 으, 풋 놩?(으, 팥 넣어서?)

107019 #2 으, 보리밥 허영 거 물 질어 온 사람 몸국 끓영 줘. 이젠 고기 솖아난 물 안 먹는디 옛날은 막 맛잇게 잘 먹엇주.(으, 보리밥 해서 거 물 길어 온 사람 '몸국' 끓여 줘. 이젠 고기 삶았던 물 안 먹는데 옛날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지.)

107019 @ 으.(으.)

107019 #2 게고 삼메떡도 빌어 가고게. 할망덜신디도 우져 가고.(그리고 상화떡도 빌어 가고. 할머니에게도 가지고 가고.)

107019 @ 몸도 케당 몸국 헤 먹젠 보관?(모자반도 캐다가 '몸국' 해 먹으려고 보관?)

107019 #2 막 몸이 옛날엔 잘도 하. 이젠 몸이 엇인디. 옛날은 흔 짐씩 강 헤여 왓주게. 근디 이젠 무사 엇어게, 펀찍[220].(아주 모자반이 옛날에는 아주 많아. 이젠 모자반이 엇는데. 옛날은 한 짐씩 가서 해 왔지. 그런데 이젠 왜 없어, '펀찍'.)

107019 @ 그거 이젠 국 헤 먹젠 일부러 다 몰령 놔뒁구나?(그거 이젠 국 해 먹으려고 일부러 다 말려서 놔뒀구나?)

107055 #2 으, 몰령 놔뒁당 뿔앙. 게민 그거 장 담으민 장에 놩 놔뒁당 이젠 또 뒌장에 묻엉 놔두고. 큰 반찬이주게.(으, 말려서 놔뒀다가 빨아서. 그럼 그거 장 담그면 장에 넣어 놔뒀다가 이젠 또 된장에 묻어서 놔두고. 큰 반찬이지.)

107055 @ 몸을 뒌장에 묻엉 놔둬?(모자반을 된장에 묻어서 놔둬?)

107055 #2 으. 그거 막 맛셔. 경 걸 장물에 묻엇당 이제 장 갈를 땐 건졍 또 뒌장 소곱에 묻어. 경헨 놔두민 막 맛셔.(으. 그거 아주 맛있어. 그렇게 걸 간장에 묻었다가 이제 장 가를 때 건져서 또 된장 속에 묻어. 그래서 놔두면 아주 맛있어.)

107055 @ 으. 경 몸 장아찌가 뒈는 건게?(으. 그렇게 모자반 장아찌가 되는 거네?)

107055 #2 으, 장아찌 뒈영. 겐 밧디 갈 때 그거 우경 가주게. 그거 놉 빈 때나 우경 가주.(으, 장아찌 돼서. 그래서 밭에 갈 때 그거 가지고 가지. 그거 놉 빌렸을 때나 아지고 가지.)

107055 @ 그 몸은 뒌장에 담앙 놔두민 그 뒌장도 먹어지는 거 아니?(그 모자반은 된장에 담아서 놔두면 그 된장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

107055 #2 으게. 뒌장 먹곡 영 혼착으로 걷어 뒁 그 몸 덩어리 영 헹 찔렁 놔두는 거.(그래. 된장 먹고 이렇게 한쪽으로 걷어 두고 그 모자반 덩어리 이렇게 해서 찔러서 놔두는 거.)

107055 @ 아, 경헹 몸 장아찌 만드는 거구나.(아, 그렇게 모자반 장아찌 만드는 거

220) '펀찍'은 아무것도 없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구나.)

107055 #2 맛셔 거. 이제도 시민 먹어짐직허여. 이젠 몸이 엇어, 엇어. 이 픈는 몸덜은 민지락헌 게 맛이 엇어. 저 옛날 몸은 막 사락사락 맛 좋아. 이젠 몸이 나질 안허여, 문딱 오염뒈연.(맛있어 거. 이제도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이젠 모자반이 없어, 없어. 이 파는 모자반들은 미끈한 게 맛이 없어. 저 옛날 모자반은 아주 사락사락 맛 좋아. 이젠 모자반이 나지 않아, 모두 오염되어서.)

107055 @ 예, 예.(예, 예.)

107019 #2 이제 이 몸국 끌리는 몸은 맛잇지 안허여.(이제 이 '몸국' 끓이는 모자반은 맛있지 않아.)

107020 @ 예, 예. 그리고 뭐는 어떵 헙니까, 그 저 바닷궤기 가져 가지고도 바닷궤기 가졍도 국 끓이잖아예. 바닷궤기. 바닷궤기 뭐로 국 끌려낫수과?(예, 예. 그리고 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저 바닷고기 가져 가지고도 바닷고기 가져서도 국 끓이잖아요. 바닷고기. 바닷고기 뭐로 국 끓였었습니까?)

107020 #2 메역이나게 놈삐 놩 끌리민 거 고급이주게.(미역이나 무 넣어서 끓이면 거 고급이지.)

107020 @ 게, 무슨 생선 놩?(그래, 무슨 생선 넣어서?)

107020 #2 옛날에 주로 갈치. 갈치 한, 옛날은.(옛날은 주로 갈치. 갈치 많았어, 옛날은.)

107020 @ 아, 아.(아, 아.)

107020 #2 갈치, 이젠 갈치가 엇어도 옛날엔 갈치가, 갈치, 벤자리 막 하.(갈치, 이젠 갈치가 없어도 옛날엔 갈치가, 갈치, 벤자리 아주 많아.)

107020 @ 벤자리?(벤자리?)

107020 #2 으. 벤자리도 하고 볼락도 하곡게.(으. 벤자리도 많고 볼락도 많고.)

107020 @ 어. 식게 때도 바닷궤기로 헌 거 아니? 옥돔도 헤난?(어. 제사 때도 바닷고기로 한 거 아니? 옥돔도 했었어?)

107020 #2 옥돔은 완전 고급으로 끌리고 주로 벤자리도 끌리고. 경헷주 옥돔은 기자 게영국이나 어쩌당 첨 끌리주. 게난 메역 아니민 놈삐.(옥돔은 완전 고급으로 끓이고 주로 벤자리도 끓이고. 그랬지 옥돔은 그저 갱이나 어쩌다가 참 끓이지. 그러니까 미역 아니면 무.)

107020 @ 으, 메역 아이민 놈삐?(으, 미역 아니면 무?)

107020 #2 으.(으.)

107020 @ 게민 갈치국 끓일 때도 메역 헤낫수과?(그럼 갈치국 끓일 때도 미역 했었습니까?)

107020 #2 갈치국, 갈치국은 제사 때 안 끌려.(갈치국, 갈치국은 제사 때 안 끓여.)

107020 @ 으, 먹을 걸로.(으, 먹을 거로.)

107020 #2 먹을 걸로. 기자 건 호박 놩 끌리주 이제 거치.(먹을 거로. 그저 건 호박 넣어서 끓이지 이제 같이.)

107022 @ 냉국은 어떵 헷수과, 냉국?(냉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냉국?)

107022 #2 냉국은 뒌장 놩게.(냉국은 된장 넣어서.)

107022 @ 으, 뒌장. 냉국 만들어 봅서.(으, 된장. 냉국 만들어 보세요.)

107022 #2 냉국은 뒌장 놓곡게 그자 초 놓곡 허민 뒌장이주. 이젠 첨 꿰나 ᄒᆞ꼼 놩게. 경허믄 기자 뒈주기게. 이제 거치 얼음 놓곡 뭣허고 허여. 옛날에사 얼음이 어디 싯고 써릉헌 물이 어디 셔?(냉국은 된장 넣고 그저 초 넣고 하면 된장이지. 이젠 참 깨나 조금 넣어서. 그러면 그저 되지. 이제 같이 얼음 넣고 뭐하고 해. 옛날에야 얼음이 어디 있고 차가운 물이 어디 있어?)

107022 @ 예.(예.)

107022 #2 기자 질어단 물 펑당펑당. 아이고, 젤 어려운 건 물 우린. 잘도 물 어려와. 우리 요 신흥동 살아 갈 때 성골왓[221]디. 물이 무사 경 어려와. 첨 완전 이젠 자락자락 씻어도 첨 물 어려와. 난 젤 물허고 지들케 어려와.(그저 길어다가 물 펑펑. 아이고, 제일 어려운 건 물 우린. 아주 물 어려워. 우리 요 신흥동 살아 갈 때 '성골왓'에. 물이 왜 그렇게 어려워. 참 완전 이젠 자락자락 씻어도 참 물 어려워. 난 제일 물하고 땔감 어려워.)

107022 @ 아, 물허고 지들케.(아, 물하고 땔감.)

107022 #2 어. 물허고 지들케 완전 어려와나서.(어. 물하고 땔감 완전 어려웠었어.)

107021 @ 아. 메역국 끓여 보십서, 메역국.(아, 미역국 끓여 보세요, 미역국.)

107021 #2 메역국도 기자 메역 기자 영 팔팔 끌어 가민 뿔앙 들이쳥 그자 장물 놩 끌려 우린. 옛날은 다 장물 놩. 이젠 소금이여 뭣이여 헤도.(미역국도 그저 미역 그저 이렇게 팔팔 끓어 가면 빨아서 들어뜨려서 그저 간장 넣어서 끓여 우린. 옛날은 다 간장 넣어서. 이젠 소금이며 뭐며 해도.)

107023 @ 성게국도 끓여 먹어낫수과?(성게국도 끓여 먹었었습니까?)

107023 #2 성게국도. 아, 옛날은 성게국 엇어. 옛날은 성게 엇어난.(성게국도. 아, 옛날은 성게국 없어. 옛날은 성게 없으니까.)

107023 @ 엇어난?(없었어?)

107023 #2 으. 하나썩 신 거 헤당 솖앙 먹주이 이추룩 성게 하지 안허여. 완전 이젠 고급으로 성게도 하고 우미도 하고.(으. 하나씩 있는 거 해다가 삶아서 먹지 이처럼 성게 많지 않아. 완전 이젠 고급으로 성게도 많고 우미도 많고.)

107023 @ 으.(으.)

107023 #2 옛날 닮지 안허영 우미 성긴 갑자기 나와서. 옛날은 우미도 쪼금 구덕으로 하나 허영 메영 ᄒᆞ꼼 풀고 성기도 헤당 솖앙 그냥 썰엉 먹은디 이젠 완전. 이 성기국은 이제가 끌렷주 옛날은 성게국 안 끌련.(옛날 같지 않아서 우뭇가사리 성게는 갑자기 나왔어. 옛날은 우뭇가사리도 조금 바구니로 하나 해서 매서 조금 팔고 성게도 해다가 삶아서 그냥 썰어서 먹었는데 이젠 완전. 이 성게국은 이제가 끓였지 옛날은 성게국 안 끓였어.)

---

221) '성골왓'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지명의 하나다.

107023 @ 음. 이제 끌리는 거 어떵 끌립니까, 성게국?(음. 이제 끓이는 거 어떻게 끓입니까, 성게국?)

107023 #2 성기 우린 기자 무우허고 양파 좀 놩 솖당 건져 뒁 성기 놩 그자 조개 다시다, 조개 다시다 놩 소금 놩 끌리민 뒈여.(성게 우린 그저 무하고 양파 조금 넣어서 삶다가 건져 두고 성게 넣어서 그저 조개 다시다, 조개 다시다 넣어서 소금 넣어서 끓이면 돼.)

107023 @ 메역은 언제 놔?(미역은 언제 넣어?)

107023 #2 메역은 그자 그 성기 놓고 메역 놓고.(미역은 그저 그 성게 넣고 미역 넣고.)

107023 @ 성기 놓고 메역 놓고예.(성게 넣고 미역 넣고요.)

107023 #2 으.(으.)

107023 @ 저기 보말국도 끓여 먹읍니까?(저기 고둥국도 끓여 먹습니까?)

107023 #2 보말국도 끌령 먹주게. 보말은 주로 죽이 맛셔.(고둥국도 끓여서 먹지. 고둥은 주로 죽이 맛있어.)

107023 @ 아, 죽이 맛셔.(아, 죽이 맛있어.)

107023 #2 으. 죽이 맛셔.(으. 죽이 맛있어.)

107023 @ 예, 예. 죽 끌리는 건 이땅 물어보고예. 보말국부터 끌려 보십서.(예, 예. 죽 끓이는 건 이따가 물어보고요. 고둥국부터 끓여 보세요.)

107023 #2 보말도 그자 그자 무르 줴여 놔근에.(고둥도 그저 그저 주물러 죄어 넣어서.)

107023 @ 어?(어?)

107023 #2 보말 무르 줴여. 무르 줴여 그자 메역.(고둥 주물러 쥐어. 주물러 쥐어 그저 미역.)

107023 @ 무르 줴여? 보말을?(주물러 쥐어? 고둥을?)

107023 #2 그 똥 무르 줴사.(그 똥 주물러 쥐어야.)

107023 @ 아, 물러지게?(아, 물러지게?)

107023 #2 으, 무르 줴사.(으, 주물러 쥐어야.)

107023 @ 우선은 보말 삶아 낭 그 보말 다 낼 거 아니?(우선은 고둥 삶고 나서 그 고둥 다 낼 거 아니?)

107023 #2 내영 그거 이젠 무르 줴영게 그 깍을 문딱 무르 줴어살 거 아니. 죽 쑨 때도 무르 줴야 뒈고.(내어서 그거 이제 주물러 쥐어서 그 '깍'을 모두 주물러 쥐어야 할 거 아니. 죽 쑬 때도 주물러 쥐어야 되고.)

107023 @ 음, 음.(음, 음.)

107023 #2 국 끌릴 때도 무르 줴어야 뒈고. 경허영 무르 줴영 끌려. 경헤영 메역 놓고 헤영 끌리민 뒈주.(국 끓일 때 주물러 쥐어야 되고. 그래서 주물러 쥐어서 끓여. 그래서 미역 넣고 해서 끓이면 되지.)

107023 @ 으, 무르 줴영 메역 놓고 헹 끌리는 거, 예. 넙패국도 끌려낫수과?(으, 주

물러 쥐어서 미역 넣고 해서 끓이는 거, 예. 넓패국도 끓였었습니까?)

107023 #2 넘피?(넓패?)

107023 @ 넙패국, 패국?(넓패국, 패국?)

107023 #2 패국이 아니고 넘피.(패국이 아니고 넓패.)

107023 @ 넘피?(넓패?)

107023 #2 넘핀 그 패가 넘피가 뒈여.(넓패는 그 패가 넓패가 돼.)

107023 @ 예, 예.(예, 예.)

107023 #2 패가 넘피가 뒈영 그거 맛셔. 그거 솖앙.(패가 넓패가 돼서 그거 맛있어. 그거 삶아서.)

107023 @ 넘피도, 넘피도 오래 솖아야 뒈는 거 아니예?(넓패도, 넓패도 오래 삶아야 되는 거 아니요?)

107023 #2 아니, 오래 안 솖아도. 거 뒌장 놩 끌리민 맛셔. 겐디 이젠 넘피가 엇어 잘. 옛날엔 넘피 메렌 흔 십이월덜만 나민 막 물찌마다 갓주게. 그거 솖앙 허민 문작이 맛셔. 그거 끌려. 넘피국 뒌장 놩 끌리민 잘도 맛셔. 바릇 듬북 내 난덴 허멍 풀풀헌 게 맛신는디 이젠. 메역쉐도 맛엇고 것도 맛엇고. 옛날 닮지 안허여.(아니, 오래 안 삶아도. 거 된장 넣어서 끓이면 맛있어. 그런데 이젠 넓패가 없어 잘. 옛날엔 넓패 매려고 한 십이월만 나면 아주 물때마다 갔지. 그거 삶아서 하면 문적하게 맛있어. 그거 끓여서. 넓패국 된장 넣어서 끓이면 잘도 맛있어. 바다 듬북 냄새 난다고 하면서 풀풀한 게 맛있는데 이젠. 미역쇠도 맛없고 것도 맛없고. 옛날 같지 않아.)

107023 @ 게민 넘피국 끌릴 때도 물 끌어 가민 넘피를 놓는 거라?(그럼 넓패국 끓일 때도 물 끓어 가면 넓패를 넣는 거야?)

107023 #2 아니, 넘피 솖앙. 건 끌어 가지 안헌 때 놔도 뒈여. 솖은 거 그레 놩. 넘피 솖앗당.(아니, 넓패 삶아서. 건 끓어 가지 않을 때 넣어도 돼. 삶은 거 그리 넣어서. 넓패 삶았다가.)

107023 @ 예. 가시리국은 어떵 헤마씨?(예. 풀가사리국은 어떻게 해요?)

107023 #2 가시리국은 안 헹 먹어 봔. 가시리 범벅은 헹 먹는 사름덜 잇어낫어. 가시리 헹 범벅 헹 먹는디 우린 가시린 국 안 끌령 먹어 봔.(풀가사리국은 안 해서 먹어 봤어. 풀가사리 범벅은 해서 먹는 사람들 있었어. 풀가사리 해서 범벅 해서 먹는데 우린 풀가사린 국 안 끓여서 먹어 봤어.)

107023 @ 아, 국 안 끌령 먹어 봔. ᄑᆞ레국은?(아, 국 안 끓여서 먹어 봤어. 파래국은?)

107023 #2 ᄑᆞ레국은 뒌장 놩.(파래국은 된장 넣어서.)

107023 @ ᄑᆞ레국 뒌장 놩?(파래국 된장 넣어서?)

107023 #2 으, 으. ᄑᆞ레도 엇언, 엇언 이젠.(으, 으. 파래도 없었어, 없어 이젠.)

107023 @ ᄑᆞ레 지금 없주마씨.(파래 지금 없지요.)

107023 #2 으. 옛날은 ᄑᆞ레국. 강 골겡이로 박박 긁엉. 그 조겡이[222] 겁죽으로 긁

222) '조겡이'는 전복이나 떡조개의 껍데기를 말한다.

엉.(으. 옛날은 파래국. 가서 호미로 박박 긁어서. 그 '조겡이' 껍데기로 긁어서.)

107023 @ 으, 조겡이 겁죽으로.(으, '조겡이' 껍데기로.)

107023 #2 긁엉 이제 체에 영 영 모살 일어덩.(긁어서 이제 체에 이렇게 이렇게 모래 일어두고.)

107023 @ 조겡이 완전 잘 썻수다예, 아까 뭐 헐 때도 쓰고 그거에도 쓰고예.('조겡이' 완전 잘 썼네요, 아까 뭐 할 때도 쓰고 그거에도 쓰고요.)

107023 #2 게난 조겡이 막 그 푸레 긁으젠 허주게. 멘들글락헌 돌에 박박 긁으민 하영 나와.(그러니까 '조겡이' 아주 그 파래 긁으려고 하지. 매끈한 돌에 박박 긁으면 많이 나와.)

107023 @ 그 뭐도 헤 먹어낫수과, 물훼?(그 뭐도 해 먹었었습니까, 물회?)

107023 #2 물웬게 이제도 물웨 냉국 헤 먹어.(물외는 이제도 물외 냉국 해 먹어.)

107023 @ 옛날에도 물훼 뭐 놩 물훼 만들앙 먹어서?(옛날에도 물회 뭐 넣어서 물회 만들어서 먹었어?)

107023 #2 그냥 뒌장 놩게. 옛날은 물웨가 주로 으름에.(그냥 된장 넣어서. 옛날은 물회가 주로 여름에.)

107023 @ 아니 아니. 그, 그 뒌장 놩 냉국도 끌려 먹지만 물훼 허젠 허민 생선을, 생선을?(아니 아니. 그, 그 된장 넣어서 냉국도 끓여서 먹지만 물회 하려고 하면 생선을, 생선을?)

107023 #2 생선은 옛날은 물훼 생선이 엇엇주. 웨, 웨, 주로 웨 냉국이주게. 물웨, 물웨 냉국. 물웨 이녁만썩 갈아 옛날에. 막 우영에 갈앙 탕 엇인 집인 주고 그거 물웨 냉국. 이제나 씨 빵 그거 허고 겁죽 벳기곡 옛날은 그냥 겁죽도 안 벳경 다.(생선은 옛날은 물회 생선이 없었지. 외, 외, 주로 외 냉국이지. 물외, 물외 냉국. 물외 자기만큼씩 갈아 옛날에. 아주 텃밭에 갈아서 따서 없는 집엔 주고 그거 물외 냉국. 이제나 씨 빼서 그거 하고 껍질 벗기고 옛날은 그냥 껍질도 안 벗겨서 다.)

107023 @ 그거 말고 생선 놔 가지고 물훼는 안 헤 먹엇수과?(그거 말고 생선 넣어 가지고 물회는 안 해 먹었습니까?)

107023 #2 자리, 자리 훼베낀 안 허여.(자리돔, 자리돔 회밖에 안 해.)

107023 @ 자리 훼밖에.(자리돔 회밖에.)

107023 #2 으, 자리 훼.(으, 자리돔 회.)

107023 @ 자리물훼?(자리물회?)

107023 #2 으, 자리물훼 워낙 고급. 자리물훼 어쩌다가 흔 번 헹 먹주. 이젠 죽장 헹 먹어도 옛날은 자리물훼 잘 안 헤 먹어. 엇언, 엇언.(으, 자리물회 워낙 고급. 자리물회 어쩌다가 한 번 해서 먹지. 이젠 계속 해서 먹어도 옛날은 자리물회 잘 안 해 먹어. 없어서, 없었어.)

107023 @ 자리물훼가 엇언?(자리물회가 없었어?)

107023 #2 엇언.(없었어.)

107023 @ 자리가 엇언?(자리돔이 없었어?)

107023 #2 자리가 이추룩 풀레 안 다니주. 다 축항에 강 사 와사만 뒈주게. 걸엉 뎅기곡 허난 축항에 영 사레 못 가주게. 차가 셔 뭐가 셔. 겨난 자리물훼 워낙 고급.(자리돔이 이처럼 팔러 안 다니지. 다 축항에 가서 사 와야만 되지. 걸어서 다니고 하니까 축항에 이렇게 사러 못 가지.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리물회는 워낙 고급.)

107023 @ 고급.(고급.)

107023 #2 견디 물웨. 웨, 이제 거트민 오이말고 물웨 잇잖어.(그런데 물외. 외, 이제 같으면 오이말고 물외 있잖아.)

107023 @ 예, 예.(예, 예.)

107023 #2 그 물웨 그자 콩밧디도 허고 그냥 밧디도 허영 그거 여름엔 그거 큰 반찬. 그냥 뒌장 찍엉 먹으나 국 헹 먹으나 여름엔 주로 물웨 냉국이라.(그 물외 그저 콩밭에도 하고 그냥 밭에도 해서 그거 여름엔 그거 큰 반찬. 그냥 된장 찍어서 먹거나 국 해서 먹거나 여름엔 주로 물외 냉국이야.)

107023 @ 으. 저기, 자리물훼 만들어 보십서.(으. 저기, 자리물회 만들어 보세요.)

107023 #2 자리물훼게 기자 식초 놓고 뒌장 놓고.(자리물회는 그저 식초 넣고 된장 넣고.)

107023 @ 우선 자리를 손질헤살 거 아니?(우선 자리돔을 손질해얄 거 아니?)

107023 #2 으, 으. 비닐 다 거시리고 ᄋᆞ물떼기[223] 떼고.(으, 으. 비닐 다 벗기고 'ᄋᆞ물떼기' 떼고.)

107023 @ ᄋᆞ물떼기가 뭐라?('ᄋᆞ물떼기'가 뭐야?)

107023 #2 그 꽝게.(그 뼈.)

107023 @ 아, 꽝.(아, 뼈.)

107023 #2 옛날은 거 안 뗀디 이젠 다 떼여. 옛날은 비닐만 거시렁 그냥 헤나서. 겐디 이젠 ᄀᆞ세로 다 ᄀᆞᆺ앙 이젠.(옛날은 거 안 떼었는데 이젠 다 떼. 옛날은 비늘만 '거스려서' 그냥 했었어. 그런데 이젠 가위로 다 잘라서 이젠.)

107023 @ 아, 그 지느러미?(아, 그 지느러미?)

107023 #2 으. 지느러미 엿날은. 이젠 ᄀᆞ세로 다 ᄀᆞᆺ아 부는디 엿날은 그냥 헷주기게. 그냥 데겡이만 닥닥 ᄆᆞᆺ아근에 그냥 썰엉 헤난디 이젠 다 ᄋᆞ물떼기 그 지느러미 ᄀᆞᆺ앙. ᄀᆞᆺ앙 다 허여.(으. 지느러미 옛날은. 이젠 가위로 다 잘라 버리는데 옛날은 그냥 했지. 그냥 대가리만 닥닥 마아서 그냥 썰어서 했었는데 이젠 다 'ᄋᆞ물떼기' 그 지느러미 잘라서. 잘라서 다 해.)

107023 @ 으. ᄀᆞᆺ앙 다 허여예?(으. 잘라서 다 해요?)

107023 #2 으.(으.)

죽류

107024 @ 이번엔 죽 물어보쿠다, 죽. 죽 끌리는 거예.(이번엔 죽 물어보겠습니다,

223) 여기서 'ᄋᆞ물떼기'는 생선의 지느러미를 가리킨다.

죽. 죽 끓이는 거요.)

107024 #2 죽은 콩죽베끼 엿날에사 더 헤서게.(죽은 콩죽밖에 옛날에야 더 했어.)

107024 @ 곤죽.(흰죽.)

107024 #2 곤죽은 흰죽게.('곤죽'은 흰죽.)

107024 @ 흰죽예. 또 ᄆᆞ물죽도 잇어난 거 아니?(흰죽요. 또 메밀죽도 있었던 거 아니?)

107024 #2 ᄆᆞ물축은 아픈 때 ᄆᆞ물축 헹.(메밀죽은 아플 때 메밀죽 해서.)

107024 @ 우선은 죽 종류가 아까 콩죽?(우선은 죽 종류가 아까 콩죽?)

107024 #2 풋죽.(팥죽.)

107024 @ 풋죽.(팥죽.)

107024 #2 ᄆᆞ물축. 흰죽은 그, 그냥 쏠만 놩 쑤는 흰죽.(메밀죽. 흰죽은 그, 그냥 쌀만 넣어서 쑤는 흰죽.)

107024 @ 으, 으. 흰죽이렌 ᄀᆞᆯ앗수과, 곤죽이렌 ᄀᆞᆯ앗수과?(으, 으. 흰죽이라고 말했습니까, '곤죽'이라고 말했습니까?)

107024 #2 흰죽. 옛날 할망덜 곤죽.(흰죽. 옛날 할머니들 흰죽.)

107024 @ 곤죽예.(흰죽요.)

107024 #2 흰죽은 ᄒᆞ꼼, ᄒᆞ꼼 사투리 부쩡, 첨 사투리 안 쓴 게 흰죽이고 옛날 할망덜은 곤죽.(흰죽은 조금, 조금 사투리 붙여서, 참 사투리 안 쓴 게 흰죽이고 옛날 할머니들은 '곤죽'.)

107024 @ 예, 기민.(예, 그럼.)

107024 #2 곤죽, 곤밥.(흰죽, 흰밥.)

107025 @ 곤죽, 곤밥. 곤죽 어떵 끌렷수과?(흰죽, 흰밥. 흰죽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25 #2 곤죽 기자 쏠 씻어 놩 그냥. 옛날엔 그냥 끌렷주게. 불 숨앙.(흰죽 그저 쌀 씻어 놔서 그냥. 옛날엔 그냥 끓였주. 불 때서.)

107025 @ 불 숨앙. 겐 물 끌려 가민 쏠만 놓는 거라?(불 때서. 그래서 물 끓어 가면 쌀만 넣는 거야?)

107025 #2 아니, 물 안 끌릴 때 놔 그자. 풀어지게.(아니, 물 안 끓을 때 넣어 그저. 풀어지게.)

107025 @ 아, 젓으멍예?(아, 저으면서요?)

107025 #2 으.(으.)

107026 @ 조축 끌려 줍서. 조축.(조죽 끓여 주세요. 조죽.)

107026 #2 조축은 저 모인좁썰이 셔. 끌리는 모인좁썰이 셔.(조죽은 저 메조가 있어. 끓이는 메조가 있어.)

107026 @ 예.(예.)

107026 #2 밥헹 먹는 거 말고. 밥헹 먹는 거 말고. 게난 옛날은 히린조 갈고 모인조 갈앗주게. 히린조는 밥에 놩 먹고 모인조는 주로 죽 쒕 먹어.(밥해서 먹는 거 말고. 밥해서 먹는 거 말고. 그러니까 옛날은 차조 갈고 메조 갈았었지. 차조는 밥에 넣어서 먹

고 메조는 주로 죽 쒀서 먹어.)

107026 @ 아, 떡 헤 먹는 건?(아, 떡 해 먹는 건?)

107026 #2 떡 헤 먹는 건 히린좁썰로 헹 먹어야 뒈고. 게난 콩죽에도 모인좁썰만 놩 죽 쒀사 뒈고. 이 곤썰 놩 죽 쒀서게 옛날에사. 모인좁썰에 그 저 콩ᄀᆞ루 놩 쒓주게. 이젠 모인조 엇어. 옛날에 원 모인조.(떡 해 먹는 건 차조로 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콩죽에도 메조만 넣어서 죽 쒀야 되고. 이 흰쌀 넣어서 죽 쒔어 옛날에야. 메조에 그 저 콩가루 넣어서 쒔지. 이제 메조 없어. 옛날에 원 메조.)

107026 @ 아, 모인조는 죽 쒀 먹는 거구나.(아, 메조는 죽 쒀서 먹는 거구나.)

107026 #2 모인조 노랑헌 모인조 죽 쒕 먹는 모인조가 잇엇주. 게난 모인좁썰 놩 흰죽도 쒀 먹고 곤쏠이 어디 셔. 원 첨 아픈 사람이나 곤쏠은 모인조 놩 죽 쒕 먹주.(메조 노란 메조 죽 쒀서 먹는 메조가 있었지. 그러니까 메조 넣어서 흰죽도 쒀서 먹고 흰쌀이 어디 있어. 원 참 아픈 사람이나 흰쌀은 메조 넣어서 죽 쒀서 먹지.)

107026 @ 게민 히린조는 밥이랑 떡 헤 먹고?(그럼 차조는 밥이랑 떡 해 먹고?)

107026 #2 으. 모인조는 죽 쒀 먹는 거.(으. 메조는 죽 쒀 먹는 거.)

107026 @ 모인조는 죽 쒀 먹고예?(메조는 죽 쒀서 먹고요?)

107026 #2 으, 죽 쑤믄 모인조도 하영 갈아. 옛날은 엇이난 죽 쒕, 죽을 하영 먹엇주게게. 밥을 경 먹어져서게. 식구 한 사름은. 옛날은 애기덜 하영 나 놓난 식군 하지 먹을 건 엇지. 이제 거치 비료 주민 쏠이 하주만은 옛날은 비료 안 주난 쏠이 얼마 엇주게.(으, 죽 쑤면 메조도 많이 갈아. 옛날은 없으니까 주 쒀서, 죽을 많이 먹었지. 밥을 그렇게 먹을 수 있었어. 식구 많은 사람은. 옛날은 아기들 많이 낳아 놓으니까 식구는 많지 먹을 건 없지. 이제 같이 비료 주면 쌀이 많지만 옛날은 비료 안 주니까 쌀이 얼마 없지.)

107027 @ 음. 풋죽은 어떵 끌립니까?(음. 팥죽은 어떻게 끓입니까?)

107027 #2 풋죽은 풋 솖아 놩게 쏠 ᄒᆞ꼼 놓민 뒈고게.(팥죽은 팥 삶아서 넣어서 쌀 조금 넣으면 되고.)

107027 @ 풋 솖아 놩 뭐 두드리지 안허여?(팥 삶아 놔서 뭐 두드리지 않아?)

107027 #2 안 두드려사 맛셔 우린. ᄒᆞ꼼 팟이 씹는 맛이 잇어. 육지는 삭 헹 걸렁 쑤는디 이디는 그냥.(안 두드려야 맛있어 우린. 조금 팥이 씹는 맛이 있어. 육지는 삭 해서 걸려서 쑤는데 여기는 그냥.)

107027 @ 게도 두드리진 안헙니까?(그래도 두드리진 않습니까?)

107027 #2 우린 안 두드령 그냥.(우린 안 두드리고 그냥.)

107027 @ 그럼 알멩이 그대로 죽 헤?(그럼 알맹이 그대로 죽 해?)

107027 #2 아니, 문짝 솖으민 영, 그자 국자로나 바가지로나 영 허민 거의 다 부서져. 경헤영 쏠 놩 쒀.(아니, 푹 삶으면 이렇게, 그저 국자로나 바가지로나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부서져. 그래서 쌀 넣어서 쒀.)

107027 @ 아. 그냥 따로 거령냉 영 영 다지지 않고 문짝 솖으민 국자로 영.(아. 그냥 따로 떠내서 이렇게 이렇게 다지지 않고 푹 삶으면 국자로 이렇게.)

107027 #2 으. 경헤영 ᄒᆞ꼼 씹는 맛이 잇엇주.(으. 그래서 조금 씹는 맛이 있었지.)

107028 @ 아까 콩죽은 어떵 끌려?(아까 콩죽은 어떻게 끓여?)

107028 #2 콩죽은 물 끌어 가믄. 옛날은 쏠 씻엉 짜내영 콩ᄀᆞ루영 쏠이영 허껑 놔나서. 이젠 쏠이영 ᄀᆞ루영 ᄄᆞ로 놓는디. 옛날은 좁썰에 콩ᄀᆞ루에 허껑 물 꿰여 가민 그냥 들이쳣주게.(콩죽은 물 끓어 가면. 옛날은 쌀 씻어서 짜내서 콩가루랑 쌀이랑 섞어서 넣었었어. 이젠 쌀이랑 가루랑 따로 넣는데. 옛날은 좁쌀에 콩가루에 섞어서 물 끓어 가면 그냥 들어뜨렸지.)

107028 @ 아, 쏠도 안 씻엉?(아, 쌀도 안 씻어서?)

107028 #2 으. 이제나 저 시청 놧주 옛날이사 콩ᄀᆞ루에 그냥 허껏주. 경허영 감저 둥탁둥탁[224] 썰어 놩. 감저도 겁죽 안 벳겨, 옛날은.(으. 이제나 저 씻어서 넣지 옛날에야 콩가루에 그냥 섞었지. 그래서 고구마 '둥탁둥탁' 썰어 넣어서. 고구마도 껍질 안 벗겨, 옛날은.)

107028 @ 콩죽에는 콩ᄀᆞ루허고 좁썰도 들어가고 감저도 들어가고?(콩죽에는 콩가루하고 좁쌀도 들어가고 고구마도 들어가고?)

107028 #2 으, 감제에. 콩ᄀᆞ루 그냥 콩ᄀᆞ루에 좁썰에 허껑 그냥 물 끌어 가민 쑥 비왕 이제 또 꿰여 가믄 감저 들이쳐.(으, 고구마에. 콩가루 그냥 콩가루에 좁쌀에 섞어서 그냥 물 끓어 가면 쑥 비워서 이제 또 끓어 가면 고구마 들어뜨려.)

107028 @ 으.(으.)

107028 #2 감저 씻엉. 겁죽 이제난 다 벳겨도 옛날은 겁죽채. 게도 엇엉 못 먹엇주. 경헨 기자 이 끗뎅이나 그창 놓주.(고구마 씻어서. 껍질 이제니까 다 벗겨도 옛날은 껍질째. 그래도 없어서 못 먹었지. 그래서 그저 그 끄트머리나 끊어 넣지.)

107029 @ 예. ᄆᆞ물축은 어떵 헙니까, ᄆᆞ물축.(예. 메밀죽은 어떻게 합니까, 메밀죽.)

107029 #2 ᄆᆞ물축은 ᄆᆞ물ᄏᆞ루 놩 아픈 사름 ᄆᆞ물축 쒓주게. 넴기지 못허는 사름.(메밀죽은 메밀가루 넣어서 아픈 사람 메밀죽 쑤지. 넘기지 못하는 사람.)

107029 @ ᄆᆞ물축은 ᄆᆞ물ᄀᆞ루로 헷수과?(메밀죽은 메밀가루로 했습니까?)

107029 #2 아니. 쏠, 쏠, 쏠.(아니. 쌀, 쌀, 쌀.)

107029 @ ᄆᆞ물쏠이지예, 기지예?(메밀쌀이지요, 그렇죠?)

107029 #2 쏠로. 그 아픈 사름만 ᄆᆞ물축. 아팡 뭐 못 내리우는 사름. 민지락허난. 완전 거 고급으로.(쌀로. 그 아픈 사람만 메밀죽. 아파서 뭐 못 내리는 사람. 물컹하니까. 완전 거 고급으로.)

107029 @ 으.(으.)

107029 #2 아무나 쒕 먹어 보질, 그냥 일반 사름은 안 쒕 먹어. 옛날은, 이젠 돈이 흔허고 뭐이든지 사당 먹젠 허믄 헌디 옛날은 돈을 쓰지 못허주게. 거 상 먹질 못허난. 게난 ᄆᆞ물축 아무나 먹어서게. 아픈 사름이나 먹주.(아무나 쒀서 먹어 보질, 그냥 일반 사람은 안 쒀서 먹어. 옛날은, 이젠 돈이 흔하고 뭐든지 사다가 먹으려고 하면 하는데 옛날은 돈을 쓰지 못하지. 거 사서 먹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메밀죽 아무나 먹었어. 아

224) '둥탁둥탁'은 고구마 따위를 굵게 썬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픈 사람이나 먹지.)

107030 @ 녹디죽도 헤 먹어 봅디가?(녹두죽도 해 먹어 봅디까?)

107030 #2 으, 녹디죽은 녹디 솖앙.(으, 녹두죽은 녹두 삶아서.)

107030 @ 예, 만들어 봅서.(예, 만들어 보세요.)

107030 #2 솖으민 픗 거치.(삶으면 팥 같이.)

107030 @ 아, 픗 거치.(아, 팥 같이.)

107030 #2 음. 녹디죽은 픗 거치 기자 녹디 솖아 놩 쏠에 ᄀᆞ치 놓민.(음. 녹두죽은 팥 같이 그저 녹두 삶아 넣어서 쌀에 같이 넣으면.)

107030 @ 그때 쏠은 다 좁썰?(그때 쌀은 다 좁쌀?)

107030 #2 다 좁썰. 옛날은 죽 쒀 먹는 거 곤썰론 안 쒀 먹언. 이제난. 그 모인좁썰이 이젠 엇어. 그 죽 쒀 먹는 좁썰이. 우리 결혼허연 멧 년 아이덜 난 때꺼장도 거의 그 조축 쒀 먹엇주게. 좁썰로 쒀 먹은디 첨 이제 쏠이 흔허영 밥을 안 먹어 노난 다 쏠이 밀려 남아돌아.(다 좁쌀. 옛날은 죽 쒀 먹는 건 흰쌀로는 안 쒀 먹었어. 이제니까. 그 메조가 이젠 없어. 그 죽 쒀 먹는 좁쌀이. 우리 결혼해서 몇 년 아이들 낳았을 때까지도 거의 그 조죽 쒀 먹었지. 좁쌀로 쒀 먹었는데 참 이제 쌀이 흔해서 밥을 안 먹으니까 다 쌀이 밀려 남아돌아.)

107030 @ 으.(으.)

107030 #2 옛날은 쏠이. 우리도 나룩 흔 멧 가마니 헤도 안 먹어서 다 풀아. 보리밥 먹주. 그 쏠을 안 먹어. 쏠 흔 사십 가멩이썩 나룩 헤도 안 먹어서. 이녁 ᄒᆞ꼼 기자 큰일 때나 먹주.(옛날은 쌀이. 우리도 벼 한 몇 가마니 해도 안 먹어서 다 팔아. 보리밥 먹지. 그 쌀을 안 먹어. 쌀 한 사십 가마니씩 벼 해도 안 먹어서. 자기 조금 그저 큰일 때나 먹지.)

107030 @ 음.(음.)

107030 #2 운동회 때, 운동회 때나 곤밥 허고 멩질 때 곤밥 허고. 기자 제서 때 곤밥 허주. 다 그냥 보리밥만 먹고 그 나룩은 다 바쪄. 풀아.(운동회 때, 운동회 때나 흰밥 하고 명질 때 흰밥 하고. 그저 제사 때 흰밥 하지. 다 그냥 보리밥만 먹고 그 벼는 다 바쳐. 팔아.)

107031 @ ᄃᆞᆨ죽도 끌려 먹지 안헷수과예, ᄃᆞᆨ죽?(닭죽도 끓여 먹지 않았어요, 닭죽?)

107031 #2 ᄃᆞᆨ죽은 이제나 저제나 마찬가지주.(닭죽은 이제나 저제나 마찬가지지.)

107031 @ 예, 끌려 보십서.(예, 끓여 보세요.)

107031 #2 우선 ᄃᆞᆨ 솖아 놩 쏠 놩게.(우선 닭 삶아 놓고 쌀 넣어서.)

107031 @ 고기는 건져 먹지 안허고?(고기는 건져 먹지 않고?)

107031 #2 건졍 그냥 먹곡게. 옛날은 ᄃᆞᆨ 흔 ᄆᆞ리 허민 멧이 먹엇주게. 유월 스무날 잡아 먹어. 질루난.(건져서 그냥 먹고. 옛날은 닭 한 마리 하면 몇이 먹었지. 유월 스무날 잡아먹어. 기르니까.)

107031 @ 집이서 질뤄난 거예?(집에서 길렀던 거요?)

107031 #2 질루난. 아이, 맛셔.(기르니까. 아이, 맛있어.)

107031 @ 맛셔.(맛있어.)

107031 #2 으, 이제 거 닮지 안허여.(으, 이제 거 같지 않아.)

107031 #2 경허난 그거 허영 ᄒᆞ꼼썩 ᄒᆞᆫ 가달썩 허고 그 죽 쒕 이제 ᄒᆞᆫ 사발씩 먹주게.(그러니까 그거 해서 조금씩 한 가닥씩 하고 그 죽 쒀서 이제 한 사발씩 먹지.)

107031 @ 고기도 ᄒᆞ꼼 솔고기 찢어 놓고예?(고기도 조금 살코기 찢어 넣고요?)

107031 #2 으, 유월 스무날만 쒀 먹주게.(으, 유월 스무날만 쒀 먹지.)

107031 @ 오늘, 오늘 아니과?(오늘, 오늘 아닙니까?)

107031 #2 넘어간.(넘어갔어.)

107031 @ 넘어간. 하하.(넘어갔어. 하하.)

107031 #2 유월 스무날만 ᄃᆞᆨ 질루다근에 잡앙 ᄉᆞ못 그거 큰 보약으로.(유월 스무날만 닭 기르다가 잡아서 사뭇 그거 큰 보약으로.)

107031 @ 맞수다. ᄃᆞᆨ 잡젠 허민 ᄃᆞᆨ은 어떵 잡아낫수과?(맞습니다. 닭 잡으려고 하면 닭은 어떻게 잡았었습니까?)

107031 #2 영 똑 꺼끄민 꺼꺼져.(이렇게 똑 꺾으면 꺾여.)

107031 @ 움직이는 걸 그냥? 목을?(움직이는 걸 그냥? 목을?)

107031 #2 영 등꽝을 똑 꺼꺼.(이렇게 등뼈를 똑 꺾어.)

107031 @ 등꽝을?(등뼈를?)

107031 #2 으, 경혜영 물 풀풀 끌령, 물 풀풀 끌이민 이젠 둘러 다리 잡앙. 경허민 이제 그 터럭이 팍팍 빠기 좋아. 엿날은 경헨 헷주.(으, 그래서 물 팔팔 끓여서, 물 팔팔 끓이면 이젠 둘러 다리 잡아서. 그러면 이제 그 털이 팍팍 빼기 좋아. 옛날은 그렇게 했지.)

107031 @ 하하하.(하하하.)

107031 #2 뒈지 잡을 땐, 찍으로나 보리낭으로.(돼지 잡을 땐, 짚으로나 보릿짚으로.)

107031 @ 그실리고예?(그슬고요?)

107031 #2 그실려근에 이젠 칼로 박박 긁으고. 옛날은 돗술도 그거 다 메영 풀아서. 거멍헌 거.(그슬어서 이젠 칼로 박박 긁고. 옛날은 돼지털도 그거 다 매서 팔았어. 거먼 거.)

107031 @ 그거 뭐 헤레 풀아?(그거 뭐 하려고 팔아?)

107031 #2 옛날은 붓 멘들암젠 허멍 막 돗술 비싸난. 이 머리도 막 비싸고. 돗술도 비쌍 그거 문딱 메여.(옛날은 붓 만든다고 하면서 아주 돼지털 비싸니까. 이 머리도 아주 비싸고. 돼지털도 비싸서 그거 모두 매.)

107031 @ 아, 돗술도 그거.(아, 돼지털도 그거.)

107031 #2 그거 메영 풀고 그 이런 디 벳데기 거 못 메는 것만 허주. 이런 디 등떼기, 거 메지는 건 다 메영 풀아. 경혜영 요만이헌 거 얼마. 막 돈 하영 줘서, 옛날은.(그거 매서 팔고 그 이런 데 배 거 못 매는 것만 하지. 이런 데 등, 거 맬 수 있는 건 다 매서 팔아. 그래서 요만한 거 얼마. 아주 돈 많이 줬어, 옛날은.)

107032 @ 아. 혹시 겡이죽도 끓영 먹어낫수과?(아. 혹시 게죽도 끓여서 먹었었습니

까?)

107032 #2 겡이죽이 뭐라?('겡이죽'이 뭐야?)

107032 @ 깅이죽.(게죽.)

107032 #2 으게.(으.)

107032 @ 깅이죽.(게죽.)

107032 #2 맛존다.(맛있어.)

107032 @ 깅이죽이렌 헷수과?(게죽이라고 했습니까?)

107032 #2 으게. 거 삣앙 물 쭉 뚤라 놩. 이제도 쒀. 막 풀풀헌[225] 게 맛싯나.(으. 거 빻아서 물 쭉 따라 놔서. 이제도 쒀. 아주 '풀풀헌' 게 맛있어.)

107032 @ 만들어 봅서 어떵 만듭니까?(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듭니까?)

107032 #2 그 깅이 삣앙 그 물.(그 게 빻아서 그 물.)

107032 @ 깅이 그냥 산 채로 삣아?(게 그냥 산 채로 빻아?)

107032 #2 으. 삣앙 물 허여 놩. 막 이제도 맛좋아 경허민.(으. 빻아서 물 해 놔서. 아주 이제도 맛있어 그러면.)

107032 @ 죽인 다음에 삣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죽인 다음에 빻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

107032 #2 둥둥 삣아.(둥둥 빻아.)

107032 @ 게민 체에 물 내령 그 국물.(그럼 체에 물 내려서 그 국물.)

107032 #2 아니 영 뚤라근에 죽 끌리민 막 듬박듬박[226] 맛좋아. 깅이죽 막 고급. 막 맛셔 이제도.(아니 이렇게 따라서 죽 끓이면 아주 '듬박듬박' 맛있어. 게죽 아주 고급. 아주 맛있어 이제도.)

107033 @ 예, 예. 이거 말고 다른 죽도 헤 먹어낫수과?(예, 예. 이거 말고 다른 죽도 해 먹었었습니까?)

107033 #2 옛날엔 그거 허영 웬보멀[227] 죽, 웬보멀 삣앙.(옛날엔 그거 해서 '웬보멀' 죽, '웬보멀' 빻아서.)

107033 @ 웬보멀이 뭐과?('웬보멀'이 뭡니까?)

107033 #2 이젠 그 저 벵벵 몰아진 거, 거 육지선 풀아. 영 길쭉헌 거 똑 그차덩 육지선 그거. 이디선 거 안 픈는디 육지선 그거 헹 픈는디 그거 삣앙 그거 죽 쒀 먹어.(이젠 그 저 뱅뱅 말아진 거, 거 육지에선 팔아. 이렇게 길쭉한 거 똑 끊어두고 육지에선 그거. 여기에선 거 안 파는데 육지에선 그거 해서 파는데 그거 빻아서 그거 죽 쒀 먹어.)

107033 @ 아, 웬보멀이렌 헤?(아, '웬보멀'이라고 해?)

107033 #2 으. 웬보멀이엔 헤. 육진 그거 다세기. 육진 다세기엔 헴실 거라.(으. '웬보멀'이라고 해. 육지는 그거 다슬기. 육지는 다슬기라고 하고 있을 거야.)

107033 @ 그거 헹 그것도.(그거 해서 그것도.)

---

225) '풀풀허다'는 죽 따위가 풀기가 있게 걸쭉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226) '듬박듬박'은 국 따위에 건더기가 많이 들어 있어 국물이 진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227) '웬보멀'은 고둥의 한 종류다.

107033 #2 죽 쒀 먹어. 우린 안 헤 먹어 본디 거 우리 뿟앙 쉐만 죽 쒕 줘난.(죽 쒀 먹어. 우린 안 해 먹어 봤는데 거 우리 빻아서 소만 죽 쒀서 줬었어.)

107033 @ 또 뭐 호박죽 같은 건 안 헤 먹엇수과?(또 뭐 호박죽 같은 건 안 해 먹었습니까?)

107033 #2 이제사 호박죽 헹 먹엄주. 옛날사 호박죽 헹 먹어서게? 헐 충 몰랏주. 옛날은 호박국만 끌려 먹엇주, 죽 안 쒕 먹언.(이제야 호박죽 해서 먹고 있지. 옛날에야 호박죽 해서 먹었어? 할 줄 몰랐지. 옛날은 호박국만 끓여서 먹었지, 죽 안 쒀서 먹었어.)

107033 @ 요즘 호박죽 어떵 끌렴수과, 삼춘?(요즘 호박죽 어떻게 끓이고 있습니까, 삼촌?)

107033 #2 껍죽, 껍죽 싹 벳겨뒁 저 솖앙 찹쌀 놩도 쑤고 찹쌀가루 놩도 쑤고.(껍질, 껍질 싹 벗겨두고 저 삶아서 찹쌀 놔서도 쑤고 찹쌀가루 놔서도 쑤고.)

107033 @ 아. 솖앙 막 문대경?(아. 삶아서 마구 문대서?)

107033 #2 으, 옛날은 호박죽 쑤는 거 몰란 이거 우리 이제사 쒕 먹으멘. 호박죽 그런 거 뭣허고 헐 정신도 엇고게 옛날은.(으, 옛날은 호박죽 쑤는 거 몰라서 이거 우리 이제야 쒀서 먹고 있어. 호박죽 그런 거 뭐하고 할 정신도 없고 옛날은.)

107033 @ 예. 혹시 꿩죽 같은 것도 헤 먹어 봅디가?(예. 혹시 꿩죽 같은 것도 해 먹어 봤습니까?)

107033 #2 꿩은 기자 솖아근에 죽 거 쒕 먹언. 이제난 안 먹은디 옛날은 낭 밧디 약 놓민 꿩이 막 죽어. 우리 미깡밧 헐 때. 경헤영 그거 내장만 뺑 먹으민. 이제거트민 큰일나.(꿩은 그저 삶아서 죽 거 쒀서 먹었어. 이제니까 안 먹는데 옛날은 나무 밭에 약 놓으면 꿩이 많이 죽어. 우리 귤밭 할 때. 그래서 그거 내장만 빼서 먹으면. 이제 같으면 큰일나.)

107033 @ 약 논 밧디 꿩?(약 놓은 밭에 꿩?)

107033 #2 꿩 그 ****엔 헌 거 놩 죽으민 그 내장만 빼덩 그거 막 먹엇주게.(꿩 그 ****이라고 하는 거 놔서 죽으면 그 내장만 빼두고 그거 많이 먹었지.)

107033 @ 아고, 삼춘.(아고, 삼촌.)

107033 #2 이젠, 이제 거트믄 죽을 거엔 헐 거여, 죽을 거.(이젠, 이제 같으면 죽을 거라고 할 거야, 죽을 거.)

107033 @ 으, 이제 거트민 안 먹지예.(으, 이제 같으면 안 먹지요.)

107033 #2 안 먹주. 약 먹은 거엔. 견디 내장 빼 불민 어떵 안 헌덴 다 먹어서 우린. 거 막 낭 밧디 죽어. 경허민 그거 봉가당 죽 쒕 먹엇주. 큰일 나 이제 거트민.(안 먹지. 약 먹은 거라고. 그런데 내장 빼 버리면 어떻게 안 한다고 다 먹었어, 우린. 거 많이 나무 밭에 죽어. 그러면 그거 주워다가 죽 쒀서 먹었지. 큰일 나 이제 같으면.)

107033 @ 아고. 게민 그 꿩죽도 독죽 끓이는 거나 마찬가지?(아고. 그럼 그 꿩죽도 닭죽 끓이는 거나 마찬가지?)

107033 #2 견디 꿩은 독죽 닮지 안허영 에려와. 고기가 엇고 이 맛이 엇어.(그런데

꿩은 닭죽 같지 않아서 어려워. 고기가 없고 이 맛이 없어.)

107033 @ 아, 맛이 엇어. 또 다른 죽 잇어낫수과? 그 죽 말고 끌려 먹어난 죽.(아, 맛이 없어. 또 다른 죽 있었습니까? 그 죽 말고 끓여 먹었던 죽.)

107033 #2 엇어.(없어.)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엇어예. 범벅 종류는 뭐가 잇수과?(없어요. 범벅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107034 #2 범벅은 ᄆᆞ물범벅, 감저범벅게. 그 감저 ᄀᆞ루 헹.(범벅은 메밀범벅, 고구마범벅. 그 고구마 가루 해서.)

107034 @ ᄆᆞ물범벅, 감저범벅예. ᄆᆞ물범벅은 어떵 만들엇수과?(메밀범벅, 고구마범벅요. 메밀범벅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34 #2 ᄆᆞ물범벅도 그 감제, 감제 썰엉 듬박듬박[228] 허영 보글보글 막 끌어 갈 때 ᄀᆞ루 놩 허민 막 맛셔. ᄆᆞ물범벅. 그냥 ᄆᆞ물만 헌 게 아니고.(메밀범벅도 그 고구마, 고구마 썰어서 '듬박듬박' 해서 보글보글 마구 끓어 갈 때 가루 넣어서 하면 아주 맛있어. 메밀범벅. 그냥 메밀만 한 게 아니고.)

107034 @ ᄆᆞ물이랑 감저를 ᄀᆞ치?(메밀이랑 고구마를 같이?)

107034 #2 감저는 숭당숭당[229] 썰엉 놩 감저 솖아져 가믄 이제 ᄀᆞ루 놩. 감저 거의 솖아져 갈 때. 경헨 데기민 막 맛셔. 경헨 소금만 ᄒᆞ꼼 놓고 헨 허민 맛셔. 밀카루 닮지 안허영 ᄆᆞ물펌벅은 맛셔.(고구마는 '숭당숭당' 썰어서 넣어서 고구마 삶아져 가면 이제 가루 넣어서. 고구마 거의 삶아져 갈 때. 그래서 문대면 아주 맛있어. 그래서 소금만 조금 넣고 해서 하면 맛있어. 밀가루 같지 않아서 메밀범벅은 맛있어.)

107034 @ 또 다른 범벅은?(또 다른 범벅은?)

107034 #2 감저범벅게. 그 감저 ᄀᆞ루 허영.(고구마범벅. 그 고구마 가루 해서.)

107034 @ 감저 ᄀᆞ루 헤영 어떵?(고구마 가루 해서 어떻게?)

107034 #2 그거 범벅 허영.(그거 범벅 해서.)

107034 @ 게민 감저 ᄀᆞ루에도 감저 솖당 감저 ᄀᆞ루를 또 놓는 거?(그럼 고구마 가루에도 고구마 삶다가 고구마 가루를 또 넣는 거?)

107035 #2 감저ᄌᆞ베기도 그냥 감저ᄌᆞ베기 영 헹 그냥 다 줍아. 감저ᄌᆞ베기 영 헹 ᄌᆞ베기 헹 먹주게. 주로 감저ᄌᆞ베기 하영 헹 먹엇주게, 옛날은.(고구마수제비도 그냥 고구마수제비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집어. 고구마수제비 이렇게 해서 수제비 해서 먹지. 주로 고구마수제비 많이 해서 먹었지, 옛날은.)

107035 @ ᄌᆞ베기 종류는 감저ᄌᆞ베기도 잇고 또?(수제비 종류는 고구마수제비도 있고 또?)

107035 #2 보리ᄌᆞ베기게.(보리수제비.)

107035 @ 보리ᄌᆞ베기.(보리수제비.)

---

228) '듬박듬박'은 국 따위에 건더기가 들어 있는 모양을 나타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229) '숭당숭당'은 야채 등을 단번에 큼직하고 가볍게 베거나 자르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35 #2 ᄆᆞ물, ᄆᆞ물ᄏᆞ루 ᄌᆞ베긴 엇고게 옛날은. 어려와.(메밀, 메밀가루 수제비는 없고 옛날은. 어려워.)

107035 @ 여기는 엇구나예. 저 동쪽 강 들을 때는 거기는 다 ᄆᆞ물ᄌᆞ베기우다.(여기는 없군요. 저 동쪽 가서 들을 때는 거기는 다 메밀수제비입니다.)

107035 #2 으, 견디 ᄆᆞ물ᄌᆞ베기 옛날은 잘 안 허여. 거의 보리ᄌᆞ베기, 감저ᄌᆞ베기 헹 먹엇주.(으, 그런데 메밀수제비 옛날은 잘 안 해. 거의 보리수제비, 고구마수제미 해서 먹었지.)

107035 @ 아, 여기는?(아, 여기는?)

107035 #2 으.(으.)

107035 @ 감저ᄌᆞ베기, 보리ᄌᆞ베기.(고구마수제비, 보리수제비.)

107035 #2 아니, ᄆᆞ물ᄌᆞ베기는 워낙 첨 고급으로 뜯어 놩 하영 헹 먹엇주게.(아니, 메밀수제비는 워낙 참 고급으로 뜯어 넣어서 많이 해서 먹었지.)

107036 @ 음. 저기 ᄌᆞ베기도 있었고 칼국수도 따로 잇엇수과?(음. 저기 수제비도 있었고 칼국수도 따로 있었습니까?)

107036 #2 으. 칼국순 밀엉게.(으. 칼국수는 밀어서.)

107036 @ 밀엉. 게민 그건 무슨 ᄀᆞ루로?(밀어서. 그럼 그건 무슨 가루로?)

107036 #2 옛날은 주로 무시거 밀ᄏᆞ루 ᄒᆞ꼼 허껑. 보리ᄀᆞ루에 밀ᄏᆞ루 허껑 칼국수헤 먹엇주게.(옛날은 주로 뭐 밀가루 조금 섞어서. 보릿가루에 밀가루 섞어서 칼국수 해 먹었지.)

107036 @ 으.(으.)

107036 #2 칼국수. 게난 주로 ᄌᆞ베기가 하영 헹 먹엇주, 칼국순 잘. 보리ᄀᆞ루라사, 보리ᄏᆞ루 칼국순 잘 안 뒈메게. 밀카루라사 잘 뒈는디 게난 주로 ᄌᆞ베기 헹 먹언. ᄌᆞ베기.(칼국수. 그러니까 주로 수제비가 많이 해서 먹었지, 칼국수는 잘. 보릿가루라야, 보릿가루 칼국수는 잘 안 돼. 밀가루라야 잘 되는데 그러니까 주로 수제비 해서 먹었어. 수제비.)

107036 @ ᄌᆞ베기 헹 먹언예.(수제비 해서 먹었어요.)

107036 #2 우리 어린 때 ᄌᆞ베기가 하영 헹 먹주 칼국수는 잘 안 헤 먹언.(우리 어린 때 수제비가 많이 해서 먹지 칼국수는 잘 안 해 먹었어.)

107036 @ 예, 예. 보리ᄌᆞ베기 그다음 감저ᄌᆞ베기예? ᄌᆞ베기 헤 먹었었던 거. 이젠 김치 물어보쿠다, 김치. 김치 만들어난 거?(예, 예. 보리수제비 그다음 고구마수제비요? 수제비 해 먹었던 거. 이젠 김치 물어보겠습니다, 김치. 김치 만들었던 거?)

김치

107047 #2 김치사 이제추룩 헤서게. 옛날은이 그 아까 퍼데기[230] ᄂᆞ물 캐당 바닷물에 강 망사리[231]에 담앙 딱 돌 지둘룅 컷당. 고치ᄀᆞ루도 엇어. 고치ᄀᆞ루 ᄒᆞ꼼 놓고. 알

230) '퍼데기'는 배추 따위가 속이 앉지 않은 것을 말한다.

아져, 우리 어린 때. 흔 열댓 헐 때 콩이 콩 보깡 골앙 그거 고칫ᄀᆞ루에 허껑 그 퍼데기에 버물엉 먹어.(김치야 이제처럼 했어. 옛날은 그 아까 '퍼데기' 나물 캐다가 바닷물에 가서 '망사리'에 담아서 딱 돌 지질러 담갔다가. 고춧가루도 없어. 고춧가루 조금 넣고. 알아, 우리 어린 때. 한 열댓 할 때 콩이 콩 볶아서 갈아서 그거 고춧가루에 섞어서 그 '퍼데기'에 버무려서 먹어.)

107047 @ 아.(아.)

107047 #2 경허단 우리 이 퍼데기 속 배추김치 헌 때가 오래지 안헤서. 우리 결혼헐 땐이, 우리 결혼헐 당시엔 그 새각시 상에 놀 거엔 헨 그거 배추 멧 페기 사당 고치ᄀᆞ루에 놩 ᄒᆞ꼼 허고 그 페데기 이 바닷물에 강 소금 안 놩 그거 딱 지둘롱 놔두민 거 다 죽어. 경허민 씻엉 그냥.(그러다가 우리 이 '퍼데기' 속 배추김치 했을 때가 오래지 않았어. 우리 결혼할 때는, 우리 결혼할 당시에는 그 새색시 상에 놓을 거라고 해서 그거 배추 몇 포기 사다가 고춧가루에 넣어서 조금 하고 그 '퍼데기' 이 바닷물에 가서 소금 안 넣어서 그거 딱 지질러서 놔두면 거 다 죽어. 그러면 씻어서 그냥.)

107047 @ 거 지둘롱 놔두는 건 얼마나 지둘롱 놔둡니까?(거 지질러 놔두는 건 얼마나 지질러 놔둡니까?)

107047 #2 흔 이사흘 지둘롱 놔두민 그거 몸 죽어실 거라이, 생각에. 우리 어린 때 생각에.(한 이사흘 지질러 놔두면 그거 몸 죽었을 거야, 생각에. 우리 어린 때 생각에.)

107047 @ 소금 절이는 거 대신에 그거 지둘르는 거 아니?(소금 절이는 거 대신에 그거 지지르는 거 아니?)

107047 #2 으, 바닷물에 강. 퍼데기 ᄂᆞ물이난 잘 죽은 거라.(으, 바닷물에 가서. '퍼데기' 나물이니까 잘 죽은 거야.)

107047 @ 그거 헹구진 안헤?(그거 헹구진 않아?)

107047 #2 게난 바닷물에서 그냥.(그러니까 바닷물에서 그냥.)

107047 @ 아. 아예 지둘롯던 거 그냥 바닷물에서 헹궈당?(아. 아예 지질렀던 거 그냥 바닷물에서 헹궈다가?)

107047 #2 으, 으. 경허연. 겐디 이젠 바닷물 쪼금 질어당 소금 좀 놩 허믄 그 속 배추도 잘 죽으는디 옛날은 퍼데기 ᄂᆞ물이랏주게. 게난 퍼데기 ᄂᆞ물 망사리에 담앙 강 돌 딱 지둘롸서.(으, 으. 그랬어. 그런데 이젠 바닷물 조금 길어다가 소금 좀 넣어서 하면 그 속 배추도 잘 죽는데 옛날은 '퍼데기' 나물이었지. 그러니까 '퍼데기' 나물 '망사리'에 담아서 가서 돌 딱 지질러서.)

107047 @ 음.(음.)

107047 #2 경허민 그거 김치가 이제. 막 항에 ᄒᆞ꼼 우리 ᄋᆞᆨ은 후제, 살림 살안 우리 결혼헌 후제, 후제에 속 배추김치 이추룩 고칫ᄀᆞ루 놓멍 헤 먹엇주. 우리 어렷을 때 그 추룩 헹 먹어서.(그러면 그거 김치가 이제. 아주 항아리에 조금 우리 큰 후에, 살림 살아서 우리 결혼한 후에, 후에 속 배추김치 이처럼 고춧가루 넣으면서 해 먹었지. 우리 어렸을 때 그처럼 해서 먹었어.)

231) '망사리'는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아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을 말한다.

107037 @ 게난 김치 종류가 베랑 엇엇다예?(그러니까 김치 종류가 별로 없었네요?)

107037 #2 으, 주로 그 퍼데기 짐치, 놈삐짐치 경헷주게. 드릇ᄂᆞ물 짐치도 다 헹 먹언. 이제 거트민 썽 먹지도 안헐 거여. ᄂᆞ물이 엇이난 보리밧디 강. 저 드릇ᄂᆞ물이엔 헌 거 보리밧디 가믄 막 칼칼 쓴 ᄂᆞ물. 그거 캐당 소금물에 절영, 바닷물 질어당 절여근에. 소금도 어려완게.(으, 주로 그 '퍼데기' 김치, 무김치, 그랬지. 들나물 김치도 다 해서 먹었어. 이제 같으면 써서 먹지도 않을 거야. 나물이 없으니까 보리밭에 가서. 저 들나물이라고 하는 거 보리밭에 가면 아주 칼칼 쓴 나물. 그거 캐다가 소금물에 절여서, 바닷물 길어다가 절여서. 소금도 어려웠어.)

107037 @ 음.(음.)

107047 #2 소금밧 허영 허는 따문. 게난 바닷물 질어당 헷어.(소금밭 해서 하는 때문에. 그러니까 바닷물 길어다가 했어.)

107047 @ 그때 고치는 고칫ᄀᆞ루 허젠 허믄 고치는 어떵?(그때 고추는 고춧가루 하려고 하면 고추는 어떻게?)

107047 #2 고치가 엇어. 멘네 밧디나 하나썩 놔. 멘네 밧디 하나썩 놩 타. 이제난 이추룩 막 하는디. 거 멘네 왓디 거 타당 벳디 ᄆᆞᆯ령 혜영 뻣앙 방에톡에 뻣앙 혜여.(고추가 없어. 면화 밭에나 하나씩 놔. 면화 밭에 하나씩 놔서 따. 이제니까 이처럼 아주 많은데. 거 면화 밭에 거 따다가 볕에 말려서 해서 빻아서 방아확에 빻아서 해.)

107047 @ 삼춘네 집이서 멘네도 키와수과?(삼촌네 집에서도 면화도 키웠었습니까?)

107047 #2 멘네 키우주게.(면화 키우지.)

107047 @ 그 멘네 키왓던 얘기 나중에 물어보쿠다예.(그 면화 키웠던 이야기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107047 #2 멘네 왓디 고치씨 하나씩 데끼믄 빨갛게 잘 익어. 게민 그거 타당 헷주게. 그냥 싱금도 헷주만은. 주로 멘네 왓디게 잘 익어.(면화 밭에 고추씨 하나씩 던지면 빨갛게 잘 익어. 그럼 그거 따다가 했지. 그냥 심기도 했지만. 주로 면화 밭에 잘 익어.)

107047 @ 그거 타당 그거 ᄆᆞᆯ령?(그거 따다가 그거 말려서?)

107047 #2 게난 이제거치 이런 클에 ᄆᆞᆯ리고 헤서게. 이런 벳디 씰에 조롱조롱 ᄃᆞᆯ아 멧주게. 그 영 이런 딜로 실에 꿰영 영 널믄 잘 ᄆᆞᆯ라.(그러니까 이제처럼 이런 틀에 말리고 했어. 이런 볕에 실에 조롱조롱 달아맸지. 그 이렇게 이런 데로 실에 꿰서 이렇게 널면 잘 말라.)

107047 @ 아. ᄀᆞ는 것도 다 집이서 ᄀᆞᆯ고?(아. 가는 것도 다 집에서 갈고?)

107047 #2 ᄀᆞᆯ아나서게, 뻣앗주.(갈았었어, 빻았지.)

107047 @ 뻣아서.(빻아서.)

107047 #2 돌로. 돌혹 허영 뻣안.(돌로. 돌확 해서 빻았어.)

107047 @ 돌혹에?(돌확에?)

107047 #2 으. 뻣앗주. ᄀᆞ는 기계가 어디 셔, 그땐. ᄀᆞ는 기계가 엇주게.(으. 빻았지. 가는 기계가 어디 있어, 그땐. 가는 기계가 없지.)

107047 @ 게민 김치 허젠 허민 재료가 뭐 뭐 잇어낫수과?(그럼 김치 하려고 하면

재료가 뭐 뭐 있었습니까?)

107047 #2 그땐 기자 마농. 마농도 이제 닮지 안허영 어려왓주.(그땐 그저 마늘. 마늘도 이제 같지 않아서 어려웠지.)

107047 @ 어려왓주예. 마농 ᄒᆞ꼼 허고.(어려웠지요. 마늘 조금 하고.)

107047 #2 마농 허고 꿰. 고급이라사 꿰 놓고.(마늘 하고 깨. 고급이라야 깨 넣고.)

107047 @ 꿰 놓고. 고칫ᄀᆞ루 허고?(깨 넣고. 고춧가루 하고?)

107047 #2 으.(으.)

107047 @ 물에 절인 배추 허고예?(물에 절인 배추 하고요?)

107047 #2 으, 기자 이제 거치 이거 뭐 허지 안허여. 멜칫 국물이나 쪼꼼 놓고.(으, 그저 이제 같이 이거 뭐 하지 않아. 멸치 국물이나 조금 넣고.)

107047 @ 아, 멜칫 국물은 놧구나.(아, 멸치 국물은 넣었구나.)

107047 #2 으, 멜칫 국물 쪼금 놓고 이제 거치 뭐 배 ᄀᆞᆯ아 놓고 무신?(으, 멸치 국물 조금 넣고 이제 같이 뭐 배 갈아 넣고 무슨?)

107047 @ 멜칫 국물은 젓갈 얘기허는 거지예?(멸치 국물은 젓갈 얘기하는 거지요?)

107047 #2 멜젓, 멜젓 놔. 이제 거치 액젓이 아니고 옛날에 멜젓게. 멜젓 그냥 그레 놔.(멸치젓, 멸치젓 넣어. 이제 같이 액젓이 아니고 옛날은 멸치젓. 멸치젓 그냥 그리 넣어.)

107039 @ 그럼 아까 배추김치 담그는 건, 만드는 건 경 ᄀᆞᆯ앗고. 지금 열무짐치렌 헌 거 잇어낫수과?(그럼 아까 배추김치 담그는 건, 만드는 건 그렇게 말했고. 지금 열무김치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까?)

107039 #2 열무 그땐 엇언.(열무 그땐 없었어.)

107039 @ 그땐 엇언예? 열무짐친 언제쯤 헤 먹어진 것과? 김치렌 ᄀᆞᆯ앗수과, 짐치렌 ᄀᆞᆯ앗수과?(그땐 없었어요? 열무김치는 언제쯤 해 먹은 겁니까? 김치라고 말했습니까, '짐치'라고 말했습니까?)

107039 #2 김치, 김치.(김치, 김치.)

107039 @ 열무김친 언제 헹 먹엇수과?(열무김치는 언제 해서 먹었습니까?)

107039 #2 열무김친 몰라게. 어린 때 안 헤 먹어진 거 닮은디. 이제 ᄋᆞᆨ, 우리 큰 후에야 열무가 잇엇주. 그땐 열무 갈지도 안헨. ᄂᆞᆷ삐도 안 갈아나세게. 퍼데기 ᄂᆞ물만 갈앙 그자 국 끌려 먹는 거 주로 캐당 헷주.(열무김치는 몰라. 어린 때 안 해 먹은 거 같은데. 이제 커, 우린 큰 후에야 열무가 있었지. 그땐 열무 갈지도 않았어. 무도 안 갈았었어. '퍼데기' 나물만 갈아서 그저 국 끓여 먹는 거 주로 캐다가 했지.)

107040 @ 물짐치는 헌 거 아니?(물김치는 한 거 아니?)

107040 #2 으, 물짐친 헹 먹언, 그때도.(으, 물김치는 해서 먹었어, 그때도.)

107040 @ 물짐친 어떵 헤 먹엇수과?(물김치는 어떻게 해 먹었습니까?)

107040 #2 그때 물짐친이 보리밥, 밥 바글바글 궬 때 그 물 똘랑. 저 ᄂᆞ물 썰엉 소금 톡 줍아 놩 이제 그 보리밥 궨 물 놩 뚜껑 탁 더껑 놔두민 누렇게 잘 익엉 맛셔.(그때 물김치는 보리밥, 밥 바글바글 끓을 때 그 물 따라서. 저 나물 썰어서 소금 톡 집어

놔서 이제 그 보리밥 끓은 물 놔서 뚜껑 탁 덮어서 놔두면 누렇게 잘 익어서 맛있어.)

107040 @ 뜨거운 물 그 보리밥 궨 거?(뜨거운 물 그 보리밥 끓은 거?)

107040 #2 으. 경 안 허영 그 보리쏠 시쳐난 물도 풀풀 끌영 그 김치레 놓민 잘 뒈여. 겐 맛셔.(으. 그렇게 안 하고 그 보리쌀 씻었던 물도 팔팔 끓여서 그 김치에 넣으면 잘 돼. 그래서 맛있어.)

107040 @ 우리 이제 쏠 씻어난 물로 국 끓이듯이우다예?(우리 이제 쌀 씻었던 물로 국 끓이듯이네요?)

107040 #2 으, 그거 그거 놩 뚜껑 탁 더껑 놔두민 ᄒᆞ꼼 ᄂᆞ물이 누렇게 잘 익어.(으, 그거 그거 놔서 뚜껑 탁 덮어서 놔두면 조금 나물이 누렇게 잘 익어.)

107040 @ 양념은 뭐 헤 거기에?(양념은 뭐 해 거기에?)

107040 #2 아무 것도 아니. 기자 소금 집어놩.(아무 것도 아니. 그저 소금 집어넣어서.)

107040 @ 소금 집어놩.(소금 집어넣어서.)

107040 #2 게민 새콤ᄃᆞᆯ콤허여. 말쩨 익어 가민. 게민 맛셔.(그럼 새콤달콤해. 말째 익어 가면. 그럼 맛있어.)

107041 @ 동지 짐치도 헤낫수과?('동지' 김치도 했었습니까?)

107041 #2 동지[232] 짐친 동지 곧작 곧작 살 때 그거 허민 동지 짐치가 맛셔. 겐디 이제덜은 동지 짐치도 안 헤 먹어.('동지' 김치는 '동지' 곧게 곧게 설 때 그거 하면 '동지' 김치가 맛있어. 그런데 이제들은 '동지' 김치도 안 해 먹어.)

107041 @ 동지가 뭐라?('동지'가 뭐야?)

107041 #2 ᄂᆞ물게 꼿 올라올 때.(나물 꽃 올라올 때.)

107041 @ 올라올 때. 그거 뜯어 가지고예?(올라올 때. 그거 뜯어 가지고요?)

107041 #2 으, 아니 그거 그냥 캐여 동지 영 쭉 동 올라올 때, 거 동지 짐치.(으, 아니 그거 그냥 캐서 '동지' 이렇게 쭉 동 올라올 때. 거 '동지' 김치.)

107042 @ ᄂᆞᆷ삐짐치는 어떵 헙니까?(무김치는 어떻게 합니까?)

107042 #2 ᄂᆞᆷ삔 그자 ᄂᆞᆷ삐 썰엉, 문탁문탁[233] 썰엉 기자. 첨 쪽파나 ᄒᆞ꼼 놓고 기자 고칫ᄀᆞ루만 버물영 그자 헷주게.(무는 그저 무 썰어서, '문탁문탁' 썰어서 그저. 참 쪽파나 조금 넣고 그저 고춧가루만 버무려서 그저 했지.)

107042 @ 소금에 안 절입니까?(소금에 안 절입니까?)

107042 #2 소금에 절영게. 뉴슈가에 절영.(소금에 절여서. 뉴슈가에 절여서.)

107042 @ 아, 뉴슈가.(아, 뉴슈가.)

107042 #2 뉴슈가 쪼끔 놓고 소금 놓고 헹 절여. 경허민 아삭아삭허여.(뉴슈가 조금 넣고 소금 넣고 해서 절여. 그러면 아삭아삭해.)

107042 @ 아, 절일 때 뉴슈가를 넣는 거?(아, 절일 때 뉴슈가를 넣는 거?)

107042 #2 게민 아삭아삭허여.(그럼 아삭아삭해.)

---

232) '동지'는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연한 장다리를 말한다.

233) '문탁문탁'은 야채 등을 큼직하고 가볍게 베거나 자르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42 @ 소금 놓고.(소금 넣고.)

107042 #2 이젠 아무 김치도 안 먹어. 옛날 아이덜 신 때 헹 먹엇주. 김치를 안 먹어 이젠.(이젠 아무 김치도 안 먹어. 옛날 아이들 있을 때 해서 먹었지. 김치를 안 먹어 이젠.)

107043 @ 패마농김친마씨?(파김치는요?)

107043 #2 패마농김친 멜젓 놓고 젓갈 놓고 고춧ᄀᆞ루 놓고 그자.(파김치는 멸치젓 넣고 젓갈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저.)

107043 @ 젓갈 놓고 고춧ᄀᆞ루 놓고.(젓갈 넣고 고춧가루 넣고.)

107043 #2 경만 헹 먹어.(그렇게만 해서 먹어.)

107043 @ 패마농도 절입니까?(파도 절입니까?)

107043 #2 안 절여서. 절이민 질겨 패마농김친.(안 절여서. 절이면 질겨 파김치는.)

107043 @ 아, 절이민 질긴 거?(아, 절이면 질긴 거?)

107043 #2 으, 안 절여사. 패마농김치 그냥 소금 쪼금 놓고 젓갈 놓고 고춧ᄀᆞ루 놓고 첨, 다시다나 ᄒᆞ꼼 노나 안 노나 헤도 그자 설탕이나 약간 놩 막 버물여도 싹 죽어. 경헤사 허주 패마농짐치 절이민 질경 못 먹어.(으, 안 절여야. 파김치 그냥 소금 조금 넣고 젓갈 넣고 고춧가루 넣고 참, 다시다나 조금 넣거나 안 넣거나 해도 그저 설탕이나 약간 넣어서 마구 버무려도 싹 죽어. 그래야 하지 파김치 절이면 질겨서 못 먹어.)

107044 @ 음. 꿩마농짐친?(음. 달래김치는?)

107044 #2 꿩마농도 경헤서.(달래도 그랬어.)

107044 @ 마찬가지로 젓갈이랑?(마찬가지로 젓갈이랑?)

107044 #2 젓갈이랑 고춧ᄀᆞ루랑 기자.(젓갈이랑 고춧가루랑 그저.)

107045 @ 갯ᄂᆞ물짐치?(갓김치?)

107045 #2 갯ᄂᆞ물짐치도 그추룩 그냥 ᄂᆞ물 짐치 거치. 갯ᄂᆞ물짐치 익으민 맛셔.(갯김치도 그처럼 그냥 나물 김치 같이. 갓김치 익으면 맛있어.)

107045 @ 그것도 바닷가에 강 절영 오는 거?(그것도 바닷가에 가서 절여서 오는 거?)

107045 #2 옛날엔 경헷주. 이젠 경 안 헤도. 이젠 갯ᄂᆞ물김치덜을 안 허여.(옛날엔 그랬지. 이젠 그렇게 안 해도. 이젠 갓김치들은 안 해.)

107045 @ 경헤도 김장헐 때 그거 좀 서끄지 안헙니까?(그래서 김장할 때 그거 좀 섞지 않습니까?)

107045 #2 으, 서껑.(으, 섞어서.)

107045 @ 예, 서껑예.(예, 섞어서요.)

107045 #2 작년꺼장은 돌산갓[234] 허영 막 허여난. 돌산갓 김치.(작년까지는 '돌산갓' 해서 많이 했었어. '돌산갓' 김치.)

107045 @ 돌산갓 김치.('돌산갓' 김치.)

107045 #2 돌산갓 갈앙 김치 헤난디 작년부턴 안 허멘. 이젠 올린 안 허멘. 잘 안

234) '돌산갓'은 전라남도 여수의 남쪽에 있는 '돌산'이라는 섬에서 생산되는 갓이다.

먹언 아이덜이. 아이 맛싯긴 더 맛셔.('돌산갓' 갈아서 김치 했었는데 작년부턴 안 하고 있어. 이젠 올해는 안 해. 잘 안 먹어 아이들이. 아이 맛있기는 더 맛있어.)

107045 @ 게니까. 익으민예.(그러니까. 익으면요.)

107045 #2 으, 익으민 맛셔. 시지도 안허여. 여름 나도 경헤도 아이 먹으난 이젠 안 허멘.(으, 익으면 맛있어. 시지도 않아. 여름 되도 그래도 안 먹으니까 이젠 안 해.)

107046 @ 새우리짐치도 헤낫수과?(부추김치도 했었습니까?)

107046 #2 새우리짐치도 쪽파짐치 거치.(부추김치도 파김치 같이.)

107046 @ 쪽파짐치 거치. 소금 안 절엿당 그냥?(파김치 같이. 소금 안 절였다가 그냥?)

107046 #2 으, 소금 안 절영 그냥. 소금 절이민 안 뒈여.(으, 소금 안 절여서 그냥. 소금 절이면 안 돼.)

107046 @ 소금 절이민 안 뒈여.(소금 절이면 안 돼.)

젓갈

107048 @갈은 뭐 담가낫수과?(젓갈은 뭐 담갔습니까?)

107048 #2 옛날은 멜게. 멜, 멜첫. 멜첫. 이젠 액젓인디 옛날은 주로 멜젓. 아이, 멜 날 때 나도 작년, 재작년이 담앙 작년꺼지 먹언. 겐디 이젠 멜이 안 나, 이디. 멜 담으민 이 그게 맛셔 액젓보단. 겐 그거 싹 솖앙 저 쒜 소쿠리에 싹 걸령 삼다수 벵에 질엉 놔 두믄 김치 헐 때 놓믄 더 맛셔.(옛날은 멸치. 멸치, 멸치젓. 멸치젓. 이젠 액젓인데 옛날은 주로 멸치젓. 아이, 멸치 날 때 나도 작년, 재작년에 담아서 작년까지 먹었어. 그런데 이젠 멸치가 안 나, 여기. 멸치 담그면 그게 맛있어 액젓보다. 그래서 그거 싹 삶아서 저 쇠 소쿠리에 싹 걸러서 삼다수 병에 길어서 놔두면 김치할 때 넣으면 더 맛있어.)

107050 @ 아, 미리 준비를 헤 놓는구나.(아, 미리 준비를 해 놓는구나.)

107050 #2 그거 흔 말에 이만 원 재재작년인 헤서. 겐 나 말가웃 산 왕 그냥 허믄 막 맛셔. 허믄 쪽파 짐치도 맛잇고 그런 것도 맛싯고.(그거 한 말에 이만 원 재작년엔 했어. 그래서 나 말가웃 사서 와서 그냥 하면 아주 맛있어. 그러면 쪽파 김치도 맛있고 그런 것도 맛있고.)

107048 @ 젓갈 담아 봅서. 젓은 멜첫만 담안? 자리젓은 안 담안?(젓갈 담가 보세요. 젓은 멸치젓만 담갔어? 자리젓은 안 담갔어?)

107048 #2 자리젓도 담고.(자리젓도 담그고.)

107049 @ 우선예, 멜첫, 아니 자리젓 담으는 것부터 헤 줍서. 자리젓 어떵 담읍니까, 담젠 허민?(우선요, 멸치젓, 아니 자리젓 담그는 것부터 해 주세요. 자리젓 어떻게 담급니까, 담그려고 하면?)

107049 #2 자리젓 기자 영 떵 기자 자리가 사 키로면 소금 일 키로. 전인 일 키로 놔난디 이젠 일 키로 못 놔사 뒌게. 구백. 경허민 막 맛셔. 영 똑똑똑 더가리만 뭇앙.(자리젓 그저 이렇게 떠서 그저 자리돔이 사 킬로그램이면 소금 일 킬로그램. 전엔 일 킬

로그램 넣었었는데 이젠 일 킬로그램 못 넣어야 돼. 구백. 그러면 아주 맛있어. 이렇게 똑똑똑 대가리만 마아서.)

107049 @ 안 씻어, 상 온 거?(안 씻어, 사서 온 거?)

107049 #2 으, 안 씻어.(으, 안 씻어.)

107049 @ 더가리만 뭇아?(대가리만 마아?)

107049 #2 으.(으.)

107049 @ 그냥 뭐 헤?(그냥 뭐 해?)

107049 #2 그자 소금만. 소금만 그자 사 키로면.(그저 소금만. 소금만 그저 사 킬로그램면.)

107049 @ 자리가?(자리돔이?)

107049 #2 자리가 사 키로면 소금은 일 키로 놔난디 이젠 일 키로가 좀 짜. 흔 구백 그람만 놓난 딱 맞안게. 멜젓은 사 대 일로 놓난 딱 뒈고.(자리돔이 사 킬로그램이면 소금은 일 킬로그램 넣었었는데 이젠 일 킬로그램이 좀 짜. 한 구백 그램만 넣으면 딱 맞아. 멸치젓은 사 대 일로 넣으니까 딱 되고.)

107049 @ 아, 사 대 일로 놔 가지고. 거 항에만 담아 불민 뒈는 거과?(아, 사 대 일로 넣어 가지고. 거 항아리에만 담아 버리면 되는 겁니까?)

107049 #2 으.(으.)

107049 @ 항에 담앙 뭐 안 씌워?(항아리에 담아서 뭐 안 씌워?)

107049 #2 무사 안 씌워게.(왜 안 씌워.)

107049 @ 뭐로 씌웁니까?(뭐로 씌웁니까?)

107049 #2 광목 험벅게. 험벅 허영 식초나 식용류 불라야 버렝이 안 들주.(광목 헝겊. 헝겊 해서 식초나 식용류 발라야 벌레 안 들지.)

107049 @ 어디에, 천에?(어디에, 천에?)

107049 #2 광목 험벅에.(광목 헝겊에.)

107049 @ 아하. 식초나 식용류.(아하. 식초나 식용류.)

107049 #2 으, 고무줄로 딱 무껑 그 우에 식초 그 험벅에 불르민 벌레 안 궤여. 장항에도 경헤사 뒈여.(으, 고무줄로 딱 묶어서 그 위에 식초 그 헝겊에 바르면 벌레 안 꾀어. 장항에도 그래야 돼.)

107049 @ 장항에도마씨?(장항에도요?)

107049 #2 게민 벌레, 버렝이 안 궤여. 버렝이 막 궤는디. 식초 헤도 뒈는디 식용류가 젤. 식초는 문딱 놀아나 불민 얼마 엇엉 안 뒈고. 식용류 그 험벅에 무치믄 프리가 안 궤여.(그럼 벌레, 벌레 안 꾀어. 벌레 아주 꾀는데. 식초 해도 되는데 식용류가 제일. 식초는 모두 날아나 버리면 얼마 없어서 안 되고. 식용류 그 헝겊에 묻히면 파리가 안 꾀어.)

107049 @ 아, 신기하다. 기구나. 보통 헐 때 자리 사 키로 헤낫수과?(아, 신기하다. 그렇구나. 보통 할 때 자리돔 사 킬로그램 했었습니까?)

107049 #2 으, 으. 사 키로.(으, 으. 사 킬로그램.)

107049 @ 항아리 몇 개나?(항아리 몇 개나?)
107049 #2 아이고, 거 쪼마난 거 하나.(아이고, 거 조그마한 거 하나.)
107049 @ 사 키로 헤야 쪼그만헌 거 하나?(사 킬로그램 해야 조그마한 거 하나?)
107049 #2 한 말, 한 말쯤이난게.(한 말, 한 말쯤이니까.)
107049 @ 머리 두드려 가지고?(머리 두드려 가지고?)
107049 #2 머리 두들지 안허민 고린내 나 가지고 안 뒈여.(머리 두드리지 않으면 고린내 나 가지고 안 돼.)
107050 @ 음. 멜첫을 만들어 줍서. 멜첫.(음. 멸치젓을 만들어 주세요. 멸치젓.)
107050 #2 멜첫도 그냥. 멜첫은 두드리지 안허여. 그냥 삭삭삭.(멸치젓도 그냥. 멸치젓은 두드리지 않아. 그냥 삭삭삭.)
107050 @ 멜첫은 두드리지 안허여.(멸치젓은 두드리지 않아.)
107050 #2 자리는 벳데기 두드려야 뒈고. 벳데기, 데강이 두드려야 뒈고 멜은 그냥 삭삭. 멜첫은 그자 사 대 일만 허민 딱 뒈여.(자리돔은 배 두드려야 되고. 배, 대가리 두드려야 되고 멸치는 그냥 삭삭. 멸치젓은 그저 사 대 일만 하면 딱 되어.)
107050 @ 아, 사 대 일만.(아, 사 대 일만.)
107050 #2 으, 맛셔. 그냥 사 대 일만 허민.(으, 맛있어. 그냥 사 대 일만 하면.)
107050 @ 게민 사당 소금만 뿌리면 멜첫 뒈는구나.(그럼 사다가 소금만 뿌리면 멸치젓 되는구나.)
107050 #2 으, 사 대 일 그자.(으, 사 대 일 그저.)
107050 @ 씻지도 허고?(씻지도 않고?)
107050 #2 으게. 씻지 안허여.(으. 씻지 않아.)
107051 @ 예. 혹시 아감젓 같은 거 만들어낫수과? 아가미젓?(예. 혹시 아감젓 같은 거 만들었었습니까? 아가미젓?)
107051 #2 거 안 만들어난. 사단만 먹주. 아가미가 어디 이서게. 옛날 고등어 아가미는 저 빌어단 담아낫주만은.(거 안 만들었었어. 사다가만 먹지. 아가미가 어디 있어. 옛날 고등어 아가미는 저 빌어다가 담갔지만.)
107051 @ 고등어?(고등어?)
107051 #2 으, 고등어. 저 한림 강 빌어단 담아난디 이제는 엇어. 담안 먹어난디 이제는 그게 엇어.(으, 고등어. 저 한림 가서 빌어다가 담갔었는데 이제는 없어. 담가서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
107052 @ 음. 게젓은 어떵허과, 게젓?(음. 게젓은 어떻습니까, 게젓?)
107052 #2 게젓은 그자 논만 허믄 뒈여.(게젓은 그저 넣기만 하면 돼.)
107052 @ 뭘?(뭘?)
107052 #2 저 간장 허고 마늘만 허믄.(저 간장 하고 마늘만 하면.)
107052 @ 간장이랑 마늘만 허면.(간장이랑 마늘만 하면.)
107052 #2 으, 맛셔.(으, 맛있어.)
107052 @ 게, 게 그냥 살아 있는 거에?(그래, 그래 그냥 살아 있는 거에?)

107052 #2 우리 이디 준준헌 거 잡아 온 거. 거 경허영 허민 맛셔. 나 쭉 그것에만 먹주. 저번에 강 ᄒᆞ꼼 잡아단.(우리 여기 잘디잔 거 잡아 온 거. 거 그렇게 하면 맛있어. 나 쭉 그것에만 먹지. 저번에 가서 조금 잡아다가.)

107052 @ 하하.(하하.)

107052 #2 요샌 김치 냉장고에 놔뒀단. 겐 큰아덜네 요만헌 걸로 하나 가져가 불고 족은아덜 이걸로 하나 아져가 불고. 저디 두 개 이실 거라.(요샌 김치 냉장고에 놔뒀다가. 그래서 큰아들네 요만한 걸로 하나 가져가 버리고 작은아들 이걸로 하나 가져가 버리고. 저기 두 개 있을 거야.)

107052 @ 양념을 별로 안 허는구나.(양념을 별로 안 하는구나.)

107052 #2 고춧ᄀᆞ루 쪼금 놓고 저 꿰도 쪼금 놓고 허여. 경허영 그자 간장만 비왕.(고춧가루 조금 넣고 저 깨도 조금 넣고 해. 그래서 그저 간장만 비워서.)

107052 @ 간장만 비왕예.(간장만 비워서요.)

107052 #2 것도 톡톡 ᄲᆞᆺ앙.(것도 톡톡 빨아서.)

107052 @ 톡톡 ᄲᆞᆺ앙.(톡톡 빨아서.)

107052 #2 으, 톡톡 ᄲᆞᆺ앙.(으, 톡톡 빨아서.)

107054 @ 저기 출레[235]가 뭐과, 출레?(저기 '출레'가 뭡니까, '출레'?)

107054 #2 반찬이 출레주.(반찬이 '출레'지.)

107054 @ 게민 출레에는 어떤 반찬덜이 잇어?(그럼 '출레'에는 어떤 반찬들이 있어?)

107054 #2 다 이거 출레. 옛날엔 출레엔 헷주게. 반찬이 출레.(다 이거 '출레'. 옛날엔 '출레'라고 했지. 반찬이 '출레'.)

107054 @ 기민 김치도 출레렌 허여?(그럼 김치도 '출레'라고 해?)

107054 #2 옛날엔 자리젓, 멜첫 헌 것ᄀᆞ라 출레렌 헷수게. 할망 사투리가 출레. 출레 잇어사 밥 먹주기. 우리 어린 땐 우린 안 골아난디 할망덜이 출레. 출레 출려사 먹주기게. 출레 엇이 먹어져. 경. 반찬이 출레.(옛날엔 자리젓, 멸치젓 한 것보고 '출레'라고 했어요. 할머니 사투리가 '출레'. '출레' 있어야 밥 먹지. 우리 어린 때 우린 안 말했었는데 할머니들이 '출레'. '출레' 차려야 먹지. '출레' 없이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반찬이 '출레'.)

장아찌와 회

107055 @ 반찬이 출레. 예, 예. 마농지. 마농지시엔 골앗수과, 마농지엔?(반찬이 '출레'. 예, 예. 마늘장아찌. '마농지시'라고 말했습니까, '마농지'라고?)

107055 #2 마농지, 마농지.('마농지', 마늘장아찌.)

107055 @ 마농지 종류가 뭐 잇수과?(마늘장아찌 종류가 뭐 있습니까?)

107055 #2 거 장아찌게.(거 장아찌.)

235) '출레'는 밥과 곁들어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107055 @ 이 뿌리도 허고 대도 허고?(이 뿌리도 하고 대도 하고?)

107055 #2 으.(으.)

107055 @ 게민 이 뿌리도 마농지. 이 대 닮은 것도 마농지?(그럼 이 뿌리도 마늘장아찌. 이 대 같은 것도 마늘장아찌?)

107055 #2 으. 장아찌, 장아찌.(으. 장아찌, 장아찌.)

107055 @ 장아찌.(장아찌.)

107055 #2 저 마농지는, 뿌리는 장아찌고 대는 마농지주게.(저 마늘장아찌는, 뿌리는 장아찌고 대는 마늘장아찌지.)

107055 @ 아, 대를 지렌 허고 뿌리는 장이찌렌 헤?(아, 대를 '지'라고 하고 뿌리는 장아찌라고 해?)

107056 #2 으. 장아찌. 건 깐 거 장아찌 담으민 뒈여. 옛날은 장물에만 담고 것도. 으, 옛날에는 장물에만 그자 마농지 담앗주게, 우리 어린 땐. 겐디 이젠 딱 사과 식초 하나, 간장 하나, 이제 저 무시거 설탕 하나 경허영 삼 대 일 허민 딱 좋아.(으. 장아찌. 건 깐 거 장아찌 담그면 돼. 옛날은 간장에만 담그고 것도. 으, 옛날에는 간장에만 그저 마늘장아찌 담갔지, 우리 어린 때는. 그런데 이젠 딱 사과 식초 하나, 간장 하나, 이제 저 뭐 설탕 하나 그러면 삼 대 일 하면 딱 좋아.)

107056 @ 거 끓영 아니면?(거 끓여서 아니면?)

107056 #2 끓영. 끓영 식형.(끓어서. 끓여서 식혀서.)

107056 @ 거기 그냥 비우민 뒈는 거예.(거기 그냥 비우면 되는 거요.)

107056 #2 으.(으.)

107056 @ 게민 옛날에 지 담글 때는 장물 안 끓엿수과?(그럼 옛날에 장아찌 담글 때는 간장 안 끓였습니까?)

107056 #2 장물 끌연. 옛날은 장물만 끓연. 아무 뭐 안 놔. 겐 짠짠헤사 일 년 내낭 먹주게. 겐디 이젠 그 사과 식초가 들어가니까 안 짜. 옛날은 식초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짜야 뒈고 이제는 사과 식초가 들어가기 따문에 싱거와도 어떵 안 허여.(간장 끓였어. 옛날은 간장만 끓였어. 아무 뭐 안 넣어. 그래서 짜디짜야 일 년 내내 먹지. 그런데 이젠 그 사과 식초가 들어가니까 안 짜. 옛날은 식초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짜야 되고 이제는 사과 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싱거워도 어떻게 안 해.)

107056 @ 그거 놩 끓영 그냥 담아 불민 뒈는 거?(그거 넣어서 끓여서 그냥 담가 버리는 되는 거?)

107056 #2 으. 식형, 식형.(으. 식혀서, 식혀서.)

107057 @ 예. 그 훼 종류도 잇어낫수과? 예를 들면 새끼훼, 자리훼?(예. 그 회 종류도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새끼회 자리돔회?)

107057 #2 새끼훼[236] 뒈지 새끼.(새끼회 돼지 새끼.)

107057 @ 그거 먹어난마씨?(그거 먹었었어요?)

107057 #2 으.(으.)

236) '새끼훼' 주로 돼지의 태반 속의 새끼로 만든 회를 가리킨다.

107057 @ 어떤 게 뒈지 새끼훼과?(어떤 게 돼지 새끼회입니까?)

107057 #2 뒈지 그 배속에 이신 거 독독 삣앙게.(돼지 그 뱃속에 있는 거 독독 빻아서.)

107057 @ 추렴헌 거라예?(추렴한 거지요?)

107057 #2 배, 새끼 밴 뒈지 잡으면 새끼가 열 개, 으돕 개 잇주게. 게민 흔 봉다리, 흔 봉다리썩 풀아. 게민 그거 독독독독 뭇아 놩 확. 아픈 사람 거 먹으민 속 괜찮덴 헤서. 뭰장 놓고 식초 놩.(배, 새끼 밴 돼지 잡으면 새끼가 열 개, 여덟 개 있지. 그럼 한 봉지, 한 봉지씩 팔아. 그럼 그거 독독독독 마아 놔서 확. 아픈 사람 거 먹으면 속 괜찮다고 해서. 된장 넣고 식초 넣어서.)

107057 @ 아. 추렴헐 때 그거 그 추렴허는 디서 프는구나?(아. 추렴할 때 그거 그 추렴하는 데서 파는구나?)

107057 #2 으. 아, 저 동문 시장 가믄 막 풀아 거.(으. 아, 저 동문 시장 가면 아주 팔아 거.)

107057 @ 지금도 헙니까?(지금도 합니까?)

107057 #2 막 풀아 거. 지금도 풀아.(많이 팔아 거. 지금도 팔아.)

107057 @ 지금도?(지금도?)

107057 #2 이디도 이 무슨 식당 그디 새끼훼 풀암실 걸. 아, 나도 옛날, 부산선 막 싸. 뒈지새끼가. 겐 부산서 막 사와나서. 사단 이디 왕 풀아나서.(여기도 이 무슨 식당 거기 새끼회 팔고 있을 걸. 아, 나도 옛날, 부산에서는 아주 싸. 돼지새끼가. 그래서 부산에서 많이 사왔었어. 사다가 여기 와서 팔았었어.)

107057 @ 부산은 무사 왓다 갓다 헷수과?(부산은 왜 왔다 갔다 했습니까?)

107057 #2 장서허멍.(장사하면서.)

107057 @ 무슨 장서마씨?(무슨 장사요?)

107057 #2 다 하간 거 장서 다 헨. 야채 장서. 아까도 거 마늘 실렁 오켄 헤세.(다 온갖 거 장사 다 했어. 야채 장사. 아까도 거 마늘 실어서 오겠다고 했어.)

107057 @ 아, 그런 장사덜. 게민 강 오래 살고 헌 거 아니엿잖아?(아, 그런 장사들. 그럼 가서 오래 살고 한 거 아니었잖아?)

107057 #2 흔 일주일. 흔 삼 일.(한 일주일. 한 삼 일.)

107057 @ 여기 거 상 강?(여기 거 사서 가서?)

107057 #2 그레 가고 거기 것도 이레 사 오고.(그리 가고 거기 것도 이리 사 오고.)

107057 @ 사 오고.(사 오고.)

107057 #2 경 멧 번 가 완.(그렇게 몇 번 갔다 왔어.)

107057 @ 예. 자리훼는마씨?(예. 자리회는요?)

107057 #2 자리훼 아깐 근대로 그자 물 놓고 뭰장 놓민 뒈여.(자리회는 아까 말한 대로 그저 물 넣고 된장 넣으면 돼.)

107057 @ 거의 자리훼 물훼로 먹엇지예, 옛날에?(거의 자리회 물회로 먹었지요, 옛날에?)

107057 #2 으.(으.)

107057 @ 방어훼 같은 것도 먹엇수과?(방어회 같은 것도 먹었습니까?)

107057 #2 아니, 건 그자 사시미[237]로 떵 먹엇주.(아니, 건 그저 회로 떠서 먹었지.)

107057 @ 게니까 사시미. 것도 옛날에도 잇어난?(그러니까 회. 것도 옛날에도 있었어?)

107057 #2 엇어.(없어.)

107057 @ 옛날에 바다궤기 이렇게 사시미 헤 먹어난 게 뭐가 잇수과?(옛날에 바닷고기 이렇게 회 해서 먹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107057 #2 옛날에 사시미 이 준다니엔 헌 거만 잇엇주.(옛날에 회 이 개상어라고 하는 거만 있었지.)

107057 @ 아. 준다니?(아. 개상어?)

107057 #2 이젠 엇어 준다니. 겁죽 사락사락헌[238] 거.(이젠 없어 개상어. 껍질 '사락사락한' 거.)

107057 @ 음, 준다니 잇어나고.(음, 개상어 있었고.)

107057 #2 준다니, 비께.(개상어, 두툽상어.)

107057 @ 비께.(두툽상어.)

107057 #2 비께 맛셔. 겐디 엇어 엇어. 비께 준다니 그거가 쏘아단 먹엇주게.(두툽상어 맛있어. 그런데 없어 없어. 두툽상어 개상어 그거가 쏘아다가 먹었지.)

107057 @ 비께는 막 큰 거 아니?(두툽상어는 아주 큰 거 아니?)

107057 #2 으, 사름 물민 막.(으, 사람 물면 아주.)

107057 @ 게니까 상어 지금예?(그러니까 상어 지금요?)

107057 #2 상어가 아니고 이거 틀려.(상어가 아니고 이거 틀려.)

107057 @ 틀려.(틀려.)

107057 #2 어, 얼룩달룩헌 게. 비께 상어보단 막 족아.(어, 얼룩덜룩한 게. 두툽상어 상어보단 아주 작아.)

107057 @ 아, 족아. 게민 훼 헤 먹는 건?(아, 작아. 그럼 회 해 먹는 건?)

107057 #2 비께 이녁냥으로 찔러당.(두툽상어 자기대로 찔러다가.)

107058 @ 예. 그 계절마다 반찬이 조금 ᄐᆞ나잖아예? 봄에는 무슨 반찬 헤 먹엇수과?(예. 그 계절마다 반찬이 조금 다르잖아요? 봄에는 무슨 반찬 해 먹었습니까?)

107058 #2 반찬 엇어. 그자 그거, 그거주 그냥.(반찬 없어. 그저 그거, 그거지 그냥.)

107058 @ 그거, 그거?(그거, 그거?)

107058 #2 으.(으.)

107058 @ 여름에는 뭐 물훼 먹엇을 거고?(여름에는 뭐 물회 먹었을 거고?)

107058 #2 저 아까 웨 갈앙 그거로 주로 먹엇주.(저 아까 외 갈아서 그거로 주로 먹었지.)

---

237) '사시미'는 일본어 'さしみ'로 '회'를 말한다.

238) '사락사락허다'는 물건의 겉이 매끄럽지 못하고 좀 거친 것을 나타낸 말이다.

107058 @ 먹고. 가을에는?(먹고. 가을에는?)

107058 #2 가을에 뭐 먹을 거 셔게. 그자 그거. 게나제나 국 ᄒᆞ나베낀 더 먹어.(가을에 뭐 먹을 거 있어. 그저 그거. 그러나저러나 국 하나밖에 더 먹어.)

107058 @ 하하하. 메역 날 때는 메역 먹어실 거고?(하하하. 미역 날 때는 미역 먹었을 거고?)

107058 #2 메역도 풀젠 경 잘 안 먹어.(미역도 팔려고 그렇게 잘 안 먹어.)

107058 @ 여긴 봄에 고사리 먹고 안 헷수과?(여긴 봄에 고사리 먹고 안 했습니까?)

107058 #2 고사리 꺼꺼당 고사리 보깡 먹어.(고사리 꺾어다가 고사리 볶아서 먹어.)

107058 @ 고사리 보깡 먹고.(고사리 볶아서 먹고.)

107058 #2 그 꿩마농도 헤당 먹고. 데왕 그거 뒌장에 찍엉 먹고.(그 달래도 해다가 먹고. 데워서 그거 된장에 찍어서 먹고.)

107058 @ 뒌장에 찍엉 먹고 경헷던 거.(된장에 찍어서 먹고 그랬던 거.)

107058 #2 으.(으.)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무슨 장 담가낫수과, 옛날에?(장은 무슨 장 담갔었습니까, 옛날에?)

107059 #2 옛날엔 콩 솖앙. 콩이 어려우난 보리, 보리 등게 ᄀᆞ루도 놓고 보리쏠도 놓고 그거 찌어. 저 거시기 불랑 놔뒀당 이제 돌아메영. 옛날은 돌아메지 안허영 막 뭣에 놔나서. 영 구덕에 사이사이 새 놩, 새 놩.(옛날엔 콩 삶아서. 콩이 어려우니까 보리, 보리 등겨 가루도 넣고 보리쌀도 넣고 그거 쪄. 저 거시기 발라서 놔뒀다가 이제 달아매서. 옛날은 달아매지 않고 마구 뭐에 놨었어. 이렇게 바구니에 사이사이 띠 놔서, 띠 놔서.)

107059 @ 그 장을 언제 담그는 것과?(그 장을 언제 담그는 겁니까?)

107059 #2 한 동지덜, 시월 말. 첨 십이월 말.(한 동짓달, 시월 말. 참 십이월 말.)

107059 @ 십이월 말에.(십이월 말에.)

107059 #2 으. 십이월 말 거의. 십이월, 동지덜에 거의 솖고 시월에도 솖고 시월 말이라도 솖고. 콩 솖앙 ᄒᆞᆫ 둘쯤 잇어야 ᄆᆞᆯ르주게. 겐 ᄒᆞᆫ 덜 잇엉 ᄆᆞᆯ르믄 이제 그거 담아.(으. 십이월 말 거의. 십이월, 동짓달에 거의 삶고 시월에도 삶고 시월 말이라도 삶고. 콩 삶아서 한 달쯤 있어야 마르지. 그래서 한 달 있어서 마르면 이제 그거 담아.)

107059 @ 게난 콩 솖는 거서부터 담는 것까지 ᄎᆞᄎᆞ 영 ᄀᆞᆯ아줍서. 시월에?(그러니까 콩 삶는 거에서부터 담그는 것까지 차차 이렇게 말해주세요. 시월에?)

107059 #2 게난 시월 말에서 동짓둘 ᄒᆞᆫ 보름 사이에 솖아. 경헤영 섣덜 보름에서 정월 나기 전이 제주돈 담아. 육지는 정월 넘엉 담는디 제준 정월 상달이엔 허멍 안 담아. 동지덜 말에서 섣덜. 그 장 담는 날도 봉 담주게.(그러니까 시월 말에서 동짓달 한 보름 사이에 삶아. 그래서 섣달 보름에서 정월 되기 전에 제주도는 담가. 육지는 정월 넘어서 담그는데 제주는 정월 상달이라고 하면서 안 담가. 동짓달 말에서 섣달. 그 장 담그는

날도 봐서 담그지.)

107059 @ 날 봉 담지예?(날 봐서 담그지요?)

107059 #2 으. 날 봐.(으. 날 봐.)

107059 @ 게민 무슨 날은 뒈고 무슨 날은 안 뒈는 거라?(그럼 무슨 날은 되고 무슨 날은 안 되는 거야?)

107059 #2 이녁 헤치 엇인 때.(자기 띠 없을 때.)

107059 @ 집이 식구덜 다?(집의 식구들 다?)

107059 #2 식구 다도 그 장 먹는 사름 식구 엇인 때도 기주만은 쉐날은 니치름[239] 흘친덴 안 담고.(식구 다 그 장 먹는 식구 없을 때도 그렇지만 소날은 침 흘린다고 안 담그고.)

107059 @ 으.(으.)

107059 #2 저 베염날 무신 날 안 담고. 쥐날도 안 담고. 저 무시거 토끼날 저 독날, 저 뭣고 묘날 그런 때 질 잘 담아. 토끼날, 독날이 제일 장. 솖는 것도 마찬가지. 담음도 마찬가지고 이녁 식구덜 엇인 때 담음도 경허고.(저 뱀날 무슨 날 안 담그고. 쥐날도 안 담그고. 저 무엇 토끼날 저 닭날, 저 뭐지 토끼날 그런 때 제일 잘 담가. 토끼날, 닭날이 제일 장. 삶는 것도 마찬가지. 담그기도 마찬가지고 자기 식구들 없을 때 담그기도 그렇고.)

107059 @ 담음도 경허고예.(담그기도 그렇고요.)

107059 #2 장도 저 소금 애껑 쫀물 질어당 듬아서.(장도 저 소금 아껴서 짠물 길어다가 담갔어.)

107059 @ 소금 애끼젠.(소금 아끼려고.)

107059 #2 츤물 질어다근에 소금 혼 얼마사 애껴신디사 몰른디 생각이.(짠물 길어다가 소금 한 얼마야 아꼈는지 모르는데 생각이.)

107062 @ 예. 우선은 메주 솖는 것부터 물어보쿠다예. 시월, 음력 시월에서.(예. 우선은 메주 삶는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시월, 음력 시월에서.)

107062 #2 시월 혼 십오일 후에 아무 때라도 날 보멍 솖주.(시월 한 십오일 후에 아무 때라도 날 보면서 삶지.)

107062 @ 삼춘은 얼마나 솖아낫수과?(삼촌은 얼마나 삶았었습니까?)

107062 #2 혼 닷 말, 웃 말 솖안. 혼 식구가 보통 혼 말 솖주게.(한 닷 말, 여섯 말 삶아서. 한 식구가 보통 한 말 삶지.)

107062 @ 혼 사람에 혼 말?(한 사람에 한 말?)

107062 #2 으. 경헌디 아기덜 어려도 그때 막 일 놉 빌엉 허는 따문 보통 닷 말, 웃 말 솖아.(으. 그런데 아기들 어려도 그때 아주 일 놉 빌려서 하는 때문에 보통 닷 말, 여섯 말 삶아.)

107062 @ 예, 닷 말, 웃 말 솖는 거라예. 게민 솟은?(예, 닷 말, 여섯 말 삶는 거지요. 그럼 솥은?)

---

239) '니치름'은 어린 아이나 소 등 입에서 질질 흘리는 침을 말한다.

107062 #2 큰솟게. 두어 솟도 솖고 서너 솟도 솖곡 허여. 게난 아침 혼 세 시 네 시 뭴 때, 저녁이 물 컹 놔뒀당 솖고 또 건져 뒁 또 솖고. 솟 두 개로.(큰솥. 두어 솥도 삶고 서너 솥도 삶고 해. 그러니까 아침 한 세 시 네 시 될 때, 저녁이 물 담가서 놔뒀다가 삶고 또 건져 두고 또 삶고. 솥 두 개로.)

107062 @ 솟 두 개로. 게난 멧 번씩 솖아야 뒈여.(솥 두 개로. 그러니까 몇 번씩 삶아야 돼.)

107062 #2 게난 혼 세 솟 솖을 때도 잇고 네 솟 솖을 때도 잇고. 보통 혼 말 익주게. 혼 말 더 익어 옛날 솟덜은. 큰솟덜은. 게난 큰솟 헐 땐 한 서너 솟 솖고 보통 세 솟, 네 솟 솖아.(그러니까 한 세 솥 삶을 때도 있고 네 솥 삶을 때도 있고. 보통 한 말 익지. 한 말 더 익어 옛날 솥들은. 큰솥들은. 그러니까 큰솥 할 땐 한 서너 솥 삶고 보통 세 솥, 네 솥 삶아.)

107062 @ 그 콩 솖젠 허민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그 콩 삶으려고 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07062 #2 오래 걸려. 혼 서너 시간 더 걸려. 물 컹 놔두민 흑꼼 빨르긴 헤도. 혼 서너네 시간 걸려.(오래 걸려. 한 서너 시간 더 걸려. 물 담가 놔두면 조금 빠르긴 해도. 한 서너네 시간 걸려.)

107062 @ 솖젠 허민 그 콩도 씻엉 그 솟더레 언주는 거?(삶으려고 하면 그 콩도 씻어서 그 솥에 얹는 거?)

107062 #2 어, 씻엉. 물 컷당 씻으멍 그레 놩.(어, 씻어서. 물 담갔다가 씻으면서 그리 놔서.)

107062 @ 물은 얼마나 놔?(물은 얼마나 넣어?)

107062 #2 아니, 물 커난 건 얼마 안 들어갈 건디 물 안 커난 건 하영 들어가. 또 솖음도 오래고. 경 솖앙 건져덩 옛날은 방에톡에도 뻣고 허당 중간에부턴 마다리에 담앙 발락발락 잘 불라서. 견디 옛날은 걸 몰랑 다 뻣앗어. 남방에.(아니, 물 담갔던 건 얼마 안 들어갈 건데 물 안 담갔던 건 많이 들어가. 또 삶기도 오래고. 그렇게 삶아서 건져두고 옛날은 방아확에도 빻고 하다가 중간부터는 마대에 담아서 바락바락 잘 밟았어. 그런데 옛날은 걸 몰라서 다 빻았어. 나무절구.)

107062 @ 아, 남방에에 놩 뻣은 거?(아, 나무절구에 넣어서 빻는 거?)

107062 #2 뻣안. 우리 어린 땐 주로 뻣당 우리 결혼헌 후에 마다리에 담앙. 그 옛날엔 마다리도 엇엇주게.(빻았어. 우리 어린 땐 주로 빻다가 우리 결혼한 후에 마대에 담아서. 그 옛날엔 자루도 없었지.)

107062 @ 엇엇지예.(없었지요.)

107062 #2 마다리 엇이난 기자 뻣은디 그 마다리 이젠, 이 보리 픈는 마다리 거에 바락바락 불르민 민 불라져.(마대 없으니까 그저 빻는데 그 마대 이젠, 이 보리 파는 마대 거에 바락바락 밟으면 모두 밟을 수 있어.)

107062 @ 으.(으.)

107062 #2 겐 그거 영 영 허영 뭣고 정지 구석에 새 놓멍 사이 사이. 새 사이 사이

놓멍 그거 튀왕. 이 돌아메는 건 ᄒᆞ꼼 말쩨라 가사 돌아메연.(그래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지 부엌 구석에 띠 놓으면서 사이 사이. 띠 사이 사이 놓으면서 그거 틔워서. 이 달아매는 건 조금 나중에 가야 달아매.)

107062 @ 아, 옛날엔 돌아메지 안 헷구나.(아, 옛날엔 달아매지 안 했구나.)

107062 #2 돌아메지 안허연 옛날엔. 우린 어린 땐 안 돌아멩 막 곰셍이 피곡 허는디 말쩨라 가난 찍에 혜영 돌아메민 곰셍이 덜 피여.(달아매지 않아 옛날에는. 우린 어린 때 안 달아매서 아주 곰팡이 피고 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짚에 해서 달아매면 곰팡이 덜 피어.)

107062 @ 게민 그거 ᄆᆞ리는 건 어디 놩 ᄆᆞ렷수과?(그럼 그거 말리는 건 어디 놔서 말렸습니까?)

107062 #2 그냥 정지 구석에서 ᄆᆞ리왕 또 이젠 ᄒᆞ꼼 지릿험젠[240] 허믄 이추룩 날 좋은 때 ᄆᆞ리왕 또 뭐 허고. 경허믄 너미 지릿헐 땐 ᄆᆞᆫ 베렝이 궤고 경헌디.(그냥 부엌 구석에서 말려서 또 이젠 조금 '지릿하다'고 하면 이처럼 날 좋은 때 말려서 또 뭐 하고. 그러면 너무 누질 땐 모두 벌레 괴고 그러는데.)

107062 @ 아니, 정짓 구석에서 그 메주 막 한 거를 다 ᄆᆞ려져?(아니, 부엌 구석에서 그 메주 아주 많은 거를 다 말릴 수 있어?)

107062 #2 으. 틔왕, 틔왕. 옛날은 창고덜도 엇고게. 집이 삼칸집 얼마나 집이 널러서게, 쪼그멧주. 이제가 창고도 크고 집도 컷주. 옛날엔 말도 못허게 좁아.(으. 틔워서, 틔워서. 옛날은 창고들도 없고. 집이 삼간집 얼마나 집이 넓어, 조그마했지. 이제가 창고도 크고 집도 컸지. 옛날엔 말도 못하게 좁아.)

107062 @ 예.(예.)

107062 #2 돌아멜 데도 졸바로 엇고 이제만이. 보통 삼간집. ᄉᆞ간집[241]은 워낙 잘 사는 사름덜.(달아맬 데도 제대로 없고 이제만큼. 보통 삼간집. 사간집은 워낙 잘 사는 사람들.)

107062 @ 게민 콩 솖앙 메주 만들앗수다예. 경헌 다음 틔우는 거?(그럼 콩 삶아서 메주 만들었지요. 그런 다음 틔우는 거?)

107062 #2 으, 틔와.(으, 틔워.)

107062 @ 경헨 틔완 곰펭이 편. 이젠 어떵 헐 거?(그렇게 틔워서 곰팡이 폈어. 이젠 어떻게 할 거?)

107061 #2 겐 씻어. 씻엉 이젠 장항더레 소금부터 ᄀᆞᆯ아. 소금부터 이제 영 뭐 구덕이나 옛날엔 대구덕에 놩 물 자락자락 비우민 작 소금이 녹주게. 경허민 ᄒᆞ루 ᄀᆞ라앚으믄 소금 막 펄 하. 펄 하믄 그 펄은 혜영. 이 항에 헷당 저 항더레 우이 건.(그래서 씻어. 씻어서 이젠 장항에 소금부터 갈아. 소금부터 이제 이렇게 뭐 바구니나 옛날엔 대바구니에 놔서 물 자락자락 비우면 작 소금이 녹지. 그러면 하루 가라앉으면 소금 아주 펄 많아. 펄 많으면 그 펄은 하얘. 이 항아리에 했다가 저 항아리에 위의 건.)

---

240) '지릿허다'는 습기를 먹어 축축한 기운이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로, 표준어의 '누지다'에 대응한다.
241) 'ᄉᆞ간집'은 네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107061 @ 펄이 뭐과?(펄이 뭡니까?)

107061 #2 소금에 펄 잇잖아. 저 흑게. 이제 ᄀᆞ트민.(소금에 펄 있잖아. 저 흙. 이제 같으면.)

107061 @ 흑?(흙?)

107061 #2 으, 소금밧디 거난 펄, 흑. 게난 그거 이제 이 항에 허믄 저 항더레 뚤랑. 오늘 허믄 뒷날 보믄 그 펄이 싹 ᄀᆞ라앚아 잇어. 찌끄레기덜.(으, 소금밭 거니까 펄, 흙.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 항아리에 하면 저 항아리에 따라서. 오늘 하면 뒷날 보면 그 펄이 싹 가라앉아 있어. 찌꺼기들.)

107061 @ 아직 메주 넣기 전에?(아직 메주 넣기 전에?)

107061 #2 으.(으.)

107061 @ 소금물 만드는 과정예?(소금물 만드는 과정요?)

107061 #2 으.(으.)

107061 @ 이 항에 헷당 그거 가라앚으민 비워?(이 항아리에 했다가 그거 가라앉으면 비워?)

107061 #2 저짝 항더레 거 놩 이짝 항더레.(저쪽 항아리에 거 넣어서 이쪽 항아리로.)

107061 @ 경헨, 경헨 이젠 다른 항에 물 비왓수다.(그래서, 그래서 이젠 다른 항아리에 물 비웠습니다.)

107061 #2 경헨 이제 메주 들이칠 거주.(그래서 이제 메주 들어뜨릴 거지.)

107061 @ 그 씻은 거예?(그 씻은 거요?)

107061 #2 으, 씻은 거 들이치믄 짜냐 싱거우냐 헌 건 보통 혼 허벅에 대승 석 뒈. 옛날은 다 뒈로 대영 놔서 소금을.(으, 씻은 거 들어뜨리면 짠지 싱거운지 하는 건 보통 한 동이에 큰되 석 되. 옛날은 다 되로 대어 놔서 소금을.)

107061 @ 으.(으.)

107061 #2 허벅[242] 저 물이 혼 다섯 허벅. 옛날 허벅으로 다섯 허벅. 옛날 다 질어다 놓지 안허여. 춘물이든 돈물이든. 경허믄 다섯 허벅 허믄 혼 허벅에 석 뒈씩 골민 딱 맞아.('허벅' 저 물이 한 다섯 '허벅'. 옛날 허벅으로 다섯 '허벅'. 옛날 다 길어다 놓지 않아. 짠물이든 단물이든. 그러면 다섯 '허벅' 하면 한 '허벅'에 석 되씩 갈면 딱 맞아.)

107061 @ 음.(음.)

107061 #2 계란도 영 틔와 보주만은 계란 틔우는 거보단 딱 혼 허벅에 석 뒈.(계란도 이렇게 틔워 보지만 계란 틔우는 거보다 딱 한 '허벅'에 석 되.)

107061 @ 석 뒈.(석 되.)

107061 #2 경헤영 장 담는 거주게.(그렇게 장 담그는 거지.)

107061 @ 경허민 거기에 메주 덩어리는 몇 개나 들어갑니까? ᄀᆞ득허게?(그러면 거기에 메주 덩어리는 몇 개나 들어갑니까? 가득하게?)

107061 #2 건 세여 보지 안허고 이제 영 헐 만썩 짐작허영. 보통 게난 우리 혼 혼

242)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섬씩 큰 항 두 개 담아서. 육지 항 큰 걸로 두 개. 이제 거트믄 멧 년을 먹주, 그거. 게나마나 장베낀 안 허난게.(건 세어 보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할 만큼씩 짐작해서. 보통 그러니까 우리 한 한 섬씩 큰 항아리 두 개 담아서. 육지 항아리 큰 걸로 두 개. 이제 같으면 몇 년을 먹지, 그거. 그러나저러나 장밖에 안 하니까.)

107061 @ 예.(예.)

107061 #2 장 허고 장물베낀 안 허난. 그게 일 년 내낭 그게 반찬이난.(장 하고 간장밖에 안 하니까. 그게 일 년 내내 그게 반찬이니까.)

107061 @ 아. 경헨 그거 이제 어떵헙니까, 담으민? 두껑 닫아?(아.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떡합니까, 담그면? 뚜껑 닫아?)

107061 #2 두껑 안 닫아 옛날은. 비 올 때만 닫아. 게난 옛날은 비 오민 더껑 뒁. 이제는 더끄는 두껑 잇지 안허여.(뚜껑 안 닫아 옛날은. 비 올 때만 닫아. 그러니까 옛날은 비 오면 덮어 두고. 이제는 덮는 뚜껑 있지 않아?)

107061 @ 예, 예.(예, 예.)

107061 #2 겐디 옛날은 그게 엇어노난. 더끄민 곰펭이 피영 안 뒈여. 곰펭이 피영 안 뒈난 올앗당 비 왐젠 허민 돌아왕, 장항 더끄레 돌아왕 더끄주게. 경 안 허민 곰펭이 피영게.(그런데 옛날은 그게 없으니까. 덮으면 곰팡이 피어서 안 돼. 곰팡이 피어서 안 되니까 열었다가 비 온다고 하면 돌아와서, 장항 덮으러 돌아와서 덮지. 그렇게 않으면 곰팡이 피어서.)

107061 @ 음.(음.)

107061 #2 이젠, 이젠 막 좋아. 더껑 내부는 두껑이 잇어 이젠. 그디 옛날은 뭣고 항 두껑 더끄믄 첨 저 장테[243] 더끄믄 안 뒈주게. 곰펭이 평.(이젠, 이젠 아주 좋아. 덮어서 내버리는 뚜껑이 있어 이젠. 거기 옛날은 뭐지 항아리 뚜껑 덮으면 참 저 '장테' 덮으면 안 되지. 곰팡이 펴서.)

107061 @ 경허민 담강 얼마나 이십니까, 이제?(그러면 담가서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107061 #2 혼 석덜 반. 보통. 갈를 때가 석덜 반, 석덜 경허여. 경 안 허민 장물 벌경 안허여.(한 석달 반. 보통. 가를 때가 석달 반, 석달 그래. 그렇게 안 하면 간장 벌겋지 않아.)

107061 @ 게민 석 덜 잇이민 먹어짐직허다 허는 건 영 찍엉 먹어 봥 아는 거?(그럼 석 달 있으면 먹을 수 있음직하다 하는 건 이렇게 찍어서 먹어 봐서 아는 거?)

107061 #2 색깔도 벌경허여. 보통 석 덜 뒈 가믄 장물이 벌경허여. 경허민 메주만 꺼내 뒁 찌끄레기 영 체로 바쳥 장물은 장물만 혼 항, 뒌장은 뒌장만 혼 항이민 혼 항, 두 항이민 두 항 허주.(색깔도 벌게. 보통 석 달 돼 가면 간장이 벌게. 그러면 메주만 꺼내 두고 찌꺼기 이렇게 체로 받혀서 간장은 간장만 한 항아리, 된장은 된장만 한 항아리면 한 항아리, 두 항아리면 두 항아리 하지.)

107061 @ 이제 거기 잇엇던 거 메주만 건져 내는 거?(이제 거기 있었던 거 메주만

243)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만든 질그릇을 말한다.

건져 내는 거?)

107061 #2 건져 내영 소금 놩 찌어.(건져 내서 소금 넣어서 찌어.)

107061 @ 다시?(다시?)

107061 #2 또 소금 놩 찌어.(또 소금 놔서 찌어.)

107061 @ 아, 소금 또 놉니까?(아, 소금 또 넣습니까?)

107061 #2 또 놩 찌어. 버렝이 일카부덴.(또 넣어서 찌어. 벌레 일까 봐.)

107061 @ 아. 게민 거기는 소금 얼마나 놔?(아. 그럼 거기는 소금 얼마나 넣어?)

107061 #2 한 보통 댓 말 헌디 소금 흔 줌팍쯤 놤주. 흔 줌팍 더 놔.(한 보통 댓 말 했는데 소금 한 줌쯤 넣지. 한 줌 더 넣어.)

107061 @ 게난 막 하영은 아니다예?(그러니까 아주 많이는 아니네요?)

107061 #2 음. 경 놔. 경 놓지 안허믄 막 버렝이 궨덴 허멍. 경헨 영 우이도 또 소금 더끄곡.(음. 그렇게 넣어. 그렇게 넣지 않으면 아주 벌레 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위에도 또 소금 덮고.)

107061 @ 맨 우에.(맨 위에.)

107061 #2 맨 우에 소금 더껑 이제 보따리 차메고.(맨 위에 소금 덮고 이제 보따리 홀쳐매고.)

107061 @ 그민 그것만 건져 내민 간장은 간장대로 놔두는 거라? 다른 데 걸러내는 거?(그럼 그것만 건져 내면 간장은 간장대로 놔두는 거야? 다른 데 걸러 내는 거?)

107061 #2 걸러 내영게 체로 바쳥 또 뚜른 데 걸려 내영. 솖으는 사름도 잇어도 우린 안 솖아 봔. 솖으민 맛엇넨 허영.(걸러 내서 체로 받혀서 또 다른 데 걸러 내서. 삶는 사람도 있어도 우린 안 삶아 봤어. 삶으면 맛없다고 해.)

107061 @ 아, 간장을 다시?(아, 간장을 다시?)

107061 #2 끓여. 끓이믄 곰펭이 안 펴. 경허고 지픈 맛도 내고 허는디 우린 끓여 보지 안허연. 끓이는 사름덜 잇어.(끓여. 끓이면 곰팡이 안 펴. 그러면 깊은 맛도 내고 하는데 우린 끓여 보지 않아. 끓이는 사람들 있어.)

107061 @ 끓이는 사름덜 잇어예.(끓이는 사람들 있지요.)

107061 #2 게믄 싱거우믄 이제 장 고리엇저, 무신 군내 낫저. 거 그 집 아이 뒈젠 허난 장 고렷저. 하하.(그럼 싱거우면 이제 장 곯았어, 무슨 군내 났어. 거 그 집 안 되려고 하니까 장 곯았어. 하하.)

107061 @ 장 안 뒈민.(장 안 되면.)

107061 #2 그 집이 궂인 일 나젠 장 고렷저 허멍. 겐디 그게 아니 싱거우난. 싱거우민 진짜 고려. 장이 싱겁지 안허민 고릴 리가 엇주게.(그 집에 궂은 일 나려고 장 곯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게 안 싱거우니까. 싱거우면 진짜 곯아. 장이 싱겁지 않으면 곯을 리가 없지.)

107061 @ 맞지, 그지예.(맞지, 그렇죠.)

107061 #2 옛 사름 말이 그거주.(옛 사람 말이 그거지.)

107061 @ 게난 석 달 지나민 먹어지는 거난 봄 나민 먹는 거라예?(그러니까 석 달

지나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봄 되면 먹는 거지요?)

107061 #2 막 엇인 집이 식구 한 집이덜이 스못 새 장 드러 먹고게. 벌거롱만 헤도 먹고. 뒛당 먹는 집은 묵은 장 먹주게. 게난 묵은 장, 새 장 옛날은.(아주 없는 집에 식구 많은 집들은 사뭇 새 장 많이 먹고. 벌겋기만 해도 먹고. 뒀다가 먹는 집은 묵은 장 먹지. 그러니까 묵은 장, 새 장 옛날은.)

107061 @ 장 만들 때 웨 장 고리는 일 잇고 장 망치는 일 잇이난?(장 만들 때 왜 장 곯는 일 있고 장 망치는 일 있으니까?)

107061 #2 게메 게난 그 소금이 두루 논 거라.(글쎄 그러니까 그 소금이 덜 넣은 거야.)

107061 @ 게난, 게난 옛날에는 그거 소금 덜 논 거렌 생각 안 하잖아예.(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소금 덜 넣은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107061 #2 게난 나 아까 안 골아냐, 그 집이 궂인 일 당허젠.(그러니까 내가 아까 안 말했니, 그 집에 궂은 일 당하려고.)

107063 @ 게난 장, 메주 숢을 때나 장 담글 때 금기헤야 뒈는 일이 잇지 안허과?(그러니까 장, 메주 삶을 때나 장 담글 때 금기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107063 #2 비리[244], 비리지 안허영게.('비리', '비리지 않아.)

107063 @ 몸 비리지 안허영?(몸 '비리지' 않아?)

107063 #2 이제 멘스, 멘스 안 오고 영장밧디 안 보고게. 영장밧디 안 가고. 피 ᄒᆞ꼼 나도 안 허고.(이제 생리, 생리 안 오고 장지 안 보고. 장지 안 가고. 피 조금 나도 안 하고.)

107063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63 #2 피 나믄 이제 비련 그 메주 버렝이 궨덴게. 버렝이 궤여. 첫째 멘스 오믄 안 허여.(피 나면 이젠 '비려서' 그 메주 벌레 꾄다고. 벌레 꾀어. 첫째 생리 오면 안 해.)

107063 @ 안 헤?(안 해?)

107063 #2 거 버렝이 궤여. 버렝이 궨덴 허멍. 아이, 경헌 디 버렝이 잘 궤여. 메주에서 좀이 잘 일어, 어떵 허멍. ᄒᆞ꼼 지릿허민[245] 버렝이 궨 거 닮아.(거 벌레 꾀어. 벌레 꾄다고 하면서. 아이, 그런 데 벌레 잘 꾀어. 메주에서 좀이 잘 일어, 어떻게 하면서 조금 누지면 벌레 꾄 거 같아.)

107063 @ 아.(아.)

107063 #2 게난 영 돌아멘 걸 보믄 일절 버렝이 안 궤는디 옛날 아래 틀 때 버렝이 잘 궤여서. 게난 지릇허면서 버렝이 궤는 거라.(그러니까 이렇게 달아맨 걸 보면 일절 벌레 안 꾀는데 옛날 아래 틀 때 벌레 잘 꾀었어. 그러니까 누지면서 벌레 꾀는 거야.)

107063 @ 버렝이 궤 가난 우이 돌아메기덜 시작헷구나.(벌레 꾀어 가니까 위에 달아매기들 시작했구나.)

107063 #2 돌아메민 안 궤여.(달아매면 안 꾀어.)

---

244) '비리다'는 큰일을 앞두고 몸엣것을 하거나 꺼리어 피해야 할 송장이나 마소의 죽은 것 따위를 보고 몸이 부정하게 되다는 뜻이다.

245) '지릇허다'는 습기를 먹어 축축한 기운이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로, 표준어의 '누지다'에 대응한다.

107063 @ 안 궤여예?(안 꾀어요?)

107063 #2 으.(으.)

107063 @ 게민 삼춘도 돌아메난 거 아니예?(그럼 삼촌도 달아맸었던 거 아니요?)

107063 #2 쭉 돌아멧주.(쭉 달아맸지.)

107063 @ 이걸 어떵 헙니까? 돌아메젠 허민 준비를 헤야 뒐 게?(이걸 어떻게 합니까? 달아매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될 게?)

107063 #2 찍게.(짚.)

107063 @ 찍.(짚.)

107063 #2 찍 놘에 영 무껑 그자 혼 멧 가락으로 헹, 두 개 보통 두 개 담으민 뒈여, 찍 하나에. 보통 두 개 헤영 네 개 헹 돌아메여. 저기 돌아메난 거 잇어. 저 보일라실에.(짚 넣어서 이렇게 묶어서 그저 한 몇 가닥으로 해서, 두 개 보통 두 개 담으면 돼, 짚 하나에. 보통 두 개 해서 네 개 해서 달아매. 저기 달아맸던 거 있어. 저 보일러실에.)

107063 @ 메주 돌아멘 거 잇어마씨?(메주 달아맨 거 있어요?)

107063 #2 아니 돌아메여, 난 그, 보일라실에 저기 돌아메여.(안 달아매, 난 그, 보일러실에 저기 달아매.)

107063 @ 사진 찍엉 가젠 헤신디 아니구나.(사진 찍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107063 #2 겨울에베끼 메지 못 허주. 여름 땐 안 뒈여, 베렝이 궹. 메준 얼어사.(겨울에밖에 매지 못 하지. 여름 땐 안 돼, 벌레 꾀어. 메주는 추워야.)

107060 @ 예. 고추장은 여기 안 담아낫수과?(예. 고추장은 여기 안 담갔었습니까?)

107060 #2 무사 안 담아게. 고추장 담주.(왜 안 담가. 고추장 담그지.)

107060 @ 고추장은 어떵 담읍니까? 만드는 거?(고추장은 어떻게 담급니까? 만드는 거?)

107060 #2 우린 고추장 그 물엿, 물엿 사당 물엿 놓고 저 뭇고 메줏가룻 영 물엿 팔팔 끓고 그 메줏가루영 그거영 허터 놩 그다음 고칫가루 허껑. 뒌장에도 담는디, 그 고추장 담는 뒌장.(우린 고추장 그 물엿, 물엿 사다가 물엿 넣고 저 뭐지 메줏가루 이렇게 물엿 팔팔 끓고 그 메줏가루랑 그거랑 흩어 넣어서 그다음 고춧가루 흩어서. 된장에도 담는데, 그 고추장 담는 된장.)

107060 @ 메줏가루가 뭐?(메줏가루가 뭐?)

107060 #2 메주 그 아까 허는 장 담는 메줏가루.(메주 그 아까 하는 장 담그는 메줏가루.)

107060 @ 예.(예.)

107060 #2 그 거에 밀 꿰운 거에, 저 장에 풀아. 그거 헤당 물엿 팔팔 끓여. 그 물엿을 이제 물러레 놩 끓이믄 그 메줏가루로 아까 그 장 담는 ᄀᆞ루 삭 ᄀᆞᆫ 것이 잇주게.(그거에 밀 끓인 거에, 저 장에 팔아. 그거 해다가 물엿 팔팔 끓여. 그 물엿을 이제 물에 넣어서 끓이면 그 메줏가루로 아까 그 장 담그는 가루 삭 간 것이 있지.)

107060 @ 장 담는 ᄀᆞ루를 따로 ᄀᆞᆯ앙 놔둡니까?(장 담그는 가루를 따로 갈아 놔둡니

까?)

107060 #2 ᄀᆞᆯ앙 놔둬. 이 시장에 풀아.(갈아서 놔둬. 이 시장에 팔아.)

107060 @ 아니 옛날에는?(아니 옛날에는?)

107060 #2 옛날에는 그냥 뭣 허영, 밥 허영, 찰밥이나 쌀밥이나 허영 헷주게. 이, 이젠 다 메줏가루 틔왕 팔아. 이젠 우리 먹을 일이, 고추장 먹어지지 안허난 안 담아. 그 전인 우리 고추장 쭉 담안. 담안 먹언. 경헌디 이제는 고추장 막 먹질 안 허여. 나이도 들고 일도 엇고.(옛날에는 그냥 뭐 해서, 밥 해서, 찰밥이니 쌀밥이나 해서 했지. 이, 이젠 다 메줏가루 틔워서 팔아. 이젠 우리 먹을 일이, 고추장 먹지 않으니까 안 담아. 그 전엔 우리 고추장 쭉 담갔어. 담가서 먹었어. 그런데 이제는 고추장 많이 먹질 않아. 나이도 들고 일도 없고.)

107060 @ 예, 일도 엇고예.(예, 일도 없고요.)

107060 #2 일도 엇고. 전이 일 하영 헐 땐 고추장 두어 근, 서너 근씩 담아도 흔 해에 다 먹어. 그 냉국도 허곡 헌디 이젠 고추장 저 우리 집이 살아난 아시가 이신디, 우리 ᄃᆞᆯ아당 사는 그 아시가 보낸 거 흔 삼 년 동안 먹엄서, 이거. 그거 지금도 쪼금 이신디 오래난 검언게. 게난 우리 담앙 먹어난게. 게난 저 메주 띄운 거, 나 메누리네도 경허연 담아줜.(일도 없고. 전엔 일 많이 할 땐 고추장 두어 근, 서너 근씩 담가도 한 해에 다 먹어. 그 냉국도 하고 하는데 이젠 고추장 저 우리 집에 살았던 아우가 있는데, 우리 데려다가 사는 그 아우가 보낸 거 한 삼 년 동안 먹고 있어, 이거. 그거 지금도 조금 있는데 오래니까 검어. 그러니까 우리 담가서 먹었었어. 그러니까 저 메주 띄운 거, 나 며느리들도 그래서 담가줬어.)

107060 @ 음.(음.)

107060 #2 메주 띄운 거 사단 큰메누리허고 셋메누리 영 헨 담앙 먹으라 상 먹젠 허믄 비싸고. 두 근 반씩 ᄀᆞᆯ안 허난 아이고 실피 먹고 오래 먹어졈수다. 맛잇고 허난. 게난 이젠 지네냥으로 헴신고라.(메주 띄운 거 사다가 큰며느리하고 둘째며느리 이렇게 해서 담가서 먹어라 사서 먹으려고 하면 비싸고. 두 근 반씩 갈아서 하니까 아이고 실컷 먹고 오래 먹을 수 있어. 맛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젠 자기대로 하고 있는지.)

107060 @ 게난 고추장을 오래 전서부터 담앗수과?(그러니까 고추장을 오래 전에서부터 담갔습니까?)

107060 #2 으, 우린 쭉 담앙 먹언. 우린 저 육지 갈 때 서울서 고칫가루를 갈아 완. 경헤영 담앗주게.(으, 우린 쭉 담가서 먹었어. 우린 저 육지 갈 때 서울에서 고춧가루를 갈아왔어. 그래서 담갔었지.)

107060 @ 예.(예.)

107060 #2 경허영 이딧 사름덜 고추장 잘 안 담아서.(그래서 여기 사람들 고추장 잘 안 담갔어.)

107060 @ 기지예, 제주도 사름덜.(그렇죠, 제주도 사람들.)

107060 #2 제주도 사름덜 고추장 안 담아. 우린 육지 갈 때 서울에서 고칫ᄀᆞ루 쌋주게. 이젠 제주도도 싼디 옛날은 육지가 싸. 경헨 그거 헹 왕. 일허젠 허믄 고추장 담아

사.(제주도 사람들 고추장 안 담가. 우린 육지 갈 때 서울에서 고춧가루 쌌지. 이젠 제주도도 싼데 옛날은 육지가 싸. 그래서 그거 해서 와서. 일하려고 하면 고추장 담가야.)

107060 @ 일헌다는 게 뭐? 놉 빌엉 일허젠 허난?(일한다는 게 뭐? 놉 빌려서 일하려고 하니까?)

107060 #2 놉 빌엉 일허젠 허난.(놉 빌려서 일하려고 하니까.)

107060 @ 삼춘네 무슨 일을 헤난?(삼촌네 무슨 일을 했었어?)

107060 #2 뭐 갈앙 장서헤젠 허난 막 놉을 하영 썻주게.(뭐 갈아서 장사하려고 하니까 아주 놉을 많이 썼지.)

107060 @ 뭐 갈앙?(뭐 갈아서?)

107060 #2 마농, 뭐 양배추 다 허연.(마늘, 뭐 양배추 다 했어.)

107060 @ 아, 완전 상인질 헤낫구나.(아, 완전 상인질 했었구나.)

107060 #2 으. 경허난 그거 인부덜 어떤 때 십 명 이십 명 빌믄 이제는 다 식당 밥 먹어도 옛날 다 헹 먹엿주게, 게난.(으. 그러니까 그거 인부들 어떤 때 십 명 이십 명 빌리면 이제는 다 식당 밥 먹어도 옛날 다 해서 먹였지, 그러니까.)

107060 @ 헹 먹엿지예? 삼춘대로 다 음식덜 허멍 그 인부덜 먹인 거라예?(해서 먹였지요? 삼촌대로 다 음식들 하면서 그 인부들 먹인 거지요?)

107060 #2 으. 아이고, 국허고 밥이라. 경헤도 경 헨 먹엿주. 게난 고추장 많이 담아서, 우린.(으. 아이고, 국하고 밥이야. 그래도 그렇게 해서 먹였지. 그러니까 고추장 많이 담갔어, 우린.)

107060 @ 인부 빌령 그 만약 그 작업도, 영 싱그는 작업도 허고?(인부 빌려서 그 만약 그 작업도, 이렇게 심는 작업도 하고?)

107060 #2 우린 그런 건 아니고. 놈의 거 산.(우린 그런 건 아니고. 남의 거 사서.)

107060 @ 놈의 거 상 헐 때도 인부가 필요헙니까?(남의 거 사서 할 때도 인부가 필요합니까?)

107060 #2 아니게, 그거 사면은 그거 캐젠게.(아니, 그거 사면 그거 캐려고.)

107060 @ 아, 수확헐 때?(아, 수확할 때?)

107060 #2 으.(으.)

107060 @ 다 자란 거 상 그거 캘 때 놉 빌어 가지고 헷엇던 거?(다 자란 거 사서 그거 캘 때 놉 빌려 가지고 했었던 거?)

107060 #2 으. 마농도 패마농도 상 이제 그거 뽑앙 이제 다듬앙 풀아야 뒈지. 저 쪽파도 사민 이제는 까는디 옛날엔 까진 안헤서. 그거 뽑젠 허민 다 뽑앙 이만씩 무꺼야지. 마다리 푸대, 찍으로 무꺼 옛날은.(으. 마늘도 파도 사서 그거 뽑아서 이제 다듬어서 팔아야 되지. 저 쪽파도 사면 이제는 까는데 옛날엔 까진 않았어. 그거 뽑으려고 하면 다 뽑아서 이만큼씩 묶어야지. 마대 부대, 짚으로 묶어 옛날은.)

107060 @ 으.(으.)

107060 #2 찍으로 무껑 허지. 마늘도 무껑 찍으로 무껑 헹 마다리 담앙 부산 서울 보냇주게. 게난 우리 고추장은 하영 담앙 먹언.(짚으로 묶어서 하지. 마늘도 묶어서 짚

으로 묶어서 해서 마대 담아서 부산 서울 보냈지. 그러니까 우리 고추장은 많이 담가서 먹었어.)

떡류

107064 @ 게난예. 그런 거 때문에. 저기 이제 떡 허는 거 물어보쿠다예, 떡 허는 거예. 식게 멩질도 헤난 거 아니?(그러니까요. 그런 거 때문에. 저기 이제 떡 하는 거 물어보겠어요, 떡 하는 거요. 제사 명질도 했던 거 아니?)

107064 #2 으. 그땐 친떡 허고 기주떡 허곡게. 여름에 기주떡.(으. 그땐 시루떡 하고 증편 하고. 여름에 증편.)

107064 @ 떡 종류가 뭐 잇어? 친떡, 기주떡 또?(떡 종류가 뭐 있어? 시루떡, 증편 또?)

107064 #2 세미떡[246].('세미떡'.)

107064 @ 세미떡.('세미떡'.)

107064 #2 인절미.(인절미.)

107064 @ 인절미.(인절미.)

107064 #2 곤떡.(흰떡.)

107064 @ 곤떡.(흰떡.)

107064 #2 송펜.(송편.)

107064 @ 송펜. 막 옛날에도 송펜이렌 골아난, 여기?(송편. 아주 옛날에도 송편이라고 말했었어, 여기?)

107064 #2 막 옛날엔 송펜 잘 안 헨, 옛날은. 보통 세미떡 허고 곤떡 허여.(아주 옛날엔 송편 잘 안 했어, 옛날은. 보통 '세미떡' 하고 '흰떡' 해.)

107064 @ 아, 세미떡 허고 곤떡.(아, '세미떡' 하고 '흰떡'.)

107064 #2 겨울엔 그것게. 이제 으름엔 침떡 허고 기증펜. 저, 저 침떡이 아니고 기증펜 허고 저 뭣고 기주떡.(겨울엔 그것. 이제 여름엔 시루떡 하고 증편. 저, 저 시루떡이 아니고 증편 하고 저 뭐지 증편.))

107064 @ 으.(으.)

107064 #2 기주떡은 니귀반득헌 건 인절민. 반착 끈은 건, 동글락허게 헨 반착 끈은 건 세미. 경헷주.(증편은 네모반듯한 건 인절미는. 반쪽 끊은 건, 동그랗게 해서 반쪽 끊은 건 '세미'. 그랬지.)

107064 @ 이제 떡 만드는 거 하나 하나씩 물어보쿠다예. 침떡은, 침떡이렌 헷수과, 친떡이렌 헷수과?(이제 떡 만드는 거 하나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시루떡은, '침떡'이라고 했습니까, '친떡'이라고 했습니까?)

107065 #2 침떡.('침떡'.)

246) '세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만들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세미'라고도 한다.

107065 @ 침떡예. 침떡도 여러 종류가 잇잖아예?(‘침떡’요. 시루떡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107065 #2 게, 좁썰 침떡도 잇고게. 그 밀ᄀᆞ루 허영 거 뭣고, 학 곧젠 허난 저 뭐 감제도 놓고 무우도 놩 그런 침떡도 잇고.(그래, 좁쌀 시루떡도 있고. 그 밀가루 해서 거 뭐지, 확 말하려고 하니까 저 뭐 고구마도 넣고 무도 넣어서 그런 시루떡도 있고.)

107065 @ 어, 또? 곤침떡도 잇고?(어, 또? 흰시루떡도 있고?)

107065 #2 곤침떡은 지펜, 제펜[247].(흰시루떡은 ‘지펜’, ‘제펜’.)

107065 @ 제펜.(‘제펜’.)

107065 #2 제펜. 또 좁썰 반착 곤썰 반착 헌 건 반제펜[248].(‘제펜’. 또 좁쌀 반쪽 흰쌀 반쪽 한 건 ‘반제펜’.)

107065 @ 반제펜.(‘반제펜’.)

107065 #2 으, 반제펜.(으, ‘반제펜’.)

107065 @ 게민 그런 거?(그럼 그런 거?)

107065 #2 반제펜은 사돈이나 주고. 사돈덜 이제 영 온 때 영장이고 뭐고 사둔신딘 반제펜 끈어 놩 주고. 또 제사 때 옛날엔 사돈칩이도 다 줘서. 메누리 우리가 허여 오믄 메누리 어멍네 집이 그 떡 네 빈[249] 놩 보낼 때 반제펜 하나, 제펜 하나 침떡 두 개, 적갈 경 놩 보내여.(‘반제펜’는 사돈이나 주고. 사돈들 이제 이렇게 올 때 초상이고 뭐고 사돈에게 ‘반제펜’ 끊어 놔서 주고. 또 제사 때 옛날엔 사돈집에도 다 줬어. 며느리 우리가 해 오면 며느리 어머니네 집에 그 떡 네 ‘빈’ 넣어서 보낼 때 ‘반제펜’ 하나, ‘제펜’ 하나 시루떡 두 개, 적 그렇게 넣어서 보내.)

107065 @ 그럼 그걸로 만든 거는 침떡이렌 안 헤?(그럼 그걸로 만든 거는 ‘침떡’이라고 안 해?)

107065 #2 뭐?(뭐?)

107065 @ 침떡이렌 곧는 건 오로지 조로 만든 것만 침떡이렌 헤마씨? 조로 만든 것만 침떡이렌 헙니까?(‘침떡’이라고 말하는 건 오로지 조로 만든 것만 ‘침떡’이라고 해요? 조로 만든 것만 ‘침떡’이라고 해요?)

107065 #2 으. 치난 침떡.(으. 찌니까 ‘침떡’.)

107065 @ 치난 침떡. 모양은 ᄀᆞ튼디 재료가 조로 만드난 침떡이렌 허고 저기 쏠로 만든 건?(찌니까 ‘침떡’. 모양은 같은데 재료가 조로 만드니까 시루떡이라고 하고 저기 쌀로 만든 건?)

107065 #2 건 제펜.(건 ‘제펜’.)

107065 @ 아.(아.)

107065 #2 반착 헌 건 반제펜.(반쪽 한 건 ‘반제펜’.)

107065 @ 반제펜이렌 헐 거라예. 게민 이제 침떡을, 조침떡부터 한 번 만들어 보게.

---

247) ‘제펜’은 제사 등의 제를 지낼 때 쓰는 떡으로, 주로 쌀가루로 하얗게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248) ‘반제펜’은 제를 지낼 때 쓰는 시루떡을 만드는데 한 쪽은 쌀가루로, 한 쪽은 좁쌀가루 등을 넣어 만든 것을 말한다.

249) ‘빈’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침떡부터 만들어 보게. 침떡 만들젠 허민 어떵 헙니까? 이제 ᄀᆞ루를?('반제퓐'라고 할 거지요. 그럼 이제 시루떡을, 조시루떡부터 한 번 만들어 보자. 시루떡부터 만들어 보자. 시루떡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루를?)

107065 #2 ᄀᆞ루를 이제 옛날은 소상 때엔 물방에에 ᄲᆞᆺ고.(가루를 이제 옛날은 소상 때엔 연자매에 빻고.)

107065 @ ᄀᆞ루 하영 헐 거난.(가루 많이 할 거니까.)

107065 #2 제사 때엔, 경헨 사름덜이 왕 다 쳐 줘. 저 제사 때엔 남방에에 ᄲᆞᆺ아. 남방에에 ᄲᆞᆺ아당 이제 감저, 감저 막 하영 놩. 저 쏠 부뜨나 마나 허영 이제 흔 줌 타 놩 펜펜허게 허영 풋쉬나 저 콩, 콩 ᄀᆞ루나 이제 녹뒤 솖은 거나 헤영 영 놩 또 흔 줌 탕 놩 허영 그 시리에 경헨 장작불 솜앙 허믄. 이제 보난 불을 두루 솜앙 서는디 옛날은 흔 착이 자꾸 설어.(제사 때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 쪄 줘. 저 제사 때엔 나무절구에 빻아. 나무절구에 빻아다가 이제 고구마, 고구마 아주 많이 넣어서. 저 쌀 붙으나 마나 해서 이제 한 줌 타 넣어서 편편하게 해서 팥소나 저 콩, 콩 가루나 이제 녹두 삶은 거나 해서 이렇게 놔서 또 한 줌 타서 넣고 해서 그 시루에 그런 장작불 때서 하면. 이제 보니까 불이 덜 때서 서는데 옛날은 한 쪽이 자꾸 설어.)

107065 @ 하하.(하하.)

107065 #2 경허믄 여자덜 일로 정지로 못 뎅기게 헤서.(그러면 여자들 이리로 부엌으로 못 다니게 했어.)

107065 @ 침떡 설카부덴?(시루떡 설까 봐?)

107065 #2 선덴.(선다고.)

107065 @ 예, 예.(예, 예.)

107065 #2 겨고 문 딱 더껑. 겨난 원인이 불을 딱, ᄇᆞ름은 옛날 세고 허믄 게믄 이짝 안 익고 이짝 익고 허는 거라.(그리고 문 딱 덮어. 그러니까 원인이 불을 딱, 바람은 옛날 세고 하면 그러면 이쪽 안 익고 이쪽 익고 하는 거야.)

107065 @ 음.(음.)

107065 #2 게난 원인은 장작불을 졸바로 안 가면 그 원인이라. 게난 우리가 딱 가스 불에 헹 보믄 그런 때가 엇어. 그다음엔. 게난 원인이 그거라.(그러니까 원인은 장작불을 제대로 안 가면 그 원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가스 불에 해서 보면 그런 때가 없어. 그다음엔. 그러니까 원인이 그거야.)

107065 @ 장작불이 다 골고루 안 가는 거라예?(장작불이 다 골고루 안 가는 거지요?)

107065 #2 골고루 안 가니까 게난 이짝에 ᄇᆞ름 발른 짝엔 푸는체 세움도 허고 물 질어 와도 이제 그레 들어오지 못허여. 여자덜 들어오믄 떡 선덴. 아기덜도 못 들어와. 정짓문 딱 중강.(골고루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바람 부는 쪽엔 키 세우기도 하고 물 길어 와도 이제 그리 들어오지 못해. 여자들 들어오면 떡 선다고. 아기들도 못 들어와. 부엌문 딱 잠가서.)

107065 @ 아고, 여름에 식게헤 먹젠 허민 힘들쿠다예?(아고, 여름에 제사해서 먹으

려고 하면 힘들겠네요?)

107065 #2 딱 문 중가야 뒈여. 그거 들어.(딱 문 잠가야 돼. 그거 들어.)

107065 @ 아이고.(아이고.)

107065 #2 들어오민 이제 떡 선덴. 떡 선덴 허멍 헌디 그게 아니 원인이.(들어오면 이젠 떡 선다고. 떡 선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 원인이.)

107065 @ 아. 기민 웨 아까 침떡 만들 때 조를 남방에에 골앗잖아예. ᄀᆞ루 만들앙 막 체로 쳥 그 ᄀᆞ루를 바로 그 떡 시리에 놓는 거?(아. 그럼 왜 아까 시루떡 만들 때 조를 나무절구에 갈았잖아요. 가루 만들어서 마구 체로 쳐서 그 가루를 바로 그 떡 시루에 넣는 거?)

107065 #2 아니.(아니.)

107065 @ 어떵?(어떻게?)

107065 #2 그거 막 밀어야 뒈여.(그거 마구 밀어야 돼.)

107065 @ 예, 예.(예, 예.)

107065 #2 밀어야 질겨.(밀어야 질겨.)

107065 @ 예, 예. 뭐에? 물 놩 미는 거?(예, 예. 뭐에? 물 놔서 미는 거?)

107065 #2 물 놔. 물 ᄒᆞ꼼 놩 밀엉. 감저에 그 좁썰 떡만 안 허여 거의 감저, 고구마.(물 넣어. 물 조금 넣고 밀어서. 고구마에 그 좁쌀 떡만 안 해. 거의 고구마, 고구마.)

107065 @ 예.(예.)

107065 #2 고구마 썰어 놔. 이제는 겁죽 벳기주만은 옛날은 고구마 겁죽 안 벳견.(고구마 썰어서 넣어. 이제는 거죽 벗기지만 옛날은 고구마 거죽 안 벗겼어.)

107065 @ 감저예. 그냥 썰엉?(고구마요. 그냥 썰어서?)

107065 #2 썰엉. 그거 놔근에 이제 ᄀᆞ루 부뜸만 허게 헤영 헷주.(썰어서. 그거 놔서 이제 가루 붙기만 하게 해서 했지.)

107065 @ 막 민다는 거는 우리 ᄌᆞ베기 만들 때처럼 반죽허는 건 아니지예?(마구 민다는 거는 우리 수제비 만들 때처럼 반죽하는 건 아니지요?)

107065 #2 그추룩 ᄀᆞ루 밀어야 질겨, 질기주게.(그처럼 가루 밀어야 질겨, 질기지.)

107065 @ 그럼 그, 그 민 ᄌᆞ베기 반죽에 감저를 넣는 거?(그럼 그, 그 민 수제비 반죽에 고구마를 넣는 거?)

107065 #2 아니. 막 ᄌᆞ베기 반죽 거치 질진 안허고 그냥 ᄒᆞ꼼 보실보실헤도 약간 물 놩 막 밀어야 뒈여.(아니. 마구 수제비 반죽 같이 질지는 않고 그냥 조금 보실보실해도 약간 물 넣어서 마구 밀어야 돼.)

107065 @ 예.(예.)

107065 #2 저, 제펜도 막 밀어야 잘 뒈여. 이젠 기계에 막 돌리난 헌디 밀어야 잘 뒈여. 밀지 안허믄 안 뒈여.(저, '제펜'도 마구 밀어야 잘 돼. 이젠 기계에 마구 돌리니까 하는데 밀어야 잘 돼. 밀지 않으면 안 돼.)

107065 @ 경헹 이제 솟, 솟은 어떤?(그래서 이제 솥, 솥은 어떤?)

107065 #2 솟은 쉐솟게.(솥은 쇠솥.)

107065 @ 쉐솟. 거기 시루떡 치젠 허민 뭐 갖다 놀 거?(쇠솥. 거기 시루떡 찌려고 하면 뭐 갖다 놓을 거?)

107065 #2 시루떡 허영 그 시리에 허영 요 바우엔 ᄀᆞ루로 부쪄야주게. 떡광 시리 사이.(시루떡 해서 그 시루에 해서 요 가장자리엔 가루로 붙여야지. 떡과 시루 사이.)

107065 @ 으, 떡 ᄀᆞ루로 쭉 부쩡 짐 안 세게예?(으, 떡 가루로 쭉 붙여서 김 안 세게요?)

107065 #2 으. 겡 짐 나가민 대막뎅이로 꾹 허게 찔렁 이제 시릿구멍에 한 가운데, 옆이 거 다 찔러지민 글로 짐 솟아. 대막뎅이 이제 찔르는 게, 영 찔러 보젠 허믄.(으. 그래서 김 나가면 대막대기로 꾹 하게 찔러서 이제 시룻구멍에 한 가운데, 옆에 거 다 찔러지면 거기로 김 솟아. 대막대기로 이제 찌르는 게, 이렇게 찔러 보려고 하면.)

107065 @ 익어신가 안 익어신가 보는 거 아니?(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보는 거 아니?)

107065 #2 으. 경헨 영 나오믄 대막뎅이에 ᄀᆞ루가 부뜨민 설고 떡 찌어진 거 보믄 안 선 거 알 거 아니. 경허믄 이제 안 허믄 들러앚점저 무신거 가달 넴기멍 들어와 부난 헷저 허멍덜 막 헷주.(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대막대기에 가루가 붙으면 설고 떡 쪄진 거 보면 안 선 거 알 거 아니.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들러붙는다 뭐 다리 넘기면서 들어와 버리니까 했어 하면서들 마구 했지.)

107065 @ 아이고, 시루떡 찌멍 막 싸웟구나게.(아이고, 시루떡 찌면서 마구 싸웠구나.)

107065 #2 아이고, 잘도. 어떤 집인 잘 익는디 어떤 집인 경 허연게. 원 이제 잊어불지 안허여. 우리 사춘 시누이네 저 성굴왓[250] 사는디 헤도 헤도 경 떡이 설어. 겐 두드리멍 웨부치멍[251] 헌디 원인이 우리가 헤 보난 딱 불 골이 안 살믄 원인게.(아이고, 아주. 어떤 집은 잘 익는데 어떤 집은 그렇게 했어. 원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 사촌 시누이네 저 '성굴왓' 사는데 해도 해도 그렇게 떡이 설어. 그래서 두드리면서 '웨부치면서' 하는데 원인이 우리가 해 보니까 딱 불 골이 안 살면 원인이야.)

107065 @ 음.(음.)

107065 #2 나가 정험을 헤 보니까. 불이 아니 가믄 이짝은 안 익는 거 사실 아니게. 경헌디 할망덜 그게 아니라.(내가 경험을 해 보니까. 불이 안 가면 이쪽은 안 익는 거 사실 아니. 그런데 할머니들 그게 아니야.)

107065 @ 게민 조침떡은 경허는 거우다예. 게민 반 절펜 만들젠 허민 ᄀᆞ루 놀 때 어떵 놉니까?(그럼 조시루떡은 그러는 겁니다. 그럼 '반제펜' 만들려고 하면 가루 넣을 때 어떻게 넣습니까?)

107065 #2 게난 반, 혼 좀팍[252] 놀 거민 좁썰ᄀᆞ루 반 좀팍 놩 그다음 곤썰 ᄀᆞ루 반 좀팍 놩 그다음 쉬 놔.(그러니까 반, 한 '좀팍' 넣을 거면 좁쌀가루 반 '좀팍' 넣어서 그

250) '성굴왓'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지명의 하나다.
251) '웨부치다'는 떨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붙이는 것을 말한다.
252) '좀팍'은 '한 되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둥그스름한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뜰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좀박, 손박, 솔박'이라고도 한다.

다음 흰쌀 가루 반 '좀팍' 넣어서 그다음 쉬 넣어.)

107065 @ 경 반 펜펜허게 경 놔져?(그렇게 반 편편하게 그렇게 놓을 수 있어?)

107065 #2 아니 놩 손으로 싹 혼 번 씰어. 또 그다음 곤썰 놩 손으론 씰어근에 쉬 영 영. 경허민 뒈주.(아니 넣어서 손으로 싹 한 번 쓸어. 또 그다음 흰쌀 넣어서 손으로 쓸어서 고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되지.)

107065 @ 아. 그거 놓는 것도 기술이 잇어야?(아. 그거 놓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107065 #2 아니, 어떵 안허여 기자. 좀팍으로 거려 놩 영 허믄 다 뒈여.(아니, 어떻지 않아. 그저. '좀팍'으로 떠 넣어서 이렇게 하면 다 돼.)

107065 @ 아, 다 뒈여. 경헤연 반 젤펜 허는 거.(아, 다 돼. 그래서 '반제펜' 하는 거.)

107065 #2 게난 사돈칩이난 어디 보내젠 허믄 반제펜. 또 옛날은 그 소상 허젠 허믄 공정[253]이엔 헌 게 잇어. 그 공정 이제 고기 썬 사름, 이런 상제 옷 만든 사름 그 공정 주젠 허믄 반제펜은 들어가야 뒈.(그러니까 사돈집이니까 어디 보내려고 하면 '반제펜'. 또 옛날은 그 소상 하려고 하면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공정' 이제 고기 썬 사람, 이런 상제 옷 만든 사람 그 '공정' 주려고 하면 '반제펜'는 들어가야 돼.)

107065 @ 옛날에 고기 써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옛날에 고기 써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107065 #2 반제펜, 이제 청객. 이제 거트민 이레 앚읍서, 저레 앚읍서 허는 청객.('반제펜', 이제 청객. 이제 같으면 이리 앉으세요, 저리 앉으세요 하는 청객.)

107065 @ 청객? 그런 것도?(청객? 그런 것도?)

107065 #2 으, 청객. 이제도 이디 옵서, 이 방더레 갑서 안 헤여게.(으, 청객. 이제도 여기 오세요, 이 방으로 가세요 안 해.)

107065 @ 예, 예.(예, 예.)

107065 #2 그거 청객.(그거 청객.)

107065 @ 그 사름안테도.(그 사람한테도.)

107065 #2 공정을 줘야 뒈여.('공정'을 줘야 돼.)

107065 @ 공정을? 그 사름덜을 어떵 헙니까? 그 산 보고 일헌 사름덜은?('공정'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산 보고 일한 사람들은?)

107065 #2 그건 정시. 건 돈으로 줘.(그건 지관. 건 돈으로 줘.)

107065 @ 그거는 돈으로.(그거는 돈으로.)

107065 #2 건 돈으로.(건 돈으로.)

107066 @ 시루떡은 경헹 만들엇고, 아니 제펜은 경헨 만들엇고 송펜은 어떵 만듭니까?(시루떡은 그렇게 만들었고, 아니 '제펜'은 그렇게 만들었고 송편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66 #2 송펜은 쏠 그냥 남방에에 뻣앙게, 뻣앙 물 꿰왕 찌영.(송편은 쌀 그냥 나무절구에 빻아서, 빻아서 물 끓여서 쪄서.)

253) '공정'은 장사를 지낼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보내는 떡을 말한다.

107066 @ 음.(음.)

107066 #2 물 꿰왕 찌영 이젠 달롱 이젠. 송펜은 이제, 송펜은 이 중간에 낫주. 옛날엔 안 낫주게. 옛날엔 보통 송펜 안 헤영 곤떡, 동글랑 곤떡. 게고 반착 곤떡 경헨.(물 끓여서 쪄서 이젠 다뤄서 이젠. 송편은 이제, 송편은 이 중간에 났지. 옛날엔 안 났지. 옛날엔 보통 송편 안 해서 흰떡, 동그랗게 흰떡. 그리고 반쪽 흰떡 그렇게.)

107073 @ 곤떡은 영 본으로 찍어 내는 거 아니?(흰떡은 이렇게 본으로 찍어 내느 거 아니?)

107073 #2 으, 으. 저 뭣고 저 그라스[254], 그라스로 딱 찍으난. 옛날엔 주로 손으로 만들아 곤떡을.(으, 으. 저 뭐지 저 글라스, 글라스로 딱 찍으니까. 옛날엔 주로 손으로 만들어 흰떡을.)

107073 @ 아, 떡본으로 찍지 안허고.(아, 떡살로 찍지 않고.)

107073 #2 아니, 손으로 만들앗주.(아니, 손으로 만들었지.)

107073 @ 옛날에 떡본 같은 거 무늬 있는 거 있지 안헙니까?(옛날에 떡살 같은 거 무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7073 #2 거 육지에는 이신디 제주돈 잘 엇어. 아이 저 남군[255]도 잇어. 겐디 이 서쪽은 우리 쪽은 엇어. 거의 다 손으로 만들어.(거 육지에는 있는데 제주돈 잘 없어. 아니 저 남군도 있어. 그런데 서쪽은 우리 쪽은 없어. 거의 다 손으로 만들어.)

107073 @ 아, 손으로 만들어?(아, 손으로 만들어?)

107073 #2 어, 이제 다 밀엉 닥닥 찍는디 우린 다 손으로 곤떡. 우리 제서헐 때꺼장 거의 다 손으로 만들어. 손으로 주로 만들어. 겐 손으로 만든 게 질김도 허곡게 달롸정.(어, 이제 다 밀어서 닥닥 찍는데 우린 다 손으로 흰떡. 우리 제사할 때까지 거의 다 손으로 만들어. 손으로 주로 만들어.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게 질기기도 하고 다뤄져.)

107073 @ 달롸져예. 게민 송편은.(다뤄져요. 그럼 송편은.)

107073 #2 이제사 송편이 낫주, 옛날은 송편이.(이제야 송편이 났지, 옛날은 송편이.)

107073 @ 옛날에 송편, 송편을 곤떡이렌은 안 불러낫수과?(옛날에 송편, 송편을 흰떡이라고는 안 불렀었습니까?)

107073 #2 안 불러. 곤떡은 멘짝헌 거 곤떡이주게. 멘짝헌 거 곤떡, 영 멘짝헨 동글랑헌 거 곤떡. 또 그거 반착 허민 반세미.(안 불러. 흰떡은 평평한 거 흰떡이지. 평평한 거 흰떡, 이렇게 평평한 동그란 거 흰떡. 또 그거 반쪽 하면 '반세미'.)

107073 @ 음, 반세미예.(음, '반세미'요.)

107073 #2 쉬 담으민 세미. 그건 쉬 담아진 건 세미. 반착헌 거.(소 담으면 '세미'. 그건 소 담긴 건 '세미'. 반쪽인 거.)

107073 @ 예. 저기 ᄆᆞ물ᄏᆞ루로 헤 가지고 동글락허게 지졍 거기에 놈삐 썰엉.(예. 저기 메밀가루로 해 가지고 동그랗게 지져서 거기에 무 썰어서.)

107067 #2 건 빈[256], 빈.(건 빙떡, 빙떡.)

---

254) '그라스'는 유리컵인 '글라스(glass)'를 일본어식(グラス)으로 발음한 것이다.

255) '남군'은 남제주군'을 말한다. 남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 구역 명칭으로 2006년에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107067 @ 빙. 여긴 빈이렌 불러난예?(빙떡. 여긴 '빈'이라고 불렀어요?)

107067 #2 으.(으.)

107067 @ 빈은 어떵 만들앗수과, 만드는 거 ᄀᆞᆯ아 줍서.(빙떡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만드는 거 말해 주세요.)

107067 #2 빈은 기자 ᄆᆞ물 ᄀᆞᆯ아당 옛날, 이제는 계란 놓고 지름 놓고 다 헤도 옛날엔 경 안 헤연. 기자 ᄆᆞ물ᄏᆞ루만 칸 헷주. 옛날엔 ᄆᆞ물ᄏᆞ루 ᄒᆞ꼼 카고 밀카루 그레 쪼금 놩 캉 그자 저 ᄆᆞᆯ앙. 파가 옛날엔 벨로 파도 엇어서게.(빙떡은 그저 메밀 갈아다가 옛날, 이제는 계란 넣고 기름 넣고 다 해도 옛날엔 그렇게 안 해. 그저 메밀가루만 타서 했지. 옛날엔 메밀가루 조금 타고 밀가루 그리 조금 넣어서 타서 그저 저 말아서. 파가 옛날엔 별로 파도 없었어.)

107067 @ 음.(음.)

107067 #2 무 썰엉 그자 콩ᄂᆞ물 하나씩 서껑 허영 그자. 다 솟두껑이 지젓주 옛날엔. 솟두껭이 불살롸 지젼. 견디 이거 이제야 후라이판 나난 첨 전기후라이판이여, 그냥 후라이판이여 좋주. 엿날은 솟두껑이에서 지졍 영 무 썰엉 데왕 저 쪽파 놓고 헹 무쳣주게. 이젠 완전 저 빈도 고급이라 옛날로 생각허믄.(무 썰어서 그저 콩나물 하나씩 섞어서 해서 그저. 다 솥뚜껑에 지졌지 옛날에는. 솥뚜껑에 불살라서 지졌어. 그런데 이거 이제야 프라이팬 나오니까 참 전기프라이팬이며, 그냥 프라이팬이며 좋지. 옛날은 솥뚜껑에서 지져서 이렇게 무 썰어서 데워서 저 쪽파 넣고 해서 무쳤지. 이젠 완전 저 빙떡도 고급이야 옛날로 생각하면.)

107067 @ 음.(음.)

107067 #2 다 참지름 놓고 저 계란 풀어 놓고 하간 거 놓고. 거 칼 때도 춤지름 놓고 헌디 옛날 우리 동지덜 열ᄒᆞ루날 제사 이제 아덜네 줫주만은 그 제서에 게나제나 빈ᄒᆞᆫ 말 푸끄메. ᄒᆞᆫ 말 푸끄고 이제 저 묵 ᄒᆞᆫ 뒈 쑤고. 경헨 먹은디 그때 그 참기름 경 안 놔서.(다 참기름 넣고 저 계란 풀어 넣고 온갖 거 넣고. 거 탈 때도 참기름 넣고 하는데 옛날 우리 동짓달 열하루 제사 이제 아들네 줬지만 그 제사에 그러나저러나 빙떡 한 말 부쳐. 한 말 부치고 이제 저 묵 한 되 쑤고. 그래서 먹었는데 그때 그 참기름 그렇게 안 넣었어.)

107067 @ 영 ᄇᆞᆯ를 땐 뭘로 ᄇᆞᆯ라?(이렇게 바를 땐 뭘로 발라?)

107067 #2 ᄇᆞᆯ를 땐 저 ᄂᆞᆷ삐.(바를 땐 저 무.)

107067 @ ᄂᆞᆷ삐로 허영 지름은?(무로 해서 기름은?)

107067 #2 지름은 저 뭣고, 학 ᄀᆞᆫ젠 허난. 유채지름게.(기름은 저 뭐지, 확 말하려고 하니까. 유채기름.)

107067 @ 아, 그때 유채지름으로.(아, 그때 유채기름으로.)

107067 #2 유채지름허고 도새기, 뒈지.(유채기름하고 돼지, 돼지.)

107067 @ 기름?(기름?)

256) '빈'은 고운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을 두른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얇게 펴 놓고 가운데에 양념한 무채소를 넣고 말아서 지진 떡을 말한다. '빙떡,

107067 #2 기름 허영. 주로 뒈지기름. 뒈지기름 영 불름도 허고.(기름 해서. 주로 돼지기름. 돼지기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107067 @ 뒈지기름이야 추렴헤 나사 있는 거고?(돼지기름이야 추렴하고 나야 있는 거고?)

107067 #2 게난 헤단 다 걸엉 놔둬. 걸엉도 놔두고 졸랑도 놔두고.(그러니까 해다가 다 걸어서 놔둬. 걸어도 놔두고 졸여서도 놔두고.)

107067 @ 아, 졸랑도 놔두고.(아, 졸여서도 놔두고.)

107067 #2 으, 소금 놩 졸랑 단지에 담앙 놔두민 어떵 안허여. 경헨 영 접시에 떠 놩 호박, 호박 꼭데기 잇잖아. 그걸로 영 헹도 불르고. 무우도 불르고.(으, 소금 넣어서 졸여서 단지에 담아서 놔두면 어떻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 떠 놔서 호박, 호박 꼭대기 있잖아. 그걸로 이렇게 해서도 바르고. 무도 바르고.)

107067 @ 무우도 불르고.(무우도 바르고.)

107067 #2 여름에 호박 꼭데기, 겨울에 무우.(여름에 호박 꼭대기, 겨울에 무.)

107067 @ 아하하. 여름에 호박 꼭데기.(아하하. 여름에 호박 꼭대기.)

107067 #2 여기, 여기 꼭데기 허영 거 그거 적져당 영 영. 무 꼭데기 허민 그걸로 영 적져당 영영 불랑 솟두껑이레. 이젠 하간 거 다 놓고.(여기, 여기 꼭대기 해서 거 그거 적셔다가 이렇게 이렇게. 무 꼭대기 하면 그걸로 이렇게 적셔다가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솥뚜껑에. 이젠 온갖 거 다 놓고.)

107067 @ 이젠 춤지름 불르잖아예?(이젠 참기름 바르잖아요?)

107067 #2 아니, 식용유.(아니, 식용유.)

107067 @ 아, 식용유 헙니까? 그거 불르는 거?(아, 식용유 합니까? 그거 바르는 거?)

107067 #2 으, 식용유. 이젠 다 식용유.(으, 식용유. 이젠 다 식용유.)

107067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67 #2 불르는 건 다 식용유 허고 묵 칼 때는 춤지름 놩, 첨 첨 ᄆᆞ물ᄀᆞ루 칼 때는.(바르는 건 다 식용유 하고 묵 탈 때는 참기름 넣어서, 참 참 메밀가루 탈 때는.)

107067 @ 아, 아.(아, 아.)

107067 #2 다 식용유 불람주.(다 식용유 바르지.)

107068 @ 상웨떡도 만들어낫수과?(상화떡도 만들었습니까?)

107068 #2 삼메떡은게 보리쏠 ᄀᆞᆯ아당.(상화떡은 보리쌀 갈아다가.)

107068 @ 아, 여긴 삼메떡?(아, 여긴 '삼메떡'?)

107068 #2 으.(으.)

107068 @ 삼메떡예. 보리쏠 ᄀᆞᆯ아당.(상화떡요. 보리쌀 갈아다가.)

107068 #2 보리쏠 ᄀᆞᆯ아당 이제 밥, 보리밥 허영, 엿날은 쏠밥이 셔서게? 보리밥 허영 누룩 그레 놩 놔뒀당 흔 사흘 흔 삼 일, 사 일 뒈민 그거 궤주게. 게민 그거 걸렁 떡 찌영 경헨 놩 헷주게. 삼메떡. 원 그거 여름엔 거 무시것고 세미떡 그것이 엇어. ᄆᆞ물세미떡 그런 것이 엇고 삼메떡, 삼메떡을 헷주게.(보리쌀 갈아다가 이제 밥, 보리밥 해

서, 옛날은 쌀밥이 있어? 보리밥 해서 누룩 그리 넣어 놔뒀다가 한 사흘 한 삼 일, 사일 되면 그거 괴지. 그럼 그거 걸러서 떡 쪄서 그렇게 놔서 했지. 상화떡. 원 그거 여름엔 거 뭐지 '세미떡' 그것이 없어. 메밀 '세미떡' 그런 것이 없고 상화떡, 상화떡을 했지.)

107068 @ 보리ᄀᆞ루로 헤낫수과?(보릿가루로 했었습니까?)

107068 #2 옛날 보리ᄀᆞ루베끼 더 셔게.(옛날 보릿가루밖에 더 있어.)

107068 @ 밀, 밀?(밀, 밀?)

107068 #2 밀 엇어서.(밀 없었어.)

107068 @ 엇어서?(없었어?)

107068 #2 우리 헐 땐 주로 보리쏠 ᄀᆞᆯ아당. 제서헐 때. 밀, 이추룩 밀가루 난 지가 경 오래 뒈서게.(우리 할 땐 주로 보리쌀 갈아다가. 제사할 때. 밀, 이처럼 밀가루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

107068 @ 그래도 옛날에도 육이오 전쟁 끝나고 나서 ᄑᆞ는 거 들어오지 안헷수과?(그래도 옛날에도 육이오 전쟁 끝나고 나고 파는 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07068 #2 아니, 어려와서.(아니, 어려웠었어.)

107068 @ 어려와서. 게난 보리ᄀᆞ루로.(어려웠어. 그러니까 보릿가루로.)

107068 #2 주로 보리ᄀᆞ루로 헷주. 보리 삼메떡. 막 맛좋아 경헤도.(주로 보릿가루로 했지. 보리 상화떡. 아주 맛있어 그래도.)

107068 @ 보리 삼메떡예. 막걸리 놓고?(보리 상화떡요. 막걸리 넣고?)

107068 #2 아니 막걸리가 아니고 기주를 허여.(아니 막걸리가 아니고 기주를 해.)

107068 @ 기주를예.(기주를요.)

107068 #2 누룩 허영게. 누룩을 겨울 뒈면 막 하영 헷주게, ᄉᆞ못.(누룩 해서. 누룩을 겨울 되면 아주 많이 했지, 사뭇.)

107068 @ 식게헤 먹젠 허난.(제사해 먹으려고 하니까.)

107068 #2 으. 식게 누룩 허영 술 허영 좁썰 허영, 좁썰 서 말 너 말 술 허영 삼미[257] 사름 다 멕엿주게. 이제, 이제보단 옛날이 인심이 좋아서.(으. 제사 누룩 해서 술 해서 좁쌀 해서, 좁쌀 서 말 너 말 술 해서 '삼미' 사람 다 먹였지. 이제, 이제보단 옛날이 인심이 좋았어.)

107068 @ 하하하.(하하하.)

107068 #2 동네 다 멕여. 우리 성굴왓[258], 신흥동이렌 허는 디 살아난디 동네 족으난 동네 사름 다 막걸리 먹는 사름 왕 ᄒᆞᆫ 사발 먹고. 청주 ᄒᆞᆫ 잔, 막걸리 ᄒᆞᆫ 사발 줫주게. 떡도 다 놓고. 이제난 안 내놓주.(동네 다 먹여. 우리 '성굴왓', 신흥동이라고 하는데 살았었는데 동네 작으니까 동네 사람 다 막걸리 먹는 사람 와서 한 사발 먹고. 청주 한 잔, 막걸리 한 사발 줬지. 떡도 다 놓고. 이제는 안 내놓지.)

107069 @ 게민 제사에 허젠 허민 아까 떡들 뭐 뭐 제사에 올려난?(그럼 제사에 하

257) '삼미'는 집 울타리 세 면에 인접한 이웃을 말한다.
258) '성굴왓'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지명의 하나다.

려고 하면 아까 떡들 뭐 뭐 제사에 올렸었어?)

107069 #2 주로 침떡.(주로 시루떡.)

107069 @ 침떡 올리고.(시루떡 올리고.)

107069 #2 그 여름엔 저 기주떡.(그 여름엔 저 증편.)

107069 @ 기주떡 올리고.(증편 올리고.)

107069 #2 곤떡 올리고.(흰떡 올리고.)

107069 @ 거뿐?(거뿐?)

107069 #2 과일도 이제난 헤도 옛날은 사과 배베낀 안 올렷주게.(과일도 이제니까 해도 옛날은 사과 배밖에 안 올렸지.)

107069 @ 아니 영 올리는 떡들이 잇수궤. 예를 들민 침떡 밑에 놓고 우에 뭐 놓고, 뭐 놓고.(아니 이렇게 올리는 떡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시루떡 밑에 놓고 위에 뭐 놓고, 뭐 놓고.)

107069 #2 우에 세미 놓고 곤떡 놓고 거뿐.(위에 '세미' 놓고 흰떡 놓고 거뿐.)

107075 @ 우에 지름떡 같은 거 안 올립니까?(위에 기름떡 같은 거 안 올립니까?)

107075 #2 그 지름떡도 이제사. 옛날에사 헤서게?(그 기름떡도 이제야. 옛날에야 했어?)

107075 @ 아, 옛날엔 안 헨. 게민 이거 세 종류라. 올릴 때?(아, 옛날엔 안 했어. 그럼 이거 세 종류야. 올릴 때?)

107075 #2 으, 으. 이제난, 이제가 전이 싯주 옛날사 전이 셔서게?(으, 으. 이제니까, 이제가 전이 있지 옛날에야 전이 있어?)

107075 @ 아니 다른 동네 갈 때는 다섯 종류를 올린덴 헙디다.(아니 다른 동네 갈 때는 다섯 종류를 올린다고 합디다.)

107075 #2 아니 과일은 다섯 종류 올리는 디 잇고 세 종류 올리는 디 잇고.(아니 과일은 다섯 종류 올리는 데 있고 세 종류 올리는 데 있고.)

107075 @ 떡을, 떡을 영?(떡을, 떡을 이렇게?)

107075 #2 아니.(아니.)

107075 @ 아니?(아니?)

107069 #2 이제도 보통 그자 침떡 올령 세미, 인절미 올령 곤떡 올려. 곤떡이나 송편이나 올려.(이제도 보통 그저 시루떡 올려서 '세미', '인절미' 올려서 흰떡 올려. 흰떡이나 송편이나 올려.)

107069 @ 곤떡이나 송편이나 올려예?(흰떡이나 송편이나 올려요?)

107069 #2 으, 이제도 경허여. 과일은 세 종류 올리는 사름 싯고 다섯 종류 올리는 사름 싯고. 워낙 뭣 허민 일곱 종류 올리는 사름, 대추 밤 들어가는 사름은 일곱 종류 올리고. 옛날은 과일도 세 종류게 딱.(으, 이제도 그래. 과일은 세 종류 올리는 사람 있고 다섯 종류 올리는 사람 있고. 워낙 뭐 하면 일곱 종류 올리는 사람, 대추 밤 들어가는 사람은 일곱 종류 올리고. 옛날은 과일도 세 종류 딱.)

107069 @ 세 종류예?(세 종류요?)

107069 #2 으. 세 종류, 종류 출려서? 그자 사과, 배만 올리고 사과만 올리고 헌 때도 셧주. 이제난 적갈도 세 종류 멧 종류. 옛날은 뒈지 적갈 하나라 딱. 그 소고기 적갈, 무신 적갈이 엇어주게. 궤기만 궝, 생선 구는 건 떨어지지 안헤영 구워서. 생선이든 우럭이든 아무 거라도. 굽는 건 허는디 이젠 적갈도 세 가지 뭐 굽는 것도, 전도 옛날이사 전이 어디 셔. 전 허는 게 어느 저를에.(으. 세 종류, 종류 차렸어? 그저 사과, 배만 올리고 사과만 올리고 할 때도 있지. 이제니까 적도 세 종류 몇 종류. 옛날은 돼지 적 하나야 딱. 그 소고기 적, 무슨 적이 없었지. 고기만 구워서, 생선 굽는 건 떨어지지 않고 구웠어. 생선이든 우럭이든 아무 거라도. 굽는 건 하는데 이젠 적도 세 가지 뭐 굽는 것도, 전도 옛날에야 전이 어디 있어. 전 하는 게 어느 겨를에.)

107069 @ 음.(음.)

107069 #2 우리 헐, 우리도 흔 반쯤 뒌 후에야 전 헤서. 이 살림 살 때 처음 헐 때 전 안 허연. 이젠 전덜 허고 헤도.(우리 할, 우리도 한 반쯤 된 후에야 전 했어. 이 살림 살 때 처음 할 때 전 안 했어. 이젠 전들 하고 해도.)

107069 @ 제사에 세 종류 올렷잖아?(제사에 세 종류 올렸잖아?)

107069 #2 으.(으.)

107070 @ 장례식 할 때는?(장례식 할 때는?)

107070 #2 장례식 할 때는.(장례실 할 때는.)

107070 @ 영장헐 때는 떡 뭐 뭐 헤서?(장사할 때는 떡 뭐 뭐 했어?)

107070 #2 거 영장헐 때도 경 올려. 옛날엔.(거 장사할 때도 그렇게 올려. 옛날엔.)

107070 @ 마찬가지?(마찬가지?)

107070 #2 이제도 거의 다 경 올려.(이제도 거의 다 그렇게 올려.)

107070 @ 세 종류예. 예, 예. 인절민 어떵 만들어낫수과?(세 종류요. 예, 예. 인절미는 어떻게 만들었었습니까?)

107070 #2 네귀반득허게 영 영.(네모반듯하게 이렇게 이렇게.)

107072 @ 인절미 만들어 봅서. 어떵?(인절미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107072 #2 밀어.(밀어.)

107072 @ 뭘, 쏠가루?(뭘, 쌀가루?)

107072 #2 으, 쏠가루. 그 저 뭐 ᄆᆞ물ᄀᆞ루나 뭐로. 그거 허민 니귀반득허민 인절미주게.(으, 쌀가루. 그 저 뭐 메밀가루나 뭐로. 그거 하면 네모반듯하면 인절미지.)

107072 @ 음. 뜨거운 물로 반죽헙니까?(음. 뜨거운 물로 반죽합니까?)

107072 #2 뜨거운 물로 헤사. 근쏠 ᄀᆞ루 인절미나 저 뭣고 ᄆᆞ물쏠 ᄀᆞ루 인절미나 다 영 칼로 짝 끈엉 네모나민 인절미.(뜨거운 물로 해야. 흰쌀 가루 인절미나 저 뭐지 메밀쌀 가루 인절미나 다 이렇게 칼로 짝 끊어서 네모나면 인절미.)

107072 @ 아, 네모나민 인절미라.(아, 네모나면 인절미야.)

107072 #2 으. 네귀반득허게. 저 삼미떡도 네모난 건, 거 인절미로 올리고. 반착헌 건 세미로도 올리고 헷주게.(으. 네모반듯하게. 저 상화떡도 네모난 건, 거 인절미로 올리고. 반쪽인 거 '세미'로도 올리고 했지.)

107073 @ 솔변, 절변은 어떤 것과?(솔편, 절편은 어떤 겁니까?)

107073 #2 그거게 곤떡. 저 세미, 인절미ᄀᆞ라 솔변, 절변 헴주게.(그거 흰떡. 저 '세미', 인절미보고 솔편, 절편 하고 있지.)

107073 @ 세미, 인절미ᄀᆞ라.('세미', 인절미보고.)

107073 #2 저 남군은 솔변, 절변이엔 안 ᄀᆞᆯ아? 이딘 허여도. 이딘 곤떡 헌디. 남군은 솔변, 절변.(저 남군은 솔편, 절편이라고 안 말해? 여긴 해도. 여긴 흰떡 하는데. 남군은 솔편, 절편.)

107073 @ 아, 솔변, 절변.(아, 솔편, 절편.)

107073 #2 으. 경 안 ᄀᆞᆯ아냐 남군은?(으. 그렇게 안 말하니, 남군은?)

107073 @ 예.(예.)

107073 #2 이딘 안 ᄀᆞᆯ아. 이디는 세미떡, 곤떡이고.(여긴 안 말해. 여기는 '세미떡', 흰떡이고.)

107073 @ 아, 세미떡, 곤떡이고?(아, '세미떡', 흰떡이고?)

107073 #2 으, 그거 남군은 솔변, 절변.(으, 그거 남군은 솔편, 절편.)

107073 @ 으, 곤떡이고.(으, 흰떡이고.)

107073 #2 으, 이딘 곤떡이고 남군, 저 서귀포 착더렌 솔변, 절변. 우리도 저 대정 허난 거 솔변, 절변이엔 헨게.(으, 여긴 흰떡이고 남군, 저 서귀포 쪽으로는 솔편, 절편. 우리도 저 대정 하니까 거 솔편, 절편이라고 했어.)

107073 @ 게난, 게난. 세 종류만 올리는 건 이 동네는 웃기떡이 엇어낫수과?(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종류만 올리는 건 이 동네는 웃기떡이 없었습니까?)

107075 #2 웃기떡이 뭐라?(웃기떡이 뭐야?)

107075 @ 지름떡 같은 거, 맨 우에 올리는 거를 웃기떡이렌 안 헙니까?(기름떡 같은 거, 맨 위에 올리는 거를 웃기떡이라고 안 합니까?)

107075 #2 안 허여난.(안 했었어.)

107075 @ 웃기떡 안 헌 거예.(웃기떡 안 한 거요.)

107075 #2 안 헌디 포따리[259]엔 헌 건 잘 헤나서.(안 했는데 '포따리'라고 하는 건 잘 했었어.)

107075 @ 포따리가 뭐과?('포따리'가 뭡니까?)

107075 #2 계란 놩 동글락허게 파 하나 놓고 고사리 놓고 헌 거 포따리.(계란 놔서 동그랗게 파 하나 놓고 고사리 놓고 한 거 '포따리'.)

107075 @ 그걸 포따리렌 헤난?(그걸 '포따리'라고 했었어?)

107075 #2 으, 그건, 그건 쌍 가는 거렌 허멍 포따리. 그건 적갈 우이 놔.(으, 그건, 그건 싸서 가는 거라고 하면서 '포따리'. 그건 적 위에 놔.)

107075 @ 적갈 우이 놔?(적 위에 놔?)

107075 #2 으, 적갈 우이 놔.(으, 적 위에 놔.)

107075 @ 뒈지 적, 소고기 적.(돼지 적, 소고기 적.)

259) '포따리'는 표준어의 '보따리'에 대응한다. 여기서 '포따리'는 파, 고사리 등을 넣어서 지진 전을 말한다.

107075 #2 이젠 헤도 옛날은 뒈지 적갈만 헷주게.(이젠 해도 옛날은 돼지 적만 했지.)

107075 @ 뒈지 적갈예.(돼지 적요.)

107075 #2 이제는 세 가지 적갈 헴주만은 옛날에사 뒈지 적갈 하나주. 어디 소고기가 잇어게. 어쩌다가 추렴이나 허민 헷주. 옛날은 소고기 적갈 허민 뒈지 적갈 안 허고 딱 하나 헤서, 하나.(이제는 세 가지 적 하지만 옛날에야 돼지 적 하나지. 어디 소고기가 있어. 어쩌다가 추렴이나 하면 했지. 옛날은 소고기 적 하면 돼지 적 안 하고 딱 하나 했어, 하나.)

107075 @ 하나.(하나.)

107075 #2 두 가지 안 허여. 이젠 딱 세 가지 안 헤여게.(두 가지 안 해. 이젠 딱 세 가지 안 해.)

107076 @ 게난 웃기떡을 여긴 안 헷구나. 삼춘 당에 다녀낫수과?(그러니까 웃기떡을 여긴 안 했구나. 삼촌 당에 다녔었습니까?)

107076 #2 당에 난 안 다녀난디 어린 때 어무니 흔디 뜨라 다녀난 건 알아지크라.(당에 난 안 다녔었는데 어린 때 어머니 같이 따라 다녔던 건 알겠어.)

107076 @ 어무니가 당에 다닐 때 뭐 헹 갑디가?(어머니가 당에 다닐 때 뭐 해서 갑디까?)

107076 #2 밥허고 국게.(밥하고 국.)

107076 @ 떡은 안 허고?(떡은 안 하고?)

107076 #2 으, 안 허여. 어떵헌 땐 허여도 떡은 안 허여. 겐디 저 국 끌령 그레 고기 놩 국 끌령 밥 이제 흔 사발 거리고. 흔 사발사 거려신디 세 사발사 거려신디 몰라. 멧 번 가 와난 건 알아져.(으, 안 해. 어떠한 땐 해도 떡은 안 해. 그런데 저 국 끓여서 그리 고기 넣어서 국 끓여서 밥 이제 한 사발 뜨고. 한 사발을 떴는지 세 사발을 떴는지 몰라. 몇 번 갔다 왔던 건 알아.)

107076 @ 여기 당떡 안 헷수과?(여기 '당떡' 안 했습니까?)

107076 #2 아니, 떡 헤난 건 몰라. 나 생각에. 경헌디 당에 어무니 손 심엉 가난 건 알아져.(아니, 떡 했던 건 몰라. 나 생각에. 그런데 당에 어머니 손 잡고 갔었던 건 알아.)

107077 @ 음. 굿떡도 안 헤낫수과, 굿 안 헤낫수과, 굿?(음. '굿떡'도 안 했었습니까, 굿 안 했었습니까, 굿?)

107077 #2 굿떡[260]은게 영 동글랑허게 허는 거.('굿떡'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거.)

107077 @ 그거 뭐렌 골아낫수과?(그거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7077 #2 다데[261]게. 다데.('다데'. '다데'.)

107077 @ 다데예. 그 다데 만들어 봅서, 다데. 어떵 만들어?('다데'요. 그 '다데' 만들어 보세요, '다데'. 어떻게 만들어?)

---

260) '굿떡'은 굿을 할 때 제물로 올리는 떡을 말한다.

261) '다데'는 굿을 하거나 당에 갈 때 제물로 바치는 동글납작한 떡을 말한다.

107077 #2 다데도 그 곤떡 만들듯 크게게. 크게 동글랑허게 영 혼 사발만인 허여. 동글랑허게. 겐 그거 다데. 다데 멧 개썩 허영, 혼 밧디 혼 댓 개씩 올려. 막 하영 허여. 어떤 때 혼 말에치썩, 두 뒈치썩. 제사보다 더 하영 허여.('다데'도 그 흰떡 만들듯 크게. 크게 동그랗게 이렇게 한 사발만큼 해. 동그랗게. 그래서 그거 '다데'. '다데' 몇 개씩 해서, 한 군데 한 댓 개씩 올려. 아주 많이 해. 어떤 때 한 말치씩, 두 되치씩. 제사보다 더 많이 해.)

107077 @ 아까 곤떡 만드는 거나 다데 만드는 거나 반죽은 다 ᄀᆞ튼 거예?(아까 흰떡 만드는 거나 '다데' 만드는 거나 반죽은 다 같은 거요?)

107077 #2 으.(으.)

107077 @ ᄀᆞ루에 뜨거운 물 놩 막 반죽예?(가루에 뜨거운 물 넣어서 마구 반죽요?)

107077 #2 으, 반죽헤영 영 다데는 커 돌레 거치. 돌레.(으, 반죽해서 이렇게 '다데'는 커 도래떡 같이. 도래떡.)

107077 @ 게난 돌레랑 다데랑 뭐가 틀립니까?(그러니까 도래떡이랑 '다데'랑 뭐가 다릅니까?)

107077 #2 돌레떡이 다데엔. 굿헐 땐 다데엔 허고 돌레떡은 옛날에 영장밧디 그거. 이제 거트민 돈 헹 가는디 중간에 또 쏠 헹 가나지 안헤?(도래떡이 '다데'라고. 굿할 땐 '다데'라고 하고 도래떡은 옛날에 장지 그거. 이제 같으면 돈 해서 가는데 중간에 또 쌀 해서 갔었지 않아?)

107077 @ 예.(예.)

107077 #2 권당덜이. 겐디 옛날은 거 돌레떡 헹 강 이제 ᄇᆞ딘 친촉은 멧 손, 먼 친척은 멧 손. 건 우리 어릴 때.(권당들이. 그런데 옛날은 거 도래떡 해서 가서 이제 가까운 친척은 몇 손. 먼 친척은 몇 손. 건 우리 어릴 때.)

107077 @ 어릴 때.(어릴 때.)

107077 #2 으, 건 영장밧디 그 떡을 헹 가서 거 부주로.(으, 건 장지 그 떡을 해서 가서 거 부조로.)

107077 @ 게민 떡 하나가 혼 손이 뒈는 거?(그럼 떡 하나가 한 손이 되는 거?)

107077 #2 아니. 두 개씩 두 개씩 헤영 멧 개 줘영 혼 손, 두 손사 헤신디 몰라. 게난 멧 손 헤 강 이제 그걸 모두왕 상뒤꾼이고 간 사람을 멕여. 떡 헤 간 걸로. 건 어릴 때 우리 어릴 때.(아니. 두 개씩 두씩 해서 몇 개 쥐어서 한 손, 두 손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몇 손 해서 가서 이제 그걸 모아서 상여꾼이고 간 사람을 먹여. 떡 해 간 걸로. 건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107077 @ 음, 부주 대신에.(음, 부조 대신에.)

107077 #2 부주로 그냥 ᄇᆞ든 권당 어느 권당은 멧 손, 어느 권당 멧 손 다 적엇주게. 경허당 그다음 우리 ᄒᆞ꼼 ᄋᆞᆨ을 때 쏠 이제 곤쏠은 두 뒈, ᄇᆞ딘 권당은 혼 말. 보리쏠은 혼 말. 경헤영 부주허여 와. 경헌디 그 영장밧디 돌레 헤 가. 좁쌀에 돌레로. 이만큼, 이만큼 크게.(부조로 그냥 가까운 권당 어느 권당은 몇 손, 어느 권당 몇 손 다 적었지. 그러다가 그다음 우리 조금 컸을 때 쌀 이제 흰쌀은 두 되, 가까운 권당은 한 말.

보리쌀은 한 말. 그렇게 부조해 와. 그런데 그 장지 도래떡 해서 가. 좁쌀에 도래떡으로. 이만큼, 이만큼 크게.)

107077 @ 게민 다데랑 돌레는 똑같은 거?(그럼 '다데'랑 '도래떡'은 똑같은 거?)

107077 #2 비슷허여.(비슷해.)

107077 @ 비슷허여? 재료도 똑같고?(비슷해? 재료도 똑같고?)

107077 #2 아니, 저 거의 굿 허는 딘 곤썰 떡. 저 영장밧딘 좁썰떡.(아니, 저 거의 굿 하는 덴 흰쌀 떡. 저 장지는 좁쌀떡.)

107077 @ 여기 ᄆᆞ물ᄀᆞ루는 돌레떡 안 만듭니까?(여기 메밀가루는 도래떡 안 만듭니까?)

107077 #2 ᄆᆞ물ᄀᆞ루는 어려와.(메밀가루는 어려워.)

107077 @ 아, 어려우난.(아, 어려우니까.)

107077 #2 좁썰로 거의 돌레, 돌레떡이라. 돌레떡, 오메기떡[262].(좁쌀로 거의 도래떡, 도래떡이야. 도래떡, '오메기떡'.)

107066 @ 게민예, 우리 아까 침떡은 시루에 놔근에 쳐 내는 거잖아예. 근데 곤떡은 어떵 헙니까? 뜨거운 물로 반죽헹 만들엉 쪄 냅니까, 숢아 냅니까?(그럼요, 우리 아까 시루떡은 시루에 놔서 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흰떡은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로 반죽해서 만들어서 쪄 냅니까, 삶아 냅니까?)

107066 #2 숢아 냄도 허고 식용류 불랑 쪄 냄도 허고.(삶아 내기도 하고 식용류 발라서 쪄 내기도 하고.)

107066 @ 게민 뭐는 쪄 내여?(그럼 뭐는 쪄 내?)

107066 #2 저 그냥 영 포따리 끌앙.(저 그냥 이렇게 보따리 깔아서.)

107066 @ 예, 포따리 끌앙.(예, 보따리 깔아서.)

107066 #2 포따리 끌앙 솟디 영 고망 뚤아진 것에. 옛날엔 쳇망 놩 헷주게. 이젠 저런 고망 뚤라진 거 이신디 옛날은 쳇망 놩 또 낭께기 영 영 걸쳥 험벅 끌앙 경헨 쳐 냇주게.(보따리 깔아서 솥에 이렇게 구멍 뚫린 것에. 옛날엔 쳇바퀴 놔서 했지. 이젠 저런 구멍 뚫린 거 있는데 옛날은 쳇바퀴 놔서 또 나뭇가지 이렇게 이렇게 걸쳐서 헝겊 깔아서 그래서 쪄 냈지.)

107066 @ 게민 쳐 낸 거랑 숢아 낸 거랑?(그럼 쪄 낸 거랑 삶아 낸 거랑?)

107066 #2 쳐 내야 헤싸지지 안헤영. 숢아 낸 건 잘못 숢으민 꺼꺼져 불어.(쪄 내야 흐트러지지 않아. 삶아 낸 건 잘못 삶으면 꺾어져 버려.)

107066 @ 삼춘은 주로 쳐 냇수과?(삼촌은 주로 쪄 냈습니까?)

107066 #2 으, 숢아 냉 헤영은 헌디 쳐 내야 몽글락허게 잘 뒈여.(으, 삶아 내서 해서는 했는데 쪄 내야 몽글하게 잘 돼.)

107066 @ 송편도?(송편도?)

107066 #2 으, 송편도 쪄야 잘 뒈고 숢으민. 아니 송펜은 헤싸지진 안헤도 쪄야 쫄

262)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깃쫄깃도 허고. 주로 쪄야 좋아.(으, 송편도 쪄야 잘 되고 삶으니까. 아니 송편은 흐트러지진 않아도 쪄야 쫄깃쫄깃도 하고. 주로 쪄야 좋아.)

107066 @ 쳇망 놔 가지고, 거기에 낭가지들 놩 뭐 끌앙 그 우이 올려놓는 거구나 예?(쳇바퀴 놔 가지고, 거기에 나뭇가지들 놔서 뭐 깔아서 그 위에 올려놓는 거군요?)

107066 #2 낭게기 영 영 놩 거기에 새나 뭐 놩 이제 험벅 놩. 그냥 또 험벅 안 놔도 새 놓민 어떵 안헤여. 새 놩도 허고 솔입, 솔입 놩도 허고.(나뭇가지 이렇게 이렇게 놔서 거기에 띠나 뭐 놔서 이제 헝겊 놔서. 그냥 또 헝겊 안 놔도 띠 놓으면 어떻지 않아. 띠 놔서도 하고 솔잎, 솔잎 놔서도 하고.)

107066 @ 기지예. 솔입 놩 허민 향도 나고.(그렇죠. 솔잎 놔서 하면 향도 나고.)

107066 #2 으, 솔입 놩도 허고 경허민. 험벅도 어려우난게 옛날은. 험벅도 요 직전이도 어려왕 ᄉᆞ못 빌어 오고 헷주게. 이젠 드러 데껴 불어도.(으, 솔잎 놔서도 하고 그러면. 헝겊도 어려우니까 옛날은. 헝겊도 요 직전에도 어려워서 사뭇 빌려 오고 했지. 이젠 마구 던져 버려도.)

107078 @ 게민 아까 골은 떡 말고도 집이서 만들어 먹어난 떡이 잇수과?(그럼 아까 말한 떡 말고도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떡이 있습니까?)

107078 #2 엇어. 벨로.(없어. 별로.)

소와 고물

107079 @ 떡 만들젠 허민 안에 쉬 넣어야 뒈잖아예?(떡 만들려고 하면 안에 소 넣어야 되잖아요?)

107079 #2 으, 게난 풋쉬나 콩쉬나. 콩은 보까, 골아.(으, 그러니까 팥소나 콩소나. 콩은 볶아서, 갈아.)

107079 @ 예.(예.)

107079 #2 경헨 콩쉬나. 풋 시민 존디 풋 엇이민 콩. 보깡 골앙 그거 이제 벨로 풋쉬만이 맛엇어도. 풋 엇이민 경헷주게.(그런 콩소나. 팥 있으면 좋은데 팥 없으면 콩. 볶아서 갈아서 그거 이제 별로 팥소만큼 맛없어도. 팥 없으면 그렇지.)

107079 @ 풋은 어떵헤?(팥은 어떡해?)

107079 #2 풋은 솖앙.(팥은 삶아서.)

107079 @ 솖앙.(삶아서.)

107079 #2 솖앙 그냥 ᄒᆞ꼼 방에에 영 영 영 영 ᄲᆞᆺ앙 경헤영 허꺼 놓고. 저 녹뒤도 경 헤 놓고. 주로 녹뒤, 풋이 주장이주.(삶아서 그냥 조금 방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빻아서 그래서 섞어 놓고. 저 녹두도 그렇게 해 놓고. 주로 녹두, 팥이 주장이지.)

107079 @ 주장이라예. 콩은 보까 놩 골앙 쉬로 썻던 거고 나머지는?(주장이지요. 콩은 볶아 놔서 갈아서 소로 썼던 거고 나머지는?)

107079 #2 솖앙.(삶아서.)

107079 @ 숣앙예. 뭐 사탕가루나 뿌려?(삶아서요. 뭐 사탕가루나 뿌려?)

107079 #2 사탕이 어디 셔게. 사탕이 어디, 이제난 사탕이 싯주 옛날에사 사탕 저 죽젠 헤도 엇엇주. 우리 아덜 이제 오십 설. 그때 우유도 엇어서. 우유도 저 이시돌[263]에 강 저 이시돌 성당에 강 타당, 막 덩어리 진 거 타당 이제 저 남비에 숣아근에 바글바글 불, 불 숨앙 헤 줫주.(사탕이 어디 있어. 사탕이 어디, 이제니까 사탕이 있지 옛날에야 사탕 저 죽으려고 해도 없었지. 우리 아들 이제 오십 살. 그때 우유도 없었어. 우유도 저 이시돌에 가서 저 이시돌 성당에 가서 타다가, 아주 덩어리 진 거 타다가 이제 저 냄비에 삶아서 바글바글 불, 불 때서 해 줬지.)

107079 @ 아, 이시돌까지 우유 사레 가난?(아, 이시돌까지 우유 사러 갔어?)

107079 #2 아니, 아니 저 어디고 이젠 저 한림병원 헤난 거 그 병원이 이시돌 병원이라서 옛날. 저 천주교, 천주교 앞이 병원이.(아니, 아니 저 어디지 이젠 저 한림병원 했던 거 그 병원이 이시돌 병원이었어 옛날. 저 천주교, 천주교 앞의 병원이.)

107079 @ 예.(예.)

107079 #2 그디 이시돌 병원, 이시돌 병원 헹 그 병원에 가믄 그거 우유를 어떵헹 타 와나서. 그거 우율 헤영 멕여낫주. 우리 아덜 오십서인디. 우유 이제 거치 풀지 안허여 그땐.(거기 이시돌 병원, 이시돌 병원 해서 그 병원에 가면 그거 우유를 어떻게 해서 타 왔었어. 그거 우유를 해서 먹였었어. 우리 아들 오십삼인데. 우유 이제 같이 팔지 않아 그땐.)

107079 @ 기지예.(그렇지요.)

107079 #2 게난 우유.(그러니까 우유.)

107079 @ 무사 젓 안 나왕 그거 우유 사당 먹여난?(왜 젖 안 나와서 그거 우유 사다가 먹었었어?)

107079 #2 으, 경헨. 어떵헤 엇이난.(으, 그랬어. 어떡해 없으니까.)

107079 @ 엇이난예. 경헨 먹어난예?(없으니까요. 그렇게 먹었어요?)

107079 #2 으.(으.)

107080 @ 게난 안에 넣는 건 쉬잖아예. 우에 더프는 건 뭐렌 헙니까? 그것도 쉬렌 헤?(그러니까 안에 넣는 거 소잖아요. 위에 덮는 건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쉬'라고 해?)

107080 #2 게난 쉬로 더펍주게.(게난 고물로 덮지.)

107080 @ 그거 다 쉬?(그거 다 '쉬'?)

107080 #2 쉬, 쉬.('쉬', 고물.)

107080 @ 우에 허는 것도 쉬.(위에 하는 것도 '쉬'.)

107080 #2 쉬.(고물.)

107080 @ 송편 속에 놓는 것도?(송편 속에 넣는 것도?)

107080 #2 쉬.('쉬'.)

263) '이시돌'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이시돌 목장'을 말한다. 여기서는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었던 '이시돌 병원'을 가리킨다.

107081 @ 떡 만들멍 영 재미난 일, 아니면 친떡 치멍 삼춘도 영 잘 안 뒈난 적 엇어?(떡 만들어서 이렇게 재밌던 일, 아니면 시루떡 찌면서 삼촌도 이렇게 잘 안 됐던 적 없어?)

107081 #2 잘 안 뒌 거 베랑 엇고, 우린 흔엇이 설지 안허여. 경 벨로 설지 안 허여.(잘 안 된 거 별로 없고, 우린 한없이 설지 않아. 그렇게 별로 설지 않아.)

107081 @ 아이구, 잘 만들어나신게.(아이구, 잘 만들었었네요.)

107081 #2 겐디 우리 큰시누인 하도 서난 막 두드리고 우리 큰시어멍, 신 뭣고 찍신. 찍신으로 두드리멍.(그런데 우리 큰시누이는 하도 서니까 마구 두드리고 우리 큰시어머니, 신 뭐지 짚신. 짚신으로 두드리면서.)

107081 @ 잘못헷덴.(잘못했다고.)

107081 #2 이 조상 뭐 어떵허고 헤난 기억이 잇어. 하하하. 게도 우린 경 설어보지 안허연.(이 조상 뭐 어떠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 하하하. 그래도 우린 그렇게 설어 보지 않았어.)

107081 @ 아, 설어 보지 안허연.(아, 설어 보지 않아.)

107081 #2 게난 나만 이제 생각허민 그 원인이 불 두루 솜앙 원인인디 놈의 탓을.(그러니까 나만 이제 생각하면 그 원인이 불 덜 때서 원인인데 남의 탓을.)

107081 @ 식게 멩질을 멧 번이나 헤낫수과?(제사 명질을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107081 #2 우린 두 번.(우린 두 번.)

107081 @ 아, 벨로 안 헤신게.(아, 별로 안 했네.)

107081 #2 우리 시아버지네가 사 형제고 또 우리 집이 하르방[264]네도 삼 형제니까, 갈르니까 웃대 제사가 많지 안허주게.(우리 시아버지네가 사 형제고 또 우리 집의 할아버지네도 삼 형제니까, 가르니까 윗대 제사가 많지 않지.)

107081 @ 아, 많지 않으니까? 몇 살 때부터 알앙 맡앙?(아, 많지 않으니까? 몇 살 때부터 알아서 맡아서?)

107081 #2 스물여섯.(스물여섯.)

107081 @ 그때서부터 떡을 헌 거라?(그때서부터 떡을 한 거야?)

107081 #2 으. 스물여섯에부터 식게헷주게. 흔 번. 그땐 흔 번. 저 거세기 동짓덜 열흐루가 제삿날. 그다음에 시아버지 돌아강 시아버지 제사. 시아버지 제사 허기 전이 웃대 제사 헤 놩. 칠 월 스무 이튿날. 그거 지제 헤덩 시아부지 제사.(으. 스물여섯부터 제사했지. 한 번. 그땐 한 번. 저 거시기 동짓달 열하루가 제삿날. 그다음에 시아버지 돌아가서 시아버지 제사. 시아버지 제사.)

별식

107082 @ 그 여기 옛날에는 장삿날이나 잔치 때 수웨 같은 것도 헤낫어예?(그 여기 옛날에는 장삿날이나 잔치 때 순대 같은 것도 했었지요?)

264)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자신을 남편을 가리킨다.

107082 #2 으.(으.)

107082 @ 사단 안 쓰고 집에서예. 수웨 만들젠 허민 어떵 헤낫수과?(사다가 안 쓰고 집에서요. 순대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107082 #2 이젠 헤도 옛날엔 그냥 보통 보리쏠 ᄀᆞᆯ아당 헷주게.(이젠 해도 옛날엔 그냥 보통 보리쌀 갈아다가 했지.)

107082 @ 여긴 ᄆᆞ물ᄀᆞ루를 안 헷구나.(여긴 메밀가루를 안 했구나.)

107082 #2 으, 겐디 이젠 다 저 ᄆᆞ물ᄀᆞ루 사단 허여. 우리 옛날엔 보리쏠 ᄀᆞ루 허여.(으, 그런데 이젠 다 저 메밀가루 사다가 해. 우리 옛날엔 보리쌀 가루 해.)

107082 @ 보리쏠 ᄀᆞ루. 만들어 봅서. 이제 순대 허젠 허난?(보리쌀 가루. 만들어 보세요. 이제 순대 하려고 하니까?)

107082 #2 보리쏠 ᄀᆞ루에 이제 그 내장 거튼 거 ᄒᆞ꼼 찍어 놩.(보리쌀 가루에 이제 그 내장 같은 거 조금 찍어 놔.)

107082 @ 뭐, 뭐 찍어 놩?(뭐, 뭐 찍어 놔서?)

107082 #2 그 뒈지 내장. 내장 좀 찍어 놓민 맛이 싯고 아이 찍어 놓민 맛엇고. 그거 북부기나 내장 같은 거 ᄒᆞ꼼 찍어 놔근에 담앗주게, 옛날은. 보리쏠 ᄀᆞᆯ아단 옛날은.(그 돼지 내장. 내장 좀 찍어 놓으면 맛이 있고 안 찍어 놓으면 맛없고. 그거 허파나 내장 같은 거 조금 찍어 놔서 담았지, 옛날은. 보리쌀 갈아다가 옛날은.)

107082 @ 예.(예.)

107082 #2 겐디 이젠 ᄆᆞ물ᄀᆞ루. 이젠 ᄆᆞ물ᄀᆞ루 ᄀᆞᆯ아단 저 춥썰 밥헤영, 춥썰 밥헤영 이젠 그 피에 허껑 헷주게. 옛날은 보리쏠 ᄀᆞ루게, ᄆᆞ멀이 어려와.(그런데 이젠 메밀가루. 이젠 메밀가루 갈아다가 저 찹쌀 밥해서, 찹쌀 밥해서 이젠 그 피에 섞어서 했지. 옛날은 보리쌀 가루, 메밀이 어려워.)

107082 @ 내장을 막 잘 씻어야 뭴 거 아니?(내장을 아주 잘 씻어야 될 거 아니?)

107082 #2 으.(으.)

107082 @ 뒈지, 도새기 추렴헤 나민. 거기에 양념 뭐 따로 안 헙니까? 보리썰 ᄀᆞ루만.(돼지, 돼지 추렴하고 나면. 거기에 양념 뭐 따로 안 합니까? 보리쌀 가루만.)

107082 #2 아니, 아니. 옛날엔 경 헌디 이젠 양념덜 ᄉᆞ못 쪽파도 놓고 마늘도 놓고 다 헴주게. ᄉᆞ못 설탕도 놓고.(아니,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젠 양념들 사뭇 쪽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다 하지. 사뭇 설탕도 넣고.)

107082 @ 게난 지금 경 허는 거라예. 옛날에는 경 양념을 안 헤 봐서예?(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양념을 안 해봤지요?)

107082 #2 옛날엔 경, 그자 소금만 집어놧주게.(옛날엔 그렇게, 그저 소금만 집어넣지.)

107082 @ 소금만 집어놓고예.(소금만 집어넣고요.)

107082 #2 으, 뒈지고기 ᄉᆞᆲ을 때도 소금만 집어놓고 헌디 이젠 뭰장이여 생강이여 마늘이여 ᄉᆞ못 벨거 다 소주여 다 놓는디 옛날에 그런 게 엇어.(으, 돼지고기 삶을 때도 소금만 집어넣고 했는데 이젠 된장이며 생강이며 마늘이며 사뭇 별거 다 소주며 다 넣

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어.)

107082 @ 음.(음.)

107082 #2 옛날 살기가 경 이거니 저거니 재료가 잇어?(옛날 살기가 그렇게 이거니 저거니 재료가 있어?)

107082 @ 음. 경허난 삼춘네도 뭐 식게 때라도 수에 만들어 봐낫수과?(음. 그러니까 삼촌네도 뭐 제사 때여도 순대 만들어 봤었습니까?)

107082 #2 식게 때 아니고 뭐 허당 만들주게. 경허영 헌 때 집들이도, 아들네 집들이도 허젠 허민 저 수에 만들어당 주고.(제사 때 아니고 뭐 하다가 만들지. 그렇게 할 때 집들이도, 아들네 집들이도 하려고 하면 저 순대 만들어다가 주고.)

107082 @ 아, 삼춘이 직접 만들어당 주고 집들이 헐 때?(아, 삼촌이 직접 만들어다가 주고 집들이 할 때?)

107082 #2 으. 큰아덜이고 셋아덜이고. 족은아덜네만 사단 헷주 다 집들이 헐 때 나가 만들아다 줜. 뒈지 잡으난.(으.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작은아들네만 사다가 했지 다 집들이 할 때 내가 만들어다 줬어. 돼지 잡으니까.)

107082 @ 아, 요리를 잘헤낫구나.(아, 요리를 잘했었구나.)

107082 #2 잘허진 안헤도 그자 헨. 널르니까, 이디가 널르니까 기자 헹 가져갓주.(잘하진 않아도 그저 했어. 넓으니까, 여기가 넓으니까 그저 해서 가져갔지.)

107083 @ 둠비는 어떵 헤낫수과, 둠비?(두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두부?)

107083 #2 둠빈 우리도 잘 헤 보진 안허연. 저 우리 이모 시이모넨 헤라만은 우린 안 허여 봔. 이디 둠비덜 잘 안 헤나서.(두부는 우리도 잘 해 보진 않았어. 저 우리 이모, 시이모네는 했지만 우리 안 해 봤어. 여기 두부들 잘 안 했었어.)

107083 @ 게민 잔치 때 둠비 안 나와? 옛날에 잔치 때 뭐 뭐 나왓낫수과?(그럼 잔치 때 두부 안 나와? 옛날에 잔치 때 뭐 뭐 나왔었습니까?)

107083 #2 기자 순대허고 궤기 석 점허고 순대 하나. 하영 주는 디 경허고 족게 주는 딘 궤기 두 점, 순대 하나, 묵.(그저 순대하고 고기 석 점하고 순대 하나. 많이 주는데 그렇고 적게 주는 덴 고기 두 점, 순대 하나, 묵.)

107084 @ 묵?(묵?)

107084 #2 묵은 전이엔 허멍 묵 하나.(묵은 전이라고 하면서 묵 하나.)

107084 @ 묵은 무슨 묵? 뭐로 만든 거?(묵은 무슨 묵? 뭐로 만든 거?)

107084 #2 그자 ᄆᆞ물ᄏᆞ루 헹 요만이 썬 거 하나.(그저 메밀가루 해서 요만큼 썬 거 하나.)

107084 @ 음.(음.)

107084 #2 이 중간엔 또 우리 아들덜 결혼헐 땐 전덜 막 지져도 우린 딱 순대 하나 궤기 두 점. 하영 준 딘 석 점. 경 줘낫주게. 묵 하나 겐 젱반에 놩 그자 밥, 밥에 그거에 줘. 밥허고 국허고 김치 딱 허고. 이제 거치 훼여 무시거여 벨거 다 헤서게 옛날엔? 안 헤여, 안 헤여.(이 중간엔 또 우리 아들들 결혼할 땐 전들 많이 지져도 우린 딱 순대 하나 고기 두 점. 많이 준 덴 석 점. 그렇게 줬었지. 묵 하나 그래서 쟁반에 놔서 그저

밥, 밥에 그거에 줘. 밥하고 국하고 김치 딱 하고. 이제 같이 회며 뭐며 별거 다 했어? 옛날엔. 안 해, 안 해.)

107083 @ 둠비 만들어지쿠과?(두부 만들 수 있겠습니까?)

107083 #2 못 허여, 못 허여 둠비 우린.(못 해, 못 해 두부 우린.)

107083 @ 아, 둠비 못 허여. 게민 ᄆᆞ물묵, 만들어 봅서, ᄆᆞ물묵.(아, 두부 못 해. 그럼 메밀묵, 만들어 보세요, 메밀묵.)

107084 #2 ᄆᆞ물묵이사게 영 ᄆᆞ물ᄀᆞ루 카 놩 영 쭈루룩허게 올룹지랑 허민 뒈여, 영 헤 보믄. 쭈루룩허게 올룹지랑 허민 발탁발탁[265] 헐 때꺼장만 쑤민 뒈고 경 안 쑤믄 안 뒈여. 발탁발탁 헤 가민 딱 끼우민 뒈여. 막 얄룹게 캉.(메밀묵이야 이렇게 메밀가루 타 놔서 이렇게 쭈루룩하게 얇게 하면 돼, 이렇게 해 보면. 쭈루룩하게 얇게 하면 '발탁발탁' 할 때까지만 쑤면 되고 그렇게 안 쑤면 안 돼. '발탁발탁' 해 가면 딱 끄면 돼. 아주 얇게 타서.)

107084 @ 겐 솟디 놩.(그래서 솥에 놔서.)

107084 #2 막 젓어사. 계속 풀이 빠지도록 젓어사.(마구 저어야. 계속 팔이 빠지도록 저어야.)

107084 @ 음, 젓어 가민 이게 단단헤지민.(음, 저어 가면 이게 단단해지면.)

107084 #2 단단허민 빌착빌착[266] 궤민 딱 끼우민 뒈여. 경헨 양철더레 비우민. 경헨 ᄆᆞ물묵은 우리도 잘 쒀난.(단단하면 '빌착빌착' 끓으면 딱 끄면 돼. 그래서 양철에 비우면. 그렇게 메밀묵은 우리도 잘 쒔었어.)

107085 @ ᄆᆞ물묵 허고 청묵은 어떻게?(메밀묵 하고 '청묵'은 어떻게?)

107085 #2 청묵[267]은 ᄆᆞ물채.('청묵'은 메밀째.)

107085 @ ᄆᆞ물쏠.(메밀쌀.)

107085 #2 ᄆᆞ물쏠을 이제 잘리에 놩 막 물 웃졍 그 물 나온 거 청묵 허주게. 깨끗허여. 겐 그 물로 쑤민 청묵게.(메밀쌀을 이제 자루에 놔서 아주 물 얹어서 그 물 나온 거 '청묵' 하지. 깨끗해. 그래서 그 물로 쑤면 '청묵'.)

107085 @ 그냥 쑤는 건 마찬가지?(그냥 쑤는 건 마찬가지?)

107085 #2 으, 마찬가지. 게난 ᄆᆞ멀, 청묵은 그냥 ᄆᆞ멀로 ᄀᆞ루로 아니고 그 잘리에 놩 막 물 웃졋당 허는 거라. 막 문질르민 그거 헤싸졍 그 ᄀᆞ루 쏠튼물 거치 나오믄 그거 쑤믄 청묵.(으, 마찬가지. 그러니까 메밀, '청묵'은 그냥 메밀로 가루로 아니고 그 자루에 놔서 마구 물 얹었다가 하는 거야. 마구 문지르면 그거 흐트려져 그 가루 쌀뜨물 같이 나오면 그거 쑤면 '청묵'.)

107085 @ 음.(음.)

107085 #2 옛날에 잔치 때 청묵 헤사 잘허는 집이엔 헤. 청묵도 흔 점씩 주고.(옛날에 잔치 때 '청묵' 해야 잘하는 집이라고 해. '청묵'도 한 점씩 주고.)

107085 @ 게민 뭐가 편헙니까? 청묵 허는 게 편합니까?(옛날 뭐가 편합니까? '청묵'

265) '발탁발탁'은 죽 따위의 풀기가 있는 액체가 끓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266) '빌착빌착'은 죽 따위의 풀기가 있는 액체가 끓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267) '청묵'은 메밀쌀 등을 물에 담갔다가 짜낸 물로 쑨 묵을 말한다.

하는 게 편합니까?)

107085 #2 묵 쑤는 게 편하주.(묵 쑤는 게 편하지.)

107085 @ 그냥 묵 쑤는 게예.(그냥 묵 쑤는 게요.)

107085 #2 묵이사 ᄀᆞ루 허영 확 카민 뒈주. 청묵 거 짜젠 허민 얼마나 힘들어.(묵이야 가루 해서 확 타면 되지. '청묵' 거 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107085 @ 음. 식게헐 때 그냥 묵 헤낫수과, 청묵 헤낫수과?(음. 제사할 때 그냥 묵 했었습니까, '청묵' 했었습니까?)

107085 #2 그냥 묵. 묵 혼 뒈 허믄 막 하. 혼 뒈 허민 실피 친촉덜 먹고. 우린 친촉이 많아. 겐 먹고 첨 ᄒᆞ꼼 누게 줌도 허고 헷주. 영 큰 조그마한 다라에 혼 반 다라이에.(그냥 묵. 묵 한 되 하면 아주 많아. 한 되 하면 실컷 친척들 먹고. 우린 친척이 많아. 그래서 먹고 참 조금 누구 주기도 하고 했지. 이렇게 큰 조그마한 다라이에 한 반 다라이에.)

107085 @ 거 혼 뒈.(거 한 되.)

107085 #2 으, 혼 뒈 허민 막 하. 이제 거트미 막 실피, 이젠 안 허여. 메누리덜 주난 안 허여.(으, 한 되 하면 아주 많아. 이제 같으면 아주 실컷, 이젠 안 해. 며느리들 주니까 안 해.)

107085 @ 예, 안 허여예. 두부 사당 허는 거 아니예?(예, 안 해요. 두부 사다가 하는 거 아니요?)

107085 #2 으, 두부 사당. 재작년이 혼 번 혼 뒈 저 하르방 제사에 쒕 간. 저 말젯메누리 헐 때에.(으, 두부 사다가. 재작년에 한 번 한 되 저 할아버지 제사에 쒀서 가서. 저 셋째 며느리 할 때에.)

107085 @ 예. 여기서 직접 쒕 갓구나.(예. 여기서 직접 쒀서 갔구나.)

107085 #2 으, 나가 묵을 쒕 ᄋᆞ져 간.(으, 내가 묵을 쒀서 가져 갔어.)

107086 @ 저기 게역 만들어 보십서.(저기 미숫가루 만들어 보세요.)

107086 #2 게역은 보리 보깡. 옛날은 솟두껑이 보깟주.(미숫가루는 보리 볶아서. 옛날은 솥뚜껑에 볶았지.)

107086 @ 솟두껑이.(솥뚜껑에.)

107086 #2 솟두껑이에 보깡 ᄀᆞ레에 ᄀᆞᆯ앙게. 소금 놩 그냥 ᄀᆞᆯ앙. ᄀᆞᆯ아근에 체로 쳥 줌진 건 허고 홁은 건 무걱지. 무걱진 먹으민 솔각솔각.(솥뚜껑에 볶아서 맷돌에 갈아서. 소금 놔서 그냥 갈아서. 갈아서 체로 쳐서 잔 건 하고 굵은 건 무거리. 무거린 먹으면 사각사각.)

107086 @ 그 무걱지, 우엣 것도 먹엇수과?(그 무거리, 위의 것 먹었습니까?)

107086 #2 게. 솔각솔각. 무걱지, 무걱지 허멍. 겐 옛날엔 그거 주로 반찬이 그거. 저 보리밥에 버물영 먹고. 설탕이 아니고 사카린게. 사카린 놩. 이젠 그 사카린이 엇어.(그래. 사각사각. 무거리, 무거리 하면서. 그래서 옛날엔 그거 주로 반찬이 그거. 저 보리밥에 버무려서 먹고. 설탕이 아니고 사카린. 사카린 넣어서. 이젠 그 사카린이 없어.)

107086 @ 사카린은 ᄑᆞ는 거?(사카린은 파는 거?)

107086 #2 으. 사까린이엔 허는 게 ᄒᆞ꼼만 놔도 막 ᄃᆞ는 게 잇어. 사까린 놩 그 게 역을 헷주게.(으. 사카린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넣어도 아주 단 게 있어. 사카린 넣어서 그 미숫가루를 했지.)

107086 @ 기민.(그럼.)

107086 #2 그다음 유수가가 나왓주.(그다음 뉴슈가가 나왔지.)

107086 @ 아, 유수가가 나중에 나온 거?(아, 뉴슈가가 나중에 나온 거?)

107086 #2 아, 게난 저 옛날은 보리 보깡 항에 탁 듬앙 소상 때나 영장 때나 보리 보끈 거 막 시커멍, 오차[268]엔 허멍 그거 사까린 놩 그거 흔 잔씩 주민 이제 거트민 음료수라.(아, 그러니까 저 옛날은 보리 볶아서 항아리에 탁 담아서 소상 때나 영장 때나 보리 볶은 거 아주 시커멓게, '오차'라고 하면서 그거 사카린 놔서 그거 한 잔씩 주면 이제 같으면 음료수야.)

107086 @ 아, 물.(아, 물.)

107086 #2 으. 보리 보까 가지고 거기 사까린을 넣은 거라이. 거 보리 보끈 거 헹 보리차. 겐 거 사까린 놩. 겐디 이젠 사까린 엇어. 게난 게역도 사까린 놩 헷주게.(으. 보리 볶아 가지고 거기 사카린을 넣은 거야. 거 보리 볶은 거 해서 보리차. 그래서 거 사카린 놔서. 그런데 이젠 사카린 없어. 그러니까 미숫가루도 사카린 넣어서 했지.)

107087 @ 집이서 비 오는 날 지지미도 부쳐 먹고 헷수과?(집에서 비 오는 날 지지미도 부쳐 먹고 했습니까?)

107087 #2 게. 지지민 기자. 주로 기자 지지미도 그냥. 이젠 밀ᄀᆞ루 잇고 옛날은 보리썰 ᄀᆞ루 헤영 제사 때도 헤 먹는 사름 하곡게. 어린 때, 우리 어렷을 땐.(그래. 지지미는 그저. 주로 그저 지지미도 그냥. 이젠 밀가루 있고 옛날은 보리쌀 가루 해서 제사 때도 해 먹는 사람 많고. 어린 때, 우리 어렸을 때는.)

107087 @ 아, 보리가루로도 지지민 부쳥?(아, 보릿가루도 지지미 부쳐서?)

107087 #2 으. 글후에게 이 밀가루 낫주.(으. 그 후에 이 밀가루 났지.)

107087 @ 게민 지지미에 뭐 놩, 뭐 놩 안에?(그럼 지지미에 뭐 놔서, 뭐 놔서 안에?)

107087 #2 주로 이 안엔 뭐 기자, 뭐 확 곧젠 허난, 저 새우리. 새우리나 놓주.(주로 이 안에는 뭐 그저, 뭐 확 말하려고 하니까, 저 부추. 부추나 넣지.)

107087 @ 새우리, 새우리 놩 지지미 헤 먹는 거.(부추, 부추 넣어서 지지미 해 먹는 거.)

107087 #2 새우리나 계란이나 놩.(부추나 계란이나 놔서.)

107088 @ 오메기술을 만들어 봅서, 오메기술.('오메기술'을 만들어 보세요, '오메기술')

107088 #2 오메기술[269]은게 남방에에 좁썰 물 컷당 남방에에 ᄲᆞᆺ앙 이젠 또 ᄀᆞᆺ새 거치 물 끓영 찌여. 영 영 영 영 고망 뚤라지게 멘들앙.('오메기술'은 나무절구에 좁쌀 물

268) '오차'는 일본어 'おちゃ'로 '차'를 말한다.

269) '오메기술'은 좁쌀로 만든 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발효시킨 제주 전통술을 말한다.

담갔다가 나무절구에 빻아서 이젠 또 아까 같이 물 끓여서 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멍 뚫리게 만들어서.)

107088 @ 뭐를 고망 뚤라지게 멘들앙?(뭐를 구멍 뚫리게 만들어서?)

107088 #2 그 오메기떡[270]이 고망 뚤라져사 뒐, 헐 거 아니? 영 동글락허민 영 영 영 영 쉐영게.(그 '오메기떡'이 구멍 뚫려야 될, 할 거 아니? 이렇게 동그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죄어서.)

107088 @ 좁썰을 골앙 왕 그걸 반죽허는 거?(좁쌀을 갈아 와서 그걸 반죽하는 거?)

107088 #2 반죽허영.(반죽해서.)

107088 @ 뜨거운 물 놩?(뜨거운 물 넣어서?)

107088 #2 으.(으.)

107088 @ 게민.(그럼.)

107088 #2 반죽허영 영 영 멘들 때 경허민 고망을 뚤라사주게.(반죽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 때 그러면 구멍을 뚫어야지.)

107088 @ 여기 고망을 뚤라?(여기 구멍을 뚫어?)

107088 #2 경허영 이젠 이 아래 대.(그래서 이젠 이 아래 대.)

107088 @ 예.(예.)

107088 #2 대입이나 새나 허영 영 솟 아래 눌지 못허게 끌앙. 겐 그 오메기 들이청 물 팔팔 끌어 가믄. 경 영 둘루멍 허당 발탁발탁 막 헤영 익은 거 거트민 그 뒈로 확 허민 또 뒈싸졍게. 경허민 이제 건져 내영 ᄒᆞ꼼 식으민 이제 누룩 놩 찌여.(댓잎이나 띠나 해서 이렇게 솥 아래 눋지 못하게 깔아서. 그래서 그 '오메기' 들어뜨려서 물 팔팔 끓어 가면. 그렇게 이렇게 두르면서 하다가 '발탁발탁' 마구 해서 익은 거 같으면 그 되로 확 하면 또 뒤집어져. 그러면서 이제 건져 내어서 조금 식으면 이제 누룩 놔서 쪄.)

107088 @ 그것만 건져 내는 거, 오메기만?(그것만 건져 내는 거, '오메기'만?)

107088 #2 오메기만. 아니 그 물도 놔야 뒈, 식으민.('오메기'만. 아니 그 물도 넣어야 돼, 식으면.)

107088 @ 물도 놩?(물도 넣어서?)

107088 #2 으, 식으민.(으, 식으면.)

107088 @ 예.(예.)

107088 #2 경허민 이제 누룩 서껑. 어, 떼불라 헐 때 말앙 약간 식을 때 누룩 놩 찌영 경헨 청주 드끈 앚으믄 청준 골라앚으믄 청주 그건 이제 거트민 아주 청주 고급이라. 건 뭐 헌 사름덜이나 주고. 아래 건 막걸리.(그러면 이제 누룩 섞어서. 어, 뜨거워라 할 때 말고 약간 식을 때 누룩 놔서 쪄서 그래서 청주 흠씬 앉으면 청주는 가라앉으면 청주 그건 이제 같으면 아주 청주 고급이야. 건 뭐 한 사람들이나 주고. 아래 건 막걸리.)

107088 @ 게민 뭐에 걸려내야 허지 안헤, 그 오메기술 헐 때?(그럼 뭐에 걸러내야

270)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하지 않아, 그 '오메기술' 할 때?)

107088 #2 술 다 익으민게 아, 걸려낼 것도 벨로 엇어. 체, 경헤도 바퉈 체로.(술 다 익으면 아, 걸러낼 것도 별로 없어. 체, 그래도 받혀 체로.)

107088 @ 솟디 놩 그렇게 솖은 거 그대로 가는 거?(솥에 놔서 그렇게 삶은 거 그대로 가는 거?)

107088 #2 어게. 경헤영 쪄.(어. 그래서 쪄.)

107088 @ 이거 안 씁니까? 이 고소리.(이거 안 씁니까? 이 소줏고리.)

107088 #2 고소리 건 술 다끄는 거주.(소줏고리 건 술 빚는 거지.)

107088 @ 아, 다끌 때 쓰고.(아, 빚을 때 쓰고.)

107088 #2 막걸리사 그 고소리로 헤게?(막걸리야 그 소줏고리로 해?)

107088 @ 아, 아.(아, 아.)

107088 #2 이거 고소리술은 오메기로 안 허여.(이거 '고소리술'은 '오메기'로 안 해.)

107088 @ 아, 오메기로 안 헤?(아, '오메기'로 안 해?)

107088 #2 오메기로 안 헹, 우리 어무니도 우리 동생 이제 살아시민 육십아홉, 아니 칠십아홉이로구나. 그때 대학 허젠 허난 고소리술 잘도 다까. 그 감저 ᄀᆞ루 거튼 거 보리 거튼 거 막 히여뜩헌[271] 거 허영 그런 술을 허여. 경허여근에 허곡.('오메기'로 안 하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동생 이제 살았으면 육십아홉, 아니 칠십아홉이로구나. 그때 대학 하려고 하니까 '고소리술' 잘도 빚어. 그 고구마 가루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아주 '히여뜩한' 거 해서 그런 술을 해. 그래서 하고.)

107088 @ 게민 오메기술은 그냥 솟디만 경헹 누룩 놩.(그럼 '오메기술'은 그냥 솥에만 그렇게 누룩 놔서.)

107088 #2 막걸리, 막걸린 오메기술로 허고 저 고소리술 허는 건 그냥 저 밥, 보리 초불만 진 거 허영 찌어. 찌엉 누룩 허껑 담앙 놔뒷당도 허고 감저쏠[272]도 놩 허곡 허영 찌엉 이제 이 장테[273] 이레 놓는 거라. 이 장테가 이레.(막걸리, 막걸리는 '오메기술'로 하고 저 '고소리술' 하는 건 그냥 저 밥, 보리 초벌만 찧은 거 해서 쪄. 쪄서 누룩 섞어서 담아 놔뒀다가도 하고 고구마쌀도 놔서 하고 해서 쪄서 이제 이 '장테' 이리 넣는 거야. 이 '장테'가 이리.)

107088 @ 잠깐만예. 이 장테가 어디 들어가?(잠깐만요. 이 '장테'가 어디 들어가?)

107088 #2 이레게 이레.(이리 이리.)

107088 @ 이게 여기 들어갈 거예?(이게 여기 들어갈 거요?)

107088 #2 으, 여기 들어강 여기에 또 물을 놔.(으,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또 물을 놔.)

107088 @ 으, 물 놔.(으, 물 놔.)

107088 #2 물 놩 이젠 요 펭은 이레 바투고 이디 솟 바우렌 영 헹 또 떡 ᄀᆞ루 허영

271) '히여뜩하다'는 이것저것 뒤섞여 어지럽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흰쌀'이 아니라 '여러 다른 종류의 쌀'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272) '감저쏠'은 납작하게 썰어 말린 고구마를 가루로 빻았을 때 곱게 갈리지 않은, 쌀과 같은 덩어리를 말한다.

273)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만든 질그릇을 말한다.

부쩡. 겐 일로 도록도록 털어졍. 겐 또 물 혼 번 골아.(물 놔서 이젠 요 병은 이리 받치고 여기 솥 가장자리에 이렇게 해서 또 떡 가루 해서 붙여. 그래서 이리로 도록도록 떨어져. 그래서 또 물 한 번 갈아.)

107088 @ 여기에 뭐가 들어 잇수과, 지금?(여기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지금?)

107088 #2 이거 아무 것도 안 든 거 이레 놓믄. 또 이레 물을 놔야 뒈. 이 장테에.(이거 아무 것도 안 든 거 이리 놓으면. 또 이리 물을 와야 돼. 이 '장테'에.)

107088 @ 예, 예.(예, 예.)

107088 #2 겐 그 물이 뜨거우민 혼 번 물 골고 또 두 번 물 뜨거우민 물을 골아.(그래서 그 물이 뜨거우면 한 번 물 갈고 또 두 번 물 뜨거우면 물을 갈아.)

107088 @ 예.(예.)

107088 #2 겐 세 번 골민 다 뒈여. 술 나 잘 다까나서.(그래서 세 번 갈면 다 돼. 술 나 잘 빚었었어.)

107088 @ 게민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그럼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

107088 #2 으, 이 솟디서 더운 짐이 일로 빠지는 거라.(으, 이 솥에서 더운 김이 이리고 빠지는 거야.)

107088 @ 일로 빠지는 거.(이리로 빠지는 거.)

107088 #2 우리 아주망네 집 이 고소리 실 거라. 우리 어머니 헤난 거.(우리 아주머니네 집 이 소줏고리 있을 거야. 우리 어머니 했던 거.)

107088 @ 아, 잇수과?(아, 있습니까?)

107088 #2 어, 몰라.(어, 몰라.)

107088 @ 거 어디? 강 사진 칙엉 와도 뒐 거?(거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와도 될 거?)

107088 #2 서사라.(서사라.)

107088 @ 아, 서사라.(아, 서사라.)

107088 #2 서사라 우리 아지망네 집이 ᄋᆞ져당 저 꼿밧디 놔선게 몰라 풀아먹어신디 어떵헤신디. 우리 어무니 헤난 거.(서사라 우리 아주머니네 집에 가져다가 저 꽃밭에 놨던데 몰라 팔아먹었는지 어떠했는지. 우리 어머니 했던 거.)

107088 @ 예, 예.(예, 예.)

107088 #2 나도 술 잘 다까서. 조랍고 술 다끄렌 허믄 그 이제 오래빈.(나도 술 잘 빚었어. 졸리고 술 빚으려고 하면 그 이제 오라비는.)

107088 @ 아까 그 고소리 헐 때 밑에는 뭐 들어가는 거?(아까 그 소줏고리 할 때 밑에는 뭐 들어가는 거?)

107088 #2 그 밑으로 보리, 보리, 보리쏠 치엉. 보리쏠 쳥 누룩에 서껑 이젠 항에 담앙.(그 밑으로 보리, 보리, 보리쌀 쪄서. 보리쌀 쪄서 누룩에 섞어서 이젠 항아리에 담아.)

107088 @ 여기 담앙 놔두는 거?(여기 담아서 놔두는 거?)

107088 #2 아니, 아니. 항에 담앗당 이제 솟에 놓는 거라. 궤영 익으믄. 술이 익으믄

이제 솟에 놩 이거 우터레 앚졍.(아니, 아니. 항아리에 담았다가 이제 솥에 넣는 거야. 괴어서 익으면. 술이 익으면 이제 솥에 놔서 이거 위로 얹혀.)

107088 @ 게민 이 안에는 아무 것도 아니?(그럼 이 안에도 아무 것도 아니?)

107088 #2 아무 것도 엇나.(아무 것도 없어.)

107088 @ 게민 여기 물만 들어가는 거?(그럼 여기 물만 들어가는 거?)

107088 #2 솟에, 솟에 그 술을 놔야주게.(솥에, 솥에 그 술을 놔야지.)

107088 @ 게민 그 술이 영 영 올라가면서.(그럼 그 술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107088 #2 짐, 짐.(김, 김.)

107088 @ 짐이 올라강 여기에서 똑 떨어지는 거라?(김이 올라가서 여기에서 똑 떨어지는 거야?)

107088 #2 으. 게난 이건 이레 놩. 게난 이것엔 아무 것도 엇어, 이 고망만 똘라졍.(으. 그러니까 이건 이리 넣어서. 그러니까 이것엔 아무 것도 없어, 이 구멍만 뚫려서.)

107088 @ 이 밑에 구멍이 낭 잇수과?(이 밑에 구멍이 나 있습니까?)

107088 #2 으, 낫주게. 나난. 이거 이꺼장 일로 이레 다 구멍 똘라졋주. 이건 이레 놓믄 이디 이디 영 이 바우로 불라사.(으, 났지. 났었어. 이거 이까지 이리로 이리 다 구멍 뚫렸지. 이건 이리 넣으면 여기 여기 이렇게 이 가장자리로 발라야.)

107088 @ 게민 이디 뚜껑은 닫아 붑니까?(그럼 여기 뚜껑은 닫아 버립니까?)

107088 #2 아니. 이거 이거 이레 놩.(아니. 이거 이거 이리 놔서.)

107088 @ 이것만 이레 놩.(이것만 이리 놔서.)

107088 #2 이레 물을 놔야 뒈여.(이리 물을 놔야 돼.)

107088 @ 아, 여기 물을 놓는 거.(아, 여기 물을 넣는 거.)

107088 #2 물이 혼 번 뜨거우믄 혼 번 골고 두 번 골고 시 번 골민 이제 다 뒛젠. 겐디 시 번차 난 건 술이 심심허고 처음 떨어진, 물 골 땐 술이 독허고. 겐 허꺼. 경헨 이제 게난 솟디 술을 놔야주.(물이 한 번 뜨거우면 한 번 갈고 두 번 갈고 세 번 갈면 이제 다 됐다고. 그런데 세 번째 난 건 술이 심심하고 처음 떨어진, 물 갈 땐 술이 독하고. 그래서 섞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솥에 술을 놔야지.)

107088 @ 솟디 술을 놩 여기는?(솥에 술을 놔서 여기는?)

107088 #2 아무 것도 안 놔.(아무 것도 안 놔.)

107088 @ 음, 술 떨어지는 거.(음, 술 떨어지는 거.)

107088 #2 짐, 짐. 게난 잘 뒈믄 거 저 우리 허벅[274] 열두 뒈 드는 허벅으로 저 자구내[275] 우리 이모 사난 뱃사름덜안티 막 그거 이모ᄀᆞ라 풀아 ᄃᆞ렌 헹 잘 찌어나서. 오래비 그때 대학 공부시키젠 허난. 그땐 대학교 허는 사름이 엇어서.(김, 김. 그러니까 잘 되면 거 저 우리 '허벅' 열두 되 드는 '허벅'로 저 '자구내' 우리 이모 사니까 뱃사람들한테 아주 그거 이모보고 팔아 달라고 해서 잘 쪘었어. 오라비 그때 대학 공부시키려고

274)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는 아주 좁다.
275) '자구내'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지명이다.

하니까. 그땐 대학교 하는 사람이 없었어.)

107088 @ 예.(예.)

107088 #2 경허난 우리 오누이뿐인디 우리 어무니 그 술 다끄멍 대학교 다 시켜서.(그러니까 우리 오누이뿐인데 우리 어머니 그 술 빚으면서 대학교 다 시켰어.)

107088 @ 아이고.(아이고.)

107088 #2 겐 세무소에 잇어난. 과장이라낫주. 이제 살아시믄 일흔아홉, 일흔아홉인디 돌아가 불언. 나보다 밑엔디. 두 설 밑엔디.(그래서 세무서에 있었어. 과장이었지. 이제 살았으면 일흔아홉, 일흔아홉인데 돌아가 버렸어. 나보다 밑인데. 두 살 밑인데.)

107088 @ 게난 어무니 술 다끄는 거 옆에서 보멍.(그러니까 어머니 술 빚는 거 옆에서 보면서.)

107088 #2 아니, 보질 안허고 우리ᄀᆞ라 죽장 불 숨앙 그거 다끄렌 허여. 어무니 뜬 일 허고. 게믄 우리 그 물도 ᄀᆞᆯ고 다끄곡 헷주기게. 게난 물 막 물이 뜨거왕 짐 나오민 그 물 퍼 뒁 뜬 물 놓고. 식은 물. 겐 시 번 놔. 시 번 ᄀᆞᆯ민 다 뒈엿젠 허영 설러 불어.(아니, 보질 않고 우리보고 계속 불 때서 그거 빚으라고 해. 어머니 딴 일 하고. 그럼 우리 그 물도 갈고 빚고 했지. 그러니까 물 아주 물이 뜨거워서 김 나오면 그 물 퍼 두고 딴 물 넣고. 식은 물. 그래서 세 번 넣어. 세 번 갈면 다 되었다고 해서 끝내 버려.)

107088 @ 음, 예, 예. 오메기술은 영?(음, 예, 예. '오메기술'은 이렇게?)

107088 #2 오메기술은 건 막걸리.('오메기술'은 건 막걸리.)

107088 @ 막걸리 영 항아리에 담앙 놔두민.(막걸리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놔두면.)

107088 #2 으, 겐 청주허고 막걸리 먹고.(으, 그래서 청주하고 막걸리 먹고.)

107088 @ 예, 예.(예, 예.)

107088 #2 이 고소리술은 막 저 보리 허영 막 지저분헌 거라도 뒈여.(이 '고소리술'은 아주 저 보리 해서 아주 지저분한 거여도 돼.)

107088 @ 게민 오메기 청주는 우에 게?(그럼 '오메기' 청주는 위의 게?)

107088 #2 우에 거 막 ᄀᆞᆯ라앚앙 헌 거 청주.(위의 거 아주 가라앉아서 한 거 청주.)

107088 @ 청주가.(청주가.)

107088 #2 아래 거 탁탁헌 건 막걸리.(아래 거 탁탁한 건 막걸리.)

107088 @ 막걸리.(막걸리.)

107088 #2 막걸리 걸러. 청주는 그냥 허고 막걸린 걸렁 체로 바쳥.(막걸리 걸러. 청주는 그냥 하고 막걸리는 걸러서 체로 받혀서.)

107088 @ 게민 우리가 오메기술이렌 허는 건 청주랑 그걸 다 오메기술이렌 허는 거?(그럼 우리가 '오메기술'이라고 하는 건 청주랑 그걸 다 '오메기술'이라고 하는 거?)

107088 #2 청주는 청주로.(청주는 청주로.)

107088 @ 불르고 그 막걸리를 오메기술이렌 허는 거?(부르고 그 막걸리를 '오메기술'이라고 하는 거?)

107088 #2 으.(으.)

107088 @ 좁썰로 헹 허는 거?(좁쌀로 해서 하는 거?)

107088 #2 좁썰 헌 건 오메기술, 이 다끄는 건 고소리술은 그냥 보리쏠도 놓고 우리 어무니네 그때 감제.(좁쌀 한 건 '오메기술'. 이 빚는 건 '고소리술'은 그냥 보리쌀도 넣고 우리 어머니네 그때 고구마.)

107088 @ 예.(예.)

107088 #2 감제 쏠로 막 밥헤 놘게. 겐 감제 허영 그거 술에 막 허고. 경헨 다까 그 고소리술. 그땐이 술이 잘 엇어 옛날은.(고구마 쌀로 마구 밥해 놨어. 그래서 고구마 해서 그거 술에 많이 하고. 그래서 빚어 그 '고소리술'. 그땐 술이 잘 없어 옛날은.)

107088 @ 기지예.(그렇지요.)

107088 #2 아라꾸루, 아라꾸루엔 헌 것이 잇어서.('아라꾸루', '아라꾸루'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107088 @ 아라꾸루가 뭐과?(아라꾸루가 뭡니까?)

107088 #2 이제 ᄀᆞ트민 이 저 술 원룐 셍이라. 그거 허영 이제 흔 뒈민 넉 뒈 늘루 왕 그거 풀곡덜 허고게.(이제 같으면 이 저 술 원료인 모양이야. 그거 해서 이제 한 되면 넉 되 늘려서 그거 팔고들 하고.)

107088 @ 게민 이 원료 놩 여기에 물 놩?(그럼 이 원료 넣어서 여기에 물 넣어서?)

107088 #2 으.(으.)

107088 @ 물 놩.(물 넣어서.)

107088 #2 게난 술을 프는 디가 잘 엇어. 게난 이거 이추룩 고소리술 다끄고. 이거 술 막 조사헤 가곡 허여.(그러니까 술을 파는 데가 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이처럼 '고소리술' 빚고. 이거 술 많이 조사해 가고 해.)

107088 @ 그니까 이렇게 몰래, 이거 몰래 만들엉 프는 거지예?(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이거 몰래 만들어서 파는 거지요?)

107088 #2 아니, 이건 어, 몰래게. 몰래.(아니, 이건 어, 몰래. 몰래.)

107088 @ 몰래. 들키면 안 뒈는 거잖아?(몰래. 들키면 안 되는 거잖아?)

107088 #2 들키면 안 뒈여, 옛날에.(들키면 안 돼, 옛날에.)

107088 @ 예.(예.)

107088 #2 아니, 겐디 그 제국시태에만 경 단속허연. 그다음엔 안 허고.(아니, 그런데 그 제국시대에만 그렇게 단속했어. 그다음엔 안 하고.)

107088 @ 아, 그다음은 안 허고.(아, 그다음은 안 하고.)

107088 #2 제국시태엔 쏠이 엇인디 그 술을 만들게 헤서게. 게난 막 곱졍 헷주게. 쏠도 곱지는디 술은 허게 허여?(제국시대엔 쌀이 없는데 그 술을 만들게 했어. 그러니까 아주 숨겨서 했지. 쌀도 숨기는데 술은 하게 해?)

107088 @ 그니까. 술 풀레는 이 동네에만 뎅겨낫수과? 아니민 다른 데도 나가낫수과, 술 풀레?(그러니까. 술 팔러는 이 동네에만 다녔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나가었습니까, 술 팔러?)

107088 #2 아니 우린 저 주로 자구내, 고산[276] 아래 자구내주게. 자구내 우리 이모

네신디 져 가믄 이모네 그디 배 사름덜안티 풀아.(아니 우린 저 주로 ‘자구내’, 고산 아래 ‘자구내’지. ‘자구내’ 우리 이모네에게 져 가면 이모네 거기 배 사람들한테 팔아.)

107088 @ 음, 술 풀레 멀리 다니진 안 헤신게.(음, 술 팔러 멀리 다니진 안 했네요.)

107088 #2 음, 다니진 안허연.(음, 다니진 않았어.)

107089 @ 다니진 안허고. 쉰다리는 어떵 만듭니까?(다니진 않고. ‘쉰다리’는 어떻게 만듭니까?)

107089 #2 쉰다린[277] 그냥 밥 쉰 거게.(‘쉰다리’는 그냥 밥 쉰 거.)

107089 @ 밥 쉰 거. 그니까.(밥 쉰 거. 그니까.)

107089 #2 밥 쉰 거. 이제도 쉰다린 헹 먹어.(밥 쉰 거. 이제도 ‘쉰다리’는 해서 먹어.)

107090 @ 누룩을 만드는 걸 알아야큰게. 누룩. 누룩을 만들젠 허민 어떵 헙니까? 누룩 만들어 봅서. 이제야 사당 허지만 옛날에?(누룩을 만드는 걸 알아야겠네. 누룩. 누룩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룩 만들어 보세요. 이제야 사다가 하지만 옛날에?)

107090 #2 누룩은게 저 보리쏠.(누룩은 저 보리쌀.)

107090 @ 예.(예.)

107090 #2 영 곤 거나 영 ᄒᆞ꼼 줌쏠[278]이나 허영 물 영 쪼끔 쪼끔 쉐질 만이, 수제비 허게 말고 약간 질게 허영 쳇망이나 저 양철에 놩 딱 불라. 딱 불르민 제깍허지[279] 안허여게?(이렇게 간 거나 이렇게 조금 ‘줌쏠’이나 해서 물 이렇게 조금 조금 쥘 수 있을 만큼, 수제비 하게 말고 약간 질게 해서 쳇바퀴나 저 양철에 놔서 딱 발라. 딱 바르면 ‘제깍하지’ 않아?)

107090 @ 음.(음.)

107090 #2 겐 영 놔뒀당, 쳇망에 헌 건 그냥 놔두고 양철에 헌 건 비우고. 겐 이제 영 뭣고, 구덕이나 뭣에 영 찍이고 새고 ᄀᆞᆯ앙, ᄀᆞᆯ앙 놔두민 그게 틀 거 아니?(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 쳇바퀴에 한 건 그냥 놔두고 양철에 한 건 비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지, 바구니나 뭐에 이렇게 짚이며 띠며 깔아서, 깔아서 놔두면 그게 틀 거 아니?)

107090 @ 싹이 난다는 거?(싹이 난다는 거?)

107090 #2 아니 아니 터.(아니 아니 터.)

107090 @ 터.(터.)

107090 #2 터. 곰팽이 피민 그게 뒈주게. 옛날이사 다 누룩 허엿주게.(터. 곰팡이 피면 그게 되지. 옛날에야 다 누룩 했지.)

107090 @ 게난.(그러니까.)

107090 #2 누룩 헤사 헐 거 아니. 식게 때도 멩질 때도. 게난 팔월 나민 누룩 뒈여.(누룩 해야 할 거 아니. 제사 때도 명질 때도. 그러니까 팔월 되면 누룩 돼.)

107090 @ 누룩 얼마나 만들어낫수과?(누룩 얼마나 만들었었습니까?)

---

276) ‘고산’은 제주시 한경면 행정 마을 중의 하나인 ‘고산리’를 말한다.
277) ‘쉰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가 만든 여름철 음료를 말한다.
278) ‘줌쏠’은 잘게 간 보리쌀 등을 말한다.
279) ‘제깍허다’는 빈틈없는 꽉 찬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90 #2 누룩 만들앙 거 물류젠 허민 거 오래 걸려. 게난 노랑헌 곰펭이 피민 아이고 누룩 이거 잘 뒛저 허고. 거멍헌 곰펭이 피민 아이고 너미 지릇[280] 텃구나. 잘 만들언, 누룩. 누룩 술 잘 허연, 나도. 아, 잘 만들어서.(누룩 만들어서 거 말리려고 하면 거 오래 걸려. 그러니까 노란 곰팡이 피면 아이고 누룩 이거 잘됐어 하고. 거먼 곰팡이 피면 아이고 너무 '지릇' 텄구나. 잘 만들었어, 누룩. 누룩 술 잘 했어, 나도. 아, 잘 만들었어.)

107090 @ 일헐 때도 인부 멕이젠 허난 그때도 허고?(일할 때도 인부 먹이려고 하니까 그때도 하고?)

107090 #2 인부는 술은 안 멕여도 하르방[281]이 그거, 그것만 먹으난.(인부는 술은 안 먹여도 할아버지가 그거, 그거 먹으니까.)

107090 @ 하하.(하하.)

107090 #2 술을 매날 먹어. 게난 좁썰 혼 섬씩 보통 일 년에 좁썰 혼 섬 술 헤서.(술을 맨날 먹어. 그러니까 좁쌀 한 섬씩 보통 일 년에 좁쌀 한 섬 술 했어.)

107090 @ 얼마나 뒙니까, 그럼? 술 놓은 항 크기가 잇지 안헙니까?(얼마나 됩니까, 그럼? 술 넣는 항아리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107090 #2 그건 혼 세 번, 네 번 허여. 겐 이제 저 스월덜 낭 유채꼿 아이 가 분 때민 여름 내낭 먹어도 안 쉰덴 허멍 그때 또 혼 항아리 헹 놔뒷당 여름 내낭 먹고 경헷주게. 겨울엔 겨울 내낭 먹고.(그건 한 세 번, 네 번 해. 그래서 이제 저 사월 돼서 유채꽃 안 가 버린 때면 여름 내내 먹어도 안 쉰다고 하면서 그때 또 한 항아리 해서 놔뒀다가 여름 내내 먹고 그랬지. 겨울엔 겨울 내내 먹고.)

107090 @ 웨 항도 그 부피에 따라 불르는 일름이 잇지 안허우과?(왜 항아리도 그 부피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107090 #2 으게. 혼 ** 말 드는 거.(으. 한 ** 말 드는 거.)

107090 @ 그거는 뭐렌 불러난?(그거는 뭐라고 불렀었어?)

107090 #2 큰 항, 족은 항. 망데기[282]. 망데긴 술은 망데기로 아이 담아. 항을 담앗주.(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망데기'. '망데기'는 술은 '망데기'로 안 담아. 항아리를 담았지.)

107090 @ 음.(음.)

107090 #2 그거 게민 두 항.(그거 그럼 두 항아리.)

107090 @ 으, 아이고.(으, 아이고.)

107090 #2 저 제사헐 때 보통 두 항. 이 고소리술 헐 때 우리 어무니넨 큰 항 두 개씩 허고. 그 고소리술 담그는 거.(저 제사할 때 보통 두 항아리. 이 '고소리술' 할 때 우리 어머니넨 큰 항아리 두 개씩 하고. 그 '고소리술' 담그는 거.)

107090 @ 게민 풀 때는 어떻게 풀아. 이 족은 항에 담앙?(그럼 팔 때는 어떻게 팔아. 이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

280) '지릇'은 습기를 먹어 축축한 기운이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281)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282)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한다.

107090 #2 아니, 게난 옛날 뒛병게.(아니, 그러니까 옛날 됫병.)

107090 @ 뒛병.(됫병.)

107090 #2 사 홉들이, 이 홉들이 경헷주게.(사 홉들이, 이 홉들이 그랬었지.)

107090 @ 으, 사 홉들이, 이 홉들이.(으, 사 홉들이, 이 홉들이.)

107090 #2 으, 뒛병. 게난 저 이제 저 소상칩이도 이젠 돈 헹 가주, 조문헐 때 소상이고 영장이고. 옛날은 술 흔 뒈 헹 가서. 술 흔 뒈 헹도 가고 또 밥에 국에 헹도 가고. 거 부주로.(으, 됫병. 그러니까 저 이제 저 소상집에도 이젠 돈 해서 가지, 조문할 때 소상이고 초상이고. 옛날은 술 한 되 해서 갔어. 술 한 되 해서도 가고 또 밥에 국에 해서도 가고. 거 부조로.)

107090 @ 밥에 국에도.(밥에 국에도.)

107090 #2 으, 거 부주로. 우리 어린 땐. 밥, 밥 흔 그릇, 국 흔 그릇 헹 강 이 상제도 흔 그릇, 저 상제도 흔 그릇. 이제 거트민 이디 봉투 주고 저디 봉투 주고.(으, 거 부조로. 우리 어린 땐. 밥,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해서 가서 이 상제도 한 그릇, 저 상제도 한 그릇. 이제 같으면 여기 봉투 주고 저기 봉투 주고.)

107090 @ 음.(음.)

107090 #2 경헤서 옛날에. 술도 헹 강 이 상제도 주고 저 상제도 주고 술도. 거 부주.(그랬어 옛날에. 술도 해서 가서 이 상제도 주고 저 상제도 주고 술도. 거 부조.)

107090 @ 부주로 술 헹 강.(부조로 술 해서 가서.)

107090 #2 게난 돈 부주헌 때가 우리 결혼헌 후제 돈 부주헤서. 우리 결혼헌 후제 돈 부주헤서. 우리 결혼헐 때도 다 쏠 부주헷주. 우리 큰아덜 풀 때도 이젠 쉰으섯가 큰아덜이. 겐디 쏠 절반 들어완. 그때도 쏠.(그러니까 돈 부조한 때가 우리 결혼한 후에 돈 부조했어. 우리 결혼할 때도 다 쌀 부조했지. 우리 큰아들 팔 때도 이젠 쉰여섯이 큰아들이. 그런데 쌀 절반 들어왔어. 그때도 쌀.)

107090 @ 음.(음.)

107090 #2 저 돈으로 그때 오천 원, 삼천 원 헷주기게. 경헌디 쏠 흔 말 헤여 온 건 하영. 쏠로 거의 부주헹 완.(저 돈으로 그때 오천 원, 삼천 원 했지. 그런데 쌀 한 말 해 온 건 많이. 쌀로 거의 부조해 왔어.)

107090 @ 음.(음.)

107090 #2 게난 흔 육십 년 전이는 쏠 부주. 거 육십, 오십으섯이난 그때도 거의 쏠 부주가 거의 받앗주게. 오십으섯 뒐 때에도 우리 큰아덜 풀 때.(그러니까 한 육십 년 전에는 쌀 부조. 거 육십, 오십여섯이니까 그때도 거의 쌀 부조가 거의 받았지. 오십여섯 될 때에도 우리 큰아들 팔 때.)

107090 @ 큰아덜 풀 때예.(큰아들 팔 때요.)

107090 #2 게난 이제난 돈 부주 싹 허주. 옛날은 다 쏠 부주, 술 부주. 우리 어렸을 땐 다 술 부주.(그러니까 이제니까 돈 부조 싹 하지. 옛날은 다 쌀 부조, 술 부조. 우리 어렸을 땐 다 술 부조.)

107091 @ 아. 그 저기 엿도 만들아낫수과?(아. 그 저기 엿도 만들었었습니까?)

107091 #2 엿은 골게.(엿은 엿기름.)

107091 @ 골?(엿기름?)

107091 #2 보리, 보리 물 웃졋당 그거 영 뭣에 구덕이나 뭣에 영 놔두민 싹이 나지 안허여?(보리, 보리 물 얹었다가 그거 이렇게 뭐에 바구니나 뭐에 이렇게 놔두면 싹이 나지 않아?)

107091 @ 예.(예)

107091 #2 그 싹 요만썩 나믄 물류왓당 그거 발 싹 털어덩 골앙게. 겐 이제 조팝, 옛날에 조팝 허영. 이젠 쏠밥 헤영, 흰 쏠밥 허민 저 조팝만인 안 헨게.(그 싹 요만큼씩 나면 말렸다가 그거 발 싹 털어두고 갈아서. 그래서 이제 조밥, 옛날에 조팝 해서. 이젠 쌀밥 해서, 흰 쌀밥 하면 저 조밥만큼 안 해.)

107091 @ 으.(으.)

107091 #2 겐 그거 엿기름 놩 흔 대여섯 시간 허민, 아침에 허민 오후 흔 두어시 뒈민 뒈고. 영 먹어 보민 둘코롬허민 짱게, 짱.(그래서 그거 엿기름 놔서 한 대여섯 시간 하면, 아침에 하면 오후 한 두어 시 되고. 이렇게 먹어 보면 달콤하면 짜서, 짜서.)

107091 @ 뭘 짜?(뭘 짜?)

107091 #2 그 좁썰이영 그 누룩, 첨 그 골고루 영 짜. 이제 딸리민 뒈주게.(그 좁쌀이랑 그 누룩, 참 그 골고루 이렇게 짜. 이제 달이면 되지.)

107091 @ 물을 짜?(물을 짜?)

107091 #2 으.(으.)

107091 @ 물이 납니까?(물이 납니까?)

107091 #2 물에, 그 막 물 놔근에 그 좁썰이영 골고루 영 막 허끄지 안허여게. 허껑 놔두민 부구락허게 ᄒᆞ꼼 영 둘코롬허민 이제, 흔 대여섯 시간 잇이민 골고루 캉. 저 이제 이거 뒛구나 헤영 이제 걸렁게. 체를 바투든가 소쿠리를 바투든가 다마네기[283] 조락으로 걸르든가 짝 짱, 이제 딸령. 옛날은 뒈지고기 놩 주로 엿 헷주게.(물에 그 마구 물 놔서 그 좁쌀이랑 골고루 이렇게 많이 섞지 않아. 섞어서 놔두면 푸하게 조금 이렇게 달콤하면 이제, 한 대여섯 시간 있으면 골고루 타서. 저 이제 이거 되었구나 해서 이제 걸러서. 체를 받치든가 소쿠리를 받치든가 양파 자루로 거르든가 짝 짜서, 이제 달여서. 옛날은 돼지고기 넣어서 주로 엿 했지.)

107091 @ 아. 뒈지고기.(아. 돼지고기.)

107091 #2 뒈지고기 놓고 주로 ᄃᆞᆨ 잡앙도 엿 허고 ᄃᆞᆨ세기, 계란도 놩 엿 허고.(돼지고기 넣고 주로 닭 잡아서도 엿 하고 계란, 계란도 놔서 엿 하고.)

107091 @ 아, 계란도 놩.(아, 계란도 놔서.)

107091 #2 계란 놩 허민 맛 좋아.(계란 놔서 하면 맛 좋아.)

107091 @ ᄃᆞᆨ세기 깡, 숢앙 깡?(계란 까서, 삶아서 까서?)

107091 #2 아니, 숢지 안허영 그냥 깡 거 이제 풀어 놩.(아니, 삶지 않고 그냥 까서 거 이제 풀어 놔서.)

283) '다마네기'는 일본어 'たまねぎ'로 '양파'를 말한다.

107091 @ 아, 풀어 놩?(아, 풀어 놔서?)

107091 #2 으. 마늘 놩, 이제 배 아픈 사름은 마늘 놩 엿 헹 먹고. 뒈지고기 놩 엿 헹 먹고. 우리 손지 이제 한 시 뒈민 오켄 헨게. 그 손지 이제 뒈지고기 놩 엿 헤 놓난 히여뜩히여뜩허난 뒌장 막 맛잇젠 허멍.(으. 마늘 놔서. 이제 배 아픈 사람은 마늘 넣어서 엿 해서 먹고. 돼지고기 놔서 엿 해서 먹고. 우리 손주 이제 한 시 되면 오겠다고 했어. 그 손주 이제 돼지고기 놔서 엿 해 놓으니까 희끗희끗하니까 된장 아주 맛있다고 하면서.)

107091 @ 으, 뒌장?(으, 된장?)

107091 #2 엿인 중은 몰르고. 뒌장이 어떵 영 맛잇냐고. 하하하.(엿인 줄은 모르고. 된장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하하하.)

107091 @ 뒌장인 줄 알고 맛잇덴?(된장인 줄 알고 맛있다고?)

107091 #2 뒌장이 막 맛셔, 할무니. 흔 다섯 살쯤. 뒌장, 거멍허난 이거 뒌장이로 안 셍이라. 뒌장밥 맛셔, 또 뒌장밥 헤 줘, 뒌장밥 헤 줘 헤낫주게. 할머니 보레 한 시 뒈민 갈게요. 아까 전화 와선게.(된장이 아주 맛있어, 할머니. 한 다섯 살쯤. 된장, 거머니까 이거 된장으로 안 모양이야. 된장밥 맛있어. 또 된장밥 해 줘, 된장밥 해 줘, 했었어. 할머니 보러 한 시 되면 갈게요. 아까 전화 왔던데.)

107091 @ 어디, 어디 살암수과?(어디, 어디 살고 있습니까?)

107091 #2 한림.(한림.)

107091 @ 한림 살멍. 게도 보러 자꾸 왐구나예?(한림 살면서. 그래도 보러 자꾸 오는군요?)

107091 #2 아니, 바쁘난. 게난 요샌 방학허난 ᄒᆞ꼼 한걸헌 셍이라. 학교 저 뭐 방학허난.(아니, 바쁘니까. 그러니까 요샌 방학하니까 조금 한가한 모양이야. 학교 저 뭐 방학하니까.)

107091 @ 게믄 엿 만들엇던 건 뒈지고기엿, 그다음?(그럼 엿 만들었던 건 돼지고기엿, 그다음?)

107091 #2 ᄃᆞᆨ엿.(닭엿.)

107091 @ ᄃᆞᆨ엿. 그 두 종류.(닭엿. 그 두 종류.)

107091 #2 으, 주로 우린 경 헤난.(으, 주로 우린 그렇게 했었어.)

107091 @ 꿩엿은 안 헤낫수과?(꿩엿은 안 했었습니까?)

107091 #2 꿩엿은 안 허고.(꿩엿은 안 하고.)

107091 @ 안 헤 보고예. 예, 예.(안 해 보고요. 예, 예.)

107091 #2 꿩엿도 마찬가지, 허는 건 마찬가지고게.(꿩엿도 마찬가지, 허는 건 마찬가지고.)

107091 @ 음. 그거 말고 삼춘이 특별히 만들엉 먹어난 음식덜이 뭐가 잇수과?(음. 그거 말고 삼촌이 특별히 만들어서 먹었던 음식들이 뭐가 있습니까?)

107091 #2 뭐 엇어, 벨로.(뭐 없어, 별로.)

107091 @ 음식 잘 헤난 거 닮으우다. 이런 것도 다 담강 먹고.(음식 잘 했던 거 같

습니다. 이런 것도 다 담가서 먹고.)

107091 #2 아이, 옛날엔 거의 다 허영 먹엇주게.(아이, 옛날엔 거의 다 해서 먹었지.)

107091 @ 예. 인부덜 밧디 갈 때 밥헹 먹이젠 허민 반찬은 뭐 헹 먹엿수과?(예. 인부들 밭에 갈 때 밥해서 먹이려고 하면 반찬은 뭐 해서 먹였습니까?)

107091 #2 반찬은 뭐 헤서게. 옛날이사 기자 주로 마농지주. 반찬 벨로 안 허여, 이제 닮지 안허영. 옛날엔 기자 김치, 마농지. 김치, 마농지 많이 헷주. 아니 우리 인부덜 둘 땐 김친 허연. 김치, 마농진 허연. 김치, 마농지 주로 헷주. 뒈지고기니 뭣이니 이제사 뒈지고기도 흔허지 옛날은 흔허지 안허연, 뒈지고기도.(반찬은 뭐 했어. 옛날에야 그저 주로 마늘장아찌지. 반찬 별로 안 해, 이제 같지 않아. 옛날엔 그저 김치, 마늘장아찌. 김치, 마늘장아찌 많이 했지. 아니 우리 인부들 데릴 땐 김치 했어. 김치, 마늘장아찌는 했어. 김치, 마늘장아찌 주로 했지. 돼지고기니 뭐니 이제야 돼지고기도 흔하지 옛날은 흔하지 않았어, 돼지고기도.)

107092 @ 게난 옛날 먹엇던 음식 중에 지금 막 그립고 헌 건 엇수과?(그러니까 옛날 먹었던 음식 중에 지금 아주 그립고 한 건 없습니까?)

107092 #2 엇어.(없어.)

107092 @ 무사게 옛날 먹어난 거 영 먹고 싶다 허는 거?(왜 옛날 먹었던 거 이렇게 먹고 싶다 하는 거?)

107092 #2 벨로. 옛날에 뭐게 이제로 생각허민 이제가 맛싯주, 벨로 뭣 헌 거 엇어.(별로. 옛날에 뭐 이제로 생각하면 이제가 맛있지, 별로 뭐 한 거 없어.)

107092 @ 바닷궤기도 잡아당 먹어나고?(바닷고기도 잡아다가 먹었었고?)

107092 #2 사당게. 옛날엔 이제 닮지 안허영 궤기가 핫주게. 생성이고 복젱이고 ᄉᆞ못. 복젱이가 저 낙지 잡앙 가믄 ᄒᆞᆫ 구덕씩 바꽈와난, 옛날은.(사다가. 옛날엔 이제 같지 않아서 고기가 많지. 옥돔이고 복어고 사뭇. 복어가 저 낙지 잡아 가면 한 바구니씩 바꿔왔었어, 옛날은.)

107092 @ 낙지 잡앙 강?(낙지 잡아서 가서?)

107092 #2 낙지 잇잖여. 그 복젱이덜 낙지 잡앙 가민 니껍허주게.(낙지 있잖아. 그 복어들 낙지 잡아서 가면 미끼하지.)

107092 @ 예.(예.)

107092 #2 게난 거 낙지 잡앙 가믄 복젱이 ᄒᆞᆫ 구덕썩 줘. 낙지 멧 ᄆᆞ리사 줘신지. 이젠 복젱이가 엇인디 실프게[284] 하영 물어.(그러니까 거 낙지 잡아서 가면 복어 한 바구니씩 줘. 낙지 몇 마리 줬는지. 이젠 복어가 없는데 '실프게' 많이 물어.)

107092 @ 게믄 그 복젱이는 낙시로 나끄는 것과, 거리는 것과?(그럼 그 복어는 낚시로 낚는 겁니까, 뜨는 겁니까?)

107092 #2 낙시로 나까.(낚시로 낚아.)

107092 @ 낙지는 어떵 잡앗어?(낙지는 어떻게 잡았어?)

---

284) '실프다'는 '무언가를 하기 싫다'라는 의미다. 여기서 '복젱이가 실프게 하영 물어'는 '복어'가 먹기 싫증이 날 정도로 많이 잡힌다는 의미다.

107092 #2 낙지는 옛날은 저 뭣고, 장작. 장작이엔 헌 건 소낭 ᄀᆞ는ᄀᆞ는 이만 씩 깨영도 허고 그신새[285]. 초가집 그 튿은 거 허영 무껑. 겐 그걸로 무껑 갓주게.(낙지는 옛날은 저 뭐지, 장작. 장작이라고 하는 건 소나무 가늘디가는 이만큼씩 깨서도 하고 '그신새'. 초가집 그 뜯은 거 해서 묶어서. 그래서 그걸로 묶어서 갔지.)

107092 @ 밤이?(밤에?)

107092 #2 밤이.(밤에.)

107092 @ 낙지를 여기서 뭐렌 불러낫수과, 옛날에는?(낙지를 여기서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옛날에는?)

107092 #2 이제, 이제, 엿날도 낙지.(이제, 이제, 옛날도 낙지.)

107092 @ 아까 뭐렌 이름 들어신디. 옛날에 낙지렌 불러난?(아까 뭐라는 이름 들었는데. 옛날에 낙지라고 불렀었어?)

107092 #2 옛날에 낙지렌 불럿주.(옛날에 낙지라고 불렀지.)

107092 @ 예, 예. 경헨.(예, 예. 그래서.)

107092 #2 낙지 그거 경 왕대, 왕대에 지름 담앙 칙으로 왕대 고냥에 막앙, 걸레로 막으나 허영 경헨 그자. 건 고급.(낙지 그거 그렇게 왕대, 왕대에 기름 담아서 칡으로 왕대 구멍에 막아서, 걸레로 막거나 해서 그래서 그저. 건 고급.)

107092 @ 예.(예.)

107092 #2 경헨도 잡고 헷주. 옛날엔 낙지 막 하. 가믄 흔 서른 개씩 스무 개씩 심어.(그래서도 잡고 했지. 옛날엔 낙지 아주 많아. 가면 한 서른 개씩 스무 개씩 잡아.)

107092 @ 밤이 강?(밤에 가서?)

107092 #2 으, 밤이 강. 경허믄 그거 막 복젱이 하영 바꽈당 먹어.(으, 밤에 가서. 그러면 그거 아주 복어 많이 바꿔다가 먹어.)

107092 @ 그거 바꽈 주는구나.(그거 바꿔 주는구나.)

107092 #2 으.(으.)

107092 @ 애들 아픈 때 뭐 헹 먹여난 건 엇수과?(애들 아픈 때 뭐 해서 먹였던 건 없습니까?)

107092 #2 아이덜 아픈 때 아이고, 옛날에사 드러쌍 내불민 어느 ᄌᆞ를에. 하하.(아이들 아픈 때 아이고, 옛날에야 풀어놔서 내버리면 어느 겨를에. 하하.)

107092 @ 하하. 드르쌍 내불어.(하하. 풀어놔서 내버려.)

107092 #2 아파신디 말아신디 첨. 골앙 몰르주.(아팠는지 말았는지 참, 말해서 모르지.)

107092 @ 게도 남자 어른 아팟을 때 뭐 헹 멕엿을 거 아니?(그래도 남자 어른 아팠을 때 뭐 해서 먹였을 거 아니?)

107092 #2 아니, 하르방[286]도 벨로 아프지, 하영 아파사 꿰죽이주게. 하하.(아니, 할아버지도 별로 아프지, 많이 아파야 깨죽이지. 하하.)

---

285) '그신새'는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286)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자신을 남편을 가리킨다.

107092 @ 하하.(하하.)

107092 #2 하영 아파사 꿰죽베끼 더. 꿰죽 생성죽.(많이 아파야 깨죽밖에 더. 깨죽, 생선죽.)

107092 @ 게민 아플 때 옛날에 뭐 전복죽 멕이고 그런 것도 아니였구나.(그럼 아플 때 옛날에 뭐 전복죽 먹이고 그런 것도 아니었구나.)

107092 #2 으, 생선, 아니. 아파 보지도 안 헷주만은 꿰죽, 생성죽. 기자 주로 꿰죽 생성죽이주.(으, 생선, 아니. 아파 보지도 안 했지만 깨죽, 옥돔죽. 그저 주로 깨죽 옥돔죽이지.)

107092 @ 이 마을에 특별헌 음식 같은 것도 엇수과? 신창, 친정에서 헤 먹어난 거라도.(이 마을에 특별한 음식 같은 것도 없습니까? 신창, 친정에서 해 먹었던 거라도.)

107092 #2 아이, 신창[287]이든 용당[288]이든 특별히 더 헹 먹는 게 엇주게.(아니, 신창이든 용당이든 특별히 더 해서 먹는 게 없지.)

107092 @ 예.(예.)

8. 주생활

108001 @ 집 짓어난 것덜 물어보쿠다. 집 짓어난 경험이 잇수과?(집 지었던 것들 물어보겠습니다. 집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108001 #2 우리 저 뭐 과수원 짓을 때만 짓언. 과수원에 창고 짓이멍 그때 개벡허고 또 요 신흥동 집 또 새로 수리헷주게 그때.(우리 저 뭐 과수원 지을 때만 지었어. 과수원에 창고 지으면서 그때 새벽하고 또 요 신흥동 집 또 새로 수리했지 그때.)

108001 @ 게믄 원래 초가집 짓을 때 어떵 헤난지 알아지쿠과? 집 짓젠 허민?(그럼 원래 초가집 지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알겠습니까? 집 지으려고 하면?)

108001 #2 초가집이사게 다 지둥 세와 놩 이젠 다 더껑 담 다왕. 담 단 다음 이젠 흑질헤야 뒐 거 아니게.(초가집이야 다 기둥 세워 놓고 이젠 다 덮어서 담 쌓아. 담 쌓은 다음 이젠 흙질해야 될 거 아니.)

108001 @ 게민 가장 먼저.(그럼 가장 먼저.)

108001 #2 이런 딘 저 뭣고, 대.(이런 덴 저 뭐지, 대.)

108001 @ 으.(으.)

108001 #2 대 허영 예끼나 예껑, 노로 이런 디 이거 이거 다 대로 예껴. 경헨 불라 이런 디.(대 해서 엮거나 엮어서, 노로 이런 데 이거 이거 다 대로 엮어. 그래서 발라 이런 데.)

108001 @ 으.(으.)

108001 #2 대, 대로 예껑 이거 개벡허영 멘드글랑 불랑. 초벌 개벡은 두루 허영 그

287) '신창'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를 말한다.
288) '용당'은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를 말한다.

다음 두불 개벡은 멘드글락허게 허주게.(대, 대로 엮어서 이거 새벽해서 매끈하게 발라서. 초벌 새벽은 덜 해서 그다음 두벌 새벽은 매끈하게 하지.)

108001 @ 으.(으.)

108001 #2 경허영 초불 개벡, 두불 개벡. 경허난 초불 개벡은 보리낭 놩 허고 두불 개벡은 ᄀᆞ시락, ᄀᆞ시락 놩 허여. 그 개벡헐 때.(그래서 초벌 새벽, 두벌 새벽. 그러니까 초벌 새벽은 보릿짚 놔서 하고 두불 새벽은 까끄라기, 까끄라기 놔서 해. 그 새벽할 때.)

108001 @ 으. 개벡허는 거 말앙 집 짓는 거 쭉 한 번 ᄀᆞᆯ아 줍서.(으. 새벽하는 거 말고 집 짓는 거 쭉 한 번 말해 주세요.)

108001 #2 담부터 다와사주게.(담부터 쌓아야지.)

108001 @ 담부터 어디에?(담부터 어디에?)

108001 #2 이런 바우에 담 다와야 헐 거 아니.(이런 가장자리에 담 쌓아야 할 거 아니.)

108001 @ 지둥 세우는 게 먼저라, 담 다우는 게 먼저라?(기둥 세우는 게 먼저야, 담 쌓는 게 먼저야?)

108001 #2 아니, 담 다와 낭 지둥 세와. 담 다와 낭.(아니, 담 쌓고 나서 기둥 세워. 담 쌓고 나서.)

108001 @ 밑에는 뭐 놓고?(밑에는 뭐 놓고?)

108001 #2 에이, 옛날은 밑에 뭐 안 허여. 겨난 이거게 이거 ᄉᆞ못 아래 흑이 다락다락허고. 정진 ᄒᆞ꼼 메왕 정지도. 정지도 흑 정지주게. 경헷주게. 마리 아래도 흑이고.(에이, 옛날은 밑에 뭐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이거 사뭇 아래 흙이 다락다락하고. 부엌은 조금 메워서 부엌도. 부엌도 흙 부엌이지. 그랬지. 마루 아래도 흙이고.)

108001 @ 마리 아래로 흑이고.(마루 아래로 흙이고.)

108001 #2 으, 이젠 세멘[289] 허는디.(으, 이젠 시멘트 하는데.)

108001 @ 게민 담 다와 낭 지둥 세왕?(그럼 담 쌓고 나서 기둥 세워서?)

108001 #2 지둥 세왕, 지둥도 네 밧디 세와 놩 이제 거 서리 걸쳥. 이거 이제 상양이엔 헌 거 허여. 상양은 이거 포 그거 베, 베 허영 ᄃᆞᆨ 잡앙 베에 무껑 상양험젠 허민 그 상양에 강 ᄃᆞᆨ 더가리 톡 그차 게민 그 권당덜은 다 돈. 이제 거트민 만 원이주만은 그때 천 원, 이천 원 다 돈 그 베에 감앙 올려.(기둥 세워서, 기둥도 네 군데 세와 놓고 이제 거 서까래 걸쳐서. 이거 이제 상량이라고 하는 거 해. 상량은 이거 들보 그거 바, 바 해서 닭 잡아서 바에 묶어서 상량한다고 하면 그 상량에 가서 닭 대가리 톡 끊어서 그럼 그 권당들은 다 돈. 이제 같으면 만 원이지만 그때 천 원, 이천 원 다 돈 그 바에 감아서 올려.)

108001 @ 으.(으.)

108001 #2 겐 그건 목시 직시로.(그래서 그건 목수 몫으로.)

108001 @ 음. 상량식, 상량식 허는 게 그것과?(음. 상량식, 상량식 하는 게 그겁니

289) '세멘'은 일본어 'セメン'으로 시멘트를 말한다.

까?)

108001 #2 으게. 산양식 이 집 지둥에 허영 듹 그 베에 듹 무껑 쫙 끗엉 산양 꼭대기에 강 탁 허게 이제 도치로 듹 야개기 끄차.(으. 상량식 이 집 기둥에 해서 닭 그 바에 닭 묶어서 쫙 끌어서 상량 꼭대기에 가서 탁 하게 이제 도끼로 닭 모가지 끊어.)

108001 @ 음.(음.)

108001 #2 겐 털어져. 겐 그다음에 돈 다 그 봉투로 올려야 뒈여. 경 허여 산양 헐 때.(그래서 떨어져. 그래서 그다음에 돈 다 그 봉투로 올려야 돼. 그렇게 해 상량할 때.)

108001 @ 예. 게민 그거 다 헤 난 다음에.(예. 그럼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108001 #2 경혜영 그 산양식 허영, 그 목시가 그거 산양헌 다음 그다음 존 서리 걸치주게.(그래서 그 상량식 해서, 그 목수가 그거 상량한 다음 그다음 잔 서까래 걸치지.)

108001 @ 존 서리.(잔 서까래.)

108001 #2 존 서리.(잔 서까래.)

108001 @ 서리, 서리.(서까래, 서까래.)

108001 #2 서리 걸쳐 논 다음 이제 그 서리 우이도 이제 뭐, 옛날은 숨부기엔 헌 걸로 허고 존 걸로 새 아이 새게 헤나서게. 겐 그레 또 이제 흑 놔. 그 지붕 우이도 흑 놩 이제 새 더꺼야주게.(서까래 걸쳐 놓은 다음 이제 그 서까래 위에도 이제 뭐, 옛날은 순비기나무라고 하는 걸로 하고 잔 걸로 띠 안 새게 했었어. 그래서 그리 또 이제 흙 놔. 그 지붕 위에도 흙 놔서 이제 띠 덮어야지.)

108001 @ 으.(으.)

108001 #2 경헨 또 안틸로 개벡허고 그 우이로도 개벡허고 게난 서리 우리 숨부게기, 숨부게기나 대나 허영 이거 놔사 이거 흑 놀 거 아니게.(그래서 또 안으로 새벽하고 그 위로도 새벽하고 그러니까 서까래 우리 순비기나무, 순비기나무나 대나 해서 이거 놔야 이거 흙 놓을 거 아니.)

108001 @ 예.(예.)

108001 #2 경허영 놔. 옛날은.(그렇게 놔. 옛날은.)

108001 @ 아, 숨부기 허당.(아, 순비기나무 해다가.)

108001 #2 바닷가에 숨부게기엔 허는 것이 잇어.(바닷가에 순비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

108001 @ 바닷가마씨.(바닷가요.)

108001 #2 바닷가에 숨부게기엔 헌 거 옛날엔 그걸로 구덕도 다 줄아서.(바닷가에 순비기나무라고 하는 거 옛날엔 그걸로 바구니도 다 결었어.)

108001 @ 아, 그거 풀이과?(아, 그거 풀입니까?)

108001 #2 낭거치 벋어 가멍 잇어.(나무 같이 벋어 가면서 있어.)

108001 @ 아, 낭 거치 벋어 가는 거.(아, 나무 같이 벋어 가는 거.)

108001 #2 그걸로나 대로나 허영 영 서리 우이 놔사 이제 흑 놓은 거 아니. 흑 놩 이제 그 무시거 집 일 거주게.(그거로나 대로나 해서 이렇게 서까래 위에 놔야 이제 흙 놓은 거 아니. 흙 놔서 이제 그 무엇 집 일 거지.)

108001 @ 삼춘은 집 짓어난 경험이 과수원허고?(삼촌은 집 지었던 경험이 과수원하고?)

108001 #2 과수원.(과수원.)

108001 @ 또 아까 신흥리?(또 아까 신흥리?)

108001 #2 신흥린[290] 저 초가집 이제 그 저 그거 짓으멍 고쳣주기게.(신흥동은 저 초가집 이제 그 저 그거 지으면서 고쳤지.)

108001 @ 과수원 짓으멍 고친 거?(과수원 지으면서 고친 거?)

108001 #2 으. 겐 풀아 불어.(으. 그래서 팔아 버렸어.)

108001 @ 으, 경헌 거.(으, 그런 거.)

108001 #2 초가집이랏주게.(초가집이었지.)

108001 @ 초가집.(초가집.)

108001 #2 초가집 헤끄만헌 거. 구둘 하나 부엌 요만이헌 거. 첨 정지에 구둘 새끼 요만이 하나 마루 하나. 마루도 이추룩 길죽길죽헌 거라게, 네귀반득 네귀반득 헌 마루 허영 옛날 쓰레박으로 저 쓸지 안 허영 마루 고망더레 다 디밀어.(초가집 조그마한 거. 방 하나 부엌 요만한 거. 참 부엌에 방 새끼 요만큼 하나 마루 하나. 마루도 이처럼 길쭉길쭉한 거야, 네모반듯 네모반듯한 마루 해서 옛날 쓰레받기로 저 쓸지 않고 마루 구멍으로 다 디밀어.)

108001 @ 하하하. 알아지쿠다. 니귀반득 니귀반득.(하하하. 알겠습니다. 네모반듯 네모반듯.)

108001 #2 아니, 이제도 요디 경헌 마루 잇어.(아니, 이제도 여기 그런 마루 있어.)

108001 @ 아, 아직도.(아, 아직도.)

108001 #2 그 마리 잇어.(그 마루 있어.)

108001 @ 그, 그 신흥리 집은 언제까지 살아난 거?(그, 그 신흥리 집은 언제까지 살았던 거?)

108001 #2 우리가 그거 오십, 오십아홉에. 아니 서른아홉 때 저기 풀아실 거라. (우리가 그거 오십, 오십아홉에. 아니 서른아홉 때 저기 팔았을 거야.)

108002 @ 예. 집 종류에는 뭐, 뭐가 잇수과? 집 종류?(예. 집 종류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집 종류?)

108002 #2 초가집 쓰레뜨집. 옛날에사 초가집베끼 더 셔게.(초가집 슬레이트집. 옛날에야 초가집밖에 더 있어.)

108002 @ 초가집예.(초가집요.)

108002 #2 찍으로도 일고 새로도 일고.(짚으로도 이고 띠로도 이고.)

108002 @ 초가집 지붕 찍으로도 일어?(초가집 지붕 짚으로도 이어?)

108002 #2 새 엇인 사름 찍으로도 일엇주게.(띠 없는 사람 짚으로도 이었지.)

108002 @ 찍 금방 썩어 불지 안 허여.(짚 금방 썩어 버리지 않아.)

290) 여기서 '신흥리'는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의 '신흥동'을 가리킨다. 조사자가 '신흥동'을 '신흥리'로 잘못 물었는데 이를 받아 대답하였다.

108002 #2 경헤도 저 육지도 다 찍으로 일언게. 이딘 새로 일어도. 육진 거의 다 찍으로 일어.(그래도 저 육지도 다 짚으로 이어. 여긴 띠로 이어도. 육진 거의 다 짚으로 이어.)

108002 @ 옛날엔 거의 초가집이라서예. 초가집이렌 골앗수과, 초집이렌 골앗수과?(옛날엔 거의 초가집이었지요. 초가집이라고 말했습니까, 초가집이라고 말했습니까?)

108002 #2 초집, 초집.(초가집, 초가집.)

108002 @ 초집이라서예. 지에집 엇어낫수과?(초가집이었지요. 기와집 없었습니까?)

108002 #2 지에집 어쩌다가 저 용당[291]은 하나 잇어낫어.(기와집 어쩌다가 저 용당은 하나 있었어.)

108002 @ 이 신창은?(이 신창은?)

108002 #2 신창도 몰라. 잘 엇어실 거라. 아, 요 첨 맞아 달셈이 하르방네 집 요 멧 년 전이사. 차부 엠에. 달셈이 하르방 지와집 잇어난.(신창도 몰라. 잘 없었을 거야. 아, 요 참 맞아 달삼이 할아버지네 집 요 몇 년 전이야. 정류소 옆에. 달삼이 할아버지 기와집 있었어.)

108002 @ 뭔 하르방?(뭔 할아버지?)

108002 #2 달셈이 하르방.(달삼이 할아버지.)

108002 @ 아, 달셈이 하르방.(아, 달삼이 할아버지.)

108002 #2 그디 기와집이라난. 이제 그거 내리와 덩 이제 저 쓰레트, 양철 올령 우리 사춘 시아주방네 살아.(거기 기와집이었어. 이제 그거 내려 두고 이제 저 슬레이트, 양철 올려서 우리 사촌 시아주버니네 살아.)

108002 @ 으.(으.)

108002 #2 그 기와 싹 내리와 덩.(그 기와 싹 내려 두고.)

108002 @ 기와렌 헷수과, 지에렌 헷수과?(기와라고 했습니까, '지에'라고 했습니까?)

108002 #2 지에, 지에.('지에', '지에'.)

108002 @ 옛날에 지에렌 헨예.(옛날에 '지에'라고 했지요.)

108002 #2 아니, 기와집, 기와집 헷주.(아니, 기와집, 기와집 했지.)

108002 @ 기와집이렌 헨?(기와집이라고 했어?)

108002 #2 으, 기와집이렌 헤나서.(으, 기와집이라고 했었어.)

108002 @ 기민 집채에도 영 종류가 잇을 거 아니? 예를 들면 삼칸집도 잇을 거고?(그럼 집채도 이렇게 종류가 있을 거 아니? 예를 들면 삼간집도 있을 거고?)

108002 #2 삼칸집, ᄉᆞ칸집[292].(삼간집, 사간집.)

108002 @ ᄉᆞ칸집도 잇고. 이칸집도 이십니까?(사간집도 있고. 이간집도 있습니까?)

108002 #2 게게. 건 이단 막살이.(그래. 건 이단 오막살이.)

108002 @ 무슨 막살이?(무슨 오막살이?)

108002 #2 이단 막살이.(이단 오막살이.)

---

291) '용당'은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를 말한다.

292) 'ᄉᆞ칸집'은 네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108002 @ 이단 막살이. 이거는 두 칸 집이고?(이단 오막살이. 이건은 두 칸 집이고?)

108002 #2 으, 이단 막살이. 삼칸집은 마리, 부엌, 구들 경허민 삼칸집. ᄉᆞ칸집은 구들이 두 개.(으, 이단 오막살이. 삼간집은 마루, 부엌, 방 그러면 삼간집, 사간집은 방이 두 개.)

108002 @ 음. ᄉᆞ칸집은 구들이 두 개.(음. 사간집은 방이 두 개.)

108002 #2 으.(으.)

108002 @ 게민 이거는 삼칸집이 뒈쿠다예?(그럼 이거는 삼간집이 되겠네요?)

108002 #2 으, 삼칸집. 아니 게난 옛날은 이거 방 막 ᄋᆞ라 개가 아니고 이거 이디 부엌 허민 이거 마리 허민 이거 구들. 경헤민 이제 삼칸집.(으, 삼간집. 아니 그러니까 옛날은 이거 방 아주 여러 개가 아니고 이거 여기 부엌 하면 이거 마루 하면 이거 방. 그러면 이제 삼간집.)

108002 @ 예.(예.)

108002 #2 ᄉᆞ칸집은 이디 이거 부엌 허고 이거 마루 허고 이디 구들 허영 구들에 또 저짝에 부엌 허민 이제 ᄉᆞ칸집.(사간집은 여기 이거 부엌 하고 이거 마루 하고 여기 방 해서 방에 또 저쪽에 부엌 하면 이제 사간집.)

108002 @ ᄉᆞ칸집 허고.(사간집 하고.)

108002 #2 게난 청방 잇고 청방에, 청방 반착 구들 반착 허고 허여낫주.(그러니까 청방 있고 청방에, 청방 반쪽 방 반쪽 하고 했었어.)

108002 @ 청방이 뭐 허는 디라?(청방이 뭐 하는 데야?)

108002 #2 청방은 영 구들 반착 허는 이디 청방이라.(청방은 이렇게 방 반짝 하는 여기 청방이야.)

108002 @ 게민 그디서 주로 뭐 헙니까, 청방에서?(그럼 거기서 주로 뭐 합니까, 청방에서?)

108002 #2 뭣은 안 헤도 거.(뭐는 안 해도 거.)

108002 @ 청방 옆이가 정지가 뒐 거?(청방 옆이 부엌이 될 거?)

108002 #2 으, 정지. 게난 마리 넘엉 이거, 이거 허믄 이거 구들 허믄 이건 청방 헹 또 저디 부엌 헷주게.(으, 부엌. 그러니까 마루 넘어서 이거, 이거 하면 이거 방 하면 이건 청방 해서 또 저기 부엌 했지.)

108002 @ 으. 부엌도 옛날엔 정지렌 ᄀᆞᆯ아서예?(으. 부엌도 옛날엔 '정지'라고 말했지요?)

108002 #2 정지주게.('정지'지.)

108002 @ 예, 게난 옛날말로 ᄀᆞᆯ아줍서.(예, 그러니까 옛날말로 말해 주세요.)

108002 #2 정지. 정지주게.(부엌. 부엌이지.)

108004 @ 게민 삼칸집 짓젠 허민 아까, 삼칸집 짓젠 허민 아까 ᄀᆞᆯ아난 건디 한 번 쭉 허게 다시 한 번 ᄀᆞᆯ아줍서. 삼칸집 짓는 과정을?(그럼 삼간집 지으려고 하면 아까, 삼간집 지으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건데 한 번 쭉 하게 다시 말해 주세요. 삼간집 짓는

과정을?)

108004 #2 게, 그자 서리 담 다 놩. 또 이제 지둥 세왕, 지둥 세왕 이제 그 상냥 허영 상냥 듹 데강이 끈친 건 이제 그 뭣고 이 지둥 아래 묻곡게. (그래, 그저 서까래 담 다 쌓아 놓고. 또 이제 기둥 세워서, 기둥 세워서 이제 그 상량해서 상량 닭 대가리 끊은 건 이제 그 뭐지 이 기둥 아래 묻고.)

108004 @ 묻어?(묻어?)

108004 #2 묻어게. 경허고 또 그 친촉덜이나 그 주인은 돈 봉투 허영 올리믄, 돈 이제 거트믄 돈 만 원, 이만 원 헹 올리믄 그걸로 이제 목수덜 수건 상 쓰곡 헷주기게. 옛날엔.(묻어. 그리고 또 그 친척들이나 그 주인은 돈 봉투 해서 올리면, 돈 이제 같으면 돈 만 원, 이만 원 해서 올리면 그걸로 이제 목수들 수건 사서 쓰고 했지. 옛날엔.)

108003 @ 으, 그 우리 집에 삼칸집 허민 삼칸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안거리도 있고 밧거리도 있잖아.(으, 그 우리 집의 삼간집 하면 삼간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안채도 있고 바깥채도 있잖아.)

108003 #2 밧거리도 잇이는 집 잇고 어시는 집 엇고. 옛날엔 잘 엇어.(바깥채도 있는 집 있고 없는 집 없고. 옛날엔 잘 없어.)

108003 @ 잘 엇어.(잘 없어.)

108003 #2 ᄀᆞ시락 막 잇주게. 쉐막 잇고, 쉐 질루난. 쉐막, ᄀᆞ시락 막. ᄀᆞ시락 막은 ᄀᆞ시락 놩, 보리 장만헤난 ᄀᆞ시락.(까끄라기 많이 있지. 외양간 있고, 소 기르니까. 외양간, 까끄라기 막. 까끄라기 막은 까끄라기 놔서, 보리 장만했던 까끄라기.)

108003 @ 예.(예.)

108003 #2 그걸로 굴묵[293] 짇어살 거 아니?(그걸로 '굴묵' 때야 할 거 아니?)

108003 @ 예.(예.)

108003 #2 겨난 그 ᄀᆞ시락막, 쉐막.(그러니까 그 까끄라기 막, 외양간.)

108003 @ 아, 밧거리 따로 안 뒁.(아, 바깥채 따로 안 두고.)

108003 #2 아니 밧거리 이신 디도 잇고게.(아니 바깥채도 있는 데도 있고.)

108003 @ 예.(예.)

108003 #2 이신 디도 잇고 엇인 디도 잇고 경허난 주로 옛날엔 밧거리 이신 집은 벨로 하지 안헷주게. ᄀᆞ시락 막, 쉐막은 잇어도.(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옛날엔 바깥채 있는 집은 별로 많지 않았지. 까끄라기 막, 외양간은 있어도.)

108003 @ 그거 혹시 모커리엔 헌 것도 잇어낫수과?(그거 혹시 곁채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까?)

108003 #2 모커린게 밧거리엔도 허고 모커리엔도 허여. 경허난 영 바로 앚으민 밧거리, 모커린 영 옆더레 앚으민 모커리.(곁채는 바깥채라고도 하고 곁채라고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앉으면 바깥채, 곁채는 이렇게 옆으로 앉으면 곁채.)

108005 @ 집 짓을 때 저기 주춧돌을 놉니까?(집 지을 때 저기 주춧돌을 놓습니까?)

108005 #2 주춧돌 놔사 지둥 세울 거 아니게.(주춧돌 놔야 기둥 세울 거 아니.)

293)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8005 @ 게민 지둥 밑에는 들어가는 게 주춧돌이라.(그럼 기둥 밑에는 들어가는 게 주춧돌이야.)

108005 #2 주춧돌게.(주춧돌.)

108005 @ 예. 들보는 뭐과, 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과?(예. 들보는 뭡니까, 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108005 #2 거, 대들보엔 헨 게 산양 그거.(거, 대들보라고 하는 게 상량 그거.)

108005 @ 산양이엔 헌 게?(상량이라고 한 게?)

108005 #2 이 우이 거.(이 위에 거.)

108005 @ 길쭉허게?(길쭉하게?)

108005 #2 으, 그거 대들보.(으, 그거 대들보.)

108005 @ 대들보. 도리는 어느 거?(대들보. 도리는 어느 거?)

108005 #2 도리는 다 도리 도리 뭐 허난 도리. 니귀에 도리고.(도리는 다 도리 도리 뭐 하니까 도리. 네 귀에 도리고.)

108005 @ 서리는?(서까래는?)

108005 #2 서리는 이제, 이젠 다 이런 거 허영 걸쳐. 쭉 돌아가멍 대들보 걸쳥 그거 헤 논 다음은 서린 쭉 걸쳐야 뒐 거 아니? 경 서리 걸친 다음은 대로 이제 예껑 대로나 숨부게기로 예껑 우이 끌앙 또 그 우이 흑 놔.(서까래는 이제, 이젠 다 이런 거 해서 걸쳐. 쭉 돌아가면서 대들보 걸쳐서 그거 해 놓은 다음은 서까랜 쭉 걸쳐야 될 거 아니? 그렇게 서까래 걸친 다음은 대로 이제 엮어서 대로나 순비기나무로 엮어서 위에 깔아서 또 그 위에 흙 놔.)

108005 @ 으.(으.)

108005 #2 경혜영 그 우이 또 그 초가집 더꺼야주게.(그래서 그 위에 또 초가집 덮어야지.)

108006 @ 개위는 어디과, 개위?(개위는 어딥니까, 개위?)

108006 #2 개위가 뭣이라?(개위가 뭐야?)

108006 @ 몰라? 그럼 천아반은?(몰라? 그럼 천장은?)

108006 #2 천아반은게 이게 천아반 아니게?(천장은 이게 천장 아니?)

108006 @ 어느 거?(어느 거?)

108006 #2 이거 이거 천아반게.(이거 이거 천장.)

108006 @ 바로 우에가?(바로 위에가?)

108006 #2 으, 천아반.(으, 천장.)

108006 @ 이걸 천아반이렌 허는 거.(이걸 천장이라고 하는 거.)

108006 #2 이 이불 놓는 딘 벡장게.(이 이불 놓는 덴 벽장.)

108006 @ 이불 놓는 딘 벡장예.(이불 놓는 덴 벽장요.)

108006 #2 굴묵 짇는 딘 굴묵.(‘굴묵’ 때는 덴 ‘굴묵’.)

108006 @ 예.(예.)

108006 #2 천아반. 이거 천아반 아니. 이젠 천장이주만은 옛날은 천아반게.(천장. 이

거 천장 아니. 이젠 천장이지만 옛날은 '천아반'이야.)

108006 @ 예, 그디를 천아반이렌 헐 거. 산자나 웨는?(예, 거기를 '천장'이라고 할 거. 산자나 외는?)

108006 #2 산제가 뭣이라? 아, 산제. 저 집 짓을 때 산제허는 거?(산제가 뭐야? 아, 산제. 저 집 지을 때 산제하는 거?)

108006 @ 예.(예.)

108006 #2 으게. 집 짓을 때 산제헤사주게. 집짓기 전에. 집짓기 전에 산제헤 놩 집 짓어. 토신제 산제헤 놩 집 짓어.(그래. 집 지을 때 산제해야지. 집짓기 전에. 집짓기 전에 산제해 놓고 집 지어. 토신제 산제해 놓고 집 지어.)

108006 @ 제사 얘기헐 때 그거 말고.(제사 얘기할 때 그거 말고.)

108004 #2 집짓기 전이 땅안티 토신제, 산제허여.(집짓기 전에 땅한테 토신제, 산제해.)

108004 @ 제사를 지내고 나서?(제사를 지내고 나서?)

108004 #2 제사 말고. 제사 말고 땅신디 이제 우리 집 짓을 거다 곧는 거 산제.(제사 말고. 제사 말고 땅에게 이제 우리 집 지을 거다 말하는 거 산제.)

108004 @ 음.(음.)

108004 #2 산제, 산제는 저 산에 강 허는 거 산제, 이 저 집 짓을 때 허는 건 토신제 토신제. 토신제 헐 땐 이 밥도 고기도 생체로 다 올렴실 거라.(산제, 산제는 저 산에 가서 하는 거 산제, 이 저 집 지을 때 하는 건 토신제 토신제. 토신제 할 땐 이 밥도 고기도 생짜로 다 올리고 있을 거야.)

108004 @ 경헨 여기에 서리덜 다 헤 가지고 흑 불르젠 허민 흑을 막 서꺼야 헐 거 잖아예?(그래서 여기에 서까래들 다 해 가지고 흙 바르려고 하면 흙을 마구 섞어야 할 거잖아요?)

108004 #2 으, 게난 쉐로 불라.(으, 그러니까 소로 밟아.)

108004 @ 흑은 미릿, 미릿 헤 오는 거?(흙은 미리, 미리 해 오는 거?)

108004 #2 흑은 헤당 그레 마당에서, 마당에 흑 막 놔. 그레 보리낭 놔. 동네 사름덜 물 질어당 비우민 그레 쉐로 불르멍 쉐시렁으로 영 영 뒈씨고. 쉐시렁으로 뒈싸. 동네 사름덜이 다 개벡질도 허고 헷주기게.(흙은 해다가 그리 마당에서, 마당에 흙 마구 놔. 그리 보릿짚 놔. 동네 사람들 물 길어다가 비우면 그리 소로 밟으면서 쇠스랑으로 이렇게 이렇게 뒤집고. 쇠스랑으로 뒤집어. 동네 사람들이 다 새벽질도 하고 했지.)

108004 @ 개벡질도 허고.(새벽질도 하고.)

108004 #2 물도 동네 사름덜이 질어다 줘야 허는 거고. 다 수눌어 가멍 허는 거니까.(물도 동네 사람들이 길어다 줘야 하는 거고. 다 품앗이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108004 @ 게민 동네 사름덜이 모영 허는 날은 그거 개벡허는 날이과?(그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날은 그게 새벽하는 날입니까?)

108004 #2 으, 개벡허여사주.(으, 새벽해야지.)

108004 @ 동네에서 다 와?(동네에서 다 와?)

108004 #2 동네에서 삼미[294]들이 다 왕 허여. 삼미 사름덜. 게난 개벡허는 날 무신 볼 일 잇어도 그거 흔디 헤 주젠 안 가주게. 이제 거트민 잔치 때 심부름헤 주젠 안 가는 식으로.(동네에서 '삼미'들이 다 와서 해. '삼미' 사람들. 그러니까 새벽하는 날 무슨 볼 일 있어도 그거 같이 해 주려고 안 갔지. 이제 같으면 잔치 때 심부름해 주려고 안 가는 식으로.)

108004 @ 으.(으.)

108004 #2 경헤야 뒈여. 경 안 허민 어떵헨 허여. 경허고 그거 그 쉐스렁으로 흑 불른 것덜 또 뒈싸 놩 불르고 그냥 불르고 헤사. 게난 영 날라다 주는 사름 싯고. 그때사 뭐 어디 바가쓰 뭐 셔게. 가멩이테기 낭께기 영 헹 들러당 그거 불라주고. 가멩이 허믄 낭 영 놓믄 가멩이레 놩 너이가 들러. 첨 둘이가 들러. 저짝에 낭께기 두 개 들르고 이짝에 두 개 들르고 ᄋᆞ져가민 또 불르고 불르고 헤 줫주게. 겐 흔 사름은 영 영 헹 주고 흔 사름은 착 불르고 허멍.(그래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서 해. 그리고 그거 그 쇠스랑으로 흑 밟은 것들 또 뒤집어 놔서 밟고 그냥 밟고 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날라다 주는 사람 있고. 그때야 뭐 어디 바케쓰가 뭐 있어. 가마니 나뭇가지 이렇게 해서 들어다가 그거 밟아 주고. 가마니 하면 나무 이렇게 놓으면 가마니에 놔서 넷이 들어. 참 둘이 들어. 저쪽에 나뭇가지 두 개 들고 이쪽에 두 개 들고 가져가면 또 밟고 밟고 해 줬지.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한 사람은 착 바르고 하면서.)

108004 @ 사름 막 하난 밖에 영 불르는 사람 그거 불르는 사람.(사람 아주 많으니까 밖에 이렇게 바르는 사람 그거 바르는 사람.)

108004 #2 날르는 사름 헤사주.(나르는 사람 해야지.)

108004 @ 불르는 사름.(바르는 사람.)

108004 #2 경 날라 주고 게난 ᄋᆞ라이 헤야주. 겨난 그 흑 일 때도 새로 막 불라야 허고. 그거 흑을 불라야 문작헐 거 아니?(그렇게 날라 주고 그러니까 여럿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 흙 일 때도 새로 마구 밟아야 하고. 그거 흙을 밟아야 문적할 거 아니?)

108004 @ 예.(예.)

108004 #2 경헨 처음은 보리낭 놩 허영. 매뜨글락허게 허젠 헐 땐 ᄀᆞ스락 놩 허여. 경 안 허민 또 보리낭을 작두로 썰엉을 허던가. 경허영 헤낫주게.(그래서 처음은 보릿짚 놔서 해서. 매끈하게 하려고 할 땐 까끄라기 놔서 해. 그렇게 안 하면 또 보릿짚을 작두로 썰어서 하던가. 그렇게 했었지.)

108004 @ 아, 보리낭 썰엉?(아, 보릿짚 썰어서?)

108004 #2 으, 썰어근에 즘진즘진허게 헤사 매뜨글랑허게. 그 보리낭이나 안 놓민 잘 안 부떠. 경헤야 잘 부뜨주.(으, 썰어서 잘디잘게 해야 매끈하게. 그 보릿짚이나 안 넣으면 잘 안 붙어. 그래야 잘 붙지.)

108004 @ 흑은 어디 강 헤 왓수과?(흙은 어디 가서 해 왔습니까?)

108004 #2 그땐 흑이 하. 이디저디. 이제사 흑덜이 어렵주. 막 내분 디덜 밧덜도게 그 에엠에도 막 하고.(그땐 흙이 많아. 여기저기. 이제야 흙들이 어렵지. 아주 내버린 데

294) '삼미'는 집 울타리 세 면에 인접한 이웃을 말한다.

들 밭들도 그 옆에도 아주 많고.)

108004 @ 게민 놈의 밧디 강?(그럼 남의 밭에 가서?)

108004 #2 아니.(아니.)

108004 @ 놈의 밧은 아니고 질레에 영 파는 디덜이 잇어나서, 다.(남의 밭은 아니고 길에 이렇게 파는 데들이 있었어, 다.)

108004 #2 밧덜 이제덜은 허멍 뭣 허멍 다 흑 파멍 헤 부난 헤도. 막 질레 거 파멍 헤당 헤 부난 헤도. 팔월 나민 이런 디 고망 뚤라진 디 중이고망덜 다 흑 파당 막앗주게. 멩질 때 뒈민 그거 허젠.(밭들 이제들은 하면서 뭐 하면서 다 흙 파면서 해 버리니까 해도. 마구 길에 거 파면서 해다가 해 버리니까 해도. 팔월 되면 이런 데 구멍 뚫린 데 쥐구멍들 다 흙 파다가 막았지. 명질 때 되면 그거 하려고.)

108004 @ 게민 흑 영 불를 때 지붕에도 불라야 헐 거 아니?(그럼 흙 이렇게 바를 때 지붕에도 발라야 할 거 아니?)

108004 #2 게난 그 깃새 서리 그 숨부게기나 대나 놩 예꺼근에 그 우에 지붕에 흑 불라야주게. 겐 또 안터레도 불르고. 맨뜨글락허게.(그러니까 그 아까 서까래 그 순비기나무나 대나 놔서 엮어서 그 위에 지붕에 흙 발라야지. 그래서 또 안으로 바르고. 매끈하게.)

108004 @ 게민 그거 사람이 다 올려?(그럼 그거 사람이 다 올려?)

108004 #2 게 올려사주.(그래 올려야지.)

108004 @ 아.(아.)

108004 #2 게난 그때 그거 허영 사다리, 사다리. 낭으로 영 영 사다리 허영 그거 허영 올라가. 그거 허영 지게로도 정도 올라가고 그추룩도 헹 올라가고. 그레 막 올렷주게.(그러니까 그때 그거 해서 사다리, 사다리.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 해서 그거 해서 올라가. 그거 해서 지게로도 져서도 올라가고 그처럼도 해서 올라가고. 그리 마구 올렸지.)

108004 @ 음.(음.)

108004 #2 사다리 놩.(사다리 놔서.)

108004 @ 그 흑 바를 때 다 손으로 헷수과, 아니면?(그 흙 바를 때 다 손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108004 #2 손으로게. 손으로 허영 저 두 불 개벡만 저 뭣고 쒜손. 쒜손으로 헷주.(손으로. 손으로 해서 저 두 벌 새벽만 저 뭐지 쇠손. 쇠손으로 했지.)

108004 @ 그때.(그때.)

108004 #2 이제 닮지 안허영 옛날이야 다 손으로 허주.(이제 같지 않아서 옛날에야 다 손으로 하지.)

108004 @ 그 쒜손은 옛날에 쒜손이 나와나서, 아니면 나무로 만들아서?(그 쇠손은 옛날에 쇠손이 나왔었어, 아니면 나무로 만들어서?)

108004 #2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잇고 쒜손도 잇어서, 옛날도.(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쇠손도 있었어, 옛날도.)

108004 @ 쒜손도 잇어서.(쇠손도 있었어.)

108004 #2 쒜손, 개벡헐 때 저 나무로 멘든 쒜손도 하영 써.(쇠손, 새벽할 때 저 나무로 만든 쇠손도 많이 써.)

108004 @ 나무로 멘든 것도 쒜손이렌 헙니까?(나무로 만든 것도 쇠손이라고 합니까?)

108004 #2 겐디 이 저 쎄멘[295] 헐 때 다 쒜손으로 허고 나무로 멘든 쒜손덜이 핫주게.(그런데 이 저 시멘트 할 때 다 쇠손으로 하고 나무로 만든 쇠손들이 많지.)

108004 @ 걸 낭손이렌은 안 불럿수과?(걸 '낭손'이라고는 안 불렀습니까?)

108004 #2 어. 낭손[296]이사 낭손이고 쒜손은 쒜손이고.(어. '낭손'이야 '낭손'이고 쇠손은 쇠손이고.)

108004 @ 쒜손은 쒜손예. 이 밑에는 뭐 받탕 안 헨?(쇠손은 쇠손요. 이 밑에는 뭐 받쳐서 안 했어?)

108004 #2 널짝게. 영 허영.(널판지. 이렇게 해서.)

108004 @ 널짝예.(널판지요.)

108004 #2 영 헐 때 영 올리는 거.(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올리는 거.)

108004 @ 으, 그거 영 거령. 방에, 이제 방 들어가보쿠다. 방에는?(으, 그거 이렇게 떠서. 방에, 이제 방 들어가보겠습니다. 방에는?)

108004 #2 남방에허고.(나무절구하고.)

108007 @ 아니, 아니. 방에 말고 방, 구들, 구들. 구들에 구들이 멧 개 이서?(아니, 아니. 방아 말고 방, 방, 방. 방에 방이 몇 개 있어?)

108007 #2 보통 하나주게. 옛날에 삼칸집.(보통 하나지. 옛날에 삼간집.)

108007 @ 아, 삼칸집이 하나.(아, 삼간집에 하나.)

108007 #2 ᄉᆞ간집은 두 개.(사간집은 두 개.)

108007 @ 두 개.(두 개.)

108007 #2 ᄉᆞ간집 ᄒᆞᆫ 동네 두 집, 시 집이나베끼 엇어서. 다 삼간집, 이간 막살이. 경헤도 아기 일곱 개 ᄋᆞ돕 개 다 ᄒᆞᆫ 집이 살앗주게.(사간집 한 동네 두 집, 세 집이나밖에 없었어. 다 삼간집, 이간 오막살이. 그래도 아기 일곱 개 여덟 개 다 한 집에 살았지.)

108007 @ 하하하.(하하하.)

108007 #2 ᄒᆞᆫ 집이 살안. 일고ᄋᆞ덥 식구가 이불 ᄒᆞᆫ 털메기[297]덜 다 살앗주. 게난 이 이불짓에 때가 빈질빈질헤난 생각나. 우리도 옛날. 우이 옷짓도 동전에도 ᄉᆞ못 빈질빈질 거멍허여. 빨랠 안 허니까게.(한 집에 살았어. 일고여덟 식구가 이불 ᄒᆞᆫ '털메기'들 다 살았지. 그러니까 이 이불깃에 때가 번질번질했던 생각나. 우리도 옛날. 위에 옷깃도 동정에도 사뭇 번질번질 거메. 빨래를 안 하니까.)

---

295) '쎄멘'은 일본어 'セメン'으로 시멘트를 말한다.

296) '낭손'은 흙일을 할 때에, 이긴 흙을 떠서 바르고 그 겉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나무로 만든 연장을 말한다.

297) 여기서 '털메기'는 한데 뭉치거나 말거나 감은 덩이라는 '뭉치'의 의미로, '이불 ᄒᆞᆫ 털메기덜 살앗주'는 '(여러 식구가) 이불 하나에 살았지'라는 의미다. ㅣ

108007 @ 예.(예.)

108007 #2 물이 엇언게, 물이. 이제난 물이 영 흔허주. 옛날에 ᄀᆞᆯ른 물 질어당 먹고 헷주.(물이 없었어, 물이. 이제니까 물이 이렇게 흔하지. 옛날에 고인 물 길어다가 먹고 했지.)

108007 @ 게민 사칸집이렌 허민 방이 두 개난 하나는 큰구들이렌 허고?(그럼 사간집이라고 하면 방이 두 개니까 하나는 큰방이라고 하고?)

108007 #2 으.(으.)

108007 @ 다른 거는?(다른 거는?)

108007 #2 이짝은 무신 온돌방이엔 허멍, 거의 ᄉᆞ칸집은 거의 다 그땐이 구들 때여서. 이 큰구들은 이제 굴묵 짇고 ᄉᆞ간집은 솟 걸엉. 솟 걸엉 이제 불 솜으민 ᄯᅳᆺ뜻허여.(이쪽은 무슨 온돌방이라고 하면서, 거의 사간집은 거의 다 그땐 방 땠어. 이 큰방은 이제 '굴묵' 때고 사간집은 솥 걸어서. 솥 걸어서 이제 불 때면 따뜻해.)

108007 @ 아, 족은방은, 족은구들은?(아, 작은방은, 작은방은?)

108007 #2 으, 게난 그런 집이 우리 성골왓[298]도 하나 잇고 용당[299]도 저 누게네 집이 하나 잇어나서. 게난 우리도 애기 ᄃᆞᆯ앙 그 순자 어멍네 집이 그디만 놀레 가나서. ᄯᅳᆺ뜻헌 집이.(으, 그러니까 그런 집이 우리 '성골왓'도 하나 있고 용당도 저 누구네 집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아기 데려서 그 순자 어머니네 집에 거기만 놀러 갔었어. 따뜻한 집에.)

108007 @ 큰구들은 역불로 굴묵 짇어나고.(큰방은 일부러 '굴묵' 땠었고.)

108007 #2 굴묵 짇어야 뒈고.('굴묵' 때야 되고.)

108007 @ 여기는?(여기는?)

108007 #2 솟 걸엉. 저 솟 거는 사름이 경 아무나 엇엉게. 그 구들 노는 사름이. 경허난 그디 밥헤 나민 ᄯᅳᆺ뜻허여. 게난 ᄉᆞ칸집 신 집은 ᄒᆞᆫ 동네 ᄒᆞ나 두 개.(솥 걸어서. 저 솥 거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나 없어서. 그 방 놓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밥하고 나면 따뜻해. 그러니까 사간집 있는 집은 한 동네 하나 두 개.)

108007 @ 음.(음.)

108007 #2 성굴왓도 이젠 진순자 어멍네 집이. 진순자가 나보단 ᄒᆞᆫ 두 설쯤 아래라. 게난 우리 큰아덜 난 때 그디만 ᄃᆞᆯ앙 가낫어. 얼엉게, ᄯᅳᆺ뜻허영. ᄒᆞ꼼 궨당이고 허난 그디 가민 ᄯᅳᆺ뜻허영.('성굴왓'도 이젠 진순자 어머니네 집에. 진순자가 나보단 한 두 살쯤 아래야.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낳았을 때 거기만 데리고 갔었어. 추워서, 따뜻해서. 조금 권당이고 하니까 거기 가면 따뜻해.)

108007 @ 방에는 뭐 잇수과? 구들 안에는. 저디 막 옷덜 담아 놓는 거?(방에는 뭐 있습니까? 방 안에는. 저기 마구 옷들 담아 놓는 거?)

108007 #2 궤게.(궤.)

108007 @ 궤 잇엇고예.(궤 있었고요.)

298) '성골왓'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지명의 하나다.
299) '용당'은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를 말한다.

108007 #2 궤, 보로하꼬[300].(궤, '보로하꼬'.)

108007 @ 아니, 벡장도 이실 거 아니?(아니, 벽장도 있을 거 아니?)

108007 #2 벡장에 궤 놧주게. 벡장에 궤 놓고 이불 놓고.(벽장에 궤 놨지. 벽장에 궤 놓고 이불 놓고.)

108007 @ 벡장 우이 궤 놓고 이불 놓고.(벽장 위에 궤 놓고 이불 놓고.)

108007 #2 으, 경허여.(으, 그래.)

108007 @ 여기 불 때면 굴묵 짇으면 뜨뚯헌 디를?(여기 불 때면 '굴묵' 때면 따뜻한 데를?)

108007 #2 아랫목.(아랫목.)

108007 @ 좀 썰렁헌 디는, 위쪽은?(좀 썰렁한 데는, 위쪽은?)

108007 #2 밧자리.(윗목.)

108007 @ 밧지리렌 헤?('밧자리'라고 해?)

108007 #2 안자리, 밧자리.(아래목, 윗목.)

108007 @ 윗목이렌도 헐 것과?(윗목이라고도 할 겁니까?)

108007 #2 게난 육지레 어디레 아랫목 헌디 이딘 안자리 밧자리.(그러니까 육지에 어디에 아랫목 하는데 여긴 '안자리' '밧자리'.)

108007 @ 안자리 밧자리 얘기헐 거, 예.('안자리' '밧자리' 얘기할 거, 예.)

108007 #2 이제사 아랫목 우잇목 허고.(이제야 아랫못 윗목 하고.)

108007 @ 저기 시렁도 잇어낫수과, 시렁. 방에?(저기 시렁도 있었습니까, 시렁. 방에?)

108007 #2 시렁이 뭣이라?(시렁이 뭐야?)

108007 @ 시렁. 영 선반허영.(시렁. 이렇게 선반해서.)

108007 #2 방에. 방에덜 경허는 집은 가끔 잇어.(방에. 방에들 그러는 집은 가끔 있어.)

108007 @ 시렁도 잇고예?(시렁도 있고요?)

108007 #2 부엌에가 시렁 잘 잇어. 영 보민. 방에 잘 엇고.(부엌에 시렁 잘 있어. 이렇게 보면. 방에 잘 없고.)

108007 @ 아, 방엔 잘 엇고?(아, 방엔 잘 없고?)

108007 #2 으, 부엌에, 부엌에.(으, 부엌에, 부엌에.)

108007 @ 구들보다는 정지에예?(방보다는 부엌에요?)

108007 #2 으, 정지에 잘 잇어. 막 사발덜도 어프고 허여.(으, 부엌에 잘 있어. 마구 사발들 엎고 해.)

108008 @ 예. 여기는 뭐렌 골을 것과, 여기는?(예. 여기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여기는?)

108008 #2 마리게, 마리.(마루, 마루.)

---

300) '보로하꼬'는 '넝마, 고물'이라는 의미의 일본어 'ぼろ'에 '상자'라는 의미의 일본어 '하꼬'가 결합한 말로, 사용했던 종이상자를 말한다.

108008 @ 마리렌 골앗던 거예. 옛날에는 이런 나무 마리가 아니라서예?(마루라고 말했던 거요. 옛날에는 이런 나무 마루가 아니었지요?)

108008 #2 게, 니귀반득. 흑마리도 하고게.(그래, 네모반듯. 흙마루도 많고.)

108008 @ 흑마리도 허고.(흙마루도 많고.)

108008 #2 게, 저 낭 논 마리도 것도 잘 치레헌 거. 흑마리 헌 집이 하.(그래, 저 나무 놓은 마루도 것도 잘 치레한 거. 흙마루 한 집이 많아.)

108008 @ 아, 낭 마리에는 아까 네모난 마리, 그걸 널마리엔 헙니까?(아, 나무 마루에는 아까 네모난 마루, 그걸 널마루라고 합니까?)

108008 #2 널마리.(널마루.)

108008 @ 허고. 추우난 거기에 뭐 설치헤낫지예, 불 쪼이는 거?(하고. 추우니까 거기에 뭐 설치했었지요, 불 쬐는 거?)

108008 #2 화리게, 화리.(화로, 화로.)

108008 @ 화리 말고 마리에 영 끼워진 거?(화로 말고 마루에 이렇게 끼워진 거?)

108008 #2 엇어. 화리나베끼.(없어. 화로나밖에.)

108008 @ 부섭 엇어낫수과?('부섭' 없었습니까?)

108008 #2 저 불 솜는 디 셔사 부섭[301]이주, 그거 담아당 화리에 놧주.(저 불 때는 데 있어야 '부섭'이지, 그거 담아다가 화로에 놨지.)

108008 @ 아니, 봉덕, 봉덕?(아니, '봉덕', '봉덕'?)

108008 #2 엇어.(없어.)

108008 @ 엇어?(없어?)

108008 #2 화리, 화리주. 옛날사.(화로, 화로지. 옛날에야.)

108008 @ 봉덕 이신 집 엇어나서?('봉덕' 있는 집 없었어?)

108008 #2 으, 화리에, 화리에.(으, 화로에, 화로에.)

108008 @ 화리에? 아니 다른 디 가난 마리에 돌 아예 끼워졍 잇엇덴 헙디다게.(화로에? 아니 다른 데 가니까 마루에 돌 아예 끼워져서 있었다고 합디다.)

108008 #2 겐디 우린 엇어, 이렌 엇어나서.(그런데 우린 없어, 이리는 없었어.)

108008 @ 엇어나서예. 게민 마리에 벡장도 잇어낫수과?(없었어요. 그럼 마루에 벽장도 있었습니까?)

108008 #2 마리엔 엇고 구들에 벡장이 싯주, 마리에사 벡장 셔게.(마루엔 없고 방에 벽장이 있지, 마리에야 벽장 있어.)

108008 @ 아니면 살레, 뭐 넣는 거?(아니면 찬장, 뭐 넣는 거?)

108008 #2 부엌에 살레 잇고. (부엌에 찬장 있고.)

108008 @ 게민 마리엔 뭐 아무것도 없네.(그럼 마루엔 뭐 아무것도 없네.)

108008 #2 마리엔 창고가 엇이난 보리 허민 마리에 찍각 데며. 보리 거튼 거 뭐. 게민 젤 사람 하영 뎅겨.(마루엔 창고가 없으니까 보리 하면 마루에 가득 쌓아. 보리 같은

301) '부섭'은 마루 뒤편에 마룻장 밑으로 묻어 고정시키거나 부엌 바닥에 묻어 고정시켜 놓고 삭정이나 장작 또는 콩깍지 등으로 불을 때는 화로를 말한다.

거 뭐. 그럼 제일 사람 많이 다녀.)

108009 @ 고팡은?(고방은?)

108009 #2 고방은 안방게.(고방은 '안방'이야.)

108009 @ 안방 옆이?(안방 옆에?)

108009 #2 안방이엔 허여, 고팡이.('안방'이라고 해, 고방이.)

108009 @ 아, 고팡을 안방이엔 허여?(아, 고방을 '안방'이라고 해?)

108009 #2 으.(으.)

108009 @ 게민 큰구들 옆이 고팡이 잇을 거?(그럼 큰방 옆에 고방이 있을 거?)

108009 #2 으, 큰구들 옆이 고팡. 다 삼간집인 큰구들에 영 쪼글락허게 그자 방 구들 놓고 경헨 고팡, 안방.(으, 큰방 옆에 고방. 다 삼간집엔 큰방에 이렇게 작게 그저 방 구들 놓고 그래서 고방, 고방.)

108009 @ 겐 안방에는 뭐 보관헤낫수과?(그래서 고방에는 뭐 보관했었습니까?)

108009 #2 쏠게, 쏠.(쌀, 쌀.)

108009 @ 쏠.(쌀.)

108009 #2 쏠 하간 쏠 허영 다 항에 헹 놔둬. 팔월 나민 보리 허영 문딱 그거 져, 무시거 지여, 보리썰 지여. 흔 멧 항 놔둬야 먹어. 팔월덜에 항으로. 이제 거트믄 하나토 안 먹을 건디. 흔 멧 섬썩 지영, 팔월에 지영 보리 그 항마다 ᄀᆞ득허게 놩, 종이 잘 엇이난 이런 아무 종이라도 허영 더껑 놔둬. 경헤민 좀 안 일어, 팔월에 져야.(쌀 온갖 쌀 해서 다 항아리에 해서 놔둬서. 팔월 되면 보리 해서 모두 그거 찧어, 뭐 찧어, 보리쌀 찧어. 한 몇 항아리 놔둬야 먹어. 팔월에 항아리로. 이제 같으면 하나도 안 먹을 건데. 한 몇 섬씩 찧어서, 팔월에 찧어서 보리 그 항아리마다 가득하게 넣어서, 종이 잘 없으니까 이런 아무 종이라도 해서 덮어서 놔둬. 그러면 좀 안 일어. 팔월에 찧어야.)

108009 @ 아, 팔월에 져야.(아, 팔월에 찧어야.)

108009 #2 팔월 헹 겨울 내낭 먹어서, 그 보리썰.(팔월 해서 겨울 내내 먹었어, 그 보리쌀.)

108009 @ 예.(예.)

108009 #2 보리 다, 보리 지기 전이 이 마리레 놓고. 마리에 놓고 지민 이제 안방에 항에 담주게.(보리 다, 보리 찧기 전에 이 마루에 놓고. 마루에 놓고 찧으면 이제 고방의 항아리에 담지.)

108009 @ 아, 아 경헨 먹어난 거. 게민 그 안방에 보민 거기도 조그만허게 영 뭐가 잇수과? 공기 통허렌 만들어 논 거?(아, 아 그래서 먹었던 거. 그럼 그 고방에 보면 거기도 조그맣게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공기 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108009 #2 그 고망 요만인 뚤라.(그 구멍 요만큼 뚫어.)

108009 @ 예, 그걸 뭐렌 불러낫수과?(예, 그걸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108009 #2 뭣이엔 불르는 건 몰라, 그건.(뭐라고 부르는 건 몰라, 그건.)

108009 @ 창곰이엔 안 헤난?('창곰'이라고 안 했었어?)

108009 #2 으, 창곰게, 창곰.(으, '창곰'이야, 창구멍.)

108009 @ 예, 창곰 뚤랑예.(예, 창구멍 뚫어서요.)

108009 #2 요만이 그자 문도 안 들고 요만인 뚤랑 내불어. 저 돌 하나만이 요만이 창곰 뚤랑.(요만큼 그저 문도 안 달고 요만큼 뚫어서 내버려. 저 돌 하나만큼 요만큼 창구멍 뚫어서.)

108009 @ 예.(예.)

108009 #2 두 개 뚤르는 디도 잇고 하나 뚤르는 디도 잇어.(두 개 뚫는 데도 있고 하나 뚫는 데도 있어.)

108009 @ 무사 뚤르는 거?(왜 뚫는 거?)

108009 #2 캄캄허난게. 옛날엔 전기도 엇고 허난게.(캄캄하니까. 옛날엔 전기도 없고 하니까.)

108009 @ 게난 거기 창곰 뚤라낭 헤난 거예. 경허난 거기 창곰 뚤랑 빛 들어오게 헷엇던 거라예?(그러니까 거기 창구멍 뚫어서 했던 거요. 그러니까 거기 창구멍 뚫어서 빛 들어오게 했었던 거지요?)

108009 #2 경헤사 ᄒᆞ꼼 베롱헤영[302] 베레질 거 아니.(그래야 조금 '베롱해서' 보일 거 아니

108009 @ 베롱허게.('베롱하게'.)

108009 #2 전기 엇일 때난. 불 쌍 갈 수도 엇고. 게난 영 저레 ᄒᆞ나 들고 요 옆이 ᄒᆞ나 들고.(전기 없을 때니까. 불 켜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리 하나 달고 요 옆에 하나 달고.)

108010 @ 이젠 정지에 가 보쿠다예. 정지에는 뭐가 잇어낫수과?(이젠 부엌에 가 보겠습니다. 부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108010 #2 살레베낀 더 셔게. 살레허고 솟허고 물항허곡게. 물 질어당 항에 놔사 헐 거난.(찬장밖에 더 있어. 찬장하고 솥하고 물독하고. 물 길어다가 항아리에 놔야 할 거니까.)

108010 @ 예. 게민 솟은 멧 개나 잇어낫수과?(예. 그럼 솥은 몇 개나 있었습니까?)

108010 #2 보통 네 개.(보통 네 개.)

108010 @ 보통 네 개.(보통 네 개.)

108010 #2 보통 네 개, 세 개. 막 엇인 할망, 할망덜이나 사는 디 두 개 허지 보통 큰솟, 중, 말솟[303], 다도테기[304].(보통 네 개, 세 개. 아주 없는 할머니, 할머니들이나 사는 데 두 개 하지 보통 큰솥, 중, '말솟', '다도테기'.)

108010 @ 음.(음.)

108010 #2 큰 말치.(큰 말치.)

108010 @ 큰 말치, 말치.(큰 말치, 말치.)

108010 #2 다도테기.('다도테기'.)

108010 @ 다도테기?('다도테기'?)

---

302) '베롱허다'는 불빛 따위가 희미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03) '말솟'은 한 말들이 솥을 말한다.
304) '다도테기'는 크기가 작은 솥이다.

108010 #2 질 족은 건 다도테기.(제일 작은 건 '다도테기'.)

108010 @ 아, 젤 족은 게 다도테기?(아, 제일 작은 게 '다도테기'?)

108010 #2 으, 말치는 이제 ᄒᆞ꼼 큰 거.(으, 말치는 이제 조금 큰 거.)

108010 @ 큰 거. 말치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큰 거. 말치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08010 #2 그 말치가 이제 거트민 쏠 ᄒᆞᆫ 석 뒈쯤 들어.(그 말치가 이제 같으면 쌀 한 석 되쯤 들어.)

108010 @ 큰 말치는?(큰 말치는?)

108010 #2 큰 말치도 ᄒᆞᆫ ᄒᆞᆫ 말쯤 들고.(큰 말치는 한 한 말쯤 들고.)

108010 @ ᄒᆞᆫ 말쯤 들고?(한 말쯤 들고?)

108010 #2 이제 콩 솖젠 허민 큰솟 잇고게. 콩도 솖고 그 오메기떡[305] 헤영 술도 허고 허젠 허믄 큰솟디 헤야 뒈. (이제 콩 삶으려고 하면 큰솥 있고. 콩도 삶고 그 '오메기떡' 해서 술도 하고 하려고 하면 큰솥에 해야 돼.)

108010 @ 그거 우리 말치렌 헹 ᄒᆞᆫ말떼기 두말떼기렌은 안 헤낫수과?(그거 우리 말치라고 해서 '한말떼기' '두말떼기'라고는 안 했었습니까?)

108010 #2 말치, 다도테기.(말치, '다도테기'.)

108010 @ 다도테기는 얼마나 들어가.('다도테기'는 얼마나 들어가.)

108010 #2 다도테기는 이제 거트민 쌀 한 뒈.('다도테기'는 이제 같으면 쌀 한 되.)

108010 @ 아, 쌀 한 뒈 들어가.(아, 쌀 한 되 들어가.)

108010 #2 게민 다도테기에 국 끌리고.(그럼 '다도테기'에 국 끓이고.)

108010 @ 게민 세 번째 크기는 뭐렌 불러난? 큰 말치, 말치?(그럼 세 번째 크기는 뭐라고 불렀어? 큰 말치, 말치?)

108010 #2 게난 큰솟. 큰솟, 말치, 다도테기.(그러니까 큰솥. 큰솥, 말치, '다도테기'.)

108010 @ 큰솟, 말치 요건 뭐렌 불러나서?(큰솥, 말치 요건 뭐라고 불렀었어?)

108010 #2 그자 경헤도 큰솟, 말치, 다도테기 경만 불런.(그저 그래도 큰솥, 말치, '다도테기' 그렇게만 불렀어.)

108010 @ 아, 경만 불러난.(아, 그렇게만 불렀었어.)

108010 #2 주로 세 개 신 집, 두 개 신 집. ᄒᆞ꼼 하영 허민 거의 네 개 걸어진 집도 하고. 거의 부잣집인 네 개.(주로 세 개 있는 집, 두 개 있는 집. 조금 많이 하면 거의 네 개 걸린 집도 많고. 거의 부잣집은 네 개.)

108010 @ 네 개.(네 개.)

108010 #2 으, 보통 세 개. 막 할망덜이나 두 개.(으, 보통 세 개. 아주 할머니들이나 두 개.)

108010 @ 영 네 개 있다치민 요건 아까 국 끌렷잖아예?(이렇게 네 개 있다면 요건 아까 국 끓였잖아요?)

---

305) '오메기떡'은 좁쌀로 빚은 떡을 말한다. 이것은 탁주를 만드는 술떡의 이름인 '오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떡으로 만든 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08010 #2 으. 아, 게난 질 족은 것이 반찬 허여. 다도테기는.(으. 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이 반찬 해. '다도테기'는)

108010 @ 반찬 허여. 이거는?(반찬 해. 이거는?)

108010 #2 국 끌리곡게.(국 끓이고.)

108010 @ 이거 국 끌리고. 이거는 밥허고?(이거 국 끓이고. 이거는 밥하고?)

108010 #2 으, 큰 건 콩이나 솖고 그런 하간 떡 ᄀᆞ튼 것도 치고 영 오메기떡 같은 것도 허고. 큰솟은 잘 안 쓰고.(으, 큰 건 콩이나 삶고 그런 여러 떡 같은 것도 찌고 이렇게 '오메기떡' 같은 것도 하고. 큰솥은 잘 안 쓰고.)

108010 @ 잘 안 쓰고예. 물항도 막 커낫수과?(잘 안 쓰고요. 물독도 아주 컸었습니까?)

108010 #2 물항도 두 개씩도 놓고. 지세항[306], 검은 물항이엔 허주게. 검은 물항 그것에 놓민 물 시원허영 검은 물항에만 놩 먹고. 겐 흔 덜에 흔 번이나 물항 씻고. 물이 막 찌끄레기 일어. 그디 물 질어당 먹어.(물독도 두 개씩도 놓고. '지세항', 검은 물독이라고 하지. 검은 물독 그것에 넣으면 물 시원해서 검은 물독에만 놔서 먹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물독 씻고. 물이 마구 찌꺼기 일어. 거기 물 길어다가 먹어.)

108010 @ 물 질레는 어떵 가나서?(물 길러는 어떻게 갔었어?)

108010 #2 허벅[307]게. 허벅 허영 구덕에 영 대로 여끈 거 헤당 지영 영 비우민 뒈주기게.('허벅'. '허벅' 해서 바구니에 이렇게 대로 엮은 거 해다가 져서 이렇게 비우면 되지.)

108010 @ 그 대로 여끈 걸 뭐렌 불러낫수과?(그 대로 엮은 걸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108010 #2 물구덕[308].('물구덕'.)

108010 @ 물구덕 안에 허벅을?('물구덕' 안에 '허벅'을?)

108010 #2 담아 놩 그 또 물 찰랑찰랑 안 허게 다겡이[309] 막앙.(담아 놔서 그 또 물 찰랑찰랑 안 하게 '다겡이' 막아서.)

108010 @ 음.(음.)

108010 #2 다겡이, 다겡이도 찍으로 헹 벵벵 허게 막으민 찰랑찰랑 안 허주게.('다겡이', '다겡이'도 짚으로 해서 뱅뱅 하게 막으면 찰랑찰랑 안 하지.)

108010 @ 그거 다겡이렌 헨?(그거 '다겡이'라고 했어?)

108010 #2 다겡이.('다겡이')

108010 @ 게난 다겡이로 막앙.(그러니까 '다겡이'로 막아서.)

108010 #2 게난 어릴 때는 다겡이 막고 윽앙 뭐 헐 때 허벅은 잘 헐지 안허여. 겐디 어린 때 다겡이 안 막앙 뭘 막 헐어. 찰랑찰랑. 어떵사 잘못사 걸어져신디.(그러니까 어

306) '지세항'은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만든 독을 말한다.
307)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308) '물구덕'은 물동이를 넣어 지고 다니는 대바구니를 말한다.
309) '다겡이'는 물동이에 물을 긷고 다닐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짚 따위로 물동이 주둥이를 막게 만든 것을 말한다.

릴 때는 ‘다겡이’ 막고 커서 뭐 할 때 ‘허벅’은 잘 헐지 않아. 그런데 어린 때 ‘다겡이’ 안 막아서 뭘 마구 헐어. 찰랑찰랑. 얼마나 잘못 걸었는지.)

108010 @ 물 질레는 맨날 갔다 와야 허는 거?(물 길러는 맨날 갔다 와야 하는 거?)

108010 #2 아이고, ᄒᆞ루 멧 번 질어 와살 거 아니게.(아이고, 하루 몇 번 길어 와야 할 거 아니.)

108010 @ ᄒᆞ루에?(하루에?)

108010 #2 으, 그거 그 물 그걸로 다 첨 쏠은 안 씻엇주만은 밥허고 국허고 먹곡 반찬 허곡 뭐, 첨 뭐 시침도 허곡 허난게 하영, 물 하영 쓰주.(으, 그거 그 물 그걸로 다 참 쌀은 안 씻었지만 밥하고 국 하고 먹고 반찬 하고 뭐, 참 뭐 씻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물 쓰지.)

108010 @ 음.(음.)

108010 #2 빨래 거튼 거 그자 궂은 물에 강 허고 먹는 물은 이제 ᄯᅳ로 허고.(빨래 같은 거 그저 궂은 물에 가서 하고 먹는 물은 이제 따로 하고.)

108010 @ 음. 솟도 영 언지젠 허난 뭐 우이 허는 거라? 여기 돌?(음. 솥도 이렇게 얹으려고 하니까 뭐 위에 하는 거야? 여기 돌?)

108010 #2 여기 삼덕[310]게.(여기 ‘삼덕’.)

108010 @ 삼덕.(‘삼덕’.)

108010 #2 덕 세 개 헤영게. 요디 하나, 요디 하나, 요디 하나.(봇돌 세 개 해서. 요기 하나, 요기 하나, 요기 하나.)

108010 @ 거 솟덕예?(거 봇돌요?)

108010 #2 으, 솟덕.(으, 봇돌.)

108010 @ 게난 세 개 잇이난 삼덕이렌 부른 거?(그러니까 세 개 있으니까 ‘삼덕’이라고 부른 거?)

108010 #2 삼덕, 으.(‘삼덕’, 으.)

108010 @ 겐 그 우이 언지는 거예?(그래서 그 위에 얹는 거요?)

108010 #2 으. 게난 이제 그추룩 헤 가단 우리 좀 ᄋᆞᆨ은 후에, 결혼헌 후에덜은 거의 걸엉. 우리 어린 때덜은 영 헤영 헌디 우리 결혼헌 후제 거의 멘드글락허게 불랑근에.(으. 그러니까 이제 그처럼 해 가다가 우리 좀 큰 후에, 결혼한 후에는 거의 걸어서. 우리 어린 때들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결혼한 후에 거의 매끈하게 발라서.)

108010 @ 시멘트 불랑?(시멘트 발라서?)

108010 #2 아니, 흑.(아니, 흙.)

108010 @ 흑 불랑?(흙 발라서?)

108010 #2 으. 겐디 우리 어린 때는 불르지 안헹 그냥 삼덕만 앚져근에 불치 그냥 팡팡 내치멍 경헤근에. 우리 결혼헌 후에 그거 영 짝 허영 다 걸엉 솟덜 걸엉 온돌방 허고. 우리 결혼헌 후엔 온돌방을 허고. 경허기 전에 삼덕 앚졍.(으. 그런데 우리 어린 때는 바르지 않고 그냥 ‘삼덕’만 얹어서 재 그냥 팡팡 내치면서 그래서. 우리 결혼한 후

310) ‘삼덕’은 부엌에 솥을 얹을 수 있게 놓은 세 개의 봇돌을 말한다.

에 그거 이렇게 짝 해서 다 걸어서 솥들 걸어서 온돌방 하고. 우리 결혼한 후에 온돌방을 하고. 그러기 전에 '삼덕' 없어서.)

108010 @ 불치를 어디로 내밉니까?(재를 어디로 내밉니까?)

108010 #2 불치 그냥 영 내밀엇주게.(재 그냥 이렇게 내밀었지.)

108010 @ 뒤로예?(뒤로요?)

108010 #2 으. 경헌디 거 솟 건 땐 이젠 갈레죽으로 헨 이런 디 통 멘들앙 놔뒷당 밧디 강 그거 비료라. 불치가 비료.(으. 그런데 거 솥 건 땐 이젠 삽으로 해서 이런 데 통 만들어서 놔뒀다가 밭에 가서 그거 비료야. 재가 비료.)

108010 @ 불치도 솟 걸엇을 때는 정지에 모다 놘?(재도 솥 걸었을 때는 부엌에 모아 놔서?)

108010 #2 정지에 영 몽텡이 헹 한 펜더레 모돠 놔.(부엌에 이렇게 모퉁이 해서 한 편으로 모아 놔.)

108010 @ 불칫막 따로 엇어낫수과?('불칫막' 따로 없었습니까?)

108010 #2 불칫막[311] 경 헤져게. 요런 디 싯당 모다지믄 밧디 강 이제 허꺼 불엇주.('불칫막' 그렇게 할 수 있어. 요런 데 있다가 모이면 밭에 가서 이제 섞어 버렸지.)

108010 @ 예.(예.)

108010 #2 ᄆᆞ시락막[312]은 셔도 불칫막은 잘 엇어.('ᄆᆞ시락막'은 있어도 '불칫막'은 잘 없어.)

108010 @ 아, ᄆᆞ시락막은 잇어도.(아, 'ᄆᆞ시락막'은 있어도.)

108010 #2 ᄆᆞ시락막은 거의 다 잇어.('ᄆᆞ시락막'은 거의 다 있어.)

108010 @ 아.(아.)

108010 #2 잇어야 뒈주게, ᄆᆞ시락막은.(있어야 되지, 'ᄆᆞ시락막'은.)

108010 @ 게민 살레에는 뭐 잇어낫수과?(그럼 찬장에는 뭐 있었습니까?)

108010 #2 살레사 국사발, 밥사발, 양철게. 주로 양철. 죽은 양철에만 거렁 먹으난. 거의 죽을 하영 쒕 먹엇주, 옛날엔.(찬장에야 국사발, 밥사발, 양철. 주로 양철. 죽은 양철에만 떠서 먹으니까. 거의 죽을 많이 쒀서 먹었지, 옛날엔.)

108010 @ 죽 쒕 양철에.(죽 쒀서 양철에.)

108010 #2 아니, 우리 어릴 때 남박세기.(아니, 우리 어릴 때 나무바가지.)

108010 @ 남박세기 잇어낫지예?(나무바가지 있었지요?)

108010 #2 으. 남박세기에 먹엇주, 어릴 땐. 혼 우리 열일곱 ᄋᆞ덥까지는 남박세기에 먹엇어. 그다음 양철이 나왓주. 남박세기에 먹언.(으. 나무바가지에 먹었지, 어릴 땐. 한 우리 열일곱 여덟까지는 나무바가지에 먹었어. 그다음 양철이 나왔지. 나무바가지에 먹었어.)

108010 @ 저기 출레[313]덜 그냥 살레 안에 놔두기도 허고?(저기 '출레'들 그냥 찬장 안에 놔두기도 하고?)

---

311) '불칫막'은 '불치(재)+막'의 구성으로, 타고 남은 재를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312) 'ᄆᆞ시락막'은 'ᄆᆞ시락(까끄라기)+막'의 구성으로, 까끄라기 등을 모아둔 곳을 말한다.
313) '출레'는 밥과 곁들어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108010 #2 그냥 살레 안에베끼 더 놔게? 어디 냉장고 잇어?(그냥 찬장 안에밖에 더 넣어? 어디 냉장고 있어?)

108010 @ 숟가락은 어디에 보관헷수과?(숟가락은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108010 #2 숟가락은 젯, 젯통[314]. 저 대로 예낀 젯통도 잇고. 대, 대 영 파믄 그 대통에 헤영 영 살레에 걸엉 놔뒷주게. 경헨 숟가락 그레 놔.(숟가락은 젯, '젯통'. 저 대로 엮은 '젯통'도 있고. 대, 대 이렇게 파면 그 대통에 해서 이렇게 찬장에 걸어서 놔뒀지. 그래서 숟가락 그리 놔.)

108010 @ 예. 숟가락 그디 놔. 저기 정지 밖에 나오면 아까 무슨 방?(예. 숟가락 거기 놔. 저기 부엌 밖에 나오면 아까 무슨 방?)

108010 #2 청방.(청방.)

108011 @ 청방예. 그거 청방이렌 불럿수다. 예. 여기 문 보면, 이거 문이라예. 이건 뭐렌 불럿수과?(청방요. 그거 청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여기 문 보면, 이거 문이지요. 이건 뭐라고 불렀습니까?)

108011 #2 문입젱이게.(문설주.)

108011 @ 문입젱이. 이 부분을 문입젱이렌?(문설주. 이 부분을 문설주라고?)

108011 #2 문입젱이.(문설주.)

108011 @ 게민 여기는?(그럼 여기는?)

108011 #2 지방.(문지방.)

108012 @ 게민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이런 문이지만은 옛날엔 다른 문이잖아예.(그럼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이런 문이지만 옛날은 다른 문이잖아요.)

108012 #2 창문게. 창문, 대문[315].(창문. 창문, '대문'.)

108012 @ 창문, 대문.(창문, '대문'.)

108012 #2 대문은 낭으로 헤영 영 더끄는 거.('대문'은 나무로 해서 이렇게 덮는 거.)

108011 @ 여기 창문에 문 잠그젠 허민 영 걸치는?(여기 창문에 문 잠그려고 하면 이렇게 걸치는?)

108011 #2 돌처귀게.(돌쩌귀.)

108011 @ 돌처귀.(돌쩌귀.)

108011 #2 돌처귀랏주게, 창문엔게.(돌쩌귀였지, 창문에는.)

108011 @ 예. 그 돌처귀라도 영 걸치는 거 잇고.(예. 그 돌쩌귀라도 이렇게 걸치는 거 있고.)

108011 #2 아니 영 허영 영 꿰는 거 돌처귀.(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꿰는 거 돌쩌귀.)

108011 @ 예. 그것도 수톨처귀, 암톨처귀 잇어낫수과?(예. 그것도 '수톨처귀', '암톨처귀' 있었습니까?)

108011 #2 이건 수컷, 이건 암컷게.(이건 수컷, 이건 암컷.)

---

314) '젯통'은 굵은 대통은 끊거나 또는 가는 대오리로 엮어 만든 좁고 길쭉한 수저를 넣는 물건을 말한다.
315) '대문'은 대청 정면에 단 문을 가리킨다.

108011 @ 예.(예.)

108011 #2 영 찔르는 거 수컷게.(이렇게 찌르는 거 수컷.)

108011 @ 영 걸치는 게 아니고 영 찔르는 거니까?(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찌르는 거니까?)

108011 #2 으.(으.)

108011 @ 경 불럿던 거구나.(그렇게 불렀던 거구나.)

108011 #2 이젠 엇어, 돌처귀.(이젠 없어, 돌쩌귀.)

108011 @ 이젠 엇어.(이젠 없어.)

108011 #2 이젠 다 무신 식으로 뒈여 부난.(이젠 다 무슨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108011 @ 이거 전체를 문입젱이렌 헐 거.(이거 전체를 문설주라고 할 거.)

108011 #2 입젱이, 문입젱이. 저 이런 건 지방이고.(문설주, 문설주. 저 이런 건 문지방이고.)

108011 @ 지방이고 우에는 뭐렌 골아?(문지방이고 위에는 뭐라고 말해?)

108011 #2 거 이것도 지방게.(거 이것도 문지방.)

108011 @ 우에도 지방?(위에도 문지방?)

108011 #2 으.(으.)

108011 @ 여기 혹시 이 앞에가 대문이었잖아?(여기 혹시 이 앞이 '대문'이었잖아?)

108011 #2 으.(으.)

108013 @ 대문 옆에 또 작은 문이 잇어낫수과?('대문' 옆에 또 작은 문이 있었습니까?)

108013 #2 엇어. 저 남군[316]만 잇어.(없어. 저 남군만 있어.)

108013 @ 아, 그거 호령창이렌 부르는 거예?(아, 그거 '호령창'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108013 #2 남군, 남군은 잇어.(남군, 남군은 있어.)

108013 @ 여긴 엇어예?(여긴 없어요?)

108013 #2 여긴 엇어. 남군은 잇어. 이 호령창[317]. 옛날은 이 뭣고 첩에 난 애긴 호령창으로만 헹 대문으론 뎅기지 못허게 헷저, 헤난 거 알아져. 이렌 엇어. 이 남군이 그런 거 막 따주아.(여긴 없어. 남군은 있어. 이 '호령창'. 옛날은 이 뭐지 첩에 낳은 아긴 '호령창'으로만 해서 대문으로 다니지 못하게 했어, 했던 거 알아. 이리는 없어. 이 남군이 그런 거 아주 따져.)

108013 @ 그런 거 막 따지는 데가 남군인 거?(그런 거 마구 따지는 데가 남군인 거?)

108013 #2 으, 남군이라.(으, 남군이야.)

108013 @ 예.(예.)

108013 #2 남군은 호령창. 게난 첩에 아긴 대문으로 못 뎅기게 헷주게. 거 기억헤

316) '남군'은 '남제주군'을 말한다. 남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 구역 명칭으로 2006년에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317) '호령창'은 마루의 큰 대문 옆에 만든 조그만 창을 말한다.

져.(남군은 ‘호령창’. 그러니까 첩의 아긴 대문으로 못 다니게 했지. 거 기억해.)

108014 @ 굴묵은 어느 쪽으로 낭 잇수과?(‘굴묵’은 어느 쪽으로 나 있습니까?)

108014 #2 굴묵은 이거. 구둘 저펜이게.(‘굴묵’은 이거. 방 저편에.)

108014 @ 저펜이.(저편에.)

108014 #2 이거 방에도 쫄막 이만이 헹 막 굽엉 들어가고 ᄉᆞ못 첨. 애기 벨 때 그디 강 굴묵에 앚지도 못허여. 임신헌 때.(이거 방에도 짤막 이만큼 해서 마구 굽어서 들어가고 사뭇 참. 아기 밸 때 거기 가서 ‘굴묵’에 앉지도 못해. 임신한 때.)

108014 @ 좁아 가지고.(좁아 가지고.)

108014 #2 좁아. 하하. 오그렁 굴묵 짇젠 허민 내 팡팡 나고. 보리낭 아졍 강 ᄀᆞ시락 그레 디물앙 그디 불치 걷어 내덩 ᄀᆞ시락 디물앙 또 불 ᄒᆞ꼼 부쪄사 그 ᄀᆞ시락더레 부뜨주게. ᄉᆞ못 ᄀᆞ시락, 죽어지게 내 팡팡 먹고. 이제 사름 거트민 기절초풍헐 거여. 하하하.(좁아. 하하. 오그려서 ‘굴묵’ 때려고 하면 연기 팡팡 나고. 보릿짚 가지고 가서 까끄라기 그리 집어넣어서 거기 재 걷어 내두고 까끄라기 집어넣어서 또 불 조금 부쳐야 그 까끄라기에 붙지. 사뭇 까끄라기, 죽어지게 연기 팡팡 먹고. 이제 사람 같으면 기절초풍할 거야. 하하하.)

108014 @ 하하하.(하하하.)

108014 #2 ᄉᆞ못 숨이 다 끈어져근에 죽주, 이제사. 엿날이난 헷주.(사뭇 숨이 다 끊겨서 죽지, 이제야. 옛날이니까 했지.)

108014 @ 게난 굴묵 짇젠 허민 ᄀᆞ시락이 잇어야 헐 거고.(그러니까 ‘굴묵’ 때려고 하면 까끄라기가 있어야 할 거고.)

108014 #2 ᄀᆞ시락, 쉐똥 줏어당, 쉐똥 ᄆᆞᆯ똥 줏어당. 그거 허끄민 잘 부뜨고 뚜시고. 쉐똥이나. ᄀᆞ시락은 금방 부떠 불고. 게난 쉐똥 줏으레 막 뎅겻주게.(까끄라기, 소똥 주워다가, 소똥 말똥 주워다가. 그거 섞으면 잘 붙고 따뜻하고. 소똥이나. 까끄라기는 금방 붙어 버리고. 그러니까 소똥 주우러 많이 다녔지.)

108014 @ 굴묵 짇젠예.(‘굴묵’ 때려고요.)

108014 #2 으.(으.)

108014 @ 그 옛날 초집일 때 비 오는 거 막젠 아니면 햇빛 가리젠?(그 옛날 초가집일 때 비 오는 거 막으려고 아니면 햇빛 가리려고?)

108015 #2 풍체게.(차양.)

108015 @ 풍체 세워서예?(차양 세웠지요?)

108015 #2 으. 풍체. 양철 풍체 세운 집은 어쩌다가 좋은 집이고. 저기 다 찍으로, 첨 새로 예껑 낭으로 영 헤영. 겐 영 바퉝게. 이디 바투고 이디 바투고 한 가운데 하나 바투고. 이디 ᄃᆞᆯ아메고.(으. 차양. 양철 차양 세운 집은 어쩌다가 좋은 집이고. 저기 다 짚으로, 참 띠로 엮어서 나무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받쳐서. 여기 받치고 한 가운데 하나 받치고. 여기 달아매고.)

108015 @ 세 개를 바툰 거라?(세 개를 받친 거야?)

108015 #2 으, ᄃᆞᆯ아메고.(으, 달아매고.)

108015 @ 겐 비 올 때는 내리고?(그래서 비 올 때는 내리고?)

108015 #2 으, 겡허여. 아이 내리는 디도 하고 막 발헌[318] 딘 내리우고 풍체. 풍체는 거의 다 헤야 뒈. 경 안허민 창문에 막 비 삐영 안 뒈. 창문더레 비 삐영 와작착와작착.(으, 그래. 안 내리는 데도 많고 아주 볕이 드는 내리고 차양. 차양은 거의 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창문에 마구 비 들어와서 안 돼. 창문에 비 들어와서 찰싸닥찰싸닥.)

108015 @ 그 풍체도 종류가 잇어낫수과? 영 돌아메진 것도 잇고 영 세우는 것도 잇고.(그 차양도 종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달린 것도 있고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고.)

108015 #2 으, 세우는 건 이제 그것ᄀᆞ라 뭣이렌 헷저만은 오꼿 나도 잊어불어졋저. 그거 우리 하르부지넨 그거 헤나서, 세와.(으, 세우는 건 이제 그것보고 뭐라고 했지만 그만 나도 잊어버렸어. 그거 우리 할아버지네는 그거 했었어, 세워.)

108015 @ 세와.(세워.)

108015 #2 그거 뭣이엔사 헤신디 잊어불엇저.(그거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어.)

108015 @ 뭐렌 헤신고? 그거 세우는 풍체를 타작헐 때도 옛날에 세우고 뭐 헤낫수과?(뭐라고 했지? 그거 세우는 차양을 타작할 때도 옛날에 세우고 뭐 했었습니까?)

108015 #2 으, 게난 창문에 그거 세와. 우리 하르부지넨.(으, 그러니까 창문에 그거 세워. 우리 할아버지넨.)

108015 @ 예.(예.)

108015 #2 풍체 헤도 막 그거 세왕. 그거 세와나서, 하르부지넨.(차양 해도 마구 그거 세워. 그거 세웠었어, 할아버지네는.)

108016 @ 예. 저기 물팡[319]도 잇어낫지예?(예. 저기 '물팡'도 있었지요?)

108016 #2 물팡은 허벅 부리젠 물팡 헤낫주.('물팡'은 '허벅' 부리려고 '물팡' 했었지.

108016 @ 어느 쪽에 물팡을 놉니까?(어느 쪽에 '물팡'은 놉니까?)

108016 #2 이 곧 이 정짓문 이엄에.(이 곧 이 부엌문 옆에.)

108016 @ 정짓문 엠에.(부엌문 옆에.)

108016 #2 으, 돌 넙작헌 거 영 헤영게 그거 허민 물팡게. 물팡에 허벅 부령 놔둬사주. 어디레 부령 놔 둬.(으, 돌 넙적한 거 이렇게 해서 그거 하면 '물팡'. '물팡'에 '허벅' 부려서 놔둬야지. 어디에 부려서 놔둬.)

108016 @ 게난 물 질레 가젠 허민 아까 대구덕에?(그러니까 물 길러 가려고 하면 아까 대바구니에?)

108016 #2 게난 거 강 왕 비와 난 거 물팡에 놔둬사주. 경헤사 지영 갈 거 아니?(그러니까 거 갔다 와서 비우고 난 거 '물팡'에 놔둬야지. 그래야 져서 갈 거 아니?)

108016 @ 예.(예.)

108016 #2 물팡에.('물팡'에.)

108016 @ 우리 어려서부터 물 지엇잖아. 어릴 때 애기들은?(우리 어려서부터 물 지었잖아. 어릴 때 아기들은?)

---

318) '발허다'는 '색깔 따위를 내려고 볕에 말리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볕이 들다'의 의미로 쓰였다.

319)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허벅'를 올려 넣어 두는 곳을 말한다.

108016 #2 대베기[320].(‘대베기’.)

108016 @ 대베기.(‘대베기’.)

108016 #2 대베기도 ᄒᆞ꼬만 대베기 잇고 큰 대베기 잇고. 질 처음엔 두 벵들이로 질당, 막 어릴 땐이 일고ᄋᆞ덥 설 날 땐 두 벵들이로 질엉 그다음 대베기로 질엉 그다음 허벅으로 질엉.(‘대베기’도 작은 ‘대베기’ 있고 큰 ‘대베기’ 있고. 제일 처음에는 두 병들이로 긷다가, 아주 어릴 땐 일고여덟 살 될 땐 두 병들이로 길어서 그다음 ‘대베기’로 긷고 그다음 ‘허벅’으로 길어서.)

108016 @ 아이고.(아이고.)

108016 #2 ᄒᆞᆫ 일곱 설 ᄋᆞ덥 설은 다 대베기로 물 날랏주게.(한 일곱 살 여덟 살은 다 ‘대베기’로 물 날랐지.)

108016 @ 음.(음.)

108016 #2 이제 아이덜은 고급이난.(이제 아이들은 고급이니까.)

108016 @ 게난 그 물 날르는 거 생각이나 헤질 거라?(그러니까 그 물 나르는 거 생각이나 할 수 있을 거야?)

108016 #2 게난 그 날라 오멍 허단 파싹 벌러 불고.(그러니까 그 날라 오면서 하다가 바싹 깨 버리고.)

108016 @ 아, 벌러 불고.(아, 깨 버리고.)

108016 #2 견디 우리 결혼허고 허연, 아마 나가 ᄒᆞᆫ 서른 설쯤부턴 고무 허벅 나기 시작허연.(그런데 우리 결혼하고 해서, 아마 내가 한 서른 살쯤부터는 고무 ‘허벅’ 나기 시작했어.)

108016 @ 아.(아.)

108016 #2 그 전인 사기 허벅인디. 나 부산 간 고무 허벅 사단 막 풀아낫주게. 고무 허벅.(그 전엔 사기 ‘허벅’인데. 내가 부산 가서 고무 ‘허벅’ 사다가 마구 팔았었지. 고무 ‘허벅’.)

108016 @ 플라스틱 말고?(플라스틱 말고?)

108016 #2 고무, 이 플라스틱으로.(고무, 이 플라스틱으로.)

108016 @ 플라스틱예?(플라스틱요?)

108016 #2 으.(으.)

108016 @ 깨지지 안허는 거예?(깨지지 않는 거요?)

108016 #2 으, 그거 나난 그게 막 좋아. 벌러지지도 안허고.(으, 그거 나니까 그게 아주 좋아. 깨지지도 않고.)

108016 @ 게난 그거 낭도 막 물 질어낫수과?(그러니까 그거 나서도 많이 물 길었었습니까?)

108016 #2 질엇주게.(길었지.)

108016 @ 수도 안 생견?(수도 안 생겼어?)

108016 #2 수도 생겨도게 가인 집이 수도 생겨서게? 공동으로 어쩌다. 박정희 대통

320) ‘대베기’는 어린아이들이 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허벅을 말한다.

령 헐 때사 공동 수도가 잇엇주게. 그 전에사 수도가 잇어서게?(수도 생겨도 개인 집에 수도 생겼어? 공동으로 어쩌다. 박정희 대통령 할 때야 공동 수도가 있었지. 그 전에야 수도가 있었어?)

108016 @ 아, 수도 엇이난.(아, 수도 없으니까.)

108016 #2 다 시에레도 그땐 수도가 엇어서, 옛날엔. 이디만 아니고.(다 시로도 그땐 수도가 없었어, 옛날엔. 여기만 아니고.)

108016 @ 게난 삼춘도 물허벅 막 하영 벌럿수과?(그러니까 삼촌도 '허벅' 아주 많이 깼습니까?)

108016 #2 벌르주게. 어릴 때사 안 벌러?(깨지. 어릴 때야 안 깨?)

108016 @ 하하하.(하하하.)

108016 #2 물 비우당 잘 벌러져. 물 비우당 민질락허믄. 게난 영 그 대베기 부리영 영 얼그는 것이 잇어, 영 베 말고. 경허영 잘 허영 허믄 허고 경 안허믄 민질락헤영 항 더레 털어짐도 허고 부리 탁 허민 어떵허영 잘 안 허민 그때 벌르곡. 눈 올 때 잘 벌르곡.(물 비우다가 잘 깨. 물 비우다가 미끌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베기' 부리랑 이렇게 얽는 것이 있어, 이렇게 바 말고. 그래서 잘 해서 하면 하고 그렇게 않으면 미끈해서 항아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부리 탁 하면 어떡해서 잘 안 하면 그때 깨고. 눈 올 때 잘 깨고.)

108016 @ 눈 올 때.(눈 올 때.)

108016 #2 으, 닝끼러졍 어떵 허멍.(으, 미끄러져서 어떻게 하면서.)

108016 @ 닝끼렁?(미끄러져서?)

108016 #2 으.(으.)

108017 @ 삼춘네 집은 올레가 셔낫수과?(삼촌네 집은 '올레'가 있었습니까?)

108017 #2 올레[321] 셔. 다 올레, 옛날은 검질메곡 오죽 올레가 질어게? 이제 닮지 안허영.('올레' 있어. 다 '올레', 옛날은 김매고 오죽 '올레'가 길어? 이제 같지 않아.)

108017 @ 그지예.(그렇지요.)

108017 #2 올레 헹 직낭[322] 허주게.('올레' 해서 '직낭'하지.)

108017 @ 뭐 헤나서?(뭐 했었어?)

108017 #2 직낭. 직낭 두 개 시 개 헤영 직낭 걸쳐사 뒐 거 아니. 쉐 들어오곡게. 직낭 걸치민 사름 엇인 집이고 직낭 올아지민 사람 신 집이고.('직낭'. '직낭' 두 개 세 개 해서 '직낭' 걸쳐야 될 거 아니. 소 들어오고. '직낭' 걸치면 사람 없는 집이고 '직낭' 열리면 사람 있는 집이고.)

108017 @ 사람 신 집이고.(사람 있는 집이고.)

108017 #2 으. 직낭 옛날 직낭.(으. '직낭' 옛날 '직낭'.)

108017 @ 으, 그거 허고. 저기 문간채도 잇어나수과?(으, 그거 하고. 저기 문간채도 있었습니까?)

---

321)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322) '직낭'은 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 대신 가로로 걸쳐 놓은 길고 굵직한 나무 막대를 말한다. '정낭'이라고도 한다.

108018 #2 으, ᄒᆞ꼼 뭐 헌 딘 문간채도 잇주게.(으, 조금 뭐 한 덴 문간채도 있지.)

108018 @ 문간채는 어떤 역할 헤낫수과?(문간채는 어떤 역할 했었습니까?)

108018 #2 건 ᄒᆞ꼼게 잘 사는 집인게 문간채 헤영 ᄒᆞ꼼 종도 살고.(건 조금 잘 사는 집은 문간채 해서 조금 종도 살고.)

108018 @ 부리는 사람?(부리는 사람?)

108018 #2 으, 머슴덜도 살고 허주게.(으, 머슴들도 살고 하지.)

108019 @ 머슴덜도 살고. 그다음 눌들 잇어낫잖아예. 눌 지난번에 막 하영 만들어나서예?(머슴들도 살고. 그다음 가리들 있었잖아요. 가리 지난번에 아주 많이 만들었지요?)

108019 #2 뭐?(뭐?)

108019 @ 눌, 눌. 집이 눌.(가리, 가리. 집에 가리.)

108019 #2 다, 보리낭이고 문딱 눌어사주게. 보리낭도 눌어야 뒈, 조찝도 눌어야 뒈. 새꼴도 눌고 감저찍도 눌지. 다 눌어야지게.(다, 보릿짚이고 모두 가려야지. 보릿짚도 가려야 돼. 조짚도 가려야 돼. 쇠꼴도 가리고 고구마덩굴도 가리지. 다 가려야지.)

108019 @ 게난 눌이 ᄒᆞᆫ 네 개.(그러니까 가리가 한 네 개.)

108019 #2 으. 게난 주로 보리낭 눌 걸로 불 때영 밥허주게.(으. 그러니까 주로 보릿짚 가리 거로 불 때서 밥하지.)

108019 @ 보리낭 눈 걸로?(보릿짚 가린 거로?)

108019 #2 으, 쉐 멕이젠 허믄 또 조찍은 조찍으로 눌고 새꼴은 새꼴만 눌고. 감저줄은 감저줄만 눌고. 눌이 멧 개씩 눌어. 게난 눌왓[323]이 잘 헤사.(으, 소 먹이려고 하면 또 조짚은 조짚으로 가리고 쇠꼴은 쇠꼴만 가리고. 고구마덩굴은 고구마덩굴만 가리고. 가리가 몇 개씩 가려. 그러니까 '눌왓'이 잘 해야.)

108019 @ 눌왓을 잘 헤사?('눌왓'을 잘 해야?)

108019 #2 으, 눌왓이 널러사주.(으, '눌왓'이 넓어야지.)

108020 @ 통시는?(돼지우리는?)

108020 #2 통지는 도새기 질루는 디.(돼지우리는 돼지 기르는 데.)

108020 @ 도새기 질루는 디. 게민 도새기 질루는 디는 도새기 비 맞지 말렌 뭐 헤주고?(돼지 기르는 데. 그럼 돼지 기르는 데는 돼지 비 맞지 말라고 뭐 해 주고?)

108020 #2 집게.(집.)

108020 @ 집.(집.)

108020 #2 돌로 허영 그 도새기 집이 거의 보리낭 눌어.(돌로 해서 그 돼지 집이 거의 보릿짚 가려.)

108020 @ 아, 아. 도새기 집 우이.(아, 아. 돼지 집 위에.)

108020 #2 도새기 집은 영 저 뭣고 넙짝헌 돌 허영 돌 우이 보리낭 막 눌어. 어느 집이든 도새기 집인 보리낭 눌어.(돼지 집은 이렇게 저 뭐지 넙적한 돌 해서 돌 위에 보릿짚을 마구 가려. 어느 집이든 돼지 집은 보릿짚 가려.)

323) '눌왓'은 짚이나 꼭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가리 자리를 말한다.

108020 @ 아, 도새기 집 우이 보리낭 눌어.(아, 돼지 집 위에 보릿짚 가려.)

108020 #2 촐눌은 뚜로 누는디 보리낭은 거의 도새기 집 우이 눌어.(꼴가리는 따로 가리는데 보릿짚은 거의 돼지 집 위에 가려.)

108020 @ 아. 게민 도새기 먹이 주는 건 뭐렌 골아?(아. 그럼 돼지 먹이 주는 건 뭐라고 말해?)

108020 #2 돗도고리[324].('돗도고리'.)

108020 @ 거, 뭘로 만드는 거?(거, 뭐로 만드는 거?)

108020 #2 돌로게.(돌로.)

108020 @ 돌로 만드는 거.(돌로 만드는 거.)

108020 #2 으, 돌로 다. 느나엇이 돌로 다.(으, 돌로 다. 너나없이 돌로 다.)

108020 @ 게민 먹이는 것, 것 줍니까?(그럼 먹이는 먹이, 먹이 줍니까?)

108020 #2 거 보리 보리, 보리체, 좁썰 조 불려난 조체[325] 그거 주주게. 보리체, 조체 경헨 이제 물 질어당 항에 그 조체, 보리체 캉 놔뒁당 이제 박세기로 거령 줘.(거 보리 보리, 보릿겨, 좁쌀 조 불렸던 '조체' 그거 주지. 보릿겨, '조체' 그래서 이제 물 길어다가 항아리에 그 '조체', 보릿겨 타서 놔뒀다가 이제 바가지로 떠서 줘.)

108020 @ 아, 항에 캉 놔뒁당.(아, 항아리에 타서 놔뒀다가.)

108020 #2 게고 잔치집이 ᄉᆞ못 그 뜬물, 이제 쌀 시쳐난 뜬물 ᄉᆞ못 허민 아이고, 도새기 주젠 ᄉᆞ못 싸우멍덜 빌어 와. 뜬물도 빌어 와. 도새기 주젠. 이제 거트민 물 부영헌 거 무시거 허랴만은.(그리고 잔칫집에 사뭇 그 뜨물, 이제 쌀 씻었던 뜨물 사뭇 하면 아이고, 돼지 주려고 사뭇 싸우면서들 빌어 와. 뜨물도 빌어 와. 돼지 주려고. 이제 같으면 물 부연 거 뭐 하랴만.)

108020 @ 도새기 것 주젠.(돼지 먹이 주려고.)

108020 #2 것 주젠. ᄒᆞ꼼 풀풀헌[326] 거 주젠.(먹이 주려고. 조금 '풀풀한' 거 주려고.)

108021 @ 통시허민 우리 응가허는 부분, 똥 누젠 허민 뭘 놓잖아예?(뒷간하면 우리 응가하는 부분, 똥 누려고 하면 뭘 놓잖아요?)

108021 #2 지들항게.(부춘돌.)

108021 @ 뭐 지들항?(뭐 부춘돌?)

108021 #2 영 두 개 논 것ᄀᆞ라 지둘항이렌 허주.(이렇게 두 개 놓는 것보고 부춘돌이라고 하지.)

108021 @ 지들항이엔 헐 거. 거 돌로 놓기도 허고 나무로 놓기도 헙니까?(부춘돌이라고 할 거. 거 돌로 놓기도 하고 나무로 놓기도 합니까?)

108021 #2 돌로 놔. 육지는 낭으로 놔도 제주도는 다 돌로 놔.(돌로 놔. 육지는 나무로도 놔도 제주도는 다 돌로 놔.)

108021 @ 다 돌로 놔.(다 돌로 놔.)

---

324) '돗도고리'는 돼지 먹이를 주기 위하여 돌을 파서 만든 그릇이다.
325) '조체'는 조에서 벗겨 낸 겉껍질을 말한다.
326) '풀풀허다'는 국물 따위가 말갛지 않고 차진 기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108021 #2 제주도는 돌이 한 디난 다 돌로.(제주도는 돌이 많은 데니까 다 돌로.)

108021 @ 게민 나가 올라강 볼 일 보니까, 옆에서 보이니까 보지 말렌 여기 뭐도 쌓고 헙니까, 돌 옆에?(그럼 내가 올라가서 볼 일 보니까, 옆에서 보이니까 보지 말라고 뭐 쌓고 합니까, 돌 옆에?)

108021 #2 이짝엔 터져도 이짝은 다 막아졋주기게. 영 다 담 다졍.(이쪽에 터져도 이쪽은 다 막혔지. 이렇게 다 담 쌓여서.)

108021 @ 담 다졍. 영 보이지 말렌예?(담 쌓여서. 이렇게 보이지 말라고요?)

108021 #2 으.(으.)

108021 @ 도새기 키우는 디 도새기 도망강, 튀어 넘엉.(돼지 키우는 데 돼지 도망가서, 뛰어 넘어서.)

108021 #2 담 다. 담 다살 거 아니. 도망가지 못허게 담 다민 아이 돌아나주게.(담 쌓아. 담 쌓아야 할 거 아니. 도망가지 못하게 담 쌓으면 안 달아나지.)

108021 @ 아이 돌아나. 도새기 영 질루는디 도망가거나 헤 본 적도 엇고?(안 달아나. 돼지 이렇게 기르는데 도망가거나 해 본 적도 없고?)

108021 #2 으, 담 다.(으, 담 쌓아.)

108021 @ 담 다왕예. 옛날에는, 지금은 영 휴지덜 나오니까 휴지로.(담 쌓아서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휴지들 나오니까 휴지로.)

108021 #2 보리낭게. 옛날은 보리낭으로 쓸언.(보릿짚. 옛날은 보릿짚으로 쓸었어.)

108021 @ 하하하.(하하하.)

108021 #2 보리낭으로 쓸단 우리 아주버니가 선생 헷어. 경허난 그 수험지 종이.(보릿짚으로 쓸다가 우리 아주버니가 선생 했어. 그러니까 그 시험지 종이.)

108021 @ 시험지 종이?(시험지 종이?)

108021 #2 으, 그거 갖다 주민 그거 벨거로 쓸엇저. 그때 신문도 엇주게, 옛날은. 휴지 난 지 오래지 안헷주. 이거 휴지로 쓴 지.(으, 그거 갖다 주면 그거 별거로 쓸었어. 그때 신문도 없지, 옛날은. 휴지 나온 지 오래지 않았지. 이거 휴지로 쓴 지.)

108021 @ 예.(예.)

108021 #2 멧 년 뒈신가. 휴지 난 지가. 신문도 엇엇어, 그땐. 신문이 어디서. 우리 그 시험지 종이 앗다주민 벨거 많이 허고. 책, 책 써난 것도.(몇 년 됐는가. 휴지 나온 지가. 신문도 없었어, 그땐. 신문이 어디서. 우리 그 시험지 종이 가져다주면 별거 많이 하고. 책, 책 썼던 것도.)

108021 @ 옛날에 경헌 후제 월력 나오난, 일력 나오난.(옛날에 그런 후에 월력 나오니까, 일력 나오니까.)

108021 #2 일력도 나온 지 오래지 안헤서. 옛날에 일력 엇엇어, 잘.(일력도 나온 지 오래지 않았어. 옛날에 일력 없었어, 잘.)

108021 @ 예.(예.)

108021 #2 일력 잘 엇어. 그 웨장짜리 줘세게. 일력 저추룩 떼는 것이 아니고 웨장, 웨장짜리에 열두 덜.(일력 잘 없어. 그 외장짜리 줬어. 일력 저처럼 떼는 것이 아니고

외장, 외장짜리 열두 달.)

108021 @ 아, 한 장에 다.(아, 한 장에 다.)

108021 #2 으, 열두 덜 요만씩, 요만씩 요디가 한 달치, 요디가 한 달치 헤근에 경헌 거 우리 결혼헌 당시에 그런 달력도 잘 어쩌다가 엇어. 경헨 글후에가 잇어주.(으, 열두 달 요만큼씩, 요만큼씩 요기가 한 달치, 요기가 한 달치 해서 그런 거 우리 결혼한 당시에 그런 달력도 잘 어쩌다가 없어. 그런 그 후에가 있었지.)

108021 @ 글후에가.(그 후에가)

108021 #2 이제야 농협이여 어디여 막 기관마다 달력이 하주 달력이 어디 셔게.(이제야 농협이며 어디며 마구 기관마다 달력이 많지 달력이 어디 있어.)

108022 @ 음. 헛간도 잇어낫수과?(음. 헛간도 있었습니까?)

108022 #2 헛간이게.(헛간이.)

108022 @ 아까 ᄀᆞ시락?(아까 까끄라기?)

108022 #2 으, ᄀᆞ시락막[327] 허고 또 헛간에 히여뜩헌 거 ᄂᆞ람쥐 거튼 거 데명 그 헛간게.(으, ‘ᄀᆞ시락막’ 하고 또 헛간에 잡다한 거 이엉 같은 거 쌓아서 그 헛간.)

108022 @ 예.(예.)

108022 #2 쉐막에, 쉐막 반착헨도 그 헛간 허고 쉐막도 허고. ᄀᆞ시락막 반착은 ᄀᆞ시락 허고 반착은 헛간도 허고 헷주게. 헛간이 이제 거트민 창고주게만은 옛날은 초가집이 영 허영. 담도, 헛간엔 문도 잘 엇어.(외양간, 외양간 반쪽해도 그 헛간 하고 외양간도 하고. ‘ᄀᆞ시락막’ 반쪽은 까끄라기 하고 반쪽은 헛간도 하고 했지. 헛간이 이제 같으면 창고지만 옛날은 초가집이 이렇게 해서. 담도, 헛간에 문도 잘 없어.)

108022 @ 문 엇이?(문 없이?)

108022 #2 으, 문 엇이 ᄀᆞᆺ새 그 뭣고 풍체 말고 그 뭣고 새로 예껑 그 낭허여근에 그레 영 헷당 ᄋᆞᆯ앗닥 허멍.(으, 문 없이 아까 그 뭐지 차양 말고 그 뭐지 띠로 엮어서 그 나무해서 그리 이렇게 했다가 열었다가 하면서.)

108022 @ 그거 뭐지? 거 생각 안 남수다예.(그거 뭐지? 거 생각 안 나네요.)

108022 #2 아이, 나도 뭣이엔 ᄀᆞᆯ아난 거 잊어불언 생각을 안 남저.(아이, 나도 뭐라고 말했던 거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

108022 @ 게난 그거 타작헐 때도 허고 뭐 헐 때 ᄁᆞ는 걸로도 써낫수과, 그거?(그러니까 그거 타작할 때도 하고 뭐 할 때 까는 거로도 썼었습니까, 그거?)

108022 #2 으?(으?)

108022 @ 바닥에 ᄁᆞ는 걸로도 써낫수과?(바닥에 까는 거로도 썼었습니까?)

108022 #2 아니, 바닥에 ᄁᆞ는 건 멍석.(아니, 바닥에 까는 건 멍석.)

108022 @ ᄁᆞ는 건 멍석이고, 예.(까는 건 멍석이고, 예.)

108022 #2 멍석 ᄀᆞᆯ앗당.(멍석 깔았다가.)

108022 @ 예.(예.)

108022 #2 ᄀᆞ렛방석은 불림질허는 거, 멍석은 저 날레[328] 너는 거.(맷방석은 까부르

327) ‘ᄀᆞ시락막’은 ‘ᄀᆞ시락(까끄라기)+막’의 구성으로 ‘까끄라기’ 등을 모아 둔 헛간을 말한다.

는 거, 멍석은 저 '날레' 너는 거.)

108023 @ 날레 너는 거예. 그 쉐막에는 쉐 하나 질뤄난 거고?('날레' 너는 거요. 그 외양간에는 소 하나 길렀던 거고?)

108023 #2 으. 쉐 하나도 질루고 말쩨 뒈 가난 두 개 세 개도 질루고 헷주기게.(으. 소 하나도 기르고 말째 돼 가니까 두 개 세 개도 기르고 했지.)

108023 @ 삼춘네도 두 개 세 개 질뤄 보고.(삼촌네도 두 개 세 개 길러 보고.)

108023 #2 으, 두 개 시 개 질롸. 우리 세 개 질롼.(으, 두 개 세 개 길러. 우리 세 개 길렀어.)

108023 @ 음. 그럼 거기에 쉐막에도 거기 쉐 것 주젠 허민 촐 주젠 허민.(음. 그럼 거기에 외양간에도 거기 소 먹이 주려고 하면 꼴 주려고 하면.)

108023 #2 처음엔 촐만 주단 말쩬 낭, 낭 영 허영 낭 쉐 것 주는 거 멘들앙 허당 그 다음 이제 세 개 질루 땐 그다음 세멘 허영 이제 쭐짝허게 허영 이제 그레 쉐촐 썰엉 이제 ᄒᆞ꼼 솖앙도 주고.(처음엔 꼴만 주다가 말째 돼서, 나무 이렇게 해서 나무 소 먹이 주는 거 만들어서 하다가 그다음 이제 세 개 기를 땐 그다음 시멘트 해서 이제 길쭉하게 해서 이제 그리 쇠꼴 썰어서 이제 조금 삶아서도 주고.)

108023 @ 아, 세멘 헤 논 거 한참 후제사예?(아, 시멘트 해 놓은 거 한참 후에요?)

108023 #2 으, 그건 ᄒᆞᆫ 우리 거의 ᄒᆞᆫ 오십 대 뒌에. (으, 그건 한 우리 거의 한 오십 대 돼서.)

108023 @ 그럼 그 전에는 쉐촐 주젠 거기 뭐 갖다 논 거? 돗도고리추룩?(그럼 그 전에는 쇠꼴 주려고 거기 뭐 갖다 놓은 거? '돗도고리'처럼?)

108023 #2 으, 낭으로 멘들앙.(으, 나무로 만들어서.)

108023 @ 낭으로 멘들앙예.(나무로 만들어서요.)

108023 #2 낭으로 멘들앙 그거 솖앙 주곡. 죽도 쒀근에 그레 주곡 그레 허곡.(나무로 만들어서 그거 삶아서 주고. 죽도 쒀서 그리 주고 그리 하고.)

108023 @ 음.(음.)

108023 #2 솖아근에 촐 솖앙 이제 뭐 허껑도 주곡 막 헷주게.(삶아서 꼴 삶아서 이제 뭐 섞어서도 주고 마구 했지.)

108024 @ 음. 항들은 어디 놔낫수과, 항들은?(음. 항아리들은 어디 놨었습니까, 항아리들은?)

108024 #2 항들은 주로 안방에 놔서.(항아리들은 주로 고방에 놨어.)

108024 @ 안방에 놓고. 간장 뒌장?(고방에 놓고. 간장 된장?)

108024 #2 건 장, 장황 이, 이젠 저런 옥상인디 그땐 이런 장독이 잇어.(건 장, 장항이, 이젠 저런 옥상인데 그땐 이런 장독이 있어.)

108024 @ 장독이 잇어예, 어디에 잇어?(장독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

108024 #2 마당 ᄒᆞᆫ착 구석에.(마당 한쪽 구석에.)

108024 @ 저기 정지랑 가까운 디?(저기 부엌이랑 가까운 데?)

328) '날레'는 볕을 쐬기 위하여 멍석에 널어놓는 곡식을 말한다.

108024 #2 아니, 영 마당에 흔착 구석에 영 헤영 햇빗 발른 더레 장독 헤영. 아래 그땐 세멘 엇이난 보멀 딱지도 끌곡 자갈도 끌곡 경헤영 그디 장독 허영 영 동글락헌 돌 넵작헌 거 허영 장항 놈도 허고 경헷주게. 경 다.(아니, 이렇게 마당에 한쪽 구석에 이렇게 해서 햇빛 바른 데에 장독 해서. 아래 그땐 시멘트 없으니까 고둥 딱지도 깔고 자갈도 깔고 그래서 거기 장독 해서 이렇게 동그란 돌 납작한 거 해서 장항 놓기도 하고 그랬지. 그렇게 다.)

108024 @ 장항예.(장항요.)

108024 #2 이젠 옥상덜 이신디 옛날에사 옥상이 잇어게.(이젠 옥상들 있는데 옛날에야 옥상이 있어.)

108024 @ 장항 허민 거기에 항덜을 막 하영 갖다 놔낫수과?(장항 하면 거기에 항들이 아주 많이 갖다 놨었습니까?)

108024 #2 아니, 흔 너댓 개.(아니, 한 너댓 개.)

108024 @ 너댓 개. 장물 항?(너댓 개. 간장 항아리?)

108024 #2 장물 항, 뒌장, 우에 마농지 뭐 그냥 뜬 거 허영 그레 놧주게. 게난 막 하진 안허고.(간장 항아리, 된장, 위에 마늘장아찌 뭐 그냥 딴 거 해서 그리 놨지. 그러니까 아주 많진 않고.)

108024 @ 자리젓 멜첫도 거기에?(자리젓 멸치젓도 거기에?)

108024 #2 아니, 거긴 벳 나. 자리젓 멜첫은 ᄒᆞ꼼 그늘진 디 놔사.(아니, 거긴 볕 나. 자리젓 멸치젓은 조금 그늘진 데 놔야.)

108025 @ 그늘진 디 놔사, 예. 그 옛날에 우리 물 엇이난 수도가 엇이난 그 물 질어오기도 헷주만은 집이서 비 올 때 물 받아나지 안헷수과?(그늘진 데 놔야, 예. 그 옛날에 우리 물 없으니까 수도가 없으니까 그 물 길어오기도 했지만 집에서 비 올 때 물 받았었지 않습니까?)

108025 #2 게 빗물 받앙 쓰주게.(그래 빗물 받아서 쓰지.)

108025 @ 예.(예.)

108025 #2 빗물 받앙 써. 게난 초가집 헌 사람들은 잘 못 받는데 또 그 초가집이 양철 풍체 헌 사름은 막 잘 받아난. 경허단 이제 우리도, 우리 집이 아덜덜이 흔 열 살쯤 헐 때 쓰레뜨 올렷주게. 그 박정희 대통령 헐 때 그 쓰레뜨 삼만 원씩 주난 것에 얼마 부쪙 쓰레뜨, 초가집 걷어 둰 허난 이젠 물땡클 멘들앗어. 게난 이제 지붕에서 받는 거 물땡크레 받안 그거 먹엇주기게.(빗물 받아서 써. 그러니까 초가집 한 사람들은 잘 못 받는데 또 그 초가집에 양철 차양 한 사람은 아주 잘 받았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집의 아들들이 한 열 살쯤 할 때 슬레이트 올렸지. 그 박정희 대통령 할 때 그 슬레이트 삼만 원씩 주니까 것에 얼마 붙여서 슬레이트, 초가집 걷어 두고 하니까 이젠 물탱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지붕에서 받는 거 물탱크에 받아서 그거 먹었지.)

108025 @ 그거 말고 옛날에 집이 큰 낭 잇이민 낭에서 떨어지는 물 받젠?(그거 말고 옛날에 집에 큰 나무 있으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물 받으려고?)

108025 #2 낭에서, 낭은 잘 엇고 그자 그 초가집에선 빗물을 못 받으는디 그 쓰레뜨

올릴 땐 그 빗물을 잘 받아져부난게. 게난 바우에 영 허영 이제 그거 막 항더레 받아 놓고 뭣 허고.(나무에서, 나무는 잘 없고 그저 그 초가집에선 빗물을 못 받는데 그 슬레이트 올릴 땐 그 빗물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마구 항아리에 받아 놓고 뭐 하고.)

108025 @ 낭에 춤 메지는 안 헤낫구나, 춤?(나무에 '춤' 매지는 안 했었구나. '춤'?)

108025 #2 춤[329]이 뭐라?('춤'이 뭐야?)

108025 @ 노끈 꼬아 가지고 낭 아래 항 놩 그 물 받는 거?(노끈 꼬아 가지고 나무 아래 항아리 놔서 그 물 받는 거?)

108025 #2 경은 안 헨.(그렇게는 안 했어.)

초가 지붕이기

108026 @ 경은 안 헨예. 춤은 안 받아난예. 이제는 우리 초가지붕 이는 거 물어보쿠다예. 초가지붕, 지붕.(그렇게는 안 했어요. '춤'은 안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초가지붕 이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초가지붕, 지붕.)

108026 #2 으.(으.)

108026 @ 지붕을 영 바꿔야 뒐 거 아니?(지붕을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

108026 #2 일 때?(일 때?)

108026 @ 일 때.(일 때.)

108026 #2 일 땐 줄 놩게.(일 때는 줄 놔서.)

108026 @ 그거를 매년 헙니까, 아니면?(그거를 매년 합니까, 아니면?)

108026 #2 이 년에 혼 번.(이 년에 한 번.)

108026 @ 이 년에 혼 번. 예, 그거 메젠 허민 어쨌든 이 년에 혼 번 허젠 허민 준비헤야 뒐 거 아니?(이 년에 한 번. 예, 그거 매려고 하면 어쨌든 이 년에 한 번 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

108026 #2 집 이는[330] 사름 빌어사. 아무나 못허여.(지붕 이는 사람 빌려야. 아무나 못해.)

108026 @ 게난 미리, 미리.(그러니까 미리, 미리.)

108026 #2 아니 줄[331]은 미리 놧당, 줄은 아무나 웬만허민 노는디[332] 집 이는 건 아무나 못 놔. 혼 동네 혼 두서너 사람. 게난 그때 돈으로 ᄒᆞ꼼씩 얼마 줘실 거라.(아니 줄은 미리 놨다가, 줄은 아무나 웬만하면 놓는데 지붕 이는 건 아무나 못 놔. 한 동네 한 두서너 사람.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조금씩 얼마 줬을 거야.)

---

329) '춤'을 띠를 머리 땋듯이 땋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이나 빗물 따위를 나무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330) '집 이다'는 이엉 따위로 초가지붕 위를 덮는 것으로 '지붕(을) 이다'의 의미다. '집 일다'라고도 한다.

331) 여기서 '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집줄'이라고도 한다.

332) 여기서 '놓다'는 '줄 놓다'로, '줄 놓다'는 지붕을 이는 '줄'을 꼬아 만드는데, 띠를 알맞게 차례로 잘 조정해 주어 알맞은 굵기로 줄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8027 @ 게난 새를 비영 와야 헐 거 아니과?(그러니까 띠를 베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108027 #2 뭐?(뭐?)

108027 @ 집 일젠 허민 새를 미릿.(지붕 이려고 하면 띠를 미리.)

108027 #2 미릿 비영 흔 시월덜에 비엿당 놔뒷당.(미리 베어서 한 시월에 베어다가 놔뒀다가.)

108027 @ 예.(예.)

108027 #2 이제 줄 노는 건 각단[333].(이제 줄 놓는 건 '각단'.)

108027 @ 각단.('각단'.)

108027 #2 또 집 이는 건 새. 새, 진 건 새. 쯧른 건 각단.(또 지붕 이는 건 띠. 띠, 긴 건 띠. 짧은 건 '각단'.)

108027 @ 각단.('각단'.)

108027 #2 게난 각단으론 줄 놓고 새론 일고.(그러니까 '각단'으론 줄 놓고 띠론 이고.)

108027 @ 그 지붕 초가지붕 한 삼칸집이 지붕을 일젠 허민 새랑 각단이랑 얼마 정도 들어낫수과?(그 지붕 초가지붕 한 삼간집의 지붕을 이려고 하면 띠랑 '각단'이랑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108027 #2 몰라 얼마 들어난 건 나 생각에 몰르고 흔 마흔 뭇쯤 들어신가 흔 오십 뭇 들어신가.(몰라 얼마 들었던 건 내 생각에 모르고 한 마흔 뭇쯤 들었는가 한 오십 뭇 들었는가.)

108027 @ 아, 정확힌 모르고예?(아, 정확히는 모르고요?)

108027 #2 으. 막 우리 저디 멩이눈[334] 남승이[335]꺼장 걸엉 흔 세 시, 네 시에 나강 그꺼장 걸어강 헹 와. 멩이눈 우이 남승이엔 헌 디 강.(으. 마구 우리 저기 '멩이눈' '남승이'까지 걸어서 한 세 시, 네 시에 나가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해서 와. '멩이눈' 위에 '남승이'라고 하는 데 가서.)

108027 @ 멩이눈이 어디라?('멩이눈'이 어디야?)

108027 #2 저 저지[336] 넘어간 디 멩이동. 멩이동도 넘어간 디 이디서 걸엉 강 그거 깃디 강 거 헹 왓어. 경헨 지엉 흔 네다섯 못.(저 저지 넘어간 데 '멩이동'. '멩이동'도 넘어간 데 여기서 걸어가서 그거 가에 가서 거 해서 왔어. 그래서 져서 한 네다섯 뭇.)

108027 @ 네다섯 못.(네다섯 뭇.)

108027 #2 그거 오죽 머냐? 이제 거트민 그디 걸엉 가고 걸엉 와질 거냐?(그거 오죽 머니? 이제 같으면 거기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올 수 있을 거니?)

108027 @ 예.(예.)

108027 #2 그거. 게난 아침 흔 두 시, 세 시에 걸어가.(그거. 그러니까 아침 한 두

333)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334) '멩이눈'은 한경면 저지리의 지명이다. 제보자는 '멩이동'이라고도 하고 있다.
335) '남승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남송이오름'을 말한다.
336) '저지'는 한경면 저지리를 말한다.

시, 세 시에 걸어가.)

108027 @ 예.(예.)

108027 #2 걸어강 이제 그거 비영 이제 비영 왕 헤낫주게.(걸어가서 이제 그거 베어서 이제 베어서 와서 했었지.)

108027 @ 게난 이 근처에서는 빌 디가 엇고?(그러니까 이 근처에서는 벨 데가 없고?)

108027 #2 이 근처에서도 비는디 모지레난 경허연.(이 근처에서도 베는데 모자라니까 그랬어.)

108027 @ 음.(음.)

108027 #2 모지레고 그거 보충허레 막 그 새왓[337] 엇인 사름덜은 그디 강 비어 와나고 저 당모오름에도 강 ᄒᆞ꼼 비여 와나고.(모자라고 그거 보충하러 마구 그 '새왓'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베어 왔었고 저 '당모오름'에도 가서 조금 베어 왔었고.)

108027 @ 당모오름?('당모오름'?)

108027 #2 으, 이디 저지.(으, 여기 저지.)

108027 @ 예.(예.)

108027 #2 저지오름[338]에 그딘 쫄른 거베낀 엇고.('저지오름'에 거긴 짧은 거밖에 없고.)

108027 @ 여기 신창은, 여기는 오름이 엇수과, 신창은?(여기 신창은, 여기는 오름이 없습니까, 신창은?)

108027 #2 오름이 엇주게.(오름이 없지.)

108027 @ 아, 오름이 엇이난 저지까지 강.(아, 오름이 없으니까 저지까지 가서.)

108027 #2 저지오름엔 쫄르고 그 남승이오름[339]엔 가민 질어.('저지오름'에는 짧고 그 '남승이오름'에는 가면 길어.)

108027 @ 남송이?('남송이'?)

108027 #2 으, 남승이오름이엔 허멍 우리 저 멩이눈 우이도, 멩이눈에서 더 오름 강 그디까지 강 헤 와나서.(으, '남승이오름'이라고 하면서 우리 저 '멩이눈' 위에도, '멩이눈'에서 더 오름 가서 거기까지 가서 해 왔었어.)

108027 @ 아, 남승이오름 강.(아, '남승이오름' 가서.)

108027 #2 경혜영 그거 지영 우리 어무니네영 허영 지여정 막 와나서. 멧 사름이 갓다 와.(그래서 그거 져서 우리 어머니네랑 해서 지어서 마구 왔었어. 몇 사람이 갔다 와.)

108027 @ 그민 이제 집줄 놓아야 헐 거 아니예. 집줄은 아무나 놔?(그럼 이제 '집줄' 놓아야 할 거 아니요. '집줄'은 아무나 놔?)

108027 #2 아니, 집줄[340] 허민 놔난 사름은 다 놔. 게난.(아니, '집줄' 하면 놨던 사

337) '새왓'은 지붕에 일 띠가 나서 자라는 밭을 말한다.
338) '저지오름'은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오름이다.
339) '남승이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남송이오름'을 말한다.
340)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람은 다 놔. 그러니까.)

108028 @ 뭐가 잇어야 뒙니까, 집줄 놓젠 허민?(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줄' 놓으려고 하면?)

108029 #2 호렝이[341]게.('호렝이'.)

108029 @ 호렝이 잇고 뒤에 허는 거는?('호렝이' 있고 뒤에 하는 거는?)

108029 #2 또 거 무신 뒤.(또 거 무슨 뒤.)

108029 @ 뒤치기?('뒤치기'?)

108029 #2 으, 뒤치기 호렝이[342]게.(으, '뒤치기 호렝이'.)

108029 @ 뒤치기 호렝이. 집줄 놓는 거 한 번 혜 봅서. 어떵 놉니까?('뒤치기 호렝이'. '집줄' 놓는 거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놓습니까?)

108029 #2 아, 게난 이거 영 영 영 영 이디서 각단 허영 흔 사람이 놔 주민 또 흔 사람이 그 호렝이로 끗어가야 헐 거 아니?(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각단' 해서 한 사람이 놔 주면 또 한 사람이 그 '호렝이'로 끌어가야 할 거 아니?)

108028 @ 예.(예.)

108028 #2 이레 다 꼽앗당 이제 두 개 두 개 부쩡 이제 흔 사름은 이레 영 혜영 두 개 두 개 부쩡 가야주게.(이리 다 꼽았다가 이제 두 개 두 개 붙여서 이제 한 사람은 이리 이렇게 해서 두 개 두 개 붙여서 가야지.)

108028 @ 그 집줄 놓젠 허민 일헐 때 사람이 멧 사람?(그 '집줄' 놓으려고 하면 일할 때 사람이 몇 사람?)

108028 #2 네 사람 들어야주게.(네 사람 들어야지.)

108028 @ 네 사람 들어야.(네 사람 들어야.)

108028 #2 이디서 흔 사람 허여야지.(여기서 한 사람 해야지.)

108028 @ 예.(예.)

108028 #2 이거 흔 사람 영 허여야지. 또 저디 둘이 호렝이 또 거 줄 둘이 혜야 예껴지지. 게난 처음 혜 갈 때는 둘이 허여 가고 말쩨 부찔 때도 너이 허여사. 천상 너이 허여. 집 하나 허젠 허민 너이나 혜야 집 하나어치 헤져.(이거 한 사람 이렇게 해야지. 또 저기 둘이 '호렝이' 또 거 줄 둘이 해야 엮어지지. 그러니까 처음 해 갈 때는 둘이 해 가고 말째 붙일 때도 넷이 해야. 천상 넷이 해. 집 하나 하려고 하면 넷이나 해야 집 하나치 할 수 있어.)

108028 @ 음.(음.)

108028 #2 겐 두 시, 흔 세 시, 네 시꺼장. 집 시작혜야. 우리도 전이 혜 보민.(그래서 두 시, 한 세 시, 네 시까지. 집 시작해야. 우리도 전에 해 보면.)

108028 @ 게민 그것도 놉 빌어사큰게.(그럼 그것도 놉 빌려야겠네.)

108028 #2 놉 빌엉.(놉 빌려서.)

---

341) '호렝이'는 줄이나 참바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다.

342) '뒤치기 호렝이'는 줄이나 참바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다.

108028 @ 놉 빌엉.(놉 빌려서.)

108028 #2 놉 빌엉도 허고 수눌엉도 허고.(놉 빌려서도 하고 품앗이해서도 하고.)

108028 @ 수눌엉도 허고예.(품앗이해서도 하고요.)

108028 #2 옛날에. 놉 빌엉 그거 허저 저거 허저 옛날엔 ᄉᆞ못. 첨 이젠 맨날 놀레 뎅겨도. 첨 부지런헷주, 겨울에 거 콩 솖저 하간 거 허저, 멘네 블르저 얼마나 바빠, 옛날에사.(옛날에. 놉 빌려서 그거 하랴 저거 하랴 옛날엔 사뭇. 참 이젠 맨날 놀러 다녀도. 참 부지런했지, 겨울에 거 콩 삶으랴 온갖 거 하랴, 목화 뽑으랴 얼마나 바빠, 옛날에야.)

108028 @ 아.(아.)

108028 #2 놀레 갈 저르가 엇어.(놀러 갈 겨를이 없어.)

108028 @ 예. 게민 그 집줄도 진 줄이 잇고 ᄍᆞ른 줄 잇지 안헤?(예. 그럼 그 '집줄'도 긴 줄이 있고 짧은 줄 있지 않아?)

108028 #2 으, 진 줄은 이거 지붕 지레기가 진 줄. 이 ᄀᆞ루 허는 건 ᄍᆞ른 줄.(으, 긴 줄은 이거 지붕 길이가 긴 줄. 이 가로 하는 건 짧은 줄.)

108028 @ 음.(음.)

108028 #2 ᄀᆞ루 허는 거 ᄍᆞ른 줄.(가로 하는 거 짧은 줄.)

108028 @ 것도 어떵 대충 다 맞게 장만을 헙니까?(것도 어떻게 대충 다 맞게 장만을 합니까?)

108028 #2 처음에 노끈으로 맞춰 봉 줄을 놔[343] 감주게.(처음에 노끈으로 맞춰 봐서 놔 가지.)

108028 @ 아, 맞춰 봉 대강?(아, 맞춰 봐서 대강?)

108028 #2 게난 마당에, 주로 마당에서. 마당이 보통 질어. 겐 마당 질지 안헌 사름은 어디 저 질레 거튼 디, 골목에. 옛날 차도 하지 안허고 허난게 질레 강도 놓고. 주로 마당에서 놓민 딱 맞아.(그러니까 마당에, 주로 마당에서. 마당이 보통 길어. 그래서 마당 길지 않은 사람은 어디 저 길에 같은 데, 골목에. 옛날 차도 많지 않고 하니까 길에 가서도 놓고. 주로 마당에서 놓으면 딱 맞아.)

108028 @ 음. 대략 맞췽, 집줄 이 정도민 뒈켜 허민.(음. 대략 맞춰서, '집줄' 이 정도면 되겠어 하면.)

108028 #2 음. 게난 진 줄로 맞춰 그 지레기로 허영 고젱이 꼽앙 이제 영 처음 혼 번썩 영 웨가달 헌 걸 다 꼽아 놔. 거 호렝이에 거를 낭께기에 꼽아 놓고 꼽아 놓고 허영 이제 또 두 개 부찔 때도 이제 그거. 게난 저짝에서 둘이가 허고 혼 사람 일로 영 헤 가고 혼 사람 뒤에서 호렝이 치고 경헤야주게.(음. 그러니까 긴 줄로 맞춰 그 길이로 해서 꼬챙이 꼽아서 이제 이렇게 처음 한 번씩 이렇게 외가닥 한 걸 다 꼽아 놔. 거 '호렝이'에 거를 나뭇가지에 꼽아 놓고 꼽아 놓고 해서 이제 또 두 개 붙일 때도 이제 그거. 그러니까 저쪽에서 둘이 하고 한 사람 이리로 이렇게 해 가고 한 사람 뒤에서 '호렝

343) '줄을 놓다'는 초가지붕을 일 때 묶는 '줄'을 꼬아 만드는데, 띠를 알맞게 차례로 잘 조정해 주어 알맞은 굵기로 줄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치고 그래야지.)

108028 @ 음, 호렝이 치고예. 그 집줄 놓은 거 지붕 무끌 때 초가집 앞에 묶는 데가 있잖아예?(음, ‘호렝이’ 치고요. 그 ‘집줄’ 놓는 거 지붕 묶을 때 초가집 앞에 묶는 데가 있잖아요?)

108028 #2 무슨?(무슨?)

108030 @ 지붕 아래, 지붕 아래. 집줄을 어디에 무끕니까?(지붕 아래, 지붕 아래. ‘집줄’을 어디에 묶습니까?)

108030 #2 그디 서리에게, 집 서리에.(거기 서까래에, 집 서까래에.)

108030 @ 집 서리?(집 서까래?)

108030 #2 아니고 그 줄 메는 디가 바우에 쭉.(아니고 그 줄 매는 데가 가장자리에 쭉.)

108030 @ 바우에 쭉 허게예?(가장자리에 쭉 하게요?)

108030 #2 으, 대를 허영 놔둬. 저 ᄀᆞ는 낭 허영 쭉 그거.(으, 대를 해서 놔둬. 저 가는 나무 해서 쭉 그거.)

108030 @ 으, ᄀᆞ는 낭 허여, 대나무 허여?(으, 가는 나무 해서, 대나무 해?)

108030 #2 아니 저 낭, 낭으로 쭉.(아니 저 나무, 나무로 쭉.)

108030 @ 게민 그거를 뭐렌 부르는 것과?(그럼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108030 #2 집 서리 아래.(집 서까래 아래.)

108030 @ 거 거왕이렌 불러?(거 평고대라고 불러?)

108030 #2 거왕, 거왕.(평고대, 평고대.)

108030 @ 거왕이렌 불러?(‘거왕’이라고 불러?)

108030 #2 거왕, 거왕.(‘거왕’, 평고대.)

108030 @ 거왕예. 아, 거왕 허는 낭은 따로 엇고?(평고대요. 아, 평고대 하는 나무는 따로 없고?)

108030 #2 으, 소낭.(으, 소나무.)

108030 @ 소낭.(소나무.)

108030 #2 으, 게난 그거 멧 년에 ᄒᆞᆫ 번씩 삭으민 새로 ᄀᆞᆯ고 헨게.(으, 그러니까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삭으면 새로 갈고 했어.)

108030 @ 음.(음.)

108030 #2 게난 그레 다 헤사주. 겨난 이 서리에 그거 또 이걸 헤야 뒐 거 아니.(그러니까 그리 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 서까래에 그거 또 이걸 해야 될 거 아니.)

108030 @ 예.(예.)

108030 #2 쭉 바우 돌아가멍.(쭉 가장자리 돌아가면서.)

108030 @ 예, 거왕 헤 가지고 쭉 돌리멍 허는 거라예?(예, 평고대 해 가지고 쭉 돌리면서 하는 거지요?)

108030 #2 게난 거 ᄒᆞᆫ 삼, 사 년에 ᄒᆞᆫ 번씩 거 헐민 또 삭으민 새로 허곡 헷주게. 것이 ᄒᆞ꼼 ᄀᆞ노롱허난.(그러니까 거 한 삼, 사 년에 한 번씩 거 헐면 또 삭으면 새로 하

고 했지. 것이 조금 가느다라니까.)

108032 @ 예. 집줄 쓰당 남으믄 뭐 헙니까?(예. '집줄' 쓰다가 남으면 뭐 합니까?)

108032 #2 방석게, 줄방석.(방석, 줄방석.)

108032 @ 하하.(하하.)

108032 #2 그거 헤사 정지 끌앙 앚앗주게.(그거 해야 부엌 깔아서 앉았지.)

108032 @ 예. 정지에 끌앙 앚는 거. 줄방석예.(예. 부엌에 깔아서 앉는 거. 줄방석요.)

108032 #2 줄방석 끌앙 앚당 글후엔 또 낭 방석 멘들앙 앚아. 낭 방석. 낭 방석은 어떤 집이나 허고 거의 다 그 줄 메난 걸로 헹 동글락허게 줄방석. 줄방석 헹 앚앗주기게.(줄방석 깔아서 앉다가 그 후엔 또 나무 방석 만들어서 앉아. 나무 방석. 나무 방석은 어떤 집이나 하고 거의 다 그 줄 맸던 걸로 해서 동그랗게 줄방석. 줄방석 해서 앉았지.)

108032 @ 예.(예.)

108032 #2 정지에서 줄방석 헹 다 밥 먹으난게.(부엌에서 줄방석 해서 다 밥 먹으니까.)

108032 @ 정지에서 줄방석 헹.(부엌에서 줄방석 해서.)

108032 #2 줄방석 헹 밥 먹엇주. 옛날에 상 ᄒᆞ꼼 중간 뒈 가사 상도 놩 밥 먹엇주. 아래 먹엇주.(줄방석 해서 밥 먹었지. 옛날에 서서 조금 중간 돼 가야 상도 놔서 밥 먹었지. 아래 먹었지.)

108032 @ 아래서 먹은 거라.(아래에서 먹은 거야.)

108032 #2 으, 아래 줄방석 끌앙 아래 먹엇주. 그냥 아래 놩.(으, 아래 줄방석 깔아서 아래 먹었지. 그냥 아래 놔서.)

연장

108033 @ 예. 집 짓을 때 연장은 뭐 썻수과?(예. 집 지을 때 연장은 뭐 썼습니까?)

108033 #2 그 주로 대패덜 쓰곡게. 것사 남자덜 쓰는 거난 잘. 자귀.(그 주로 대패들 쓰고. 거야 남자들 쓰는 거니까 잘. 자귀.)

108033 @ 자귀, 대패.(자귀, 대패.)

108033 #2 으, 끌.(으, 끌.)

108033 @ 끌.(끌.)

108033 #2 끌게.(끌.)

108033 @ 낭 자르젠 허민?(나무 자르려고 하면?)

108034 #2 자르는 건 톱게.(자르는 건 톱.)

108034 @ 톱.(톱.)

108034 #2 톱.(톱.)

108034 @ 톱에도 영 종류가 이실 거 아니?(톱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을 거 아니?)

108034 #2 둘이가 허는 건, 옛날은 둘이가 다 쌋주게. 큰톱허영 둘이 잡아뎅겨. 그디서 잡아뎅기민 이디서 잡아뎅기고.(둘이 하는 건, 옛날은 둘이 다 켰지. 큰톱해서 둘이 잡아당겨. 거기서 잡아당기면 여기서 잡아당기고.)

108034 @ 예.(예.)

108034 #2 큰톱 잇고 그냥 톱 잇고.(큰톱 있고 그냥 톱 있고.)

108034 @ 게민 둘이 잡앙 영 뎅기는 톱 일름이 뜨로 엇어?(그럼 둘이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 톱 이름이 따로 없어?)

108034 #2 여사, 여사 허멍 막 소리허멍 불러낫주게.(여사, 여사 하면서 마구 소리하면서 불렀었지.)

108034 @ 그 톱 이름, 불르는 명칭?(그 톱 이름, 부르는 명칭?)

108034 #2 몰라 건.(몰라 건.)

108034 @ 몰라. 그냥 영 영 영 영 소리허멍예?(몰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소리하면서요?)

108034 #2 으. 버치민 소리가 나왓주게. 버치민. 힘들민 그게 소리가 나와사 뒐 거 아니?(으. 힘에 부치면 소리가 나왔지. 힘에 부치면. 힘들면 그게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

108034 @ 예, 힘들민.(예, 힘들면.)

108034 #2 으.(으.)

108034 @ 예.(예.)

108034 #2 걸름도 볼를 때, 밧도 볼를 때 힘들민 다 소리가 나오는 거라.(거름도 밟을 때, 밭도 밟을 때 힘들면 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108035 @ 예. 톱은 낭 자를 때 쓰고 대패는 뭐 헐 때 쓰는 것과?(예. 톱은 나무 자를 때 쓰고 대패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108035 #2 건 깎을 때 민드글락허게 깎을 때게.(건 깎을 때 매끄럽게 깎을 때.)

108035 @ 깎을 때. 못뽑이는 뭐과?(깎을 때. 못뽑이는 뭡니까?)

108036 #2 건 못 뽑는 거게. 못빼기, 못빼기.(건 못 뽑는 거. 못뽑이, 못뽑이.)

108036 @ 못빼기?(못뽑이?)

108036 #2 못빼기.(못뽑이.)

108036 @ 못빼기렌 불러난 거.(못뽑이라고 불렀던 거.)

108038 #2 못빼기, 먹통. 먹통은게, 이제 먹물 놔근에게 실 헤영 영 영 감앙 굳짝허게 허는 것ᄀᆞ라 먹통, 먹통이엔 헷구나.(못뽑이, 먹통. 먹통은, 이제 먹물 놔서 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곧게 하는 것보고 먹통, 먹통이라고 했구나.)

108038 @ 집 지을 때?(집 지을 때?)

108038 #2 으, 먹통 헤사 줄 딱 맞춰. 이젠 줄자로 작 작 허는디 옛날엔 먹통으로 헷주게.(으, 먹통 해야 줄 딱 맞춰서. 이젠 줄자로 작 작 하는데 옛날은 먹통으로 했지.)

108038 @ 게민 먹통도 잇고 먹줄도 잇어낫수과?(그럼 먹통도 있고 먹줄도 있었습니까?)

108038 #2 잇주게. 그 먹통에 줄이 잇어.(있지. 그 먹통에 줄이 있어.)

108038 @ 예.(예.)

108038 #2 실.(실.)

108038 @ 실이 잇어?(실이 있어?)

108038 #2 으. 게난 그 실 죽 잡아뎅경 굳짝허게 헐 거 아니. 영 퉁강퉁강 잡아뎅기는디 먹물이 짝 긋어지믄. 또 영 영 허믄 감아지고 허주.(으. 그러니까 그 실 죽 잡아당겨서 곧게 할 거 아니. 이렇게 퉁퉁 잡아당기는데 먹물이 짝 그어지면.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감기고 하지.)

108038 @ 감아지고예.(감기고요.)

108038 #2 그디 먹물 놓민 그 실에 묻엉 탁 뒈난 짝 그 선을 허여사 맞추앙.(거기 먹물 넣으면 그 실에 묻어서 탁 되니까 짝 그 선을 해야 맞춰서.)

108036 @ 게민 아까 대패에도 종류가 잇어낫수과?(그럼 아까 대패에도 종류가 있었습니까?)

108036 #2 으게. 그냥 홈파는 대패 잇고 넵작헌 대패 잇고.(으. 그냥 홈파는 대패 있고 납작한 대패 있고.)

108036 @ 넵작헌 대패 잇고. 두 개예.(납작한 대패 있고. 두 개요.)

108036 #2 으.(으.)

108035 @ 못뻬기도 못 박는 부분도 잇고.(못뽑이도 못 박는 부분도 있고.)

108035 #2 으게.(으.)

108035 @ 못 박는 부분도 잇고예. 그거 불르는 일름은 따로 엇고?(못 박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 부르는 이름은 따로 없고?)

108035 #2 으, 못뻬기만 허주.(으, 못뽑이만 하지.)

108035 @ 못뻬기만 허고. 자는 엇어낫수과, 자?(못뽑이만 하고. 자는 없었습니까, 자?)

108037 #2 으?(으?)

108037 @ 자, 잣대?(자, 잣대?)

108037 #2 잣대게 옷 허는 잣대 말고?(잣대. 옷 하는 잣대 말고?)

108037 @ 집 짓을 때도?(집 지을 때도?)

108037 #2 집 짓을 땐 그 먹물로 자 헨게. 또 영 오그라진 대, 잣대가 잇어서.(집 지을 땐 그 먹물로 자 해서. 또 이렇게 오그라진 대, 잣대가 있었어.)

108037 @ 예. 오그라진. 영 굽은 거예?(예. 오그라진. 이렇게 굽은 거요?)

108037 #2 으. 그거나베낀. 이젠 줄자 이신디 그땐 오그라진 자.(으. 그거나밖에. 이젠 줄자 있는데 그땐 오그라진 자.)

108037 @ 음. 게민 이 오그라진 자를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엇엇수과?(음. 그럼 이 오그라진 자를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었습니까?)

108037 #2 몰라, 그냥 오그라진 잣댄 잣대, 잣대만 헤나난.(몰라, 그냥 오그라진 잣대는 잣대, 잣대만 했었으니까.)

108039 @ 잣대, 잣대만 헤나고. 예. 그다음 흑손 아까 쒜손?(잣대, 잣대만 했었고. 예. 그다음 흙손 아까 쇠손?)

108039 #2 쒜손, 낭손[344].(쇠손, '낭손'.)

108039 @ 예. 낭손 쓰단 쒜손 나중에 썼던 거고?(예. '낭손' 쓰다가 쇠손 나중에 썼던 거고?)

108039 #2 으.(으.)

108039 @ 이거도 잇어낫잖아예? 쒜손 쓸 때.(이거도 있었잖아요? 쇠손 쓸 때.)

108039 #2 건 낭, 낭 판데기 허영게.(건 나무, 나무 판때기 해서.)

108039 @ 불르는 이름을 엇어낫어?(부르는 이름이 없었어?)

108039 #2 판데기.(판때기.)

108039 @ 낭 판데기렌.(나무 판때기라고.)

108039 #2 으, 낭 판데기.(으, 나무 판때기.)

9. 신앙

109001 @ 이 동네는 당덜이 별로 엇수과?(이 동네는 당들이 별로 없었습니까?)

109001 #2 할망당[345] 잇어.('할망당' 있어.)

109001 @ 할망당 잇어?('할망당' 있어?)

109001 #2 잇어낫어. 거머들[346] 알.(있었어. '거머들' 아래.)

109001 @ 뭐, 뭐? 거머들락?(뭐, 뭐? 거머들락?)

109001 #2 요, 요디 거머들 알이엔 허멍 할망당 잇어난.(요, 요기 '거머들' 아래라고 하면서 '할망당' 있었어.)

109001 @ 으.(으.)

109001 #2 용당[347]도 골세왓[348]이엔 헌 디 할망당 잇고. 겐디 이젠 안 허여.(용당도 '골세왓'이라고 하는 데 '할망당' 있고. 그런데 이젠 안 해.)

109001 @ 이젠 안 허여.(이젠 안 해.)

109001 #2 저 고산[349]은 이제 집 짓언 헴선게.(저 고산은 이젠 집 안 짓고 하고 있었어.)

109001 @ 예. 우리, 집에도 신이 잇덴 허잖아예?(예. 우리, 집에도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109001 #2 이렌 잘 안 헌디 베염 모시는 딘 거의 다 안방에 모셔낫주게. 경허고 이

344) '낭손'은 흙일을 할 때에, 이긴 흙을 떠서 바르고 그 겉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나무로 만든 연장을 말한다.
345) '할망당'은 마을 사람들의 부귀, 건강, 출세 따위의 사람 살이에 관
346) '거머들'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지명이다.
347) '용당'은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를 말한다.
348) '골세왓'은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의 지명이다.
349) '고산'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를 말한다.

제 뭣고 토신제엔 허멍 이제 정월 나민 토신제 허고 헤나서.(이리는 잘 안 하는데 뱀 모시는 덴 거의 다 안방에 모셨었지. 그리고 이제 뭐지 토신제라고 하면서 이제 정월 되면 토신제 하고 했었어.)

109001 @ 정월 낭 제지내는 거 그거 안택이렌 헙니까?(정월 돼서 제지내는 거 그거 안택이라고 합니까?)

109001 #2 게난 그거 저 산제엔 허멍. 건 아무 집이나 안 허고 어떤 집이덜 헤낫주게.(그러니까 그거 저 산제라고 하면서. 건 아무 집이나 안 하고 어떤 집이들 했었지.)

109001 @ 예.(예.)

109001 #2 토신제 지냄저. 산제 지냄저. 정월 나민 날 받아근에 ᄉᆞ못 몸도 깨끗허게 허고 헤난.(토신제 지내고 있어. 산제 지내고 있어. 정월 되면 날 받아서 사뭇 몸도 깨끗하게 하고 했었어.)

109001 @ 아.(아.)

109001 #2 게난 그거 이제 거트민 베염 모시는 거라.(그러니까 그거 이제 같으면 뱀 모시는 거야.)

109001 @ 아, 아니 안방에 모시는 게 베염 모시는 거 아니?(아, 아니 고방에 모시는 게 뱀 모시는 거 아니?)

109001 #2 게난 그거 그 우리 우리 안 헌디 우리 이모네가 자구내[350]에 살멍 모션. 게난 우리 어무니 신 때 아이고 저거 무신 도체비 모셔근에 ᄉᆞ못 용왕 모셔근에 잘 안 허민 망허여, 망허여. 헌디 이모네 막 잘 살아낫어, 옛날.(그러니까 그거 그 우리 우리 안 했는데 우리 이모네가 '자구내'에 살면서 모셨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있을 때 아이고, 저거 무슨 도깨비 모셔서 사뭇 용왕 모셔서 잘 안 하면 망해, 망해. 그런데 이모네 아주 잘 살았었어, 옛날.)

109001 @ 음.(음.)

109001 #2 그때 우리 초가집 헐 때 양철집 허고 살아난디 경허영 첨 잘 안 허여산디 메누리에 왕 삭 망허여 먹언. 우리 어무니가 시상에 우리 이모ᄀᆞ라 아이고 구신 잘못 모시믄 이제 망허여, 망허여. 우리 이모신디 막 헤낫어.(그때 우리 초가집 할 때 양철집 하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참 잘 안 했는지 며느리 와서 삭 망해 먹었어.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우리 이모보고 아이고 귀신 잘못 모시면 이제 망해, 망해. 우리 이모에게 마구 했었어.)

109001 @ 음.(음.)

109001 #2 경헨게 첨 탁 잘 살단 망허연게.(그러더니 참 탁 잘 살다가 망했어.)

109001 @ 음.(음.)

109001 #2 우리 이모네, 이모네 이모 동서네 막 옛날 잘 살앙 다 망허영. 안방 모셔난 사람. 우린 거 몰른디 우린 안 허난, 우리 어무니넨 안 허난. 우리 어무닌 막 이모신디 너네 토신, 거 저 안방에 신 잘못 모시민 망허여. 말쩨 잘 안 허민 망허여 헤난게 첨 망허연. 아닌 게 아니라.(우리 이모네, 이모네 이모 동서네 아주 옛날 잘 살아서 다 망

350) '자구내'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지명이다.

했어. 고방 모셨던 사람. 우린 거 모르는데 우린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네는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주 이모에게 너희 토신, 거 저 고방에 신 잘못 모시면 망해. 말째 잘 안 허면 망해 하니까 참 망했어. 아닌 게 아니야.)

109001 @ 음.(음.)

109001 #2 겐나 그 모시는 건 우린 몰라게.(그러니까 그 모시는 건 우린 몰라.)

109001 @ 아, 모릅니까?(아, 모릅니까?)

109001 #2 이모넨 경 모셩 경 어머니 오민 이모신디 막 허여근에 토신 잘 아이 모시민 말째 망헌다, 망헌다 헨게 아닌 게 아니라, 메누리덜 헤여 온 후제 싹 망허여, 우리 이모네가.(이모넨 그렇게 모셔서 그렇게 어머니 오면 이모에게 마구 해서 토신 잘 안 모시면 말째 망한다, 망한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야, 며느리들 해 온 후에 싹 망해, 우리 이모네가.)

109003 @ 저기 식게헐 때 문전 헙니까? 삼춘네?(저기 제사할 때 문전 합니까? 삼촌네?)

109003 #2 으, 문전[351] 허여 우리. 문전.(으, '문전' 해 우리. '문전')

109003 @ 제사헐 때 무사 문전을 허는 것과?(제사할 때 왜 '문전'을 하는 겁니까?)

109003 #2 문전 앞이게 이거, 이거 오널 제사 지냄구나 헹 경.(문전 앞에 이거, 이거 오늘 제사 지내는구나 해서 그렇게.)

109003 @ 예.(예.)

109003 #2 게난 문전이 먼저. 올릴 때도 문전상[352]부터 올려뒁 제사상 올리주게.(그러니까 문전에 먼저. 올릴 때도 '문전상'부터 올려두고 제사상 올리지.)

109003 @ 음.(음.)

109003 #2 겐 또 문전상 내리왕 또 제사허고.(그래서 또 '문전상' 내려서 또 제사하고.)

109003 @ 문전상 내려 뒁 제사허고예?('문전상' 내려 두고 제사하고요?)

109003 #2 으, 멩질 때도 경허여.(으, 명질 때도 그래.)

109003 @ 게난 문전 안 허는 디도 잇는 거 아니?(그러니까 '문전' 안 하는 데도 있는 거 아니?)

109003 #2 거 이 성당 허는 사름은 안 허여.(거 이 성당 하는 사람은 안 해.)

109003 @ 제사는 헤도 식게는 헤도?(제사는 해도 제사는 해도?)

109003 #2 으, 안 허여. 거의 다 안 허여.(으, 안 해. 거의 다 안 해.)

109003 @ 게난 아멩헤도 문전이 여기 집 신안테 영 올리는 거잖아예?(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전이 여기 집 신한테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109003 #2 으, 으.(으, 으.)

109004 @ 조왕은 뭐과 조왕은?(조왕은 뭡니까, 조왕은?)

109004 #2 조왕은 정지에게. 조왕제.(조왕은 부엌에. 조왕제.)

---

351) '문전'은 문 앞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주로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문전제'라고도 한다.

352) '문전상'은 '문전제'를 지내기 위해 차린 상을 말한다.

109004 @ 아, 조왕제는 정제에.(아, 조왕제는 부엌에.)

109004 #2 게난 굿헐 때 조왕제 올리고 다 문전제 올리고 경헴주.(그러니까 굿할 때 조왕제 올리고 다 '문전제' 올리고 그러지.)

109004 @ 게민 삼춘넨 조왕제 헴수과?(그럼 삼촌넨 조왕제 하고 있습니까?)

109004 #2 안 허여.(안 해.)

109003 @ 문전제만 허는 거?('문전제'만 하는 거?)

109003 #2 문전제만. 아, 조왕제는 굿헐 때는 조왕 올려.('문전제'만. 아, 조왕제는 굿할 때는 조왕 올려.)

109003 @ 식게헐 때, 식게헐 때?(제사할 때, 제사할 때?)

109003 #2 식게헐 때 안 혜.(제사할 때 안 해.)

109003 @ 식게 때는 안 허고.(제사 때는 안 하고.)

109003 #2 법당에는 그런 조왕단 잇고 첨 그런 산신당 그런 당. 저 법당에는 조왕단이 잇어.(법당에는 그런 조왕단 있고 참 그런 산신당 그런 당. 저 법당에는 조왕단이 있어.)

109003 @ 음.(음.)

109003 #2 식게 때는 막 하영 헤사 문전제 허고 제사상 올리고 절반 이제 문전제덜 안 헴실 거라. 우리, 우리 집안에 다 허여. 문전제. 게난 문전제 상부터 올려. 저 제사상 말앙.(제사 때는 아주 많이 해야 '문전제' 하고 제사상 올리고 절반 이제 '문전제'들 안 하고 있을 거야. 우리, 우리 집안에 다 해. '문전제'. 그러니까 '문전제' 상부터 올려. 저 제사상 말고.)

109003 @ 우리는예 저 고팡제를 지내낫거든마씨.(우리는요 저 고방제를 지냈었거든요.)

109003 #2 게난 그 고팡제가 옛날은 뭐 신 모셤젠 허멍 우리 이모네도 헤낫주게. 우린 안 헤난.(그러니까 그 고방제가 옛날은 뭐 신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 이모네도 했었지. 우린 안 했었어.)

109005 @ 게난 그 고팡제가 칠성제가 뒈는 거라?(그러니까 그 고방제가 '칠성제'가 되는 거야?)

109005 #2 으, 칠성제[353].(으, '칠성제'.)

109005 @ 우리는 부엌신안테, 정지신안테 주는 거렌 어무니가 고팡에 제를 헙디다. 부엌에서 안 허고, 정지에서 안 허고.(우리는 부엌신에게, 부엌신에게 주는 거라고 어머니가 고방에 제를 합디다. 부엌에서 안 하고, 부엌에서 안 하고.)

109005 #2 저 동촌[354]도 다 경허여.(저 동촌도 다 그래.)

109005 @ 예, 동촌. 우리가 동쪽이거든예.(예, 동촌. 우리가 동쪽이거든요.)

109005 #2 으, 나도 몰른디 김녕 우리 아는 할망이 막 친헌 할망이 잇어.(으, 나도 모르는데 김녕 우리 아는 할머니가 아주 친한 할머니가 있어.)

109005 @ 예, 예.(예, 예.)

353) '칠성제'는 칠성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354) '동촌'은 동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109005 #2 게난 그 고팡제 허고 또 베껴디도 ᄂᆞ람쥐 씌워 놩 쏠 매번 데껌ᄀᆞ렌 허곡게. 우리 결혼헌 후에도. 쏠 거령 아침 저녁 밥헐 때마다 그레 멧 방울 거려 던진덴.(그러니까 그 고방제 하고 또 밖에도 이엉 씌워 놓고 쌀 매번 던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 결혼한 후에도. 쌀 떠서 아침 저녁 밥할 때마다 그리 몇 방울 떠서 던진다고.)

109005 @ 예.(예.)

109005 #2 경헨게.(그랬어.)

109005 @ 게난 여기는 안방에서 제지내는 건 칠성제 모시는 거고.(그러니까 여기는 고방에서 제지내는 건 '칠성제' 모시는 거고.)

109005 #2 칠성제.('칠성제'.)

109005 @ 조왕제는 그냥 정지에서 허는 거구나예?(조왕제는 그냥 부엌에서 하는 거군요?)

109005 #2 으.(으.)

109002 @ 성주가 뭐과? 성주?(성주가 뭡니까?)

109002 #2 성준 집 짓엉 성주게.(성주는 집 지어서 성주.)

109002 @ 집 짓엉 성주.(집 지어서 성주.)

109002 #2 으, 집 짓엉. 저 성주 헤나난 히여뜩히여뜩. 저거 성주풀이 탁탁 부친 거. 저 히여뜩히여뜩헌 거.(으, 집 지어서. 저 성주 했었던 희끗희끗. 저거 성주풀이 탁탁 붙인 거. 저 희끗희끗한 거.

109002 @ 아, 저 하양헌 거.(다, 저 하얀 거.)

109002 #2 으, 성주 헐 때 부친 거.(으, 성주 할 때 붙인 거.)

109002 @ 게민 집 짓을 때 보면 아까 상량식?(그럼 집 지을 때 보면 아까 상량식?)

109002 #2 으, 상양허고 집짓기 전인 토신제허고.(으, 상량하고 집짓기 전엔 토신제하고.)

109002 @ 게민 집 짓기 전이 토신제허고 상양 올리멍 상양제허고.(그럼 집짓기 전에 토신제하고 상량 올리면서 상량제하고.)

109002 #2 집은 다 짓엉 이제 이사허영 살 땐 이제, 이젠 저 뭣고 성주허영. 성주 안 허민 이제 제사 먹으레 못 온덴.(집은 다 지어서 이제 이사해서 살 땐 이젠, 이젠 저 뭐지 성주해서. 성주 안 하면 이제 제사 먹으러 못 온다고.)

109002 @ 아. 아니 성주는 집 거즘 뭴 때 허는 게 아니고.(아. 아니 성주는 집 거의 될 때 하는 게 아니고.)

109002 #2 다 짓엉, 다 짓엉 이사 왕.(다 지어서, 다 지어서 이사 와서.)

109002 @ 이사 왕.(이사 와서.)

109002 #2 게난 성주 안 헌 집이 제사허믄 그 귀신이 생각을 못 헌덴.(그러니까 성주 안 하는 집에 제사하면 그 귀신을 생각을 못 한다고.)

109002 @ 아.(아.)

109002 #2 경허여. 견디 이젠 젊은 사름덜 경 헴서게. 젊은 사름덜 경 안 허여.(그랬어. 그런데 이젠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 그렇게 안 해.)

109002 @ 아. 게난 성주를 다 헤사 뭘 헐 거구나.(아. 그러니까 성주를 다 해야 뭘 할 거구나.)

109002 #2 성주 헤사 그 제사를 허든 굿을 헤도 덕이 잇고 제사도 성주 안 헹 주민 구신이 못 먹엉 간덴 헤낫주.(성주 해야 그 제사를 하든 굿을 해도 덕이 있고 제사도 성주 안 해 주면 귀신이 못 먹고 간다고 했었지.)

109002 @ 게난, 이 동네도 옛날은 당에 다니고.(그런데, 이 동네도 옛날은 당에 다니고.)

109002 #2 우리 어렷을 땐 다 다녓주, 이 동네도. 견디 이젠, 이젠 안 다녀. 당에 다니는 사름 엇어.(우리 어렸을 땐 다 다녔지, 이 동네도. 그런데 이젠, 이젠 안 다녀. 당에 다니는 사람 없어.)

109001 @ 예, 삼춘은 어떵 헤낫수과? 당에 다녀낫수과?(예, 삼촌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당에 다녀었습니까?)

109001 #2 아니, 난 어릴 때 그자 흔 열다섯 미만에 어무니영 따랑 다녀난 건 알아져. 나만 안 다녀 보고.(아니, 난 어릴 때 그저 한 열다섯 미만에 어머니랑 따라서 다녔던 건 알아. 나만 안 다녀 보고.)

109001 @ 아, 삼춘만은 안 다녀 보고.(아, 삼촌만은 안 다녀 보고.)

109001 #2 으.(으.)

109001 @ 게민 당에 가젠 허민, 지난번에 물어봐나신디 뭐 가졍 가난?(그럼 당에 가려고 하면, 지난번에 물어봤었는데 뭐 가져서 갔었어?)

109001 #2 궤기 굽고 궤기 놩 국 끌리고. 옛날 쬐그만헌 볼락 새끼 하나 놩 국 끌리고 밥허영 엇고.(고기 굽고 고기 넣어서 국 끓이고. 옛날 조그마한 볼락 새끼 하나 넣어서 국 끓이고 밥해서 얹고.)

109001 @ 예.(예.)

109001 #2 경허영 허고 종이 멧 장 엇고. 이제 입어난 옷 어졍 강 이제 넉 나민 넉 들이고[355]. 종이 멧 장 산 간 건 몰라.(그래서 하고 종이 몇 장 얹고. 이제 입었던 옷 가지고 가서 이제 넋 잃으면 넋 불러들이고. 종이 몇 장 사서 간 건 몰라.)

109001 @ 지전, 지전.(지전, 지전.)

109001 #2 으, 지전 앚고 돈도 얼마 앚고.(으. 지전 가지고 돈도 얼마 가지고.)

109001 @ 으.(으.)

109001 #2 경헨 심방아피 그거 주고. 경허고 헤나서. 경헌 기억, 흔 열서너 살쯤 뎅겨나져신가. 흔 두서너 번 가 와난 기억은 잇어.(그래서 무당에게 그거 주고. 그리고 했었어. 그런 기억, 한 열서너 살쯤 다녔었는가. 한 두서너 번 갔다 왔던 기억은 있어.)

109001 @ 게난 돌레떡 안 헹 갓구나?(그러니까 도래떡 안 해서 갔구나?)

109001 #2 돌레떡 안 헹 가.(도래떡 안 해서 가.)

109001 @ 대신 밥, 국.(대신 밥, 국.)

355) '넉 들이다'는 제주 무속 또는 민간에서, 몹시 놀랐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여 넋을 잃었을 때 이를 다시 불러들이다(제주).

109001 #2 으, 돌레떡은 안 헹 가.(으, 도래떡은 안 해서 가.)

109001 @ 여기 동네에 굿허고 경허는 사름이 잇어낫수과?(여기 동네에 굿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109001 #2 이 동넨 잘 엇고 두모[356] 잇고 용당[357] 잇어나고.(이 동넨 잘 없고 두모 있고 용당 있었고.)

109001 @ 원래 그 심방이, 굿허는 심방이 잇어나고?(원래 그 무당이, 굿하는 무당이 있었고?)

109001 #2 으, 신창은 엇어난.(으, 신창은 없었어.)

109001 @ 신창은 엇어나고.(신창은 없었고.)

109001 #2 저 두모 변 심방 잇어나고. 이제 용당은 심방덜 장춘이영 누게영 잇어난 디 다 죽어 불고. 이제 고산은 잇어.(저 두모 변 무당 있었고. 이제 용당은 무당들 장춘이랑 누구랑 있었는데 다 죽어 버리고. 이제 고산은 있어.)

109001 @ 고산은 잇고.(고산은 있고.)

109001 #2 고산은 혼 두어 사름 잇어.(고산은 한 두어 사람 있어.)

109001 @ 게난 여기는 옛날부터 막 저기 성당덜 일찍 생기난.(그러니까 여기는 옛날부터 마구 저기 성당들 일찍 생기니까.)

109001 #2 경헤도 굿허는 사름 잇어.(그래도 굿하는 사람 있어.)

109001 @ 굿허는 사름이 잇어난. 어떤 때 굿헤신고예?(굿하는 사람이 있었어. 어떤 때 굿했나요?)

109001 #2 아팡도 굿허고 이 성주에도 굿헤야 뒈고.(아파서도 굿하고 이 성주에도 굿해야 되고.)

109001 @ 삼춘은 굿헤 봣수과?(삼촌은 굿해 봤습니까?)

109001 #2 멧 번 허연, 나도.(몇 번 했어, 나도.)

109001 @ 언제 헤난?(언제 했었어?)

109001 #2 셋아덜 아판, 셋아덜이 이제 오십셋이주게. 그때 열아홉 설 때 막 아팡. 경허난 어디 강 들으난 교통사고 난 축산이엔 허여. 월령[358] 강 들으난. 겐 이제 가이가 교통사고, 차 곧 사 왕 교통사고 내와서. 게난 그 사름이 강 씨라. 그 사람이, 돌아간 사람이. 겐 그 사람 빌어 줜 헌디 막 점점 아이가 다 죽어가.(둘째 아들 아파서, 둘째 아들이 이제 오십셋이지. 그때 열아홉 살 때 아주 아파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들으니까 교통사고 난 축산이라고 해. 월령 가서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교통사고, 차 곧 사 와서 교통사고 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 씨야. 그 사람이, 돌아간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빌려 줘서 했는데 아주 점점 아이가 다 죽어가.)

109001 @ 음.(음.)

109001 #2 겐 한국병원에 이제 그땐 자가용이 별로 셔게? 겐 우리 스춘네 화물차로 시껑 강 입원허난 점점 더 죽어가고 주사 이디 검사허젠 물 빼젠 허난 생전 주사기가

356) '두모'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를 말한다.
357) '용당'은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를 말한다.
358) '월령'은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를 말한다.

안 들어가. 막 오그라져 불고. 막 똥도 싸고 열아홉이난 ᄒᆞ꼼 체면을 출려야 헐 처렌디 옷 맨딱 벗어 불고 막 두린 사름 뒈연. 겐 이제 멧 밧디 강 점을 헤서. 겐디 그 교통사고 난 저 축산일 멧 밧디 갈아. 게난 그때 야이 차에 친 사름은 남잔디 이제 여축산이난 아이 뚜나구나 헌디 저 시에 터미널 엠에 박 보살이엔 헌 딘 가난 ○○이가 누구여, ○○이 상에 빌어 주라 허는데. ○○인 우리 읊이 아이 옥순이 성님 뚤이라.(그래서 한국병원에 이제 그땐 자가용이 별로 있어? 그래서 우리 사촌네 화물차로 실어 가서 입원하니까 점점 더 죽어가고 주사 여기 검사하려고 물 빼려고 하니까 생전 주사기가 안 들어가. 아주 오그라져 버리고. 마구 똥도 싸고 열아홉이니까 조금 체면을 차려야 할 건데 옷 홀랑 벗어 버리고 아주 미친 사람 되었어. 그래서 이제 몇 군데 가서 점을 했어. 그런데 그 교통사고 난 저 축산이를 몇 군데 말해. 그러니까 그때 이 아이 차에 치인 사람은 남자인데 이제 '여축산'이니까 아이 다르구나 하는데 저 시에 터미널 옆에 박 보살이라고 하는데 가니까 ○○이가 누구야, ○○이 상에 빌어 줘라 하는데. ○○이는 우리 옆에 아이 옥순이 형님 딸이야.)

109001 @ 음.(음.)

109001 #2 교통사고 난 ○○이 상에 빌어 주라 허는디 이제 그 ○○이 상에 이제, 퉤원허영 동문시장 강 옷 사고 옷 흔 벌 놩 비난 흔 일주일 밥 안 먹단 딱 굿허난 집이 들안 와도 밥 먹어. 겐 이제 그 굿허난 ᄒᆞ꼼 나시믄 헌디 흔쪽이 절어 불어서. 발도 절고 손도 절고 톨락톨락. 이젠 완전 동냥바치가 뒈연. 흔쪽이 싹 쓸련게.(교통사고 난 ○○이 상에 빌어 줘라 하는데 이제 그 ○○이 상에 이제, 퇴원해서 동문시장 가서 옷 사고 옷 한 벌 놔서 비니까 한 일주일 밥 안 먹다가 딱 굿하니까 집에 데려 와도 밥 먹어. 그래서 이제 그 굿하니까 조금 나으면 했는데 한쪽이 절어 버렸어. 발도 절고 손도 절고 절뚝절뚝. 이젠 완전 동냥아치가 되었어. 한쪽이 싹 쓸렸어.)

109001 @ 음.(음.)

109001 #2 일 년 내낭 뭐 침 맞은 디 들앙 뎅기고 하간 디 다. 경허여도 이젠 안 뒈영 또 어디 강 들으난 흔착은 풀린디 흔착이 안 풀렷젠.(일 년 내내 뭐 침 맞는 데 데리고 다니고 여러 데 다. 그래도 이젠 안 되어서 또 어디 가서 들으니까 한쪽은 풀렸는데 한쪽이 안 풀렸다고.)

109001 @ 음.(음.)

109001 #2 겐 또 굿헤야 뒌덴 허여. 또 이제 그때 굿허젠 허난 또 그때 박 보살안티 가난 그때 삼백만 원 도렌. 그때 삼백만 원이민 막 커게.(그래서 또 굿해야 된다고 해. 또 이제 그때 굿하려고 하니까 또 그때 박 보살한테 가니까 그때 삼백만 원 달라고. 그때 삼백만 원이면 아주 커.)

109001 @ 큰 돈이주, 밧 사주.(큰 돈이지, 밭 사지.)

109001 #2 또 우리 친족뻘 뒈는 사름이 굿허는 사름이 잇이난 그디 강 들으난 아이고, 조케 걱정 말아. 육십만 원만 줘 헨. 겐 육십만 원 줜 굿허난 이제 살아난. 결혼헨 잘 살아.(또 우리 친족뻘 되는 사람이 굿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거서 들으니까 아이고, 조카 걱정 마라. 육십만 원만 줘 했어. 그래서 육십만 원 줘서 굿하니까 이제 살아

났어. 결혼해서 잘 살아.)

109001 @ 멀쩡헤마씨?(멀쩡해요?)

109001 #2 멀쩡허여 이제. 게고 이제 또 우리 손지 하나가 한림 이제 베이징, 베이징 학원, 중국어 학원 한림[359] 잇어. 그거 우리 아덜네라게. 메누리라.(멀쩡해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손주 하나가 한림 이제 베이징, 베이징 학원, 중국어 학원 한림 있어. 그거 우리 아들네야. 며느리야.)

109001 @ 음.(음.)

109001 #2 저 중국어 학원 허는디 그디 손지 하나가 이제 스무 설 철인가 열아홉 설 철인가 몰라. 가이가 오꼿 *** 뒈연. 가이가 나난 막, 산부인과에서 나난 이상허여, 아이가. 경헨 이제 막 허단, 아멩헤도 이상허다 헨 오당 병원에 들렁 오젠 허난 노동절이엔 허멍 이제 병원에 안 받아 줜게. 응급으로 헤시민 어떵헐 건디.(저 중국어 학원 하는데 거기 손주 하나가 이제 스무 살 철인가 열아홉 살 철인가 몰라. 그 아이가 그만 *** 되었어. 그 아이가 나니까 아주, 산부인과에서 나니까 이상해, 아이가. 그래서 이제 마구 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오다가 병원에 들려서 오려고 하니까 노동절이라고 하면서 이제 병원에 안 받아 줬어. 응급으로 했으면 어떠할 건데.)

109001 @ 으.(으.)

109001 #2 이제 집이 왕 또 흔 사흘 션 머리 믄 곰져도 아멩헤도 울지도 안허고 그 영 먹지도 안허고 이상허다. 겐 사흘 시난 오렌 헨 가난 아무충도 안허여. 아이고, 아멩헤도 안 뒈켄 저 한라의료원에 가난 아이 막 탈수뒈고 뭐 헷젠 허난 한라의료원 흔 일주일 시난 아이고, 아멩헤도 안 뒈크메 이젠 서울 가렌 허난 삼성의료원 가서게. 경허난 아덜허고 나허고. 메누린 학원 막 바쁘고 허난 나가 들앙 갓주게. 간 흔 스무날 중환자실에 놘 놔두난 막 보호자만 보내렌 허연. 이제 또 아멩헤도 보호자만 보내렌 헴저 헨 아덜네 학원, 아덜도 그땐 학원 허고 메누리도 학원 헹 막 바빳주게.(이제 집에 와서 또 사흘 있어서 머리 모두 감겨도 아무래도 울지도 않고 그 이렇게 먹지도 않고 이상하다. 그래서 사흘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저 한라의료원에 가니까 아이 마구 탈수되고 뭐 했다고 하니까 한라의료원 한 일주일 있으니까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이젠 서울 가라고 하니까 삼성의료원 갔어. 그러니까 아들하고 나하고. 며느린 학원 아주 바쁘고 하니까 내가 데리고 갔지. 가서 한 스무날 중환자실에 놓아 놔두니까 아주 보호자만 보내라고 했어. 이제 또 아무래도 보호자만 보내라고 한다고 해서 아들네 학원, 아들도 그땐 학원 하고 며느리도 학원 해서 아주 바빴지.)

109001 @ 으.(으.)

109001 #2 게난 허난 메누리가 강 흔 열흘 사난 이젠 저 육 개월 잇이민 죽는, 뻬가 녹는 병이난 들앙 가렌 헴수다 허연. 아이고, 이젠 아멩헤도 생각허난 어디 강 들어보카 허연 그 박 보살신디 또 가서. 아, 이제 백오십만 원만 주민 이제 살리켄 허는 거라. 게난 성주를 안 헤서 집 짓엉. 성주를 안 허난 성주 백오십만 원 줭 헷지. 백오십만 원 줜 굿헷지.(그러니까 하니까 며느리가 가서 한 열흘 사니까 이젠 저 육 개월 있으면 죽는,

359) '한림'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를 말한다.

뼈가 녹는 병이니까 데리고 가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고, 이젠 아무래도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까 해서 그 박 보살에게 또 가서. 아, 이제 백오십만 원만 주면 이제 살리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주받이를 안 해서 집 지었어. 성주받이를 안 하니까 성주받이 백오십만 원 줘서 했지. 백오십만 원 줘서 굿했지.)

109001 @ 이 집 짓엉 성주를 안 헌 거?(이 집 지어서 성주받이를 안 한 거?)

109001 #2 아니, 저 아덜네가.(아니, 저 아들네가.)

109001 @ 아덜네가.(아들네가.)

109001 #2 경헨 성주헤연 또 이제 그 아기상[360] 빌어 줜 허난 삼백만 원 들영 굿 두 번 헤서. 다시랑 굿허지 말앙 침 맞치렌 헌디 이제 저 열아홉이라게. 그 삼성의료원에선 뻬가 녹는 병이난 죽넨 헌디 박 보살은 자기네 자신허고 백오십만 원 주민 살리켄 허난 아 이제 그 말 들으난 굿. 첨 게난 굿허지 말아 불어시믄 저 *** 안 허민, 이제 메누리 어디 가젠 허믄 가이 따문에 못 헐 때가 이서.(그래서 성주해서 또 이제 그 '아기상' 빌어 줘서 하니까 삼백만 원 들여서 굿 두 번 했어. 다시는 굿하지 말고 침 맞추라고 했는데 이제 저 열아홉이야. 그 삼성의료원에선 뼈가 녹는 병이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박 보살은 자기네 자신하고 백오십만 원 주면 살리겠다고 하니까 아 이제 그 말 들으니까 굿. 참 그러니까 굿하지 말아 버렸으면 저 *** 안 하면, 이제 며느리 어디 가려고 하면 그 아이 때문에 못 할 때가 있어.)

109001 @ 음.(음.)

109001 #2 겐 이제 걸어 뎅겨. 막 돌아뎅겨.(그래서 이제 걸어 다녀. 마구 돌아다녀.)

109001 @ 그 병 다 낫은 거?(그 병 다 나은 거?)

109001 #2 아니, 거 *** 뒌게.(아니, 거 *** 됐어.)

109001 @ 아, **는 가져신디 게도 몸 활동허는 딘 이상 엇인 거?(아, **는 가졌는데 그래도 몸 활동하는 데는 이상 없는 거?)

109001 #2 걸어 뎅기고, 아니 게난 ***로 이제 그냥.(걸어 다니고, 아니 그러니까 ***로 이제 그냥.)

109001 @ 아.(아.)

109001 #2 걸어 뎅기고 엄마, 아빠, 밥, 배고파. 돈이엔도 잘 못 곧고 헤도. 겐디 막 너무 뚱뚱허연, 운동을 안 헤 놓난.(걸어 다니고 엄마, 아빠, 밥, 배고파. 돈이라고도 잘 못 말하고 해도. 그런데 아주 너무 뚱뚱해, 운동을 안 해 놓으니까.)

109001 @ 아, 운동을 안 헤 놓난.(아, 운동을 안 해 놓으니까.)

109001 #2 그땐 뻬가 엇언 그냥 멜랑멜랑. 게난 삼성의료원서 뻬가 다 녹는 병이난 죽넨 허고 한 육 개월 동안 우유도 못 뿔아. 게난 툭 툭 툭 툭 두드리민 그 우유 털어지민 먹고 허연.(그땐 뼈가 없어서 그냥 말랑말랑.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에서 뼈가 다 녹는 병이니까 죽는다고 하고 한 육 개월 동안 우유도 못 빨아. 그러니까 툭 툭 툭 툭 두드리면 그 우유 떨어지면 먹고 했어.)

---

360) '아기상'은 아기가 잘 자라도록 기원하기 위해 방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을 말한다. '삼신상'이라고도 한다.

109001 @ 게난 경 헌 건 어렸을 때구나?(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 어렸을 때구나?)

109001 #2 곧 난 때게.(곧 났을 때.)

109001 @ 곧 난 때.(곧 났을 때.)

109001 #2 경헌디 그 삼성의료원에선 곧 죽넨 허고 뻬 녹는 병이난. 그 박 보살은 자긴 돈 백오십만 원 주민 살려 주켄. 겐 살안 이제 뎅기는 거라.(그런데 그 삼성의료원에선 곧 죽는다고 하고 뼈 녹는 병이니까. 그 박 보살은 자긴 돈 백오십만 원 주면 살려 주겠다고. 그래서 살아서 이제 다니는 거야.)

109001 @ 아이고, 마음 고생 막 하영 헷수다게, 삼춘.(아이고, 마음 고생 아주 많이 했네요, 삼촌.)

109001 #2 그 셋아덜 굿 두 번 허영 경 살리고 그 손지도.(그 둘째 아들 굿 두 번 해서 살리고 그 손주도.)

109001 @ 예.(예.)

109001 #2 게난 어떤 땐 아이고, 굿 안 헤시믄 야이 엇엇이믄 헌디. 언강 좋앙 허난 아이고, 뚠 아덜덜보단 ○○이, 이름이 ○○이라. ○○이 사랑헌덴 허멍 막 언강은 좋아. 우리신디도 오믄 영 다 안앙 뽀뽀해 두고 가게.(그러니까 어떤 땐 아이고, 굿 안 했으면 얘 없었으면 하는데. 아양 좋아서 하니까 아이고, 다른 아들들보다는 ○○이, 이름이 ○○이야.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주 아양은 좋아. 우리에게도 오면 이렇게 다 안아서 뽀뽀해 두고 가.)

109001 @ 아.(아.)

109001 #2 겐 *** 뒈연. 굿 멧 번 허연, 멧 번.(그래서 *** 되었어. 굿 몇 번 했어, 몇 번.)

109001 @ 멧 번 헷구나. 경헤도 셋아덜은 그때 교통사고 낫을 때 씌운 거 뭔가에? 셋아덜 아까?(몇 번 했구나. 그래도 둘째 아들은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씌운 거 뭔가요? 둘째 아들 아까?)

109001 #2 셋아덜 셋아덜은 죽은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게.(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죽은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

109001 @ 예.(예.)

109001 #2 경허난 그 아이 들련.(그러니까 그 아이 들려서.)

109001 @ 들린 거예?(들린 거요?)

109001 #2 들련. 경허영 굿 흔 번 허난 살아난디 흔착이 짝 쓸련.(들렸어. 그래서 굿 한 번 하니까 살아났는데 한쪽이 짝 쓸렸어.)

109001 @ 으.(으.)

109001 #2 경허난 저디 뭐 헌 디 서귀포 무신, 무신 철학관이여 화북 뭐 고찌는 디여 ᄉᆞ못 하귀여 멧 밧디 뎅겨 보고 다 헤도, 침도 맞고 헤도 안 뒈여. 항상 톨락톨락허고 기억력도 엇어.(그러니까 저기 뭐 한 데 서귀포 무슨, 무슨 철학관이며 화북 뭐 고치는 데며 사뭇 하귀며 몇 군데 다녀 보고 다 해도, 침도 맞고 해도 안 돼. 항상 절뚝절뚝하고 기억력도 없어.)

109001 @ 예.(예.)

109001 #2 경헨 또 어디 강 들으난 흔착은 풀린디 흔착은 안 풀렴젠 허연 또 굿허연 이젠 펀찍허여. 결혼허연 잘 살아.(그래서 또 어디 가서 들으니까 한쪽은 풀렸는데 한쪽은 안 풀린다고 해서 또 굿해서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결혼해서 잘 살아.)

109001 @ 아이고.(아이고.)

109001 #2 열아홉에 경허연.(열아홉에 그랬어.)

109001 @ 경헌 일도 잇수다예?(그런 일도 있네요?)

109001 #2 으, 게난 첨 미신도 엇덴도 못 허고.(으, 그러니까 참 미신도 없다고도 못하고.)

109001 @ 못 허고예. 못 허큰게 경헤나민.(못 하고요. 못 하겠네요. 그러고 나면.)

109001 #2 싯젠도 못 허고 허여.(있다고도 못 하고 해.)

109001 @ 예. ○○이안티 빌렌 헌 게 그 ○○이가?(예. ○○이한테 빌라고 한 게 그 ○○이가?)

109001 #2 ○○이엔 헌 아이가 교통사고 난 죽언게.(○○이라고 하는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109001 @ 아.(아.)

109001 #2 게난 흔 밧디 ○○이 상에 빌어 줘라 딱 ○○이 이름꼬지 골안게. 겐디 그 ○○이엔 헌 아이가 멧 아이 고생을 시켠. 저 양자 아덜도 경허여.(그러니까 한 군데 ○○이 상에 빌어 주라 딱 ○○이 이름까지 말했어. 그런데 그 ○○이라고 하는 아이가 몇 아이 고생을 시켰어. 저 양자 아들도 그랬어.)

109001 @ 예.(예.)

109001 #2 ○○ 뚤도 들련 ᄉᆞ못 얼먹언.(○○ 딸도 들려서 사뭇 언걸먹었어.)

109001 @ 게민 이 동네 사름덜을 경?(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109001 #2 으, 용당이주게 용당. 용당인디 멧 사름을 못 살게 굴어 경. 경헨 법당에 혼 앚지고 허난 글후젠 일 엇어. 그때 헐 때 멧 사름 고생헨, 가이 따문. 우리 집이 아덜도 경허고 첨 흔 이 년 동안 고생허연. 흔 뭐 생각을 아니 난. 친구 전화도 누게 전화 멧 번 멧 번? 느네 친구 나가 어떵 아느니? 뭐 헤도 원 기억이 안 나.(으, 용당이지, 용당. 용당인데 몇 사람을 못 살게 굴어 그렇게. 그래서 법당에 혼 앉히고 하니까 그 후에 일 없어. 그때 할 때 몇 사람 고생했어, 걔 때문에. 우리 집의 아들도 그렇게 참 한 이 년 동안 고생했어. 한 뭐 생각을 안 났어. 친구 전화도 누구 전화 몇 번 몇 번? 너희 친구 내가 어떻게 아니? 뭐 해도 원 기억이 안 나.)

109001 @ 으.(으.)

109001 #2 게난 털럭털럭 그자 벵신 뒈연 영 흔착 다리도 털럭 손도 털럭허난 완전히 이건 반병신이라. 겐 두 번 굿허난 살아난. 겐 잘 살아.(그러니까 절뚝절뚝 그저 병신 되어서 이렇게 한쪽 다리도 절뚝 손도 절뚝하니까 완전히 이건 반병신이야. 그래서 두 번 굿하니까 살아났어. 그래서 잘 살아.)

109001 @ 아이고, ᄉᆞ망헷수다. 진짜 구신 엇덴 못 허큰게.(아이고, 사망했습니다. 진

짜 귀신 없다고는 못 하겠네요.)
109001 #2 게난 굿 멧 번 헌 줄 아냐?(그러니까 굿 몇 번 한 줄 아니?)
109001 @ 굿 멧 번 헌 거라.(굿 몇 번 한 거야.)

10. 세시풍속

1월

110001 @ 오널은 세시풍속이우다. 정월에는 음력으로예, 정월덜에는 정월 멩질이 잇엇잖아예?(오늘은 세시풍속입니다. 정월에는 음력으로요, 정월달에는 정월 명질이 있었잖아요?)
110001 #2 으.(으.)
110001 @ 정월 멩질에 헤난 거. 사월달에는 사월 초파일이 잇잖아예?(정월 명질에 했던 거. 사월에는 사월 초파일이 있잖아요?)
110001 #2 으.(으.)
110001 @ 그때 뭐 하는가 허는 거우다. 하나씩 물어보쿠다.(그때 뭐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110001 #2 여긴 동촌[361] 닮지 안허영 초파일날 뭐 안 허여.(여긴 동촌 같지 않아서 초파일에 뭐 안 해.)
110001 @ 뭐 허진 안허여. 우선은 정월달부터 물어보쿠다. 정월덜에 멩질이 뭐과?(뭐 하진 않아. 우선은 정월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정월에 명질이 뭡니까?)
110001 #2 정월 멩질게 조상덜 허영 멩질 헤사 헐 거 아니게.(정월 명질 조상들 해서 명질 해야 할 거 아니?)
110001 @ 예, 겐 뭐 준비헤?(예, 그래서 뭐 준비해?)
110001 #2 옛날이사 기자 묵베낀 더 헤서게, 묵허고 떡허고.(옛날에야 그저 묵밖에 더 했어, 묵하고 떡하고.)
110001 @ 음.(음.)
110001 #2 젓갈도 뒈지고기 하나만.(적도 돼지고기 하나만.)
110001 @ 젓갈 뒈지고기 하나만.(적 돼지고기 하나만.)
110001 #2 으. 사과도 어떵허당 사과 하나. 이제ᄀᆞ치 뭐 멧 종 멧 종 안 허여.(으. 사과도 어떠하다가 사과 하나. 이제같이 뭐 몇 종 몇 종 안 해.)
110001 @ 음. 게민 정월 멩질은 제를 지낼 거를 전날 준비허는 거?(음. 그럼 정월 명질은 제를 지낼 거를 전날 준비하는 거?)
110001 #2 으, 전날 헤야주.(으, 전날 해야지.)

361) '동촌'은 동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110001 @ 정월 멩질 때민 제지내고 요즘은 떡국도?(정월 명질 때면 제지내고 요즘은 떡국도?)

110001 #2 이제난 떡국 허고 옛날은 떡국 안 허고.(이제니까 떡국 하고 옛날은 떡국 안 하고.)

110001 @ 예.(예.)

110001 #2 육지는 허는디 이딘 안 허여. 이제도 안 허여. 그냥 먹젠 허주.(육지는 하는데 여긴 안 해. 이제도 안 해. 그냥 먹으려고 하지.)

110001 @ 아.(아.)

110001 #2 육진 떡국으로만 멩질 허여.(육지는 떡국으로만 명질 해.)

110001 @ 떡국으로만예.(떡국으로만요.)

110001 #2 으, 우리 육지 강 보난. 여기는 국 허고 밥 그자 떡 허고.(으, 우리 육지 가서 보니까. 여기는 국 하고 밥 그저 떡 하고

110001 @ 떡은 어떤 떡?(떡은 어떤 떡?)

110001 #2 침떡 저 잘 ᄒᆞ꼼 뭐 허믄 그 제펜 올리고 경 안허민 반제펜. 좁썰 반 곤썰 반 혜영 반제펜 허고 ᄆᆞ멀, 정월엔 ᄆᆞ멀로 세미떡[362] 허고 곤떡은 이제 쏠로 허영 곤떡 허고.(시루떡 저 잘 조금 뭐 하면 그 '제펜'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반제펜'. 좁쌀 반 흰쌀 반 해서 '반제펜' 하고 메밀, 정월엔 메밀로 '세미떡' 하고 흰떡은 이제 쌀로 해서 흰떡 하고.)

110001 @ 예.(예.)

110001 #2 게난 곤떡은 동글랑 곤떡.(그러니까 흰떡은 동그란 흰떡.)

110001 @ 예.(예.)

110001 #2 세미떡은 쉬 담아근에 ᄆᆞ물ᄀᆞ루 헤근에 거의 정월은 ᄆᆞ멀떡 헤여. 경헨 인절미도 ᄆᆞ멀 인절미 허고 세미도 ᄆᆞ멀 인절미. 곤떡만, 이제 우이 더끄는 건 동글랑 곤떡. 손으로 멘들아.('세미떡'은 소 담아서 메밀가루 해서 거의 정월은 메밀떡 해. 그래서 인절미도 메밀 인절미 하고 '세미'도 메밀 인절미. 흰떡만, 이제 위에 덮는 건 동그란 흰떡. 손으로 만들어.)

110001 @ 경헨 떡 허고 적은 뒈지고기 적예?(그렇게 떡 하고 적은 돼지고기 적요?)

110001 #2 응, 뒈지고기 적 그자 이제 곹지 안허영 그자 전이 뒈지고기. 이제는 소고기 적 헤도 옛날은 어떵 허당 추렴허믄 허는디 안 허민 뒈지고기.(으, 돼지고기 적 그저 이제 같지 않아서 그저 전에 돼지고기. 이제는 소고기 적 해도 옛날은 어떻게 하다가 추렴하면 하는데 안 하면 돼지고기.)

110001 @ 저기 바당궤기는?(저기 바닷고기는?)

110001 #2 바닷궤긴 생선이든 볼락이든 구웡 올려사.(바닷고기는 옥돔이든 볼락이든 구워서 올려야.)

110001 @ 구웡 올려사.(구워서 올려야.)

362) '세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만들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110001 #2 솟강 아래서 궝 올렷주게.(아궁이 아래서 구워서 올렸지.)

110001 @ 게민 우리 정월 멩질날에는 어른덜안티 세배도?(그럼 우리 정월 명질에는 어른들한테 세배도?)

110001 #2 세배헤야주게.(세배해야지.)

110001 @ 제를 먼저 지냅니까, 세배를?(제를 먼저 지냅니까, 세배를?)

110001 #2 아니 세배를 말쩨 허주게. 제지내야.(아니, 세배를 말째 하지. 제지내야.)

110001 @ 다 지내영. 옛날에 우리 제주돈, 지금이야 다 이녁 만씩 집이서 헤 먹주만은.(다 지내서. 옛날에 우리 제주도는, 지금이야 다 자기 만큼씩 집에서 해 먹지만.)

110001 #2 옛날은 다 과세[363] 다니고 헷주.(옛날은 다 '과세' 다니고 했지.)

110001 @ 과세 뎅기고 멩질도 ᄀᆞ치 헤 먹어난 거 아니?('과세' 다니고 명질도 같이 해 먹었던 거 아니?)

110001 #2 게. 이 집안이야 다 ᄀᆞ치 헤 먹주. 경허고 저 이 삼미[364]에 늙은 할망신디 다 과세 뎅기고 또 상 논 디도 과세 뎅기고.(그래. 이 집안이야 다 같이 해서 먹지. 그리고 저 이 '삼미'에 늙은 할머니에게 다 '과세' 다니고 또 상 놓은 데도 '과세' 다니고.)

110001 @ 음.(음.)

110001 #2 상 논 디도 술 혼 병 헤영 가고 그냥도 가고. 남자덜은 그냥 가고 여자덜은 상 논 디 술 혼 병 헹 가.(상 놓은 데도 술 한 병 해서 가고 그냥도 가고. 남자들은 그냥 가고 여자들은 상 놓은 데 술 한 병 해서 가.)

110001 @ 음.(음.)

110001 #2 과세.('과세'.)

110001 @ 과세 가는 거.('과세' 가는 거.)

110001 #2 이젠 과세 안 가.(이젠 '과세' 안 가.)

110001 @ 경헨 이 동네 정월 멩질 뒈면 막 행사 헤난 거는 엇수과?(그래서 이 동네 정월 명질 되면 마구 행사 했던 거는 없습니까?)

110001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10001 @ 걸궁 같은 거?(걸립 같은 거?)

110002 #2 걸궁은 저 뭣고 정월보름날게. 보름날 헤영 걸궁처룩 헤영 돈 빌어.(걸립은 저 뭐지 정월보름. 보름날 해서 걸립처럼 해서 돈 빌려.)

110002 @ 예.(예.)

110002 #2 걸궁처룩 헤영 ᄒᆞ꼼 잘사는 집이 강 막 절허고 허민 이제 돈 ᄒᆞ꼼 줭. 게민 그거 헤당 뭣 헹 먹고게. 정월보름날게.(걸립처럼 해서 조금 잘사는 집에 가서 마구 절하고 하면 이제 돈 조금 줘서. 그럼 그거 해다가 뭐 해서 먹고. 정월보름.)

110002 @ 정월보름날. 게민 정월보름날은 뭐 허는 날이과? 이 날도.(정월보름. 그럼 정월보름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 날도.)

---

363) '과세'는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64) '삼미'는 집 울타리 세 면에 인접한 이웃을 말한다.

110002 #2 아니, 원래 멩질인디 제주도는 안 허여.(아니, 원래 명질인데 제주도는 안 해.)

110002 @ 제주돈 안 허여.(제주도는 안 해.)

110002 #2 게고 또 정월 멩질 넘엉 날 받앙 옛날은 저 토신제엔 헌 거 제지내는 집이 잇어서. 겐디 아무 집이 안 허고 그자 허는 집이. 이제 거트민 베염, 베염 아픽 그거 모시는 거 토신제, 토신제 허멍 허여나서.(그리고 또 정월 명질 넘어서 날 받아서 옛날은 저 토신제라고 하는 거 제지내는 집이 있었어. 그런데 아무 집에 안 하고 그저 하는 집이. 이제 같으면 뱀, 뱀 앞에 그거 모시는 거 토신제, 토신제 하면서 했었어.)

110002 @ 그건.(그건.)

110002 #2 경허영 거 목욕도 깨끗허게 허고 이 사름도 집이 비린[365] 사름 못 허게 허곡. 그릇도 다 씻엉 엎엉 양에 왓디 놔뒁당 그릇이 깨끗이 씻엉 멩심허영 겐 그거 산제허여. 정월, 정월덜 허영 날 받앙 무신 날 좋은 날 받앙.(그래서 거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이 사람도 집에 '비린' 사람 못하게 하고. 그릇도 다 씻어서 엎어서 양하 밭에 놔뒀다가 그릇이 깨끗이 씻어서 명심해서 그래서 그거 산제해. 정월, 정월달 해서 날 받아서 무슨 날 좋은 날 받아서.)

110005 @ 그게 안택 아니마씨, 안택?(그게 안택 아니요, 안택?)

110005 #2 게난 저 토신제, 토신제 허여.(그러니까 저 토신제, 토신제 해.)

110005 @ 아, 토신제렌 헤낫수과, 그 정월덜에? 그 토신제는 무사 허는 거라?(아, 토신제라고 했었습니까, 그 정월달에? 그 토신제는 왜 하는 거야?)

110005 #2 몰라게. 경 경 토신제 우리 어린 때 허여. 겐 껍질 메영 놔둬 사름 못 들어오게. 집이.(몰라. 그렇게 그렇게 토신제 우리 어린 때 해. 그래서 껍질 매서 놔둬 사람 못 들어오게. 집에.)

110005 @ 예, 예.(예, 예.)

110005 #2 나쁜 사름 못 들어오게. 게난 껍질 메지민 아무나 못 들어오주게. 웨 ᄉᆞ끼 꼬앙 영 무껑 놔두민 그레 부정헌 사름, 멘스 온 사름이나 이제 거트믄 비린 사람 못 오게 허는 거라.(나쁜 사람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껍질 매면 아무나 못 들어오지. 외 새끼 꼬아서 이렇게 묶어서 놔두면 그리 부정한 사람, 생리 온 사람이나 이제 같으면 '비린' 사람 못 오게 하는 거야.)

110005 @ 음.(음.)

110005 #2 경헷당 날 받앙 허여. 정월 멩질 곧 넘으민 경허여. 우리 ᄒᆞ꼼 ᄋᆞᆨ을 때꺼장 그거 헷어.(그랬다가 날 받아서 해. 정월 명질 곧 넘으면 그래. 우리 조금 클 때까지 그거 했어.)

110005 @ 음.(음.)

110005 #2 경허단 이젠 안 허주.(그러다가 이젠 안 하지.)

110003 @ 정월덜에예. 방사렌 헌 거 알아지쿠과, 방사?(정월달에요. 방사라고 하는

365) '비리다'는 큰일을 앞두고 몸엣것을 하거나 꺼리어 피해야 할 송장이나 마소의 죽은 것 따위를 보고 몸이 부정하게 되다는 뜻이다.

거 알겠습니까, 방사?)

110003 #2 건 몰르고.(건 모르고.)

110003 @ 액막이?(액막이?)

110003 #2 액막인게 저 무시거게. 정월 나민 액막이 허주, 굿덴 허민.(액막이는 저 무엇. 정월 되면 액막이 하지, 굿다고 하면.)

110003 @ 굿덴 허민.(굿다고 하면.)

110003 #2 으, 액막이 헤.(으, 액막이 해.)

110003 @ 그거는 누게 빌어당 하는 거?(그거는 누구 빌려다가 하는 거?)

110003 #2 빌어단 허여.(빌려다가 해.)

110003 @ 게민 그게 굿허는 것과?(그럼 그게 굿하는 겁니까?)

110003 #2 굿허는 것도 싯고 그냥 이넉냥으로도 영 마리에 놩 문전에 비는 사름도 잇주만은 주로 빌어당 허여.(굿하는 것도 있고 그냥 자기대로도 이렇게 마루에 놔서 '문전'에 비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빌려다가 해.)

110003 @ 음. 액막이.(음. 액막이.)

110003 #2 액막이.(액막이.)

110004 @ 예. 포제는 안 헤낫수과?(예. '포제'는 안 했었습니까?)

110004 #2 포젠[366] 저 동산에 강 허주기게. 이디 거트민 저 소낭 동산. 성굴왓[367] 디도 짓동산[368]이엔 헌 디가 거 포제 동산이라. 이제도 포제 동산이엔 허여.('포제'는 저 동산에 가서 하지. 여기 같으면 저 소나무 동산. '성굴왓'에도 '짓동산'이라고 하는데가 거 '포제' 동산이야. 이제도 '포제' 동산이라고 해.)

110004 @ 아, 그 동산 포제 지내나 부난 포제 동산이렌.(아, 그 동산 '포제' 지냈어버리니까 '포제' 동산이라고.)

110004 #2 으, 이제도.(으, 이제도.)

110004 @ 마을에서 포제를 허젠 허민 어떤 준비를 헙니까? 쭉 흔 번 골아 줍서.(마을에서 '포제'를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합니까? 쭉 한 번 말해 주세요.)

110004 #2 떡이고 사과영 다 허영 강.(떡이고 사과랑 다 해서 가서.)

110004 @ 당일 날?(당일 날?)

110004 #2 아니.(아니.)

110004 @ 메칠 헙니까?(며칠 합니까?)

110004 #2 아니, 당일 허긴 허는디 것도 포제 지내는 사름은 막 깨끗이 허여사.(아니, 당일 하긴 하는데 것도 '포제' 지내는 사람은 아주 깨끗이 해야.)

110004 @ 예.(예.)

110004 #2 그 부부간에 뭣도 안 허고 접촉도 안 허고 방 갈랑 눕곡 목욕도 깨끗이 허고 이제 그 포제 음식 준비허는 사름도 막 정성들영 비린 거 안 보고 헹 포제 지내엇주게.(그 부부간에 뭣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고 방 갈라서 눕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이

366) '포제'는 매년 정월 첫 정일(丁日)에 지내는 마을제를 말한다.
367) '성굴왓'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굴 이름이다.
368) '짓동산'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지명이다.

제 그 '포제' 음식 준비하는 사람도 아주 정성들여서 '비린' 거 안 보고 해서 '포제' 지냈었지.)

110004 @ 예.(예.)

110004 #2 경 우리 막 어릴 때 포제덜 헤난.(그렇게 우리 마구 어릴 때 '포제'들 했었어.)

110004 @ 음.(음.)

110004 #2 성굴왓디 이제 포제 동산 그 누게 영근이네 거 포제 동산이렌 골아, 이제도.('성굴왓'에 이제 '포제' 동산 그 누구 영근이네 거 '포제' 동산이라고 말해, 이제도.)

110004 @ 게민 포제는 이제 개인, 개인이 허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허는 거잖아예?(그럼 '포제'는 이제 개인,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하는 거잖아요?)

110004 #2 으, 마을에서.(으, 마을에서.)

110004 @ 그럼 마을에서 제를 지내젠 허면 그 제지내는 제관이렌 헙니까?(그럼 마을에서 제를 지내려고 하면 그 제지내는 제관이라고 합니까?)

110004 #2 제관게.(제관.)

110004 @ 그런 사람덜은 어떵 뭐 헙니까?(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뭐 합니까?)

110004 #2 동네에서 ᄒᆞ꼼 깨끗허고 뭐 헌 사름으로.(동네에서 조금 깨끗하고 뭐 한 사람으로.)

110004 @ 예.(예.)

110004 #2 경헌 사름 허영 헤난. 우리 성굴왓디 살 때 우리 큰시아버지가 헤실 거라. 우리 아는 건 생각이. 우리 큰시아버지가 포제 지낼 때 헤난 거 닮아.(그런 사람 해서 했었어. 우리 '성굴왓'에 살 때 우리 큰시아버지가 했을 거야. 우리 아는 건 생각이. 우리 큰시아버지가 '포제' 지낼 때 했던 거 같아.)

110004 @ 포제 지낼 때?('포제' 지낼 때?)

110004 #2 음.(음.)

110004 @ 그럼 그런 사름덜은 며칠 그디 강 지내멍?(그럼 그런 사람들은 며칠 거기 가서 지내면서?)

110004 #2 막 그, 아니 집이서 허여도 깨끗허게 허여사.(마구 그, 아니 집에서 해도 깨끗하게 해야.)

110004 @ 음.(음.)

110004 #2 그디 강 안 헤도. 그딘 영 잣담[369] 단 디 강 헤나서. 잣담 단 디 강 헤나서. 잣담 단 디.(거기 가서 안 해도. 거긴 이렇게 '잣담' 쌓은 데 가서 했었어. '잣담' 쌓은 데 가서 했었어. '잣담' 쌓은 데.)

110004 @ 예.(예.)

110004 #2 잣담 다진 디 강 제지내고 이제도 그 포젯동산[370] 몰라 멜라부어신가. 옛날 우리 성굴왓 산 땐 그 포젯동산, 포젯동산 헤난.('잣담' 쌓은 데 가서 제지내고 이

369) '잣담'은 성벽과 같이 쌓아 두는 돌담을 말한다.
370) '포젯동산'은 마을제인 '포제'를 지내는 동산을 말이다.

제도 그 '포젯동산' 몰라 무너뜨려버렸는가. 옛날 우리 '성굴왓' 살 때는 그 '포젯동산', '포젯동산' 했었어.)

110005 @ 포젯동산이렌 허고예, 안택이 뭐과, 안택?('포젯동산'이라고 하고요, 안택이 뭡니까, 안택?)

110005 #2 안택은 뭣인고? 몰라.(안택은 뭡니까?)

110005 @ 몰라예? 저기 정월덜에 보리밧 붋기를 헙니까?(몰라요? 저기 정월달에 보리밭 밟기를 합니까?)

110005 #2 옛날은게 뭣고 확 곤젠 허난.(옛날은 뭐지 확 말하려고 하니까.)

110005 @ 음.(음.)

110005 #2 눈 오민 저 밧이 들러져노난 불랏주게. 다 불르지 안헌디 눈 하영 올 땐 불라.(눈 오면 저 밭이 들리니까 밟았지. 다 밟지 않는데 눈 많이 올 땐 밟아.)

110005 @ 음. 눈 하영 오민.(음. 눈 많이 오면.)

110005 #2 음, 그것이 들려젼 밧이.(음, 그것이 들려 밭이.)

110007 @ 예. 아까 걸궁 한덴 허잖아예?(예. 아까 걸립 한다고 하잖아요?)

110007 #2 으, 걸궁. 이제 거트민 그 꼬갈덜 쓰고 북 두드리멍 대양 치멍 뎅경 강 절허멍 헤영 강 빌어 왕게.(으, 걸립. 이제 같으면 그 고깔들 쓰고 북 두드리면서 징 치면서 다니며 가서 절하면서 해서 가서 빌려 와서.)

110007 @ 게민 그거는 아까 정월대보름날 허는 거?(그럼 그거는 아까 정월대보름 하는 거?

110007 #2 으, 경헨 강 돈 빌어와.(으, 그래서 가서 돈 빌려와.)

110007 @ 돈 빌어왕 그 돈으로 뭐 헐 거라?(돈 빌려와서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110007 #2 이제 거트민 뭐 사 먹는 거. 그때사 벨로 사 먹을 거 시랴만은 장난으로 막덜 허고 경허영 놀아.(이제 같으면 뭐 사 먹는 거. 그때야 별로 사 먹을 거 있을까만 장난으로 많이 하고 그렇게 놀아.)

110007 @ 그럼 동네 사름덜이 다?(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110007 #2 으, 거자 같이 허영, 남자 여자 ᄀᆞ치 허영 ᄉᆞ못 뭣 헌 사름. 우리 어렸을 때 걸궁허여.(으, 거의 같이 해서, 남자 여자 같이 해서 사뭇 뭐 한 사람. 우리 어렸을 때 걸립해.)

110007 @ 게민 걸궁헐 때 집집마다 방문허는 것과?(그럼 걸립할 때 집집마다 방문하는 겁니까?)

110007 #2 아니 ᄒᆞ꼼 못사는 집인 안 가고 ᄒᆞ꼼 돈 줄 집이.(아니 조금 못사는 집은 안 가고 조금 돈 줄 집에.)

110007 @ 하하하.(하하하.)

110007 #2 돈 줄 집이 강 허고. 못사는 디 가민 돈 줘게, 돈 줄 집이. ᄒᆞ꼼 영 멧 푼이라도 줄 집. 이제 거트민 뭐, 이제 체육대회 허젠 허민 돈 빌레 가 오는 거나 마찬가지주게. 이제 체육대회 허젠 허민 이런 점빵 같은 디 강 안 빌어 오멘게.(돈 줄 집에 가서 하고. 못사는 데 가면 돈 줘, 돈 줄 집에. 조금 이렇게 몇 푼이라도 줄 집. 이제 같

으면 뭐, 이제 체육대회 하려고 하면 돈 빌러 갔다 오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제 체육대회 하려고 하면 이런 가게 같은 데 가서 안 빌어 와.)

110007 @ 음.(음.)

110007 #2 그거 식이라. 옛날은 그냥은 도렌 못 헤.(그거 식이야. 옛날은 그냥 달라고 못 해.)

110008 @ 정월덜에는 입춘이 잇수다예, 절기상으로 입춘이?(정월에는 입춘이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입춘이?)

110008 #2 으.(으.)

110008 @ 입춘이 뭐과?(입춘이 뭡니까?)

110008 #2 입춘은 옛날엔, 이젠 헤도 물허벅 졍 물 질레도 못 가게 허고 놈의 집이도 못 가게 허곡. 나들이 안 헤서. 돈도 일절 안 쓰고 옛날은.(입춘은 옛날엔, 이제 해도 '물허벅' 져서 물 길러도 못 가게 하고 남의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나들이 안 해서. 돈도 일절 안 쓰고 옛날은.)

110008 @ 음.(음.)

110008 #2 그날 못 먹으민 안 뒌덴 헹, 그날은 곤밥 헹 먹어. 그날, 그날 잘 먹어야 헤. 욕허지도 말고 쌉지도 말고. 물허벅 진 사람 봐지믄 재수엇덴 헨 벌러 불어나서.(그날 못 먹으면 안 된다고 햇, 그날은 흰밥 해서 먹어. 그날, 그날 잘 먹어야 해. 욕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물허벅' 진 사람 보이면 재수없다고 해서 깨 버렸었어.)

110008 @ 아이고, 경허는 것과?(아이고, 그러는 겁니까?)

110008 #2 으, 물허벅 지민. 겐 일절 허벅 졍 못 뎅겨.(으, '물허벅' 지면. 그래서 일절 '물허벅' 져서 못 다녀.)

110008 @ 입춘 때?(입춘 때?)

110008 #2 으, 일도 안 허여 그날은.(으, 일도 안 해 그날은.)

110008 @ 에, 입춘 날은?(에, 입춘 날은?)

110008 #2 이젠 뭐 하간 거 뎅기고 돈 쓰고 그거 필요가 어신디 우리 어린 땐 꼬닥 돈도 못 쓰게 허고.(이젠 뭐 온갖 거 다니고 돈 쓰고 그거 필요가 없는데 우린 어린 땐 전혀 돈도 못 쓰게 하고.)

110008 @ 게민 집에만 있었던 거?(그럼 집에만 있었던 거?)

110008 #2 집에만 잇주게. 놈의 집이 가민 큰일나.(집에만 있지. 남의 집에 가면 큰일나.)

110008 @ 남자는 어떵 안 헷수게?(남자는 어떻게 안 했지요?)

110008 #2 으, 으. 남자도 놈의 집 못 가.(으, 으. 남자도 남의 집 못 가.)

110008 @ 이 입춘 시기에 농사는 뭐 허는 거 잇수과?(이 입춘 시기에 농사는 뭐 하는 거 있습니까?)

110008 #2 엇인디 옛날은 입춘굿[371]도 다 헤서.(없는데 옛날은 '입춘굿'도 다 했어.)

371) '입춘굿'은 입춘을 맞아 행하는 굿을 말한다. 관청에서 주관하던 행사로 무당들이 모여 농사짓는 과정을 흉내를 내면서 풍년을 기원한다.

110008 @ 입춘굿을?('입춘굿'을?)

110008 #2 으, 입춘굿도 허고.(으, '입춘굿'도 하고.)

110008 @ 입춘굿은 개인으로 허는 거 아니면?('입춘굿'은 개인으로 하는 거 아니면?)

110008 #2 아니, 동네에서.(아니, 동네에서.)

110008 @ 동네에서.(동네에서.)

110008 #2 으. 입춘굿 막, 막 옛날에 입춘굿을.(으. '입춘굿'도 마구, 마구 옛날에 입춘굿을.)

110008 @ 정월덜에 우수란 게 잇수다, 우수. 절기상으로 우수. 이 날에 뭐 허는 거 잇수과?(정월달에 우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수. 절기상으로 우수. 이 날에 뭐 하는 거 있습니까?)

110008 #2 안 허여.(안 해.)

110008 @ 농사지을 때 관련 뭔 거?(농사지을 때 관련 된 거?)

110008 #2 엇어.(없어.)

2월

110009 @ 예, 예. 이제 이월덜 넘어가쿠다. 이월덜 뒈면 이때 영등덜이렌 헙디다예.(예, 예. 이제 이월 넘어가겠습니다. 이월 되면 이때 영등달이라고 합디다.)

110009 #2 으, 영등할망 왐젠 허멍 빨래도 안 헹 널곡게.(으, 영등할머니 온다고 하면서 빨래도 안 해서 널고.)

110009 @ 기간이 언제부터과? 영등할망 들어오는 건?(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영등할머니 들어오는 건?)

110009 #2 저, 거세기 정월 그뭄날부터 들어온덴 허여. 겐 일주일 동안 헤서 옛날에.(저, 거시기 정월 그믐날부터 들어온다고 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했어, 옛날에.)

110009 @ 여기에.(여기에.)

110009 #2 으, 일주일 동안 빨래 안 헤영 널언. 빨래를 베꼇디 강 널어도 이 안에 널민 구데기 인덴 허멍 허고.(으, 일주일 동안 빨래 안 하고 널었어. 빨래를 밖에 가서 널어도 이 안에 널면 구데기 인다고 하면서 하고.)

110009 @ 예.(예.)

110009 #2 영등 때 밧디 검질도 안 메고.(영등 때 밭에 김도 안 매고.)

110009 @ 영등 때 검질 안 메고?(영등 때 김 안 매고?)

110009 #2 으, 검질메민 보릿발 들러진덴 허멍.(으, 김매면 보리 뿌리 들린다고 하면서.)

110009 @ 아.(아.)

110009 #2 겐디 이젠 그거 엇어. 미신이주.(그런데 이젠 그거 없어. 미신이지.)

110009 @ 게민 이 영등은 어디서 들어왕 어디로 나간뎀 헙니까?(그럼 이 영등은 어

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간다고 합니까?)

110009 #2 소섬[372]으로 들어온덴 헤나서.(우도로 들어온다고 했었어.)

110009 @ 예.(예.)

110009 #2 소섬으로 들어왕 나간덴 허멍.(우도로 들어와서 나간다고 하면서.)

110009 @ 어디로 나가, 나갈 땐?(어디로 나가, 나갈 땐?)

110009 #2 소섬으로 들어왕 어디로 나감젠만 헤낫주게.(우도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간다고만 했었지.)

110009 @ 예, 경헷던 거예.(예, 그랬던 거요.)

110009 #2 빨래 안 허고 뭐 비료 거튼 것도 안 줘. 영등 땐.(빨래 안 하고 뭐 비료 같은 것도 안 줘. 영등 땐.)

110009 @ 게민 이 마을에서 영등 때쯤 뭐 제지내거나?(그럼 이 마을에서 영등 때쯤 뭐 제지내거나?)

110009 #2 아니, 제지내진 안허여. 제지내는 거 동촌[373]더렌 헌디 이딘 안 지낸디 영등 때 그건 일절 안 허여. 우리도 우리 옛날 장서허믄 마늘 같은 거 그거 장서허는 거는 뽑아 와도 일절 검질메레 안 뎅겨.(아니, 제지내지는 않아. 제지내는 거 동촌으로는 하는데 여긴 안 지냈는데 영등 때 그건 일절 안 해. 우리도 우리 옛날 장서하면 마늘 같은 거 그거 장사하는 거는 뽑아 와도 일절 김매러 안 다녀.)

110010 @ 예, 이월덜은 경칩이 이서나신디.(예, 이월은 경칩이 있었는데.)

110010 #2 으.(으.)

110010 @ 경칩 때는 뭐 농사나 관련뭔 그런 거는?(경칩 때는 뭐 농사나 관련된 그런 거는?)

110010 #2 으, 그런 거는 엇고 뭐. 경칩에 무신 개구리도 깬덴 허여도 안 허여.(으, 그런 거는 없고 뭐. 경칩에 무슨 개구리도 깬다고 해도 안 해.)

110010 @ 뭐 엇고 춘분 때는마씨?(뭐 없고 춘분 때는요?)

110010 #2 뭐 춘분이 넘어야, 넘어야 헐 거 아니게. 농사짓는 거는.(뭐 춘분이 넘어야, 넘어야 할 거 아니. 농사짓는 거는.)

110010 @ 아, 춘분이 넘어사.(아, 춘분이 넘어야.)

110010 #2 으, 넘어사 호박도 심고 뭣도 심거서.(으, 넘어야 호박도 심고 뭐도 심었어.)

110010 @ 음.(음.)

110010 #2 옛날은.(옛날은.)

3월

110011 @ 음. 게민 삼월덜 가쿠다예. 옛날에 삼월덜에 한식 멩질 헤낫수과, 삼월덜

372) '소섬'은 제주시 우도면 '우도'의 옛 이름이다.
373) '동촌'은 동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에?(음. 그럼 삼월 가겠습니다. 옛날에 삼월에 한식 명질 했었습니까, 삼월에?)

110011 #2 이레, 저 동촌만 허영 이레 안 헤.(이리, 저 동촌만 해서 이리 안 해.)

110011 @ 한식 명절 안 헤?(한식 명절 안 해?)

110011 #2 으, 이레 안 헤. 동촌허고 이디허고 한참 틀려. 우리가 다녀 보믄.(으, 이리 안 해. 동촌하고 여기하고 한참 달라. 우리가 다녀 보면.)

110012 @ 음, 음. 그믄 삼월덜에 청명 날은 뭐 허는 날이과?(음, 음. 그럼 삼월에 청명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110012 #2 청명 날은게 거 무시거 헌덴 허멍 막 구신이 다 올라가 분덴 안 허여.(청명 날은 거 뭐 한다고 하면서 마구 귀신이 다 올라가 버린다고 안 해.)

110012 @ 예.(예.)

110012 #2 구신 올라가 분덴 허멍 산에 강 풀도 비고 하간 뭣도 허고 헷주게.(귀신 올라가 버린다고 하면서 산에 가서 풀도 베고 여러 뭐도 하고 했지.)

110012 @ 청명 날에예?(청명 날에요?)

110012 #2 으. 산에 비석도 세우고 영장도 일렁 묻는 사름은 청명 날만 일렁 묻고.(으. 산에 비석도 세우고 송장도 파서 묻는 사람은 청명 날만 파서 묻고.)

110012 @ 게민 청명 날 허는 건 날 안 봐도 뒈는 거?(그럼 청명 날 하는 건 날 안 봐도 되는 거?)

110012 #2 으. 한식과 청명은 날 안 봐근에 다 구신이 올라가 부난.(으. 한식과 청명은 날 안 봐서 다 귀신이 올라가 버리니까.)

110012 @ 게민 한식 멩질 때도 뭐 헙니까, 경 산소 보고 헙니까?(그럼 한식 명질 때도 뭐 합니까, 그렇게 산소 보고 합니까?)

110012 #2 아니. 이렌 안 허여, 안 허여.(아니. 이리는 안 해, 안 해.)

110012 @ 으, 청명 날 산소 보고 허는 거구나.(으, 청명 날 산소 보고 하는 거구나.)

110012 #2 이제도 그때는 소웽이 풀 거튼 거 산에 강 검질 캐는 사름은 허여.(이제도 그때는 엉겅퀴 풀 같은 거 산에 가서 김 캐는 사람은 해.)

110012 @ 음. 곡우 때는 뭐 허는 것과?(음. 곡우 때는 뭐 하는 겁니까?)

110012 #2 것도 몰르고.(것도 모르고.)

4월

110013 @ 곡우 몰르고예. 게민 사월덜 감수다예. 사월 초파일은 뭐 헤낫수과, 뭐 허는 날이과?(곡우 모르고요. 그럼 사월 갑니다. 사월 초파일은 뭐 했었습니까, 뭐 하는 날입니까?)

110013 #2 건 절에 다니는 사름 웨엔 뭐 안 허고. 절에 다니는 사름은 그자 초파일 날은게 기자 부처님 탄생헌 날이엔 뭐 허는디. 절에 안 다니는 사름은 그게 뭐.(건 절에 다니는 사람 외에는 뭐 안 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저 초파일 날은 그저 부처님 탄생한 날이라고 뭐 하는데.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은 그게 뭐.)

110013 @ 삼춘 절에 다념수게?(삼촌 절에 다니고 있지요?)

110013 #2 으, 게난 초파일날은 절에 첨 부처님 뭐 헌 날이난 멩심헨 다니는디 절에 안 다니는 사름은 거 아무 날도 아닌 거엔 생각헐 거라. 몰라도.(으, 그러니까 초파일은 절에 참 부처님 뭐 한 날이니까 명심해서 다니는데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은 거 아무 날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거야. 몰라도.)

110013 @ 삼춘은 이 날은 꼭 절에?(삼촌은 이 날은 꼭 절에?)

110013 #2 꼭 가.(꼭 가.)

110013 @ 강 뭐 올리고 그런 거 이서?(가서 뭐 올리고 그런 거 있어?)

110013 #2 불전이사 그날 아니여도 올려야 당연히.(불전이야 그날 아니어도 올려야 당연히.)

110013 @ 으.(으.)

110013 #2 당연히 올리고 그날 등 둘고게.(당연히 올리고 그날 등 달고.)

110013 @ 으, 등 둘고예, 예.(으, 등 달고요, 예.)

110013 #2 등 식구마다 다 이름 썽 허영 이름 쓴 종이 이런 거 헌 거 술아 불주게. 뜯엉. 뭐 촛불이 불리믄 뭐 허고 무신 눈물 나민 뭐 허고 헤도 다 마찬가지.(등 식구마다 다 이름 써서 해서 이름 쓴 종이 이런 거 한 거 살라 버리지. 뜯어서. 뭐 촛불이 불리면 뭐 하고 무슨 눈물 나면 뭐 하고 해도 다 마찬가지.)

110013 @ 예.(예.)

110013 #2 이젠 거의 다 연등으로 허고. 연등 허영 다 전기로 싸 부난 그게 엇언.(이젠 거의 다 연등으로 하고. 연등 해서 다 전기로 켜 버리니까 그게 없었어.)

110013 @ 아, 촛불 쌀 때는 불 안 부텅 꺼져 불민 뭐 허난.(아, 촛불 켤 때는 불 안 붙어서 꺼져 버리면 뭐 하니까.)

110013 #2 아니, 그게 펄득펄득허민 무신 또 촛불에서 눈물 떨어지민 눈물 날 일 잇저. 또 등이 어떵허민 엿날은 카 불민 이제 무신 무신 나쁘다 헌디 이젠 거의 연등이엔 헌 게 연꽃으로 만들앙 다 전기로 허여, 전기로.(아니, 그게 팔랑팔랑하면 무슨 또 촛불에서 눈물 떨어지면 눈물 날 일 있어. 또 등에 어떡하면 옛날은 타 버리면 이제 무슨 무슨 나쁘다 하는데 이젠 거의 연등이라고 하는 게 연꽃으로 만들어서 다 전기로 해, 전기로.)

110013 @ 예.(예.)

110013 #2 전기로 일름 썽 그날만 이제 쌋다 끼왓다 헤노난 그거 엇어. 아니, 이제도 그 주름 등에 초로 싸사게. 그건 만 원인가 허여. 그 연등은 삼만 원인가 허고.(전기로 이름 써서 그날만 이제 켰다 껐다 하니까 그거 없어. 아니, 이제도 그 주름 등에 초로 켜야. 그건 만 원인가 해. 그 연등은 삼만 원인가 하고.)

110013 @ 왜 초파일 날 갓난애기 잇이민 이날 뭐 헙니게?(왜 초파일 날 갓난아기 있으면 이날 뭐 합니까?)

110013 #2 머리 까까 줘사주게.(머리 깎아 줘야지.)

110013 @ 머리 깎는 거예. 게민 다른 거는 허는 거 엇고?(머리 깎는 거요. 그럼 다

른 거는 하는 거 없고?)

110013 #2 엇고. 이젠 머리 안 까까. 옛날에 다 깎아서 느나엇이.(없고. 이젠 머리 안 깎아. 옛날에 다 깎아서 너나없이.)

110013 @ 으.(으.)

110013 #2 으, 여자 남자 엇이 까까, 옛날은.(으, 여자 남자 없이 깎아, 옛날은.)

110013 @ 그날 머리, 무사 초파일 날 머리 까까?(그날 머리, 왜 초파일 날 머리 깎아?)

110013 #2 경헤사 좋넨 허멍.(그래야 좋다고 하면서.)

110013 @ 좋넨 허멍예.(좋다고 하면서요.)

110013 #2 우리 아이덜 날 때도 다 초파일 날 머리 까깟어. 이제 족은아덜이 마흔읏섯가, 마흔일곱 닮다. 마흔일곱이고 큰아덜은 쉰읏섯인디 다 머리 까깟어. 그때 그때 생각엔, 사십 년 전에.(우리 아이들 낳을 때도 다 초파일 날 머리 깎았어. 이제 작은아들이 마흔여섯인가, 마흔일곱 같다. 마흔일곱이고 큰아들은 쉰여섯인데 다 머리 깎았어. 그때 그때 생각에는, 사십 년 전에.)

110014 @ 예. 사월덜에 입하가 잇수다예. 절기상으로 입하 때 뭐 허는 거 잇수과?(예. 사월에 입하가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입하 때 뭐 하는 거 있습니까?)

110014 #2 산디 거튼 거나베낀 안 헐 거라. 엿날엔 산디.(밭벼 같은 거나밖에 안 할 거야. 옛날에는 밭벼.)

110014 @ 산디 가는 시기 이때가?(밭벼 가는 시기 이때가?)

110014 #2 으, 으. 그때 산디.(으, 으. 그때 밭벼.)

110014 @ 산디 갈 때예?(밭벼 갈 때요?)

110014 #2 으.(으.)

110014 @ 소만은?(소만은?)

110014 #2 그건 몰르고.(그건 모르고.)

5월

110015 @ 예. 오월덜 감수다. 단오 멩질 어떵 헤낫수과?(예. 오월 가겠습니다. 단오 명질 어떻게 했었습니까?)

110015 #2 옛날은 단오 멩질은 그자 이디 간단허게 헹 먹는 사름은 헤도 이디 경 팔월, 저 팔월 거친 안 허고게.(옛날은 단오 명질은 그저 여기 간단하게 해서 먹는 사람은 해도 여기 그렇게 팔월, 저 팔월 같이는 안 하고.)

110015 @ 음.(음.)

110015 #2 그냥 첨 밥만 헤 먹는 집은 헤 먹고 올리는 집이 올리고 경 막 허진 안 허고. 이 서쪽이 확실히 덜 허여.(그냥 참 밥만 해 먹는 집은 해 먹고 올리는 집은 올리고 그렇게 마구 하지 않고. 이 서쪽이 확실히 덜 해. 이 서쪽이 확실히 덜 해.)

110015 @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110015 #2 으, 동쪽으로 생각허믄. 육지는 절대 멩질 허여. 우리 육지 텡길 때. 육지는 단오 멩질 막 크게 출련 헹게.(으, 동쪽으로 생각하면. 육지는 절대 명질 해. 우리 육지 다닐 때. 육지는 단오 명질 아주 크게 차려서 했어.)

110015 @ 베랑 크게 여기는 안 헤낫구나예?(별로 크게 여기는 안 했었군요?)

110015 #2 으, 크겐 안 헤.(으, 크게는 안 해.)

110015 @ 음식은 추석 출릴 때나 마찬가지로?(음식은 추석 차릴 때나 마찬가지로?)

110015 #2 으, 경헌디 육지에는 막 잘 출련 헨게.(으, 그런데 육지에는 아주 잘 차려서 했어.)

110016 @ 망종 때는 뭐 헌덴?(망종 때는 뭐 한다고?)

110016 #2 거 망중은 보리고 뭐고 다 고부라진덴 허멍 허주게.(거 망종은 보리고 뭐고 다 구부러진다고 하면서 하지.)

110016 @ 망종 때민 게민 이때 보리 수확헐 거?(망종 때면 그럼 보리 수확할 거?)

110016 #2 으. 보리가 망중 땐 다 고부라지난 게난 망중 전이 비여야 뒈여.(으. 보리가 망종 땐 다 구부러지니까 그러니까 망종 전에 베어야 돼.)

110016 @ 아, 보리를.(아, 보리를.)

110016 #2 으, 이제도 마찬가지. 이제 마농도 망종 넘으민 뽑지 못허여. 망중이 바싹 삭아 불어. 게난 보리도 경허고 망중 때 뒈민 다 무신거 이 나룩.(으, 이제도 마찬가지. 이제 마늘도 망종 넘으면 뽑지 못해. 망종이 바싹 삭아 버려. 그러니까 보리도 그렇고 망종 때 되면 다 무엇 이 벼.)

110016 @ 예.(예.)

110016 #2 나룩도 망종 전이 싱그고 경헷주게.(나룩도 망종 전에 심고 그랬지.)

110016 @ 예. 어쨌든 시기상으로 망종은 농사헐 때 중요허다예?(예. 어쨌든 시기상으로 망종은 농사할 때 중요하네요?)

110016 #2 으, 망종이.(으, 망종이.)

110016 @ 이 전에 보리 수확허고 나룩 싱그고.(이 전에 보리 수확하고 벼 심고.)

110016 #2 으, 망종 때 막 싱거.(으, 망종 때 많이 심어.)

110016 @ 하지 때는?(하지 때는?)

110016 #2 하지 전이 감제고 콩이고 다. 가는 건 다 갈아사.(하지 전에 고구마고 콩이고 다. 가는 건 다 갈아야.)

110016 @ 아, 그럼 망종이랑 하지 사이에 다 허는 거?(아, 그럼 망종이랑 하지 사이에 다 하는 거?)

110016 #2 으, 농사 ᄆᆞ쳐야. 하지 넘으민 잘 안 뒈. 게난 나룩도 하지 넘으민 거리지[374] 안헌덴 허고. 감저도 하지 넘으민 싱그민, 옛날은 고구마 오죽 하영 싱거서게. 겐 그거 하지 전이 싱그젠. 막 하지 전이만 헤사 농사, 콩이고 뭐고 다 하지 전이 갈아사.(으, 농사 마쳐야. 하지 넘으면 잘 안 돼. 그러니까 벼도 하지 넘으면 가지 벌리지 않는다고 하고. 고구마도 하지 넘으면 심으면, 옛날은 고구마 오죽 많이 심어서. 그래서 그

374) '거리다'는 가지 벌리다는 말이다.

거 하지 전에 심으려고. 마구 하지 전에만 해야 농사, 콩이고 뭐고 다 하지 전에 갈아야.)

6월

110017 @ 유월덜 가쿠다. 유월덜에 닭, 독 잡아먹는 날이 잇수다예?(유월 가겠습니다. 유월에 닭, 닭 잡아먹는 날이 있네요?)

110017 #2 유월 스무날.(유월 스무날.)

110017 @ 유월 스무날. 이거 옛날에도 다 닭 잡아먹엇수과?(유월 스무날. 이거 옛날에도 다 닭 잡아먹었습니까?)

110017 #2 옛날에 이녁 집이 질룡 그날은 멩심헹 잡아먹엇어. 이제 닮지 안헹. 이녁 집이 질룡. 칠낭 놩 먹고 스못.(옛날에 자기 집에 길러서 그날은 명심해서 잡아먹었어. 이제 같지 않아서. 자기 집에 길러서. 옻나무 넣어서 먹고 사뭇.)

110017 @ 뭐, 뭐 놩 먹고?(뭐, 뭐 넣어서 먹고?)

110017 #2 칠낭이엔 헌 거 잇어. 칠올르는 칠낭이.(옻나무라고 하는 거 있어. 옻오르는 옻나무가.)

110017 @ 예, 예.(예, 예.)

110017 #2 그거 우영에 싱거. 우리도 잇어나서. 겐 엇인 집이 사름덜 왕 돈 얼메 줭 사가신디사 몰라. 요만썩 쫄라근에 그 낭게기에. 우리 하르부지[375] 그걸 헤영 풀아신디 어떵헤신디 몰라도 그 칠올른덴 허멍. 겐 우리 하르부지가 비영, 돈 받고 어떵헌 건 몰른디 허레 와나서. 빌레. 겐 빌어가신지 돈 줭 사 가신지 몰라.(그거 텃밭에 심어서. 우리도 있었어. 그래서 없는 집의 사람들 와서 돈 얼마 줘서 사갔는지 몰라. 요만큼씩 잘라서 이 나뭇가지에. 우리 할아버지 그걸 해서 팔았는데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 옻오른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베어서, 돈 받고 어떠한 건 모르는데 하러 왔었어. 빌러. 그래서 빌어갔는지 돈 줘서 사 갔는지 몰라.)

110017 @ 아.(아.)

110017 #2 칠낭 놩 헹 먹어사주 배 안 아픈덴.(옻나무 넣어서 해서 먹어야지 배 안 아프다고.)

110017 @ 아, 그거 놔야 배 안 아픈덴.(아, 그거 놔야 배 안 아프다고.)

110017 #2 으.(으.)

110017 @ 칠낭 놔사. 그믄 그거 삼춘네 식구가 멧, 멧 명?(옻나무 놔야. 그럼 그거 삼촌네 식구가 몇, 몇 명?)

110017 #2 우린 하지 안허여. 우리 동생 하나허고 나허고 어무니허고. 하르부지네도 하르부지 허고 고모, 고모 둘, 우리 아버지뿐. 하르부지네도 식구 하지 안허여.(우린 하지 않아. 우리 동생 하나하고 나하고 어머니하고. 할아버지네도 할아버지 하고 고모, 고모 둘, 우리 아버지뿐. 할아버지네도 식구 많지 않아.)

375) '하르부지'는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자신을 남편을 가리킨다.

110017 @ 경헨 듹을 멧 마리 잡아나서?((그래서 닭을 몇 마리나 잡았었어?)

110017 #2 우리 세 식구가 하나. 옛날은 하나.(우리 세 식구가 하나. 옛날은 하나.)

110017 @ 예.(예.)

110017 #2 옛날 질루는 듹은 커 이제 듹보단.(옛날 기르는 닭은 커 이제 닭보다는.)

110017 @ 크지예?(크지요?)

110017 #2 으, 겐 맛도 싯고.(으, 그래서 맛도 있고.)

110017 @ 듹 잡아먹는 날.(닭 잡아먹는 날.)

110017 #2 이젯 듹은 맛엇어. 비실비실.(이제 닭은 맛없어. 비실비실.)

110017 @ 이 동네도 개도 잡아먹는 사름도 잇엇수과?(이 동네도 개도 잡아먹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110017 #2 우리 하르부지, 첨 우리 집이 하르방도 잘 잡아먹어. 아, 우린 일절 안 먹어지는디 우리 집이 하르방은 일 년에 하나 두 개 안 먹엉 살질 못허여.(우리 할아버지, 참 우리 집의 할아버지도 잘 잡아먹어. 아, 우린 일절 안 먹는데 우리 집의 할아버지는 일 년에 하나 두 개 안 먹고 살질 못해.)

110017 @ 아.(아.)

110017 #2 게난 저 밧거리 강 딸령 다 비닐에 담앙 김치냉장고에 담아 둠서 끓여 먹을 땐 임제만 끓여 먹어. 난 막 그거 냄새가 머리 아파게.(그러니까 저 바깥채 가서 달여서 다 비닐에 담아서 김치냉장고에 담아 두면서 끓여 먹을 땐 임자만 끓여 먹어. 난 아주 그거 냄새가 머리 아파.)

110017 @ 게민 당신대로 남자 어른이 끓여 먹는 거라?(그럼 당신대로 남자 어른이 끓여 먹는 거야?)

110017 #2 아니, 게난 다 끓영 봉지에 담앗당 국 끌리 땐 담앗당 국 끌릴 땐 이제 조금, 조금. 끌릴 때 끌려 놩 다 비닐봉지에 담앙 놔뒷당 덜멍 혼 봉지썩 딸려 먹어. 막 그, 우리 머리 아파. 냄새가 궂어.(아니, 그러니까 다 끓여서 봉지에 담았다가 국 끓일 땐 담았다가 국 끓일 땐 이제 조금, 조금. 끓일 때 끓여 놔서 다 비닐봉지에 담아서 놔뒀다가 덜면서 한 봉지씩 달여 먹어. 아주 그, 우리 머리 아파. 냄새가 궂어.)

110018 @ 음. 삼복이 뭐과, 삼복?(음. 삼복이 뭡니까, 삼복?)

110018 #2 삼복더위게. 유월 스무날 넘으민 삼복더위, 삼복더위 허주기게.(삼복더위. 유월 스무날 넘으면 삼복더위, 삼복더위 하지.)

110018 @ 예, 예. 삼복더위렌 허는 거예. 유월 스무날 넘으민 영 곧는 거과?(예, 예. 삼복더위라고 하는 거요. 유월 스무날 넘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110018 #2 으, 으. 그때가 막 덥는 거 닮아.(으, 으. 그때가 아주 더운 거 같아.)

110018 @ 예.(예.)

110018 #2 겐 삼복더위렌 허멍.(그래서 삼복더위라고 하면서.)

110019 @ 소서는 뭐과? 이때 뭐 허는 거 잇수과, 소서 때?(소서는 뭡니까? 이때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소서 때?)

110019 #2 뭣은 안 허여. 소서 때 대서 때게 춥곡게 춥는 건 아니게.(뭐는 안 해 소

서 때 대서 때 춥고 추운 건 아니.)
110019 @ 더워, 더워.(더워, 더워.)
110019 #2 더운 거. 경헤도 뭣 허진 안허여.(더운 거. 그래도 뭐 하진 않아.)
110019 @ 뭣 허진 안허고예. 농서는 이때 다?(뭐 하지 않고. 농사는 이때 다?)
110019 #2 으, 하지 때 다 ᄆᆞ쳐사.(으, 하지 때 다 마쳐야.)

7월

110020 @ 칠월덜 감수다예. 칠석날이 뭐 허는 날이과?(칠월 갑니다. 칠석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110020 #2 그 저 견우직녀 만나는 날 아니?(그 저 견우직녀 만나는 날 아니?)
110020 @ 게민 이 칠석날 뭐 허는 거 잇수과?(그럼 이 칠석날 뭐 하는 거 있습니까?)
110020 #2 엇어.(없어.)
110020 @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10020 #2 칠월 초ᄒᆞ루날은 임금대왕 무신거 목 자친 날이엔 허멍 삼 년 ᄀᆞ물아도 칠월 초ᄒᆞ루날은 비 ᄒᆞᆫ 방울이라도 온덴 안 허연, 옛날은. (칠월 초하룻날은 임금대왕 무엇 목 젖힌 날이라고 하면서 삼 년 가물어도 칠월 초하룻날은 비 한 방울이라도 온다고 안 하고, 옛날은.)
110020 @ 음.(음.)
110020 #2 임금대왕 목 자친 날이난.(임금대왕 목 젖힌 날이니까.)
110020 @ 임금대왕 목 자친 날?(임금대왕 목 젖힌 날.)
110020 #2 으, 경허난 그날은 삼 년 ᄀᆞ물아도 비 온덴 헷주게.(으, 그러니까 그날은 삼 년 가물어도 비 온다고 했지.)
110020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10020 #2 아니, 경허난 임금이 막 똘이 고난 똘 ᄂᆞᆷ 주지 실펑 똘을 탐내난 그 똘이 아부지신디 쉐막에 강 저 촐을 먹어 보렌 헷덴. 경허난 임금이 이젠 그디서 목 ᄃᆞᆯ아젼 죽으난 임금대왕 목 자친 날. 게난 눈물이, 게난 쉐가 눈물 나난 비 ᄒᆞᆫ 방울이라도 온덴 허멍 헤낫주게. 게난 ᄀᆞ물아 가민 게난 칠월 초ᄒᆞ루날 비 오카, 비 오카 허멍 헷주게. (아니, 그러니까 임금이 아주 딸이 고우니까 딸 남 주기 싫어서 딸을 탐내니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외양간에 가서 저 꼴을 먹어 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이젠 거기서 목 달아매서 죽으니까 임금대왕 목 젖힌 날. 그러니까 눈물이, 그러니까 소가 눈물 나니까 비 한 방울이라고 온다고 하면서 했었지. 그러니까 가물어 가면 그러니까 칠월 초하룻날 비 올까, 비 올까 하면서 했지.)
110020 @ 음.(음.)
110020 #2 겐 ᄀᆞ물아 가민 칠월 초ᄒᆞ루날 비 와사 헐 건디 비 와사 헐 건디, 임금대왕 목 자친 날은 비 와, 비 와 영 헤나서. 우리 어릴 때.(그래서 가물어 가면 칠월 초하

룻날 비 와야 할 건데 비 와야 할 건데, 임금대왕 목 젖힌 날은 비 와, 비 와 이렇게 했었어. 우리 어릴 때.)

110021 @ 백중날은 뭐?(백중날은 뭐?)

110021 #2 백중은게 그 저 그냥 사름덜은 몰른디 저 우리 절에선 목렴이 어멍을 죽으난, 이 시님덜 매 때마다 그거 강의허연. 막 어멍 못 봔 허난 백 가지 음식을 허연, 저 기도를 들이민 그 어멍을 봐지켄 헷젠. 게난 백 가지 음식을 출련 기도를 드리난 그 어멍이 보연, 죽은 어멍이. 게난 백중이엔.(백중은 그 저 그냥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 우리 절에서는 목렴이 어머니 죽으니까, 이 스님들 매 때마다 그거 강의했어. 아주 어머니 못 봐서 하니까 백 가지 음식을 했어, 저 기도를 드리면 그 어머니를 볼 수 있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백 가지 음식을 차려서 기도를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보였어, 죽은 어머니가. 그러니까 백중이라고.)

110021 @ 그게 백중이렌마씨? 절간에서 골아준 거?(그게 백중이라고요? 절간에서 말해준 거?)

110021 #2 으. 절간에 시님이 경 골아.(으. 절간에 스님이 그렇게 말해.)

110021 @ 허허.(허허.)

110021 #2 게난 그 목렴이엔 헌 사름이 어멍 산 때는 효도를 못 헌디 죽으난 막 생각난 막 첨 스님, 부처님아피 기도를 드리멍 우리 어머님 흔 번만 보게 헤 줍센 허난, 그게 소원이건 백 가지 음식을 출령 기도를 드리렌. 경허난 이제 백 가지 음식을 출련 기도, 게난 이제 우리 절에 그날 죽은 고온아피 우리도 그냥 불공을 허여. 그, 그 뜻으로.(그러니까 그 목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산 때는 효도를 못 했는데 죽으니까 많이 생각나서 아주 참 스님, 부처님한테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어머님 한 번만 보게 해 주세요 하니까, 그게 소원이건 백 가지 음식을 차려서 기도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백 가지 음식을 차려서 기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절에 그날 죽은 '고온'한테 우리도 그냥 불공을 해. 그, 그 뜻으로.)

110021 @ 음.(음.)

110021 #2 겐 다라니 술고.(그래서 다라니 사르고.)

110021 @ 게난 백중 때도 절간은 감구나예.(그러니까 백중 때도 절간은 가는군요.)

110021 #2 으, 그때 그때 크게 허여. 고온 앚진 사름은. 고온 안 앚지민 필요 엇고.(으, 그때 그때 크게 해. '고온' 앉힌 사람은. '고온' 안 앉히면 필요 없고.)

110021 @ 예.(예.)

110021 #2 게난 죽은 사름아피. 그 뜻으로 우리도 이제, 다 다라니엔 헌 건 이제 저싱 돈 술아 줘.(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그 뜻으로 우리도 이제, 다 다라니라고 하는 건 이제 저승 돈 살라 줘.)

110021 @ 이 백중제 때 특별히 마을에서는 뭐 허는 거 엇수과?(이 백중제 때 특별히 마을에서는 뭐 하는 거 없습니까?)

110021 #2 마을엔 엇고. 절에선, 게난 스님이 설법헐 때 경 골아. 게난 그 어머니가 나타난 보염젠.(마을에는 없고. 절에서는, 그러니까 스님이 설법할 때 그렇게 말해. 그러

니까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보인다고.)

110021 @ 쉐 질루는 사름 뭐 제지내는 것도 엇고 동네에서?(소 기르는 사람 뭐 제지내는 것도 없고 동네에서?)

110021 #2 으.(으.)

110023 @ 게민 백중날 물 맞으레덜 가잖아예?(그럼 백중날 물 맞으러들 가잖아요?)

110023 #2 더우 깨렌.(더위 깨라고.)

110023 @ 예?(예?)

110023 #2 더위 깨렌. 옛날엔 막 똠두데기 나.(더위 깨라고. 옛날에는 마구 땀띠 나.)

110023 @ 예.(예.)

110023 #2 똠두데기 난디 저 어디 엉 아래.(땀띠 나는데 저 어디 절벽 아래.)

110023 @ 예.(예.)

110023 #2 고산 엉 아래만 강 물 맞아사 똠두데기 저 똠두데기 기여든덴 허멍 물 맞앗주게.(고산 절벽 아래만 가서 물 맞아야 땀띠 저 땀띠 기어든다고 하면서 물 맞았지.)

110023 @ 엉 아래에?(절벽 아래?)

110023 #2 으.(으.)

110023 @ 거기 물 맞는 디가 잇는 거?(거기 물 맞는 데가 있는 거?)

110023 #2 그디 물 맞는 디가 잇어.(거기 물 맞는 데가 있어.)

110023 @ 예.(예.)

110023 #2 저 한경더레 가는 디. 그디 강 물 맞으민 똠두데기 기여들어, 얼고. 게난 그거 더우 깨렌. 게난 그디 못 가민 우린 읍내물[376]이엔 헌 디가 이서.(저 한경으로 가는 데. 거기 가서 물 맞으면 땀띠 기어들어, 춥고. 그러니까 그거 더위 깨라고. 그러니까 거기 못 가면 우린 '읍내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110023 @ 예.(예.)

110023 #2 그디 강 이제 그 산물에 앚아. 경헤야. 옛날엔 검질메난 이 똠두데기 볼 나위엇어, 이디. 몸에. 겐 ᄉᆞ못 어느 제랑 백중, 겐 게역 헹 강 먹으멍.(거기 가서 이제 그 산물이 앉아. 그래야. 옛날에는 김매니까 이 땀띠 볼품없어, 여기. 몸에. 그래서 사뭇 어느 때랑 백중, 그래서 미숫가루 해서 가서 먹으면서.)

110023 @ 하하하.(하하하.)

110023 #2 겐 그디 강 ᄋᆞ졍 강 캉 먹으멍. 그날은 ᄒᆞ루 이제 우리 해수욕 가는 거라.(그래서 거기 가서 가지고 가서 타서 먹으면서. 그날은 하루 이제 우리 해수욕 가는 거야.)

110023 @ 그날 딱예?(그날 딱요?)

110023 #2 으, 해수욕, 해수욕 허고.(으, 해수욕, 해수욕 하고.)

110023 @ 똠띠 때문에 경 물 맞는 것과, 신경통 때문에?(땀띠 때문에 그렇게 물 맞는 겁니까, 신경통 때문에?)

376) '읍내물'은 한경면에 있는 물 이름이다.

110023 #2 아니, 그게 아니고 막 더위 깨렌 맞앗어. 막 뜸띠 나고.(아니, 그게 아니고 아주 더위 깨라고 맞았어. 아주 땀띠 나고.)

110023 @ 더위 깨렌 헙니까?(더위 깨라고 합니까?)

110023 #2 으, 더우 깨여. 더우 깨사주. 게난 뜸띠가 볼나위엇어. 이런 디 허민 ᄀᆞ료 왕 밤인 막 허고 막 옛날은 검질메 나민 혼나게. 이제사 뜸띠 나게 뭐 일헴서게. 아침에 강 확 일헤 덩 놀곡 허난.(으, 더위 깨. 더위 깨야지. 그러니까 땀띠가 볼품없어. 이런 데 하면 가려워서 밤엔 마구 하고 마구 옛날은 김매고 나면 혼나. 이제야 땀띠 나게 뭐 일하고 있어. 아침에 가서 확 일해 두고 놀고 하니까.)

110023 @ 예.(예.)

110023 #2 아이고, 검질멜 때 뜸띠 낭 우리도 죽어져. 게난 백중날 ᄒᆞ루 놀앗주게.(아이고, 김맬 때 땀띠 나서 우리도 죽어져. 그러니까 백중날 하루 놀았지.)

110022 @ 모래찜질은 안 헤낫수과?(모래찜질은 안 했었습니까?)

110022 #2 으, 안 허연. ᄒᆞ는 디도 엇고게.(으, 안 해. 하는 데도 없고.)

110022 @ 아, 모래찜질허는 디가?(아, 모래찜질하는 데가?)

110022 #2 으, 저 함덕 가야 잇지, 이디 엇지 안 허여.(으, 저 함덕 가야 있지, 여기 없지 않아.)

110022 @ 예.(예.)

110023 #2 백중날은 물 맞으레 꼭 가.(백중날은 물 맞으러 꼭 가.)

110023 @ 물 맞으레는 고산 엉 허고 또 다른 데?(물 맞으러는 고산 절벽 하고 또 다른 데?)

110023 #2 아니 게난 이 읍내물이여 뭐 쉰게물[377]이영 그 나는, 산물 나는 디 강 그디 강 앚으민 것도 ᄒᆞ꼼 풀리주기게.(아니, 그러니까 이 '읍내물'이며 뭐 '쉰게물'이랑 그 나는, 산물 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앉으면 것도 조금 풀리지.)

110023 @ 예.(예.)

110023 #2 게난 밥 쌍 강덜 막 먹고. 빨래도 그런, 다 그런 물에 강 헤 왓주게. 겐 그런 디 층층 널어. 이젠 다 세탁기 헤도 옛날은 다 그런 물에 강 빨래헷주. 이런 디서 안 헷어.(그러니까 밥 싸서 가서들 마구 먹고. 빨래도 그런, 다 그런 물에 가서 해 왔지. 그래서 그런 데 층층 널어. 이젠 다 세탁기 해도 옛날은 다 그런 물에 가서 빨래했지. 이런 데서 안 했어.)

110023 @ 예. 이제 칠월덜 보난 절기상으로 입추 잇수다예? 입추 때 뭐 농사?(예. 이제 칠월 보니까 절기상으로 입추 있네요? 입추 때 뭐 농사?)

110023 #2 아니, 뭐 그런 거 안 허고.(아니, 뭐 그런 거 안 하고.)

110024 @ 처서 때는?(처서 때는?)

110024 #2 처서 때 저 백중, 처서엔 말만 허고 그자 뭐 허진 안허고.(처서 때 저 백중, 처서엔 말만 하고 그저 뭐 하진 않고.)

377) '쉰게물'은 한경면에 있는 물 이름이다.

8월

110025 @ 아, 말만 허고예. 팔월덜 나민 이제 벌초를 해야 헐 거 아니?(아, 말만 하고요. 팔월 되면 이제 벌초를 해야 할 거 아니?)

110025 #2 으.(으.)

110025 @ 언제 헙니까? 벌초는?(언제 합니까? 벌초는?)

110025 #2 엿날은 팔월 초ᄒᆞ루날만 허여.(옛날은 팔월 초하룻날만 해.)

110025 @ 그날 다 헤져.(그날 다 할 수 있어.)

110025 #2 게난 그날 다 못 헌 사름 그 뒷내날. 이제는 일요일날 허는디 그때는 팔월 초ᄒᆞ루날로 학교 방학도 다 헤서.(그러니까 그날 다 못 한 사람 그 뒷날. 이제는 일요일 하는데 그때는 팔월 초하룻날로 학교 방학도 다 했어.)

110025 @ 벌초 방학예?(벌초 방학요?)

110025 #2 견디 이젠.(그런데 이젠.)

110025 @ 우리도 벌초 방학 헤난 거 생각남수다.(우리도 벌초 방학 했던 거 생각납니다.)

110025 #2 경헌디 이젠 일요일날만. 경헌디 전인 이때 일요일덜 막 허는디 올린 더원 안 헴신게덜.(그런데 이젠 일요일만. 그런데 전엔 이때 일요일들 마구 하는데 올핸 더워서 안 하네.)

110025 @ 지금 시기에덜예.(지금 시기에들요.)

110025 #2 으, 이때덜 막 헤여.(으, 이때들 많이 했어.)

110025 @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헐 거라예?(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할 거지요?)

110025 #2 으, 우리도, 우리도 다음 주. 아니 우린 사일 날 헐 걸로 이제 헷주게.(으, 우리도, 우리도 다음 주. 아니 우린 사일 날 할 걸로 이제 했지.)

110025 @ 사일 날.(사일 날.)

110025 #2 으, 구월 사일 날 우린 헐 걸로. 게나제나 팔월 초ᄒᆞ루날은 소분헷주게. 게난.(으, 구월 사일 날 우린 할 걸로. 그나저나 팔월 초하룻날은 벌초했지. 그러니까.)

110025 @ 소분이렌 헙니까, 여기 소분?('소분'이라고 합니까, 여기 벌초?)

110025 #2 소분, 소분.(벌초, 벌초.)

110025 @ 소분헐 때는 이녁 집만 갈 거 아니잖아예?(벌초할 때는 자기 집만 갈 거 아니잖아요?)

110025 #2 옛날은 동고량차롱[378]에 밥 쌍 갓주기게. 차롱에. 밥 쌍 가. 밥 쌍 가고 어떵헌 딘 이제 술도 허고 사과도 서너 개 상 가. 게난 잊어불어지지 안허여. 우리 이제 큰아덜 오십ᄋᆞ섯이라. 경허고 우리 말젯 시어멍 뚤은 원 멧 설산디. 우리 집이 아덜보단 ᄒᆞᆫ 두 설 아랠 거라. 못 춧안 허단 보난, 저 성굴왓[379] 살 때 성제비[380]꺼장 걸언간.

378) '동고량차롱'은 '동고량+차롱'의 구성으로, 여기서 '차롱'은 '채롱'을 말한다. '동고량'은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어 만든 도시락으로, '동고량차롱'도 '동고량'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379) '성굴왓'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굴 이름이다.

380) '성제비'는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의 지명이다.

혼 대ᄋᆞ섯 살 난 때. 그 하르방네 아부지네 ᄯᅳ랑 그거 얻어먹젠. 애기 못 촞안 허단 보난 오꼿 질 이왕 하르방덜은 멀리 가 불고 아부지넨 누게넨.(옛날은 '동고량차롱'에 밥 싸서 갔지. 채롱에. 밥 싸서 가. 밥 싸서 가고 어떠한 덴 이제 술도 하고 사과도 서너 개 사서 가.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 이제 큰아들 오십여섯이야. 그리고 우리 셋째 시어머니 딸은 원 몇 살인지. 우리 집의 아들보다 한 두 살 아래일 거야. 못 찾아서 하다가 보니까, 저 '성굴왓' 살 때 '성제비'까지 걸어갔어. 한 대여섯 살 났을 때. 그 할아버지네 아버지네 따라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아기 못 찾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만 길 잃어버려서 할아버지들은 멀리 가 버리고 아버지네는 누구네는.)

110025 @ 으.(으.)

110025 #2 겐 막 아이 못 촞안 허단 보난 그꺼장 ᄯᅳ라강. 그거 얻어먹엉 혼디 가젠.(그래서 마구 아이 못 찾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까지 따라가서. 그거 얻어먹고 같이 가려고.)

110025 @ 아, 경 ᄯᅳ라가단 잃어분 거라?(아, 그렇게 따라가다가 잃어버린 거야?)

110025 #2 아, 경헨 이제 그 성제비엔 헌 디 가난 하르방덜 어느더레 가 분셍 몰른 셍이라. 그 질로 갈 걸로 알앙 ᄯᅳ라간덴.(아, 그래서 이제 그 '성제비'라고 하는 데 가니까 할아버지들 어디에 가 버렸는지 모른 모양이야. 그 길로 갈 걸로 알아서 따라간다고.)

110025 @ 예.(예.)

110025 #2 이제 생각허믄 막 그때 첨. 겐 그 사과 싸는 거 봥 그 사과 먹젠 간 거 닮아. 하하하.(이제 생각하면 아주 그때 참. 그래서 그 사과 싸는 거 봐서 그 사과 먹으려고 간 거 같아. 하하하.)

110025 @ 잃어불엉 애 먹었구나, 그거 촞젠 허난.(잃어버려서 애 먹었구나, 그거 찾으려고 하니까.)

110025 #2 으, 그때 생각허믄. 게난 우리 말젯시어멍 똘허고 우리 집이 아덜허고 둘이가덜 지네 아부지네, 우리 집이 아덜도 우리 집 하르방네 갓주기게. 게난 ᄯᅳ라간 게 그꺼장 ᄯᅳ라간 거라. 이디에서 용당[381]만이 허여 거리가. 그꺼장 ᄯᅳ라간. 아마 너다섯 설쯤 헌 때라. 경 멀리 갓어.(으, 그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셋째 시어머니 딸하고 우리 집의 아들하고 둘이 자기 아버지네, 우리 집의 아들도 우리 집 할아버지네 갔지. 그러니까 따라간 게 그까지 따라간 거야. 여기에서 용당만큼 해 거리가. 그까지 따라갔어. 아마 네다섯 살쯤 한 때야. 그렇게 멀리 갔어.)

110025 @ 아고게. 그믄 벌초는 이녁 집만 허는 거 아니면 친척덜이 다 ᄀᆞ치 허여?(아이고, 그럼 벌초는 자기 집만 하는 거 아니면 친척들이 다 같이 해?)

110025 #2 다 ᄀᆞ치 허여, ᄀᆞ치. ᄀᆞ치 허고 옛날엔 기계 엇이난 다 호미로 헷주기게.(다 같이 해, 같이. 같이 하고 옛날엔 기계 없으니까 다 호미로 했지.)

110025 @ 게난 ᄒᆞ루에 다 못 헐 거 아니? 메칠 헤실 거 아니?(그러니까 하루에 다 못할 거 아니? 며칠 했을 거 아니?)

---

381) '용당'은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를 말한다.

110025 #2 보통 이사흘 헷주기게.(보통 이사흘 했지.)

110025 @ 이사흘예. 예, 예.(이사흘요. 예, 예.)

110025 #2 이 공일날만 허지 안허고 옛날은 다 초ᄒᆞ루, 초이틀, 초사흘 허여.(이 공일날만 하지 않고 옛날은 다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해.)

110025 @ 음.(음.)

110025 #2 경헌디 이젠 그믐날부터 시작허여.(그런데 이젠 그믐날부터 시작해.)

110025 @ 음.(음.)

110025 #2 경헌디 이젠 아무 때나 기자. 공일날만 허는 거주게.(그런데 이젠 아무 때나 그저. 공일날만 하는 거지.)

110026 @ 예. 팔월 멩질에 대해서 ᄀᆞᆯ아 줍서. 팔월 멩질.(예. 팔월 명질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팔월 명질.)

110026 #2 팔월 멩질이사 그자 옛날은 저 탕쉰[382] 호박 탕쉬 헤서. 호박 허연.(팔월 명질이야 그저 옛날은 저 '탕쉬'는 호박 '탕쉬' 했어. 호박 했어.)

110026 @ 예.(예.)

110026 #2 겁죽도 안 벳기고 허영 그거 꿰 놓곡 헹 탕쉬. 겐 고사리 두어 개 그 우터레 올리고.(껍질도 안 벗기고 해서 그거 깨 넣고 해서 '탕쉬'. 그래서 고사리 두어 개 그 위에 올리고.)

110026 @ 예.(예.)

110026 #2 묵 이제 묵 썰엉 이제 네 개 이제 그 고사리 우이 올리고 그건 젓가락이엔 허멍. 이젠 호박 탕쉬 안 허지만은 옛날은 호박 탕쉬도.(묵 이제 묵 썰어서 이제 네 개 이제 그 고사리 위에 올리고 그건 젓가락이라고 하면서. 이젠 호박 '탕쉬' 안 하지만 옛날은 호박 '탕쉬'도.)

110026 @ 고사리, 콩ᄂᆞ물 대신?(고사리, 콩나물 대신?)

110026 #2 아니 콩ᄂᆞ물도 ᄒᆞ꼼 허고 고사리도 탕쉬 허고. 고사리, 고사린 이제 ᄂᆞ물로 허는디 옛날은 서너 개 그 호박 우터레 올려.(아니 콩나물도 조금 하고 고사리도 '탕쉬' 하고. 고사리, 고사린 이제 나물로 하는데 옛날은 서너 개 그 호박 위에 올려.)

110026 @ 으.(으.)

110026 #2 고사리가 어려와신디사 원 어떵허난 경 서너 개만 올려신디 몰라. 이젠 막 고사리 밥으로 먹지 안허여게. 반찬으로.(고사리가 어려웠는지 원 어떡하니까 그렇게 서너 개만 올렸는지 몰라. 이젠 마구 고사리 밥으로 먹지 않아. 반찬으로.)

110026 @ 예.(예.)

110026 #2 겐디 옛날은 ᄒᆞ꼼 솖앙 서너 개 보글보글혜영 호박 우터레 서너 개 걸쳥. 접시에 놩.(그런데 옛날은 조금 삶아서 서너 개 보글보글해서 호박 위에 서너 개 걸쳐서. 접시에 놔서.)

110026 @ 고사리 꺾으레 갈 저를이 엇엇주게?(고사리 꺾으러 갈 겨를이 없었지?)

110026 #2 아니, 옛날에가 이제 아니난 잇엇주만은 겐디 그 고사리 이제 ᄀᆞ치 경 반

382) '탕쉬'는 삶은 고사리나 콩나물 따위에 기름, 깨 등을 쳐서 만든 것으로 제사에 쓰는 음식을 말한다.

찬으로 허질 안헌 거라.(아니, 옛날에가 이제 아니니까 있었지만 그런데 그 고사리 이제 같이 그렇게 반찬으로 하질 않은 거야.)

110026 @ 음. 팔월 멩질에 허는 음식 더 특별헌 건 엇수과?(음. 팔월 명질에 하는 음식 더 특별한 건 없습니까?)

110026 #2 이 제주돈 그자 보리 삼메떡.(이 제주도는 그저 보리 상화떡.)

110026 @ 보리 삼메떡.(보리 상화떡.)

110026 #2 으, 보리 삼메떡 허고 기자 보리로 기증펜 허고. 그땐 제펜 그런 거 안 허연. 곤떡은 ᄒᆞ꼼 헤영 그자 올리고. 경헨 헷주게.(으, 보리 상화떡 하고 그저 보리로 증편 하고. 그땐 '제펜' 그런 거 안 했어. 흰떡은 조금 해서 그저 올리고. 그렇게 했지.)

110026 @ 삼메떡으로?(상화떡으로?)

110026 #2 으.(으.)

110026 @ 팔월 멩질도 다 먹으레 뎅기고?(팔월 명질도 다 먹으러 다니고?)

110026 #2 먹으레 뎅기주게. 저 영 막걸리 허영도 뎅기고. 엿날은 오렌지 주스렌 허멍이 물감 놓민 벌겅허게 오렌지 멘드는 게 잇어. 겐 그것도 질엉 뎅기곡. 지주로.(먹으러 다니지. 저 이렇게 막걸리 해서도 다니고. 옛날은 오렌지 주스라고 하면서 물감 넣으면 벌겋게 오렌지 만드는 게 있어. 그래서 그것도 길어서 다니고. 제주로.)

110026 @ 아.(아.)

110026 #2 사 홉들이 하나. 오죽 가난헤사 경헐 거냐?(사 홉들이 하나. 오죽 가난해야 그럴 거니?)

110026 @ 그거, 저기 제주로 헹 그거 들렁 가고?(그거, 저기 제주로 해서 그거 들고 가고?)

110026 #2 어, 친척 집이 경 헹 가. 오죽 가난헤야 그 오렌지주스 물들인 거 그거, 이제사 ᄀᆞ트민 데껴 불 거여. 먹으느냐? 것도 엇엉 못 먹어.(어, 친척 집에 그렇게 해서 가. 오죽 가난해야 그 오렌지주스 물들인 거 그거, 이제야 같으면 던져 버릴 거여. 먹니? 것도 없어서 못 먹어.)

110026 @ 그것도 들렁 가고?(그것도 들고 가고?)

110026 #2 으, 오죽이사 가난헤사 경헐 거라. 생각허민.(으, 오죽 가난해야 그럴 거야. 생각하면.)

110027 @ 예, 저기 절기가 팔월덜에 백로, 추분이 잇수다. 백로에 뭐 허는 거 잇수과?(예, 저기 절기가 팔월에 백로, 추분이 있습니다. 백로에 뭐 하는 거 있습니까?)

110027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10027 @ 추분 때는?(추분 때는?)

110027 #2 추분 때도 엇고.(추분 때도 없고.)

9월

110028 @ 구월덜 가쿠다. 구월덜에 상강 이신게, 상강?(구월 가겠습니다. 구월에 상

강 있네요, 상강?

110028 #2 으, 상강 전이 감저 다 갈아사게.(으, 상강 전에 고구마 다 갈아야.)

110028 @ 상강 전이 갈아서?(상강 전에 갈았어?)

110028 #2 으, 씨 헐 거. 씨 안 헐 건 헌디 씨 헐 건 상강 전이 안 허믄 저 썩어. 상강 ᄂᆞ리기 전이, 저 상강 그때 뒈민 상강 ᄂᆞ리고 헌덴 허멍 씨 헐 건 상강 전이 갈아 뒁 씨 허주게. 그거 말곤 뭐 별로 안 허고.(으, 씨 할 거. 씨 안 할 건 했는데 씨 할 건 상강 전에 안 하면 저 썩어. 상강 내리기 전에, 저 상강 그때 되면 상강 내리고 한다고 하면서 씨 할 건 상강 전에 갈아 두고 씨 하지. 그거 말고는 뭐 별로 안 하고.)

10월

110029 @ 음. 시월, 음력 시월에 절기가 입동허고 소설이 잇수다. 입동?(음. 시월, 음력 시월에 절기가 입동하고 소설이 있습니다. 입동?)

110029 #2 게난 그 사이에 다 보리덜 갈아.(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보리들 갈아.)

110029 @ 아, 입동, 입동이랑 소설 사이에?(아, 입동, 입동이랑 소설 사이에?)

110029 #2 으, 보리 갈아.(으, 보리 갈아.)

110029 @ 보리 갈아. 그 수확하는 건 언제 헐 것과?(보리 갈아. 그 수확하는 건 언제 할 겁니까?)

110029 #2 수확헐 땐 그 무시것고 아까 ᄀᆞᆯ은 저 저 무시거 전이.(수확할 땐 그 뭐지 아까 말한 저 저 뭐 전에.)

110029 @ 상강 전이?(상강 전에?)

110029 #2 아니, 아니. 단오, 단오. 단오 말고 저 ᄀᆞᆫ젠 허난 잊어불어졋저. 그 무시거 헐 때 나 마농이영 수확헤산덴 허멍 헌 거. 그 전이 안 허민 문 보리가 고구라져 불엉 못 비여게.(아니, 아니. 단오, 단오. 단오 말고 저 말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렸어. 그 뭐 할 때 나 마늘이랑 수확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 거. 그 전에 안 하면 모두 보리가 고부라져 버려서 못 베어.)

110029 @ 아니. 보리 고부라지는 건 그때주만은 웨 콩도 들이고 산디도 들이고.(아니. 보리 고부라지는 건 그때지만 왜 콩도 들이고 밭벼도 들이고.)

110029 #2 산디는 가을에 허는 거고게.(밭벼는 가을에 하는 거고.)

110029 @ 게, 가을에 언제 산디를 들이는 것과?(그래, 가을에 언제 밭벼를 들이는 겁니까?)

110029 #2 거 팔월 멩질 넘으민 허주게.(거 팔월 명질 넘으면 하지.)

110029 @ 아, 팔월 멩질 넘으민. 예, 예. 촐도 언제?(아, 팔월 명질 넘으면. 예, 예. 꼴도 언제?)

110029 #2 촐도 팔월 멩질 넘엉 비고, 팔월 멩질 ᄒᆞ꼼 전이도 두세 ᄇᆞ름만 터지민 비여. 두세 ᄇᆞ름은 하늬ᄇᆞ름게.(꼴도 팔월 명질 넘어서 베고, 팔월 명질 조금 전에도 두세 바람만 터지면 베어. 두세 바람은 하늬바람.)

110029 @ 예.(예.)

110029 #2 하늬ᄇᆞ름 게난 두세 ᄇᆞ름 나사만 촐 빈덴 헷주게.(하늬바람 그러니까 두세 바람 나야만 꼴 벤다고 했지.)

110029 @ 음. 하늬ᄇᆞ름 나사, 예. 경허고.(음. 하늬바람 나야, 예. 그리고.)

110029 #2 팔월엔 촐 빔이 일이라, 촐 빔이. 옛날은, 이젠 다 곶 뒌디 옛날은 그게 다 촐밧이랏주기게. 이젠 곶자왈[383] 돼 불언. 아이고, 촐 ᄉᆞ못 그거 헤당 쉐 허젠 허믄 촐이 어려와.(팔월에는 꼴 베기가 일이야, 꼴 베기가. 옛날은, 이젠 다 곶 됐는데 옛날은 그게 다 꼴밭이었지. 이젠 곶자왈 돼 버렸어. 아이고, 꼴 사뭇 그거 해다가 소 하려고 하면 꼴이 어려워.)

110029 @ 소설 때도 뭐 허는 거 엇고예?(소설 때도 뭐 하는 거 없고요?)

110029 #2 응.(응.)

11월

110030 @ 아까 입동이랑 소설 사이에 감저 놓는다는 거. 그다음 십일월달 넘어감수다예. 동지, 동지 풋죽이 뭐과?(아까 입동이랑 소설 사이에 고구마 놓는다는 거. 그다음 십일월 넘어갑니다. 동지, 동지 팥죽이 뭡니까?)

110030 #2 동짓덜엔게 풋죽 쒕 먹어사 감기도 걸리지 안허고 헐 거 아니?(동짓달에는 팥죽 쒀서 먹어야 감기도 걸리지 않고 할 거 아니?)

110030 @ 감기 걸리지 말렌 풋죽 쒕 먹는 거?(감기 걸리지 말라고 팥죽 쒀서 먹는 거?)

110030 #2 풋죽 쒕 다 케우려.(팥죽 쒀서 다 고수레해.)

110030 @ 어디에 케우려?(어디에 고수레해?)

110030 #2 이런 집덜 주위에 옛날엔.(이런 집들 주위에 옛날에는.)

110030 @ 아, 풋죽 케우려?(아, 팥죽 고수레해?)

110030 #2 으, 옛날엔 케우려.(으, 옛날에는 고수레해.)

110030 @ 고뿔 들어오지 말렌?(고뿔 들어오지 말라고?)

110030 #2 어. 이젠 그냥 먹는디 옛날엔 케우려.(어. 이젠 그냥 먹는데 옛날엔 고수레해.)

110030 @ 아. 케우려. 풋죽 끓여 봅서, 어떵 끓엿수과?(아. 고수레해. 팥죽 끓여 보세요, 어떻게 끓였습니까?)

110030 #2 풋 솖앙게 풋 솖앙 그자 그 새알은 아무나 안 헤 놓고게. 이제나 새알 놓주, 옛날은 그자 풋죽, 풋 솖앙 그자 쏠 놩 썻주.(팥 삶아서 팥 삶아서 그저 그 새알은 아무나 안 해 넣고. 이제나 새알 넣지, 옛날은 그저 팥죽, 팥 삶아서 그저 쌀 넣어서 썼지.)

383) '곶자왈'은 '곶+자왈'의 구성으로, '곶'은 표준어 '숲'에, '자왈'은 표준어 '덤불'에 대응한다. 제주 산간 지역 나무, 덩굴 식물 등이 뒤섞여 숲을 이룬 곳을 말한다.

110030 @ 으.(으.)

110030 #2 겐 이제 우선 거렁 사발에 거렁 대문, 대문 밖에 멧 숟가락 케우려 둬사 먹어. 경 안 헹 그 전에 안 거려먹엇어, 우리 어린 때.(그래서 이제 우선 떠서 사발에 떠서 대문, 대문 밖에 몇 숟가락 고수레해 둬야 먹어. 그렇게 안 하고 그 전에 안 떠먹었어, 우리 어린 때.)

110030 @ 예. 안 거려 먹는 거.(예. 안 떠 먹는 거.)

110030 #2 문첨 케우려 둬사.(먼저 고수레해 둬야.)

110031 @ 예. 납평날이라는 거 알아지쿠과?(예. 납향날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110031 #2 으, 엿 다끄는 날.(으, 엿 고는 날.)

110031 @ 엿 다끄는 날?(엿 고는 날?)

110031 #2 으, 납평날은 엿 다끄는 날.(으, 납향날은 엿 고는 날.)

110031 @ 이날 엿 다까야 둬?(이날 엿 고아야 돼?)

110031 #2 으.(으.)

110031 @ 무사?(왜?)

110031 #2 몰라.(몰라.)

110031 @ 하하하.(하하하.)

110031 #2 어떤 일인디 납평날만 엿 다까. 납평날은 득 잡앙도 허고 둬지고기 놩도, 엿 다끄는 날게.(어떤 일인지 납향날만 엿 고아. 납향날은 닭 잡아서도 하고 돼지고기 넣어서도, 엿 고는 날.)

110031 @ 아, 이날이 엿 다끄는 날이라?(아, 이날이 엿 고는 날이야?)

110031 #2 으. 옛날은 엿 잘 다깟어. 이젠 안 다까도. 무사, 으. 납평날 거의 엿 다까.(으. 옛날은 엿 잘 고았어. 이젠 안 고아도. 왜, 으. 납향날 거의 엿 고아.)

110031 @ 삼춘은 무슨 엿을 다까낫수과?(삼촌은 무슨 엿을 고았었습니까?)

110031 #2 우린 둬지고기 엿이 잘 다까.(우린 돼지고기 엿 잘 고아.)

110031 @ 으.(으.)

110031 #2 둬지고기 앞다리 허영 그거 저 궤어 갈 때 놓민 그거 막 뭐 허여. 게난 우리 손지 아이고, 그 둬지고기 히여뜩히여뜩허난 뒌장 막 맛잇저. 하하하.(돼지고기 앞다리 해서 그거 저 괴어 갈 때 넣으면 그거 아주 뭐 해. 그러니까 우리 손주 아이고, 그 돼지고기 희끗희끗하니까 된장 아주 맛있어. 하하하.)

110031 @ 아, 지난번에 골아난 거예. 예, 예.(아, 지난번에 말했던 거요. 예, 예.)

110031 #2 아, 뒌장 막 맛잇저 헤낫주게.(아, 된장 아주 맛있어 했었어.)

110031 @ 예, 예.(예, 예.)

110031 #2 히여뜩히여뜩허난.(희끗희끗하니까.)

110032 @ 십일월덜에 절기상으로 대설이 잇수다. 이때 뭐 허는 거 엇고?(십일월에 절기상으로 대설이 있습니다. 이때 뭐 하는 거 없고?)

110032 #2 으, 허는 건 엇고. 이 눈 온덴 험뿐.(으, 하는 건 없고. 이 눈 온다고 할 뿐.)

110032 @ 예. 동짓날 풋죽 먹는 거고예?(예. 동짓날 팥죽 먹는 거고요?)
110032 #2 으.(으.)

12월

110033 @ 십이월덜 가쿠다. 신구간이 옛날부터 잇어낫수과?(십이월 가겠습니다. 신구간이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110033 #2 구신이 올라가 분덴게.(귀신이 올라가 버린다고.)
110033 @ 올라가는 날.(올라가는 날.)
110033 #2 게난 이사허고 영장 묻고.(그러니까 이사하고 송장 묻고.)
110033 @ 신구간에?(신구간에?)
110033 #2 이사허고 영장도 그날 묻고. 그때 묻고게. 그때 신이 다 올라가 부난.(이사하고 송장도 그날 묻고. 그때 묻고. 그때 신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110033 @ 예.(예.)
110033 #2 집도 고찌는 거 그때 고찌고.(집도 고치는 거 그때 고치고.)
110033 @ 영장 묻는다는 건 이전허는 거?(송장 묻는다는 건 이전하는 거?)
110033 #2 이전허는 거 거의 허고 이 집 고찌는 것도 그때 허여. 이사도 그때 허고.(이전하는 거 거의 하고 이 집 고치는 것도 그때 해. 이사도 그때 하고.)
110033 @ 이사를 가게 뒈면 이사 갈 집은 어떵 구허는 거라 옛날에?(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갈 집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옛날에?)
110033 #2 엿날에사 거의 영 빌엉을 안 살고 다 상 살고 뭣 짓엉 살곡 헷주게. 게난 이 집이 살당 저 집이 가게 뒈면 이사험뿐.(옛날에야 거의 이렇게 빌려서 안 살고 다 사서 살고 뭐 지어서 살고 했지. 그러니까 이 집에 살다가 저 집에 가게 되면 이사할 뿐.)
110033 @ 빌엉 살거나는 안 헷던 거?(빌려서 살거나 안 했던 거?)
110033 #2 으, 옛날은 벨로 경 그자락. 밧거리에 빌엉 사는 사름은 허고 이 그냥 집 엇인 사름덜 밧거리에 다 빌엉 살주게.(으, 옛날은 별로 그렇게 그처럼. 바깥채에 빌려서 사는 사람은 하고 이 그냥 집 없는 사람들 바깥채에 다 빌려서 살지.)
110033 @ 음.(음.)
110033 #2 경혜연. 다 모커리건 밧거리건 빌엉 살아.(그랬어. 다 곁채건 바깥채건 빌려서 살아.)
110034 @ 모커리건 밧거리건 빌엉 살젠 허면 어디 강 빌어야 뒐지 물으러 다녀야 헐 거 아니?(곁채건 바깥채건 빌려서 살려고 하면 어디 가서 빌려야 될지 물으러 다녀야 할 거 아니?)
110034 #2 저 무시거 정시신디게 엿날은. 이젠 철학관인디 옛날엔 정시, 정시.(저 무엇 지관에게 옛날은. 이젠 철학관인데 옛날엔 지관, 지관.)
110034 @ 집이, 어느 집이 비여신지를 모르잖아?(집이, 어느 집이 비였는지를 모르잖아?)

110034 #2 그거 복덕방 엇어. 그거 소문 들엉 헷주.(그거 복덕방 없어. 그거 소문 들어서 했지.)

110034 @ 소문 들엉. 저 집이 비엇저 허는 소문을 들어지민.(소문 들어서. 저 집이 비었어 하는 소문을 들으면.)

110034 #2 으, 경허고 정시 강 동더레 가민 좋을 거, 서러레 막아시냐 뭐 헤시냐 들엉 오고 경헷주게.(으, 그리고 지관 가서 동으로 가면 좋을 거, 서로 막혔는지 뭐 했는지 듣고 오고 그랬지.)

110035 @ 저 이사 갈 때 뭐부터 가졍 갑니까?(저 이사 갈 때 뭐부터 가지고 갑니까?)

110035 #2 솟게. 솟허고 요강.(솥. 솥하고 요강.)

110035 @ 아, 요강도 가졍 가.(아, 요강도 가져서.)

110035 #2 으, 옛날에 오줌 단지. 그거 솟 안에 놩 가. 시집 갈 때도 요강 단지에 쏠 ᄒᆞ꼼 놓고 성냥곽 놓고 실 놓고 헹 가고. 가메에.(으, 옛날에 오줌 단지. 그거 솥 안에 넣어서 가. 시집 갈 때도 요강 단지에 쌀 조금 넣고 성냥갑 넣고 실 넣고 해서 가고. 가마에.)

110035 @ 가메에.(가마에.)

110035 #2 어.(어.)

110035 @ 그건 신부 테우는 가메?(그건 신부 태우는 가마?)

110035 #2 게메 가메에 놩 가. 우리 어린 때. 아니, 우린 경 안 헷주만은.(그래 가마에 놔서 가. 우리 어린 때. 아니, 우린 그렇게 안 했지만.)

110035 @ 예.(예.)

110035 #2 요강이사 ᄋᆞ졍 갓주만은 우리 어린 때 보믄 그게 풍속이라. 실에 쏠 놓곡 성냥 놓곡 요강 단지 거져가는 게.(요강이야 가지고 갔지만 우리 어린 때 보면 그게 풍속이야. 실에 쌀 넣고 성냥 넣고 요강 단지 가져가는 게.)

110035 @ 음.(음.)

110035 #2 아니 우리도 요강 단지 허영 갓주만은 그 쏠은 놩 가낫어. 쏠 놓고. 경헌디 가메에, 우리 갈 땐 추럭. 자가용이 아니라 추럭 탕 갓주기게. 가메 타지 안 허고.(아니 우리도 요강 단지 해서 갔지만 그 쌀은 넣어서 갔었어. 쌀 놓고. 그런데 가마에, 우리 갈 땐 트럭. 자가용이 아니라 트럭 타서 갔지. 가마 타지 않고.)

110035 @ 추럭 탕 간.(트럭 타서 갔어.)

110035 #2 추럭 탄.(트럭 타서.)

110036 @ 옛날에도 그럼 영 이사 가면 우리 집들이렌 허잖아예?(옛날에도 그럼 이렇게 이사 가면 우리 집들이라고 하잖아요?)

110036 #2 안 허여.(안 해.)

110036 @ 안 헨?(안 했어.)

110036 #2 으, 집들이.(으, 집들이.)

110036 @ 옛날엔 집알이렌 헷수과?(옛날엔 '집알이'라고 했습니까?)

110036 #2 집들인 안 허여.(집들이는 안 해.)
110036 @ 안 허여예.(안 해요.)
110036 #2 으, 집들이 안 허여.(으, 집들이 안 해.)
110037 @ 게난 선물허는 것도 뭐 엇어나신게예?(그러니까 선물하는 것도 뭐 없었네요?)
110037 #2 으, 집들이 안 허여.(으, 집들이 안 해.)
110038 @ 예. 소한, 대한 때 뭐 허는 거 잇수과?(예. 소한, 대한 때 뭐 하는 거 있습니까?)
110038 #2 뭣 허진 안허여. 춥덴 헌 뿐이주. 추워, 추워. 소한에 나간 사름 기다, 아이 들어오민 기다리지 말렌 헷주기게.(뭐 하진 않아. 춥다고 할 뿐이지. 추워, 추워. 소한에 나간 사람 기다, 안 들어오면 기다리지 말라고 했지.)
110038 @ 무사?(왜?)
110038 #2 죽어 불엇젠 얼언.(죽어 버렸다고 추워서.)
110038 @ 얼언예?(추워서요?)
110038 #2 으, 소한에 나강 대한에 아이 들어오믄 그 사름이 죽은 거라. 들어오지 못허민.(으, 소한에 나가서 대한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이 죽은 거야. 들어오지 못하면.)
110038 @ 어디 강 들어오지 못허민?(어디 가서 들어오지 못하면?)
110038 #2 어디 출장 가민 그땐 걸언만 뎅기난. 소한에 나강 대한에 안 들어오민 이제 죽엇구나 생각헤야 뒈주.(어디 출장 가면 그땐 걸어서만 다니니까. 소한에 나가서 대한에 안 들어오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해야 되지.)
110038 @ 아, 어디 웨방에 나가시민.(아, 어디 외방에 나갔으면.)
110038 #2 으, 추워부난 안 들어완. 추워부난.(으, 추워버리니까 안 들어왔어. 추워버리니까.)
110038 @ 예. 농사 다 지으난 소한 대한에 뭐 따로 헐 건 엇고예?(예. 농사 다 지으니까 소한 대한에 뭐 따로 할 건 없고요?)
110038 #2 으, 헐 건 엇고.(으, 할 건 없고.)
110038 @ 예.(예.)

11. 놀이

111001 @ 어릴 때 놀아난 거 물어보쿠다. 어릴 때 놀아난 거.(어릴 때 놀았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놀았던 거.)
111001 #2 오주메허고 공기허고게.(오자미하고 공기하고.)
111001 @ 공기허고. 남자아이덜은?(공기하고 남자아이들은?)
111001 #2 그딘 뼁이 치고. 뼁이 치고. 남잔 그거 자떼기 허고.(거긴 팽이 치고. 팽이 치고. 남잔 그거 '자떼기' 하고.)

111001 @ 자떼기 허고?(‘자떼기’ 하고?)

111001 #2 으.(으.)

111001 @ 자떼기렌 헷수과, 자치기렌 안 허고?(‘자떼기’라고 했습니까, 자치기라고 안 하고?)

111001 #2 자치기, 자치기. 자치기허고 그 자전거 와[384] 그거 헹 영 쒜, 쒜 영 오그렁 졸졸졸졸 영 돌리는 것도 막 허여.(자치기, 자치기. 자치기하고 그 자전거 바퀴 그거 해서 이렇게 쇠, 쇠 이렇게 오그려서 졸졸졸졸 이렇게 돌리는 것도 많이 해.)

111001 @ 아, 예.(아, 예.)

111001 #2 으.(으.)

111002 @ 그거 하나씩 물어보쿠다. 우선은 연날리기서부터 물어보쿠다. 그냥 알아지는 것만 말씀해 주시민 뭴 거예. 연에도 영 종류가 이실 거 아니?(그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연날리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아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요. 연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을 거 아니?)

111002 #2 청연, 개구리연게.(방패연, 가오리연.)

111002 @ 개구리연? 청연, 개구리연?(가오리연? 방패연, 가오리연?)

111002 #2 니귀반득헌 건 청연.(네모반듯한 건 방패연.)

111002 @ 으.(으.)

111002 #2 개구리연은 영 동글랑허영 꼴람지 돋은 건 개구리연.(‘개구리연’은 이렇게 동그래서 꼬리 돋은 건 가오리연.)

111003 @ 으. 연 만들젠 허민 어떵 만들어?(으. 연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

111003 #2 대게, 대 달롸근에 창호지 허영 만들엇주게.(대, 대 달궈서 창호지 해서 만들었지.)

111003 @ 게민 대 잇어야 뭴 거고 창호지 잇어야 뭴 거고 풀 볼르젠 허민?(그럼 대 있어야 될 거고 창호지 있어야 될 거고 풀 바르려고 하면?)

111003 #2 풀 볼라.(풀 발라.)

111003 @ 뭐, 뭘로 풀 볼라?(뭐, 뭐로 풀 발라?)

111003 #2 옛날은 밀ᄀᆞ루로 헷주게. 밀ᄀᆞ루로. 경헨 밀ᄀᆞ루풀 헹 볼라. 대에.(옛날은 밀가루로 했지. 밀가루로. 그래서 밀가루풀 해서 발라. 대에.)

111003 @ 예. 대에 볼랑 창호지 붙이는 거라?(예. 대에 발라서 창호지 붙이는 거야?)

111003 #2 으, 창호지 붙여.(으, 창호지 붙여.)

111004 @ 실은 어떵 헷수과?(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1004 #2 실은 연술이렌 허멍 그때도 셔 ᄒᆞ꼼 질긴 거. ᄒᆞ꼼 질기게 헹 연술 허영.(실은 연줄이라고 하면서 그때도 있어, 조금 질긴 거. 조금 질기게 해서 연줄 해서.)

111004 @ 게민 그런 건 사당?(그럼 그런 건 사다가?)

111004 #2 사당 헤실 거라.(사다가 했을 거야.)

---

384) ‘와’는 일본어 ‘わ’로 ‘바퀴’를 말한다.

111004 @ 예. 저 개미, 골리라는 거 알아지쿠과? 저 연줄에 유리 막 부숴 연줄에 멕여난 거. 연싸움허젠.(예. 저 개미, '골리'라는 거 알겠습니까? 저 연줄에 유리 마구 부숴서 연줄에 먹였던 거. 연싸움하려고.)

111004 #2 건 몰라.(건 몰라.)

111005 @ 몰라예. 예, 예. 연싸움도 헤나고예.(몰라요. 예, 예. 연싸움도 했었고요.)

111005 #2 연싸움덜 허주기게. 허영덜 실로 영 얼거정 저디 연이영 이디 연이영 얽엉 잡아뎅경 실 줄 그차져 분 것이 진 거 아니?(연싸움들 하지. 해서들 실로 이렇게 얽어서 저기 연이랑 여기 연이랑 얽어서 잡아당겨서 실 줄 끊겨 버린 것이 진 거 아니?)

111005 @ 예. 삼춘도 영 연날리기 헤 보고?(예. 삼촌도 이렇게 연날리기 해 보고?)

111005 #2 아니, 우린 아니. 남자덜이 허주.(아니, 우린 아니. 남자들이 하지.)

111005 @ 거의 남자덜이?(거의 남자들이?)

111005 #2 으.(으.)

111005 @ 연날리기 허면 어디 보리밧디 강?(연날리기 하면 어디 보리밭에 가서?)

111005 #2 보리밧디 강 허주, 동산에.(보리밭에 가서 하지, 동산에.)

111005 @ 동산에?(동산에?)

111005 #2 으, 높은 동산에 강 허주. 동산 보리밧디 잘 허여.(으, 높은 동산에 가서 하지. 동산 보리밭에 잘 해.)

111005 @ 게민 보리밧 불르렌 아이덜 들여보내는 거?(그럼 보리밭 밟으라고 아이들 들여보내는 거?)

111005 #2 으, 보리밧 불라도 욕허지 안허여. 그냥 이제ᄀᆞ치 찬 하지 안허주만은 밧디 강 헤야 널렁 잘 올라가주.(으, 보리밭 밟아도 욕하지 않아. 그냥 이제같이 차는 많지 않지만 밭에 가서 해야 넓어서 잘 올라가지.)

111007 @ 음. 쪽기차기?(음. 제기차기?)

111007 #2 쪽기차기도 하영 허고.(제기차기도 많이 하고.)

111007 @ 예. 쪽기는 어떵 만듭니까?(예. 제기는 어떻게 만듭니까?)

111007 #2 그 창호지 허연게 막 ᄀᆞᆺ앙 이디 돈 담앙. 돈이나 뭐 떼깍헌 걸 담아야 이디 두글락헐[385] 거 아니. 겐 실로 벵벵 뎅여. 무껑 멘들앗주. ᄀᆞ새로 족족 ᄀᆞᆺ아.(그 창호지 해서 마구 잘라서 여기 돈 담아서. 돈이나 뭐 딱딱한 걸 담아야 여기 '두글락할' 거 아니. 그래서 실로 뱅뱅 돌려. 묶어서 만들었지. 가위로 족족 잘라.)

111007 @ 어디를 ᄀᆞᆺ아?(어디를 잘라?)

111007 #2 이거 종이를, 창호지. 창호지 쪽기는 질기는디 그냥 그런 종이로는 비삭비삭[386] 다 꺼꺼져.(이거 종이를, 창호지. 창호지 제기는 질긴데 그냥 그런 종이로는 '비삭비삭' 다 꺾어져.)

111007 @ 음. 비니루로 안 헷수과, 비닐?(음. 비닐로 안 했습니까, 비닐?)

111007 #2 비니루가 그때 셔서게? 비니루가 어디 셔게.(비닐이 그때 있어? 비닐이

385) '두글락허다'는 큼지막하고 둥근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86) '비삭비삭'은 종이 따위가 쉽게 구겨지거나 꺾이는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어디 있어.)

111007 @ 비닐 엇이난. 험벅은?(비닐 없으니까. 헝겊은?)

111007 #2 험벅은 안 헤 봔, 거의 창호지주.(헝겊은 안 봤어, 거의 창호지지.)

111008 @ 창호지로, 예, 예. 쪽기차기에도 어떵 종류가 잇수과? 한 발로 차민?(창호지로, 예, 예. 제기차기에도 어떻게 종류가 있습니까? 한 발로 차면?)

111008 #2 한 발로 차난 이짝 차난 이짝 차고 허는 사름이 많아. 경허는 거 잘 차는 사름은.(한 발로 차니까 이쪽 차니까 이쪽 차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는 거 잘 차는 사람은.)

111008 @ 잘 차는 사름덜은예?(잘 차는 사람들은요?)

111008 #2 으.(으.)

111009 @ 기민 쪽기차기 허민 어떵 허민 이기는 거라?(그럼 제기차기 하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

111009 #2 그거 숫자 하영 헌 사름이 이기주게. 멧 개, 멧 개 하나 둘 세영게.(그거 숫자 많이 한 사람이 이기지. 몇 개, 몇 개 하나 둘 세서.)

111009 @ 예. 하영 찬 사람이 이기는 거. 삼춘 쪽기차기도 안 헤 봣수과?(예. 많이 찬 사람이 이기는 거. 삼촌 제기차기도 안 해 봤습니까?)

111009 #2 으, 안 헤 봔.(으, 안 해 봤어.)

111013 @ 자치기는 어떵 헙니까?(자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111013 #2 자치기는 그거 탁 막뎅이 데껑 또 그 막뎅이로 탁 두드리민 그레 튀여가. 그 막뎅이 겐 그거 멀리 나가민 이견.(자치기는 그거 탁 막대기 던져서 또 그 막대기로 탁 두드리면 그리 뛰어가. 그 막대기 그래서 그거 멀리 나가면 이겼어.)

111013 @ 멀리 나가민.(멀리 나가면.)

111013 #2 건 남자덜이 헷주마는 허는 거 봄만 헷주기게.(그래서 남자들이 했지만 하는 거 보기만 했지.)

111012 @ 아, 마찬가지 자치기도. 게민 이 자를 마련헤야 뒐 거 아니예?(아, 마찬가지 자치기도. 그럼 이 자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요?)

111012 #2 낭게기 그자 요만이헌 낭게기. 경 헨 허믄 둘이가 허믄 이 낭게기 데끼믄 이 낭게기로 탁 두드려, 탁 받아. 두드리멍 ᄒᆞ꼼 영 튈 때. 경허믄 저레 멀리 강 이기주게.(나뭇가지 그저 요만한 나뭇가지. 그렇게 해서 하면 둘이 하면 이 나뭇가지 던지면 이 나뭇가지로 탁 두드려, 탁 받아. 두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튈 때. 그러면 저리 멀리 가서 이기지.)

111015 @ ᄆᆞᆯ탈락은?(말타기는?)

111015 #2 ᄆᆞᆯ탈락은 이거 영 사름이 엎어질 거 아니. 경헨 사람이 와랑와랑 왕 그 등떼기레 탁 타니까 ᄆᆞᆯ탈락게.(말타기는 이거 이렇게 사람이 엎어질 거 아니. 그래서 사람이 우럭우럭 와서 등에 탁 타니까 말타기.)

111015 @ 게민 ᄆᆞᆯ탈락은 펜 나눵 헤사큰게.(그럼 말타기는 편 나눠서 해야겠네요.)

111015 #2 펜 나놩 허는 거주게. 겐 그거 멧 사름이 올라. 우리 다섯이 허믄 다섯이,

다섯 사람 굽을 거 아니? 게민 그 다섯 사름이 다 올라. 그게 빨리 멜라져 불민 지는 거주게.(편 나눠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몇 사람이 올라. 우리 다섯이 하면 다섯이, 다섯 사람 굽을 거 아니? 그럼 그 다섯 사람이 다 올라. 그게 빨리 무너져 버리면 지는 거지.)

111015 @ 멜라져 불민 밑에 사람이 지는 거?(무너져 버리면 밑에 사람이 지는 거?)

111015 #2 어게. 게민 또 굽어야 뒈여.(그래. 그럼 또 굽어야 돼.)

111015 @ 또 굽어야 뒈. 게민 밑에 사람이 멜라지지 안헷수다.(또 굽어야 돼. 그럼 밑에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11015 #2 안 헤도 또 경헤도 못 타. 못 타도, 올라타지도 못 허여. 혼 사람이 경허여도 지는 거. 겐 다섯 사름 다 올라가야 뒈지.(안 해도 또 그래도 못 타. 못 타도, 올라타지도 못 해. 한 사람이 그래도 지는 거. 그래서 다섯 사람 다 올라가야 되지.)

111015 @ 아, 타는 쪽에서는 다 올라가야 뒈는 거? 다 올라가민 그다음에는?(아, 타는 쪽에서는 다 올라가야 되는 거? 다 올라가면 그다음에는?)

111015 #2 다 올라강 멜라지지 안헤야. 멜라져 불민 지는 거. 아, 게난 그 굽은 사름은 안 멜라지는데 올른 사름이 어떵허연 발이 알러레 내려와.(다 올라가서 무너지지 않아야. 무너져 버리면 지는 거. 아, 그러니까 그 굽은 사람은 안 무너지는데 오를 사람이 어떡해서 발이 아래로 내려와.)

111015 @ 예.(예.)

111015 #2 내려왕 영 건드려 불민 지는 거.(내려와서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지는 거.)

111016 @ 물타기에도 종류가 이서낫수과?(말타기에도 종류가 있었습니까?)

111016 #2 종류가 잇어나도 몰라.(종류가 있었어도 몰라.)

111016 @ 물탈락은 여자 아이덜이?(말타기는 여자 아이들?)

111016 #2 여자가 하영 헷주, 남자덜은 안 허여.(여자가 많이 했지, 남자들은 안 해.)

111016 @ 여자가 하영 허여?(여자가 많이 해?)

111016 #2 으, 여자가 물탈락허주.(으, 여자가 말타기하지.)

111020 @ 다마치긴 어떵 헤낫수과?(구슬치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11020 #2 다마치긴 그 구실게. 구실헹 영 헹 맞춰. 건 남저덜이 허여, 여자덜은 안 허고.(구슬치긴 그 구슬. 구슬해서 이렇게 해서 맞춰. 건 남자들이 해, 여자들은 안 하고.)

111020 @ 다마는 어디 셔?(구슬은 어디 있어?)

111020 #2 풀아, 풀아. 그거 멧 개에 얼마. 우리 아덜네가 주로 다마치길 하영 헷주기게.(팔아, 팔아. 그거 몇 개에 얼마. 우리 아들네가 주로 구슬치기를 많이 했지.)

111020 @ 게난 삼춘네 아덜 때는 헷고 삼춘네 때는?(그러니까 삼촌의 아들 때는 했고 삼촌 때는?)

111020 #2 안 허여, 우리 때는 안 허여.(안 해, 우리 때는 안 해.)

111020 @ 아, 그때는 엇고.(아, 그때는 없고.)

111020 #2 으, 우리 때는 엇엇고, 우리 아덜네는 다마가, 그 유리다마가 잇엇고.(으, 우리 때는 없었고, 우리 아들네는 구슬이, 그 유리구슬이 있었고.)

111021 @ 게민 다마치기에도 뭐 구멍치기 원치기 벡치기?(그럼 구슬치기에도 뭐 '구멍치기' '원치기' 벽치기?)

111021 #2 우리 저 다마치길 안 허고 저, 우리 우리 어린 때 남저덜은 영 구뎅이, 땅에 구뎅이 팡.(우리 저 구슬치기를 안 하고 저, 우리 우리 어린 때 남자들은 이렇게 구덩이, 땅에 구덩이 파서.)

111021 @ 으.(으.)

111001 #2 돈 데껑 그 고망에 들어간 사름이 이경 그 돈 따먹엇어.(돈 던져서 그 구멍에 들어간 사람이 이겨서 그 돈 따먹었어.)

111001 @ 아. 구멍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멍치기.(아. 구멍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멍치기'.)

111001 #2 으, 이디서 허민 영 저만이, 요만이 구멍을 팡 그 구멍에 돈을 들어가민 먹고 또 돈이 이디 낙, 낙헤[387]도 이제 지고. 거 먹어 불고.(으, 여기서 하면 이렇게 저만큼, 요만큼 구멍을 파서 그 구멍에 돈을 들어가면 먹고 또 돈이 여기 낙, '낙해도' 이제 지고. 거 먹어 버리고.)

111001 @ 음.(음.)

111001 #2 우리, 우리 때는 거 다마치기가 엇언, 그 다마가. 게난 그런 돈치기덜 잘 헷주게.(우리, 우리 때는 거 구슬치기가 없었어, 그 구슬이. 그러니까 그런 돈치기들 잘 했지.)

111001 @ 그거 돈치기렌 헷수과?(그거 돈치기라고 했습니까?)

111001 #2 으게, 엽전덜 돈치기게, 엽전 일 원, 일 원짜리덜.(으, 엽전들 돈치기, 엽전 일 원, 일 원짜리들.)

111001 @ 예.(예.)

111001 #2 그런 것덜 돈치기 헷주게.(그런 것들 돈치기 했지.)

111028 @ 빳지치기는?(딱지치기는?)

111028 #2 빳지치기도 우리 집이 아덜네대가 허고 우리, 우리 때는 안 허고.(딱지치기도 우리 집의 아들들대가 하고 우리, 우리 때는 안 하고.)

111028 @ 빳지치기는 어떵 허는 거라?(딱지치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111028 #2 거 뭣고. 골련 겁데기 헤단 막 두껍게 멘들앙 그 빳지치기덜 헷구나게. 떼기치기덜 떼기. 우리 어릴 때 떼기치기덜 잘 허고. 떼기렌 헌 건 ᄀᆞ새로 영 동그락허게 ᄀᆞᆺ아.(거 뭐지, 궐련 껍데기 해다가 아주 두껍게 만들어서 그 딱지치기들 했구나. 딱지치기들 딱지. 우리 어릴 때 딱지치기들 잘 하고. 딱지라고 하는 건 가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

111028 @ 떼기는 어떵 만들아?(딱지는 어떻게 만들어?)

111028 #2 ᄀᆞᆺ앙, 골련 겁데기 ᄀᆞᆺ앙 동글락허게 허민 그거 영 탁헤영 데싸지민 먹을

387) '낙허다'는 놀이에서 정해진 선이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거 아니.(잘라서, 궐련 껍데기 잘라서 동그랗게 하면 그거 이렇게 탁해서 뒤집히면 먹을 거 아니.)

111028 @ 데싸지민 이기는 거. 떼기치기렌 헤서예?(뒤집히면 이기는 거. 딱지치기라고 했어요?)

111028 #2 으, 떼기치기.(으, 딱지치기.)

111028 @ 빳지치기는 영 만들엉 허는 거고예?(딱지치기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111028 #2 으.(으.)

111028 @ 여자덜도 떼기치기?(여자들도 딱지치기?)

111028 #2 안 허여.(안 해.)

111032 @ 거의 남저덜 허는 거예. 곱을락은?(거의 남자들 하는 거지요. 숨바꼭질은?)

111032 #2 곱은제긴 잘 허고.(숨바꼭질은 잘 하고.)

111032 @ 아, 여긴 곱은제기렌 헴신게.(아, 여긴 '곱은제기'라고 하는군요.)

111032 #2 으, 곱은제기.(으, 숨바꼭질.)

111032 @ 곱은제기는 잘 허고.(숨바꼭질은 잘 하고.)

111032 #2 으, 그 곱은제기는 남자 여자 엇이 잘 허여. 남자덜도 허고 여자덜도 헤나서.(으, 그 숨바꼭질은 남자 여자 없이 잘 해. 남자들도 하고 여자들도 했었어.)

111033 @ 누게가 술래를 허는 거?(누가 술래를 하는 거?)

111033 #2 진 사람이 술래를 헤야지.(진 사람이 술래를 해야지.)

111033 @ 뭐 헹 진 사람이?(뭐 해서 진 사람이?)

111033 #2 영 곱아근에 문첨 춧아내는 사람이 질 거 아니?(이렇게 숨어서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질 거 아니?)

111033 @ 아. 곱을락헨에 주로 어디 곱아낫수과?(아, 숨바꼭질해서 주로 어디 숨었었습니까?)

111033 #2 막 이런 눌 틈, 촐눌 트멍. 주로 굴묵[388] 거튼 디.(마구 이런 가리 틈, 꼴가리 틈. 주로 '굴묵' 같은 데.)

111034 @ 하하. 굴묵 같은 디 곱고.(하하. '굴묵' 같은 데 숨고.)

111034 #2 으, 촐눌 트멍, 어디 담 에염 ᄀᆞ튼 디 강 곱아사주게.(으, 꼴가리 틈, 어디 담 옆에 같은 데 가서 숨어야지.)

111034 @ 아, 촐눌 트멍에도 가고.(아, 꼴가리 틈에도 가고.)

111035 #2 촐눌이 하영 누난 촐눌, 보리낭눌. 그 소곱에 기여들어 불민 못 춪지.(꼴가리 많이 가리니까 꼴가리, 보릿짚가리. 그 속에 기어들어 버리면 못 찾지.)

111035 @ 못 춪아. 뭐 재미난 일 엇어낫수과, 곱을락허멍?(못 찾아. 뭐 재밌는 일 없었습니까, 숨바꼭질하면서?)

111035 #2 아니 누게 확 이거 영 헤 놩 와랑와랑 돌아왕 이녁이 문첨 그 지둥에 문첨

388)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눈 감아난 디 이녁이 문저 와사 뒐 거 아니.(아니. 누가 확 이거 이렇게 해 놔서 우럭우럭 달려와서 자기가 먼저 그 기둥에 먼저 눈 감았던 데 자기가 먼저 와야 될 거 아니.)

111035 @ 예.(예.)

111035 #2 경헤영 다 헷주게.(그렇게 다 했지.)

111035 @ 게난 삼춘 곱을락허멍 어디 강 줌들어 불거나 허지는 안허고?(그러니까 삼촌 숨바꼭질하면서 어디 가서 잠들어 버리거나 하지는 않고?)

111035 #2 아니. 그자락 줌들게 오래진 안허고. 경허고 우린 줌이 엇어. 어린 때고 이제고 경 줌이 많이 자질 안허여.(아니. 그처럼 잠들게 오래지는 않고. 그리고 우린 잡이 없어. 어린 때고 이제고 그렇게 잠이 많이 자지를 않아.)

111035 @ 예. 이건 뭐과, 여자 아이덜 실 가졍 영?(예. 이건 뭡니까, 여자 아이들 실 가지고 이렇게?)

111036 #2 실뒈쓸락 아니?(실뜨기 아니?)

111036 @ 예, 실뒈쓸락. 게민 실은 어떵 준비허는 것과?(예. 실뜨기. 그럼 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111036 #2 실은 바농 옷 허는 실 허영 준비허영.(실은 바늘 옷 하는 실 해서 준비해서.)

111036 @ 바농 옷 허는 실.(바늘 옷 하는 실.)

111036 #2 그땐게 ᄑᆞ는 실들 싯주만은 미녕실도 멘들앙도 헤서. 실덜, 실덜. ᄑᆞ는 실덜도 허고.(그때는 파는 실들 있지만 무명실도 만들어서도 했어. 실들, 실들. 파는 실들도 하고.)

111037 @ 게민 손가락을 영 끼우는 거라?(그럼 손가락을 이렇게 끼우는 거야?)

111037 #2 영 끼왕 영 허영 허민 영 허영 아기구덕[389] 무신, 잊어불어졌저. 퍼렁헌 건 아기구덕, 무신 구덕 허멍 헤난디.(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서 '아기구덕' 무슨, 잊어버렸어. 파란 건 '아기구덕', 무슨 바구니 하면서 했었는데.)

111037 @ 아, 게민 영 실 만들어진 거 보멍 그걸 보멍 아, 요건 애기구덕 요건.(아, 그럼 이렇게 실 만들어진 거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애기구덕' 이건.)

111037 #2 으, 그거 하나 생각남저.(으, 그거 하나 생각나.)

111037 @ 그런 이름을 붙여난?(그런 이름을 붙였었어?)

111037 #2 으, 경허멍 뒈싸낫주기게.(으, 그러면서 뒤집었었지.)

111037 @ 게민 이 손가락을 넣는 거렌 무슨 손가락이엔 불러난 건 엇고.(그럼 이 손가락을 넣은 거라고 무슨 손가락이라고 불렀던 건 없고.)

111037 #2 으, 그냥 이디 허영 영 헤영 뒈쌍 실. 경헤영 하나도 범벅지지 안허게. 둘이가 허민 잘 뒛어. 계속, 계속 뒈싸.(으. 그냥 여기 해서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실. 그래서 하나도 뒤엉키지 않게. 둘이 하면 잘 되었어. 계속, 계속 뒤집어.)

111037 @ 이렇게예?(이렇게요?)

111037 #2 으, 하나도 얽어지지 안허게 잘 뒈싸낫어, 우리도. 아니, 요 중간에도 우

389) '아기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애기구덕'이라고도 한다.

리 손지덜 막 베와 주고 데싸낫어. 허렌 허영.(으, 하나도 얽히지 않게 잘 뒤집었었어, 우리도. 아니, 요 중간에도 우리 손주들 마구 배워 주고 뒤집었었어. 하라고 해서.)

111037 @ 손지랑 실뒈쓸락도 헤 보고?(손주랑 씰뜨기도 해 보고?)

111037 #2 으, 으.(으, 으.)

111041 @ 이거는 여자덜 헤난 거고. 공기는?(이거는 여자들 했던 거고. 공기는?)

111041 #2 공기 돌 뭇앙게.(공기 돌 마아서.)

111041 @ 돌 뭇앙.(돌 마아서.)

111041 #2 돌 뭇앙 다섯 개 헤영. 돌 동글락허게 요만이, 요만이 뭇앙. 겐 영 솟덕 앚지믄, 솟덕 잘 앚져져사 이길 거난.(돌 마아서 다섯 개 해서. 돌 동그랗게 요만큼, 요만큼 마아서. 그래서 이렇게 봇돌 앉히면, 봇돌 잘 앉혀야 이길 거니까.)

111041 @ 솟덕 앚진다는 게 무슨 말이과?('솟덕 앚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11041 #2 이거 영 공기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레 영 하나 앗당 그 우터레 톡 놓민 잘 안, 돌 솟덕[390] 앚져져. 겐 이겨.(이거 이렇게 공기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리 이렇게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톡 놓으면 잘 안, 돌 봇돌 앉힐 수 있어. 그래서 이겨.)

111041 @ 아, 우터레 잘 올령 언져 놓민 그거 솟덕 앚지는 거렌 헤?(아, 위에 잘 올려서 얹혀 놓으면 그거 봇돌 앉히는 거라고 해?)

111041 #2 겐 그거 이겨.(그래서 그거 이겨.)

111044 @ 예. 혹시 곤질꼬녀라는 놀이도 잇어낫수과?(예. 혹시 곤질고누라는 놀이도 있었습니까?)

111044 #2 건 몰라.(건 몰라.)

111044 @ 모르고예. 사그마치는 뭐과?(모르고요. 사금파리는 뭡니까?)

111049 #2 사그마치는게 돌 허영 방찰락 헐 때 사금마치도 허고. 저 장테[391], 장테 벌러진 거 허영 영 허영 방찰락 헐 때 그걸로. 이레 강 차고 저 방에 강 차고.(사금파리는 돌 해서 '방찰락' 할 때 사금파리도 하고. '장테', '장테' 깨진 거 해서 이렇게 해서 '방찰락' 할 때 그걸로. 이리 가서 차고 저 방에 가서 차고.)

111049 @ 방찰락이 뭐?('방찰락'이 뭐?)

111049 #2 방게 영 그령, 그령 사그마치로 방찰락 헤사주게.(방 이렇게 그려서, 그려서, 그려서 사금파리로 '방찰락' 해야지.)

111049 @ 음, 겐 넘어가는 거 그거를?(음, 그래서 넘어가는 거 그거를?)

111049 #2 아니, 게난 영 긋어진 디 이거 저, 저레 하나 차고 또 그다음 하나 차고 겐 이레 영 돌아와지민 방찰락게.(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진 데 이거 저, 저리 하나 차고 또 그다음 하나 차고 그래서 이리 이렇게 돌아오면 '방찰락'.)

111049 @ 아, 그걸 방찰락이렌 허는 거라. 겐 그때 쓰는 게 사그마치과?(아, 그걸 '방찰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사금파립니까?)

111049 #2 으, 사그마치로 헹 방찰락 헤. 먹대, 먹대도 허고.(으, 사금파리로 해서

390) '솟덕'은 표준어 '봇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서는 공기놀이를 할 때 공기 세 개 위에 공기 하나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391)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만든 질그릇을 말한다.

‘방찰락’ 해. 목대, 목대도 하고.)

111049 @ 먹대, 먹대는 뭐과?(목대, 목대는 뭡니까?)

111049 #2 먹대렌도 허고 방찰락 사그마치로 허민 사그마치렌 허고. 먹대로 헤연도 방찰락 헷주기게.(목대라고도 하고 ‘방찰락’ 사금파리로 하면 사금파리라고 하고. 목대로 해서도 ‘방찰락’ 했지.)

111050 @ 음. 땅따먹기는 어떵 헙니까?(음. 땅따먹기는 어떻게 합니까?)

111050 #2 땅따먹긴 자로 헤영도 땅 따먹고. 잣대치기. 건 남자덜이 주로 허고.(땅따먹기는 자로 해서도 땅 따먹고. 자치기. 건 남자들이 주로 하고.)

111050 @ 예.(예.)

111050 #2 우린 그 먹대로 허영 방찰락 헷주게. 영 옛날은 다 세멘질이 아니고 흑, 흑이난게. 흑에 쭉쭉 긋어. 긋엉 영 이 방에 가고 저 방에 가고 돌아와사주게.(우린 그 목대로 해서 ‘방찰락’ 했지. 이렇게 옛날은 다 시멘트질이 아니고 흙, 흙이니까. 흙에 쭉쭉 그어. 그어서 이렇게 이 방에 가고 저 방에 가고 돌아와야지.)

111050 @ 예. 게민 이거 다 나 방이 뒈는 거라?(예. 그럼 이거 다 내 방이 되는 거야?)

111050 #2 아니 게난 그 먹대로 저레 차 가고 저레 차 가고. 그 그믓에 허지 말앙 다 창 이꺼지 오민 이겨질 거주.(아니 그러니까 그 목대로 저리 차 가고 저리 차 가고. 그 금에 하지 말고 다 차서 이까지 오면 이길 수 있는 거지.)

111050 @ 다 창 오민. 게난 방찰락이엔 허는 거과?(다 차서 오면. 그러니까 ‘방찰락’이라고 하는 겁니까?)

111050 #2 으.(으.)

111050 @ 영 여기 사그마치 놩 틀락틀락[392] 허멍 거 밀리멍?(이렇게 여기 사금파리 놔서 ‘틀락틀락’ 하면서 거 밀리면서?)

111050 #2 으, 게난 영 그믓 긋어진 디 영 그믓 긋어진 디, 이 그믓에서 이 그믓에, 그믓에 가믄 지고. 그믓 넘어강 요디 강 또 저디 강. 방이 네 개 닮다. 네 개 허영 또 이꺼장 돌아오민 이겨지고.(으, 그러니까 이렇게 금 그어진 데 이렇게 금 그어진 데, 이 금에서 이 금에, 금에 가면 지고. 금 넘어가서 여기 가서 또 저기 가서. 방이 네 개 같다. 네 개 해서 또 이까지 돌아오면 이기고.)

111050 @ 으, 돌아와지민 이기는 거.(으, 돌아오면 이기는 거.)

111050 #2 으, 그 그믓에 가민 지여, 떨어져 부는 거. 건 못 차주게.(으, 그 금에 가면 져. 떨어져 버리는 거. 건 못 차지.)

111053 @ 윳놀이 허젠 허민. 윳놀이렌 헤난, 옛날에도?(윷놀이 하려고 하면. 윷놀이라고 했었어, 옛날에도?)

111053 #2 으, 옛날에도 윳놀이.(으, 옛날에도 윷놀이.)

111053 @ 넉둥베기렌 안 헤난?(‘넉둥베기’라고 안 했었어?)

111053 #2 넉둥베기엔도 허고 윳놀이엔도 허고.(‘넉둥베기’라고도 하고 윷놀이라고도 하고.)

392) ‘틀락틀락’은 탄력 있게 튀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11053 @ 넉둥베기 허젠 허민 이 윳을 준비헤야 헐 거 아니과예?(윷놀이 하려고 하면 이 윷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111054 #2 그 폭낭 주로 끈차당게 네 개 만들앙.(그 팽나무 주로 끊어다가 네 개 만들어서.)

111054 @ 폭낭.(팽나무.)

111054 #2 주로 폭낭 잘 끊어와낫어.(주로 팽나무 잘 끊어왔었어.)

111055 @ 예. 종이영 윳판은 어떵 만들고? 윳판, 그림 그려야 뒐 거?(예. 종이랑 윷판은 어떻게 만들고? 윷판, 그림 그려야 될 거?)

111055 #2 그림 종이에 아니고 다 멍석에 그렷주게.(그림 종이에 아니고 다 멍석에 그렸지.)

111055 @ 멍석 위에?(멍석 위에?)

111055 #2 다 멍석에 그렷어.(다 멍석에 그렸어.)

111055 @ 뭐로 그려?(뭐로 그려?)

111055 #2 숫으로 그렷어게.(숯으로 그렸어.)

111055 @ 그린 다음에, 윳판을예?(그린 다음에, 윷판을요?)

111055 #2 으. 숫으로 그리고 이런 디 놓는 건 낭게기도 놓고 돌멩이도 놓고.(으. 숯으로 그리고 이런 데 놓는 건 나뭇가지도 놓고 돌멩이도 놓고.)

111057 @ 어떵허민 이기는 것과?(어떡하면 이기는 겁니까?)

111057 #2 아이 윳은 나 잘 몰라.(아니, 윷은 나 잘 몰라.)

111057 @ 어쨌든 윳놀이는 남자 어른덜이?(어쨌든 윷놀이는 남자 어른들이?)

111057 #2 으, 남저덜 허난.(으, 남자들 하니까.)

111059 @ 펭이치기는?(팽이치기는?)

111059 #2 펭이치기는 낭게기 까깡 요 아래 못 하나 박앙. 닥, 옛날은 닥낭이 쳇주게. 닥낭 겁죽허영. 닥낭 겁죽으로 벳경 헷주게. 요샌 무스것사 헴시 몰라도.(팽이치기는 나뭇가지 깎아서 요 아래 못 하나 박아서. 닥, 옛날은 닥나무가 쳤지. 닥나무 껍질해서. 닥나무 껍질로 벗겨서 했지. 요새는 무엇으로 하는지 몰라도.)

111059 @ 음.(음.)

111061 #2 닥낭 겁데기 헤영 짝 벳긴 거 이 무뚱에 둘아멩 걸로 치민 잘 쳐, 옛날은. 닥낭 겁죽으로 다 이 짚신 이 뒤에도 감고. 이젠 귀찮여 저 닥낭이.(닥나무 껍데기 해서 쫙 벗긴 거 이 문 앞에 달아매서 걸로 치면 잘 쳐, 옛날은. 닥나무 껍질로 다 이 짚신 이 뒤에도 감고. 이젠 귀찮아, 저 닥나무가.)

111061 @ 무사?(왜?)

111061 #2 막 밧디 더껴정게. 아니 헹 가부난. 그때 그런 신 삼고 하간 거 허난 끈어가부난 엇인디 이제 그게 막 솔젼, 늙언. 나도 요 여름에도 강 끈은디 막 밧더레 들어왕 귀찮여.(마구 밭에 던져. 안 해서 가니까. 그때 그런 신 삼고 온갖 거 하니까 끊어버리니까 없는데 이제 그게 아주 살졌어, 늙었어. 나도 요 여름에도 가서 끊었는데 마구 밭으로 들어와서 귀찮아.)

111061 @ 예.(예.)

111061 #2 그때 심어논 거 내부난 이제 막 늙으는 거 아니. 그때 옛날엔 거 쫄락쫄락 나올 때 다 끈어당 거 겁죽을 쓴디 이제 내부난 그게 늙어, 수못.(그때 심어놓은 거 내버리니까 이제 아주 늙은 거 아니. 그때 옛날에는 거 뽀족뽀족 나올 때 다 끊어다가 거 껍질을 썼는데 이제 내버리니까 그게 늙어, 사뭇.)

111061 @ 어떤 게 닥낭이과?(어떤 게 닥나무입니까?)

111061 #2 닥낭이, 영 이파리 까릿까릿헌 게 이서게. 게난 그 겁죽이 막 잘 벗어져. 옛날은 경헌디 이제 그게 막 늙으난 그추룩도 안 헨. 옛날엔 굳짝 나올 땐 짝 벳경 신, 신도 이런 뒤추기에도 감고 삼는 디도 삼고 그런 펭이치기도 허는디 아이고, 이젠 그게 안 끈어노난 막 크는 게 귀찬허게 막 커노난.(닥나무가, 이렇게 잎이 까칠까칠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 껍질이 아주 잘 벗겨져. 옛날은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주 늙으니까 그처럼도 안 해. 옛날은 곧게 나올 땐 짝 벗겨서 신, 신도 이런 뒤축에도 감고 삼는 데도 삼고 그런 팽이치기도 하는데 아이고, 이젠 그거 안 끊으니까 아주 크는 게 귀찮게 아주 크니까.)

111061@ 닥낭 가졍 그걸로 헤난 거예?(닥나무 가져서 그걸로 했던 거요?)

111061 #2 으.(으.)

111064 @ 펭이 싸움은 어떵 허는 거라?(팽이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야?)

111064 #2 펭이게 저디 거영 이디 거영 치영게 드러눠 불민 지는 거 아니게.(팽이 저기 거랑 여기 거랑 쳐서 드러누워 버리면 지는 거 아니.)

111064 @ 드러누는 사름이 지는 거예?(드러눕는 사람이 지는 거요?)

111064 #2 으.(으.)

111066 @ 아까 자전거 바퀴로 허는 건 굴렁쉐?(아까 자전거 바퀴로 하는 건 굴렁쇠?)

111066 #2 으.(으.)

111066 @ 굴렁쉐는 자전거 바퀴 봉가당, 낭 봉가당?(굴렁쇠는 자전거 바퀴 주워다가, 나무 주워다가?)

111066 #2 아니, 대막뎅이에 쒜, 철 쒜 영 헤영 죽 돌아가 그건.(아니, 대막대기에 쇠, 철 쇠 이렇게 해서 죽 돌아가 그건.)

111069 @ 깡통차기도 헤낫수과?(깡통차기도 했었습니까?)

111069 #2 으, 깡통 허영덜 차는 사름덜 셔낫주게.(으, 깡통 해서 차는 사람들 있었어.)

111069 @ 빈 깡통 차는 거예?(빈 깡통 차는 거지요?)

111069 #2 으.(으.)

111072 @ 그다음 삥이치기?(그다음 '삥이치기'?)

111072 #2 삥이치긴[393] 이거 삥이 허영 영 탁 허민 이디 영 헤질 거 아니. 게민 그 삐 빠당 ᄒᆞ찡허게 이디 건들지 안 허영 디물아사주게.('삥이치기'는 이거 삘기 해서 이

393) '삥이치기'는 삘기를 가지고 노는 내기 놀이를 말한다. '삥이(삘기)'에 '치다'의 명사형인 '치기'가 결합한 것으로, '삥이'는 '뼁이', '삥이치기'는 '뼁이치기'라고도 한다.

렇게 탁 하면 여기 이렇게 할 거 아니. 그럼 그 삘기 빼다가 가지런하게 여기 건들지 안 해서 집어넣어야지.)

111072 @ 아, 하하하. 아, 건들지 안허영 드물어사 이기는 거?(아, 하하하. 아, 건드리지 않고 집어넣어야 이기는 거?)

111072 #2 이것이 짝 놓민 이디가 고망 나. 고망 나난디 ᄒᆞ찡, 이거 하영 디물민 하영 이거 따먹을 거주게. 미[394]를 빠당.(이것이 짝 놓으면 여기가 구멍 나. 구멍 났었는데 가지런히, 이거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이거 따먹을 거지. '미'를 빼다가.)

111072 @ 예.(예.)

111072 #2 옛날은 그 미를 막 빠당 먹엇주게. 이젠 내불엄주만은. 이젠 안 먹어.(옛날은 그 '미'를 마구 빼다가 먹었지. 이제 내버리지만. 이젠 안 먹어.)

111072 @ 안 먹어.(안 먹어.)

111072 #2 게난 옛날엔 미 빠당 삥이치기 허영 그거 저 따먹엇주기게.(그러니까 옛날엔 '미' 빼다가 '삥이치기' 해서 그거 따먹었지.)

111072 @ 으.(으.)

111072 #2 겐 보리 고고리도 그슬영 먹고 그거 삥이치기도 허고. 바당에 강 물에 들레, 그 물 안 싼 땐 그 삥이치기 보리 고고리 기슬영 먹고 막 헷주기게. 미 빠, 미 빠젠 인칙 가, 물에 들레. 가멍, 가멍 이제 새왓디 들엉 미 빵 벨라 먹젠 이젠 인칙.(그래서 보리 이삭도 그을려서 먹고 그거 '삥이치기'도 하고. 바다에 가서 물에 들러, 그 물 안 썰 때는 그 '삥이치기' 보리 이삭 그을려서 먹고 마구 했지. '미' 빼, '미' 빼려고 일찍 가, 물에 들러. 가면서, 가면서 이제 꼴밭 들어서 '미' 빠서 발려서 먹으려고 이젠 일찍.)

111072 @ 아, 물에 인칙 드는 게 아니고 중간에 새왓디 강 미 빵?(아, 물에 일찍 드는 게 아니고 중간에 꼴밭 가서 '미' 빼서?)

111072 #2 으, 새왓디 강 미 빵 벨라 먹어, 미 벨라 먹어.(으, 꼴밭 가서 '미' 빼서 발려서 먹어. '미' 발려서 먹어.)

111075 @ 예. 고무줄놀이는 어떵 헤낫수과?(예. 고무줄놀이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11075 #2 고무줄놀인 고무줄 저디 신가, 이디 신가? 막 제국시댄 간고노[395]. 무시거 허멍 헌디 이젠 다 잊어불언.(고무줄놀이는 고무줄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아주 제국시대는 '간고노'. 무엇 하면서 했는데 이젠 다 잊어버렸어.)

111075 @ 으, 노래 불르멍.(으, 노래 부르면서.)

111075 #2 으.(으.)

111075 @ 노래 부르멍 막 튀멍?(노래 부르면서 마구 뛰면서?)

111075 #2 으, 튀멍 헤난디. 겐 영 헤영 오그림도 허고 그냥 이레 가곡 저레 감도 허고 또 영 헤영 영도 허곡 헤낫주기게.(으, 뛰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그리기도 하고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했었지.)

111075 @ 줄이 점점 올라가기도 허고?(줄이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

394)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말한다.
395) '간고노'는 고무줄놀이를 하며 불렀던 노래의 한 소절이다.

111075 #2 으, 으. 경헤난디.(으, 으. 그랬었는데.)

111078 @ 베뛸락은?(줄넘기는?)

111078 #2 베뛸락은 베 치민 베뛸락이곡게.(줄넘기는 바 치면 줄넘기고.)

111078 @ 이것도 혼자도 허고 ᄀᆞ치도 허고?(이것도 혼자도 하고 같이도 하고?)

111078 #2 아니, ᄀᆞ치 주로 허여.(아니, 같이 주로 해.)

111080 @ 그네도 허여낫수과?(그네도 했었습니까?)

111080 #2 그네 주로 허주.(그네 주로 하지.)

111080 @ 예.(예.)

111080 #2 거 일이 그자 베 ᄃᆞᆯ아메영 폭낭에. 앚앙.(거 일이 그저 바 달아매서 팽나무에. 앉아서.)

111082 @ 예. 한다리인다리는 어떤 것과?(예. '한다리인다리'는 어떤 겁니까?)

111082 #2 영 거이 한다리인다리 허멍 못 헌 사름은 이거 하나 즘재와. 겐 또 이제 영 허영 어떵 허멍 인다리겐다리, 잊어먹엇저.(이렇게 거 '한다리인다리' 하면서 못 한 사람은 이거 하나 잠재워.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서 '인다리겐다리', 잊어먹었어.)

111082 @ 겐 다리 여러 개를 영 놩?(그래서 다리 여러 개를 이렇게 놔서?)

111082 #2 으, 이 사이레 이 사이레 뻗어 놩. 인다리겐다리 무신 다리렌 허여 놩 이제 그거 손 마지막 간 사람은 지어. 이거 오그려야 뒈여. 잊어먹어졋저.(으,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뻗어 놔서. '인다리겐다리' 무슨 다리라고 해 놔서 이제 그거 손 마지막 가서 사람은 지어. 이거 오그려야 돼. 잊어먹었어.)

111082 @ 예.(예.)

111083 #2 인다리겐다리 뭣이엔 헤져신디 것도 안 헤부나난 잊어불어졋저. 불르지 못허켜. 이제 불르렌 허믄. 인다리겐다리 뭣이엔 헌디 잊어먹어젼 못 ᄀᆞᆯ으켜.('인다리겐다리' 뭐라고 했었는데 것도 안 해버리니까 잊어버렸어. 부르지 못하겠어. 이제 부르라고 하면. '인다리겐다리' 뭐라고 하는데 잊어먹어서 못 말하겠어.)

111001 @ 게민 이거 말고도 막 놀아난 거 뭐 잇수과?(그럼 이거 말고도 잘 놀았던 거 뭐 있습니까?)

111001 #2 오주메, 오주메 허여.(오자미, 오자미 해.)

111001 @ 아, 오주메 허멍.(아, 오자미 하면서.)

111001 #2 으, 험벅에 요만씩 허영 모살 담앙 그 오주메.(으, 헝겊에 요만큼씩 해서 모래 담아서 그 오자미.)

111001 @ 게민 오주메도 여자 남자 다 구분 없이 허여.(그럼 오자미도 여자 남자 다 구분 없이 해.)

111001 #2 아니, 여자가 허여, 여자가.(아니, 여자가 해, 여자가.)

111001 @ 또 다른 건 엇수과?(또 다른 건 없습니까?)

111001 #2 으, 오주메 기자, 주넹이발락[396], 강강술래 것베낀 안 헷주게.(으, 오자미

396) '주넹이발락'은 아이들의 놀이 중 하나다.

그저, ‘주넹이발락’, 강강술래 거밖에 안 했지.)

111001 @ ‘주넹이발락’은?(‘주넹이발락’은?)

111001 #2 으, 주넹이발락 잘 허주. 물 타는 것거치 사람이 짝 굽으민 이짝 손심고, 저짝 손심엉 쭉 굽은 사람 우이 걸어오는 건 주넹이발락.(으, ‘주넹이발락’ 잘 하지. 말 타는 거같이 사람이 짝 굽으면 이쪽 손잡고, 저쪽 손잡아서 쭉 굽은 사람 위에 걸어오는 건 ‘주넹이발락’.)

111001 @ 예.(예.)

12. 통과의례

출생

112001 @ 자식이 몇이과?(자식이 몇입니까?)

112001 #1 나 아기 네 개 낳주게.(내 아기 네 개 낳았지.)

112001 @ 네 개예.(네 개요.)

112001 #1 아덜만 네 개 낭 시 개. 처음 하나 난 아덜은 죽어 벳주게 옛날에.(아들만 네 개 낳아서 세 개. 처음 하나 낳은 아들은 죽어 버렸지, 옛날에.)

112001 @ 다 키와 가지고?(다 키워 가지고?)

112001 #1 그 하나 첫 애기는 돗 돌아왕 죽고게, 뇌수막염으로. 경헨 죽어 불고. 이제 남은 것덜은 다 결혼시키고, 다 장게보내고 헌 후에 아덜 성제 나고 헌 후에 아덜 돌아가 불언.(그 하나 첫 아기는 돌 돌아와서 죽고, 뇌수막염으로. 그래서 죽어 버리고. 이제 남은 것들은 다 결혼시키고, 다 장가보내고 한 후에 아들 형제 낳고 한 후에 아들 돌아가 버렸어.)

112001 @ 아덜 성제 난 후제?(아들 형제 낳은 후에?)

112001 #1 저 아덜 저펜 짝에 아덜 낳고. 이 흰 우와게 입언에 앞에 앚진 아덜. 두 번채 아덜.(저 아들 저편 쪽에 아들 낳고. 이 흰 웃옷 입어서 앞에 앉힌 아들, 두 번째 아들.)

112001 @ 아, 사고로?(아, 사고로?)

112001 #1 으?(으?)

112001 @ 사고로?(사고로?)

112001 #1 아이고, 아판 병으로.(아이고, 아파서 병으로.)

112001 @ 병으로.(병으로.)

112001 #1 간 수치 막 높은 걸 그 무신 약 달령 먹으멍 수치 안 올람젠 허단 보난 병을 키완. 서울꺼지 가난 수술허젠 허난 그 간 수치가 올랏다 내렷다 허멍 죽젠 허난 못 헨게. 겨난 그 아덜로 나 다 늙엇주.(간 수치 아주 높은 걸 그 무슨 약 달여서 먹으면서 수치 안 오른다고 하다가 보니까 병을 키웠어. 서울까지 가니까 수술하려고 하니

까 그 간 수치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죽으려고 하니까 못 했어. 그러니까 그 아들로 나 다 늙었지.)

112001 @ 아이고, 아파 부난.(아이고, 아파 버리니까.)

112001 #1 아판게. 곧 죽어 가멍, 경 무사 죽엉 가는 시꺼지 다 아느니? 난 멧 시에 노형 성당으로만 갈 거우덴. 그땐 이 저 거세기 무신 절이렌 헤라. 스월에 성당에서 아구, 제기 곧젠 허난 잊어불엇저.(아파서. 곧 죽어 가면서, 그렇게 왜 죽어 가는 시까지 다 아니? 난 몇 시에 노형 성당으로만 갈 거라고. 그땐 이 거시기 무슨 절이라고 하더라. 사월에 성당에서 아고, 재게 말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렸어.)

112001 @ 아, 돌아가시는 분이 자기 언제 돌아가실 거렌 곧는 거?(아, 돌아가시는 분이 자기 언제 돌아가실 거라고 말하는 거?)

112001 #1 으, 다 곧고 다 오렌 헨 다 마지막으로 다 울고 다 악수허고 조케도 저것덜 다 불렁. 군인 간 아덜도 다 오렌 허연 부지런히 살렌 허멍. 저 앞에 앚은 아덜 미국 놈 닮은 아이주게. 경허영 군인 가난 열심히 살렌.(으, 다 말하고 다 오라고 해서 다 마지막으로 다 울고 다 악수하고 조카도 저것들 다 불러서. 군인 간 아들도 다 오라고 해서 부지런히 살라고 하면서. 저 앞에 앉은 아들 미국 놈 닮은 아이지. 그래서 군인 가니까 열심히 살라고.)

112001 @ 아이고, 가슴 아팟구나.(아이고, 가슴 아팠구나.)

112001 #1 가심만 아프냐게, 아이구.(가슴만 아프니, 아이고.)

112001 @ 게난 옛날에 삼춘이 영 애기 가졋을 때 그때에 애기 잘 크렌 태교 같은 거 잇어낫수과? 뱃속에 잇일 때?(그러니까 옛날에 삼촌이 이렇게 아기 가졌을 때 그때에 아기 잘 크라고 태교 같은 거 있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112001 #1 아니, 이딘이 이 저 미신이라고 안 허여. 동촌[397]더레 닮지 안허영. 저 우리 물질 가민 표선이레 동촌 사름덜 그 강원도 가도 물색 험벅 다 허고.(아니, 여긴 이 미신이라고 안 해. 동촌에 같지 않아서. 저 우리 물질 가면 표선으로 동촌 사람들 그 강원도 가도 물색 헝겊 다 하고.)

112001 @ 으.(으.)

112001 #1 다 허영 그.(다 해서 그.)

112001 @ 물색 험벅 허는 게 무사 허는 거라?(물색 헝겊 가는 게 왜 하는 거야?)

112001 #1 거 누게 아느냐게. 거 동촌 사름덜이. 그 물색 험벅이 아멩헤도 그 마귀에 부뜨는 거인 셍이라. 물색 험벅 헹 강 다 놓고 다 절허고 허멍 다 헤라게.(거 누구 아니. 거 동촌 사람들이. 그 물색 헝겊이 아무래도 그 마귀에 붙는 거인 모양이야. 물색 헝겊 해서 가서 다 놓고 다 절하고 하면서 다 하더라.)

112001 @ 그거 말고 애기 가졌을 때 태교 같은 건 안 헤 봣수과?(그거 말고 아기 가졌을 때 태교 같은 건 안 해 봤습니까?)

112001 #1 아무것도 우린 안 허연.(아무것도 우린 안 했어.)

112002 @ 예, 예. 그믄 애기 갖으믄 배 불러 오면 이제 출산 준비를 해야 뒐 거잖아

397) '동촌'은 동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예?(예, 예. 그럼 아기 갖으면 배 불 불러 오면 이제 출산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112002 #1 경헌디 이제는 다 배웁고 다 허니까.(그런데 이제는 다 배우고 다 하니까.)

112002 @ 예.(예.)

112002 #1 이제 아홉 덜 허고 며칠 시민 이제 날 거다 허고 계산을 딱 허지만은 엿날은 열 덜만이 나는 거엔만 헷주. 경 그런 거 아니 헹 헤낫주게.(이제 아홉 달하고 며칠 있으면 이제 낳을 거다 하고 계산을 딱 하지만 옛날은 열 달만에 낳는 거라고만 했지. 그렇게 그런 거 아니 해서 했었지.)

112002 @ 예.(예.)

112002 #1 경허민 날 덜 뒈민게 아기 때 맞추민 다 준빈 헹 놔둬사주게.(그러면 낳을 달 되면 아기 때 맞추면 다 준비는 해서 놔둬야지.)

112002 @ 뭘 준비헹 놔둡니까?(뭘 준비해서 놔둡니까?)

112002 #1 아기 기저귀 댈 거여. 아이구, 옛날 보리낭 망텡이에 담앙 아기 해산허민 어디 무신 산부인과 가나시냐? 산부인과도 엇엇주.(아기 기저귀 댈 거며. 아이고, 옛날 보릿짚 망태기에 담아서 아기 해산하면 어디 무슨 산부인과 갔었니? 산부인과도 없었지.)

112002 @ 아.(아.)

112003 #1 아기 내우는[398] 할망 돌아당 앚지고 망텡이에 보릿낭 담앗당 아깃방석 아기 낭 털어져 나민 그거 베똥줄 졸라멩 끈엉 그 망텡이에 담앙 경헤영 그 망텡이 사흘 동안 베엇당 그거 어디레 강 물러레 강 데끼나 어디 강 수나 허주기게.(아기 받는 할머니 데려다가 앉히고 망태기에 보릿짚 담았다가 태 아기 낳고 떨어지고 나면 그거 탯줄 잘라매서 끊어서 그 망태기에 담아서 그래서 그 망태기 사흘 동안 베었다가 그거 어디에 가서 물에 가서 던지거나 어디 가서 사르거나 하지.)

112003 @ 사흘 동안 베엇당?(사흘 동안 베었다가?)

112003 #1 어, 아기 몸 곰, 아기 밥헤영 먹는 날사 경헤라.(어, 아기 몸 감, 아기 밥해서 먹는 날에야 그러더라.

112003 @ 예. 머리 대고 베엿당? 어떵허영?(예. 머리 대고 베었다가? 어떡해서?)

112003 #1 영 직산허영게 등이영 머리맛디 망텡이에 보리낭 헤영.(이렇게 기대서 등이랑 머리맡에 망태기에 보릿짚 해서.)

112003 @ 으, 으.(으, 으.)

112003 #1 ᄒᆞ꼼 일어낭 앚은 땐 영 직산헤영 눔도 허곡게.(조금 일어나서 앉은 땐 이렇게 기대서 눕기도 하고.)

112003 @ 아, 경 헷당 나중에 버리는 거?(아,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버리는 거?)

112003 #1 으, 경헤라게. 우린 헤여 봐샤? 아래도 보리낭 ᄀᆞᆯ고.(으, 그러더라. 우린 해 봤니? 아래도 보릿짚 깔고.)

112002 @ 아래 깔고.(아래 깔고.)

---

398) '내우다'는 '밖으로 나오게 하다'로, '태어나는 아이를 거두다'는 의미의 표준어 '받다'에 대응된다.

112002 #1 우리 두 번채 난 아덜 날 땐 보리낭도 아니 끌고 고산 강, 아방[399] 교직으로 신 때난 그디 강 경 나난 원 그거 뭐 끌 어간이 엇어. 경 허연에 낳고. 이 큰 거 난 때 이 보리낭 허연 헷주기게.(우리 두 번째 낳은 아들 낳을 땐 보릿짚도 안 깔고 고산 가서, 아버지 교직으로 있을 때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낳으니까 원 그거 뭐 깔 어간이 없어. 그렇게 해서 낳고. 이 큰 거 낳을 때 이 보릿짚 해서 했지.)

112002 @ 집이서?(집에서?)

112002 #1 집이서 허주, 어디 강?(집에서 하지, 어디 가서?)

112002 @ 예, 집이서예.(예, 집에서요.)

112002 #1 아기 내우는 할망 돌아당.(아기 받는 할머니 데려다가.)

112002 @ 으. 기민 기저귀 감 준비허고예, 지성귀 헐 거 준비허고 보리낭 깔 거 준비허고.(으. 그럼 기저귀 감 준비하고요, 기저귀 할 거 준비하고 보릿짚 깔 거 준비하고.)

112002 #1 아기구덕[400]은 낭 ᄒᆞ꼼 싯당 허여 오주기게.('아기구덕'은 낳아서 조금 있다가 해 오지.)

112002 @ 음.(음.)

112002 #1 ᄂᆞᆷ 눅지던 거 빌어도 왕 임시 허고. 그 구덕은 매시 사샤?(남 눕히던 거 빌려도 와서 임시 하고. 그 바구니는 매시 샀어?)

112002 @ 음. 얻어 오는 거?(음. 얻어 오는 거?)

112002 #1 으.(으.)

112002 @ 애기 날 때 봐 주는 할망은 동네에 십니까? 받아 주는 할망은?(아기 낳을 때 봐 주는 할머니는 동네에 있습니까? 받아 주는 할머니는?)

112002 #1 받아 주는 할망, 내우는 할망덜은 셔 트멍에. 우리 시할망도 내와나고 요디 순일이 어멍네 셔. 경험 삼앙게.(받아 주는 할머니, 받는 할머니들은 있어, 틈에. 우리 시할머니도 받았었고 요기 순일이 어머니네 있어. 경험 삼아서.

112002 @ 기민 밧디 강 일허당 아프민 오는 거?(그럼 밭에 가서 일하다가 아프면 오는 거?)

112002 #1 아파 가민 와사주기게.(아파 가면 와야지.)

112002 @ 와사주. 게민 물 꿰우멍?(와야지. 그럼 물 끓이면서?)

112002 #1 으?(으?)

112002 @ 물도 꿰우고?(물도 끓이고?)

112002 #1 무사 물 꿰와?(왜 물 끓여?)

112002 @ 애기 나민 시쳐야 뒐 거 아니?(아기 낳으면 씻어야 될 거 아니?)

112002 #1 아기 물 저 거세기, 난 후제 헤도 허주게.(아기 물 저 거시기, 낳은 후에 해도 하지.)

112002 @ 난 후제라도.(낳은 후에라도.)

---

399)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400) '아기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애기구덕'이라고도 한다.

112002 #1 지성귀 쌋당.(기저귀 쌌다가.)

112002 @ 아, 바로 나민 지성귀 쌍 놔뒀당?(아, 바로 낳으면 기저귀 싸서 놔뒀다가?)

112002 #1 으, 어느제 아기 날 줄 알앙 물 뀌웁느니? 아기 낳사 물 데우라, 물 데우라 허영. 물 뀌웁지 안 허영 미지그랑이 데우는 거난. 보리낭 불, 솔썹 불에 데웁주게.(으, 언제 아기 낳을 줄 알아서 물 끓이니? 아기 낳아야 물 데워라, 물 데워라 해서. 물 끓이지 않고 미지근하게 데우는 거니까. 보릿짚 불, 솔가리 불에 데우지.)

112002 @ 게난 큰아덜 날 때 얘기를 쭉 헤 줍서. 어떵 헹 큰아덜 낳수과? 그냥 집이 잇일 때 베 아판?(그러니까 큰아들 낳을 때 얘기를 쭉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큰아들 낳았습니까? 그냥 집에 있을 때 배 아파서?)

112002 #1 우리 큰아덜 날 땐이 유월 열ᄒᆞ를날 난디 도망간 건 원 건 세지 말고.(우리 큰아들 낳을 땐 유월 열하루날 낳았는데 도망간 건 원 건 세지 말고.)

112002 @ 예, 예.(예, 예.)

112002 #1 낳젠 허난이 아, 오월 오월 스무닷새쯤에 막 베 아판게. 아, 겐 그때 나지카부덴 막 헌디 감제 싱그레도 안 갓주게.(낳으려고 하니까 아, 오월 오월 스무닷새쯤에 아주 배 아파서. 아, 그래서 그때 낳을 수 있을까 봐 마구 했는데 고구마 심으러도 안 갔지.)

112002 @ 예.(예.)

112002 #1 베 아판 아기 나지카부덴.(배 아파서 아기 낳을 수 있을까 봐.)

112002 @ 예.(예.)

112002 #1 아, 경헤도 나 원 아길 오래, 아이 그날도 아이 난. 경헤영 ᄒᆞᆫ 열흘 싯단 유월 열ᄒᆞ를 날사 아깃베 맞춰[401] 나져라게.(아, 그래도 나 원 아기를 오래, 아이 그날도 안 낳았어. 그렇게 해서 한 열흘 있다가 유월 열하루 날에야 진통해서 낳았어.)

112002 @ 으.(으.)

112002 #1 그 아기 낳젠 헤도 경허는 셍이라이. 베가 싯당. 아기 자리사 움직여신디. 경 허영 낳저게.(그 아기 낳으려고 해도 그러는 모양이야. 배가 있다가. 아기 자리를 움직였는지. 그렇게 해서 낳았어.)

112002 @ 게난 열흘 동안 일 안 헷구나?(그러니까 열흘 동안 일 안 했구나?)

112002 #1 아니, 일은 물도 질어오고 헷주기게. 닐 조컴질[402] 메레 가젠 물 허영 항 다 ᄀᆞ득이고 그, 그 감제 싱그는 날 ᄒᆞᆫ 이틀만 아파. 똑 꿧병 모냥으로.(아니, 일은 물도 길어오고 했지. 내일 조밭에 김매러 가려고 물 해서 항아리 다 가득 채우고 그, 그 고구마 심는 날 한 이틀만 아파. 꼭 꾀병 모양으로.)

112002 @ 하하.(하하.)

112002 #1 난 막 미안헤낫저 우리 시아방네. 꿧병거치 경 안허냐?(난 아주 미안했었어, 우리 시아버지네. 꾀병같이 그렇지 않니?)

---

401) '아기베 맞추다'는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기 위해 산모의 뱃속에서 자리 잡는 동안 산모가 진통하는 것을 말한다.

402) '조컴질'은 조밭에 나는 김을 말한다.

112002 @ 예.(예.)

112002 #1 일 때에만 아판 글후젠 아프지 안허영 메칠은게 허여.(일 때에만 아파서 그 후에 아프지 않아 며칠은 해.)

112002 @ 겐 아침이 낳수과, 저녁이 낳수과?(그래서 아침에 낳았습니까, 저녁에 낳았습니까?)

112002 #1 밤이.(밤에.)

112002 @ 밤이. 막 오래 아판?(밤에. 아주 오래 아팠어?)

112002 #1 난 경 오래 안 아픈다. 쳇 애기도 제기 쉽게 나나난 오랜 안 아파. 남은 일주일이여 사흘이여 메칠이여 허여도 난 쳇 아기도 아침이 어떵 일어낭 시치렁이[403] 얼고 어떵 추운 기 난, 그날 겨울이난 누웟단에 ᄌᆞ물아 가난 ᄌᆞ냑 허젠 가난 우리 시어멍도 ᄒᆞ꼼 알아신ᄀᆞ라 저, 강 누라. 나 ᄌᆞ냑 헴시켜, 헴시켜. 헤도 ᄌᆞ냑 ᄒᆞᆫ디 헹 먹엉 완 밤이 열ᄒᆞᆫ 시쯤에 나주게.(난 그렇게 오래 안 아파. 첫 아기도 재게 쉽게 낳으니까 오래는 안 아파. 남은 일주일이며 사흘이며 며칠이며 해도 난 첫 아기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시치렁이' 춥고 어떻게 추운 기 나서, 그날 겨울이니까 누웠다가 저물어 가니까 저녁 하려고 가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조금 알았는지 저, 가서 누워라. 나 저녁 하겠어, 하겠어. 해도 저녁 같이 해서 먹고 와서 밤에 열한 시쯤에 낳았지.)

112002 @ 으.(으.)

112002 #1 아기 안 나 보난 몰란이. 탁 곶인 물이 탁 알로 나오난 아기 나왐시카부덴 겁난게, 나.(아기 안 낳아 보니까 몰랐어. 탁 곶은 물이 탁 아래로 나오니까 아기 나오고 있을까 봐 겁났어, 나.)

112002 @ 예.(예.)

112002 #1 경혜영 그때사 아방ᄀᆞ라도 아이고 아기 나짐직허덴 허여사 그때사 시어멍신디도 ᄀᆞᆯ앗주게.(그래서 그때야 아버지보고도 아이고 아기 낳을 거 같다고 해야 그때야 시어머니에게도 말했지.)

112002 @ 으.(으.)

112002 #1 게난 아기 낳젠 허민 그 물이 ᄆᆞ녀 나사 아기 남이 쉽넨. 경 ᄀᆞᆯ아라. 경혜영 나주기게. 경혜영 그 곶인 물 나온 후제 ᄒᆞ꼼 잇이난 나주기게.(그러니까 아기 낳으려고 하면 그 물이 먼저 나야 아기 낳기가 쉽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낳았지. 그래서 그 곶은 물 나온 후에 조금 있으니까 낳았지.)

112002 @ 경허난 곶인 물 나온 후제야 방에 보리낭 ᄀᆞᆯ고?(그러니까 곶은 물 나온 후에야 방에 보릿짚 깔고?)

112002 #1 어게. 출렷주게.(으. 차렸지.)

112002 @ 출린 거라예. 경헨 이제 내우는 사람 불르레 가곡.(차린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 부르러 가고.)

112002 #1 음.(음.)

112003 @ 그민 그 애기 나면 그 테랑 텟줄?(그럼 그 아기 낳으면 그 태랑 탯줄?)

403) '시치렁이'는 '너무 선선하여 조금 추운 듯한'이라는 의미의 말이다.

112003 #1 으, 그 멩텡이에 담앗당.(으, 그 망태기에 담았다가.)

112003 @ 그거 누가, 누가 잘라?(그거 누가, 누가 잘라?)

112003 #1 거게 아기 내우는 할망.(거 아기 받는 할머니.)

112003 @ 할망이. 경헨 그거 멩텡이에 담앗당?(할머니가. 그래서 그거 망태기에 담았다가?)

112003 #1 으. 보리낭이영 헹 담앗당 머리 곰는 날은 앗아 베라게.(으. 보릿짚이랑 해서 담았다가 머리 감는 날은 가져 버리더라.)

112003 @ 기민 애기 나면 바로 씻기는 게 아니고, 머리 곰지는 날 따로 잇수과?(그럼 아기 낳으면 바로 씻기는 게 아니고, 머리 감기는 날 따로 있습니까?)

112003 #1 삼일, 삼일 만이. 아니 그 매날이라도 삼일은 뒈민 밥허영 다 오랑 헤영 멕이고 아기 앞 헷젠 허여.(삼일, 삼일 만에. 아니 그 맨날이라도 삼일은 되면 밥해서 다 와서 해서 먹이고 아기 앞 했다고 해.)

112003 @ 누게안티 밥 멕이는 거?(누구에게 밥 먹이는 거?)

112003 #1 이 동네 사름이라도 오민게 먹으랑도 허곡게 아기 앞 헤근에 거져 와서라도 허고 경 헤라, 우리.(이 동네 사람이라도 오면 먹으라고도 하고 아기 앞 해서 가져와서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 우리.)

112003 @ 아기 앞 허영?(아기 앞 해서?)

112003 #1 어.(어.)

112003 @ 아기 앞 헌다는 게 무슨 말?(아기 앞 한다는 게 무슨 말?)

112003 #1 아기 낭 삼일 만이난 아기 머리, 몸 곰지는 날이난 밥허영 멕으렌 헹 먹엇ᄀᆞ랑도 허고 영 늙은 할망. 그땐 쏠밥 허여사. 밥도 삼일 만이 쏠밥 허민 오랜만이게. 이젠 흔헷주만은 왕 먹으랑도 허고 헷주게.(아기 낳아서 삼일 만이니까 아기 머리, 몸 감기는 날이니까 밥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도 하고 이렇게 늙은 할머니. 그땐 쌀밥 해야. 밥도 삼일 만에 쌀밥 하면 오랜만에. 이젠 흔했지만 와서 먹으라고도 하고 했지.)

112003 @ 잔치헌 건게예?(잔치한 거네요?)

112003 #1 잔친, 크게 안 허곡게. 영 삼 이웃게.(잔친, 크게 안 하고. 이렇게 삼 이웃.)

112003 @ 예. 게난 애기 태어낫덴 축하헤 주렌 허난 동네 사름안테도 밥 주고 헌 건게.(예. 그러니까 아기 태어났다고 축하해 주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한테도 밥 주고 한 거네.)

112003 #1 으.(으.)

112003 @ 아, 그때까지 보관헷당 데껴 부는 건 어디 강 데껴 부는 거, 텟줄?(아, 그때까지 보관했다가 던져 버리는 건 어디 가서 던져 버리는 거, 탯줄?)

112003 #1 텟줄 데낄 땐이, 바당에. 옛날은 그 조막단지에도 담아근에 얽엉 거져갓당 데끼고 겁넝도, 이 전복 그땐 홁은 전복 거 마주 엎엉도 허곡 그땐 깡통이 어려와낫저게게.(탯줄 던질 땐, 바당에. 옛날은 그 조막단지에도 담아서 얽어서 가져갔다가 던지

고 전복껍데기도, 이 전복 그때 굶은 전복 거 마주 엎어서도 하고 그땐 깡통이 어려웠었어.)

112003 @ 예.(예.)

112003 #1 경허난 그 깡통 신 사름덜은 깡통에도 담앙 데껴 불고 경 안허민 솔아 빌고. 그 보리낭 불덜이영. 다 헤영 솔아 불고.(그러니까 그 깡통 있는 사람들은 깡통에도 담아서 던져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살라 버리고. 그 보릿짚 불이랑. 다 해서 살라 버리고.)

112003 @ 데껴.(던져.)

112003 #1 어디 강 팡 묻어 불고 경 헤라.(어디 가서 파서 묻어 버리고 그렇게 하더라.)

112003 @ 으. 데껴부는 건 바당 강 데껴 부는 거?(으. 던져 버리는 건 바다 가서 던져 버리는 거?)

112003 #1 어디사 강 데껌신디. 어, 데끼는 건 바당물에 강 데껴라.(어디에 가서 던지는지. 어, 던지는 건 바닷물에 가서 던지더라.)

112003 @ ᄉᆞ는 건 어디 강 솔암서?(사르는 건 어디 가서 사르고 있어?)

112003 #1 어디 터진 방에 강.(어디 트인 방향에 가서.)

112003 @ 솔아 불고 경 헷구나. 그때 텟줄이렌 안 헷지예, 그걸 뭐렌 불러낫수과?(살라 버리고 그렇게 했구나. 그때 탯줄이라고 안 했지요, 그걸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112003 #1 으?(으?)

112003 @ 그걸 텟줄이렌 안 허고?(그걸 탯줄이라고 안 하고?)

112003 #1 아깃방석.(‘아깃방석’.)

112003 @ 아깃방석이렌 이름 불럿엇던 거?(‘아깃방석’이라고 이름 불렀었던 거?)

112003 #1 으. 아기 앚아난 거난. 아깃방석, 아깃방석 헷주. 이제난 텟줄 헷주, 베똥줄, 베똥줄 허고.(으. 아기 앉았던 거니까. 태, ‘아깃방석’ 했지. 이제니까 탯줄 했지. ‘베똥줄’, 탯줄 하고.)

112003 @ 베똥줄, 베똥줄 허고 아깃방석 허고예?(‘베똥줄’, 탯줄 하고 ‘아깃방석’ 하고요?)

112003 #1 으.(으.)

112004 @ 예. 그 애기 나 나면 음식 헤 주잖아예, 산모안티 뭐 먹으렌.(예. 그 아기 낳고 나면 음식 해 주잖아요. 산모한테 뭐 먹으라고.)

112004 #1 으.(으.)

112004 @ 어떤 음식?(어떤 음식?)

112004 #1 메역국게.(미역국.)

112004 @ 메역. 뭐 놩 메역국 헙니까?(미역. 뭐 놔서 미역국 합니까?)

112004 #1 놀궤기 사당 놔뒷당 놀궤기 국도 헤 주곡게.(날고기 사다가 놔뒀다가 날고기 국도 해 주고.)

112004 @ 놀궤기?(날고기?)

112004 #1 으, 몰리지 안헌 거게. 나까 온 궤기 허영 놔뒀당.(으, 말리지 않은 거. 낚아 온 고기 해서 놔뒀다가.)

112004 @ 그 바당궤기 이름 뭐?(그 바닷고기 이름 뭐?)

112004 #1 생성 거튼 거게, 돔 거튼 거. 끌령 먹는 종류 허여당 놧당게. 장쿡이라도 메역쿡 끌령 줫주게, 주로.(옥돔 같은 거, 돔 같은 거. 끓여서 먹는 종류 해다 놨다가. 장국이라도 미역국 끓여서 줬지, 주로.)

112004 @ 주로. ᄆᆞ물ᄌᆞ베기는 안 헷수과?(주로. 메밀수제비는 안 했습니까?)

112004 #1 ᄆᆞ물ᄌᆞ베기 메역국에 끈어 놩 허여 주곡. 우리 시어멍넨 엿 허여, 엿 허영 졸랏다근에 가망케 졸랏당 청주, 술 허영 청주 허곡이 그 엿에 ᄆᆞ물ᄀᆞ루에 카. 빼 아프지 말랑. 캉근에 시접으로 하나썩 줘라.(메밀수제비 미역국에 끓어 넣어서 해 주고. 우리 시어머니네는 엿 해, 엿 해서 졸였다가 가맣게 졸였다가 청주, 술 해서 청주 하고 그 엿에 메밀카루에 타. 뼈 아프지 말라고. 타서 시접으로 하나씩 주더라.)

112004 @ 아, ᄆᆞ물ᄀᆞ루에 엿 만들앙?(아, 메밀가루에 엿 만들어서?)

112004 #1 아니, ᄆᆞ물ᄀᆞ루에 엿 만든 거 거려 놓고 ᄆᆞ물ᄀᆞ루 놓고 청주 술 놩 젓엉. 경허영 먹으민 것이 드근허영 시장기도 안 나고 경혜영 피 배도 삭아지곡 헤라. 매번 아기 난 때 거 헤 줘라.(아니, 메밀가루에 엿 만든 떠 넣고 메밀가루 넣고 청주 술 넣어서 저어. 그래서 먹으면 것이 든든해서 시장기도 안 나고 그래서 피 배도 삭고 하더라. 매번 아기 낳을 때 거 해 주더라.)

112004 @ 시어머니가?(시어머니가?)

112004 #1 어.(어.)

112004 @ 아이고.(아이고.)

112004 #1 우리 어머니네도, 친정어무니네도 메누리 아기 난 때 경허는 것도 잇고. 옛날은 제서 때에도 엿 졸랑 그 떡 찍어 먹으렌 우리 어무니넨 그땐 엿날 부제곡 허여나난. 엿 졸랑 떡에도 내여놔낫저.(우리 어머니네도, 친정어머니네도 며느리 아기 낳았을 때 그러는 것도 있고. 옛날은 제사 때에도 엿 졸여서 그 떡 찍어 먹으라고 우리 어머니네는 그땐 옛날 부자고 했었으니까. 엿 졸여서 떡에도 내놨었어.)

112005 @ 애기 목욕은 아까 삼일 후제사 시키는 거?(아기 목욕은 아까 삼일 후에야 시키는 거?)

112005 #1 아니, 난 때에 그 ᄀᆞᆺ난 거 멘들멘들헌 거영 ᄒᆞ루 ᄒᆞᆫ 번썩 시치주기게.(아니, 났을 때에 그 갓난 거 매끈매끈한 거랑 하루 한 번씩 씻기지.)

112005 @ 음.(음.)

112005 #1 경허영 시쳐도 사흘 뒈민 머리, 몸 ᄀᆞᆷ는 날이엔 헌다. 이 아기 어멍이 그날은 숙 솖앙 아기도 몸 ᄀᆞᆷ고 우리도 다 몸 ᄀᆞᆷ아. 겨난 아기 머리, 몸 ᄀᆞᆷ는 날이여.(그래서 씻겨도 사흘 되면 머리, 몸 감는 날이라고 해. 이 아기 어머니가 그날은 쑥 삶아서 아기도 몸 감고 우리도 다 몸 감아. 그러니까 아기 머리, 몸 감는 날이야.)

112005 @ 음. 아기 머리, 몸 ᄀᆞᆷ는 날?(음. 아기 머리, 몸 감는 날?)

112005 #1 으.(으.)

112005 @ 기구나예. 게민 아기 몸 곰질 때는 뭐 여기 막 벗겨 내야 헐 거 아니?(그렇군요. 그럼 아기 몸 감길 때는 뭐 여기 마구 벗겨 내야 할 거 아니?)

112005 #1 숙 솖은 걸로 북북 허게게 다 벳경. 그 엿날 우리 아기 날 땐 그 ᄀᆞ루분.(쑥 삶은 걸로 박박 하게 다 벗겨서. 그 옛날 우리 아기 낳을 땐 그 가루분.)

112005 @ ᄀᆞ루분.(가루분.)

112005 #1 영 ᄌᆞ금텡이에도 볼라 주고.(이렇게 자개미에도 발라 주고.)

112005 @ 큰아이 날 때도 그거 잇어낫수과?(큰아이 낳을 때도 그거 있었습니까?)

112005 #1 거 서난.(거 있었어.)

112005 @ 아, ᄀᆞ루분 볼라 주고, 예.(아, 가루분 발라 주고, 예.)

112005 #1 어.(어.)

112006 @ 애기 나면 입히는 옷 잇잖아예?(아기 낳으면 입히는 옷 있잖아요?)

112006 #1 으, 베.(으, 베.)

112006 @ 베, 베로 만든 거.(베, 베로 만든 거.)

112006 #1 베로 멘든 거.(베로 만든 거.)

112006 @ 그거 뭐렌 불러낫수과?(그거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112006 #1 거 잊어벳저.(거 잊어버렸어.)

112006 @ 붓뎃옷?('붓뎃옷?)

112006 #1 붓창.('붓창'.)

112006 @ 붓뒤창옷?('붓뒤창옷'?)

112006 #1 어, 붓뒤창옷.('붓뒤창옷'.)

112006 @ 거 뭐로 만들어난?(거 뭐로 만들었었어?)

112006 #1 베로, 베로.(베로, 베로.)

112006 @ 무사 그거 베로 만들앙 입져신고예?(왜 그거 베로 만들어서 입혔는지요?)

112006 #1 솔그랑이[404]게 그 뭣 허렌 베로로만 헤라, 그땐. 미녕도 안 허고, 광목도 안 허고.('솔그랑이' 그 뭐 하라고 베로만 하더라, 그땐. 무명도 안 하고, 광목도 안 하고.)

112006 @ 게난 그거 여름에만?(그러니까 그거 여름에만?)

112006 #1 아니, 겨울에도 거 입져.(아니, 겨울에도 거 입혀.)

112006 @ 겨울에도.(겨울에도.)

112006 #1 어, 태어나민 그자 거 붓뒤창옷 입져.(어, 태어나면 그저 거 '붓뒤창옷' 입혀.)

112006 @ 거 삼춘냥으로 만들어낫수과?(거 삼촌대로 만들었었습니까?)

112006 #1 놈의 거 빌어당도 입지곡 이녁냥으로 멘들앙도 입지곡. 난, 난 입지긴 헤도 어떵 나 멘들진 안허연.(남의 거 빌려다가도 입히고 자기대로 만들어서도 입히고. 난, 난 입히긴 해도 어떻게 나 만들진 않았어.)

112006 @ 아, 멘들진 안허연?(아, 만들진 않았어?)

404) '솔그랑이'는 베나 모시의 천 따위의 풀이 서서 좀 거친 듯하나 살갗에 닿지 않은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12006 #1 으.(으.)

112006 @ 얻엉 와신게.(얻어서 왔네.)

112006 #1 어떵사 우리 어무니네 허연 헤신디. 그때사 쳇 애기라 두렁청허곡게.(어떻게 우리 어머니네 해서 했는데. 그때야 첫 아기여서 어리둥절하고.)

112006 @ 하하.(하하.)

112006 #1 부끄럼만 허고이 그거 저거 경험이 셔사게.(부끄럽기만 하고 그거 저거 경험이 있어.)

112006 @ 뭐가 부끄러워?(뭐가 부끄러워?)

112006 #1 하하, 옛날은 시집가는 것도 부끄러왓저.(하하, 옛날은 시집가는 것도 부끄러웠어.)

112006 @ 하하하. 아, 게난 애기 난 것도 부끄러워?(하하하. 아, 그러니까 아기 낳은 것도 부끄러워?)

112006 #1 부끄럽주기게.(부끄럽지.)

112006 @ 아고게. 장헌 거주게. 아, 옛날에는.(아고. 장한 거지. 아, 옛날에는.)

112006 #1 시집강, 장게강 혼디 걷젠 헤도 우린 걷지 못허게 헹 나 와랑와랑 둘앙 앞이 강 걷곡 헷저. 느시 걷지도 안허젠 허연. 누게 봠젠 허멍.(시집가서, 장가가서 같이 걸으려고 해도 우린 걷지 못하게 해서 나 우럭우럭 달려서 앞에 가서 걷고 했어. 도무지, 걷지도 않으려고 했어. 누가 본다고 하면서.)

112006 @ ᄀᆞ찌 걷젠 안 허여. 하하.(같이 걸으려고 안 해. 하하.)

112006 #1 이제 사름덜거추룩 경 바레 봐사게?(이제 사람들처럼 그렇게 봐 봤니?)

112007 @ 음. 맞아예. 애기 크멍 아프지 말렌 할망상 같은 거 헙니까? 할망상?(음. 맞아요. 아기 크면서 아프지 말라고 '할망상' 같은 거 합니까? '할망상?')

112007 #1 엿날 할망상[405] 놧주기게.(옛날 '할망상' 놨지.)

112007 @ 으. 할망상 놓는다는 게 어디 놓는다는 거?(으. '할망상' 놓는다는 게 어디 놓는다는 거?)

112007 #1 구들 구석에 상 출령, 자리 출령 할망상 놔근에 절허고.(방 구석에 상 차려서, 자리 차려서 '할망상' 놔서 절하고.)

112007 @ 언제?(언제?)

112007 #1 초일뤠, 초사흘. 혼 덜에 혼 번 허는 사름 싯곡 어떵허당이나 허주 경 매번은 안 헌다게.(초이레, 초사흘.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 있고 어떡하다가나 하지 그렇게 매번은 안 해.)

112007 @ 그럼 애기 태어난 후제 아니면?(그럼 아기 태어난 후에 아니면?)

112007 #1 태어난 후제게. 키우멍.(태어난 후에. 키우면서.)

112007 @ 키우멍. 애기 아프곡 헤 가민 겐 멧 설꺼지 그런 거 헙니까?(키우면서. 아기 아프고 해 가면 그래서 몇 살까지 그런 거 합니까?)

---

405) '할망상'은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신할머니에게 감사하고 기원한다는 뜻으로 메와 실·돈 따위를 놓고 방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을 말한다.

112007 #1 돗이나 넘어가민 안 허여. 돗 전이.(돌이나 넘어가면 안 해. 돌 전에.)

112007 @ 게민 그 사이에 아팡.(그러면 그 사이에 아파서.)

112007 #1 으, 허카부덴.(으, 할까 봐.)

112007 @ 보내 부는 아이들이 옛날에.(보내 버리는 아이들이 옛날에.)

112007 #1 으, 오죽 하사게. 옛날에사. 침이나 놓곡 그자 할망상 놓고 기웅환[406]. 이 아기 약 멕이는 약은 그자 기웅환. 경헤라, 우리도 허여 보민.(으, 오죽 많았니. 옛날에야. 침이나 놓고 그저 '할망상' 놓고 '기웅환'. 이 아기 약 먹이는 약은 그저 '기웅환'. 그러더라, 우리도 해 보면.)

112007 @ 겐 삼춘도 할망상 영 놔 보고 헷수과?(그래서 삼촌도 '할망상' 이렇게 놔 보고 했습니까?)

112007 #1 으, 나도 놔 봔. 애기덜 키울 때.(으, 나도 놔 봤어. 아기들 키울 때.)

112007 @ 할망상에 뭐 올립니까?('할망상'에 뭐 올립니까?)

112007 #1 젭시에 밥허영 거리곡게 물 놓곡 쏠 놓곡게, 아무것도 안 허여. 경허영 빌어 줘. 경허영 그 밥도 물러레 줍아 놓고 쏠도 줍아 놩 데껑앗아 불고. 어쨌든 그땐 성당도 영 안 헐 때. 글후제 막 성당이 컷주게.(접시에 밥해서 뜨고 물 놓고 쌀 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빌어 줘. 그래서 그 밥도 물에 집어 놓고 쌀도 집어 놔서 던져 버리고. 어쨌든 그땐 성당도 이렇게 안 할 때. 그 후에 아주 성당이 컸지.)

112007 @ 게난 그 상, 할망상 찰령 그 방에 ᄀᆞ만히 놔두는 거 아니예? 올렷당 치웟당 허는 거?(그러니까 그 상, '할망상' 차려서 그 방에 가만히 놔두는 거 아니요? 올렸다가 치웠다가 하는 거?)

112007 #1 오게. 올려놩 다 앗아 비는 거.(그래. 올려놔서 다 가져 버리는 거.)

112008 @ 예. 애기 나면 머리가 잇잖아예. 머리 좀 난 상태로 나오잖아예, 그 머리를 뭐렌 헙니까?(예. 아기 낳으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좀 난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 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112008 #1 그냥 머리엔 허주게.(그냥 머리라고 하지.)

112008 @ 그냥 머리. 베냇머리, 베속엣머리 그런 말 안 혜?(그냥 머리. 배냇머리, '베속엣머리' 그런 말 안 해?)

112008 #1 베속엣머린 허다근에 ᄉᆞ월 초파일 뒈나마나 까깟주게게.(배냇머리는 하다가 사월 초파일 되나마나 깎았지.)

112008 @ 으, 사월 초파일.(으, 사월 초파일.)

112008 #1 으, 베속엣머린 그자 경허영 ᄉᆞ월 초파일날 ᄀᆞᆺ아사게.(으, 배냇머린 그저 그래서 사월 초파일날 잘라야지.)

112008 @ 애기덜예?(아기들요?)

112008 #1 으, 경헤사 머리 좋나.(으, 그래야 머리 좋아.)

112008 @ 머리 곱게 난다는 얘기지예?(머리 곱게 난다는 얘기지요?)

112008 #1 으, 으.(으, 으.)

406) '기웅환'은 '기응환'으로 어린아이가 밤에 울고 보채거나 감기 등에 먹였던 약을 말한다.

112009 @ 옛날에 그 천연두나 홍역 헤 가지고 애들 많이?(옛날에 그 천연두나 홍역 해 가지고 애들 많이?)

112009 #1 하영 죽엇주기게.(많이 죽었지.)

112009 @ 아팟잖아예? 그믄 그거 오믄 어떵 헤낫수과?(아팠잖아요? 그럼 그거 오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09 #1 점궤 본 다음이 주일 막 허주게 아기 앞에서 뭐 곧지도 말고 경헹 점궤 봐근에 막 하영 죽곡 헌다.(점괘 본 다음이 주일 마구 하지. 아기 앞에서 뭐 말하지도 말고 그렇게 점괘 봐서 아주 많이 죽고 한다.)

112009 @ 점궤 본다는 게 무슨 말?(점괘 본다는 게 무슨 말?)

112009 #1 할망이. 그 점궤 보민게 아이 좋앙게. 아니 존 것ᄀᆞ라 점궤 본덴, 할망이 슝 본다.(할머니가. 그 점괘 보면 안 좋아서. 안 좋은 것보고 점괘 본다고, 할머니가 흉 본다.)

112009 @ 슝 본다.(흉 본다.)

112009 # 으. 슝 본다, 경헤.(으. 흉 본다, 그래.)

112009 @ 겐 아이덜 홍역 헹 막 열나고 헴시민 그 점궤를 보는 거?(그래서 아이들 홍역 해서 마구 열나고 하면 그 점괘를 보는 거?)

112009 # 아판게, 잘못, 어멍이라고 앞이서 무신 말 ᄀᆞᆯ으민게 그 허곡게. 그 구실헐 때이 도새기나 어디 잔치헌 때 헌 것도 아이 뵈우젠 헌다게. 그런 거 보민 경 헌덴 허영. 구실헐 때 헌 건 막질 못 헌덴.(아파서. 잘못, 어머니라고 앞에서 무슨 말 하면 그하고. 그 천연두 걸렸을 때 돼지나 어디 잔치할 때 한 것도 안 보이려고 한다.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연두 걸렸을 때 한 건 막지를 못 한다고.)

112009 @ 아, 그거 보민 안 뒈는 거?(아, 그거 보면 안 되는 거?)

112009 #1 으. 막 구실헐 땐 막 정성이 하주게.(으, 마구 천연두 걸렸을 땐 아주 정성이 많지.)

112009 @ 그거 아프는 거 구실헌덴 헙니까?(그거 아픈 거 '구실헌다'고 합니까?)

112009 #1 어, 홍역.(어, 홍역.)

112009 @ 홍역.(홍역.)

112009 #1 어. 구실이엔도 홍역이엔도 허고. 엿날은 구실이엔 헤낫주기게 할망덜은. 족은구실 큰구실.(어. '구실'이라고도 홍역이라고도 하고. 옛날은 '구실'이라고 했었지, 할머니들은. '족은구실', '큰구실'.)

112009 @ 아, 그 홍역을 구실이엔 헷던 거라예?(아, 그 홍역을 '구실'이라고 했던 거지요?)

112009 #1 으.(으.)

112009 @ 구실. 족은구실, 큰구실?(홍역. '족은구실', '큰구실'.)

112009 #1 으. 큰구실은 막 얽고 차단허고 허는 것이 큰구실 본치 나고. 이 족은구실은 그냥 낭근에게, 제기 허주게. 큰구실은 허민 차단헤영 물도 다 져다 주곡, 사름 금지허곡.(으. '큰구실'은 마구 얽고 차단하고 하는 것이 '큰구실' 상처 나고. 이 '족은구실'

은 그냥 나서, 재게 하지. ‘큰구실’은 하면 차단해서 물도 다 져다 주고, 사람 금지하고.)

112009 @ 차단헌다는 게 집이 사름덜 밖에?(차단한다는 게 집의 사람들 밖에?)

112009 #1 금허는 거.(금하는 거.)

112009 @ 안 나가는 거?(안 나가는 거?)

112009 #1 으, 밖에 나가지 못 허게 허여. 뚠 디 전림헌덴.(으, 밖에 나가지 못 하게 해. 딴 데 전염한다고.)

112009 @ 전림한다고, 전염한다고?(전염한다고, 전염한다고?)

112009 #1 으.(으.)

112009 @ 게민 동네 사름덜이 물도 져다 주고.(그럼 동네 사람들이 물도 져다 주고.)

112009 #1 으, 저 도터레 놩 내불민 들러당.(으, 저 입구에 놔서 내버리면 들어다가.)

112009 @ 아, 그럼 큰구실 허민 완전 큰 병인게예?(아, 그럼 ‘큰구실’ 하면 완전 큰 병이네요?)

112009 #1 에구, 양지에 막 본치. 우리 시아방도 큰구실에 허영 양지 ᄉᆞ못 다 좁아지멍 눈이영 다 벨라진 하르방. 고운 얼굴이 엇어, 그 홍역 뒈게 허여 나민.(에구, 양지에 마구 상처. 우리 시아버지도 ‘큰구실’에 해서 양지 사뭇 다 오므라지면서 눈이랑 다 째진 할아버지. 고운 얼굴이 없어, 그 홍역 되게 하고 나면.)

112009 @ 게민 삼춘네 아이들은 경 안 헤낫수과?(그럼 삼촌네 아이들은 그렇게 안 했었습니까?)

112009 #1 우린. 글후젠게 예방 접종덜토 허고 허난 글후젠 아니 헤 봣주기게.(우린. 그 후에는 예방 접종들도 하고 하니까 그 후에는 안 해 봤지.)

112009 @ 으.(으.)

112009 #1 엿날 우리 헐 때 큰구실, 누게네 집이 큰구실 헴저 허여낫저게. 우리보단 ᄒᆞᆫ 예실곱 설 난 아으덜도 다 얽고 헤낫주게.(옛날 우리 할 때 ‘큰구실’, 누구네 집에 ‘큰구실’ 한다 했었어. 우리보다는 한 예닐곱 살 된 아이들도 다 얽고 했었지.)

112009 @ 으, 게니까 삼춘보단 우에예?(으, 그러니까 삼촌보다는 위에요?)

112009 #1 아래, 아래.(아래, 아래.)

112009 @ 아래도 그거 나 가지고.(아래도 그거 나 가지고.)

112009 #1 옛날 할망덜은 홍역이엔 벨로 안 헷주기게. 큰구실, 족은구실. 저 동촌[407]더렌 어떵사 헤신디 몰라도. 아이고, 연옥이네 집인이 큰구실 헴젠 헴세. 경 골으멍. 홍역이엔 헌 건 이제 표준어로 말허는 거주기게.(옛날 할머니들은 홍역이라고는 별로 안 했지. ‘큰구실’, ‘족은구실’. 저 동촌으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이고, 연옥이네 집은 ‘큰구실’ 한다고 해. 그렇게 말하면서. 홍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표준어로 말하는 거지.)

112009 @ 표준어지예?(표준어지요?)

112009 #1 어. 경헌디 큰구실, 족은구실은 엿날 할망덜이 내려오는 말.(어. 그런데

407) ‘동촌’은 동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큰구실’, ‘족은구실’은 옛날 할머니들 내려오는 말.)

112009 @ 음. 그거 픗터지는벵이렌은 안 골아낫구나?(음. 그거 ‘픗터지는벵’이라고는 안 말했었구나?)

112009 #1 으.(으.)

112009 @ 그냥 큰구실, 족은구실예?(그냥 ‘큰구실’, ‘족은구실’요?)

112009 #1 으.(으.)

112009 @ 삼춘네 성제는 멧이과? 아이덜 말고 형제?(삼촌네 형제는 몇입니까? 아이들 말고 형제?)

112009 #1 성제간?(형제간?)

112009 @ 예, 예.(예, 예.)

112009 #1 우리 시성제에 오빠 하나.(우리 세 형제에 오빠 하나.)

112009 @ 그럼 그 형제간에서도 이거 안 걸려난마씨?(그럼 그 형제간에서도 이거 안 걸렸었어요?)

112009 #1 으.(으.)

112009 @ 그민 여기.(그럼 여기.)

112009 #1 큰구실, 족은구실도 다 걸리는 거 아니.(‘큰구실’, ‘족은구실’도 다 걸리는 거 아니.)

112009 @ 다 걸리는 거 아니예? 이거 할 때 금기해야 허는 거?(다 걸리는 거 아니요? 이거 할 때 금기해야 하는 거?)

112009 #1 그 집일 못 가.(그 집에를 못 가.)

112009 @ 어디 못 가?(어디 못 가?)

112009 #1 그 집일 차단헤영 뎅기지 못 허게 허영, 전렴헌다.(그 집을 차단해서 다니지 못 하게 해서, 전염한다고.)

112009 @ 그니까 이 집안에서는 뭐 금해야 뒈는 거 잇수과? 예를 들면 무슨 음식 먹지 말아야 뒌다.(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뭐 금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112009 #1 아니, 그런 거.(아니, 그런 거.)

112010 @ 그런 건 엇고예. 출산헤 가지고 애기 낳을 때 금헤야 뒈는 거 잇수과?(그런 건 없고요. 출산해 가지고 아기 낳을 때 금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112010 #1 아니.(아니.)

112010 @ 그런 거 엇어.(그런 거 없어.)

112010 #1 아니, 사름은 비린[408] 사름 오지 못 허게 금허영. 정성허는 사름은 금줄 메고.(아니, 사람은 ‘비린’ 사람 오지 못 하게 금해서. 정성하는 사람은 금줄 매고.)

112010 @ 금줄 메고예. 저기 금줄은 저기 노?(금줄 매고요. 저기 금줄은 저기 노?)

112010 #1 노 허영 웨노 꼬앙.(노 해서 외노 꼬아서.)

---

408) ‘비리다’는 큰일을 앞두고 몸엣것을 하거나 꺼리어 피해야 할 송장이나 마소의 죽은 것 따위를 보고 몸이 부정하게 되다는 뜻이다.

112010 @ 웨노 꼬고 금줄 메고예, 예.(외노 꼬고 금줄 매고요, 예.)

혼례

112011 이제는 결혼식 물어보쿠다예, 혼례식. 옛날에 구식 결혼식 어떵 헤낫수과? 옛날 잔치, 삼춘 잔치헐 때 생각헤 보민?(이제는 결혼식 물어보겠어요, 혼례식. 옛날에 구식 결혼식 어떻게 했었습니까? 옛날 잔치, 삼촌 잔치할 때 생각해 보면?)

112011 #1 돗 잡곡게.(돼지 잡고.)

112011 @ 예.(예.)

112011 #1 돗 잡곡게, 오늘닐 잔치헐 거민 오늘 다 돗 잡고들 다 전지 지지고 다 헷당게. 잔칫날은 새시방부터 새각시 칩이 와, 들러리허고. 우시엔 헤라, 들러리엔 안 허고. 우시덜 남자영 여자영 왕 이젠 새시방 상 받고 다 헤 나민 예장 받지고 헤 나민 새각시 모셩 가낫주기게. 가메 탄 나도 갓저, 가메 탄.(돼지 잡고, 오늘내일 잔치할 거면 오늘 다 돼지 잡고들 다 전 지지고 다 했다가. 잔칫날은 새신랑부터 새색시 집에 와, 들러리하고. 위요라고 하더라, 들러리라고 안 하고. 위요들 남자랑 여자랑 와서 이젠 새신랑 상 받고 다 하고 나면 예장 바치고 하고 나면 새색시 모셔서 갔었지. 가마 타서 나도 갔어, 가마 타서.)

112011 @ 가메 탄 간 거? 하하하. 삼춘은 두모인 거고?(가마 타서 간 거? 하하하. 삼촌은 두모인 거고?)

112011 #1 으, 경허난에 아방은 저 우리도 영 가까운 디난 걸엉가렌. 난 걸엉은 죽어도 아이 가켄 헷주게. 겨난 난 가메 탄 오고 아방[409]은 걸언 오고.(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 우리도 이렇게 가까운 데니까 걸어가라고. 난 걸어서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난 가마 타서 오고 아버지는 걸어서 오고.)

112011 @ 아. 그냥,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인디?(아. 그냥,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112011 #1 으.(으.)

112012 @ 하하하. 옛날에 그 결혼을 허젠 허민 누게가 영 중매를 설 거 아니과예? 게민 어떵 그렇게 이 사름이영 결혼허켜 허는 게 정해지는 것과? 거 쭉 한 번 골아 주민?(하하하. 옛날에 그 결혼을 하려고 하면 누가 이렇게 중매를 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이랑 결혼시켜 하는 게 정해지는 겁니까? 거 쭉 한 번 말해 주면?)

112012 #1 난 아느냐게? 그 중매허는 하르방이게 그 저 신랑 아부지가 어디 메누리 허고 시프다 허영.(난 아니? 그 중매하는 할아버지가 그 저 신랑 아버지가 어디 며느리 하고 싶다 해서.)

112012 @ 예.(예.)

112012 #1 게난 중매 상 ᄒᆞ꼼 말헤 줍서 허민 그 하르방이 신부집이 왕게. 신부 아

409)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방신디 여쭈주게. 경허민 ᄆᆞ음에 시민 주곡. 옛날은 이 새각시 ᄆᆞ음대로 못 헤서. 부모가 가라 허민 가야 허고.(그러니까 중매 서서 조금 말해 주세요 하면 그 할아버지가 신부집에 와서. 신부 아버지에게 여쭈지. 그러면 마음에 있으면 주고. 옛날은 이 새색시 마음대로 못 했어. 부모가 가라 하면 가야 하고.)

112012 @ 예.(예.)

112012 #1 경허난 그칠룩 허영 나도 막 부끄럽고게 시집 아이만 가젠 막 허여도 우리 아부지가 ᄒᆞ못. 이 집 시집 아이 가민 나 뚤로 추급도 안 허켄 막 허여. 우리 어무니도 ᄒᆞ꼼 반대헷주기게. 우리 아바지 ᄒᆞ못 이기지 못허연. 우리 어무니도.(그러니까 그처럼 해서 나도 아주 부끄럽고 시집 안 가려고 마구 해도 우리 아버지가 사뭇. 이 집 시집 안 가면 나를 딸로 취급도 안 하겠다고 마구 해. 우리 어머니도 조금 반대했지. 우리 아버지 사뭇 이기지 못했어. 우리 어머니도.)

112012 @ 으, 으.(으, 으.)

112012 #1 겨난 헐 수 엇이 나도 시집갓주기게.(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도 시집갔지.)

112012 @ 삼춘 무사 시집 안 가젠 헨?(삼촌 왜 시집 안 가려고 했어?)

112012 #1 그땐 어떵사난산디이 우리 하르방, 시아방도 ᄇᆞᆨᄇᆞᆨ 얽은 하르방이고 허난 이 그 하르방만 봐 가민이.(그땐 어떠해서인지 우리 할아버지, 시아버지도 박박 얽은 할아버지이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만 봐 가면.)

112012 @ 무서왕?(무서워서?)

112012 #1 아니만 가켄 막 헨.(아니만 가겠다고 마구 했어.)

112012 @ 아, 저기 신랑을 본 게 아니고.(아, 저기 신랑을 본 게 아니고.)

112012 #1 하르방[410], 하르방.(할아버지, 할아버지.)

112012 @ 하르방 봐 가지고?(할아버지 봐 가지고?)

112012 #1 시아방.(시아버지.)

112012 @ 시아방. 무사 시아방이 무서왓수과?(시아버지. 왜 시아버지가 무서웠습니까?)

112012 #1 막 좁아지고 큰구실 허연게. 딱 ᄃᆞᆼ여지곡 허난 ᄒᆞ꼼 저 ᄆᆞᄉᆞ운 하르방 왐저 헤 가민 막 ᄃᆞᆯ아나곡. 막 좁아 빌곡 하르방, 아이덜.(마구 오므라지고 '큰구실' 해서. 딱 당겨지고 하니까 조금 저 무서운 할아버지 온다 해 가면 마구 달아나고. 마구 오므라져 버리고 할아버지, 아이들.)

112012 @ 아, 게난.(아, 그러니까.)

112012 #1 우리 시아방은 저 우리 셋아덜 푸더젼 ᄒᆞ꼼 웅웅허고 허난 싫어허주기게. 게난 등뗑이에 돌 지둘롸 뒌 간 하르방이라. 독험도 허고.(우리 시아버지는 저 우리 둘째 아들 넘어져서 조금 징징하고 하니까 싫어하지. 그러니까 등에 돌 지질러 두고 간 할아버지야. 독하기도 하고.)

112012 @ 하하하.(하하하.)

410)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제보자의 '시아버지'를 가리킨다.

112012 #1 겨난 나도 아이만 가켄 헤도.(그러니까 나도 안 가겠다고 해도.)

112012 @ 그냥 간 거?(그냥 간 거?)

112012 #1 가난 또 무사 아긴 똑 베여지느니?(가니까 또 왜 아긴 똑 배게 되니?)

112012 @ 가난 바로 애기 생겻수과?(가니까 바로 아기 생겼습니까?)

112012 #1 아니, ᄒᆞ꼼 오래 싯단 헤도게. 그 해에 아긴 셧주기게. 아고, 아고.(아니, 조금 오래 있다가 해도. 그 해에 아긴 있었지. 아고, 아고.)

112012 @ 게난 어쨌든 그 결혼헐 때는 저쪽 시댁 어른이 와 가지고 중매를 섭서 허는 거우다예?(그러니까 어쨌든 그 결혼할 때는 저쪽 시댁 어른이 와 가지고 중매를 서세요 하는 거지요?)

112012 #1 으, 새각시 그 집더레 강 중매헙, 말헤 줍서 허민 새각시 집이서 이제 ᄆᆞ음에 시민 허고 엇이민 말고 경허영 중매를 헤낫주게. 남저 칩이서가 헤 도렌 헤사게.(으, 새색시 그 집으로 가서 중매하, 말해 주세요 하면 새색시 집에서 이제 마음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중매를 했었지. 남자 집에서가 해 달라고 해야.)

112012 @ 남저 칩이서 헤 도렌 헤사예?(남자 집에서 해 달라고 해야요?)

112012 #1 어.(어.)

112013 @ 예. 거 혹시 막펜지렌 헌 거 알아지쿠과?(예. 거 혹시 '막펜지'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112013 #1 으, 막펜지[411]엔 헌 거 날짜 잡앙 거져가는 날.(으, '막펜지'라고 하는 거 날짜 잡아서 가져가는 날.)

112013 @ 어디서 날짜 잡앙?(어디서 날짜 잡아서?)

112013 #1 남자가. 남저 칩이서가.(남자가. 남자 집에서가.)

112013 @ 예.(예.)

112013 #1 이젠 어디 강 들으민 무신 헤치에 무신 거 놓민 궁합이 맞인 거 안 맞인 거, 경허영 궁합 맞앙 좋덴 허민 이젠 그 새각시 칩이 그 보아난 거 거세기 허곡 허영 술이영 허영 거져가는 거주게, 술이영.(이젠 어디 가서 들으면 무슨 띠에 무슨 거 놓으면 궁합 맞는 거 안 맞는 거, 그래서 궁합 맞아서 좋다고 하면 이젠 그 새색시 집에 그 봤던 거 거시기 하고 해서 술이랑 해서 가져가는 거지, 술이랑.)

112013 @ 으. 게민 날짜 잡앙 가져가는 게 막편지가 뒈는 거? 결혼 날짜?(으. 그럼 날짜 잡아서 가져가는 게 '막편지'가 되는 거? 결혼 날짜?)

112013 #1 아니.(아니.)

112013 @ 아니, 그럼?(아니, 그럼?)

112013 #1 건 영허영 좋수다 허영 막펜지 거져강 이젠 저 택일 안 허영 잔치 택일헐 때사 막펜지고 이건 이철록 허영 좋수다 허영 거져갈 때가 기주기게.(건 이래서 좋습니다 해서 '막편지' 가져가서 이젠 저 택일 안 해서 잔치 택일 할 때야 '막펜지'고 이건 이처럼 해서 좋습니다 해서 가져가 때가 그렇지.)

411)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 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를 말한다.

112013 @ 게난 저 신랑 난 날 놓고 신부 난 날 놩 둘이 영 좋수다 허는?(그러니까 저 신랑 난 날 놓고 신부 난 날 놔서 둘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112013 #1 궁합 맞앙 이젠 좋안 이제 우리 허쿠다 허연 가져가주게.(궁합 맞아서 이젠 좋아서 이제 우리 하겠습니다 해서 가져가지.)

112013 @ 아, 그게 막펜지인 거예?(아, 그게 '막펜지'인 거요?)

112013 #1 으, 막펜지 가져강.(으, '막펜지' 가져가서.)

112014 @ 이바지는 어떵 헤낫수과, 이바지?(이바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바지?)

112014 #1 이바진 저 저 결혼헐 때에 결혼허젠 허민 그땐 또 의논허는 거주기게. 쏠도 아이 받을 사름은, 쏠 시꺼 가나세게. 새각시 칩이. 게민 쏠, ᄒᆞ꼼 사는 사름은 이녁 아기 풀멍 쏠 아이 받으켄 허고, 우리도 쏠 아이 받앗주기게.(이바지는 저 저 결혼할 때에 결혼하려고 하면 그땐 또 의논하는 거지. 쌀도 안 받을 사람은, 쌀 실어 갔었어. 새색시 집에. 그럼 쌀, 조금 사는 사람은 자기 아기 팔면서 쌀 안 받겠다고 하고, 우리도 쌀 안 받았지.)

112014 @ 게민 쏠은 신랑칩이서?(그럼 쌀은 신랑집에서?)

112014 #1 신랑칩이서가 다 거져가주기게.(신랑집에서가 다 가져가지.)

112014 @ 신부안티?(신부한테?)

112014 #1 신부네 집이.(신부네 집에.)

112014 @ 그 잔치 헤 먹으렌?(그 잔치 해 먹으라고?)

112014 #1 어. 쏠 ᄒᆞᆫ 섬 가져갓저. 스무 말 거져왓저 헌다덜 막 그때 헤낫주기게.(어. 쌀 한 섬 가져갔어. 스무 말 가져왔어 한다들 마구 그때 했었지.)

112014 @ 예.(예.)

112014 #1 경허민 이제 신부네 집이 시꺼갓주기게.(그럼 이제 신부네 집에 실어갔지.)

112014 @ 으.(으.)

112014 #1 도새기도 시껑 가는 딘 돗 ᄒᆞᆫ ᄆᆞ리 헹.(돼지도 실어 가는 덴 돼지 한 마리 해서.)

112014 @ 으. 겐 그 이바지가 잔치헤 먹으렌 헹 보내는 거구나?(으. 그래서 그 이바지가 잔치해 먹으라고 해서 보내는 거구나?)

112014 #1 으.(으.)

112014 @ 신랑칩이서가 신부칩더레.(신랑집에서가 신부집에.)

112014 #1 으. 저 막펜지는 이제 그 궁합이 좋다 허영 거져가는 거고.(으. 저 '막펜지'는 이제 그 궁합이 좋다고 해서 가져가는 거고.)

112014 @ 으.(으.)

112014 #1 경허는 거.(그러는 거.)

112014 @ 게민 막펜지는?(그럼 '막펜지'는?)

112014 #1 막펜지는.('막펜지'는.)

112014 @ 신랑칩이서 신부칩이?(신랑집에서 신부집에?)

112014 #1 으.(으.)
112014 @ 이바지도 신랑칩이서 신부칩이?(이바지도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112014 #1 으게.(그래.)
112014 @ 으, 가져가는 거예? 게난 옛날에는 쏠이영 도새기궤기영.(으, 가져가는 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쌀이랑 돼지고기랑.)
112014 #1 으.(으.)
112014 @ 잔치헤 먹을 거?(잔치해서 먹을 거?)
112014 #1 으.(으.)
112015 @ 삼춘 결혼헐 때 혼수는 어떵 헤 왓수과, 혼수는?(삼촌 결혼할 때 혼수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혼수는?)
112015 #1 출령 오는 거?(차려서 오는 거?)
112015 @ 으, 출령 오는 거. 하하.(으, 차려서 오는 거. 하하.)
112015 #1 나 이불 다섯 채허고.(나 이불 다섯 채하고.)
112015 @ 이불 다섯 채허고, 예?(이불 다섯 채하고, 예?)
112015 #1 화루허고.(화로하고.)
112015 @ 화루.(화로.)
112015 #1 찬장허고. 그땐 찬장 안 헐 때난 찬장은 헨 왓주기게. 글후제.(찬장하고. 그땐 찬장 안 할 때니까 찬장은 해서 왔지. 그 후에.)
112015 @ 으.(으.)
112015 #1 찬장허고 궤허고.(찬장하고 궤하고.)
112015 @ 궤 몇 개? 하나?(궤 몇 개? 하나?)
112015 #1 궤 하나 우린.(궤 하나 우린.)
112015 @ 으.(으.)
112015 #1 그때. 글후제 혼 바리썩 헤낫주게. 점점 더 출련.(그때. 그 후에 한 바리씩 했었지. 점점 더 차렸어.)
112015 @ 예.(예.)
112015 #1 난 궤 하나허고. 이제 나 시집갈 때 헤난 궤가 저디 싯주기게.(난 궤 하나하고. 이제 나 시집갈 때 했던 궤가 저기 있어.)
112015 @ 아이구, 이땅 사진 찍으쿠다. 또?(아이구, 이따가 사진 찍겠습니다. 또?)
112015 #1 저 거세기. 그거, 그거.(저 거시기. 그거, 그거.)
112015 @ 저 멩지는 뭐 안 담앙 오고? 저기, 저기 미녕은, 저 옷 헤 입을 미녕?(저 명주는 뭐 안 담아서 오고? 저기, 저기 무명은, 저 옷 해 입을 무명?)
112015 #1 그건 저 새 집, 새서방 칩이서 올 때에 이제 저 아기 지성귀 허렌 뭐 놓듯이 건 새서방 칩이서 거져오는 거, 예장 올 때.(그건 저 새 집, 새신랑집에서 올 때에 이제 저 아기 기저귀 하라고 뭐 놓듯이 건 새신랑집에서 가져오는 거, 예장 올 때.)
112015 @ 아, 예장 올 때 새서방 칩이서.(아, 예장 올 때 새서방 집에서.)
112015 #1 으. 빈 예장 아니 와근에 미녕 혼 빌을 놓나 베 혼 빌을 놓나.(으. 빈 예

장 안 와서 무명 한 필을 넣거나 베 한 필을 넣거나.)

112015 @ 예.(예.)

112015 #1 아기 기저귄 그때 나도 안 헌 때고 경허난 글후젠 그 아기, 나 건 아깃지성귀 허렌 그 저 무시거 놔낫주기게. 시렁목.(아기 기저귀는 그때 나도 안 한 때고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아기, 내 건 아기 기저귀 하라고 그 저 뭐 놨었지. 소창.)

112015 @ 시렁목. 게난 홍세미녕이렌 허는 게 신랑칩이서 신부칩으로?(소창. 그러니까 '홍세미녕'이라고 하는 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112015 #1 어.(어.)

112015 @ 예장 올 때?(예장 올 때?)

112015 #1 예장 올 때 ᄀᆞ정 오는 거.(예장 올 때 가져오는 거.)

112015 @ 가정 오는 거. 홍세함에 넣어 가지고?(가지고 오는 거. 함에 넣어 가지고?)

112015 #1 어, 어.(어, 어.)

112015 @ 그거 홍세미녕이렌 헤낫구나?(그거 '홍세미녕'이라고 했었구나?)

112015 #1 으.(으.)

112015 @ 삼춘네는 이불 다섯 채랑 찬장이랑 궤랑?(삼촌네는 이불 다섯 채랑 찬장이랑 궤랑?)

112015 #1 화루랑.(화로랑.)

112015 @ 화루랑.(화로랑.)

112015 #1 이불, 이불 상이영. 이불 상이엔 헷주기게. 영 교제상 칠룩헌 상에 이불 개영 옛날은 놔낫주게.(이불, 이불 상이랑. 이불 상이라고 했지. 이렇게 교자상 같은 상에 이불 개어서 옛날은 놨었지.)

112015 @ 예.(예.)

112015 #1 경허난 그 이불 상이 셔낫주게.(그러니까 그 이불 상이 있었어.)

112015 @ 아, 이불 상.(아, 이불 상.)

112015 #1 거기 우에 이불을 올려놧던 거?(거기 위에 이불을 올려놨던 거?)

112015 @ 아, 그거영. 게도 삼춘 이것저것 막 하영 헹 갓수다.(아, 그거랑. 그래도 삼촌 이것저것 아주 많이 해서 갔습니다.)

112015 #1 하영 헷젠 헤낫주기게.(많이 했다고 했었지.)

112015 @ 옛날에예. 아고. 다른 어른덜 말 들어보민 뭐 헛덴 헌 거 엇인디.(옛날에요. 아고. 다른 어른들 말 들어보면 뭐 했다고 하는 거 없는데.)

112015 #1 이불 다섯 채 출린 사름이 질 잘 출려실 거여, 그때. 경 안허민 시 채썩도 허곡.(이불 다섯 채 차린 사람이 제일 잘 차렸을 거야, 그때. 그렇지 않으면 세 채씩도 하고.)

112015 @ 으.(으.)

112015 #1 옛날은게 방도 ᄯᅳ시지 안허고 새 소게덜 헤여근에 시집갈 때나베끼 더 헤샤게? 엇인 집인 묵은 소게도 허영 다 보내고 허여.(옛날은 방도 따뜻하지 않고 새 솜

들 해서 시집갈 때나밖에 더 했니? 없는 집은 묵은 솜도 해서 다 보내고 해.)

112016 @ 으, 기구나. 그믄 예장이 뭐과? 예장, 아까?(으, 그렇구나. 그럼 예장이 뭡니까? 예장, 아까?)

112016 #1 예장게. 이제 남저 칩이서 여저 둘앙 가젠 허민 아무 거세기 무슨 고씨 무시것에 허영 이름 다 씨영 경허여근에 그런 거.(예장. 이제 남자 집에서 여자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아무 거시기 무슨 고씨 뭐에 해서 이름 다 써서 그래서 그런 거.)

112016 @ 음.(음.)

112016 #1 그런 그 예장이 셔게. 도장 딱 놓고.(그런 그 예장이 있어. 도장 딱 놓고.)

112016 @ 게민 그건 언제 가졍 가는 거?(그럼 그건 언제 가지고 가는 거?)

112016 #1 결혼허는 날 ᄀᆞ졍 가사 새각시 내치주게.(결혼하는 날 가지고 가야 새색시 내치지.)

112016 @ 게난 우리, 우리 남자 삼춘은 걸엉 왓주만은 다른 디 멀리 가젠 허민 ᄆᆞᆯ 탕 가지 안헙니까?(그러니까 우리, 우리 남자 삼촌은 걸어서 왔지만 다른 데 멀리 가려고 하면 말 타서 가지 않습니까?)

112016 #1 ᄆᆞᆯ 탕 갓주게.(말 타서 갔지.)

112016 @ 그거 열어 봉 여자 칩이서가, 어른들이 그거 열어 봉.(그거 열어 봐서 여자 집에서가, 어른들이 그거 열어 봐서.)

112016 #1 을앙 글자, 우리 진칩이 저 모슬포 시집가는 아으, 진 자라도 성이 틀려 비난 거 새로 씨영 오렌 헨에 우리 허난 어디 강 새로 씨영 왕 들영 둘앙 갓저.(열어서 글자, 우리 진씨 집안이 저 모슬포 시집가는 아이, 진 자여도 성이 틀려 버리니까 거 새로 써서 오라고 해서 우리 하니까 어디 가서 새로 쓰고 와서 들여서 데려고 갔어.)

112016 @ 으.(으.)

112016 #1 그런 거 보는 거주기게.(그런 거 보는 거지.)

112016 @ 게난 그런 거 보는 거. 삼춘 시집갈 때는 뭐 틀린 거 엇어낫수과?(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 삼촌 시집갈 때는 뭐 틀린 거 없었습니까?)

112016 #1 우린게 ᄌᆞᆺ디고 허난게. 그거 틀려게?(우린 근처이고 하니까. 그거 틀려?)

112016 @ 하하하.(하하하.)

112016 #1 이딘 멀고 모실포고 허난 무신 진 자처렐 몰라.(여긴 멀고 모슬포고 하니까 무슨 진 자인 줄 몰라.)

112016 @ 예.(예.)

112016 #1 우린 나라 진 잔디 무신 진 자로 헨 헤 비난 우리 족은아방 이건 틀린 성이엔 경헤여근에 안 헷주기게.(우린 나라 진 자인데 무슨 진 자로 해서 해 버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이건 틀린 성이라고 그래서 안 했지.)

112016 @ 그거 보멍 글자 틀린 거 잇이민 이거 아니여?(그거 보면서 글자 틀린 거 있으면 이거 아니야?)

112016 #1 으, 으. 경허는 거주기게.(으, 으. 그러는 거지.)

112016 @ 다시, 다시 썽 오라.(다시, 다시 써서 와라.)

112016 #1 경허영 돌령 새로 씨어 오라 허고 막 까다로와낫어.(그래서 돌려서 새로 써 오라고 하고 아주 까다로웠었어.)

112016 @ 예.(예.)

112016 #1 새서방 올레서부터 ᄂᆞ람쥐 페왕 들어왕. 하하.(새신랑 올레에서부터 이엉 펴서 들어와서. 하하.)

112016 @ 하하하. 게민 삼춘은 그런 거 잘못 쓰고 헌 거 엇어낫수다예?(하하하. 그럼 삼촌은 그런 거 잘못 쓰고 한 게 없었네요?)

112016 #1 어게.(그래.)

112017 @ 예. 이제 가문잔치 ᄀᆞᆯ아 줍서. 가문잔치. 잔치 헤 먹젠 허민 가문잔치를 허는 거잖아예. 어떤 음식 허고, 언제 허고, 사름덜 누게가 오고.(예. 이제 '가문잔치' 말해 주세요. '가문잔치'. 잔치 해 먹으려고 하면 '가문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음식 하고, 언제 하고, 사람들 누가 오고.)

112017 #1 가문잔치[412]엔 헌 거 다른 디선 몰라도 이제 결혼 다 허여 놩, 경허여 놩 시집이서 올 때에 또 새각시 칩이서 밥허영 가문잔치 허는 거주게.('가문잔치'라고 하는 거 다른 데선 몰라도 이제 결혼 다 해 놔서, 그래 놓고 시집에서 올 때에 또 새색시 집에서 밥해서 '가문잔치' 하는 거지.)

112017 @ 지금 가문잔치는 결혼식 전날 가문잔치렌 허잖아예?(지금 '가문잔치'는 결혼식 전날 '가문잔치'라고 하잖아요?)

112017 #1 건.(건.)

112017 @ 아니?(아니?)

112017 #1 아니고 우린 가문잔치엔, 우리 엿날 할망덜은 가문잔치 허여 먹엇덴 허라. 하민, 시집이 어제 시집이서 결혼허여 그디 밤 장.(아니고 우린 '가문잔치'라고,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가문잔치' 해 먹었다고 하더라. 하면, 시집이 어제 시집에서 결혼해서 거기 밤 자고.)

112017 @ 예.(예.)

112017 #1 이젠 혼수, 시집이서 비로드 치메, 양단 저고리 물려받은 거 다 이젠 그 시누이, 새각시 시누이나 누게 시민 보따리에 쌍 새각시영 흔디 가주기게, 친정에.(이젠 혼수, 시집에서 벨벳 치마, 양단 저고리 물린 거 다 이제 그 시누이, 새색시 시누이나 누가 있으면 보따리에 싸서 새색시랑 같이 가지, 친정에.)

112017 @ 으.(으.)

112017 #1 그때에 강 허민 새각시 오민 새시방 밥도 허영 주곡 정식으로, 가문잔치엔 허는 거주게. 권당덜 다 오랑 허영.(그때에 가서 하면 새색시 오면 새신랑 밥도 해서 주고 정식으로, '가문잔치'라고 하는 거지. 권당들 다 와서 해서.)

112017 @ 으.(으.)

112017 #1 어제 잔치헤 나난 속고 새각시 완에. 경허민 저 고기영 다 놩 거져 오주

412)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간단히 벌이는 잔치를 말한다. 그런데 제보자는

기게. 저 새서방 칩이서.(어제 잔치하고 나니까 수고했고 새색시 와서. 그러면 저 고기랑 다 놔서 가져오지. 저 새신랑집에서.)

112017 @ 으.(으.)

112017 #1 뒷냇날 오멍 그 옷 기지[413]영. 경허민 그걸로 잔치허영 가문잔치헴젠 허주.(뒷날 오면서 그 옷 천이랑. 그러면 그걸로 잔치해서 '가문잔치'한다고 하지.)

112017 @ 아, 게민 고기 가져오는 게, 쏠이영 고기 가져오는 게 아까 이바지?(아, 그럼 고기 가져오는 게, 쌀이랑 고기 가져오는 게 아까 이바지?)

112017 #1 저 잔치 둣냇날 이바지, 그 물려온 거영 ᄀᆞ찌 거져오멍 잔치허는 거.(저 잔치 뒷날 이바지, 그 물려받은 거랑 같이 가져오면서 잔치하는 거.)

112017 @ 아, 기민.(아, 그럼.)

112017 #1 권당덜도 그때 광목 대자 주는 사름, 벤베루[414] 치메 기지 주는 사름게 으라 가지주게. 옥경목 대자썩 주는 할망덜도 싯곡게. 게민 그거 언매나 물려와신 보레 오고덜 허민게 그걸로 궤기 반도 노멍 밥허영덜 먹는 게 가문잔치.(친척들도 그때 광목 대자 주는 사람, '벤베루' 치마 천 주는 사람 여러 가지지. 옥양목 대자씩 주는 할머니들도 있고. 그럼 그거 얼마 물려받았는지 보고 오고들 하면 그걸로 고기 반도 놓으면서 밥해서들 먹는 게 '가문잔치'.)

112017 @ 으, 여자 쪽 집이서 잔치허는 게?(으, 여자 쪽 집에서 잔치하는 게?)

112017 #1 어.(어.)

112017 @ 기민 가문잔치날 먹을 거 음식은 뭐, 뭐 헙니까?(그럼 '가문잔치날' 먹을 거 음식은 뭐, 뭐 합니까?)

112017 #1 뭣 해 엿날이사.(뭐 해 옛날에야.)

112017 @ 밥허곡.(밥하고.)

112017 #1 밥허곡게.(밥하고.)

112017 @ 밥은 어떤 밥?(밥은 어떤 밥?)

112017 #1 곤밥게.(흰밥.)

112017 @ 곤밥. 게민 손님덜도 다 곤밥?(흰밥. 그럼 손님들도 다 흰밥?)

112017 #1 어게. 손님 경 하영 안 온다게. 왓자 이녁 집안이고 삼[415] 이웃덜게, 기주게.(그래. 손님 그렇게 많이 안 와. 와도 자기 집안이고 근처 이웃들, 그렇지.)

112017 @ 곤밥 허고 또, 반찬?(곤밥 하고 또, 반찬?)

112017 #1 뒈지고기 허곡게.(돼지고기 하고.)

112017 @ 으.(으.)

112017 #1 그 잔치에 먹던 김치허고 무시거 허민 뒈는 거주기게.(그 잔치에 먹었던 김치하고 무엇 하면 되는 거지.)

112017 @ 게민 여자 칩이서는 결혼허기 전에 동네 사름덜 헹 잔치하고 결혼헌 다음날 다시 가문잔치 하는 거?(그럼 여자 집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 해서 잔치

413) '기지'는 일본어 'きじ'로 천, 옷감을 말한다.
414) '벤베루'는 일본어 'ベルベット'에서 온 말로 '벨벳'을 말한다.
415) '삼 이웃'은 집의 삼면으로 접하고 있는 이웃을 말한다.

하고 결혼한 다음날 다시 가문잔치 하는 거?)

112017 #1 으, 으.(으, 으.)

112017 @ 이 가문잔치 때는 이바지 가져온 거로?(이 '가문잔치' 때는 이바지 가져온 거로?)

112017 #1 오게.(그래.)

112017 @ 아.(아.)

112017 #1 몰르켜 동춘더레 어떵사 허는디 우리 세겐 그추룩 헤라.(모르겠어 '동촌'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세계는 그처럼 하더라.)

112017 @ 아, 게민 밥은 곤밥 허고?(아, 그럼 밥은 흰밥 하고?)

112017 #1 어.(어.)

112017 @ 국은 뭐 끓엿수과, 가문잔치에?(국은 뭐 끓였습니까, '가문잔치'에?)

112017 #1 국은 뭣사 끌려신디게? 궤기사 놘 끌려신디 뭣사 놩 끌려신디.(국은 뭐 끓였는지? 고기야 놔서 끓였는지 뭐를 놔서 끓였는지.)

112017 @ 아.(아.)

112017 #1 국허고게.(국하고.)

112017 @ 국허고 반찬은?(국하고 반찬은?)

112017 #1 밥허고게.(밥하고.)

112017 @ 밥허고 반찬은 아까 뒈지고지 나오고.(밥하고 반찬은 아까 돼지고기 나오고.)

112017 #1 나오고 김치 거뜬 거게.(나오고 김치 같은 거.)

112017 @ 김치 거튼 거 나오고, 으. 뭐 떡이나 그런 건 안 허고?(김치 같은 거 나오고, 으. 뭐 떡이나 그런 건 안 하고?)

112017 #1 으, 엿날 잔치 때 떡은 안 헷저.(으, 옛날 잔치 때 떡은 안 했어.)

112017 @ 예, 예.(예, 예.)

112017 #1 덴뿌라엔 허여 봐야 계란 헤근에게 후라이 허영 놓고 뭐 솖앙도 놓곡 주로 헷주기게.(튀김이라도 해 봐야 계란 해서 프라이 해서 놓고 뭐 삶아서도 놓고 주로 했지.)

112017 @ 게민 가문잔치 때 친척덜 올 거잖아예?(그럼 '가문잔치' 때 친척들 올 거잖아요?)

112017 #1 어.(어.)

112017 @ 게민 친척덜은 와 가지고 부주, 부지헙니까?(그럼 친척들은 와 가지고 부조, 부조합니까?)

112017 #1 잔치에 부주허민 걸로 끗이주.(잔치에 부조하면 걸로 끝이지.)

112017 @ 잔치에 부주를 허니까?(잔치에 부조를 하니까?)

112017 #1 어.(어.)

112017 @ 게민.(그럼.)

112017 #1 이건 시집이서 뭣, 뭣 물려 오고 영헌, 새시방이영 왕 속앗젠 허는 대력

으로 가문잔치를 허는 거라.(이건 시집에서 뭐, 뭐 물려받아 오고 이러한, 새신랑이랑 와서 애썼다고 하는 대신으로 '가문잔치'를 하는 거야.)

112017 @ 아, 그렇구나.(아, 그렇구나.)

112017 #1 그 권당덜이영.(그 권당들이랑.)

112017 @ 기민, 잔치 때를 물어보쿠다. 결혼식 허기 전에 여자 칩이서 잔치헐 때 그때 밥은 뭐 헤?(그럼, 잔치 때를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여자 집에서 잔치할 때 그때 밥은 뭐 해?)

112017 #1 밥은게, 엿날은 보리썰에 곤썰에 섞은 밥도 싯고.(밥은, 옛날은 보리쌀에 흰쌀에 섞은 밥도 있고.)

112017 @ 음.(음.)

112017 #1 건 이제 아칙이 조반 정식으로 안 헹, 정식은 쌀밥만 허영 놈 멕일 때 멕이는 건 이제 손님덜이영 ᄀᆞ찌 먹곡 권당덜 집이서 아칙 조반 밥으로 먹을 땐 통보리썰에 곤썰 섞은 밥헤영 먹주기게.(건 이제 아침에 조반 정식으로 안 하고, 정식은 쌀밥만 해서 남 먹을 때 먹이는 건 이제 손님들이랑 같이 먹고 권당들 집에서 아침 조반 밥으로 먹을 땐 통보리쌀에 흰쌀 섞은 밥해서 먹지.)

112017 @ 으.(으.)

112017 #1 경헨 멕이고.(그래서 먹이고.)

112017 @ 으, 멕이고. 국은?(으, 먹이고. 국은?)

112017 #1 원 국은 그때 뭣사 헌디 나 알말가? 하여튼 국도게 무신 돗 솖아난 국물에사 국은 헌디 하여튼 국.(원 국은 그때 뭐를 했는지 내가 아니? 하여튼 국도 무슨 돼지고기 삶았던 국물에야 국은 했는데 하여튼 국.)

112017 @ 밥에 풋 안 서끄고마씨?(밥에 팥 안 섞고요?)

112017 #1 풋 서껑게. 풋 놩 허민 뭉울뭉울[416] 맛좋아라, 그땐. 쏠밥에도 다 풋 놩 벌겅케 허고 잔치밥에. 흰밥은 안 헤봣저기게.(팥 섞어서. 팥 넣어서 하면 '뭉울뭉울' 맛좋더라, 그땐. 쌀밥에도 다 팥 넣어서 벌겋게 하고 잔칫밥에. 흰밥은 안 해봤어.)

112017 @ 보리썰 섞엉 허기도 허고?(보리쌀 섞어서 하기도 하고?)

112017 #1 으, 맨밥에.(으, 맨밥에.)

112017 @ 맨밥에. 풋 놩, 게민 반찬은 궤기 나올 거고.(맨밥에. 팥 놔서, 그럼 반찬은 고기 나올 거고.)

112017 #1 으.(으.)

112017 @ 짐치 나올 거고.(김치 나올 거고.)

112017 #1 겨난 망텡이에 밥도 허영 다 푸주기게. 이제칠룩 경 제기 허여져사게. 게민 망텡이 곱게 줄은 망텡이 허여근에 그것더레 밥허멍 다 푸멍 헷당 거리멍.(그러니까 망태기에 밥도 해서 다 뜨지. 이제처럼 그렇게 재게 할 수 있니. 그럼 망태기 곱게 결은 망태기 해서 그것에 밥하면서 다 뜨면서 했다가 뜨면서.)

112017 @ 으.(으.)

416) '뭉울뭉울'은 뭉키어 덩어리진 물건 따위가 매우 물렁하고 미끄러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12017 #1 어떤 때 영 대 고젱이에 돗고기 두 점도 허영 꽂주앙도 주곡 종이에 쌍도 주곡 허영 오는 냥 밥 먹엿주게.(어떤 때 이렇게 대 꼬치 돼지고기 두 점도 해서 꽂아서도 주곡 종이에 싸서도 주고 해서 오는 대로 밥 먹였지.)

112020 @ 오는 냥. 게민 오는 사름덜은 부주헐 거 아니과예?(오는 대로. 그럼 오는 사람들은 부조할 거 아닙니까?)

112020 #1 으, 부주헷주게.(으, 부조했지.)

112020 @ 그땐 어떵 부주헷수과? 돈은 엇일 거고?(그땐 어떻게 부조했습니까? 돈은 없을 거고?)

112020 #1 쏠 부주게.(쌀 부조.)

112020 @ 쏠. 쏠 얼마나 가졍 옵니까?(쌀. 쌀 얼마나 가져서 옵니까?)

112020 #1 아이고 쏠 그때사 경, 권당은 말찬 부주[417] 하고 경 안허민 두 뒈게.(아이고, 쌀 그때야 그렇게, 권당은 '말찬 부조'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되.)

112020 @ 아, 말찬 부주렌 허민 혼 말?(아, '말찬 부조'라고 하면 한 말?)

112020 #1 으, 혼 말.(으, 한 말.)

112020 @ 혼 말 허고 두 뒈. 곤썰 헷수과, 보리썰 헷수과?(한 말 하고 두 되. 흰쌀 했습니까, 보리쌀 했습니까?)

112020 #1 그때 곤썰 헷주기게. 보리썰 허는 사름도 싯고게. 그거 사름 생활에 따라. 돈 부주엔 헌 거 엇고.(그때 흰쌀 했지. 보리쌀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사람 생활에 따라. 돈 부조라고 하는 건 없고.)

112020 @ 으. 경허민 그때는 어쨌든 친척덜도 왔지만 동네 사름덜도 다 왕 먹엉 갔을 거 아니?(으. 그러면 그때는 어쨌든 친척들도 왔지만 동네 사람들도 다 와서 먹어서 갔을 거 아니?)

112020 #1 으. 경허난 쏠 언매 들어왓저, 헤 간다. 부주 언매 들어왓다 경 헌다.(으. 그러니까 쌀 얼마 들어왔어, 해 간다. 부조 얼마 들어왔어 그렇게 한다.)

112020 @ 경헨 결혼식, 남자 집이 강 결혼식 헹 여기 왕 가문잔치 헐 땐 친척덜 막 오는 거?(그래서 결혼식, 남자 집에 가서 결혼식 해서 여기 와서 '가문잔치' 할 때 친척들 많이 오는 거?)

112020 #1 으.(으.)

112018 @ 결혼헐 때 우시가 뭐과? 우시?(결혼할 때 위요가 뭡니까?)

112018 #1 들러리 이제 거트민.(들러리 이제 같으면.)

112018 @ 들러리. 누게가 가는 거라?(들러리. 누가 가는 거야?)

112018 #1 저, 건 여저 집이, 남저 집이.(저, 건 여자 집에, 남자 집에.)

112018 @ 여저 집이 들러리를 먼저 굴아 줍서.(여자 집에 들러리를 먼저 말해 주세요.)

112018 #1 여저 집이도 새각시 이젠 미장원, 화장허는 사름이 주로 헷주만은 그땐 화장허는 사름도 엇곡게.(여자 집에도 새색시 이젠 미장원, 화장하는 사람이 주로 했지

417) '말찬 부주'에서 '말찬'은 '한 말이 차다'의 의미로, '말찬 부주'를 '한 말 부조'를 말한다.

만 그땐 화장하는 사람도 없고.)
112018 @ 으.(으.)
112018 #1 경허민 그 우시가 치메각도 들러주곡게 흔디 영 허영 가는 것이 우시.(그러면 그 위요가 치맛자락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위요.)
112018 @ 예.(예.)
112018 #1 남전 또시 사돈 상객으로 허영 가고.(남자는 또 사돈 상객으로 해서 가고.)
112018 @ 예.(예.)
112018 #1 경허여.(그래.)
112018 @ 게민 우시는 멧 명이나 가는 것과?(그럼 위요는 몇 명이나 가는 겁니까?)
112018 #1 새시방 칩이선 날 들레 둘이 왓어라. 여자, 여자 둘.(새서방 집에서는 데리러 둘이 왔더라. 여자, 여자 둘.)
112018 @ 여자 둘.(여자 둘.)
112018 #1 남저도 둘이 와신디사.(남자도 둘이 왔었는지.)
112018 @ 새각시 집이서는?(새색시 집에서는?)
112018 #1 새각시 집이선 우리, 우리 올케허고. 여자 집이서도 둘 갓어.(새색시 집에선 우리, 우리 올케하고. 여자 집에서도 둘 갔어.)
112018 @ 둘.(둘.)
112018 #1 둘 가고 사둔이엔 헹 상객으로 가고.(둘 가고 사돈이라고 해서 상객으로 가고.)
112018 @ 게민 우시는 누게가 허는 거? 가까운 친척?(그럼 위요는 누가 하는 거? 가까운 친척?)
112018 #1 으. 수춘 시민 수춘도 가고. 올케 시민 올케도 가고. 갈 만헌 사름으로게.(으. 사촌 있으면 사촌도 가고. 올케 있으면 올케도 가고. 갈 만한 사람으로.)
112018 @ 으.(으.)
112018 #1 저 상제 들어도 아이 가고.(저 상제 들어도 안 가고.)
112018 @ 으.(으.)
112018 #1 상복 입으민 못 간덴.(상복 입으면 못 간다고.)
112018 @ 못 간덴.(못 간다고.)
112018 #1 아니 허고. 경허여 가민게 갈 만한 사름으로 뽑앙. 딱 지정은 안 헤도. 집안에서 걸리지 안헤영 영영 헐 만헌 사름으로 보내고.(안 하고. 그래 가면 갈 만한 사람으로 뽑아서. 딱 지정은 안 해도. 집안에서 걸리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할 만한 사람으로 보내고.)
112018 @ 으.(으.)
112018 #1 경헨 보내라.(그렇게 보내더라.)
112019 @ 대반은 뭐과?(대반은 뭡니까?)
112019 #1 이디 엿날은 대반 앚아도이 우리 헐 때도 대반 앚는 사름은 앚고 아이

앚는 사름은 안 앚은디 저 대정은 가난 대반 앚아라게.(여기 옛날은 대반 앉아도 우리 할 때도 대반 앉는 사람은 앉고 안 앉는 사람은 안 앉았는데 저 대정은 가니까 대반 앉더라.)

112019 @ 으.(으.)

112019 #1 견디 이디도 대반, 우리 시집갈 때도 앚는 사름은 앚아서.(그런데 여기도 대반, 우리 시집갈 때도 앉는 사람은 앉았어.)

112019 @ 으.(으.)

112019 #1 잘 살고 아기영. 대반 앚젠 헤도 구 곶은 사름이 앚는 거라.(잘 살고 아기랑. 대반 앉으려고 해도 구 갖춘 사람이 앉는 거야.)

112019 @ 구 곶은 사름이 뭐과?(구 갖춘 사람이 뭡니까?)

112019 #1 하간 것이 다 구 곶춰져.(온갖 것이 다 구 갖춰져.)

112019 @ 아, 구가 갖춰지다?(아, 구가 갖춰지다?)

112019 #1 어.(어.)

112019 @ 예.(예.)

112019 #1 아기도 뭣 허고 팔자 존 사름게.(아기도 뭐 하고 팔자 좋은 사람.)

112019 @ 으.(으.)

112019 #1 남편도 싯고.(남편도 있고.)

112019 @ 게난 어느 정도 결혼 생활에 견본 보일 수 있는 사름덜인게?(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혼 생활에 견본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네요?)

112019 #1 으.(으.)

112019 @ 잘 살멍 자리 잡앙 있는 사름.(잘 살면서 자리 잡아서 있는 사람.)

112019 #1 으. 그것ᄀᆞ라 대반.(으. 그것보고 대반.)

112019 @ 대반예. 구 갖췻덴 허는 거예?(대반요. 구 갖췄다고 하는 거요?)

112019 #1 으.(으.)

112019 @ 중방은 뭐과?(중방은 뭡니까?)

112019 #1 아이, 중반이엔 헌 건 엇고. 중방은 사우 손위, 이제 저 새시방 와 가민 강 이꺼 오는 거.(아이, 중방이라고 하는 건 없고. 중방은 사위 손위, 이제 저 새서방 와 가면 가서 이끌어 오는 거.)

112019 @ 하하.(하하.)

112019 #1 중방 들라 허주게.(중방 들어라 하지.)

112019 @ 으.(으.)

112019 #1 경허민 사우 손위 그 동서처레 뒐 거 아니?(그러면 사위 손위 그 동서뻘 될 거 아니?)

112019 @ 예.(예.)

112019 #1 경허민 강 중방 허고.(그럼 가서 중방 하고.)

112019 @ 신랑이 새각시 데리러 갈 때.(신랑이 새색시 데리러 갈 때.)

112019 #1 어. 새시방, 새시방 올레[418]에 왕.(어. 새서방, 새서방 '올레'에 와서.)

112019 @ 예.(예.)

112019 #1 어느 만이 오민 이젠 예장 다 봐 난 다음이 중방, 강 이꺼 오는 것이.(어느 만큼 오면 이젠 예장 다 보고 난 다음이 중방, 가서 이끌어 오는 것이.)

112019 @ 아. 그민 그게.(아. 그럼 그게.)

112019 #1 중방이엔 허주게.(중방이라고 하지.)

112019 @ 사위?(사위?)

112019 #1 사위가 허는 거.(사위가 하는 거?)

112019 @ 윗사위가 잇이민 사위가?(윗사위가 있으면 사위가?)

112019 #1 으, 이녁이 밑에주게. 밑에 장게갈 때 사우 아무, 수춘이라도 사우가 손강 이꺼 와낫주게.(으, 자기가 밑이지. 밑에 장가갈 때 사위 아무, 사촌이라도 사위가 손 가서 이끌어 왔었지.)

112019 @ 아, 사춘이라도, 사춘 사위라도?(아, 사촌이라도, 사촌 사위라도?)

112019 #1 어.(어.)

112019 @ 예, 예.(예, 예.)

112019 #1 그게 중방일 거.(그게 중방일 거.)

112021 @ 혹시 암창개라는 말 들어봣수과?(혹시 '암창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112021 #1 하하.(하하.)

112021 @ 암창개.(암창개.)

112021 #1 엿날 암창개[419]엔 허민이.(옛날 '암창개'라고 하면.)

112021 @ 으.(으.)

112021 #1 새시방 아니 가도 돌아오는 것ᄀᆞ라 암창개엔 헌덴.(새서방 안 가도 데려오는 것보고 암창개라고 한다고.)

112021 @ 새시방 무사 아니 가?(새서방 왜 안 가?)

112021 #1 새시방도 가지 못 헐 형편이 뒈민.(새서방 가지 못할 형편이 되면.)

112021 @ 예.(예.)

112021 #1 우리 웨삼춘네도 잔치 막 허는디 우리 웨하르방 죽어 비난 게난 새시방 가지 못헤영 그냥 암창개로 돌아왓젠 헌다.(우리 외삼촌네도 잔치 한창 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죽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새서방 가지 못해서 그냥 암창개로 데려왔다고 한다.)

112021 @ 아.(아.)

112021 #1 날 다 받아 놩.(날 다 받아 놔서.)

112021 @ 아, 날 다 받앙 잔치날인디 상이 나 불엇구나.(아, 날 다 받아서 잔칫날인데 상이 나 버렸구나.)

112021 #1 으.(으.)

112021 @ 그럴 때 암창개.(그럴 때 '암창개'.)

112021 #1 경 돌아와.(그렇게 데려와.)

---

418)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419) '암창개'는 혼례날 부득이하게 신랑이 타지에서 오지 못했을 때 신랑집에서 신랑 없이 상객들만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며 치루는 혼례를 말한다.

112021 @ 예.(예.)

112021 #1 새시방이 못 갈 형편이 뒐 때 암창개로 들아오는 거주게.(새서방이 못 갈 형편이 될 때 '암창개'로 데려오는 거지.)

112021 @ 게난 신부칩이 강 데려올 때 새서방이 못 가면 암창개렌.(그러니까 신부 집에 가서 데려올 때 새서방이 못 가면 '암창개'라고.)

112021 #1 으.(으.)

112021 @ 막 날 잡아신디 저기 새서방이 육지 군인 가가지고 못 들어왕예. 잔치날 못 들어왕 헐 때도 암창개렌 허쿠다예?(마구 날 잡았는데 저기 새서방이 육지 군인 가가지고 못 들어와서요. 잔칫날 못 들어와서 할 때도 '암창개'라고 하겠네요?)

112021 #1 게 경허주게.(그래 그러지.)

112022 @ 그걸 암창개렌 헐 거구나. 예, 예. 그럼 혹시 삼춘 주변에서 저기 결혼 못 헹 돌아가시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사람끼리 영 짝지여 가지고 결혼시켜 주는 경우도 잇어낫수과?(그걸 '암창개'라고 할 거구나. 예, 예. 그럼 혹시 삼촌 주변에서 저기 결혼 못 해서 돌아가시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사람끼리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결혼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112022 #1 아니 요번, 요 어느제도 허엿주게. 저 우리 권당네도.(아니 요번, 요 언제도 했지. 저 우리 권당네도.)

112022 @ 예, 어떵?(예, 어떻게?)

112022 #1 젊은 아이덜인디 이디 경허는 디가 셔. 경헤도 좋지 안헌덴 허여.(젊은 아이들인데 여기 그러는 데가 있어. 그래도 좋지 않다고 해.)

112022 @ 좋지 안헌덴 허여.(좋지 않다고 해.)

112022 #1 저 신흥동도 우리보단 우이 사름의 아덜허고 시에서 새각시 허연에 죽엉, 그 죽은 혼설 허는디.(저 신흥동도 우리보다 위에 사람의 아들하고 시에서 새색시 해서 죽어서, 그 죽은 혼사를 하는데.)

112022 @ 으.(으.)

112022 #1 그 새각시 칩이서 막 시집간 거칠록 이불도 허여 오고 막 허연 헤도 잘아이 뒛젠 허여. 언제 살아보고랑 그 죽엉 혼서허영 흔디 강 살카이? 이디 우리 조케네도 우리 육촌 오라방네도 뚤 백혈병으로 죽엇주게. 대학교 다 허고 헤 놘. 경허연에 오래비 수술헤연 와도 다 좋앗단 어떵헨 감기칠룩 헤연이 오꼿 죽언게.(그 새색시 집에서 아주 시집간 거처럼 이불도 해 오고 마구 해서 해도 잘 안 됐다고 해. 언제 살아봤다고 그 죽어서 혼사해서 같이 가서 살까? 여기 우리 조카네도 우리 육촌 오라버니네도 딸 백혈병으로 죽었지. 대학교 다 하고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오라비 수술해서 와도 다 좋았다고 어떡해서 감기처럼 해서 그만 죽었어.)

112022 @ 으.(으.)

112022 #1 경허난 가이영 이제 저 용수 저 웨아덜, 웨아덜 그디도 아판 죽고 허난 그디도 죽은 혼서 헤서. 흔디 간 묻언.(그러니까 그 아이랑 저 용수 저 외아들, 외아들 거기도 아파서 죽고 하니까 거기도 죽은 혼사 했어. 같이 가서 묻었어.)

112022 @ 으.(으.)

112022 #1 쌍묘로 흔디 강 묻고 식게 흔디 허고. 결혼헌 식으로 다 허연.(쌍묘로 같이 가서 묻고 식게 같이 하고 결혼한 식으로 다 했어.)

112022 @ 그럼 그런 거 죽은 혼서헐 때도 영 날 보고 헙니까?(그럼 그런 거 죽은 혼사할 때도 이렇게 날 보고 합니까?)

112022 #1 날 보앙 다 허주기게.(날 봐서 다 하지.)

112022 @ 크게 잔치 같은 건 안 헐 거고예?(크게 잔치 같은 건 안 할 거고요?)

112022 #1 으.(으.)

112022 @ 집이서만.(집에서만.)

112022 #1 으.(으.)

112022 @ 종종 잇구나예.(종종 있군요.)

112022 #1 으.(으.)

112022 @ 죽은 혼서렌 부르는 거예. 죽은 혼서?(죽은 혼사라고 부르는 거요. 죽은 혼사?)

112022 #1 으.(으.)

112023 @ 영 결혼허젠 허면 금기해야 뒈는 거 잇수과?(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면 금기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112023 #1 아니, 이젠 그런 금지 그런 건 엇어.(아니, 이젠 그런 금지 그런 건 없어.)

112023 @ 뭐 날짜 전이는 무신 어디.(뭐 날짜 전에는 무슨 어디.)

112023 #1 아니 영장난 디나 안 가민게.(아니 초상난 데나 안 가면.)

112023 @ 영장난 디 안 가민예?(초상난 데 안 가면요?)

112023 #1 으.(으.)

112023 @ 다른 금기는 엇인 거예?(다른 금기는 없는 거요?)

112023 #1 으.(으.)

상례

112024 @ 이제는 어른 돌아가셨을 때 여쭤 보쿠다예. 영 집이 잇인 어른 돌아가신 건 어떵 확인헙니까?(이제는 어른 돌아가셨을 때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어른 돌아가신 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112024 #1 집이서 죽는 사름이 하주게. 받아 앚앙.(집에서 죽는 사람이 많지. 받아 앉아서.)

112024 @ 예.(예.)

112024 #1 죽을 때에는 다 틀려.(죽을 때에는 다 틀려.)

112024 @ 응.(응.)

112024 #1 영 아팡 막 허당이라도 죽젠 허민 천장 봥 죽는 사름 싯고. 그냥 눈 곰앙 죽는 사름 싯고. 멧 가지주게.(이렇게 아파서 마구 하다가도 죽으려고 하면 천정 봐서

죽는 사람 있고. 그냥 눈 감아서 죽는 사람 있고. 몇 가지지.)

112024 @ 으.(으.)

112024 #1 경허민게 죽은 거 알앙. 나도 우리 시아방이 우리 집이 아방[420]은 하귀 교육받으레 가고. 아칙이 조반헹 먹엉. 조반은 ᄀᆞ치 먹엇주기게. 이제 우리 시아방은 칠월 초이틀 날이난 그때 싱거, 마농을 싱글 때라.(그러면 죽은 거 알아서. 나도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집의 아버지는 하귀 교육받으러 가고. 아침에 조반해서 먹어서. 조반은 같이 먹었지. 이제 우리 시아버지는 칠월 초이틀 날이니까 그때 심어, 마늘을 심을 때야.)

112024 @ 예.(예.)

112024 #1 겨난 우리 저 중학교 올레[421] 살 때난 이 스레트 올리난 막 돌멩이덜이 하난 나 마농 싱거도 돌멩이 흔 펜더레 줏어 놘에 그땐 그 자갈도 어려왕이 어디 질 따끄레 허민 자갈 줏으레 오랑 허주기게. 경허난 그걸 줏엉 놔뒷당 경헐 때에 지여가젠 이젠 굴체 가지레 나왕 보난 우리 하르방[422]이 저 혈압 셔난 셍이라게.(그러니까 우리 저 중학교 '올레' 살 때니까 이 슬레이트 올리니까 아주 돌멩이들이 많으니까 나 마늘 심어도 돌멩이 한 편으로 주워 놓고 그땐 그 자갈도 어려워서 어디 길 닦으러 하면 자갈 주우러 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걸 주워서 놔뒀다가 그럴 때에 지어가려고 이젠 삼태기 가지러 나와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 혈압 있었던 모양이야.)

112024 @ 으.(으.)

112024 #1 혈압 신디 술 먹엉게. 술 먹고 조반 먹언에 화장실에 간 오단 문입젱이 전이 영헤영 니치름[423] 질질 헤영 죽어가멘게.(혈압 있는데 술 먹어서. 술 먹고 조반 먹어서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문설주 전에 이렇게 '니치름' 질질 해서 죽어가고 있어.)

112024 @ 윽.(윽.)

112024 #1 아이고, 경허난 나 그 앞집이 삼춘신디 강 우리 하르방 다 죽엄수다 제기 옵서, 제기 옵서 헹 밧거리레 요 거져단 안거리레 들러 놓멍 헷저.(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앞집의 삼촌에게 가서 우리 할아버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게 오세요, 재게 오세요 해서 바깥채에 요 가져다가 안채에 들어 놓으면서 했어.)

112024 @ 아.(아.)

112024 #1 경헤영 오꼿 돌아간.(그래서 그만 돌아갔어.)

112024 @ 아. 경헨 돌아가셨구나 하는 거를, 숨 안 쉬엄구나 허는 거를 어떵 확인해? 여기 만져봐?(아.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거를, 숨 안 쉬고 있구나 하는 거를 어떻게 확인해? 여기 만져봐?)

112024 #1 다게 틀리다게. 사름이 죽으민.(다 틀린다. 사람이 죽으면.)

112024 @ 으. 코로 뭐 안 나왐구나?(으. 코로 뭐 안 나오는구나?)

112024 #1 어게. 옛날은.(그래. 옛날은.)

---

420)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자신을 남편을 가리킨다.
421)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422)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자신을 시아버지를 가리킨다.
423) '니치름'은 어린 아이나 소가 입에서 질질 흘리는 침을 말한다.

112024 @ 예.(예.)

112024 #1 으.(으.)

112025 @경 돌아가시면 이제 장 치르젠 허면은 장례를 치르젠 허면은 복부르기엔 허는 게 잇수과, 복부르기?(그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초상 치르려고 하면 복부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복부르기?)

112025 #1 몰라.(몰라.)

112025 @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112025 #1 아니, 그런 건 몰라.(아니, 그런 건 몰라.)

112025 @ 몰라, 예. 이젠 돌아가셩 장례 치룰 거예?(몰라, 예. 이젠 돌아가셔서 장례 치룰 거요?)

112025 #1 돌아가민이 매장허는 사름 빌어당 곱게 다 목욕시켱 옷 입지곡 다 허영 이제 관 목쉬, 이젠 ***덜 허당 저 관 짠 거 다 헤 왓주만은 엿날 다 이녁대로 허영 놔 둬. 픈는 디 엇이난.(돌아가면 매장하는 사람 빌려다가 곱게 다 목욕시켜서 옷 입히고 다 해서 이제 관 목수, 이젠 ***들 해다가 저 관 짠 거 다 해 왔지만 옛날 다 자기대로 해서 놔 둬. 파는 데 없으니까.)

112025 @ 예.(예.)

112025 #1 개판도 허영 놔두고 널도 허영 놔두고 ᄒᆞ꼼 사는 사름덜은. 경허민 이녁이 나이 들어가민 널도 허영 놔두고 개판도 헹 놔두민 이젠 그 목쉬 돌아당 개판이영 그 저 들여놀 관이영 다 짜고, 이제 매장 곱게 허영 들여놩 헤여낫주게.(개판도 해서 놔두고 널도 해서 놔두고 조금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가 나이 들어가면 널도 해서 놔두고 개판도 해서 놔두면 이젠 그 목수 데려다가 개판이랑 그 저 들여놓을 관이랑 다 짜고, 이제 매장 곱게 해서 들여놔서 했었지.)

112025 @ 으, 다 이녁냥으로?(으, 다 자기대로?)

112025 #1 어.(어.)

112025 @ 관을 짱 놔두는구나예?(관을 짜서 놔두는군요?)

112025 #1 어.(어.)

112026 @ 그민 묻어야 할 장지?(그럼 묻어야 할 장지?)

112026 #1 장진 정시허영 강 다 봉. 이젠 공동묘지 허영 조근조근 이녁 밧디만 헷주만은 다 잘 살아보젠 다 ᄒᆞ못 좋은 딜로만 허영 정시허영 다 땅 봐.(장지는 지관해서 가서 다 봐서. 이제 공동묘지 해서 차곡차곡 자기 밭에만 했지만 다 잘 살아보려고 다 사뭇 좋은 데로만 해서 지관해서 다 땅 봐.)

112026 @ 으.(으.)

112026 #1 땅 봐근에 놈의 밧디 강, 좋은 딘 강 또 산터 값 주멍. 경허영 영장을 헷주기게.(땅 봐서 남의 밭에 가서, 좋은 덴 가서 또 산터 값 주면서. 그래서 초상을 했지.)

112026 @ 정시 데령강?(지관 데려가서?)

112026 #1 으.(으.)

112026 @ 정시 뭐 들렁 갑니까? 그때?(지관 뭐 들고 갑니까? 그때?)
112026 #1 놓는 그 무시것이 다 싯주게.(놓은 그 무엇이 다 있지.)
112026 @ 영 헹 방향 가리키는 거예?(이렇게 해서 방향 가리키는 거요?)
112026 #1 으.(으.)
112026 @ 그거 들렁 강예?(그거 들고 가서요?)
112026 #1 어.(어.)
112028 @ 수의, 돌아가시면은 옷 입어야 헐 거 아니, 상복?(수의, 돌아가시면 옷 입어야 할 거 아니, 상복?)
112028 #1 상복 허젠 허민 여저덜은 다 상복덜 몰르멍 두건 좁으멍 막 허민 사둔칩이서 죽덜 쒀 오주게. 경허민 그 널 허는 날.(상복 하려고 하면 여자들은 다 상복들 마르면서 두건 접으면서 마구 하면 사돈집에서 죽들 쒀서 오지. 그러면 그 널 하는 날.)
112028 @ 으.(으.)
112028 #1 경허민 그 죽 흔 사발썩 먹고 다.(그러면 그 죽 한 사발씩 먹고 다.)
112031 @ 무슨 죽 쒕 와?(무슨 죽 쒀서 와?)
112031 #1 풋죽게.(팥죽.)
112031 @ 풋죽예?(팥죽요?)
112031 #1 으. 비림[424] 삭아지우크라.(으. '비림' 삭히겠어.)
112031 @ 비림 삭아지우크라?('비림' 삭히겠어?)
112031 #1 으.(으.)
112031 @ 그게 뭐?(그게 뭐?)
112031 #1 ᄒᆞ꼼게 장난 디 거세기 헌 건 풋으로 ᄒᆞ꼼이. 이 풋이 질 그런 거 허는 디 씨는 거 아니가게.(조금 초상난 데 거시기 한 건 팥으로 조금. 이 팥이 제일 그런 거 하는 데 쓰는 거 아니냐.)
112031 @ 예, 귀신 뭐 헐 때.(예. 귀신 뭐 할 때.)
112031 #1 어. 겨난 풋 놩 죽 쒕.(어. 그러니까 팥 놔서 죽 쒀서.)
112031 @ 예.(예.)
112031 #1 이제도 이디 널 허는 날은 풋 놩 죽 쒀.(이제도 여기 널 하는 날은 팥 놔서 죽 쒀.)
112031 @ 널 허는 날이 뭐 허는 날?(널 하는 날이 뭐 하는 날?)
112031 #1 관, 관 짱 들여놓는 날.(관, 관 짜서 들여놓는 날.)
112031 @ 아, 관 짱 그 안에?(아, 관 짜서 그 안에?)
112031 #1 으, 들여놩 못 딱딱 박는 날이 관 짜는 날 풋죽 쒕 먹는 날. 이제 이디도 경허여. 성당에서도 경허여.(으, 들여놔서 못 딱딱 박는 날이 관 짜는 날 팥죽 쒀서 먹는 날. 이제 여기도 그래. 성당에서도 그래.)
112031 @ 아, 널 허는 날.(아, 널 하는 날.)

424) '비림'은 '비리다'에서 온 말로, '비리다'는 큰일을 앞두고 몸엣것을 하거나 꺼리어 피해야 할 송장이나 마소의 죽은 것 따위를 보고 몸이 부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112031 #1 으.(으.)

112031 @ 게민 그날 동네 어른덜이 저기 친척덜이.(그럼 그날 동네 어른들이 저기 친척들이.)

112031 #1 다 간다.(다 간다.)

112028 @ 상복도 허고 허는 거라.(상복도 하고 하는 거야.)

112028 #1 경헌디 이젠 다.(그런데 이젠 다.)

112028 @ 미리.(미리.)

112028 #1 미리, 다 사단게.(미리, 다 사다가.)

112028 @ 사당.(사다가.)

112028 #1 불렁. 관이고 뭣이고 불르난게. 관 허는 날은 불렁 들여놀 때 풋죽덜이영 쒕.(불러서. 관이고 뭐고 부르니까. 관 하는 날은 불러서 들여놓을 때 팥죽들이랑 쒀서.)

112028 @ 쒕 먹는 거?(쒀서 먹는 거?)

112028 #1 사둔네 집이서 이젠 멀엉 안 허민 본주에서 풋 상 죽 쒕 먹나게. 경허민 본주, 저 사둔덜은 물른 거, 저 라면 거튼 거 우동 거튼 거 놓앙 테와.(사돈네 집에서 이젠 멀어서 안 하면 본주에서 팥 사서 죽 쒀서 먹어. 그러면 본주, 저 사돈들은 마른 거, 저 라면 같은 거 우동 같은 거 놔서 태워.)

112028 @ 하하, 요즘은. 수의는 어떵 장만헤낫수과?(하하, 요즘은. 수의는 어떻게 장만했었습니까?)

112028 #1 수의?(수의?)

112028 @ 예.(예.)

112028 #1 쉬읜 옷?(수의는 옷?)

112028 @ 옷. 돌아가신 분 입는 옷을 뭐렌 골읍니까?(옷. 돌아가신 분 입는 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112028 #1 저 거세기, 장옷게.(저 거시기, 장옷.)

112028 @ 장옷?(장옷?)

112028 #1 으.(으.)

112028 @ 그 장옷은 어떵 마련해낫수과?(그 장옷은 어떻게 마련했었습니까?)

112028 #1 다 이녁대로 허영 놔두주. 엿날 멩지, 베로게.(다 자기대로 해서 놔두지. 옛날 명주, 베로.)

112028 @ 예. 미릇 경 만들엉 놔두는 거라예?(예. 미리 그렇게 만들어서 놔두는 거지요?)

112028 #1 으.(으.)

112028 @ 게민 상복도 만들앙 놔두는 거는 아니잖아?(그럼 상복도 만들어서 놔두는 거는 아니잖아?)

112028 #1 상복은게 그날사 멘든다게.(상복은 그날에야 만든다.)

112028 @ 게민 천은 그냥 사단?(그럼 천은 그냥 사다가?)

112028 #1 으.(으.)

112028 @ 베 사단, 미녕 사단?(베 사다가, 무명 사다가?)

112028 #1 으, 아니 미녕은 안 허고 베.(으, 아니 무명은 안 하고 베.)

112028 @ 그 여저덜 광목치마?(그 여자들 광목치마?)

112028 #1 광목치만 사단. 베 신 사름은 베치마.(광목치만 사다가. 베 있는 사람은 베치마.)

112029 @ 으. 베치마 허고. 그 장례식 헐 때 영 상제들 짚는 거 있잖아예. 걸 뭐렌 헙니까?(으. 베치마 하고. 그 장례식 할 때 이렇게 상제들 짚는 거 있잖아요. 걸 뭐라고 합니까?)

112029 #1 건 저 거세기.(건 저 거시기.)

112029 @ 찝동? 상장?('짚동'? 상장?)

112029 #1 아니, 찝동은 영 찝으로 허영 무껑 요 지러기 허영.(아니, '짚동'은 이렇게 해서 묶어서 요 길이 해서.)

112029 @ 예.(예)

112029 #1 옆이 놩 절허고 저, 방장대.(옆에 놔서 절하고 저, 상장.)

112029 @ 예, 방장대. 방장대예. 어무니 돌아가셨을 때랑 아부지 돌아가셨을 때 낭이 트나잖아?(예, 상장. 상장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랑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무가 다르잖아?)

112029 #1 트나.(달라.)

112029 @ 예. 무슨 낭으로 헙니까?(예. 무슨 나무로 합니까?)

112029 #1 아방 죽은 땐 대. 무디무디 허고 이제 할망 죽을 땐 무신 낭이렌 헤라 것ᄀᆞ라.(아버지 죽은 땐 대. 마디마디 하고 이제 할머니 죽을 땐 무슨 나무라고 하더라 것 보고.)

112029 @ 가시낭?(가시나무?)

112029 #1 가시낭이라도 막 좇은 거.(가시나무라도 마구 잦은 거.)

112029 @ 게니까 가시 막 도도도도 난 거.(그러니까 가시 마구 도도도도 난 거.)

112029 #1 하여튼 무신 낭이렌 헤라.(하여튼 무슨 나무라고 하더라.)

112029 @ 먹쿠실낭?(멀구슬나무?)

112029 #1 아니, 먹쿠실낭 아니.(아니, 멀구슬나무 아니.)

112029 @ 가시 막 난 거예?(가시 마구 난 거요?)

112029 #1 어떵헌 것산디. 그 무신 낭이렌 헤라.(어떠한 것인지. 그 무슨 나무라고 하더라.)

112029 @ 예, 아부지 돌아가시면은?(예, 아버지 돌아가시면?)

112029 #1 대. 어떵 허당 혼 번썩 무디무디 허는 거난 방장대 대로 허고.(대.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마디마디 하는 거니까 상장 대로 하고.)

112029 @ 예.(예.)

112029 #1 어무니 돌아가민 매번 생각나난 그 아메도 가시라도 좇게 돋아진 거 무신, 무신 낭이렌 헤라만은 것ᄀᆞ라.(어머니 돌아가면 매번 생각나니까 그 아무래도 가시

라도 잦게 돋힌 거 무슨, 무슨 나무라고 하더라만 것보고.)
112029 @ 으.(으.)
112029 #1 틀려.(달라.)
112029 @ 찝동은?('짚동'은?)
112029 #1 찝동은 건 아방 죽으나 어멍 죽으나 찝동은 뭐.('짚동'은 건 아버지가 죽으나 어머니가 죽으나 '짚동'은 뭐.)
112029 @ 건 무사 만드는 거라?(건 왜 만드는 거야?)
112029 #1 건 모르켜.(건 모르겠어.)
112029 @ 어쨌든 방장대는 영 지프는 거고예?(어쨌든 상장은 이렇게 짚는 거고요?)
112029 #1 어. 찝동은 옆이 놓는 거, 거.(어. '짚동'은 옆에 놓는 거, 거.)
112030 @ 예. 두건 옛날에 다 만들앙 나눠줘낫잖아예? 멧 촌까지 두건을 줘낫수과?(예. 두건 옛날에 다 만들어서 나눠줬었잖아요? 몇 촌까지 두건을 줬었습니까?)
112030 #1 권당게, 권당 얼마 하지 안헌 딘 권당이민 다 주엇주만은.(권당, 권당 얼마 많지 않은 덴 권당이면 다 주었지만.)
112030 @ 예.(예.)
112030 #1 이젠 친목이여 뭣이여, 중간엔 막 하영 주고 오는 사름 다 주고 허여 낫주만은 이젠 경도 안 허여.(이젠 친목이며 뭣이며, 중간에는 아주 많이 주고 오는 사람 다 주고 했었지만 이젠 그렇게도 안 해.)
112030 @ 예.(예.)
112030 #1 두건 필요 엇인디 헐 필요가 엇주게.(두건 필요 없는데 할 필요가 없지.)
112030 @ 예.(예.)
112030 #1 게난 하영 안 허여.(그러니까 많이 안 해.)
112030 @ 복치메는?(복치마는?)
112030 #1 복치메는게 ᄉᆞ춘덜토 주고 이제 조카덜토 주고.(복치마는 사촌들도 주고 이제 조카들도 주고.)
112030 @ 이제 ᄉᆞ춘이랑 조카예?(이제 사촌이랑 조카요?)
112030 #1 으, 누님, 누님 그런 디 주고.(으, 누님, 누님 그런 데 주고.)
112030 @ 게민 지금이야 다 불렁 쓰주만은.(그럼 지금이야 다 불러서 쓰지만.)
112030 #1 엿날은이.(옛날은.)
112030 @ 으.(으.)
112030 #1 우리 할머니네 돌아간 때 딱 베치메도 오는 냥 헤 주저 허민, 허난 아덜, 큰아덜에 믿이로 하나.(우리 할머니네 돌아간 때 딱 베치마도 오는 대로 해 주려고 하면, 하니까 아들, 큰아들에 맏이로 하나.)
112030 @ 으.(으.)
112030 #1 족은 아덜에도 믿이로 하나. 아기 하나에 베치메 하나썩만 줘난 셍이라.(작은 아들에도 맏이도 하나. 아기 하나에 베치만 하나씩만 줬던 모양이야.)
112030 @ 으.(으.)

112030 #1 뚤덜.(딸들.)

112030 @ 예.(예.)

112030 #1 겨난 난 우리 ᄉᆞ춘덜이영은 나가 우주게.(그러니까 난 우리 사촌들이랑은 내가 위지.)

112030 @ 예.(예.)

112030 #1 게난 우리 언니 베치메 주궈렌 나를 베치메 아이 줘.(그러니까 우리 언니 베치마 줬다고 나를 베치마 안 줘.)

112030 @ 하하.(하하.)

112030 #1 날보단 아랫 아시덜, ᄉᆞ춘덜은 다 베치메 주고. 게난 나도 ᄋᆞ망져난 셍이라.(나보다 아래 아우들, 사촌들은 다 베치마 주고. 그러니까 나도 똑똑했던 모양이야.)

112030 @ 예.(예.)

112030 #1 우리, 우리 어무니신디 난 똑ᄀᆞ튼 할망이고 난 무사 베치메 안 줨수겐. 다 준디 허난.(우리, 우리 어머니에게 난 똑같은 할머니고 난 왜 베치마 안 주냐고. 다 줬는데 하니까.)

112030 @ 하하.(하하.)

112030 #1 아이고, 나 뚤아, 나 나가 허여 주마. 저 다 족은아방네 아기도 하나, 우리도 하나난 느네 성 헤여 주고.(아이고, 나 딸아, 나 내가 해 주마. 저 다 작은아버지네 아기도 하나, 우리도 하나니까 너희 형 해 주고.)

112030 @ 예.(예.)

112030 #1 이제 다 하나썩 허여 주난 는 안 헤 주난 나가 헤 주켜, 헤 주켜 나 달래난 거 알아지크라.(이제 다 하나씩 해 주니까 넌 안 해 주니까 내가 해 주겠어, 해 주겠어 나를 달랬던 거 알겠어.)

112030 @ 하하하.(하하하.)

112030 #1 막 기분이 팍 나빳고.(아주 기분이 팍 나빴고.)

112030 @ 하하하. 게난 그거 기억남수과?(하하하. 그러니까 그거 기억납니까?)

112030 #1 기억나주게.(기억나지.)

112030 @ 삼춘 그거 몇 살 때?(삼촌 그거 몇 살 때?)

112030 #1 시집 아이 갈 때, 어린 때나.(시집 안 갈 때, 어린 때나.)

112030 @ 어릴 때. 다 주는디 ᄉᆞ춘도 다 받아신디.(어릴 때. 다 주는데 사촌도 다 받았는데.)

112030 #1 날보단 아래라도 다 준디게 나만 아이 줘 보라.(나보다 아래라도 다 줬는데 나만 안 줘 봐.)

112030 @ 예.(예.)

112030 #1 ᄀᆞ튼 연령이고 흔 설 날보단 알이주기게 다. 경허연.(같은 연령이고 한 살 나보다 아래지 다. 그랬어.)

112030 @ 그거 지금이야 다 주문허는 거지만은 옛날엔 그 두건이랑 복치메 다 만들어실 거 아니예?(그거 지금이야 다 주문하는 거지만 옛날은 그 두건이랑 복치마 다 만

들었을 거 아니요?)
112030 #1 으.(으.)
112030 @ 집이서들. 그거 뭐 저기 상제 옷 멘들 때 ᄀᆞ치?(집에서들. 그거 뭐 저기 상제 옷 만들 때 같이?)
112030 #1 으, ᄀᆞ치 다.(으, 같이 다.)
112030 @ 누게가 멘듭니까, 동네 사름덜이 만드는 거?(누가 만듭니까,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거?)
112030 #1 으.(으.)
112030 @ 동네 다 영장낫젠 허민덜.(동네 다 초상났다고 하면들.)
112030 #1 으, 영장낫젠 허면덜 왕예?(으, 초상났다고 하면들 와서요?)
112031 @ 그 팟, 풋죽은 그 어느 날 먹는 거라?(그 팥, 팥죽은 그 어느 날 먹는 거야?)
112031 #1 널 허는 날. 관 허는 날.(널 하는 날. 관 하는 날.)
112031 @ 널 허는 날 먹는 거 풋죽은.(널 하는 날 먹는 거 팥죽은.)
112031 #1 으, 으.(으, 으.)
112031 @ 사둔칩이서 헹 오는 거.(사돈집에서 해서 오는 거.)
112031 #1 어.(어.)
112032 @ 성복제가 뭐과, 성복제?(성복제가 뭡니까, 성복제?)
112032 #1 성복젠게 저 성복제 지내어사게 영장, 그것이 성복제 지냄젠 허주게. 관 허영 다 들여놩.(성복제는 저 성복제 지내어야 초상, 그것이 성복제 지낸다고 하지. 관 해서 다 들여놔서.)
112032 @ 예.(예.)
112032 #1 경허여근에 제지내는 거주기게. 성복제.(그래서 제지내는 거지. 성복제.)
112032 @ 기민 성복제가 아까 널 허는 날 아까 성복제를 지내는 거라?(그럼 성복제가 아까 널 하는 날 아까 성복제를 지내는 거야?)
112032 #1 어.(어.)
112032 @ 관이영 다.(관이랑 다.)
112032 #1 다 헤영 놩 허는 것이 성복제.(다 해서 놔서 하는 것이 성복제.)
112032 @ 그게 성복제. 널 허는 날예?(그게 성복제. 널 하는 날요?)
112032 #1 으.(으.)
112032 @ 게민 이날 풋죽 먹는 거네?(그럼 이날 팥죽 먹는 거네?)
112032 #1 어게. 그날 풋죽 먹엉 ᄌᆞ냑인 제지낸다게.(그래. 그날 팥죽 먹어서 저녁엔 제지내.)
112033 @ 제지내는 거고예. 그리고 일포제는?(제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일포제는?)
112033 #1 일포제는 널 묻으민 오널 ᄌᆞ냑이.(일포제는 내일 묻으면 오늘 저녁에.)
112033 @ 오널 ᄌᆞ냑이.(오늘 저녁에.)
112033 #1 건 뚤이, 엿날은 뚤이 출려낫주기게. 큰뚤.(건 딸이, 옛날은 딸이 차렸었

지. 큰딸.)

112033 @ 아, 일포제는 큰뚤이 출리는 거?(아, 일포제는 큰딸이 차리는 거?)

112033 #1 어.(어.)

112033 @ 게민 그날 먹는 거는 다 큰똘이 내는 거?(그럼 그날 먹는 거는 다 큰딸이 내는 거?)

112033 #1 아니, 주냑제 헐 때.(아니, 저녁제 할 때.)

112033 @ 아, 주냑제 헐 때.(아, 저녁제 할 때.)

112033 #1 으, 제지낼 때 떡이여 메여 이제 허영.(으, 제지낼 때 떡이며 메며 이제 해서.)

112033 @ 돌아가시민 영 장례 지낼 때 제를 몇 번이나 허는 것과?(돌아가시면 이렇게 장례 지낼 때 제를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112033 #1 제 이딘이 다 성당덜 믿언 다 허여 비난이.(제 여기는 다 성당들 믿어서 다 해 버리니까.)

112033 @ 지금 말앙 삼춘 옛날에, 시아부지 돌아가실 때 어떵, 몇 번이나 헤낫수과?(지금 말고 삼촌 옛날에,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112033 #1 저, 이 일포젠 건 묻는 날 아니난 경허고 이레 저 엿날 나아가젠 허민 다 제지냉 다 절허영 동간 허영 나가고. 이제 그 영장 묻을 디가 놀 때에 따시 상 놩 이제 허곡 이젠 묻으레 가젠 동간 허영 가젠 허민 다 잔 들이고 다 허영 간 묻은 다음에 이젠 다 절허고 경헤낫주기게.(저, 이 일포제는 건 묻는 날 아니니까 그리고 이리 저 옛날 나가려고 하면 다 제지내서 다 절해서 동간 해서 나가고. 이제 그 초상 묻을 데가 놓을 때에 다시 상 놔서 이제 하고 이젠 묻으러 가려고 동간 해서 가려고 하면 다 잔 들이고 다 해서 가서 묻은 다음에 이젠 다 절하고 그랬었지.)

112033 @ 으, 으.(으, 으.)

112033 #1 겨난 이디서 나아가젠 허민 제 혼 번.(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제 한 번.)

112033 @ 돌아가셨을 때부터 먼저 세 보게마씨.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허는 건 아까 성복제가 제일 먼저?(돌아가셨을 때부터 먼저 세 봐요.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아까 성복제가 제일 먼저?)

112033 #1 어, 어.(어, 어.)

112033 @ 그다음?(그다음?)

112033 #1 그다음은 뒷냇날은게 그냥 제 일포날도 제는 헤사. 성복제 허는 날은게.(그다음은 뒷날은 그냥 제 일포 날도 제는 해야. 성복제 하는 날은.)

112033 @ 예, 일포 날도.(예, 일포 날도.)

112033 #1 게난 삼시게.(그러니까 삼시.)

112033 @ 삼시 제 허는 거예?(삼시 제 하는 거요?)

112033 #1 으, 으.(으, 으.)

112033 @ 예. 일포 날 삼시 제 허고. 오늘 묻을 거민?(예. 일포 날 삼시 제 하고. 오

늘 묻을 거면?)

112033 #1 그 아칙이 나가멍 이제 잔 드리고 제 허영 이제 나가.(그 아침에 나가면서 이제 잔 드리고 제 해서 이제 나가.)

112033 @ 으.(으.)

112033 #1 또시 영장밧디 강 놓민, 놓민 이젠 저 제 드려.(또 장지에 가서 놓으면, 놓으면 이젠 저 제 드려.)

112033 @ 으.(으.)

112033 #1 그디 강 놩 제 드려 놩 이제 저 동간 허영 묻으러 갈 때, 아이 건 아니 믿는 식으로라.(거기 가서 놔서 제 드려 놔서 이제 저 동간 해서 묻으러 갈 때, 아니 건 안 믿는 식으로야.)

112033 @ 으.(으.)

112033 #1 경허여근에 제 드령 묻어난 다음에 또 제 허영 오는 거주기게.(그래서 제 드려서 묻은 다음에 또 제 해서 오는 거지.)

112033 @ 아, 묻어난 다음에 또 제 드리는 거?(아, 묻은 다음에 또 제 드리는 거?)

112033 #1 으, 상 다 마무리허영 이젠 우린 감수다 허영 제 드령 오는 거.(으, 상 다 마무리해서 이젠 우린 갑니다 해서 제 드려서 오는 거.)

112033 @ 게민 일포제는 하는 삼시 허는, 세 번 허는 거잖아예?(그럼 일포제는 하는 삼시 하는, 세 번 하는 거잖아요?)

112033 #1 어. 그날은 먹어, 우리 밥 먹듯이 삼시.(어. 그날은 먹어, 우리 밥 먹듯이 삼시.)

112033 @ 그민 성복제는 한 번만 허는 거고.(그럼 성복제는 한 번만 하는 거고.)

112033 #1 으.(으.)

112025 @ 그 돌아가셨을 때 왜 혼이 날아가니까 지붕에 올랑 성복제 허기 전에 혼 불러오는?(그 돌아가셨을 때 왜 혼이 날아가니까 지붕에 올라서 성복제 하기 전에 혼 불러오는?)

112025 #1 그건 널 허는 날 혼불르는 거주기게.(그건 널 하는 날 복부르는 거지.)

112025 @ 널 허는 날예. 지붕 올라강 옵서, 옵서 허는?(널 하는 날요. 지붕 올라가서 오세요, 오세요 하는?)

112025 #1 이제 경 안허여.(이제 그렇게 안 해.)

112025 @ 안 헤.(안 해.)

112025 #1 엿날이 경 헷주.(옛날에 그렇게 했지.)

112025 @ 그니까 엿날에, 엿날에?(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112025 #1 엿날은 경 혼불러낫저게.(옛날은 그렇게 복불렀었어.)

112025 @ 예. 올라가 가지고예?(예. 올라가 가지고요?)

112025 #1 아니.(아니.)

112025 @ 어디서?(어디서?)

112025 #1 그냥 저 방에서라도 그 영장 신 디서라도.(그냥 저 방에서라도 그 송장

있는 데서라도.)

112034 @ 아, 영장 신 디서. 옛날에 그럼 지금 말고 옛날에 부조랑 조문은 어떵 헤낫수과? 부조는?(아, 영장 있는 데서. 옛날에 그럼 지금 말고 옛날에 부조랑 조문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부조는?)

112034 #1 부조는게 고적[425] 썰게. 고적 썰 두 뒈썩.(부조는 '고적' 쌀. '고적' 살 두 되씩.)

112034 @ 뭐가 고적 썰이라?(뭐가 고적 쌀이야?)

112034 #1 그 고적 썰이렌 헌 것이 저 영장 때 헤 가는 것이 고적이엔 허주게.(그 '고적' 쌀이라고 하는 것이 저 초상 때 해 가는 것이 '고적'이라고 하지.)

112034 @ 아, 영장 때 헤 가는 게 고적이라?(아, 초상 때 해 가는 게 '고적'이야?)

112034 #1 으, 고적 썰 허는 사름덜 다 온다게.(으, '고적' 쌀 하는 사람들 다 온다.)

112034 @ 그건 친척인 거예?(그건 친척인 거요?)

112034 #1 으, 친척.(으, 친척.)

112034 @ 권당예.(권당요.)

112034 #1 쏠 두 뒈게.(쌀 두 되.)

112034 @ 쏠 두 뒈.(쌀 두 되.)

112034 #1 겨난이 엿날은, 이젠 영장을 허나 잔치를 허나 허여도 돈 벌엄저 허지만은 엿날은 빗이라낫주기게. 그 쏠 두 뒈썩 받은 걸로 영장 쳐지느냐? 못 쳐. (그러니까 옛날은, 이젠 초상을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해도 돈 번다고 하지만 옛날은 빚이었지. 그 쌀 두 되씩 받은 걸로 초상 치를 수 있니? 못 치러.)

112034 @ 으.(으.)

112034 #1 건 어림도 엇주게. 경허난 우리 시아방도 이제 우리 시누이가 전이 밧 줘도 우리 시어멍이 오꼿 이디서 죽엇주게. 이디 집, 이 방에서. 죽으멍은 우리 시누이 물질 가 불고 볼레섬[426] 요디 밧이 두 개 시난 하나랑 느네 감제 메나 놓고 하나랑 이제 느네 시누이 주라 허난. 이제 우리 시아방 왔을 때 어머님 영 허영 헙디덴 허난 하르방이 욕을 허멍 들러퀴는 거라.(건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도 이제 우리 시누이가 전에 밭 줘도 우리 시어머니가 그만 여기서 죽었지. 여기 집, 이 방에서. 죽으면서 우리 시누이 물질 가 버리고 '볼레섬' 요기 밭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너희 고구마 모종이나 놓고 하나는 이제 너희 시누이 줘라 하니까.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왔을 때 어머님 이렇게 해서 합디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날뛰는 거야.)

112034 @ 으.(으.)

112034 #1 나 아덜덜 다 이디 셔시민 아덜 하나에 밧 하나토 아이 뭴 건디 한원리[427] 밧 주민 말지 으, 이 볼레섬알롸 거느렴젠. 볼레섬은 이제 나 죽으민 초상 빗이고 이제 쉐 이제 질루는 건 느네멍 죽으민 이제 초상 빗으로 험베끼 어디 돈 시넨.(나 아들들 다 여기 있었으면 아들 하나에 밭 하나도 안 될 건데 한원리 밭 주면 말지 으,

425) '고적'은 일가에 경조사가 생겼을 적에 친척끼리 만들어 가는 부조떡이나 쌀을 말한다.
426) '볼레섬'은 한경면 신창리의 지명이다.
427) '한원리'는 제주시 한경면의 한원리를 말한다.

이 ‘볼레섬’마저 거느린다고. ‘볼레섬’은 이제 나 죽으면 초상 빚이고 이제 소 이제 기르는 건 너희 어머니 죽으면 이제 초상 빚으로 하기밖에 어디 돈 있냐고.)

112034 @ 으.(으.)

112034 #1 이젠 경허난 이젠 저 우리 시누인 그 밧을 주카부덴 저디서 메타기[428] 허여 난 ᄀᆞ시락 담으멍 감제 이제 육지서 와시메 강 벌도 못허고 감제 싱경 약값이나 허렌 이젠 경 허난, 우린 시누인 날 영 줌으로 쥠수과, 그냥 임시로 쥠수과 허난, 나 임시로 너 육지서 오난 이제 가도 벌이 못 허난 그거 허영 약값이나 허렌 헴젠 나 임시로, 저 물려줄 밧 어느 것곤 허멍.(이제 그러니까 이젠 저 우리 시누이는 그 밭을 줄까 봐 저기서 ‘메타기’ 하고 난 까끄라기 담으면서 고구마 이제 육지에서 왔으니까 가서 벌지도 못하고 고구마 심어서 약값이나 하라고 이젠 그렇게 하니까, 우린 시누이는 날 이렇게 주기로 줍니까, 그냥 임시로 줍니까 하니까, 나 임시로 너 육지에서 오니까 이제 가도 벌이 못 하니까 그거 해서 약값이나 하라고 한다고 나 임시로, 저 물려줄 밭 어느 것인가 하면서.)

112034 @ 음.(음.)

112034 #1 야단헌 게 막 싸왓주기게.(야단한 게 마구 싸웠지.)

112034 @ 으.(으.)

112034 #1 당그네로 불치 담으멍덜, 싸와도 난 나 밧 아니고 임제가 주기로 허민 주곡 실프민 말곡.(고무래로 재 담으면서들, 싸워도 난 내 밭 아니고 임자가 주기로 하면 주고 싫으면 말고.)

112034 @ 하하하. 그지예.(하하하. 그렇지요.)

112034 #1 신경 안 썬. 난 방 청소허고 그자 집잇일 허멍 허난. 경허난 이제 우리 시누이 버버직직 허멍 이젠 영장은 문 빗이주게.(신경 안 썼어. 난 방 청소하고 그저 집안일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누이 버버직직 하면서 이젠 초상은 모두 빚이지.)

112034 @ 으.(으.)

112034 #1 그땐 대소상 헐 때난이 우린 우둥 허멍 다 손님덜 멕엿주게.(그땐 대소상 할 때니까 우린 우동 하면서 다 손님들 먹였지.)

112034 @ 으.(으.)

112034 #1 게난 우둥 헴젠 허민 옛날엔 우둥 벨미로 알앗주게. 막 손님이 하 놓난. 빵떡 이제 보름떡 헹 궁글궁글 놩 ᄀᆞ는대바구리[429]에 재영 뎅길 때라. 떡 흔 열 몇 개쯤 들엉 오곡 허난. 떡은 이만이 허여도게 그거 무신 빗 물어져사게.(그러니까 우동 한다고 하면 옛날엔 우동 별미로 알았지. 아주 손님이 많아 놓으니까. 빵떡 이제 보름떡 해서 둥글둥글 놔서 ‘ᄀᆞ는대바구리’에 쟁여서 다닐 때야. 떡 한 열 몇 개쯤 들어서 오고 하니까. 떡은 이만큼 해도 그거 무슨 빚 물 수 있어.)

112034 @ 으, 으.(으, 으.)

---

428) ‘메타기’는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둘 때 사용하는 모터가 달린 기계를 말한다.

429) ‘ᄀᆞ는대바구리’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짠 장방형 바구니를 말한다. ‘ᄀᆞ는대구덕’, ‘ᄀᆞᆫ대구덕’이라고도 한다.

112034 #1 게난 쉐 풀앙 빗 물멍 헷주게.(그러니까 소 팔아서 빚 물면서 했지.)

112034 @ 으.(으.)

112034 #1 경허고 저 하도 밧 아이 준덴 헤 가난 우리 집이 아방 풀아 벤게. 시아방 죽으난. 이 우글랑우글랑 헌 소리 듣고 싶지 안허덴.(그리고 저 너무 밭 안 준다고 해 가니까 우리 집의 아버지 팔아 버렸어. 시아버지 죽으니까. 이 '우글랑우글랑' 한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112034 @ 으.(으.)

112034 #1 풀지 안헐 밧 풀앗주게. 하도 저거 들라쿼 부난.(팔지 않을 밭 팔았지. 너무 저거 날뛰 버리니까.)

112034 @ 저거?(저거?)

112034 #1 시누이.(시누이.)

112034 @ 시누이가.(시누이가.)

112034 #1 경헤낫저.(그랬었어.)

112034 @ 아.(아.)

112034 #1 게난 쏠 두 뒈. 초상에.(그러니까 쌀 두 되. 초상에.)

112034 @ 초상에.(초상에.)

112034 #1 대소상 헐 땐 ᄇᆞᆷ빵 흔 돌레기. 부주가.(대소상 할 땐 상화떡 한 바구니. 부조가.)

112034 @ 그 ᄇᆞᆷ빵이 상웨떡 얘기허는 거?(그 'ᄇᆞᆷ빵'이 상화떡 얘기하는 거?)

112034 #1 어.(어.)

112034 @ 뭐로 만들언?(뭐로 만들었어?)

112034 #1 밀카루로 멘들어라, 그때도.(밀가루로 만들더라, 그때도.)

112034 @ 상웨떡 한 바구니.(상화떡 한 바구니.)

112034 #1 경허난 그디서도 막 이 손님도 금지헤낫저게.(그러니까 거기서도 마구 이 손님도 금지했었어.)

112034 @ 무사?(왜?)

112034 #1 막 그거 낭비허고 허난 조용히 허라.(마구 그거 낭비하고 하니까 조용히 해라.)

112034 @ 아, 그건 조금 지낭 아니?(아, 그건 조금 지나서 아니?)

112034 #1 전이게 전이.(전에 전에.)

112034 @ 한 칠십 년대.(한 칠십 년대.)

112034 #1 어.(어.)

112034 @ 아이덜 클 때예?(아이들 클 때요?)

112034 #1 어.(어.)

112034 @ 예, 예.(예, 예.)

112034 #1 경허난에 금지허민 그땐 ** 담으로덜 넴경 들어오멍 헤낫어.(그러니까 금지하면 그땐 ** 담으로들 넘겨서 들어오면서 했었어.)

112034 @ 하하하. 금지허니까.(하하하. 금지하니까.)

112034 #1 방탕시럽게 허영 먹지 말앙 조용히 식게칠룩 헤영 먹으라 허여낫주기게.(방탕하게 해서 먹지 말고 조용히 제사처럼 해서 먹어라 했었지.)

112034 @ 으, 으.(으, 으.)

112034 #1 하도 저 슝년 뒈곡게 하도 허여 가난게. 경헤 가민 아메도 빗이 더 나주게.(너무 저 흉년 되고 너무 해 가니까. 그래 가면 아무래도 빚이 더 나지.)

112034 @ 으. 게난 쏠 두 뒈 받고.(으. 그러니까 쌀 두 되 받고.)

112034 #1 우리 잔치헐 때도 마찬가지.(우리 잔치할 때도 마찬가지.)

112034 @ 으.(으.)

112034 #1 이젠 돈 부주 나고, 우리 집이 큰아덜 풀 때까진 이젠 쏠 부주헤서. 경허난 우리 부인회에서덜토 쏠을 허지 말앙 돈으로 닮은 얼매, 그 쏠 들어온 거 풀젠 허민 깎앙 풀곡게.(이젠 돈 부조 나고, 우리 집의 큰아들 팔 때까진 이젠 쌀 부조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인회에서들도 쌀을 하지 말고 돈으로 닮은 얼마, 그 쌀 들어온 거 팔려고 하니까 깎아서 팔고.)

112034 @ 으.(으.)

112034 #1 경허난 닮은 돈, 적게라도 돈으로 허는 것이 어떵허냐 헨 경허영 우리 집이 셋아덜 풀 때부터 돈 삼천 원썩 언매썩 허영 와낫저.(그러니까 닮은 돈, 적게라도 돈으로 하는 것이 어떠하냐 해서 그래서 우리 집의 둘째 아들 팔 때부터 돈 삼천 원씩 얼마씩 해서 왔었어.)

112034 @ 예. 게난 먹으러는 동네 사름이영 친척이영 다 올 거고?(예. 그러니까 먹으러는 동네 사람이랑 친척이랑 다 올 거고?)

112034 #1 으.(으.)

112035 @ 올 거고예, 예. 부주는 그거로 허는 거라예. 저기 토신제가 뭐과, 토신제?(올 거고요, 예. 부조는 그거로 하는 거지요. 저기 토신제가 뭡니까, 토신제?)

112035 #1 토신젠 땅에, 땅에나 이디 영 이디 들어감수다 허는 것ᄀᆞ라 토신제 헴젠.(토신제는 땅에, 땅에나 여기 이렇게 여기 들어갑니다 하는 것보고 토신제 한다고.)

112035 @ 그니까 저기 산에 강 묻을 때도 관 묻을 때도 토신제 헐 거?(그러니까 저기 산에 가서 묻을 때도 관 묻을 때도 토신제 할 거?)

112035 #1 묻으는 날 붉아올 때 토신제부떠 강 모녀 헌다.(묻는 날 밝아올 때 토신제부터 가서 먼저 한다.)

112035 @ 아.(아.)

112035 #1 매경, 놈신디 매경.(맡겨서, 남에게 맡겨서.)

112035 @ 아, 매경예.(아, 맡겨서요.)

112035 #1 어. 경헌디 이젠 우린 큰 비석 허멍 홈치 제지내 부난 토신젠 안 헌다게. 번거로왕.(어. 그런데 이젠 우린 큰 비석 하면서 한꺼번에 제지내 버리니까 토신젠 안 해. 번거로워서.)

112035 @ 지금은 안 허는 거잖아예?(지금은 안 하는 거잖아요?)

112035 #1 안 허고. 그땐 똑 토신제 놉 빌엉. 쿰 주곡 허영.(안 하고. 그땐 꼭 토신제 놉 빌려서. 삯 주고 해서.)

112035 @ 아, 쿰 주고.(아, 삯 주고.)

112035 #1 으, 쿰 줘.(으, 삯 줘.)

112035 @ 그거는 산 일 허는 사름안티 쿰 준 거 아니?(그거는 산소 일 하는 사람한테 삯 준 거 아니?)

112035 #1 어. 돈 줭 매끼느네.(어. 돈 줘서 맡겨.)

112035 @ 예.(예.)

112035 #1 영, 영 허영 출릴 거영. 영 헹 헤 줍서 허영.(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릴 거랑.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해서.)

112036 @ 상여꾼은 어떵 헙니까? 놉 빕니까, 동네 사름덜이 헙니까, 영 멩 가는 거?(상여꾼은 어떻게 합니까? 놉 빌립니까, 동네 사람들이 합니까, 이렇게 메서 가는 거?)

112036 #1 엿날은 동네 사름덜 메영 강 동네 사름덜이 묻어 줫주게.(옛날은 동네 사람들 메서 가서 동네 사람들이 묻어 줬지.)

112036 @ 으, 동네 사름덜이예?(으, 동네 사람들이요?)

112036 #1 우리 집이 아방도 학교 가당이라도, 일요일날 들 때 허고 영장 상에 허영 뚜러멜 때 노래 잘 허난 학교 가기 전이라도 그 노래 불러 저레 모셔다 뒁 학교 감이라도.(우리 집의 아버지도 학교 가다가라도, 일요일 들 때 하고 초상 상에 해서 둘러멜 때 노래 잘 하니까 학교 가기 전에라도 그 노래 불러 저리 모셔다 두고 학교 가더라도.)

112036 @ 아, 노래 잘 헷수과, 남자 어른이?(아, 노래 잘 했습니까, 남자 어른이?)

112036 #1 으.(으.)

112036 @ 그거 상여 말고 뭐 멘덴 헤?(그거 상여 말고 뭐 멘다고 해?)

112036 #1 하여튼 상에 멘덴 허주게.(하여튼 상여 멘다고 하지.)

112036 @ 으. 그거 멜 때 노래 불르멍예?(으. 그거 멜 때 노래 부르면서요?)

112036 #1 으. 쳇 번 영장 들를 때도 그 글이 싯는 셍이라고.(으. 첫 번 송장 들을 때도 그 글이 있는 모양이라고.)

112036 @ 예.(예.)

112036 #1 허민 야 허영 헐 때도 그 우리 집이 아방이 뭣이엔 헤영 불르민 이젠 영차 허멍 메여.(하면 야 해서 할 때도 그 우리 집의 아버지가 뭐라고 해서 부르면 이제 영차 하면서 메.)

112036 @ 아, 처음에 시작헐 때?(아, 처음에 시작할 때?)

112036 #1 으.(으.)

112037 @ 게민 집이서 장지까지 어떵 옮겨가는 거라?(그럼 집에서 장지까지 어떻게 옮겨가는 거야?)

112037 #1 너미 멀민이 이디서 저 성당 앞까지 헹상 허여 가민 차로.(너무 멀면 여기서 저 성당 앞까지 행상 해 가면 차로.)

112037 @ 차로 가고. 거 옛날에는 차 엇어낫잖아예?(차로 가고. 거 옛날에는 차 없었었잖아요?)

112037 #1 어.(어.)

112037 @ 옛날에?(옛날에?)

112037 #1 옛날.(옛날.)

112037 @ 시아버님 묻을 때 어떵 헤낫수과?(시아버님 묻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37 #1 그딘 우리 ᄇᆞ딘 디난 그냥 메여 갓주기게.(거긴 우리 가까운 데니까 그냥 메고 갔지.)

112037 @ 메여 가고.(메고 가고.)

112037 #1 용당[430], 이디서 용당이난.(용당, 여기서 용당이니까.)

112037 @ 용당이민 바로 여기 아니?(용당이면 바로 여기 아니?)

112037 #1 으.(으.)

112037 @ 용당도 용당리가 따로 분리뒛수과, 아니민 신창 안에?(용당도 용당리가 따로 분리됐습니까, 아니면 신창 안에?)

112037 #1 아니, 용당 ᄯᅳ로 분리뒛주게.(아니, 용당 따로 분리되었지.)

112037 @ 신흥동은 신창 아니?(신흥동은 신창 아니?)

112037 #1 으?(으?)

112037 @ 신흥동?(신흥동?)

112037 #1 신흥동은 신창. 글로 저렌 용당.(신흥동은 신창. 그리로 저리는 용당.)

112037 @ 아, 신흥동은 신창이고.(아, 신흥동은 신창이고.)

112037 #1 으.(으.)

112037 @ 멀리 간 적은 엇수과, 멀리 간 적?(멀리 간 적은 없습니까, 멀리 간 적?)

112037 #1 아니.(아니.)

112037 @ 멀리 간 적은 엇고. 다른 사름덜 멀리 가게 뒈민 어떵 헤낫어?(멀리 간 적은 없고. 다름 사람들 멀리 가게 되면 어떻게 했었어?)

112037 #1 그땐 어떵사 헹 가신디 저 거웍이여 어디여 갈 땐 잘 모르켜, 나.(그땐 어떻게 해서 갔는지 저 '거웍'이며 어디며 갈 땐 잘 모르겠어, 나.)

112037 @ 아.(아.)

112037 #1 우리 막 어린 때고 헤여 비난.(우리 아주 어린 때고 해 버리니까.)

112037 @ 예.(예.)

112037 #1 몇 번 행상헤여 갓젠은 허주기게. 행상꾼덜.(몇 번 행상해서 갔다고는 하지. 행상꾼들.)

112037 @ 예.(예.)

112037 #1 어 내멍[431] 헤여 갓젠은 허여.(어 내면서 해 갔다고 해.)

112037 @ 예. 어 내멍 허여 갓저.(예. 어 내면서 해 갔어.)

---

430) '용당'은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를 말한다.

431) '어 내다'에서 '어'는 '숨을 한 번 쉴 동안'이라는 의미로, '어 내다'는 '한숨 돌릴 시간을 갖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12037 #1 으, 혼 번에 못 허난게 쉬멍.(으, 한 번에 못 하니까 쉬면서.)

112038 @ 바꾸멍예, 예. 봉분은 어떵 만들어낫수과, 옛날에?(바꾸면서요, 예. 봉분은 어떻게 만들었었습니까, 옛날에?)

112038 #1 옛날은 막 크게 헤낫주만은 이젠 영 족게 헴주게.(옛날은 아주 크게 했었지만 이젠 이렇게 작게 하지.)

112038 @ 옛날에 보면 봉분 허젠 허민?(옛날에 보면 봉분 하려고 하면?)

112038 #1 막게 무신 거 지멍.(아주 무슨 거 찧으면서.)

112038 @ 으.(으.)

112038 #1 방엣귀 닮은 걸로게 무시거 봉토 져.(방앗공이 같은 거로 무엇 봉토 찧어.)

112038 @ 어.(어.)

112038 #1 봉토 지멍 막 노래허멍이 헷주게.(봉토 찧으면서 마구 노래하면서 했지.)

112038 @ 흙들은 거기 있는 흙으로.(흙들은 거기 있는 흙으로.)

112038 #1 흑 그걸로. 흑 엇이민 어디 강 시꺼오고 허여 와사주게. (흙 그걸로. 흙 없으면 어디 가서 실어오고 해 와야지.)

112038 @ 봉분 크게 만들젠 허민예?(봉분 크게 만들려고 하면요?)

112038 #1 으.(으.)

112038 @ 거기 있는 걸로 모자라면 시꺼오곡 테도?(거기 있는 걸로 모자라면 실어오고 떼도?)

112038 #1 어?(어?)

112038 @ 씌울 거, 씌울 거?(씌울 거, 씌울 거?)

112038 #1 테도 어디 강 떼영 놧당. 이젠 프난 허주 옛날은 사름 멧 사름이 강 테 떠당 그레 놓라 헌다. 다 놉 빌엉.(떼도 어디 가서 떼어서 놨다가. 이제 파니까 하지 옛날은 사람 몇 사람이 가서 떼 떠다가 그리 놓으라 한다. 다 놉 빌려서.)

112038 @ 으.(으.)

112038 #1 놔뒷당 그레 영장 묻으멍 그거 놩.(놔뒀다가 그리 송장 묻으면서 그거 놔서.)

112038 @ 미리 헤다가.(미리 해다가.)

112038 #1 미릇 헤당 놩.(미리 해다가 놔서.)

112039 @ 예. 미릇 헤당예. 혹시 호충이렌 헌 거 알아지쿠과? 호충?(예. 미리 해다가요. 혹시 '호충'이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호충'?)

112039 #1 몰라.(몰라.)

112039 @ 그 영장밧디서 왜 영장밧디까지 가지만은 관 놓는 거나 그거 보지 말아야 뒈는 사름이 잇수과?(그 장지에서 왜 장지까지 가지만 관 놓은 거나 그거 보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112039 #1 저 멧 설 난 사름 보지 말렌 헌 사름이 싯넨.(저 몇 살 된 사람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112039 @ 몇 살 허민 보지 말렌 허는 거?(몇 살 하면 보지 말라고 하는 거?)

112039 #1 으, 경허민 그 연세에 무신 띠 보지 말라 허민 안 봐.(으, 그러면 그 연세에 무슨 띠 보지 말라 하면 안 봐.)

112039 @ 어쨌든 영장밧디 가더라도?(어쨌든 장지 가더라도?)

112039 #1 으. 들어놀 때 뭣 헐 때.(으. 들여놓을 때 뭐 할 때.)

112040 @ 예, 보지 말렌 허는 그런 사름 있는 거예. 이제 장밧디 가도 음식덜 주고 헐 거 아니예. 뭐 줍니까, 옛날에?(예,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있는 거요. 이제 장지 가도 음식들 주고 할 거 아니요. 뭐 줍니까, 옛날에?)

112040 #1 옛날에 장밧디 가도게 우리 이제 허듯이게 밥 낭푼이에 거렁게.(옛날에 장지 가도 우리 이제 하듯이 밥 양푼에 떠서.)

112040 @ 으.(으.)

112040 #1 이젠 저 식당으로덜 허곡, 경 안허민 낭푼이에 거령 두망두망 놓민게.(이젠 저 식당으로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푼에 떠서 드문드문 놓으면.)

112040 @ 으, 그건 삼춘 시집강 애기 키울 때이고 삼춘 어렸을 때?(으, 그건 삼촌 시집가서 아기 키울 때이고 삼촌 어렸을 때?)

112040 #1 어렸을 때도 그철록 헷주기게.(어렸을 때도 그처럼 했지.)

112040 @ 어렸을 때도 경헷수과?(어렸을 때도 그랬습니까?)

112040 #1 으.(으.)

112040 @ ᄆᆞ물쏠 아니민 보리썰로 만든 떡 돌리는?(메밀쌀 아니면 보리쌀로 만든 떡 돌리는?)

112040 #1 떡도 돌리곡게.(떡도 돌리고.)

112040 @ 예.(예.)

112040 #1 밥도 먹곡 헷주기게.(밥도 먹고 했지.)

112040 @ 떡도 돌리고. 그 떡 이름 뭐렌 골아난?(떡도 돌리고. 그 떡 이름 뭐라고 말했었어?)

112040 #1 저 둘레떡, 둘레떡.(저 도래떡, 도래떡.)

112040 @ 예, 둘레떡 돌리고예?(예, 도래떡 돌리고요?)

112040 #1 어.(어.)

112040 @ 밥도 돌리고.(밥도 돌리고.)

112040 #1 으.(으.)

112041 @ 그, 그 왜 그 무덤 만들 때 무덤 다 맡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예?(그, 그 왜 그 무덤 만들 때 무덤 다 맡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12041 #1 이젠 허여도 옛날은 맡앙 안 헷저.(이젠 해도 옛날은 맡아서 안 했어.)

112041 @ 다 맡앙 안 헷어?(다 맡아서 안 했어?)

112041 #1 골꾼[432].('골꾼'.)

112041 @ 골꾼, 그니까.('골꾼', 그니까.)

---

432) '골꾼'은 한 마을에서 몇 집씩 묶여서 마을의 큰일을 치룰 때 노력 봉사하는 일꾼을 말한다.

112041 #1 동네에서 골꾼덜이 강 헷주.(동네에서 '골꾼'들이 가서 했지.)
112041 @ 골꾼이 뭐가 골꾼이과?('골꾼'이 뭐가 '골꾼'입니까?)
112041 #1 동네 사름게. 그 골에.(동네 사람. 이 골에.)
112041 @ 아, 그 흔 동네 사름덜?(아, 그 한 동네 사람들?)
112041 #1 어.(어.)
112041 @ 게민 그걸 골꾼이엔 헙니까?(그럼 그걸 '골꾼'이라고 합니까?)
112041 #1 어, 골꾼 그 골에서.(어, '골꾼' 그 골에서.)
112041 @ 게민 그 사람안테 특별허게 뭐 주는 거 엇수과?(그럼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뭐 주는 거 없습니까?)
112041 #1 다 돌아가멍 허는 거난 주지는 안헤.(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주지는 않아.)
112041 @ 아, 주지는 안헤?(아, 주지는 않아?)
112041 #1 어.(어.)
112041 @ 뭐 공적이렌 헤 가지고 떡 더 돌리고?(뭐 '공적'이라고 해 가지고 떡 돌리고?)
112041 #1 아이, 그철룩 상두꾼덜은 우대헤 줫주게.(아이, 그처럼 상대꾼들은 우대해 줬지.)
112041 @ 상두꾼덜 우대헤 주고.(상두꾼들 우대해 주고.)
112041 #1 우대헤 줫주.(우대해 줬지.)
112041 @ 게민 떡 더 주고 헤난?(그럼 떡 더 주고 했었어?)
112041 #1 잘 낫게라도 잘 허주기게.(잘 낫게라도 잘 하지.)
112041 @ 예.(예.)
112041 #1 담배 날 땐 담배 사 주고 수건 주곡게.(담배 날 땐 담배 사 주고 수건 주고.)
112041 @ 예, 저기 상두꾼덜에게 헷던 거?(예, 저기 상두꾼들에게 했던 거?)
112041 #1 으.(으.)
112041 @ 다 끝낭 왓수다. 이제 집에 오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상식 헤야 뒐 거 아니? 옛날엔예? 매 번, 어떵헹 올려낫수과?(다 끝나서 왔습니다. 이제 집에 오니까 끝난 게 아니고 상식 해야 될 거 아니?)
112042 #1 삼시 허는 사름은 삼시 헷주기게.(삼시 하는 사람은 삼시 했지.)
112042 @ 게민 집에 여기, 삼춘넨 어디 상 차려낫수과, 상시 헐 때?(그럼 집에 여기, 삼촌네 어디 상 차렸었습니까, 상시 할 때?)
112042 #1 우리, 우리 저 중학교 올레[433] 살 때에 이런 뒷방에.(우리, 우리 저 중학교 '올레' 살 때에 이런 뒷방에.)
112042 @ 뒷방에. 그냥 상 출령 내불어?(뒷방에. 그냥 상 차려서 내버려?)
112042 #1 상 놩 놔둬사주. 펭풍허곡게.(상 놔서 놔둬야지. 병풍하고.)

433)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112042 @ 어.(어.)
112042 #1 삼 년 뒈도록.(삼 년 되도록.)
112042 @ 예.(예.)
112042 #1 색일 ᄎᆞᄒᆞ루, 보름 허고.(삭망 초하루, 보름 하고.)
112042 @ 색일 ᄎᆞᄒᆞ루, 보름 허고.(삭망 초하루, 보름 하고.)
112042 #1 아이고, 엿날 불 심앙 다 묵 지졍 헤낫저 나도. 우리 시어멍 죽은 때에.(아이고, 옛날 불 때서 다 묵 지져서 했었어 나도. 우리 시어머니 죽은 때에.)
112042 @ 시어멍 죽은 때에.(시어머니 죽은 때에.)
112042 #1 어. 나 시아방도 오 년 ᄃᆞᆯ앙 살아시녜.(어. 나 시아버지도 오 년 데리고 살았어.)
112042 @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
112042 #1 ᄆᆞ녀 돌아간. 암 걸련.(먼저 돌아갔어. 암 걸려서.)
112042 @ 아이고. 게민 그때.(아이고. 그럼 그때.)
112042 #1 예순일곱에.(예순일곱에.)
112042 @ 아이고.(아이고.)
112042 #1 예순일곱이라도 막 늙더라. 우리 집이 아방이 막둥이난게.(예순일곱이라도 아주 늙더라. 우리 집의 아버지가 막둥이니까.)
112042 @ 막둥인디 삼춘이 모셧수과, 시아버지?(막둥인데 삼촌이 모셨습니까, 시아버지?)
112042 #1 다 일본덜 가 비난 우리 하나뿐게.(다 일본들 가 버리니까 우리 하나뿐.)
112042 @ 하하하. 엇어.(하하하. 없어.)
112042 #1 시누이 하난 구둘락구둘락 아이고. 이제도.(시누이 하나는 궁시렁궁시렁 아이고. 이제도.)
112042 @ 아, 아까 밧 안 줌젠 허는 시누이.(아, 아까 밭 안 준다고 하는 시누이.)
112042 #1 소문난 시누이주.(소문난 시누이지.)
<중략>
112042 @ 아이고, 아이고 어떵헐 거라. 상식 어떵 헤낫수과, 상식?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아이고, 아이고 어떡할 거야. 상식 어떻게 했었습니까, 상식?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112042 #1 할망 상식 놧주기게.(할머니 상식 놨지.)
112042 @ 매번 밥헨?(매번 밥했어?)
112042 #1 그냥 이녁 먹는 거게.(그냥 자기 먹는 거.)
112042 @ 으. 게민 아침이야 밥 먹을 때 올리지만은 밧디 강 일헐 때 점심은 어떵헤?(으, 그럼 아침이야 밥 먹을 때 올리지만 밭에 가서 일할 때 점심은 어떻게 해?)
112042 #1 점심은 난 놀 때 놓고 아이 놀 땐 아이 놔.(점심은 난 놓을 때 놓고 안 놓을 땐 안 놔.)
112042 @ 예.(예.)

112042 #1 아침ᄌᆞ냑만.(아침저녁만.)

112042 @ 아침ᄌᆞ냑만.(아침저녁만.)

112042 #1 밧디 강 혼자 몸에 그거 어느제. 이제난 오도바나 싯곡 차나 싯나 어떵헹 올말고?(밭에 가서 혼자 몸에 그거 언제. 이제니까 오토바이나 있고 차나 있고 어떡해서 오니?)

112042 @ 어.(어.)

112042 #1 집이 든 때 삼시 놓고.(집에 든 때 삼시 놓고.)

112042 @ 으.(으.)

112042 #1 어디서 반 들어온 것도 놓고. 경허연.(어디서 반기 들어온 것도 놓고. 그랬어.)

112042 @ 경 헤난 거예. 삭망 땐 어떵 헷수과?(그렇게 했던 거요. 삭망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2043 #1 삭망 때게. ᄎᄒᆞ루 보름게.(삭망 때. 초하루 보름.)

112043 @ 음식은 뭐 헤난, 그때?(음식은 뭐 했었어, 그때?)

112043 #1 그땐게 묵 지졍 꿰곡게, 적갈 허곡 메 허곡 게영 허고 과일.(그땐 묵 지져서 꿰고, 적 하고 메 하고 갱 하고 과일.)

112043 @ 식게헐 때처럼.(제사할 때처럼.)

112043 #1 과일이나 올리고 기자 경헷저.(과일이나 올리고 그저 그랬어.)

112043 @ 예.(예.)

112043 #1 콩ᄂᆞ물 사단.(콩나물 사다가.)

112043 @ 삭망제 헐 때도 식게헐 때랑 다른 건 아니다예, 음식?(삭망제 할 때도 제사할 때랑 다른 건 아니네요, 음식?)

112043 #1 어, 다르진 안허여.(어, 다르진 않아.)

112043 @ 예.(예.)

112043 #1 ᄒᆞ꼼만 출령 그냥 멧 ᄀᆞ지만 허민게, 간단허게.(조금만 차려서 그냥 몇 가지만 하면, 간단하게.)

112043 @ 게민 그거 헐 때도 친척덜은 와?(그럼 그거 할 때도 친척들은 와?)

112043 #1 ᄇᆞ딘 친척은게 왕.(가까운 친척은 와서.)

112043 @ 아침이예?(아침에요?)

112043 #1 아칙이.(아침에.)

112043 @ 아침이 제지내?(아침에 제지내?)

112043 #1 으.(으.)

112043 @ 기민 지금은 삭망제 허는 디가 잇인가?(그럼 지금은 삭망제 하는 데가 없는가?)

112043 #1 안 헌다.(안 한다.)

112043 @ 삼춘 요 동네에서는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 삭망제를 헷수과?(삼촌 요 동네에서는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 삭망제를 했습니까?)

112043 #1 으.(으.)

112043 @ 남자 어른 돌아가실 때는 안 헷잖아예?(남자 어른 돌아가실 때는 안 했잖아요?)

112043 #1 우리 안 헨게.(우리 안 했어.)

112043 @ 예, 안 허고.(예, 안 하고.)

112043 #1 아니 저 우리 시아방이고 우리 하르방[434]도 난 초ᄒᆞ루날만 헷저. 보름날은 안 헤.(아니 저 우리 시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도 난 초하룻날만 했어. 보름날은 안 해.)

112043 @ 안 하고 한 번?(안 하고 한 번?)

112043 #1 ᄒᆞᆫ 덜에 ᄒᆞᆫ 번.(한 달에 한 번.)

112043 @ 게민 저기.(그럼 저기.)

112043 #1 ᄃᆞᆯ 넘어가는 처레나 알게.(달 넘어가는 줄이나 알게.)

112043 @ 예.(예.)

112043 #1 허렌 헹 우리 시아방도 경 허고 우리 친정아방도 초ᄒᆞ를만 헤난.(하라고 해서 우리 시아버지도 그렇게 우리 친정아버지도 초하루만 했었어.)

112043 @ 시어른 돌아가셨을 때 초하루만.(시어른 돌아가셨을 때 초하루만.)

112043 #1 으, 우리 친정아방도 돌아가도 초ᄒᆞ르만.(으, 우리 친정아버지도 돌아가도 초하루만.)

112043 @ 누게가 먼저 돌아가셧수과?(누가 먼저 돌아가셨습니까?)

112043 #1 우리 친정아방이 모녀 돌아갓주.(우리 친정아버지가 먼저 돌아갔지.)

112043 @ 시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신 거? 삼춘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시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신 거? 삼촌 몇 살 때 돌아가신 거?)

112043 #1 거 멧 살 때산지 알아지크라?(거 몇 살 때인지 알겠어?)

112043 @ 아이덜, 큰아이라도? 한 이십 년 넘엇수과?(아이들, 큰아이라도? 한 이십 년 넘었습니까?)

112043 #1 이십 년 더 뒛주게.(이십 년 더 됐지.)

112043 @ 더 뒌 거예. 그때 초하루 헌 거고.(더 된 거요. 그때 초하루 한 거고.)

112043 #1 이제 저것덜도 장게 안 갈 때 허영 다 아기덜 난디 이제 서른 잇이난 ᄒᆞᆫ 오십 년이나 ᄉᆞ십 년 거자 뒘주게.(이제 저것들도 장가 안 갈 때 해서 다 아기들 낳았는데 이제 서른 있으니까 한 오십 년이나 사십 년 거의 되었지.)

112043 @ 아. 그 정도 뒌 거예. 이 동네에서 그 이후에도 삭망제 허는 디 잇어신가?(아. 그 정도 된 거요. 이 동네에서 그 이후에도 삭망제 하는 데 있었는가?)

112043 #1 아니.(아니.)

112043 @ 엇어?(없어?)

112043 #1 이젠이 점점 이젠 초ᄒᆞ루덜 안 헹 이젠 오는 날 산에서 지제헤 빌고 사진도 아이 놩 헌다, 이젠.(이젠 점점 이젠 초하루들 안 해서 이젠 오는 날 산에서 지제

434)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해 버리고 사진도 안 놓고 한다, 이젠.)

112043 @ 게난예, 이젠 식게만 허는 거라예?(그러니까요, 이젠 제사만 하는 거지요?)

112043 #1 으.(으.)

112044 @ 소상, 대상 안 허고예?(소상, 대상 안 하고요?)

112044 #1 이제 그 묻어 뒁 왕 무시거도 다 지제 산으로덜 헹 왕 안 헌다.(이제 그 묻어 두고 와서 무엇도 다 지제 산으로들 해서 와서 안 한다.)

112044 @ 예. 묻어 뒁 왕 하는 게 뭐?(예. 묻어 두고 와서 하는 게 뭐?)

112044 #1 사흘 제지내낫주게, 옛날은게.(사흘 제지내었지, 옛날은.)

112044 @ 아.(아.)

112044 #1 아침이.(아침이.)

112044 @ 묻어 뒁 왕.(묻어 두고 와서.)

112044 #1 집이서.(집에서.)

112044 @ 집이서 또 사흘을 제지내는 거?(집에서 또 사흘을 제지내는 거?)

112044 #1 어. 제 아침이. 경헤난디 이젠이 다 영장밧딜로 다 축 혜영 혜 뒁 왕 안 헌다 이젠.(어. 제 아침에. 그랬었는데 이젠 다 장지로 다 축 해서 해 두고 와서 안 한다 이젠.)

112044 @ 옛날에 소상 대상은 어떵 헤낫수과?(옛날에 소상 대상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44 #1 소상 대상게 돗 잡곡게.(소상 대상 돼지 잡고.)

112044 @ 으.(으.)

112044 #1 허엿주게.(했지.)

112044 @ 으.(으.)

112044 #1 소상 대상 허영게 그 ᄇᆞ름떡[435]덜 받곡게.(소상 대상 해서 그 'ᄇᆞ름떡'들 받고.)

112044 @ 부지로예?(부조로요?)

112044 #1 부지로. 우둥 혜영 멕이곡 우둥 혜영 먹곡게. 경허영. 우리 우둥 혜 비난 손님은 핫주기게. 옛날은 우둥도 ᄒᆞ못 못 먹는 사름이 하나지 안혜샤?(부조로. 우동 해서 먹이고 우동 해서 먹고. 그랬어. 우리 우동 해 버리니까 손님은 많았지. 옛날은 우동도 사뭇 못 먹는 사람이 많았었지 않니?)

112044 @ 예.(예.)

112044 #1 우둥이엔 허민. 아이고, 물 질어다 놩 숢젠 허난 첨.(우동이라고 하면. 아이고, 물 길어다 놔서 삶으려고 하니까 참.)

112044 @ 게민 소상허젠 허민, 소상 대상 허젠 허민 옛날에는 그것도 날, 며칠을 날력부려난 거 아니예?(그럼 소상하려고 하면, 소상 대상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그것도 날, 며칠을 허비했던 거 아니요?)

435) 'ᄇᆞ름떡'은 밀가루를 누룩이나 막걸리 따위로 반죽하여 부풀려 만든 떡을 말한다.

112044 #1 게.(그래.)

112044 @ 삼일 헷수과?(삼일 했습니까?)

112044 #1 닐 소상 헤 먹젠 허민 오늘부터 ᄒᆞ못 돗 잡곡 물 길어 오곡게.(내일 소상 해 먹으려고 하면 오늘부터 사뭇 돼지 잡고 물 길어 오고.)

112044 @ 으.(으.)

112044 #1 허영 소상 날 헤영 뒷내날 그릇덜 다 정리허고. 며칠 걸려시게.(해서 소상 날 해서 뒷날 그릇들 다 정리하고. 며칠 걸렸니.)

112044 @ 며칠 걸린 거라.(며칠 걸린 거야.)

112044 #1 아이고. 우리 시아방 초이틀날 허연 다 비 와, 비 와 비난 조 싱그레 다가 비난 설거지 뒷내날 우리 어무니허고 우리 언니허고 나허고 서이만 해원 헷저.(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초이튿날 해서 다 비 와, 비 와 버리니까 조 심으러 다 가 버리니까 설거지 뒷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언니 하고 나하고 셋만 종일 했어.)

112044 @ 하하하.(하하하.)

112044 #1 벳디 막 ᄆᆞᆯ류멍.(볕에 마구 말리면서.)

112044 @ ᄆᆞᆯ류멍.(말리면서.)

112044 #1 거 헹 젯그릇 거져가곡 허젠 허난.(거 해서 제기 가져가고 하려고 하니까.)

112044 @ 해원 헷어 셋이만. 셋이만 허젠 허난 해원 헷주게.(종일 했어 셋만. 셋만 하려고 하니까 종일 했지.)

112044 #1 허여 나민 버치고 더운 때고 아이고.(하고 나면 힘에 부치고 더운 때고 아이고.)

112044 @ 예. 혹시 삼춘 토롱이렌 헌 거 알아지쿠과? 토롱이 뭐과?(예. 혹시 삼촌 토롱이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토롱이 뭡니까?)

112044 #1 묻지 못허영 임시 날도 아이 나고 상제 어디 강 아이 오곡 허민 임시 밧디 에염이나 우영밧디라도 구뎅이 파.(묻지 못해서 임시 날도 안 나고 상제 어디 가서 안 오고 허민 임시 밭 옆이나 텃밭이라도 구덩이 파.)

112044 @ 예.(예.)

112045 #1 놓아근에 ᄂᆞ람쥐 더껑 놔뒷당 날 봥 강 묻는 게 토롱.(놓아서 이엉 덮어서 놔뒀다가 날 봐서 가서 묻는 게 토롱.)

112045 @ 무사 처음에 묻지 못허는 거, 날 안 나왕?(왜 처음에 묻지 못하는 거, 날 안 나와서?)

112045 #1 날 안 나왕 나쁘곡게. 이 임시 토롱만 허레 허는 사름도 싯곡. 어디 글 보민.(날 안 나와서 나쁘고. 이 임시 토롱만 하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글 보면.)

112045 @ 어.(어.)

112045 #1 경허고 상제나 어디서 안 오민 이젠 냉동실 어디 들어가민 메칠씩이라도 허주만은.(그리고 상제나 어디서 안 오면 이젠 냉동실 어디 들어가면 며칠씩이라도 하지만.)

112045 @ 예, 예.(예, 예.)

112045 #1 놔두지 못 허곡 허는 따문 토롱.(놔두지 못 하고 하는 때문에 토롱.)

112045 @ 아.(아.)

112045 #1 우리 시어멍도 보리 한창일 때라비난 상두꾼덜 바빵 영장 경 ᄆᆞ음대로 헤지느냐? 우리가 미안허영 토롱 헷단 묻엇어.(우리 시어머니도 보리 한창일 때여서 버리니까 상두꾼들 바빠서 초상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니? 우리가 미안해서 토롱 했다가 묻었어.)

112045 @ 아, 바쁜 시기라부난?(아, 바쁜 시기여서?)

112045 #1 어, 일허여 둰 묻언.(어, 일해 두고 묻었어.)

112045 @ 게민 토롱 허젠 헤도 관에 놓는 거는 다 똑같이 성복제 지내고 다 허는 거? 아니면 그거 자체를 다 나중으로 허는 거?(그럼 토롱 하려고 해도 관에 놓는 거는 다 똑같이 성복제 지내고 다 하는 거? 아니면 그거 자체를 다 나중으로 하는 거?)

112045 #1 아니 성복젠 다 관에 들여놓는 거난게 다 허곡게.(아니 성복젠 다 관에 들여놓는 거니까 다 하고.)

112045 @ 허곡. 장지에 묻는 거만.(하고. 장지에 묻는 거만.)

112045 #1 일포, 일포날 허영 강 묻는 거뿐이주.(일포, 일포날 하고 가서 묻는 거뿐이지.)

112045 @ 아, 성복제까지는 미리 다 그거 헐 때 헹 토롱에 묻어 놧당.(아, 성복제까지는 미리 다 그거 할 때 해서 토롱에 묻어 놨다가.)

112045 #1 으, 으.(으, 으.)

112045 @ 이제, 이제 장밧디 강 묻을 때 뒈면.(이제, 이제 장지 가서 묻을 때 되면.)

112045 #1 어.(어.)

112045 @ 그때 꺼냉 일포제 지내고?(그때 꺼내서 일포제 지내고?)

112045 #1 꺼내지 안헤근에 일폰 지내영 거 묻는 날 꺼냉 강.(꺼내지 않고 일포는 지내서 거 묻는 날 꺼내서 가서.)

112045 @ 아.(아.)

112045 #1 묻는 거.(묻는 거.)

112045 @ 예, 예. 게난 날 안 나왕 허는 것도 있지만 바쁜 시기에.(예, 예. 그러니까 날 안 나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바쁜 시기에.)

112045 #1 어.(어.)

112045 @ 피해 가지고도 경 토롱을 헤낫구나예?(피해 가지고도 그렇게 토롱을 했었군요?)

112045 #1 어게 이제 멩질날쯤 죽곡, 떡 허는 날쯤 죽으민 다 토롱 헤세게. 누게 그 멩질덜 비리멍[436] 그 영장 묻어 주젠 허느냐? 비는 사름이 미안허난.(그래 이제 명질날쯤 죽고, 떡 하는 날쯤 죽으면 다 토롱 했어. 누가 그 명질에 '비리면서' 그 송장 묻어

436) '비리다'는 큰일을 앞두고 몸엣것을 하거나 꺼리어 피해야 할 송장이나 마소의 죽은 것 따위를 보고 몸이 부정하게 되다는 뜻이다.

주려고 하니? 빌리는 사람이 미안하니까.)

112045 @ 아.(아.)

112045 #1 양심이 싯지 안허느냐게.(양심이 있지 않니.)

112045 @ 예, 예.(예, 예.)

112045 #1 경헤 비난 토롱 헹.(그래 버리니까 토롱 해서.)

112045 @ 토롱을 헷던 거라예. 옛날에도 영 장지에 강 묻어신디 누게 자손덜이 누구 아프거나 허면 영 물어 봉 여기 산자리가 좋지 안허덴 허면 산을 옮겨낫잖아예?(토롱을 했던 거지요. 옛날에도 이렇게 장지에 가서 묻었는데 누가 자손들이 누구 아프거나 하면 이렇게 물어 봐서 여기 묏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면 산을 옮겨났잖아요?)

112045 #1 으.(으.)

112046 @ 이묘 헤낫잖아예. 삼춘네도 그런 거?(이묘 했었잖아요. 삼촌네도 그런 거?)

112046 #1 아니, 우리 그런 건 안 헤.(아니, 우리 그런 건 안 해.)

112046 @ 안 헤낫수과? 게도 이묘허는 사름덜 잇어예?(안 했었습니까? 그래도 이묘하는 사람들 있어요?)

112046 #1 오게. 싯나게.(그래. 있어.)

112046 @ 예. 요즘은 간소화허젠덜 다.(예. 요즘은 간소화하려고들 다.)

112046 #1 경허고 이젠이 다 소분도 흔 밧디서 허젠 허주 경 이디저디 뎅기멍 얼먹어 놓난 다 흔 밧더레 헤다 놤세게.(그리고 이젠 다 벌초도 한 군데에서 하려고 하지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언걸먹어 놓으니까 다 한 군데에 해다 놓고 있어.)

112046 @ 예, 요즘 허는 건 다 그런.(예, 요즘 하는 건 다 그런.)

112046 #1 이제 흔 반더레 헤다 놔도 이젠 더 족게 이젠 술아당 비석 하나썩만도 허젠 험세덜.(이제 한 군데 해다 놔도 이젠 더 작게 이제 살라다가 비석 하나씩만도 하려고 하고 있어.)

112046 @ 으.(으.)

112046 #1 땅을 덜 추지허영.(땅을 덜 차지해서.)

112046 @ 봉분도 안 만들고.(봉분도 안 만들고.)

112046 #1 으.(으.)

112046 @ 그냥 평지에 헹 비석 하나만예?(그냥 평지에 해서 비석 하나만요?)

112046 #1 으, 경허는 디도 하곡.(으, 그러는 데도 많고.)

112047 @ 예. 게난 영 다 끝낭 복은 언제 벗는 것과? 언제 복 벗엄젠 헙니까 옛날에?(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끝나서 복은 언제 벗는 겁니까? 언제 복 벗는다고 합니까 옛날에?)

112047 #1 옛날에게 대상, 소상꺼지 허민게. 대상 허고 담제.(옛날에 대상, 소상까지 하면. 대상 하고 담제.)

112047 @ 담제는 언제 허는 거라? 대상 끝낭?(담제는 언제 하는 거야?)

112047 #1 대상 넘엉, 옛날은 대상 넘엉 백일 만이 담제.(대상 넘어서, 옛날은 대상

넘어서 백일 만에 담제.)

112047 @ 담제가 뭐과?(담제가 뭡니까?)

112047 #1 식게치룩 그 담제엔 허영 이젠 다 ᄆᆞ치는 걸로 허영.(제사처럼 그 담제라고 해서 이젠 다 마치는 걸로 해서.)

112047 @ 아, 게민 그게 복 벗는 날인게.(아, 그럼 그게 복 벗는 날이네.)

112047 #1 으.(으.)

112047 @ 담제 허영. 대상 끝나?(담제 해서. 대상 끝나?)

112047 #1 담제 허여사. 게난 담제에 못 먹은 음식은 제서 때 헤도 못 먹넨 옛날 할망덜은. 게난 담제엔 떨어진 음식 엇이 다 허영 올리라. 그런.(담제 해야. 그러니까 담제에 못 먹은 음식은 제사 때 해도 못 먹는다고 옛날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담제에는 떨어진 음식 없이 다 해서 올려라. 그런.)

112047 @ 아, 속담이 잇어?(아, 속담이 있어?)

112047 #1 으.(으.)

112047 @ 아, 떨어진 음식 엇이 다 헹 담제에는 올리라는 거?(아, 떨어진 음식 없이 다 해서 담제에는 올리라는 거?)

112047 #1 으.(으.)

112047 @ 게난 장례 치루고 나서 일 년 그 삭망제 계속 하당 그 일 년 후에 소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 년 지낭 대상 허고. 대상 끝낭 백 일 지낭.(그러니까 장례 치루고 나서 일 년 그 삭망제 계속 하다가 그 일 년 후에 소상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년 지나서 대상 하고. 대상 끝나서 백 일 지나서.)

112047 #1 담제.(담제.)

112047 @ 담제 허고. 게민 이제 다 복 벗는 거예?(담제 하고. 그럼 이제 다 복 벗는 거요?)

112047 #1 으.(으.)

112047 @ 끝나는 거우다예.(끝나는 거네요.)

112047 #1 대상에 복은 다 벗어도 담제엔 그처록 허여사 복은 다 벗고 다 허는디 담제 제사칠록만 지내민.(대상에 복은 다 벗어도 담제라고 그처럼 해야 복은 다 벗고 다 하는데 담제 제사처럼만 지내면.)

112047 @ 게민 복 벗으민 그 입어난 상복도 불태와 불고 헌덴 허지 안헙니까?(그럼 복 벗으면 그 입었던 상복도 불태워 버리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12047 #1 저 뿔앙 놔뒷당 서답허영 입곡 허연게.(저 빨아서 놔뒀다가 세답해서 입고 했어.)

112047 @ 으, 으.(으, 으.)

112047 #1 엿날.(옛날.)

112047 @ 옛날은예?(옛날은요?)

112047 #1 으.(으.)

112047 @ 그 베도 귀허난.(그 베도 귀하니까.)

112047 #1 오죽 귀허여. 어려운디.(오죽 귀해. 어려운데.)

제례

112049 @ 어려운디. 이제 식게 하나만 더 물어보쿠다예. 식게 준비는 어떵 헙니까?(어려운데. 이제 제사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112049 #1 식게 준비는 어떵 허여게. 엿날이사 떡 다 이녁대로 허곡게. 떡칩 엇엉 맞추지 못허고 허난 이녁대로 뒈나마나 헤사주게.(제사 준비는 어떻게 해. 옛날에야 떡 다 자기대로 하고. 떡집 없어서 맞추지 못하고 하니까 자기대로 되나마나 해야지.)

112049 @ 이녁대로 뒈나마나. 하하. 게민 떡 허젠 허민 쏠도 장만허고.(자기대로 되나마나. 하하. 그럼 떡 하려고 하면 쌀도 장만하고.)

112049 #1 어게.(그래.)

112049 @ 물 컹?(물 담가?)

112049 #1 물 컷당 ᄒᆞ못 다게. 이젠 떡칩도 생기난 허주 남방에 강 ᄲᆞᆺ아당, 곤떡 헐 거. 체로 치멍 다 허여 오곡.(물 담갔다가 사뭇 다. 이젠 떡집도 생기니까 하지 남방아 가서 빻아다가, 흰떡 할 거. 체로 치면서 다 해 오고.)

112049 @ 예.(예.)

112049 #1 좁썰 허젠 허민 그것도 다 체로 치멍 다 허영. 경허여근에 시리떡 허고 헷주게.(좁쌀 하려고 하면 그것도 다 체로 치면서 다 해서. 그래서 시루떡 하고 했지.)

112050 @ 시리떡 허고예. 제물로는 뭐 뭐 준비헤낫수과, 식게 때?(시루떡 하고요. 제물로는 뭐 뭐 준비했었습니까, 제사 때?)

112050 #1 식게 때에?(제사 때에?)

112050 @ 예, 제물 올릴 거?(예, 제물 올릴 거?)

112050 #1 제펜 허고.('제펜' 하고.)

112050 @ 제펜.('제펜'.)

112050 #1 반제펜도 허고.('반제펜'도 하고.)

112050 @ 반제펜.('반제펜'.)

112050 #1 침떡덜은, 조떡덜은 헹 동네에 그자 ᄂᆞ누멍 먹젠 허난 거주.(시루떡들은, 조떡들은 해서 동네에 그저 나누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거지.)

112050 @ 어, 어.(어, 어.)

112050 #1 겨고 곤떡 세미[437] 인절미.(그리고 흰떡 '세미' 인절미.)

112050 @ 예. 게민 제펜이랑 침떡이랑 다른 것과?(예. 그럼 '제펜'랑 시루떡이랑 다른 겁니까?)

112050 #1 게. 침떡은 조침떡 조로 헌 거.(그래. 시루떡은 조시루떡 조로 한 거.)

112050 @ 조로 헌 거.(조로 한 거.)

437) '세미'는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만들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112050 #1 건 아니 올린다게. 건 이녁 먹젠 허고.(건 안 올린다. 건 자기 먹으려고 하고.)

112050 @ 예.(예.)

112050 #1 반제펜[438] 허고 제펜 올리고.('반제펜' 하고 '제펜' 올리고.)

112050 @ 제펜은?('제펜'는?)

112050 #1 헤영헌 제펜.(하얀 '제펜'.)

112050 @ 쏠ᄀᆞ루로 헌 거.(쌀가루로 한 거.)

112050 #1 이제 쏠ᄀᆞ루 반, 좁쏠 ᄀᆞ루 반 헤영 이제 징 놩 것도 헌다게.(이제 쌀가루 반, 좁쌀 가루 반 해서 이제 겅그레 놔서 것도 해.)

112050 @ 그건 반제펜.(그건 '반제펜'.)

112050 #1 으, 반제펜 경 허영 허고. 세미 인절미. 엿날 송편은 안 허더라.(으, '반제펜' 그렇게 해서 하고. '세미' 인절미. 옛날 송편은 안 하더라.)

112050 @ 아.(아.)

112050 #1 등절비[439].('등절비'.)

112050 @ 등절비도 잇어난?('등절비'도 있었어?)

112050 #1 어. 세미, 인절미 허고. 등절비 허고 우리 어무니넨 동글랑 떡.(어. '세미', 인절미 하고. '등절비' 하고 우리 어머니넨 동그란 떡.)

112050 @ 등절비 허고 동글랑 떡.('등절비' 하고 동그란 떡.)

112050 #1 어. 경허연 헨게.(어. 그렇게 했어.)

112054 @ 게민 젯상에 몇 가지를 올리는 거, 떡은, 떡 종류는?(그럼 제상에 몇 가지를 올리는 거, 떡은, 떡 종류는?)

112054 #1 떡 종류는 멧 가지 안 헌다. 이녁 허여지는 대로.(떡 종류는 몇 가지 안 한다.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112054 @ 맨 밑에는 제펜 놓고?(맨 밑에는 '제펜' 놓고?)

112054 #1 제펜, 반제펜 놓곡 그다음은 제펜 놔.('제펜', '반제펜' 놓고 그다음은 '제펜' 놔.)

112054 @ 반제펜 놓고 우이 제펜 놔?('반제펜' 놓고 위에 '제펜' 놔?)

112054 #1 으. 경허영 그다음 인절미 놓고.(으. 그래서 그다음 인절미 놓고.)

112054 @ 으.(으.)

112054 #1 저 세미 놓고 등절비 놓고 곤떡 놔.(저 '세미' 놓고 '등절비' 놓고 흰떡 놔.)

112054 @ 곤떡 놔.(흰떡 놔.)

112054 #1 우터레. 경허영 궵시[440] 헹 영 올리주.(위로. 그래서 '궵시' 해서 이렇게 올리지.)

---

438) '반제펜'은 제를 지낼 때 쓰는 시루떡을 만드는데 한 쪽은 쌀가루로, 한 쪽은 좁쌀가루 등을 넣어 만든 것을 말한다.

439) '등절비'는 송편보다 조금 두껍고 크게 만든 떡을 말한다.

440) '궵시'는 의식이나 잔칫상에 쓰는 음식 등을 쌓아 올린 것을 말한다.

112054 @ 우찍은 안 올립니까?(웃기떡은 안 올립니까?)

112054 #1 으?(으?)

112054 @ 우찍?(웃기떡?)

112054 #1 우찍이엔 헌 건 뭣고?(웃기떡이라고 하는 거 뭐니?)

112054 @ 웃기떡. 기름떡 같은 거. 맨 위에 올리는 거.(웃기떡. 기름떡 같은 거. 맨 위에 올리는 거.)

112054 #1 아이고, 지름떡 엿날 지름떡 헤사게. 우리 시대에나 지름떡 헷주.(아이고, 기름떡 옛날 기름떡 해야. 우리 시대에나 기름떡 했지.)

112054 @ 아.(아.)

112054 #1 영 고달 허영 지름에 튀경, 찹썰로 헌 거.(이렇게 고달 해서 기름에 튀겨서, 찹쌀로 한 거.)

112054 @ 예.(예.)

112054 #1 견디 엿날 지름떡꺼지 허진 못 헷저게.(그런데 옛날 기름떡까지 하지 못했어.)

112054 @ 그럼 옛날에는 웃기떡이렌 헌 게 엇수과, 우찍이렌 헌 거? 게민 맨 우에 올라가는 게 곤떡이 올라가는 거?(그럼 옛날에는 웃기떡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까, 웃기떡이라고 하는 거? 그럼 맨 위에 올라가는 게 흰떡이 올라가는 거?)

112054 #1 어, 어. 곤떡 올라가. 동글랑헌 거.(어, 어. 흰떡 올라가. 동그란 거.)

112054 @ 동글랑헌 거, 곤떡?(동그란 거, 흰떡?)

112054 #1 어 저 세계, 저 느네 세계광도 떡이 다 틀리느네.(어 저 세계, 저 너희 세계와도 떡이 다 틀려.)

112054 @ ᄐᆞ난게예.(다르네요.)

112054 #1 저 세계에 허는 건 곤떡도 딱 부뜬 것도, 오물락오물락 다 부떤도 올리고.(저 세계에 하는 건 흰떡도 딱 붙은 것도, 오물락오물락 다 붙어서도 올리고.)

112054 @ 예.(예.)

112054 #1 경 안허여 우린. 그런 떡 저런 떡 안 헌다.(그렇지 않아, 우린. 그런 떡 저런 떡 안 한다.)

112054 @ 게민 아까 침떡은 알아지고, 제펜은 알아지쿠다, 반제펜도 알아지고. 세미떡은 어떤 게 세미떡?(그럼 아까 시루떡은 알고, '제펜'는 알겠습니다, '반제펜'도 알고. '세미떡'은 어떤 게 '세미떡'?)

112054 #1 세미떡은 주전지 뚜껑으로 텅 귀나게 영 영 즙은 것ᄀᆞ라 세미.('세미떡'은 주전자 뚜껑으로 떠서 귀나게 이렇게 이렇게 집은 것보고 '세미'.)

112054 @ 귀나게 즙은 게, 주전지 뚜껑으로 즙으민 요렇게 뒈잖아예, 동글랑허게예.(귀나게 집은 게, 주전지 뚜껑으로 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동그랗게요?)

112054 #1 으, 동글랑허게.(으, 동그랗게.)

112054 @ 즙앙 영, 영.(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112054 #1 어.(어.)

112054 @ 이게 세미?(이게 ‘세미’?)
112054 #1 세미.(‘세미’.)
112054 @ 안에 쉬 놓고?(안에 소 넣고?)
112054 #1 어, 쉬 놓고.(어, 소 넣고.)
112054 @ 쉬는 뭐 놓고?(소는 뭐 넣고?)
112054 #1 께도 ᄒᆞ꼼 놓곡게. 쉬에 따랑게. 녹뒤 쉬건 풋쉬건 아무거라도 놩.(깨도 조금 넣고. 소에 따라서. 녹두 소이건 팥소이건 아무거라도 놔서.)
112054 @ 영 좁은 게 세미고?(이렇게 집은 게 ‘세미’고?)
112054 #1 으.(으.)
112054 @ 또?(또?)
112054 #1 등절비엔 헌 것도이.(‘등절비’라고 하는 것도.)
112054 @ 예.(예.)
112054 #1 동글랑허게 허여 놩. 그 세미칠룩 헤도 이칠룩 헤영 귄 엇어도 영 영 좁안 손으로 영 영 누르뜨는 것ᄀᆞ라 등절비.(동그랗게 해 놔서. 그 ‘세미’처럼 해도 이처럼 해서 귀는 없어도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것보고 ‘등절비’.)
112054 @ 이렇게 주전자 뚜껑으로 본떳수다예?(이렇게 주전자 뚜껑으로 본떴습니까?)
112054 #1 으.(으.)
112054 @ 여기도 영 집는 거?(여기도 이렇게 집는 거?)
112054 #1 아니, 영. 영, 영 동글락허게 납질납질[441] 허게 허는 거. 영 ᄒᆞ꼼 허게 헨 영 헤라.(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납질납질’ 하게 하는 거. 이렇게 조금 하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
112054 @ 아, 그냥 저기 뜨지 않고.(아, 그냥 저기 뜨지 않고.)
112054 #1 어, 뜨지 안허여.(어, 뜨지 않아.)
112054 @ 손으로?(손으로?)
112054 #1 손으로.(손으로.)
112054 @ 송펜 만들듯이.(송편 만들듯이.)
112054 #1 어, 어.(어, 어.)
112054 @ 영 영 동글리당.(이렇게 이렇게 동글리다가.)
112054 #1 어, 동글리당.(어, 동글리다가.)
112054 @ 누르떵.(눌러서.)
112054 #1 어.(어.)
112054 @ 누르뜨는 거예?(누르는 거요?)
112054 #1 어.(어.)
112054 @ 그게, 그게.(그게, 그게.)

441) ‘납질납질’은 매끈하게 납작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12054 #1 영 영 줍앙 영 오그렁 꼭 누르뜨는 것ᄀᆞ라 등절비.(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오그려서 꼭 누르는 것보고 '등절비'.)
112054 @ 등절비. 또?('등절비'. 또?)
112054 #1 그다음은 인절미.(그다음은 인절미.)
112054 @ 인절미는 어떵 만드는 거라?(인절미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112054 #1 니귀반득헌 거.(네모반듯한 거.)
112054 @ 반죽허영 칼로 잘랑.(반죽해서 칼로 잘라서.)
112054 #1 어.(어.)
112054 @ 니귀반득허게 만든 거 인절미?(네모반듯하게 만든 거 인절미?)
112054 #1 어. 그다음은.(어. 그다음은.)
112054 @ 우에 뭐 묻히진 안허고?(위에 뭐 묻히진 않고?)
112054 #1 아니.(아니.)
112054 @ 안 허고?(안 하고?)
112054 #1 그다음은 동글랑헌 거.(그다음은 동그란 거.)
112054 @ 동글랑헌 거 뭐라?(동그란 거 뭐야?)
112054 #1 곤떡.(흰떡.)
112054 @ 곤떡. 곤떡은 그냥 본뜨는 것과?(흰떡. 흰떡은 그냥 본뜨는 겁니까?)
112054 #1 본뜨는. 손으로 멘들아도, 멘듬도 허는 집인 허고 본떵 허는 집인.(본뜨는. 손으로 만들어도, 만들기도 하는 집은 하고 본떠서 하는 집은.)
112054 @ 동글랑허게?(동그랗게?)
112054 #1 으.(으.)
112054 @ 게민 등절비랑 곤떡이랑 차이점이 뭐?(그럼 '등절비'랑 흰떡이랑 차이점이 뭐?)
112054 #1 송펜더레 등절비.(송편에 '등절비'.)
112054 @ 어?(어?)
112054 #1 송펜보단.(송편보단.)
112054 @ 으.(으.)
112054 #1 멘들기 쉬웁곡 허난산디 우리 어무니넨 등절비 허드라게.(만들기 쉽고 해서인지 우리 어머니넨 '등절비' 하더라.)
112054 @ 아, 등절비.(아, '등절비'.)
112054 #1 송펜은 아니 허고.(송편은 안 하고.)
112054 @ 곤떡은?(흰떡은?)
112054 #1 곤떡은 동글랑헌 거.(흰떡은 동그란 거.)
112054 @ 동글랑헌 거. 등절비도 동글랑허지 안헙니까?(동그란 거. '등절비'도 동그랗지 않습니까?)
112054 #1 아니게.(아니.)
112054 @ 아니?(아니?)

112054 #1 건 영 동글랑헌 거더레 이제 쉬 놩.(건 이렇게 동그란 거에 이제 소 넣어서.)

112054 @ 예.(예.)

112054 #1 영 세미칠룩 더껑 그걸 영 ᄒᆞ꼼 주름치마칠룩 영 헤영 영 누르뜨는 거.(이렇게 '세미'처럼 덮어서 그걸 이렇게 조금 주름치마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

112054 @ 아, 영 동글랑헌 거민.(아, 이렇게 동그란 거면.)

112054 #1 이거 영 동글랑헌 거민이 이레 쉬 놩.(이거 이렇게 동그란 거면 이리 소 넣어서.)

112054 @ 예.(예.)

112054 #1 영 허영. 이칠룩 영 줍앙 영 허영 ᄒᆞ꼼 영 오그려.(이렇게 해서. 이처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오그려.)

112054 @ 예.(예.)

112054 #1 영 허영, 영 허영 똑 여기 꼭 누르뜨는 거.(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꼭 여기 꼭 누르는 거.)

112054 @ 아, 아. 이게.(아, 아. 이게.)

112054 #1 귀도 엇이. 이걸, 이런 귀가 엇주게. 영 허영 동글랑허게 허영 이디 놩 이젠 영 영 영 영 줍앙 이디 ᄒᆞ꼼 영 오그려.(귀도 없이. 이걸. 이런 귀가 없지.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해서 여기 놔서 이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여기 조금 이렇게 오그려.)

112054 @ 으. 귀 엇이 오그령.(으. 귀 없이 오그려서.)

112054 #1 영 ᄒᆞ꼼 오그령 요딜 꼭 허게 누르뜨주게. 요 손으로.(이렇게 조금 오그려서 요길 꼭 하게 누르지. 요 손으로.)

112054 @ 게민 이 등절비에는 쉬 놓기도 허고 안 놓기도 허고?(그럼 이 '등절비'에는 소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112054 #1 아니, 쉰 놔사.(아니, 소는 놔야.)

112054 @ 쉰 놔사.(소는 놔야.)

112054 #1 아이 놓지 못 헌다.(안 놓지 못 한다.)

112054 @ 세미떡에도 쉬 놔사?('세미떡'에도 소 놔야?)

112054 #1 으.(으.)

112054 @ 우에 곤떡은 그냥 동글랑허게만 본뜨고?(위에 흰떡은 그냥 동그랗게 본뜨고?)

112054 #1 어, 본떵 우터레 놔. 손으로 멘들던지.(어, 본떠서 위에 놔. 손으로 만들던지.)

112054 @ 예.(예.)

112054 #1 손으로 해 멘들앗주기게.(손으로 많이 만들었지.)

112054 @ 게민 나중에, 송편은 나중에 나온 것과?(그럼 나중에, 송편은 나중에 나온

겁니까?)

112054 #1 으, 송펜은 이 동촌[442]더레 시러레 그자 허연게 이젠 다 송펜덜 헌다게.(으, 송편은 이 동촌으로 시로 그저 해서 이젠 다 송편들 한다.)

112054 @ 으.(으.)

112054 #1 엿날은 송펜 허는 디 벨로 엇주기게.(옛날은 송편 하는 데 별로 없지.)

112054 @ 으. 게난 순서가 영 뒈는 거라예? 저기 반제펜[443] 놩, 제펜 놩 그리고 그 우이 뭐 놀 거?(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저기 '반제펜' 놔서, '제펜' 놔서 그리고 그 위에 뭐 놓을 거?)

112054 #1 세미. 아니, 저 인절미.('세미'. 아니, 저 인절미.)

112054 @ 인절미.(인절미.)

112054 #1 세미.('세미'.)

112054 @ 세미.('세미'.)

112054 #1 등절비.('등절비'.)

112054 @ 등절비.('등절비'.)

112054 #1 경헨 우이 곤떡.(그래서 위에 흰떡.)

112054 @ 우이 곤떡. 아, 게민 여섯 가지 놓는 거우다예? 우찍은 엇는 거고예?(위에 흰떡. 아, 그럼 여섯 가지 놓는 거네요? 웃기떡은 없는 거고요?)

112054 #1 으.(으.)

112054 @ 게민 식게 때 음식은 경 헷고.(그럼 제사 때 음식은 그렇게 했고.)

112053 #1 묵 지졍 꿰곡게.(묵 지져서 꿰고.)

112053 @ 묵 지졍, 묵은 무슨 묵?(묵 지져서, 묵은 무슨 묵?)

112053 #1 보리쏠 ᄀᆞ루로 묵은 지졋주게. 엿날 밀ᄀᆞ룰 셔사?(보리쌀 가루로 묵은 지졌지. 옛날 밀가루 있어야?)

112053 @ ᄆᆞ멀묵 안 허고?(메밀묵 안 하고?)

112053 #1 ᄆᆞ멀이 이딘 어려와낫저게.(메밀이 여긴 어려웠었어.)

112053 @ 어려와나난.(어려웠었어.)

112053 #1 경허난에 이젠 걸 허영 넉 점썩 꿰곡.(그러니까 이젠 걸 해서 넉 점씩 꿰고.)

112053 @ 예.(예.)

112052 #1 적갈허고. 엿날은 적갈 무신 바닷고기나, 우리 아바지넨 그 붉은 돔 허여당 게영거리 허고 꿰곡 헤라만은 옛날은 물꾸럭 적갈도 안 허더라게.(적하고. 옛날은 적무슨 바닷고기나, 우리 아버지네는 그 붉은 도미 해다가 갱거리 하고 꿰고 하더라만 옛날은 문어 적도 안 하더라.)

112052 @ 아.(아.)

112052 #1 이 저 뒈지고기나 허고 소고기나. 소고기 시민 허고 엇이민 뒈지고기로만

442) '동촌'은 동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443) '반제펜'은 제를 지낼 때 쓰는 시루떡을 만드는데, 한 쪽은 쌀가루로, 한 쪽은 좁쌀가루 등을 넣어 만든 것을 말한다.

허고.(이 저 돼지고기나 하고 소고기나. 소고기 있으면 하고 없으면 돼지고기로만 하고.)
112052 @ 뒈지고기로만 허고?(돼지고기로만 하고?)
112052 #1 으.(으.)
112052 @ 기민 우럭 허고예?(그럼 우럭 하고요?)
112052 #1 으.(으.)
112051 @ 콩지름은 어떵 헤낫수과, 콩지름? 콩나물?(콩나물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콩나물?)
112051 #1 콩ᄂᆞ물 이녁대로 놓는 사름은 놓고.(콩나물 자기대로 놓는 사람은 놓고.)
112051 @ 예, 저기 시루에서 콩ᄂᆞ물 키와.(예, 저기 시루에서 콩나물 키워.)
112051 #1 이 으름에 못 논 때 호박 보깡 탕쉬[444] 허고.(이 여름에 못 놓을 때 호박 볶아서 '탕쉬' 하고.)
112051 @ 아, 콩ᄂᆞ물 대신?(아, 콩나물 대신?)
112051 #1 으, 호박 ᄇᆞ깡.(으, 호박 볶아서.)
112051 @ 저기 콩ᄂᆞ물 시루에서 ᄒᆞ꼼 키와 봅서. 시루에서 키우젠 허민 어떵헤 콩ᄂᆞ물덜.(저기 콩나물 시루에서 조금 키워 보세요. 시루에서 키우려고 하면 어떡해, 콩나물들.)
112051 #1 콩ᄂᆞ물 물 웃졋단게.(콩나물 물 담갔다가.)
112051 @ 예.(예.)
112051 #1 자꾸 줘사주게. 뭐 더껑.(자꾸 줘야지. 뭐 덮어서.)
112051 @ 어디에 놩?(어디에 놔서?)
112051 #1 시루에서.(시루에서.)
112051 @ 예.(예.)
112051 #1 시리에 새 ᄀᆞᆯ아.(시루에 띠 깔아서.)
112051 @ 예.(예.)
112051 #1 콩ᄂᆞ물 그레 콩 물 웃진 거 놩.(콩나물 그리 콩 물 담근 거 놔서.)
112051 @ 으.(으.)
112051 #1 경허영 자꾸 아침ᄌᆞ냑 낮이영 물 줭 우인 뭐 더프주기게. 두꺼운 거.(그래서 자꾸 아침저녁 낮이랑 물 줘서 위에 뭐 덮지. 두꺼운 거.)
112051 @ 두꺼운 거.(두꺼운 거.)
112051 #1 ᄆᆞᆯ르지 못 허게.(마르지 못 하게.)
112051 @ 으.(으.)
112051 #1 경헨 자꾸 물만 주민 뒈주기게.(그래서 자꾸 물만 주면 되지.)
112051 @ 며칠이나 키우민 먹을 만큼 큽니까?(며칠이나 키우면 먹을 만큼 큽니까?)
112051 #1 ᄃᆞᆺ인 때사 자게 크주만은.(따뜻한 때야 재게 크지만.)
112051 @ 으.(으.)
112051 #1 더운 땐, 첨 이 언 땐 으라 날 키와사주.(더운 땐, 참 이 추운 땐 여러 날

444) '탕쉬'는 삶은 고사리나 콩나물 따위에 기름, 깨 등을 쳐서 만든 음식으로 주로 제사에 쓴다.

키워야지.)
112051 @ ᄋᆞ라 날.(여러 날.)
112051 #1 물 두루 주민 발 막 ᄋᆞ라 개로 나고.(물 덜 주면 발 아주 여러 개로 나고.)
112051 @ 으.(으.)
112051 #1 물을 막 ᄌᆞ주 주민 발 웨발로 허영 질게.(물을 아주 자주 주면 발 외발로 해서 질게.)
112051 @ 하하하. 아, 물 자주 안 주민 여라 발 나는 것과?(하하하. 아, 물 자주 안 주면 여러 발 나는 겁니까?)
112051 #1 어게. 박작허게 아래 나.(어. 박작하게 아래 나.)
112051 @ 겐 자기가 막 물 먹젠 발을 막 뻗는 거구나?(그래서 자기가 물 먹으려고 발을 마구 뻗는 거구나?)
112051 #1 어게, 경허난에 물 ᄌᆞ주 주민 굳짝허게. ᄑᆞ는 콩ᄂᆞ물도 마찬가지.(그래, 그러니까 물 자주 주면 곧게. 파는 콩나물도 마찬가지.)
112051 @ 아.(아.)
112051 #1 물 자꾸 줘사.(물 자주 줘야.)
112051 @ 경헤야.(그래야.)
112051 #1 ᄒᆞ루 멧 번이라도 물은 줘사주게.(하루 몇 번이라도 물은 줘야지.)
112051 @ 음. 아까 콩ᄂᆞ물은 경허영 키우는 거예? 게민 한 일주일이민 먹을 만큼 큽니까?(음. 아까 콩나물은 그렇게 키우는 거요? 그럼 한 일주일이면 먹을 만큼 큽니까?)
112051 #1 아니, ᄒᆞᆫ 열흘.(아니, 한 열흘.)
112051 @ 열흘.(열흘.)
112051 #1 언 땐 ᄒᆞᆫ 보름.(추울 땐 한 보름.)
112052 @ 겐 고기는 아까 뒈지고기라예?(그래서 고기는 아까 돼지고기지요?)
112052 #1 으.(으.)
112052 @ 바닷고기랑예?(바닷고기랑요?)
112052 #1 으.(으.)
112052 @ 바닷고기는 주로 뭐 헤낫수과?(바닷고기는 주로 뭐 했었습니까?)
112052 #1 바닷고기도 적갈 허는 건 돔 엿날은게.(바닷고기도 적 하는 건 도미 옛날은.)
112052 @ 돔으로도 적갈 헤낫수과?(도미로도 적 했었습니까?)
112052 #1 으, 우리 요.(으. 우리 요.)
112058 @ 국 끓여 먹는 거 아니고?(국 끓여 먹는 거 아니고?)
112058 #1 먼처 엿날은 막 큰 돔덜 황돔 셔나세게.(먼저 옛날은 아주 큰 도미들 황돔 있었어.)
112058 @ 으.(으.)

112058 #1 주낫 안 헐 때난.(주낙 안 할 때니까.)
112058 @ 으.(으.)
112058 #1 그런 거 나끄민 그거 옆 떼영.(그런 거 낚으면 그거 옆에 떼서.)
112058 @ 으.(으.)
112058 #1 옆이 건 적갈 허고. 데겡인 게영 허고.(옆에 건 적 하고. 머리는 갱 하고.)
112058 @ 게영 허고?(갱 하고?)
112058 #1 으.(으.)
112058 @ 갱국이 게영이과?('갱국'이 '게영'입니까?)
112058 #1 으, 게영국 맛 좋메. 경 큰 돔 헤영 끌리민.(으, 갱 맛 좋아. 그렇게 큰 도미 해서 끓이면.)
112058 @ 아, 머리는 게영 허고 옆에는 적 허고.(아, 머리는 갱 하고 옆에는 적 하고.)
112058 #1 으.(으.)
112052 @ 저기 페싸[445] 가지고 굽는 거는?(저기 '페싸' 가지고 굽는 거는?)
112052 #1 굽는 건 생성게.(굽는 건 옥돔.)
112052 @ 그것도 생성으로, 옥돔으로 허는 거?(그것도 옥돔으로, 옥돔으로 하는 거?)
112052 #1 으. 생성 아니민 우럭도 허는 사름이 싯나게.(으. 옥돔 아니면 우럭도 하는 사람이 있어.)
112052 @ 우럭도 허는 사름이 싯고. 적은 게난 두 종류? 쉐고기 못 헐 때는?(우럭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적은 그러니까 두 종류? 소고기 못 할 때는?)
112052 #1 으.(으.)
112052 @ 뒈지고기랑 바닷고기랑?(돼지고기랑 바닷고기랑?)
112052 #1 으.(으.)
112052 @ 두 종류 헤도 됩니까? 홀수로 안 헹?(두 종류 해도 됩니까? 홀수로 안 해서?)
112052 #1 아이고 엿날은게 홀수 무시거 헤사게. 혼 가지만도 헷주.(아이고 옛날은 홀수 무엇 해야. 한 가지만도 했지.)
112052 @ 뒈지고기만도 허고예?(돼지고기만도 하고요?)
112052 #1 으, 뒈지고기만 주로 헷주기게.(으, 돼지고기만 주로 했지.)
112052 @ 으, 뒈지고기예. 떡은 아까 여섯 종류였던 거? 여섯 종류 안 헤도 뒈는 거, 반제펜이랑 제펜은 그냥 ᄒᆞ나로 봐도 뒐 거지예?(으, 돼지고기요. 떡은 아까 여섯 종류였던 거? 여섯 종류 안 해도 되는 거, '반제펜'이랑 '제펜'는 그냥 하나로 봐도 될 거지요?)
112052 #1 으.(으.)
112055 @ 이거 다 못 채우난 놓는 거니까. 제펜 놓고 인절미 놓고 영 허는 거난. 과

445) '페쓰다'는 생선의 배를 가르는 것을 말한다. '베르싸다', '베카다', '페싸다'라고도 한다.

일은 뭐 헷수과, 과일은?(이거 다 못 채우니까 놓는 거니까. '제펜' 놓고 인절미 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과일은 뭐 했습니까, 과일은?)

112055 #1 엿날 과일이 뭐 셔시?(옛날 과일이 뭐 있어?)

112055 @ 뭐 셧수과, 과일은?(뭐 있었습니까, 과일은?)

112055 #1 몰라.(몰라.)

112055 @ 게도 하나는 올려실 거 아니?(그래도 하나는 올렸을 거 아니?)

112055 #1 사과게.(사과.)

112055 @ 사과예.(사과요.)

112055 #1 엿날 돌배 거튼 거 배.(옛날 돌배 같은 거 배.)

112055 @ 돌배?(돌배?)

112055 #1 돌배.(돌배.)

112055 @ 돌배는 집이서?(돌배는 집에서?)

112055 #1 육지서 경 이디 와샤?(육지서 그렇게 여기 왔니?)

112055 @ 으. 돌배는 집이서 키우는 사름도 잇어난?(으. 돌배는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었어?)

112055 #1 으, 셔난.(으, 있었어.)

112056 @ 채소는 뭐 헷수과?(채소는 뭐 했습니까?)

112056 #1 콩ᄂᆞ물게. 겨울에 콩ᄂᆞ물, ᄋᆞ름에 호박 보깡 탕수로.(콩나물. 겨울에 콩나물, 여름에 호박 볶아서 '탕수'로.)

112056 @ 으. 호박 보깡 탕수헷던 거예?(으. 호박 볶아서 '탕수'했던 거요?)

112056 #1 으, 콩ᄂᆞ물 ᄑᆞ는 디가 어디 시니, 엿날에. 이녁대로 다 놓멍.(으, 콩나물 파는 데가 어디 있니, 옛날에. 자기대로 다 놓으면서.)

112056 @ 고사린 안 허고?(고사리는 안 하고?)

112056 #1 고사리도 허고.(고사리도 하고.)

112056 @ 두 개예? 시금친 안 헷수과?(두 개요? 시금치는 안 했습니까?)

112056 #1 미나리나 어디 봐지민 미나리나.(미나리나 어디 보이면 미나리나.)

112056 @ 미나리 논에 강 어디 시민?(미나리 논에 가서 어디 있으면?)

112056 #1 으.(으.)

112058 메나 겡은 누게가 뜹니까?(메나 갱은 누가 뜹니까?)

112058 #1 당허는 냥 식게 임제도 잇곡게. 그 무신 사름 봉 허진 안허여.(당하는 대로 제사 임자도 있고. 그 무슨 사람 봐서 하지는 않아.)

112058 @ 메누리랑 시어머니가 잇이민 누게가 메 거리고?(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있으면 누가 메 뜨고?)

112058 #1 시어멍 메 거리주게.(시어머니 메 뜨지.)

112058 @ 시어머니가.(시어머니가.)

112058 #1 메누린 부름씨허고.(며느린 심부름하고.)

112058 @ 으, 부름씨허고.(으, 심부름하고.)

112058 #1 ᄒᆞ꼼 나이든 사름이 앚앙 거리주게.(조금 나이든 사람이 앉아서 뜨지.)

112059 @ 으. 제사 지낼 때 헌관이 뭐과?(으. 제사 지낼 때 헌관이 뭡니까?)

112059 #1 어?(어?)

112059 @ 제사 지내젠 허면 초헌관이 잇잖아예? 제지낼 때 보면.(제사 지내려고 하면 초헌관이 있잖아요? 제지낼 때 보면.)

112059 #1 건 남저덜. 제지낼만 헌 사름덜 다 그디서 알앙 남저덜이 누게 누게 절허고 누게랑 잔 허곡 허라 다 헹 헌다.(건 남자들. 제지낼만 한 사람들 다 거기서 알아서 남자들이 누구 누구 절하고 누가 잔 하고 해라 다 해서 한다.)

112059 @ 멧 사름이 잇어야 뒈여?(몇 사람이 있어야 돼?)

112059 #1 세 사름인가?(세 사람인가?)

112059 @ 세 사름? 절 허는 사름.(세 사람? 절 하는 사람.)

112059 #1 어.(어.)

112059 @ 술 따르는 사람.(술 따르는 사람.)

112059 #1 집사질 허는 사름.(집사질 하는 사람.)

112059 @ 집사질 허는 사름?(집사질 하는 사람?)

112059 #1 으.(으.)

112059 @ 게민 초헌관은 누게가 허는 것과?(그럼 초헌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112059 #1 으?(으?)

112059 @ 초헌관?(초헌관?)

112059 #1 초헌관 그런 거 뭣산디 나 아느냐? 우린 다 허영만 내치민.(초헌관 그런 거 뭐인지 내가 아니? 우린 다 해서만 내치면.)

112060 @ 으. 옛날에 파지는 멧 시에 헙니까?(으. 옛날에 파지는 몇 시에 합니까?)

112060 #1 열두어 시 뒈사.(열두어 시 되어야.)

112060 @ 열두어 시 뒈사.(열두어 시 되어야.)

112060 #1 제게 안 허드라.(재게 안 하더라.)

112060 @ 아.(아.)

112060 #1 ᄒᆞ못 우리 식게 먹으레[446] 가민 졸아왕 ᄒᆞ못 그 멧밥 ᄒᆞᆫ 직 얻어 먹이젠 그 졸아 가민 ᄒᆞ못 졸아왕 일리젠 허민 ᄒᆞ못.(사뭇 우리 제사 지내러 가면 졸려서 사뭇 그 메 한 숟갈 얻어 먹이려고 그 졸아 가면 사뭇 졸려서 일리려고 하면 사뭇.)

112060 @ 하하하, 아이덜 ᄀᆞ치. 게민 열두 시 뒈사 허는 거난 전날 허는 거라. 당일 바로 뒈자마자.(하하하, 아이들 같이. 그럼 열두 시 되야 하는 거니까 전날 하는 거야. 당일 바로 되자마자.)

112060 #1 이젠이 성당에 다니는 사름덜은 죽는 날 허는 따문 열 시만 뒈도 제서 파지허고 다 허는디 엿날 죽은 하르방덜은 니일이 죽으민 오널로 제설헤 비난.(이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죽는 날 하는 때문 열 시만 되도 제사 파제하고 다 하는데 옛날 죽은 할아버지들은 내일 죽으면 오늘로 제사해 버리니까.)

---

446) '식게 먹으러 가다'는 '제사 지내러 가다'의 의미다.

112060 @ 예.(예.)

112060 #1 경헤 비난 열흔 시가 넘어사 파지헌다.(그래 버리니까 열한 시가 넘어야 파제한다.)

112060 @ 열한 시가 넘어사.(열한 시가 넘어야.)

112060 #1 으. 이제도 우리 옛날 그 성당 안 믿어 죽은 하르방 제서헐 땐 저 열 한 시 넘어사 헌다.(으. 이제도 우리 옛날 그 성당 안 믿어 죽은 할아버지 제사 할 땐 저 열한 시 넘어야 한다.)

112060 @ 아.(아.)

112060 #1 이제도.(이제도.)

112060 @ 지금도예?(지금도요?)

112060 #1 으, 우리 아덜네도.(으, 우리 아들네도.)

112061 @ 문전제는 언제 지내는 것과?('문전제'는 언제 지내는 겁니까?)

112061 #1 문전젠[447] 이디 성당에 다니는 사름덜은 문전제 안 헌다.('문전제'는 여기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문전제' 안 한다.)

112061 @ 아, 안 혜여.(아, 안 해.)

112061 #1 경허민 문전제 ᄆᆞ녀 지내영 앗아베 뒁 식게 파지 헐 거.(그러면 '문전제' 먼저 지내서 가져 두고 제사 파제 할 거.)

112061 @ 맨 먼저예?(맨 먼저요?)

112061 #1 으.(으.)

112061 @ 게민 문전제는 집이 있는 신안티 지내는 거, 아니면?(그럼 '문전제'는 집에 있는 신에게 지내는 거, 아니면?)

112061 #1 건, 건 ᄀᆞ치 온 귀신덜 ᄆᆞ녀 보내 뒨 제지내는 셍이라.(건, 건 같이 온 귀신들 먼저 보내 두고 제지내는 모양이야.)

112061 @ 음. 그민 제사 먼저 헹 문전제 헹 거기 음식덜 조금씩.(음. 그럼 제사 먼저 해서 '문전제'해서 거기 음식들 조금씩.)

112062 #1 다 튿앙 허영 상 지와 둬사 제 파지 허여.(다 뜯어서 해서 상 지워 둬야 제 파제 해.)

112062 @ 경 헹 그 튿아 둔 건 어디 강 버립니까?(그렇게 해서 그 뜯어 둔 건 어디 가서 버립니까?)

112062 #1 저 올레레.(저 '올레'에.)

112062 @ 올레레 뿌리는 거?('올레'에 뿌리는 거?)

112062 #1 어, 저레 뿌렁 술짝 비와 불주게.(어, 저리 뿌려서 살짝 비워 버리지.)

112062 @ 으. 게민 그걸 뭐렌 헙니까, 음식 영 걷어내는 거?(으. 그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음식 이렇게 걷어내는 거?)

112062 #1 몰라 난 그건 잘.(몰라 난 그건 잘.)

112063 @ 그 막 식게허단 지제허잖아예. 지제는 몇 대에 허는 것과, 옛날에는?(그

447) '문전제'는 주로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아주 제사하다가 지제하잖아요. 지제는 몇 대에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112063 #1 ᄉᆞ대 헹 오대채 지제헤낫주게.(사대 해서 오대째 지제했었지.)

112063 @ 으.(으.)

112063 #1 경헌디 이젠이 이 엿날은 다 메우질, 어떵 허당이난 메우는디 이젠 다 펜안이덜 살젠게.(그런데 이젠 이 옛날은 다 모으질, 어떻게 하다가 모으는데 이젠 다 편안이들 살려고.)

112063 @ 으.(으.)

112063 #1 다 하르방 식게레, 다 할망 식게덜은 메우는 셍이라. 이젠 언매 오래지 안헤도.(다 할아버지 제사에, 다 할머니 제사들은 모으는 모양이야. 이젠 얼마 오래지 않아도.)

112063 @ 으.(으.)

112063 #1 경허난 우리 시어멍네도 올리 시아버지, 우리만 헤졈서라, 영 보난.(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네도 올해 시아버지, 우리만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112063 @ 으.(으.)

112063 #1 겨난 이제 시아버지 제서레 흔디 옵서 헨 이번이 마지막으로 헷주게.(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제사에 같이 오세요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했지.)

112063 @ 으.(으.)

112063 #1 경허민 이제 시아버지 식게에 ᄒᆞ루 허민 그자.(그러면 이제 시아버지 제사에 하루 하면 그저.)

112063 @ 게민 삼춘네는 시아버지 식게까지만 헴수과, 그 웃대에도 헴수과?(그럼 삼촌네는 시아버지 제사까지만 하고 있습니까, 그 윗대에도 하고 있습니까?)

112063 #1 웃대에 허단에이, 우린 족은아덜이난게.(윗대에 하다가, 우린 작은아들이니까.)

112063 @ 으.(으.)

112063 #1 족은아덜에 족은아덜이난.(작은아들에 작은아들이니까.)

112063 @ 아.(아.)

112063 #1 경헌디 우리 큰시아방 손지네도 부산 간 사난 성당 믿고 허난 남편 죽어불고 허난 다 지제허여 변. 우리 시하르방네. 그디서 허단.(그런데 우리 큰시아버지 손주네도 부산 가서 사니까 성당 믿고 하니까 남편 죽어 버리고 하니까 다 지제해 버렸어. 우리 시할아버지네. 거기서 하다가.)

112063 @ 예.(예.)

112063 #1 다 지제허고 우리 시어멍은 이제 우리 허단, 저 시할망은 우리 허단 새시어멍네가 시하르방 제설 허난 그레 메완에 이제 지제헤 베실 거라.(다 지제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 하다가, 저 시할머니는 우리 하다가 새시어머니네가 시할아버지 제사를 하니까 그리 모아서 이제 지제해 버렸을 거야.)

112063 @ 으, 그건 지제허고. 삼춘네도 이제 제서허는 거는 그거베끼 엇구나.(으, 그건 지제하고. 삼촌네도 이제 제사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구나.)

112063 #1 우리 시아방.(우리 시아버지.)

112063 @ 으.(으.)

112063 #1 시아방 시어멍 올리까진 헷주게. 겨난 이제 내년부턴 시아방만 ᄒᆞ루에.(시아버지 시어머니 올해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시아버지만 하루에.)

112063 @ 삼춘이 헴수과, 아덜이 헴수과?(삼촌이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하고 있습니까?)

112063 #1 아덜네 허멘게. 나 이제 헤지느냐? 다 늙은디.(아들네 하고 있어. 내가 이제 할 수 있니? 다 늙었는데.)

112063 @ 다 물련예?(다 물려서요?)

112063 #1 아덜네 허건 디 오래뒌. 하르방 산 때부터 다 줘 부난.(아들네 한 지 오래됐어. 할아버지 산 때부터 다 줘 버리니까.)

112063 @ 아, 남자 어른 산 때부터.(아, 남자 어른 살았을 때부터.)

112063 #1 으.(으.)

112064 @ 묘제는 언제 헙니까, 묘제?(묘제는 언제 합니까, 묘제?)

112064 #1 묘제는 우린 저 시에, 시에 고칩이 아파토도 산 싯고 돈도 싯고 허난 그디 묘지에 강 각 가지에서 다 돌아가멍. 돈 시난 그 돈에서 강 젯그릇만 다 다끄곡 다 내치곡 허민 그 문중에서가 다 돈을 내치멍 뻰또로 맞추왕.(묘제는 우린 저 시에, 시에 고씨 집의 아파트도 사서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거기 묘지에 가서 각 가지에서 다 돌아가면서. 돈 있으니까 그 돈에서 가서 제기만 다 닦고 다 내치고 하면 그 문중에서가 다 돈을 내치면서 도시락으로 맞춰서.)

112064 @ 도시락.(도시락.)

112064 #1 도시락으로 맞추왕. 모젠 허고 이제 그 아래에 그다음에 아래덜은 모제 안 허여. 이젠 제사 끗 헤 불민.(도시락으로 맞춰서. 묘제는 하고 이제 그 아래에 그다음에 아래들은 묘제 안 해. 이젠 제사 끝 해 버리면.)

112064 @ 으.(으.)

112064 #1 우린, 우리 집안은.(우린, 우리 집안은.)

112064 @ 게난 삼춘넨.(그러니까 삼촌네는.)

112064 #1 죽어도 귀향풀이[448]도 허는 거 엇고 우린.(죽어도 '귀향풀이'도 하는 거 없고 우린.)

112064 @ 삼춘네 고씨 집?(삼촌네 고씨 집?)

112064 #1 으.(으.)

112064 @ 으. 귀향풀이도 허는 거 엇고?(으. '귀향풀이'도 하는 거 없고?)

112064 #1 으. 이딘 죽어도 귀향풀이 허는 디 엇어.(으. 여긴 죽어도 '귀향풀이' 하는 데 없어.)

112065 @ 저기 제사헤 먹젠 허민 뭐 금기허거나 그런 거 잇수과?(저기 제사해 먹으

448) '귀향풀이'는 장례식을 마치고 심방을 불러서 망인의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가도록 굿을 하는 무속 의례를 말한다.

려고 하면 뭐 금기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112065 #1 엇어.(없어.)

112065 @ 엇어. 제사 잇이민 어디 가지 말아야 허잖아, 비린[449] 디, 영장난 디?(없어. 제사 있으면 어디 가지 말아야 하잖아, '비린' 데, 초상난 데?)

112065 #1 어. 영장난 디, 제 볼 사름덜게. 떡 헐 사름덜게.(어. 초상난 데, 제 볼 사람들은. 떡 할 사람들.)

112065 @ 으. 제 볼 사름덜, 떡 헐 사름덜 그런 디 가지 말아야 헐 거?(으. 제 볼 사람들, 떡 할 사람들 그런 데 가지 말아야 할 거?)

112065 #1 으.(으.)

112054 @ 제사 때 상웨떡은 안 헤낫수과?(제사 때 상화떡은 안 했었습니까?)

112054 #1 어?(어?)

112054 @ 상웨떡?(상화떡?)

112054 #1 삼메떡도 허연.(상화떡도 했어.)

112054 @ 여긴 삼메떡.(여긴 '삼메떡'.)

112054 #1 삼메떡도 허연 올려낫저만은이 이젠 더운디 삼메떡 허젠 헴사게?(상화떡도 해서 올렸었지만 이젠 더운데 상화떡 하려고 하니?)

112054 @ 아.(아.)

112054 #1 우린 삼메떡 헹 올려낫주게.(우린 상화떡 해서 올렸었지.)

112054 @ 게민 삼메떡 올리젠 허민 순서가 어떵 뒈?(그럼 상화떡 올리려고 하면 순서가 어떻게 돼?)

112054 #1 세미 인절미게.('세미' 인절미.)

112054 @ 게니까 제펜 먼저 올리고, 궬 때, 궬 때?(그러니까 '제펜' 먼저 올리고, 괼 때, 괼 때?)

112054 #1 궬 때 제펜 올리고 인절미 쭉 그 삼메떡으로 인절미 올리고.(괼 때 '제펜' 올리고 인절미 쭉 그 상화떡으로 인절미 올리고.)

112054 @ 아, 인절미로 삼메떡으로 허는 거?(아, 인절미로 상화떡 하는 거?)

112054 #1 어, 영 니귀 반득허게 올려, 멘들주게.(어,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올려, 만들지.)

112054 @ 예.(예.)

112054 #1 제서 때에. 그다음엔 이제 주전지 두께로 떵 거 반 끈으민 세미 뒈주기게.(제사 때에. 그다음엔 이제 주전자 뚜껑으로 떠서 거 반 끊으면 '세미' 되지.)

112054 @ 으.(으.)

112054 #1 경허민 그거 올리고. 경허영 글후젠 곤떡만 우터레 올리민 뒈는 거.(그러면 그거 올리고. 그래서 그 후엔 흰떡만 위에 올리면 되는 거.)

112054 @ 등절비, 상웨떡 헐 때 등절비 안 올렷수과?('등절비', 상화떡 할 때 '등절

449) '비리다'는 큰일을 앞두고 몸엣것을 하거나 꺼리어 피해야 할 송장이나 마소의 죽은 것 따위를 보고 몸이 부정하게 되다는 뜻이다.

비’ 안 올렸습니까?)

112054 #1 등절비 안 허여, 여름 때곡게. 인절미만 올리고.(‘등절비’ 안 해, 여름 때고. 인절미만 올리고.)

112054 @ 으, 인절미만 올리고. 게난 인절미를 곤떡으로 할 때도 있고.(으, 인절미만 올리고. 그러니까 인절미를 흰떡으로 할 때도 있고.)

112054 #1 으.(으.)

112054 @ 곤썰로 헐 때도 잇고 상웨떡으로.(흰쌀로 할 때도 있고 상화떡으로.)

112054 #1 으, 삼메떡으로. 그 삼메떡 헐 때는 빵 헤영이 막걸리 사단 놓고. 나도 삼메떡은 맛좋게 헤낫저.(으, 상화떡으로. 그 상화떡 할 때는 빵 해서 막걸리 사다가 넣고. 나도 상화떡은 맛있게 했었어.)

112054 @ 예.(예.)

112054 #1 막 소문 나낫저게. 떡 떡 잘 찌민이, 밀ᄀᆞ루떡 잘 찌민 손에도 안 부터, 멘들 때에. 겐 난 저디 가메솟 큰 거 앚젼 헤낫저만은 이젠 가메솟도 다 줘 빌고. 경헤도 이제 떡 치는 걸로 허여근에 멘들민 막 맛좋덴 허연근에 먹나만은, 나 더웁곡이. 경 안허민 멩질에라도 헹 가민 메누리덜이라도 잘 먹주만은 나 실펀 못 허켜.(아주 소문 났었어. 떡 떡 잘 찌면, 밀가루떡 잘 찌면 손에도 안 붙어, 만들 때에. 그래서 난 저기 가마솥 큰 거 앉혀서 했었지만 이젠 가마솥도 다 줘 버리고. 그래도 이제 떡 찌는 걸로 해서 만들면 아주 맛있다고 해서 먹지만, 내가 덥고. 그렇지 않으면 명질에라도 해서 가면 며느리들이라도 잘 먹지만 내가 귀찮아서 못 하겠어.)

112054 @ 하하. 게민 삼춘은 제펜 치멍도 실패 안 허영 잘 쳐낫구나예?(하하. 그럼 삼촌은 ‘제펜’ 찌면서도 실패 안 하고 잘 쪘었군요?)

112054 #1 ᄀᆞᆯ로루 제펜 쳐낫주게. 경허고 삼메떡도 곱게 잘 멘들아낫주게. 밀ᄀᆞ루도 우리 두 푸대썩 제서에 헤낫저. 제펜 허고 침떡 허영 ᄂᆞ눤, 동네에. 저 중ᄒᆞ교 살 때난 그 동넨 다 ᄂᆞ눳주게.(골고루 ‘제펜’ 쪘었지. 그리고 상화떡도 곱게 잘 만들었었지. 밀가루도 우리 두 포대씩 제사에 했었어. ‘제펜’ 하고 시루떡 해서 나눴어, 동네에. 저 중학교 살 때니까 그 동네는 다 나눴지.)

112054 @ 아.(아.)

112054 #1 경허민 삼메떡이 맛좋덴 막 우리 ᄉᆞ춘 아주방도 ᄉᆞ못 나 헌 삼메떡이엔 허민. 우리 족은아바지도 우리 시아방 초이틀날 제서허영 삼메떡 거져가난 우리 족은아방도 막 아판 헐 때주게. 아이구, 넌 삼메떡도 맛좋게 잘 허연 나 첨 잘 먹엇저 헌 게 아이쿠 뒷내날 오꼿 죽어 벤.(그러면 상화떡 맛있다고 아주 우리 사촌 아주버니도 사뭇 내가 한 상화떡이라고 하면. 우리 작은아버지도 우리 시아버지 초이튿날 제사해서 상화떡 가져가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도 많이 아파서 할 때지. 아이고, 넌 상화떡도 맛있게 잘 해서 나 참 잘 먹었어 한 게 아이쿠 뒷날 그만 죽어 버렸어.)

112054 @ 그 삼메떡을 혼 번 만들어 보십서. 어떵 만들어낫수과 삼메떡?(그 상화떡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었습니까, 상화떡?)

112054 #1 삼메떡. 막걸리 사단이 냉장고에 놓지 말앙 베꼇디 놧당 이젠 그 막걸리

비와 놓고 물 ᄒᆞ꼼 매지그랑이 데와. 데와근에 그것에 그 떡에 맞게 ᄀᆞ루에 맞게 물 ᄒᆞ꼼 놓고 우유, 우유 하나 사다 놓고.(상화떡. 막걸리 사다가 냉장고에 넣지 말고 밖에 놨다가 이젠 그 막걸리 비워 넣고 물 조금 미지근하게 데워. 데워서 그것에 그 떡에 맞게 가루에 맞게 물 조금 넣고 우유, 우유 하나 사다 넣고.)

112054 @ 으.(으.)

112054 #1 경허여근에 베이킹파우다 ᄒᆞ꼼 놓고 이제 설탕, 설탕 놔근에 뭣 허건 뉴슈가라도 ᄒᆞ꼼 놩 걸 근 맞게 소금 ᄒᆞ꼼 놓곡 헹 젓어. 경허영 베이킹파우다 영허영 캉영 놓민 그것이 게끔 북깍허멍 박삭[450] 올라와. (그래서 베이킹파우더 조금 넣고 이제 설탕, 설탕 놔서 뭐 하면 뉴슈가라도 조금 놔서 걸 간 맞게 소금 조금 넣고 해서 저어. 그래서 베이킹파우더 이렇게 타서 이렇게 넣으면 그것이 거품 보각보각하면서 '박삭' 올라와.)

112054 @ 으.('으'.)

112054 #1 경허여사 떡 찌민 맛이 셔. 잘 부껑. 삼메떡 허영 아이 부끄민 맛데강이가 엇주게. 경허영 찌여근에 저 물르 듯허게 말앙 물르 듯허게 찌영 놩 놔두민 것이 박삭이 부끄주게.(그래야 떡 찌면 맛이 있어. 잘 부풀어서. 상화떡 해서 안 부풀면 맛대가리가 없지. 그래서 쪄서 저 무른 듯하게 말아서 무른 듯하게 쪄서 놓아 놔두면 것이 '박삭이' 부풀지.)

112054 @ 밀가루 반죽헹 부끄게 놔두는 거 아니?(밀가루 반죽해서 부풀게 놔두는 거 아니?)

112054 #1 으, 게난 다라에 부껑 우이 비니루 더껑 뭐 담요라도 더껑 놔두민 부각이 올라오민 그땐 또 찌멍 멘들아. 경허영 솟더레 놩 치민게 북삭북삭[451]. 경허영.(으, 그러니까 다라이에 부풀어서 위에 비닐 덮어서 뭐 담요라도 덮어서 놔두면 보각하게 올라오면 그땐 또 찌면서 만들어. 그래서 솥에 놔서 찌면 '북삭북삭'. 그래.)

112054 @ 예, 맛좋구다.(예, 맛있겠네요.)

450) '박삭'은 풀 등이 사아가 촘촘하게 아주 많이 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여기서는 거품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나타냈다.

451) '북삭북삭'은 삶은 고구마나 빵 따위가 말랑말랑한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6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9년 12월 24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